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

일러두기

❁ 사전의 전체 구성

1. 『한국세시풍속사전』은 정월편, 계절 세시편(봄 · 여름 · 가을 · 겨울), 부록 및 색인편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월편은 일년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권하였고, 계절 세시편의 경우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었다. 봄편은 음력으로 2월, 3월에 해당하고 여름편은 4월, 5월, 6월에 해당한다. 가을편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하고 겨울편은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한다. 윤달은 겨울편에 배속시켰다. 부록 및 색인편은 마지막권으로 분류하였다.

❁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 선정 범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세시풍속은 물론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만들어진 세시풍속을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라 함은『한국세시풍속사전』에 독립 항목으로 등재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표제어는 5층위로 나누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의 층위는 표제어의 크기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1층위 표제어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다.
      나. 2층위 표제어는 1월, 2월, 3월……12월, 윤달 등이다.
      다. 3층위 표제어는 정일(正日), 절기(節氣), 월내, 생업, 현대세시 등에 해당하는 표제어이다.
      라. 4층위의 표제어는 정일, 절기 등 3층위 표제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시행위를 말하며 이칭, 의례, 속신, 복식, 절식, 놀이, 구비전승 등을 말한다.
      마. 5층위 표제어는 4층위 표제어의 하위항으로 주로 지역적인 양상과 관련된 표제어이다.
   3) 각 층위 속에서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다.

❁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때 썼다. 주로 방언이나 비표준어로 나타나는 유의어를 뜻풀이할 때 표기하였다. 시의 제목이나 노래 제목에도 사용하였다. 단, 가운뎃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낫표『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표「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괄호[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와 어려운 한자어를 본문에서 풀어쓰고 본디 음을 한자로 병기할 때, 그리고 ( ) 밖에 또다시 괄호를 넣어줘야 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6) 소괄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줄임표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8)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그리고 특정의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하였다.

(9)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문장을 마칠 때 표기하였다.

(10) 물결표 ~: '내지' 라는 뜻을 나타낼 때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음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고 가급적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를 피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우리말로 썼다.

2. 용어 및 인명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단, 표기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는 관련 학술기관의 용례집에 따르고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3.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를 밝혔다.

❁ 참고 사항

1.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은 정월편, 봄편, 여름편, 가을편과는 사진의 디자인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했다. 정월편의 경우는 원고매수가 많아 분량의 늘어남을 감안하여 사진의 크기를 작게 했던 반면에 가을편의 경우는 이미 발간된 사전보다는 사진의 크기를 다소 크게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였고, 겨울편에서는 여백을 활용함으로써 사진의 이미지를 좀더 강조하였다.
2. 양력세시의 표제어에 보면 음력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양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음력 10월에 행하는 남이장군사당제 표제어가 11월 양력세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양력세시 가운데 빼빼로데이와 같은 현대세시는 모두 봄편의 발렌타인데이 표제어에서 설명하고 있다. 발렌타인데이는 외래어 표기법상 밸런타인데이가 맞지만 봄편의 표제어 표기에 따른다.
3. 이 사전의 색인에서는 독자들이 좀더 찾기 쉽도록 표제어와 해당 쪽수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4. 표제어의 (-) 줄표시는 두 글자 이하일 경우에는 짧게 표기하고 세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길게 표기하였다.

❁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권말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차 례

일러두기 …… 02

겨울(冬) …… 10

겨울(冬) …… 12
기후(氣候) …… 12
동물(動物) …… 14
생업(生業) …… 18
세시풍속(歲時風俗) …… 20
식물(植物) …… 24

Ⅰ. 시월[十] …… 28

10월(十月) …… 30
이칭 개동(開冬) …… 35
곤월(坤月) …… 35
동난(冬暖) …… 35
동훤(冬暄) …… 35
맹동(孟冬) …… 35
방동(方冬) …… 36
상달[上月] …… 36
상동(上冬) …… 36
소양춘(小陽春) …… 37
소춘(小春) …… 37
양월(良月) …… 37
양월(陽月) …… 38
응종(應鍾) …… 38
조동(肇冬) …… 38
초동(初冬) …… 38
초설(初雪) …… 39
초한(初寒) …… 39
해월(亥月) …… 39

Ⅱ. 정일( ) …… 40

말날[午日] …… 42
이칭 무오말날[戊午-] …… 43
상마일(上馬日) …… 43
의례 마구간고사(馬廐間告祀) …… 43
속신 무떡먹기 …… 44
놀이 청황패놀이(靑黃牌-) …… 44

하원(下元) …… 45
속신 하원달점[下元月占] …… 45

손돌날[孫乭日] …… 46
이칭 뱃사공얼어죽은날 …… 47
의례 손돌제(孫乭祭) …… 48
속신 손돌풍(孫乭風) …… 48

Ⅲ. 절기(氣) …… 50

입동(立冬) …… 52
속신 입동보기(立冬-) …… 53
구비전승 9월 입동 오나락이 좋고
10월 입동 늦나락이 좋다 …… 53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 53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 … 54

소설(小雪) …… 55

Ⅳ. 월내(內) …… 56

의례 귀표고사[耳標告祀] …… 58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 58
대자재천왕제(大自在天王祭) …… 65
도신(禱神) …… 68
묘사(墓祀) …… 68
묘제(墓祭) …… 70
문소전제(文昭殿祭) …… 70
상달고사[上月告祀] …… 71
상산제(上山祭) …… 74
서경팔관회(西京八關會) …… 74
성주고사(城主告祀) …… 75
시제(時祭) …… 75
시향(時享) …… 79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 …… 79
안택(安宅) …… 80
여제(厲祭) …… 80

일산동당제(별신굿)[日山洞堂祭(別神-)] …… 80
종묘대제(宗廟大祭) …… 82
향산제(香山祭) …… 83
향음주례(鄕飮酒禮) …… 83
협제(祫祭) …… 85
속신 무뿌리점 …… 87
부엉이울음점 …… 87
첫눈먹기 …… 88
절식 밀단고(蜜團餻) …… 89
변씨만두(卞氏饅頭) …… 89
시루떡 …… 90
신선로(神仙爐) …… 91
애탕(艾湯) …… 92
연포탕(軟泡湯) …… 92
열구자탕(悅口子湯) …… 93
타락죽(駝酪粥) …… 93
놀이 난로회(煖爐會) …… 94
구비전승 시사(時祀)떡 나누어 먹듯 한다 …… 95
시월 보름사리 물이 정월 보름사리 물보고
사돈하자 해도 마다한다 …… 95
10월 시제 때 치는 �뀌다 해도 한다 … 95
시월 초하룻날이 따뜻하면
서울놈 휘양 팔아버린다 …… 95

Ⅴ. 생업(生業) …… 96

농업 무배추수확 …… 98
잡사 김장 …… 98
메주쑤기 …… 102
소곡주담그기 …… 105

Ⅵ. 양력세시 …… 108

국경일 개천절(開天節) …… 110
한글날 …… 111
기념일 경찰의 날(警察-) …… 113
교정의 날(矯正-) …… 114
국군의 날(國軍-) …… 115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 …… 116
노인의 날(老人-) …… 116
문화의 날(文化-) …… 118
재향군인의 날(在鄕軍人-) …… 118
저축의 날(貯蓄-) …… 118
체육의 날(體育-) …… 119
현대세시 레드데이(Red Day) …… 119
애플데이(Apple Day) …… 119
와인데이(Wine Day) …… 119
축제 강원감영제(江原監營祭) …… 120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 …… 121
고창모양성제(高敞牟陽城祭) …… 123
동래읍성역사축제(東萊邑城歷史祝祭) … 126
백제문화제(百濟文化祭) …… 128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 …… 134
소가야문화제(小伽倻文化祭) …… 141
소금강청학제(小金剛靑鶴祭) …… 142
수원화성문화제(水原華城文化祭) … 142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 …… 14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安東國際-) … 147
안동민속축제(安東民俗祝祭) …… 149
의암주논개대축제(義巖朱論介大祝祭) … 150
익산서동축제(益山薯童祝祭) …… 152
정선아리랑제(旌善-祭) …… 153
진주민속소싸움대회(晉州民俗-大會) … 155
처용문화제(處容文化祭) …… 157
탐라문화제(耽羅文化祭) …… 159
태백제(太白祭) …… 162

Ⅰ. 십일월(十　　) …… 164

11월(十一月) …… 166

이칭 가월(葭月) …… 170
고월(辜月) …… 171
기한(祈寒) …… 171
남지(南至) …… 171
동짓달[冬至月] …… 172
복월(復月) …… 172
설한(雪寒) …… 172
신양(新陽) …… 173
양복(陽復) …… 173
오동짓달 …… 173

차 례

응호(凝冱) ····· 173
자월(子月) ····· 174
정동(正冬) ····· 174
중동(仲冬) ····· 174
지월(至月) ····· 174
지한(至寒) ····· 175
지호(至冱) ····· 175
창월(暢月) ····· 175
황종(黃鍾) ····· 175

II. 절기(節氣) ····· 176

대설(大雪) ····· 178

동지(冬至) ····· 179
이칭 노동지(老冬至) ····· 182
병동지(丙冬至) ····· 182
수세(首歲) ····· 182
아세(亞歲) ····· 182
애동지[兒冬至] ····· 183
이장(履長) ····· 183
작은설[亞歲] ····· 184
중동지(中冬至) ····· 184
지일(至日) ····· 184
호랑이장가가는날 ····· 184
의례 동지고사(冬至告祀) ····· 185
동지불공(冬至佛供) ····· 186
동지책력(冬至冊曆) ····· 186
동지첨치(冬至添齒) ····· 187
동지하례(冬至賀禮) ····· 188
동지헌말(冬至獻襪) ····· 188
문소전제(文昭殿祭) ····· 189
속신 날짐승점 ····· 189
동지부적(冬至符籍) ····· 190
문신부적(門神符籍) ····· 191
새알심점 ····· 191
용경(龍耕) ····· 191
팥죽뿌리기 ····· 192
팥죽점 ····· 193
절식 동지팥죽 ····· 194
전약(煎藥) ····· 195
놀이 풍등놀이(風燈-) ····· 196
구비전승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 197
동지 때 개딸기 ····· 198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다 ····· 198
배꼽은 작아도 동지팥죽은 잘 먹는다 ··· 198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 ····· 198
새알 수제비 든 동지팥죽이다 ····· 199

III. 월내(月內) ····· 200

의례 마보제(馬步祭) ····· 202
삼성혈제(三姓穴祭) ····· 202
유천동산신제(柳川洞山神祭) ····· 204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 208
청어천신(靑魚薦新) ····· 211
황감제(黃柑製) ····· 213
속신 동짓달스무날달보기 ····· 213
절식 골동면(骨董麵) ····· 214
냉면(冷麵) ····· 215
동치미 ····· 216
장김치(醬-) ····· 217

IV. 양력세시 ····· 218

기념일 농업인의 날(農業人-) ····· 220
무역의 날(貿易-) ····· 220
소방의 날(消防-) ····· 221
순국선열의 날(殉國先烈-) ····· 222
학생독립운동기념일(學生獨立運動記念日) ··· 223
현대세시 무비데이(Movie Day) ····· 224
빼빼로데이(-Day) ····· 224
오렌지데이(Orange Day) ····· 224
쿠키데이(Cookie Day) ····· 224
축제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 224

Ⅰ. 십이월(十　　) ····· 230

12월(十二月) ····· 232
이칭 가평(嘉平) ····· 236
계동(季冬) ····· 236
궁기(窮紀) ····· 236
궁동(窮冬) ····· 236
궁임(窮稔) ····· 237
궁호(窮冱) ····· 237
납월(臘月) ····· 237
대려(大呂) ····· 238
도월(涂月) ····· 238
막달[末月] ····· 239
만동(晩冬) ····· 239
모동(暮冬) ····· 239
모세(暮歲) ····· 239
모절(暮節) ····· 239
빙월(氷月) ····· 240
사월(蜡月) ····· 240
서웃달 ····· 240
섣달 ····· 241
세초(歲杪) ····· 241
썩은달 ····· 241
엄월(嚴月) ····· 242
절계(節季) ····· 242
제월(除月) ····· 242
청사(淸祀) ····· 242
초동(杪冬) ····· 243
축월(丑月) ····· 243
혹한(酷寒) ····· 243

Ⅱ. 정일(　　) ····· 244

나막신쟁이의 날 ····· 246

납일(臘日) ····· 246
이칭 납평(臘平) ····· 248
의례 납약진상(臘藥進上) ····· 248
납향(臘享) ····· 248
문소전제(文昭殿祭) ····· 250
사직대제(社稷大祭) ····· 250
종묘대제(宗廟大祭) ····· 250
속신 납설수(臘雪水) ····· 250
납향엿먹기(臘享-) ····· 250
참새잡이 ····· 250
절식 납육(臘肉) ····· 250
납평전골(臘平-) ····· 250

신구간(新舊間) ····· 251

섣달그믐 ····· 253
이칭 궁랍(窮臘) ····· 256
눈썹세는날 ····· 257
세경(歲竟) ····· 257
세말(歲末) ····· 257
세모(歲暮) ····· 258
세밑(歲 -) ····· 258
세제(歲除) ····· 258
세종(歲終) ····· 259
세진(歲盡) ····· 259
세흘(歲訖) ····· 259
앙광이귀신내려온날 ····· 259
연말(年末) ····· 260
연모(年暮) ····· 260
연종(年終) ····· 260
제석(除夕) ····· 260
제야(除夜) ····· 261
제일(除日) ····· 261
의례 귀성(歸省) ····· 261
나례(儺禮) ····· 261
망년과세(忘年過歲) ····· 263
묵은세배[舊歲拜] ····· 264
벽온단진상(辟瘟丹進上) ····· 265
연종방포(年終放砲) ····· 265
속신 경신수야(庚申守夜) ····· 265
과일나무에 시루물주기 ····· 265
귀신달구기 ····· 266
달걀먹기 ····· 267
도깨비모시기 ····· 267

차 례

동백꽃목욕 …… 268
메산 …… 268
별세(別歲) …… 268
불밝히기 …… 268
세포(歲砲) …… 268
수세(守歲) …… 269
윷점[柶占] …… 270
조수점(潮水占) …… 270
촛농점[燭膿占] …… 271
키점[箕占] …… 271
복식 까치두루마기 …… 271
오방장두루마기(五方丈-) …… 273
절식 골동반(骨董飯) …… 273
놀이 널뛰기[跳板戱] …… 274
농주(弄珠) …… 274
등불써기놀이 …… 276
여도판희(女跳板戱) …… 278
윷놀이[柶戱] …… 278
저포희(樗蒲戱) …… 278
처용무(處容舞) …… 279
폭죽(爆竹) …… 281
구비전승 눈이면 다 제석(除夕) 눈이냐 …… 282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 282
섣달 그믐날 시루 얻으러 가다니 …… 282
섣달 그믐날은 부지깽이도 꿈틀거린다 … 283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 283
섣달그믐이면 나갔던
빗자루도 집 찾아온다 …… 283

III. 절기(氣) …… 284

소한(小寒) …… 286
구비전승 소대한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말랬다 …… 286
소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잡놈 없다 … 287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 287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 288

대한(大寒) …… 289
구비전승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 289

IV. 월내(內) …… 290

의례 고성사당제(高城祠堂祭) …… 292
기설제(祈雪祭) …… 292
사한제(司寒祭) …… 293
세의(歲儀) …… 295
세초(歲抄) …… 295
장빙제(藏氷祭) …… 296
칠사(七祀) …… 296
속신 겨울천둥 …… 296
고드름점 …… 297
눈점[多雪占] …… 297
해초점(海草占) …… 298
복식 난모(暖帽) …… 299
절식 가자미식해(-食醢) …… 301
감제떡[甘醍-] …… 302
골무떡 …… 303
메밀묵 …… 303
묵물죽 …… 304
생치만두(生雉饅頭) …… 305
안동식혜(安東食醯) …… 305
족편(足片) …… 306
놀이 가락지찾기놀이 …… 306
궐희(闕戱) …… 307
눈싸움놀이[雪戰] …… 308
다리세기놀이 …… 308
뚜럼놀이 …… 310
매사냥[放鷹] …… 311
못치기 …… 313
사냥놀이 …… 314
썰매타기 …… 315
잉어놀이 …… 316
제기차기 …… 316
지게발걷기 …… 319
축국(蹴鞠) …… 319
팽이치기 …… 322
구비전승 물레질노래 …… 323
베짜기노래 …… 325
갯 겨울 가뭄에 김 고장으로
딸 시집보낸다 …… 326
겨울 가죽옷이다[冬日麑裘] …… 327

겨울 날씨와 양반은 한갖 고달이 있다 … 327
겨울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 …… 327
겨울 따슨 해 보리 굼벵이 자른다 …… 327
겨울바람이 봄바람보고 춥다고 한다 …… 328
겨울밤이 길다 해도
내 새끼끈만은 못하다 …… 328
겨울 베옷도 안 입은 것보다 낫다 …… 328
겨울 보리밭은 밟을수록 좋다 …… 328
겨울 새벽에 개똥 줍는다 …… 329
겨울 소 값은 떨어지고
봄 소 값은 오른다 …… 329
겨울 소 팔자다 …… 329
겨울에 베옷이다 …… 330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 …… 330
겨울이 돼서야 솜옷을 장만한다 …… 330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 331
겨울철 안개에는 해동비가 내린다 … 331
겨울 화롯불은 어머니보다 낫다 …… 331
김장은 겨울철의 반 양식 …… 332
눈 온 뒷날은 거지가 빨래를 한다 …… 332
동지섣달에는 닭서리다 …… 332
동지섣달 해는 노루꼬리만 하다 …… 333
섣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 … 333
해태 철에는 개도
백원짜리 물고 다닌다 …… 333

V. 생업(生業) …… 334

농업 방아찧기 …… 336
종자보관(種子保管) …… 337
어업 가오리잡이 …… 337
가자미잡이 …… 339
넙치잡이 …… 341
잡사 우금해제(牛禁解除) …… 343

VI. 양력세시 …… 344

기념일 소비자의 날(消費者-) …… 346
현대세시 머니데이(Money Day) …… 346
성탄절(聖誕節) …… 346
양말데이(-Day) …… 349
허그데이(Hug Day) …… 349

I. 윤달[ ] …… 350

윤달[閏月] …… 352
이칭 가욧달 …… 353
공짜달 …… 354
그저달 …… 354
남은달 …… 354
덤달 …… 354
없는달 …… 354
여벌달 …… 355
우외달 …… 355
윤동짓달[閏冬至月] …… 355
윤사월(閏四月) …… 355

II. 월내(內) …… 356

의례 삼사순례(三寺巡禮) …… 358
예수재(預修齋) …… 358
놀이 답성놀이(踏城-) …… 360
성밟기(城-) …… 362
구비전승 윤달 든 회양목인가 …… 362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 …… 362
윤동짓달 스무하룻날 주겠다 …… 363
윤섣달은 앉은 방석도 안 돌려놓는다 …… 363
윤이월 제사냐 …… 363
흉년에 윤달 든다 …… 363

III. 생업(生業) …… 364

잡사 머농짓기 …… 366
수의만들기(壽衣-) …… 366

색인 ……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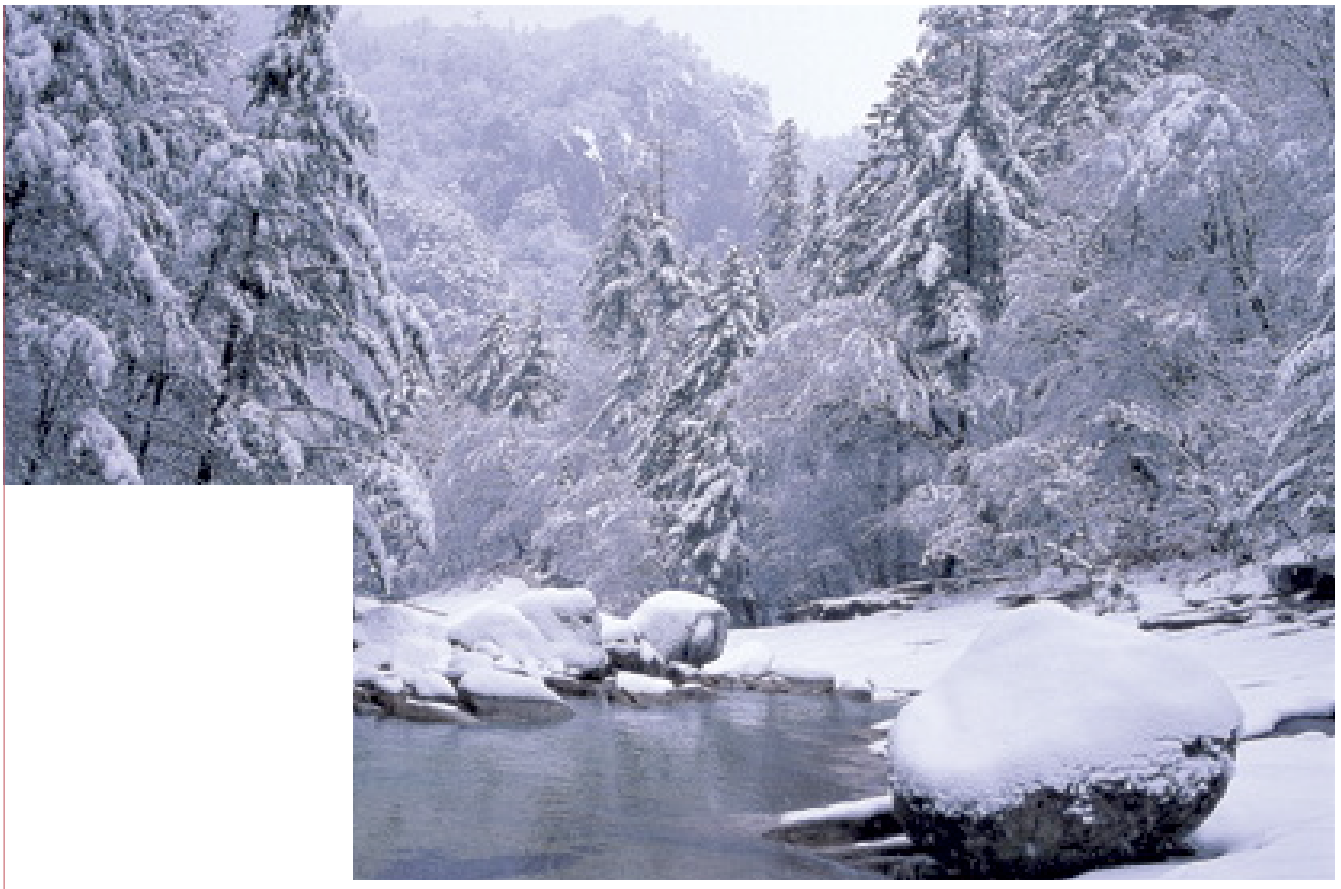




冬

겨울

겨울의 대표적인 명절은 동지이다.
다른 달처럼 고사를 지내거나
큰 굿을 하며
풍년을 이루게 해 준
하늘에 감사를 드렸다.
벼농사 수확을 마치면
신에게 감사의 뜻을 바치는
천신제(新)를
지내기도 하였다.
겨울은 일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다.



겨울 풍경 김진열

기후(氣 候)

천문학적인 정의로 겨울은 양력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다. 음력으로는 10월, 11월(동짓달), 12월(섣달)의 석 달 동안으로 윤월(閏月)의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한 해의 마지막 석 달이 겨울에 해당한다. 생물학적인 계절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하여 겨울로 종료되는 셈이다. 절기로는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이 겨울에 속한다.

겨울 동(冬)은 끈으로 만든 매듭 형상으로 계절의 끝을 의미하며, 추위의 상징인 얼음 빙(氷)이 조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겨울은 마지막, 죽음, 암흑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암시하기도 한다. 겨울 추위로 이듬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기도 하였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면 풍년, 이상난동(異常暖冬)이면 흉년을 예상하였다. 또 조상에게 묘제(墓祭)를 올리는 시제(時祭)를 지내는 시기이기도 하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로 겨울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통과의례로서 겨울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겨울은 오행(五行) 가운데에서는 수(水)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북(北), 오색(五色)으로는 검정[黑]에 해당한다.

기상학적인 계절 구분에 의하면 겨울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겨울철 동안 시베리아 고기압에 대응하는 정체성 저기압이 알류샨 열도 부근에 자리 잡는다. 따라서 겨울철 한반도와 인근의 기압 배치는 서고동저(西高東低)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기압 배치는 한반도 인근에서 강한 북서풍을 유발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방출되는 공기가 서해를 건너면서 하부의 따뜻한 해면으로부터 수증기를 받아들여 변질된다. 이렇게 변질된 공기가 서해를 통과한 후 한반도의 서해안에 도달하면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을 내린다.

그러나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의 북쪽으로 확장하는 경우 북고남저(北高南低)의 기압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부근에서 북동풍이 부는 수가 있다. 이때는 남서 해안은 맑은 날이 되지만, 동해안 지역 특히 강원도 강릉과 속초에는 많은 눈이 오게 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북서 바람이 강할 때, 울릉도 지역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 많은 눈이 내린다. 이는 주위 해양의 따뜻한 해수면의 영향으로 상부의 차가운 공기가 변질되어 많은 습기를 포함한 상태에서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변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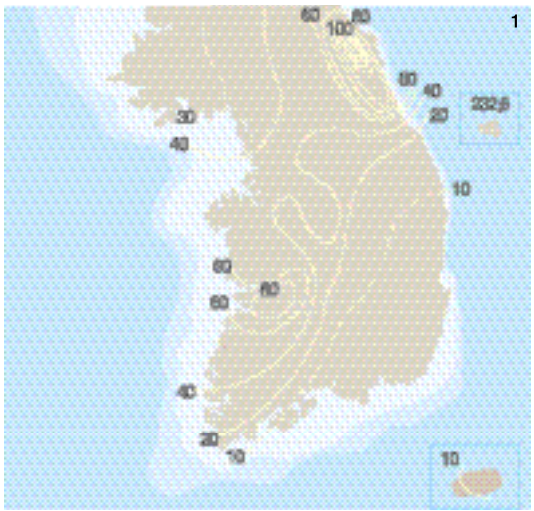
겨울철이 추위로 대표되는 만큼 우리는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시베리아로부터 유입되는 한랭 건조한 공기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강약에 따라 강도가 결정된다. 예부터 한반도의 기온은 일주일 정도의 주기성을 가지고 변동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9일 동안 추운 시기와 따뜻한 시기가 대체로 비슷한 횟수로 번갈아가며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삼한사온은 엄밀한 기상 관측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온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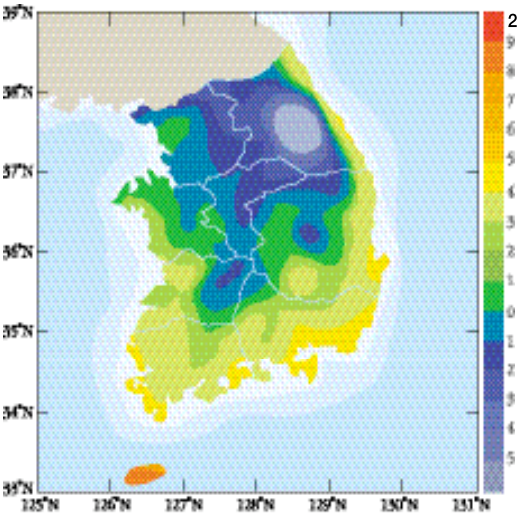
기온이 24시간 이내에 10도 이상 하강하는 경우를 한파(寒波)로 정의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쪽으로 동진하여 확장함에 따라 한파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동절기의 강한 바람은 강화도의 손돌목[孫乭項] 같은 설화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한반도에서도 전 계절에 걸쳐 나타나지만 겨울철 최저 기온의 상승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겨울 기온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남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전 지구적인 대류권 하층 기온 상승 현상이 한반도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밖에 기온 상승의 요인으로 도시화를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는 과거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도시에만 국한되는 독특한 기후를 만들게 되었다. 도시 기후와 관련하여 열섬현상(Heat Island Effect)을 거론하는데 일반적으로 추운 계절에 열섬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열섬은 도시 지역의 기온이 도시 주위의 근교 기온보다 더 높은 현상을 일컫는다. 겨울철 기온 변화 중에서도 최저 기온의 상승이 가장 뚜렷하다. 이것의 원인으로 도시의 건물 밀집으로 인한 먼지 증가, 습도 감소, 바람 억제, 난방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겨울철은 대륙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로 몰려오는 시기이므로 날씨가 매우 추워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나 난방기기를 다룰 기회가 많아진다. 따라서 부주의나 누전, 과열에 따른 화재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 또 한파에 따른 결빙으로 도시에서는 수도관과 수도 계량기의 파손, 하수도의 막힘에 주의하여야 한다.

차고 건조한 공기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겨울에는 특히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는 외부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가열되면서 상대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내의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계통에 해로운 것은 물론이고 현대인의 필수품인 개인용





1 적설량 분포도
2 12월 평균기온 분포도
기상청



겨울 풍경 김진열

컴퓨터나 고가의 전자 장비가 정전기 때문에 파손될 수 있는 환경을 유발한다. 따라서 겨울에는 가습기 같은 습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 시기는 습도가 매우 낮은 탓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현상은 겨울철 야간 복사에 기인하는 야간 역전층의 형성 때문에 더욱 악화된다. 역전층의 형성은 무거운 공기가 아래층에, 가벼운 공기가 그 위층에 있게 되어 공기의 상하 운동이 극도로 제약되면서 공장 연돌이나 지면으로부터 날리는 먼지가 대기 중으로 희석되기 매우 힘든 상태를 조성한다.

겨울의 대표적인 명절은 동지이다. 다른 달처럼 고사를 지내거나 큰 굿을 하며 풍년을 이루게 해 준 하늘에 감사를 드렸다. 벼농사 수확을 마치면 신에게 감사의 뜻을 바치는 천신제(薦新祭)를 지내기도 하였다. 겨울은 일년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음력 10월의 상달고사, 11월의 동지고사, 12월 섣달의 송년의례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세시(歲時)가 주를 이루었다. 봄을 파종기, 여름을 성장기, 가을을 수확기라 한다면 겨울은 저장기라 할 수 있다. 양식을 저장하듯이 인간의 힘도 저장하여 다가오는 해에 대비함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참고문헌 | 國의 氣 (金光植 외, 一志社, 1978), GMS 구름 위성 영상 분석과 이용(기상연구소, 1989), 한국의 기후(이현영, 法文社,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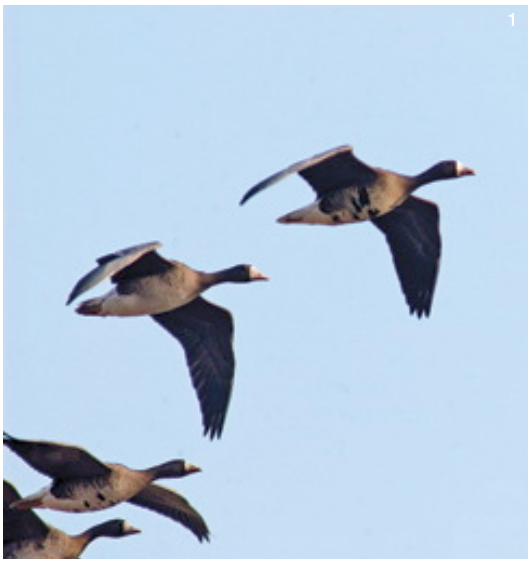
필자 | 임규호(林奎)

동물(動物)

겨울동물이란 절기상 입동(立冬)에서 대한(大寒)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물들을 일컫는다. 겨울은 동물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다. 대부분의 곤충은 겨울에 죽고, 곰과 박쥐 같은 일부 포유동물들은 추위를 피해 땅속이나 동굴에서 겨울잠을 잔다. 동면(冬眠)을 하지 않는 동물들도 활동량을 줄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시베리아와 같은 북쪽지방에서 혹한(酷寒)을 피해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동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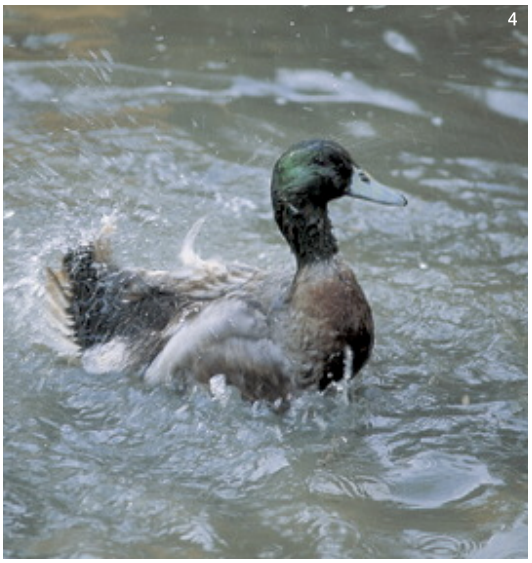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겨울철새로는 두루미, 재두루미, 황새, 고니, 독수리, 흰꼬리수리, 말똥가리, 칡부엉이, 큰기러기, 쇠기러기, 가창오리, 쇠오리, 청둥오리, 쑥새, 백할미새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철원평야 같은 비무장지대의 인근 농경지에서는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가 가족 단위로 날아와 겨울을 난다. 현재 강원도 철원은 전 세계적으로 두루미의 남방한계선이다. 보통 두루미를 '학'이라 부른다. 또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단정학'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말 두루미는 두루미의 울음소리에서 따왔다. 두루미가 "두루-, 두루-." 하고 울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람이나 동물의 특징을 명사화시키는 '-이'라는 접미사를 붙여 두루미라고 하였다. 두루미는 키가 140센티미터 정도이고, 몸무게는 10킬로그램 이상으로 큰 것은 15킬로그램이나 된다. 두루미는 십장생(十長生)의 하나이며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로 부부간의 사랑도 지극하다고 알려져서 우리나라 민화(民畵)나 병풍 그림에 자주 등장한다. 민화나 병풍 그림에는 두루미가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그림이 많은데, 이것은 단지 상상으로 그린 그림일 뿐이고 실제로 두루미는 나무 위에 앉지는 않는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도를 닦아 수양을 많이 쌓으면 신선이 되어 두루미처럼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것은 두루미의 몸 색깔이 흰색이어서 고고한 선비를 연상시키는데다가, 두루미들이 다른 나라로 멀리 이동할 때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높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명(地名) 중에 청학동(靑鶴洞)이라는 곳이 많











1 쇠기러기 김연수

2 독수리 김연수

3 고니 무경

4 청둥오리 무경

5 하늘다람쥐 문화재청

겨울부엉이란 절기상 입동(立冬)에서 대한(大寒)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엉이를 일컫는다. 겨울부엉이는 시련의 계절이다.

은데, 청학(靑鶴)이라는 말은 천년 이상 산 학(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 선조들은 흰색의 학이 천년을 살면 청색으로 바뀌어 신성한 동물이 된다고 믿었다.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던 텃새였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 다만 겨울에 극소수만이 하천이나 습지에 도래하는 희귀한 나그네새이자 겨울새가 되어버렸다. 목을 S자로 접어서나는 백로류와는 달리 황새와 두루미는 목을 펴고 난다. 두루미와 황새는 멀리서 보면 서로 매우 닮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금방 알 수 있다. 황새는 머리가 흰색인데 비해 두루미는 머리 정수리 부분이 붉은색이고 목 부위는 검은색이다. 황새의 부리는 약 27센티미터로 부리의 길이가 두루미보다 1.5배 정도 길고, 부리의 두께도 두 배 넘게 두껍다. 두루미는 울림막을 진동시켜 울지만, 황새는 아래 부리와 위 부리를 서로 부딪쳐 둔탁한 소리를 낸다. 황새는 나무에 올라 발로 나뭇가지를 움켜쥘 수 있으나, 두루미 발의 구조는 나뭇가지를 움켜쥐기에는 부적당하므로 늘 지상에서 생활한다.

백조라고도 불리는 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는 몸길이가 120센티미터 정도이고, 이보다 약간 몸이 큰 고니는 140센티미터가 넘는다. 주로 강어귀, 호수, 저수지에서 서식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무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세모고랭이 같은 수생식물의 뿌리나 줄기, 열매 그리고 수서곤충(水棲昆蟲)을 즐겨 먹는다.

겨울철 우리나라의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과 파주 같은 비무장 지역 인근 평지에 많이 도래하는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는 몸길이가 110센티미터 정도이지만,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펼치면 날개 폭이 몸길이의 두 배 반 이상인 250~290센티나 된다. 독수리는 짐승의 시체와 썩은 고기를 즐겨먹기 때문에 생태계의 청소부로 불리는데, 보통의 수리와는 달리 발이나 부리가 약해서 먹잇감을 잘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하늘을 날면서 다른 동물이 먹잇감을 잡기를 기다린다. 그런 다음 먹잇감을 빼앗아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겨울철에 조류보호단체에서 돼지, 소, 닭 등을 독수리의 먹이로 제공하고 있어 그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

흰꼬리수리(천연기념물 제243호)는 암수가 모양이 동일하지만 암컷은 약 95센티미터로 수컷보다 10센티미터 정도 몸이 크다.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갈색이나 머리와 목 부위는 약간 밝은 색을 띠며, 꼬리가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한강, 임진강 같은 큰 하천이나 강어귀, 해안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쥐와 같은 소형 포유류나 조류 그리고 물고기를 주로 잡아먹는다.

칡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호)는 야행성이며 상록



재두루미 김연수

수가 많고 앞이 트여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다른 올빼미류에 비해 긴 귀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하천 습지나 농경지에 도래하는 기러기류에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가 있다. 큰기러기의 크기는 85센티미터가 넘는다. 몸은 진한 갈색이고 부리는 검은색이지만 끝 부분에 황색의 띠가 있다. 강이나 해안 지역의 습지, 간척지의 농경지에 서식한다. 주로 논에서 추수 후 떨어진 벼 낟알을 먹고 초지에서는 초본류의 씨와 뿌리를 먹는다. 쇠기러기는 70센티미터로 큰기러기보다 작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기러기이다. 전체적으로 갈색이지만 배에는 가로로 굵은 검은 띠가 불규칙적으로 나 있다. 부리는 황색으로 머리와 부리 사이의 흰색 이마가 특징이다. 겨울철에 수십, 수백 마리씩 떼를 지어 생활하며, 종종 큰기러기와 함께 무리를 짓기도 한다. 날 때는 무리를 지어 V자형을 이룬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적어 멸종 위기에 처한 가창오리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월동하므로, 우리나라는 가창오리의 중요 서식지이다. 천수만, 아산만 같은 곳에서 몇 만 단위씩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암수가 서로 모양이 다르다. 수컷은 노란색과 녹색이 바람개비 모양의 검은 띠로 구분되어 매우 화려하게 보이는 반면, 암컷은 평범한 갈색이다.

쇠오리는 겨울철 도심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오리 종류로 수컷은 머리가 짙은 적갈색에 눈 뒤로 굵은 녹색의 띠가 뚜렷하여 쉽게 구분된다. 보통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어 다닌다.

우리나라 오리류들 중 가장 흔한 겨울새인 청둥오리는 우리나라 강이나 해안, 호수 그리고 작은 하천에 이르기까지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수컷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어 쉽게 다른 오리류와 구분된다. 가금(家禽)으로 키우는 집오리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살아온 동물이다. 잡식성으로 풀씨와 식물의 열매 외에 곤충류와 무척추동물도 잘 먹는다.

쑥새는 15센티미터의 작은 새로 경작지 주변이나 하천 둔치의 덤불 지역 또는 산림 지역 같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철새이다. 보통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사시사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인 멧새와 비슷하다. 다만 멧새는 머리깃을 세우지 않지만 쑥새는 머리깃을 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백할미새는 20센티미터 정도의 작고 꼬리가 긴 겨울철새이다. 뒷머리와 턱과 가슴 윗부분 그리고 등 부위가 검은색이다. 이마와 얼굴, 가슴 아래쪽 배 부분은 흰색이지만 겨울철에는 등 부위가 짙은 회색으로 바뀐다. 하천, 농경지, 인가(人家) 근처의 작은 하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알락할미새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지만 알락할미새는 여름철새이고 백할미새는 겨울철새여서 야외에서 관찰되는 시기가 다르므로 혼동할 가능성은 적다.

겨울철은 많은 포유동물들 특히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에게는 가장 힘든 계절이기도 하다. 초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식물들이 겨울철에 대부분 죽거나 봄철까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겨울철 멧토끼는 겨울철에 남아 있는 식물의 잎과 가는 가지, 나무껍질을 먹는다. 멧토끼는 긴 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포식자가 다가오는 것을 쉽게 탐지하며, 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위험이 닥치면 재빨리 도망갈 수 있다. 겨울철에는 보통 홀로 산다.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는 몸이 회색이고 배 부위는 희며,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피막[飛幕]으로 불리는 막을 가지고 있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할 때 마치 낙하산을 편 것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다. 하늘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먹이도 저장하지 않으므로 겨울철에도 먹이를 찾아야 한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해가 진 직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 먹이를 구하며 낮에는 쉬지만, 겨울철에는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먹이를 찾아 나선다.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자거나 쉰다. 가을철 부지런히 몸에 지방을 축적해 놓지 않으면 하늘다람쥐에게 겨울은 더 추울 수밖에 없다. 겨울은 역시 동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참고문헌 |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유정칠, 지성사, 2001), 두루미(유정칠, 웅진닷컴, 2003), 수리(유정칠, 웅진닷컴, 2003), 올빼미(유정칠, 웅진닷컴, 2003).
필자 | 유정칠(劉正　)

생업(生業)

서리가 내리면 곡식은 더 자라지 못한다.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기온이 영하를 오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노지(露地)의 농사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 이후부터 입동(立冬)까지는 대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기간이 된다. 그리고 겨우살이를 준비하며 다가오는 한 해를 다시 계획한다.

수확 작업으로는 김장용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류들을 거둬들여 토굴이나 흙구덩이에 저장하고, 일부는 말리거나 김장을 하여 보관한다. 그리고 가장 늦되는 검은 콩도 서리가 내리면 뿌리째 뽑거나 낫으로 밑동을 베어 단을 만들어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가리(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만들어 보관한다.

전통적으로 농가에서는 한 해 맨 마지막에 하는 농사일로 콩 타작을 치는데, 콩은 깍지가 충분히 말라야 타작하기 쉽기 때문에 가리를 만들어 쌓아 보관하였다가 동지(冬至) 무렵에 타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콩 도리깨질은 한 해의 마지막 농사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로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이 동지인데, 생업력 측면에서도 동지는 콩 타작을 마지막으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감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짓날에는 한 해의 머슴살이를 정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경북 예천 지역에서는 동짓날을, '남의 집 사는 머슴들이 낮에는 나무 아홉 짐 하고, 저녁에는 팥죽 아홉 그릇 먹고, 칠총백이 짚신 신고, 목버선 벗어들고 집으로 가는 날'이라고 흔히 말한다. 동짓날이면 한 해 머슴살이가 끝나기 때문에, 주인집에 겨울 동안 땔 나무를 넉넉하게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팥죽을 든든히 얻어먹은 후, 목만 남은 닳은 목버선을 벗어버리고 새로 삼은 깔끔한 칠총백이 짚신을 신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월대보름에 나무 아홉 짐 해주고, 찰밥 아홉 그릇 먹으면서 시작한 일년 머슴살이가 동짓날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겨울이 농한기라고는 하지만 전혀 농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추운 겨울을 나는 작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을보리다. 가을보리는 대개


1


4


2


3


5

절기상 한로(寒露)를 전후하여 파종하지만 밭의 경우는 다소 늦게까지도 하였다. 가을보리를 관리하는 일로는 도랑치기가 특히 중요한데, 보리는 습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도록 해주어야 한다. 습기가 많으면 한겨울의 냉해(冷害)도 더 심하게 입을 수 있으므로 도랑치기는 냉해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을보리는 흔히 신구간접식(新舊間接食)이라고 하여 전통적으로 봄철의 주요 구황 식량의 위치를 지니기 때문에 겨울 추위 속에서도 세심하게 관리해 왔다. 특히 큰 추위가 닥치는 소한(小寒) 무렵에는 가을보리의 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

습기가 많아 보리를 경작할 수 없는 무논은 가을갈이[秋耕]를 한다. 가을갈이를 한 논은 흙덩이들이 겨우내 햇볕에 바래고 얼기와 녹기를 반복하면서 토양이 개선된다. 그래서 논이 얼기 전인 입동을 전후하여 대개 가을갈이를 많이 하였다. 흔히 가을갈이는 봄갈이보다 훨씬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족한 거름을 대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겨울철의 생업은 주로 겨울을 나기 위한 것과 이듬해를 준비하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나기 위해서는 농사는 물론이고 의식주 생활 전반을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먼저 식생활의 경우, 탈곡한 곡식들은 잘 보관하고 일부는 미리 방아도 찧어놓는다. 특히 추위에 취약한 고구마는 사람이 거처하는 방 윗목에 발을 쳐서 보관하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 친다. 그리고 동지를 전후해서는 메주를 쑤어서 말리고 띄워서 장담글 준비를 한다. 탈곡을 끝낸 나락이삭들을 다시 살펴서 남은 이삭은 마저 훑고, 볏짚은 나락가리를 만들어 잘 쌓아둔다. 짚은 겨우내 소여물로 이용하거나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이엉엮기 따위로 쓰임이 아주 많은데, 지붕을 이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보관하는 봉새기나 멍석을 비롯하여 각종 세간을 만드는 데도 아주 유용하다. 따라서 한 올의 짚이라도 비에 젖어 썩지 않고 쥐가 갉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 타작을 마친 각종 곡식대나 짚은 땔감이나 거름으로도 유용하지만, 그 중 콩깍지는 특히 쓰임새가 크다. 콩깍지는 좋은 소여물이 되기도 하고 메밀짚과 함께 잿물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쓰인다. 잿불로 태

1 창호지 바르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지붕이기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심디스마

3 메주매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4~5 김장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김영광

울 경우 다른 땔감보다 잿물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세척력이 좋은 잿물을 받을 수 있어서 겨울철 찌든 빨래를 하는 세제로 더없이 좋다. 그래서 콩깍지나 메밀짚은 일정량을 잿물내기용으로 따로 보관하기도 한다.

주생활에 필요한 겨울철 준비로는 무엇보다도 주거 공간의 보온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뚫어진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것은 물론이고, 바람벽은 매흙질을 튼튼히 하며, 방고래는 구두질하여 겨우내 불이 잘 들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 적은 양의 불을 때더라도 방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으로 난 쥐구멍을 막아 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열효율을 높인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또 땔감이 넉넉해야 하므로 한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농가에서는 큼직한 나뭇가리를 서너 개씩 마련해놓는다. 장작도 필요하지만 불쏘시개로 쓸 솔가리나 솔방울도 필요하다. 겨울철은 불을 때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흔히 겨울철 땔감은 겨울 양식과도 같다. 겨울철은 해가 짧아 한 끼 정도는 굶고 넘어갈 수 있지만 불을 때지 않고는 추워서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겨울철 농민들의 주된 일과는 땔나무를 하는 일이었다. 큰 눈이라도 내리면 나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맑은 날이면 거의 빠짐없이 먼 산까지 나무를 하러 다녔다. 그리고 추위는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마찬가지여서 외양간에도 떼적(비나 바람 따위를 막으려고 치는 거적 같은 것)을 쳐서 추위를 막아주었다.

겨울은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 여성들은 낮으로는 주로 방아찧기나 물긷기 또는 빨래를 하지만 저녁이면 길쌈을 하였다. 겨울철 길쌈 작업으로는 주로 베매기를 하는데, 건조한 시기에 베짜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주로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거나 음식을 보관하는 봉새기, 씨오쟁이 같은 각종 세간을 만들고, 농사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개별 농가단위로 가마니를 짜기도 하고, 멍석이나 돗자리를 매기도 하면서, 띠나 왕골 혹은 볏짚을 이용해 여름에 쓸 도롱이를 만들기도 한다. 이듬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것으로는 농사 연장들을 수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러진 호미자루나 괭이자루는 새로 맞추어 놓고, 무뎌진 호미날이나 각종 쇠붙이 연장들은 대장간에 가서 버려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겨울철 농가의 모습은 산업사회를 맞으면서 크게 바뀌었다. 농업의 기계화, 농자재의 산업상품화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의 모습이 쇠퇴하였다. 특히 고추나 참외, 수박, 애호박 같은 시설재배를 통한 환금작물을 주로 하는 산업농(産業農)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의 개념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며, 오히려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물을 내는 시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농한기와 농번기가 뒤바뀐 상태이기도 하다.

어촌(漁村)의 겨울철 또한 농한기이기는 하나 바다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해안의 경우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들에 김매기를 하듯 어부들은 '짬매기'를 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미역씨앗이 바위에 잘 붙도록 호미와 같은 도구로 바위를 긁거나 후벼 파서 잡초를 제거한다. 또 겨울에는 가오리, 가자미, 넙치 같은 생선들을 잡는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攷-附原文, 校註-(在 , 東洋文 6·7, 嶺南大 校 東洋文 硏究所, 1968), 農家月令歌; 陽歌(朴晟義 외, 普成文 社, 1978), 朝鮮 期社 農民의 일과 餘暇(金 圭, 民俗硏究1, 安東大 校 民俗 硏究所, 1991), 螺叟 李基遠의 農家月令(姜 圭 외, 三光 社, 1999),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民俗苑, 2001), 생태적 삶을 일구는 우리네 농사연장(김재호·이제호, 소나무, 2004), 산골 사람들의 물 이용과 민속적 분류체계(김재호,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필자 | 김재호(金在)

세시풍속(歲時 俗)

태음력(태음태양력)을 일상력으로 사용하던 전통사회에서 겨울은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겨울의 첫 달인 10월은 맹동(孟冬)이라 한다. 초겨울이라는 뜻인데 이 밖에도 초동(初冬)이라고도 하며 상달[上月]이라고도 한다. 상달은 으뜸의 달이라는 뜻으로 이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달이라는 데에서 그 연원을 찾기도 한다. 10월이면 농작물의 수확이 모두 끝나므로 천신(天神)에게 추수감사제를 지낸다. 아득히는 고구려(高句麗)의 동맹(東盟), 예(濊)의 무천(舞天)이 그러하였고, 마한(馬韓)에서도 농공(農功)이 끝난 후인 10월에 제천의례(祭天儀禮)를 행했다.

10월은 일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다. 절기상으로는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들어 있어 이미 겨울임을 알 수 있지만, 아직 햇볕이 따뜻하여 소춘(小春)이라 할 정도이다. 상달이라 함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때에는 하늘이 높고 쾌청하기에 그 이름이 더욱 더 어울린다. 또 개천(開天)한 달이기 때문에 으뜸달이 될 수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원래 음력 기준이었으나, 양력으로 바꾸어 국경일로 제정한 것이다. 단군을 섬기는 대종교에서 일제강점기에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였고, 임시정부가 이를 인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이를 계승하였다. 그러다가 1949년 '국경일에관한법률'에 따라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다시 정하였다.

10월에 뚜렷하게 명절로 정해진 날은 없지만, 말날[午日]과 손돌날[孫乭日]을 각별하게 여기며, 각 문중에서는 시제(時祭)를 지내고 상달고사 또는 천신제를 지내기도 한다. 주로 첫 말날[上午日]이 되면 팥시루떡을 쪄 성주, 삼신, 터주, 용단지 같은 가정신을 비롯하여 외양간에도 올려 정성을 드리며 가정의 평안과 우마의 건강을 빈다.

그러나 첫 말날이 병오일(丙午日)이면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병(丙)자가 병(病)과 발음이 같으므로 행여 말이 병이 들 것을 염려해서이다. 무오일(戊午日)을 으뜸의 말날로 여기는데 이는 무(戊)와 무(茂)가 발음이 같아 말의 무성(茂盛)을 기원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상달고사의 맥락이지만 10월에 성주굿을 크게 하거나 또는 성주를 비롯하여 각 가정신의 신체(神體)인 신주단지의 햇곡물을 갈아 넣으며 고사를 지낸다. 이는 일종의 천신제로서 그동안 땀흘려 농사를 지은 햇곡물을 신에게 바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하다.

10월 20일을 손돌날이라 한다. 김포에서 강화로 가는 바다는 물이 소용돌이쳐서 뱃길로는 무척 위험하다. 고려때 왕 일행이 강화도에 들어갈 때 뱃사공 손돌이 왕을 모시게 되었는데 배를 험한 곳으로 몰

채빙 이서지



고 갔다. 왕은 고의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몰았다고 오해하여 손돌을 죽이도록 하였다. 왕을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손돌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돌이 숨진 날이 10월 20일이어서 이 날을 손돌날이라 부르고 이곳을 손돌목[孫乭項]이라 하는데, 이 무렵이면 큰 바람이 불고 매우 춥다. 이를 억울하게 숨진 손돌의 원혼 때문이라고 여겨서 이 바람을 손돌풍(손돌바람)이라 부르는데 강화도 사람들은 손돌풍이 불 때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10월에는 문중 단위로 시제를 지낸다. 시제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산소에서 모시는 제사로, 문중마다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제를 지낸다. 이때에는 여러 파로 갈린 각파 친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묘제(墓祭)를 지내는데 많은 자손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예전에는 10월 입동을 전후하여 김장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입동이 한참 지난 뒤에 김장을 한다. 한편 10월에는 무배추를 수확하고 메주를 쑨다.

11월은 겨울의 가운데 곧 중동(仲冬)이라고 하며 그 밖에도 동짓달, 복월(復月), 지월(至月)이라고도 한다. 24절기로는 대설(大雪)과 동지(冬至)가 들어 있어 이제야 말로 본격적으로 겨울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동짓달이라 한 까닭은 바로 이달에 동지가 들어 있기 때문인데 동지는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

동지는 24절기의 하나이며 오랜 명절로서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라 한다. 이는 중국의 고대 역법에서 동지를 세수(歲首)로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지만, 다음날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이를 태양 운행의 시발점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동지는 설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쑤어 집안의 신에게 올려 정성을 드리고 마당이나 대문에 뿌려 액을 막기도 한다. 팥죽 속에는 새알심이라 하여 찹쌀로 빚은 경단을 넣는다. 설날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먹는 것으로 여기듯이 동짓날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먹게 된다는 말에서도 세수 곧 설날의 유습을 찾아볼 수 있다.



시제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국립민속박물관

동지는 초순에 들면 애동지[兒冬至], 중순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하순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 한다.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팥죽을 쑤지만 애동지에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여 팥죽을 쑤지 않는다. 근래에는 절에서 팥죽을 쑤어 신도들이 함께 시식한다. 한편 동지팥죽으로 팥죽점을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과 날씨 그리고 태아(胎兒)의 성별(性別)을 미리 점쳐보는 풍속이 전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까지 관상감에서는 새로운 책력을 만들어 궁중에 올리면 황장력(黃粧曆)과 백장력(白粧曆)을 모든 관원에게 나누어 주는데, 책력에는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새(御璽)를 찍어 관원들에게 차등을 두어 나누어 주었다. 관청마다 나누어 받는 몫이 있고 관청의 아전들도 각기 친한 사람들을 문안하며 책력을 전했다.

이 밖에도 서울에서는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하여 단옷날에는 관원이 아전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고 동지에는 아전이 관원에게 달력을 바쳤다. 그러면 관원은 그 달력을 자기 출신 고향의 친지, 묘지기, 농토 관리인에게 나누어준다.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 또는 22일 무렵으로, 오늘날 연말이면 달력을 선물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짓날에는 동지부적(冬至符籍)을 부엌의 벽이나 기둥에 붙였다.

12월은 겨울의 마지막 달이자 한 해의 마지막 달로, 계동(季冬)이라 한다. 섣달, 납월(臘月), 막달, 썩은달이라고도 부른다. 24절기로는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들었는데 그 이름과는 달리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24절기가 우리의 날씨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24절기가 애초 중국의 주(周)나라 때 화북(華北)의 날씨에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섣달에는 특별한 명절은 없지만 납일(臘日)과 섣달그믐 곧 제석(除夕)을 각별한 날로 여긴다. 납일은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未日)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멧돼지와 산토끼를 종묘와 사직에 올려 제사를 지냈다. 이를 납향(臘享)이라 한다. 납(臘)이란 원래 렵(獵)의 뜻으로 사냥한다는 뜻이다.


1


2

1~2 **팥죽뿌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민간에서는 이날 참새를 잡아먹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겨울철 영양식으로 여기기도 했다. 이날의 참새잡이에 대해서는 『동국세시기』에도 기록이 있다. 그에 따르면, 참새를 잡아 어린이에게 먹이면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항간에서는 이날 그물을 쳐서 참새를 잡기도 하고 활을 쏘아 잡기도 했다. 특히 이날만은 총을 쏘아 잡아도 묵인했다.

납일에 눈이 내리면 곱게 받아 독에 받아두었다가 녹은 물을 김장독에 넣으면 김치 맛이 변하지 않고 의류와 책에 바르면 좀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물로 눈을 씻으면 안질(眼疾)을 막을 수 있으며, 이 물로 한약을 달이거나 환약을 지을 때 쓰기도 한다.

조선시대 내의원(內醫院)에서는 납일에 각종 환약을 만들어 올리는데 이를 납약(臘藥)이라 했다. 임금은 그것을 근시(近侍)와 지밀나인[至密內人]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밖에 기로소(耆老所)에서도 납약을 만들어 여러 기신(耆臣)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관청에서도 많이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서로 선물하기도 했다.

섣달 그믐날을 제석 또는 제야(除夜)라고 하며 민간에서는 흔히 '까치설'이라고 한다. 이날 저녁 가묘(家廟)에 한 해가 끝남을 알리는 사당제(祠堂祭)를 지내서 어른들께 한 해를 보내는 인사를 올린다. 이를 구세배(舊歲拜) 또는 묵은세배라고 한다. 또 수세(守歲)라 하여 방, 뜰, 부엌, 대문 앞과 같은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밤을 샌다.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도 하는데, 이날 불을 밝히는 까닭은 이제까지의 묵은 것을 태워 새로운 시간을 맞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날 밤의 잠은 영원한 잠이라 생각하여 밤을 새는 것이다. 주부들은 세찬 준비에 바쁘다.

자정 무렵이 되면 마당에 불을 피운 뒤 청죽(靑竹)을 태운다. 이를 대불놓기라 하는데, 청죽 마디가 탈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므로 폭죽(爆竹)이라고도 한다. 이 또한 묵은 것을 태우고 잡귀들이 놀라서 달아나도록 함으로써 신성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의례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나례(儺禮)라는 축귀의식(逐鬼儀式)을 행했는데 제석의 이러한 행사는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까지 약 일주일간을 신구간(新舊間)이라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집안 손질을 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겨울철 놀이로 눈싸움, 다리세기놀이, 썰매타기, 제기차기, 팽이치기와 같은 놀이가 있으며, 예전에는 매사냥, 저리사냥 같은 사냥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또 윷점[柶占]을 보거나 촛농점을 보고 개인의 신수를 점치기도 하였으며, 고드름점이나 눈점[多雪占]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또 겨울철에는 방아를 찧거나 이듬해 농사를 위해 종자를 보관해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曆法의 原理分析(이은성, 正音社,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세시풍속1(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명자(金明子)

식물(植物)

겨울은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절기로는 10월의 입동(立冬)과 소설(小雪), 11월 동짓달의 대설(大雪)과 동지(冬至) 그리고 12월 섣달의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삼천리 강산,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연평균 기온이 남쪽 해안지방에서는 섭씨 15도에 이르지만 북쪽 내륙지방에서는 섭씨 5도까지 내려간다. 겨울에는 우리나라 전체 식물의 0.2퍼센트 정도밖에 꽃을 피우지 않으며, 따라서 겨우내 산야에서 볼 수 있는 야생화도 그리 많지 않다. 더구나 대부분의 꽃들이 남쪽 해안지방과 도서 지역에 분포해 있어 한겨울에 중부 이북 지역의 야외에서 꽃을 구경하기란 불가능하다.

겨울에 남쪽 해안지방과 도서 지역에서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식물로 동백나무가 있다. 동백나무는 서해 지역 난류의 영향으로 경기도 덕적도까지 분포하며, 동해의 울릉도에도 분포하고 있다. 또 남서쪽의 해안지방과 섬을 따라서는 춘란(春蘭)이 눈 속에서 꽃대를 내밀며, 제주도에서는 한란(寒蘭)이 꽃을 피운다. 이 외에도 중국이 원산지이지만 우리

나라에 이미 2,000여 년 전에 들어온 매화나무가 있다. 매화나무는 한겨울에 며칠 날씨가 따뜻해지면 꽃을 피우기도 한다.

비록 꽃을 피우진 않지만 한겨울 동안 늘푸른잎과 색 있는 열매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상록활엽수가 있다. 중부 이남의 주로 낮은 산 속에서 한겨울 내내 연두 빛깔의 몸체에 초록의 싱싱한 잎과 빨간 열매를 달고 겨울 산 속의 눈길을 잡는 상록활엽수가 바로 식나무이다. 식나무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동쪽으로는 울릉도 이남, 서쪽으로는 안면도 이남에서 자라고 있다. 꽃은 초봄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붉은색으로 익으며 겨울 내내 나무에 달려 있다가 봄이 되어서야 땅에 떨어진다. 흔히 잎에 금빛 반점이 무늬처럼 들어가 있는 원예품종을 관상수로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잎에 금색 무늬가 있다 하여 '금식나무'라고도 부른다.

식나무와 이름이 비슷한 상록활엽수로 참식나무가 있다. 말 그대로 진짜 식나무라는 뜻이다. 두 식물 모두 상록활엽수이고 붉은색 열매를 겨울 내내 달고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 듯하다. 참식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남쪽 해안지방과 울릉도에서 자라고 있다. 참식나무는 우리나라 식물 중에선 드물게 초겨울인 10월에서 11월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원래는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있었으나, 점차 수술과 암술이 퇴화되면서 암꽃과 수꽃으로 따로 달리게 된 진화의 역사가 있다. 우리나라가 속한 온대지방의 식물들은 대부분 겨울눈을 만들며, 이 눈은 겨울이 지난 후 봄에 터져서 새 잎이나 꽃을 피운다. 하지만 참식나무의 눈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터져서 새 잎을 만들거나 꽃을 피운다. 눈에서 금방 나온 어린잎은 황금색 털로 덮여서 멀리서 보면 마치 줄기 끝에 금빛 잎이 모여 있는 듯하다. 또한 잎이 나올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피는 꽃은 가루받이가 일어난 후 계속 자라서 이듬해 초겨울에 붉은색 열매를 맺는다.

겨울 산에 올라보면 누구나 호젓한 정적을 느낀다. 모든 것이 움츠려들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 산에서 전혀 즐길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야생화에서 느끼고 즐기지 못했던 또 다른 멋을 겨울 산에서는 즐길 수



소나무 무경

1 잣나무 숲 무경
2 동백나무 심디스마





있다. 눈 덮인 겨울 산에서는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낙엽수들 사이에서 독야청청 그 푸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침엽수들의 굳센 삶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엽수란 잎이 바늘처럼 뾰족하게 변한 겉씨식물들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 흔히들 소나무 '송(松)'과 잣나무 '백(柏)'을 써서 송백류(松柏類)라 부르기도 하는, 사시사철 짙푸른 잎을 달고 있는 상록수이다. 여름철에 침엽수는 활엽수의 녹음에 가려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나, 눈 덮인 겨울 산의 늠름한 자태와 짙푸른 녹색의 멋이 한껏 드러날 뿐더러 여러 그루가 한꺼번에 서 있는 우람하고 장엄한 군락의 멋을 풍긴다.

우리에게 친숙한 침엽수는 소나무이다.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의 일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부의 고원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으며, 국토의 약 30퍼센트에 해당되는 면적에 서식하고 있는 늘푸른나무이다. 소나무는 그 서식 환경이나 특징에 따라 여러 이름이 있다. 오래된 줄기의 색깔이 붉어서 적송(赤松)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라는 모양이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의 자태를 닮았다하여 여송(女松)이라 부르기도 하며, 주로 내륙지방에 자라고 있어 육송(陸松)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소나무는 자라는 형태에 따라 많은 품종들로 나누어진다. 원줄기가 곧게 자라서 보기에도 시원한 금강소나무, 줄기의 밑동부터 여러 개의 가지로 나누어져서 자라는 반송(盤松)이 있다.

모든 상록수들이 다 그러하듯 사시사철 늘푸른잎을 달고 있다고 해서 한 번 생긴 잎이 영원히 달려 있지는 않다. 소나무의 경우도 2~3년 정도 잎이 달려 있다가 떨어지고 새 잎이 돋아난다. 소나무의 잎은 아랫부분이 잎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한 잎집에 두 개의 잎이 모여서 난다. 소나무는 자라는 데 많은 햇빛이 필요한, 햇빛을 좋아하는 나무로 이런 나무를 통틀어 양수(陽樹)라고 한다. 소나무는 자신보다 생장이 빠른 활엽수와 함께 살아갈 때는 필요한 양의 햇빛을 차지하는 경쟁에서 뒤지게 된다. 그래서 소나무가 자신보다 키가 큰 활엽수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필요한 만큼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침내는 죽게 마련이다. 활엽수가 들어찬 산의 골짜기나 비탈에서는 소나무를 잘 볼 수 없고, 능선에서 잘 자란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소나무의 그 같은 생태적인 습성 때문이다. 소나무는 어릴 때는 가지가 일년에 하나씩 원줄기에서 돌려나서 전체적으로 원추형으로 자란다. 이때는 원줄기에 돌려난 가지 수를 세어서 나무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면 햇빛을 받는 데 불리한 하지(下枝)들은 모두 탈락하고, 상지(上枝)들은 햇빛을 더 잘 받기 위해 옆으로 퍼지게 된다. 그래서 나무는 전체적으로 우산을 펴놓은 모습이 된다. 곁가지 하나 없이 붉은색으로 치장된 원줄기와 푸른색의 솔잎이 달린 윗가지 그리고 땅 위로 올라온 뿌리가 어우러진 의젓한 자태와 빼어난 미(美)는 노송(老松)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뒷동산이나 정자 주변에 소나무를 심어 가까이에서 그 빼어난 모양을 감상했으며, 또 그림의 소재로 즐겨 삼아 하얀 화선지에 그 빼어난 미를 담곤 하였다. 흰눈 오는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소나무를 사람의 곧은 뜻에 견주어 '송죽 같은 절개'라는 말로 표현하곤 한다.

잣나무는 우리나라 울릉도와 제주도 그리고 남쪽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한랭한 곳을 좋아해서 남부 지역에서는 1,000미터 이상의 고지에서, 중부 지역에서는 700~800미터, 북부 지역에서는 300~400미터 고지에서 자생하는 고산성 식물이다. 특히, 지리산에서는 1,000미터 위쪽에서만 자라는데 지리산은 세계적으로 잣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남한계(南限界)이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아무르와 연해주지방 그리고 일본의 혼슈지방에서 자라지만, 분포의 중심은 한반도이다. 그래서 1870년에 잣나무가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을 때 잣나무에 붙여진 학명에는 한반도를 나타내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곧 잣나무의 학명은 *Pinus koraiensis*로서 종소명 *koraiensis*가 바로 한반도를 나타내는 라틴어이다.

잣나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소나무와는 대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소나무가 대체로 온화한 기후를 가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반면, 잣나무는 한랭한 기후에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다. 잣나무는 소나무와는 달리 한 잎집에 잎이 다섯 개씩 모여 나며, 열매인 성숙한 암 솔방울에는 실편마다 단단한 껍질로 쌓인 잣(씨)이 다섯 개씩 들어 있다. 그리고 소나무가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임에 비하여 잣나무는 음수(陰樹)이다. 자라는 데 소나무만큼 많은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깊은 계곡의 한랭한 지역에서 활엽수들과 섞여서도 잘 자랄 수 있다. 또한 자라는 모양도 양수인 소나무와는 달라서 잣나무는 곁가지를 탈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오래된 나무라도 전체적으로 원추형의 웅장한 겉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소나무처럼 여성스러운 수려한 멋보다는 웅장하고 장엄한 남성의 멋을 풍긴다. 더욱이 잎도 다른 침엽수보다 짙은 녹색이어서 여러 그루가 빽빽이 들어차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원추꼴의 나무와 짙푸른 녹색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북구(北歐)의 원시림(原始林)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잣나무와 유사한 종류로 섬잣나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일본에만 자라고 있다. 섬잣나무도 잣나무와 같이 한 잎집에 잎이 다섯 개씩 모여 난다. 이 외에 눈잣나무가 있다. 눈잣나무는 말 그대로 누워서 자라는 잣나무 종류이다. 눈잣나무도 잣나무나 섬잣나무와 같이 한 잎집에 다섯 개의 잎이 모여 나고 있으며, 줄기가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 전체적으로 땅 위를 기는 형태를 띠는 특성을 지닌다. 눈잣나무는 잣나무보다 훨씬 한랭한 기후를 좋아해서 설악산의 1,6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서만 자란다. 설악산은 눈잣나무가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한계이기도 하다.

잣나무나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가 매우 오래된 식물이다.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식물들로서 긴 세월에 걸쳐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식물들답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분비한다. 은행나무에서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주목(朱木)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질 덕택이다. 침엽수림에 들어서면 토양층의 임상 초본 식물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침엽수들이 테르펜이나 테르페노이드 계열의 특수한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 다른 식물들의 종자가 날아와서 싹을 틔우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물질은 다른 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로운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기후가 온대에서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감에 따라 생태계는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염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기후가 따뜻해지면 남쪽에 한정되어 살던 식물이 북쪽으로 그 삶의 터를 확장해갈 것이며, 한겨울에 볼 수 있는 야생화는 더 늘어갈 것이다.

참고문헌 | 원색 대한식물도감 상(이창복, 향문사, 2003).
필자 | 선병윤(宣炳崙)





十

시월

상달은 시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일년 농사가
마무리되고
신곡신과를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제절이다.
시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

10월(十　)

개관 음력 10월은 양월(陽月), 양월(良月), 곤월(坤月), 초동(初冬), 응종(應鍾), 입동(立冬), 소춘(小春), 소양춘(小陽春), 해월(亥月), 맹동(孟冬) 같은 이칭이 있다.

예부터 10월은 상달[上月]이라 하였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상달은 10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일년 농사가 마무리되고 신곡신과(新穀新果)를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계절이다. 따라서 10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고구려의 동맹(東盟)과 신라에서 유래했던 팔관회(八關會)도 10월에 모셨던 것을 보면, 우리 민족에게 10월은 매우 유래가 깊은 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10월에는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들어 있으며, 이달부터 3개월간이 겨울이다. 단풍으로 물들었던 산의 나무들은 서서히 낙엽이 지기 시작한다. 대개 이때는 농사를 마무리 짓고 겨울을 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시기이다. 무와 배추를 수확하여 김치를 담그고, 또 겨울에 먹을 수 있게 얼지 않도록 구덩이를 파고 무를 묻기도 한다. 콩을 수확하여 메주를 쑤기도 하며 고구마, 호박, 무 같은 채소를 썰어 말린다. 초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엉을 엮어 지붕을 이기도 한다. 예전에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던 마을에서는 10월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모여 산에 올라 낙엽진 나무를 베어와 다리를 고치기도 했다.



김장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전라도 지역에는 단골판이 있었다. 큰 마을에는 무당이 여럿 있기도 하고, 또 한 명의 무당이 여러 마을을 관장하기도 했다. 10월이 되면 마을의 단골은 작은 선물을 장만하여 자기 단골판의 농가를 돌면서 수확한 벼를 걷는다. 농사짓는 규모에 따라 성의껏 단골에게 주는데, 이를 걸립 또는 동냥이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10월에 시제(時祭)를 지내는 문중이 많고, 각 가정에서는 상달고사[上月告祀]를 지내기도 한다.

정일 10월의 정일로는 말날[午日], 하원(下元), 손돌날[孫乭日]이 있다. 10월의 말날은 10월에 첫 번째 드는 말날을 말한다. 예전에 말은 짐을 실어 나르거나 농사일에 긴요하게 쓰였기 때문에 중요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매년 10월의 첫째 말날에는 마구간에 떡시루를 차려놓고 말을 위해 고사를 지냈다. 10월의 말날 중에도 무오일(戊午日)을 으뜸으로 치고, 병오일(丙午日)은 피했다. 무오일을 상마일(上馬日)로 친 까닭은 말이 무성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병오일을 피하는 까닭은 병(丙)자가 병(病)자와 발음이 같아 혹시 말이 병이 들까 해서였다.

10월의 정일로 하원이 있다. 정월대보름을 상원(上元), 7월 보름인 백중을 중원(中元) 그리고 10월 보름을 하원이라고 한다. 하원에는 시제를 모시는 집이 많다. 물론 문중에 따라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원을 길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10월 20일을 손돌날이라고 한다. 이 무렵에 소설(小雪)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손돌바람, 손돌추위 같은 말이 함께 쓰인다. 손돌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고려시대에 전란으로 인해 강화도로 피난을 가던 왕이 배에 올랐다. 사공은 손돌이라는 사람이었다. 배는 띄웠지만 바람이 세차고 풍랑이 커서 손돌은 안전한 곳에서 쉬어갈 것을 왕에게 고했다. 그러나 왕은 손돌이 다른 마음을 먹은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손돌을 참수하고 말았다. 그러자 바람은 더욱 거세어지고 배는 난파할 지경이었다. 왕은 자신의 말을 목 베어 손돌을 위해 제사를 모시게 했다. 그러자 풍랑이 가라앉아 무사히 강화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뒤 매년 10월 20일이 되면 세찬 바람과 거친 풍랑이 일었다.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한 맺힌 원혼이 동요하는 때문이라고 믿고, 이때 바다사람들은 배를 바다에 내지 않는다. 손돌이 죽은 곳을 손돌목[孫乭項]이라고 한다.

절기 10월에는 한 해의 열아홉 번째 절기인 입동과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이 든다. 입동은 겨울에 들어서는 날이며, 소설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어 첫눈이 내리는 때라고 한다. 입동은 양력으로 11월 7일 또는 8일 무렵, 소설은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이다. 입동은 겨울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겨울 준비를 하게 된다. 김장을 하고 겨울 저장 음식을 장만하기도 한다. 충청도에서는 "입동 전 가위보리"라고 하여 입동에 보리잎이 가위처럼 두 잎이 나와야 풍년이 든다고 하며 날씨점을 치기도 한다. 입동날 추우면 그해 겨울 날씨가 몹시 추울 것으로 점친다.

소설은 첫눈이 내리는 때이기도 하다. 15일 후인 대설(大雪)에는 큰 눈이 내린다고 믿는다. 소설에 날씨가 추워야 보리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믿으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솜바지로 갈아입는다.

동제 및 시제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마을 단위로 모시는 동제를 올리는 곳이 많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도에 분포가 높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10월에 동제를 모신다. 강원도에서는 성황제, 서낭제, 산신제라고 부르는 곳이 많고, 경기도에서는 서낭제, 당고사, 산치성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다. 경북에서는 풍어제를 지내거나 골맥이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또 10월에는 상달이라 하여 문중에서 시제를 모시는 곳이 많다. 본래 시제는 춘하추동(春夏秋冬) 때에 맞추어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보면 "우리나라 풍속에 기제사는 중히 여겨도 시제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오랑캐의 더러운 습속이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이르러 유현들이 배출되고 사대부 중에서도 예절 따지기를 좋아하는 자가 많아져 비로소 시제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체로 가난하여 네 계절에 모두 시제 지내는 이는 드물고, 대개가 봄의 삼짇날과 가을의 중양절에만 지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였다.



메주말리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국립민속박물관

그러나 지금은 일년에 한 번, 그것도 상달인 10월에 시제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본래 시제는 5대조 이상을 묘나 제각(祭閣)에서 모신다. 문중에 따라 도시조(都始祖)를 모시는 도시제(都始祭)와 지손(支孫) 집안에서 모시는 시제가 있다. 예전에는 10월에 시제를 지내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산에서 묘제를 지내는 모습도 흔히 눈에 띄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시제에 참여하는 자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4대조까지 집안에서 기제사를 하던 풍습도 점점 약해서 가문에 따라서는 부모까지도 문중 제각에 모시고 시제를 받드는 사례까지 있다.

천신 및 고사 10월에는 새로 수확한 곡식으로 조상과 가신을 위해 시루떡과 간단한 제물을 장만하여 천신(薦新)하는 가정이 많다. 좋은 날을 가려서 하는데, 당일 대문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이를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삼남 지역에서는 안택(安宅) 또는 도신제라고 하고,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안택고사, 상달고사, 가을고사 또는 시월고사라고 부르는 곳이 많다. 햅쌀을 빻아 팥고물에 시루떡을 쪄서 마루의 성주신에게 시루째 올린다. 이는 주로 주부들이 맡아서 한다. 시루를 올리면서 간단한 제물을 장만하기도 하며, 제상에 실타래를 함께 놓아 가족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한다. 부엌의 조왕이나 안방의 조상에게도 따로 시루떡을 쪄서 바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주에 바쳤던 시루떡을 잘라서 곳간, 굴뚝, 부엌, 장독대, 대문, 외양간, 뒤꼍에 조금씩 놓아두었다가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와는 달리 가택신(家宅神)으로 여기는 단지의 햇곡을 갈아 담는 풍속도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경기 지역에서는 대개 집의 뒤꼍에 짚주저리를 씌운 단지 안에 곡식을 넣고 집의 터주신으로 섬기고 있다. 호남지방에서는 이것을 철륭이라고 부른다. 또 호남이나 영남지방에서는 성주, 조상 등을 모시기도 한다. 대농가의 경우는 마루에 성주항아리나 성주동이를 두고 매년 새로 난 쌀을 갈아 넣는다. 또 안방에는 조상단지를 모시기도 하는데 역시 신곡을 빻아 담는다. 신곡을 바꾸면서 작년에 넣었던 쌀이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 만약 좀이 슬거나 색깔이 변해 있으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제주도에서는 10월에 소나 말의 귀에 표식을 하면서 떡을 장만하여 고사를 지낸다. 목장에서 공동관리하던 소와 말을 10월이 되어 목초지가 마르게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개인 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주인들은 자기의 말과 소에 일정한 표식을 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부터는 각 가정에서 말과 소를 관리하면서 들판에 놓아

1~2 지붕이기
전남 순천시 낙안면 심디스마


1


2

방목하며, 마소의 분뇨로 땅을 기름지게 한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서는 10월 중에 좋은 날을 가려 대구심리를 올리기도 한다. 간단한 제상과 함께 그해 처음 잡은 대구를 쪄서 조상께 올린다.

속신 전국적으로 10월에는 첫눈을 받아먹는 풍속이 전한다. 첫눈을 먹으면 편두통이 낫는다고도 하고, 속앓이 하는 사람도 낫는다고 한다. 그래서 첫눈을 기다렸다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손으로 받아먹기도 하고, 쌓인 눈을 한 웅큼 먹기도 한다.

10월에는 초가 지붕을 새로 인다. 용날이나 뱀날 지붕을 이으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용이나 뱀이 물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경북과 충남에서는 지붕을 새로 하고 화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붕 이는 일을 마치고 상일꾼이 지붕에 오줌을 싸는데 이렇게 하면 그해 집에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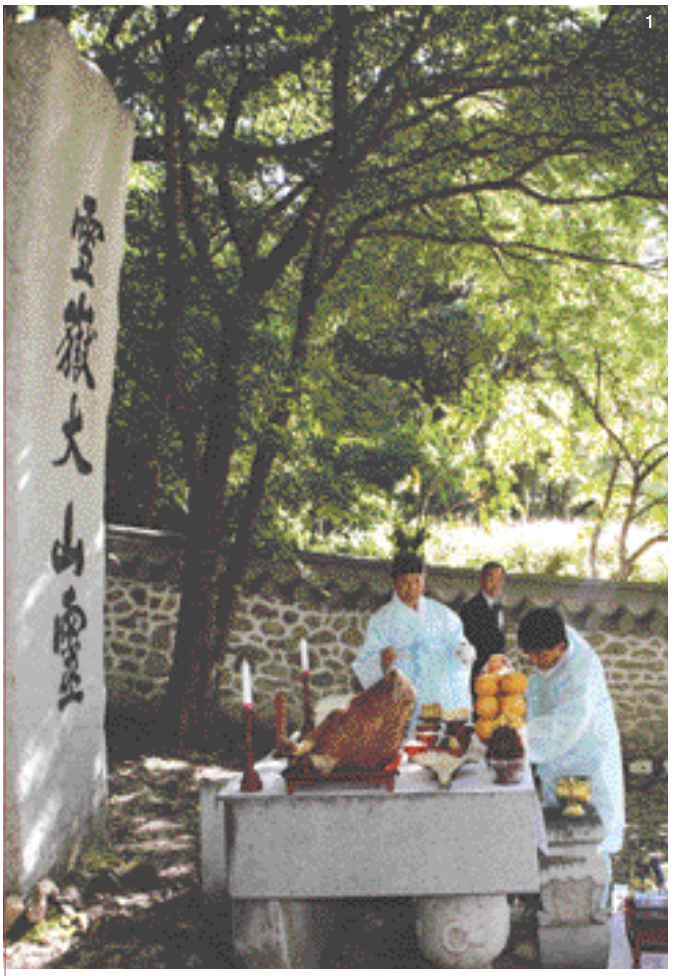
충남 지역에서는 10월 중에 무를 뽑아서 날씨점을 치기도 한다. 무가 깊이 박혀있으면 그해 겨울이 춥고 얕게 박혀 있으면 덜 춥다고 한다. 무도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뿌리를 깊게 박기 때문이다. 10월 초하룻날 날씨를 보아 그해 겨울의 날씨를 점치는 곳이 많다. 이날 날씨가 따뜻하면 겨울이 그리 춥지 않고 추우면 삼동이 몹시 춥다고 한다. 특히 "시월 초하루가 따뜻하면 휘양장수 울고 간다."라는 속담이 전한다. 10월 초하루 날씨가 따뜻하면 옷을 덜 해입기 때문이다. 또 경남 지역에서는 초하룻날 날씨가 따뜻하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 추우면 흉년이 든다고 점치기도 한다. 입동이나 10월 보름에도 역시 초하루와 같이 그해 겨울의 날씨를 점치는 풍습이 전국적으로 전한다. 또 전북과 충남에서는 천둥소리를 하늘이 우는 것으로 점치기도 한다. 10월에 천둥이 치면 나라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징조라고 하고 또는 흉년이 들 조짐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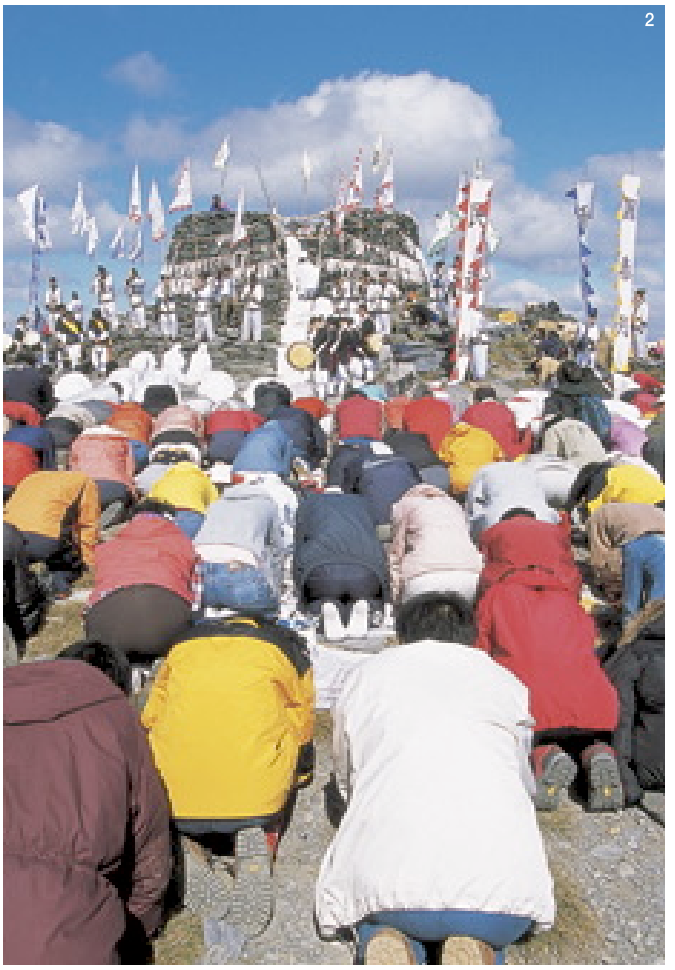
금기 전남 진도에서는 10월에 자식 혼사(婚事)를 하지 않는다. 충남 당진에서는 10월에 메주를 쑤지 않는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메주를 쑤었을 경우, 그 메주로 담근 간장으로는 제물을 장만하지 않는다. 경기도 의왕에서는 입동에 김치를 담그지 않으며 무, 배추 등 김장거리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한다.

절식 10월에 김장 김치를 담그는 것은 각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김장말고도 예부터 시절식으로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음식을 나누던 난로회(煖爐會)와 난로회에서 유래된 신선로(神仙爐)가 소개되어 있다. 서울 지역의 옛 풍속으로 숯불을 화로 가운데 훨훨 피워놓고 철판을 올려놓은 후 쇠고기를 기름, 간장, 계란, 파, 마늘, 고춧가루에 조리하여 구우면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먹는 것을 난로회라 하였으며, 또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 외, 운채, 계란을 섞어 신선로에



백제문화제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국립민속박물관





1 설악산신제
강원도 속초 국립민속박물관
2 태백제
강원도 태백시 태백단 국립민속박물관

탕을 끓여 먹는다고 하였다. 또 여러 가지 소를 넣어 만두를 빚어 먹고, 쑥과 쇠고기, 계란 등을 넣어 쑥국을 끓여 먹기도 하며, 쑥을 찧어 찹쌀가루와 함께 떡을 만들고 볶은 콩가루를 꿀에 섞어 바른 것은 애단자(艾單子)라 한다고 하고, 찹쌀가루로 동그란 떡을 만들어 삶은 콩을 꿀에 섞어 바르되 붉은빛이 나게 한 것을 밀단고(蜜團餻)라 하였다. 또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강정을 만들어 먹는 풍속도 소개하고 있다.

10월의 절식으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시루떡이다. 신곡(新穀)으로 만든 시루떡을 가택신에게 올린 후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어 먹는 풍속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는 10월에 말추렴을 한다. 또 호박죽을 쑤어먹기도 하는데, 호박꼭지를 따낸 후 씨를 깨끗이 훑어낸다. 여기에 동백기름, 꿀, 찹쌀을 넣어 솥단지에 물을 붓는데, 호박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그릇을 놓고 그 위에 호박을 얹은 후 여러 시간을 달여서 먹는다.

현대세시풍속 10월의 양력세시로 국군의 날, 노인의 날, 개천절, 재향군인의 날, 한글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경찰의 날, 국제연합일 등이 있다. 2006년 현재 개천절과 한글날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한글날과 국제연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0월에 행해지는 지역의 축제로는 경남 진주에서 열리는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열리는 백제문화제(百濟文化祭),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 안동에서 열리는 안동민속축제(安東民俗祝祭)가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朝鮮常識-俗 -(南善, 東明社, 1948),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文財管理局, 1969~198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나경수(羅景洙)

개동(開冬)

정의 개(開)는 처음 연다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겨울이 처음 시작되는 10월을 뜻하며 맹동(孟冬), 조동(肇冬)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소통(蕭統)이 엮은 『문선(文選)』 권10에 수록된 '응조관북호전수(應詔觀北湖田收)' 시에 "초겨울[開冬]에 시들어가는 만물을 돌아보니 온 들판에 스산한 모습 가득하네(開冬眷徂物 殘悴盈化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文選.
필자 | 김덕원(金德原)

곤월(坤　)

정의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곤괘(坤卦; ䷁)에 해당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곤괘는 상괘(上卦)도 곤괘(坤卦; ☷)이고 하괘(下卦)도 곤괘(坤卦; ☷)로 이루어진 순음(純陰)의 괘이다.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 ䷗)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으므로 곤괘는 음력 10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김덕원(金德原)

동난(冬暖)

정의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라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훤(冬暄)이라고도 한다. 음력 10월은 겨울의 시작인 입동(立冬)이 들지만 아직 가을 기운이 남아 있어 추위는 느껴지지 않고, 소설(小雪)이 돌아올 즈음이 되어서야 차가운 기운이 들어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다.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5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시인(詩人) 두보(杜甫)의 '기부서회사십운(夔府書懷四十韻)' 시에 "찌는 듯한 더위에 깨진 부채 버리고 따뜻한 겨울[冬暖]에 갈옷을 갈아입네(地蒸餘破扇 冬暖更纖絺)."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家註杜工部詩　,　註分類杜工部　.
필자 | 김덕원(金德原)

동훤(冬暄)

정의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이라는 말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난(冬暖)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동진(東晋) 때 시인(詩人) 도잠(陶潛)의 『도연명집(陶淵明集)』 권1에 수록된 '증장사공(贈長沙公)' 시에 "따사로운 겨울의 조화로운 기운 햇살은 아름다운 옥을 비추네(諧氣冬暄 映懷圭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陶淵明　.
필자 | 김덕원(金德原)

맹동(孟冬)

정의 음력 10월을 달리 이르는 말. 겨울에 해당하는 10, 11, 12월 석 달 가운데 첫 달이므로 맹동이라고 한다. 이 밖에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로는 양월(陽月), 양월(良月), 곤월(坤月), 초동(初冬), 입동(立冬), 소춘(小春), 소양춘(小陽春), 응종(應鍾), 해월(亥月)이 있다.

내용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에 "맹동의 달에 해는 미수(尾宿)에 있고, 저녁에는 위수(危宿)가 남중하고 새벽에는 칠성(七星)이 남중한다. ……물이



얼음 경남 산청 김진열

얼기 시작하고, 땅이 얼기 시작한다. 꿩은 바다로 들어가 대합으로 변하고, 무지개는 숨어 보이지 않는다(孟冬之月 日在尾 昏危中 旦七星中……水始氷 地始凍 雉入大水爲蜃 虹藏不見)."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과 『여씨춘추(呂氏春秋)』「십이기(十二紀)」 맹동기(孟冬紀)에도 「월령편」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呂氏 , 禮記, 南子.
필자 | 신하령(申 令)

방동(方冬)

정의 방(方)은 '이제 막' 또는 '바야흐로'의 뜻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초동(初冬), 개동(開冬)이라고도 한다.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8에 실린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복음(復陰)' 시에 "방동(方冬)이 되니 온 세상이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어제는 저녁에 개더니 오늘은 검은 구름 생기네(方冬合沓玄陰塞 昨日晩晴今日黑)."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송(宋)나라 축목(祝穆)이 찬(撰)한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별집(別集)」 권29에 수록된 '방동의갈(方冬衣葛)' 시에 "수(隋)나라 원충(袁充)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였는데, 원충은 방동(方冬)인데도 아직 갈옷을 입고 있었다(隋袁充少時 友黨過門 方冬充尙衣葛)."라고 한 구절이 있다. 조선시대 문인 박태보(朴泰輔)의 『정재집(定齋集)』「후집(後集)」 권1에 실린 '병인 10월 수창(丙寅十月酬唱)' 시에 "방동(方冬)인데도 날씨가 여전히 화창하고 따사롭더니 지난밤에는 바람소리가 처마에 세차게 불어왔네(方冬天氣仍和暖 昨夜風聲乍怒軒)."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古今事文類 , 定齋 , 家註杜工部詩 .
필자 | 홍성훈(性)

상달[上]

정의 으뜸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월(上月)이라고도 한다. 이 시기는 일년 농사가 마무리되고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으로 옛 사람들은 이 달을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였다.

내용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 "상달은 10월을 말하며, 이 시기는 일년 농사가 마무리되고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기간이다. 따라서 10월은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신과 인간이 함께 즐기게 되는 달로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상달이라 하였다."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常識問答-全 -(南善, 東明社, 1946).
필자 | 김덕원(金德原)

상동(上冬)

정의 상(上)은 각 계절의 처음을 뜻하는 말로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중 첫째 달인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방동(方冬), 초한(初寒)이라고 한다.

내용 중국 명(明)나라 진요문(陳耀文)이 엮은 『천중기(天中記)』 권5에 "10월은 맹동(孟冬)이니 또한 상동(上冬)이라고도 하며, 개동(開冬)이라고도 한다(十月孟冬 亦曰上冬 亦曰開冬)."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청(淸)나라 『세종헌황제상유팔기(世宗憲皇帝上諭八旗)』 권10에 "황제께서 하교하시기를 경사(京師)에 지난해 상동(上冬)부터 신춘(新春)에 이르기까지 눈이 내리지 않았다(上諭京師自上冬以及新春未得雨雪)."라고 한 구절이 있다. 조선시대 노수신(盧守愼)의 문집인 『소재집(穌齋集)』 권7에 수록된 곤지기발(困知記跋)에 "가정(嘉靖) 경신(庚申) 상동(上冬) 4일 후학 노수신은 옥천의 소재(穌齋)에서 쓴다(嘉靖庚申上冬四日 後學盧守愼 書于沃州之穌齋)."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해행총재(海行摠載)』4, 「김동명사상록(金東溟槎上錄)」에 수록된 '주중차종사운(舟中次從事韻)' 시에 "부상(扶桑)의 해와 달은 장대 위에 솟아오르고 큰 바다 풍파는 상동(上冬)에 조용하네(扶桑日月生高檠 大壑風波捲上冬)."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世宗 帝上諭 旗, 穌齋 , 겨中記, 載.
필자 | 홍성훈(性)



겨울 단풍 심디스마

소양춘(小陽　)

정의 초겨울인 음력 10월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으로, 봄날처럼 따뜻하다고 하여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소춘(小春), 양월(良月), 양월(陽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서견(徐堅)의 『초학기(初學記)』에 "10월은 날씨가 따뜻하여 봄날과 같기 때문에 소춘(小春)이라고 한다. 그리고 10월은 양월(陽月)이 되기 때문에 소양춘(小陽春)이라고 한다(十月天時暖似春 故曰小春 十月爲陽月 故又名小陽春)."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명(明)나라 사조제(謝肇淛)의 『오잡조(五雜俎)』「천부(天部)」2에 "10월은 따뜻한 날이 많아 복숭아와 오얏이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 세속에서 이날을 소양춘(小陽春)이라고 한다(十月多煖 有桃李生花者 俗謂之小陽春)."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五雜俎,　　記.
필자 | 김덕원(金德原)

소춘(小　)

정의 초겨울인 음력 10월은 봄날처럼 따뜻하다고 하여 일컬어진 말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소양춘(小陽春), 양월(良月), 양월(陽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수(隋)나라의 두공섬(杜公瞻)이 증보 가주(加註)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10월은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여 봄과 같으므로 소춘(小春)이라고 한다(十月天氣和暖似春 故曰小春)."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歲時記.
필자 | 김덕원(金德原)

양월(良　)

정의 좋고 길(吉)한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으뜸달, 상월(上月)이라고도 한다. 이 시기는 일년 농사가 마무리되고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여 하늘과 조상께 감사의 예를 올리는 때로 열두 달 가운데 으뜸가는 달로 생각하여 양월(良月)이라고 하였다.

내용 『춘추좌전(春秋左傳)』「장공(莊公)」16년 가을조에 "정백(鄭伯)이 위(衛)나라로 망명간 공보정숙(公父定叔)을 돌아오라고 하며 말하기를 '정나라에 공보정숙의 후손이 없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10월에 들어오게 하며 말하기를 '좋은 달이며 가득 찬 수(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公父定叔出奔衛三年而復之曰 不可使共叔無後於鄭 使以十月入曰良月也 就盈數焉)."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左傳.
필자 | 김덕원(金德原)

양월(陽　)

정의 음(陰)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음력 10월에 내재된 양(陽)의 기운이 드러나지 않음을 꺼려 일컫는 말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양(陰陽)의 기운은 홀로 고립되는 법은 없어 음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가운데에도 양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으며,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가운데에도 음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

내용 『주역(周易)』「박괘(剝卦)」 상구(上九) 전(傳)에 "혹자가 말하기를 '박(剝)이 다하면 순곤(純坤)이 되니, 어찌 다시 양(陽)이 있겠는가'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괘(卦)를 달에 배합하면 곤(坤)은 10월에 해당하니, 기운(氣運)이 사라지고 생기는 것으로 말하면 양(陽)이 깎이면 곤괘(坤卦)가 되고 양(陽)이 오면 복괘(復卦)가 되어 양(陽)이 일찍이 다하지 않는다. 양(陽)이 위에서 사라져 다하면 다시 아래에서 생기므로 10월을 양월(陽月)이라 하니, 이는 양(陽)이 없다고 의심할까 두려워해서이다'라고 하였다(或曰 剝盡則爲純坤 豈復有陽乎 曰以卦配月 則坤當十月 以氣消息言 則陽剝爲坤 陽來爲復 陽未嘗盡也 剝盡於上 則復生於下矣 故十月 謂之陽月 恐疑其无陽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진(晉)나라의 갈홍(葛洪)이 전한(前漢) 시대의 잡사(雜事)를 기록한 저서인 『서경잡기(西京雜記)』 권5에 "10월은 음(陰)의 기운이 비록 권세를 부리나 음의 기운은 고립 상태로 지낼 수 없고, 이 달의 순음(純陰)이 왕성한 것을 보고 양(陽)의 기운이 없는 것처럼 의심하기 때문에 양월(陽月)이라고 한다(十月 陰雖用事 而陰不孤立 此月純陰 疑于無陽 故謂陽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아(爾雅)』「석천편(釋天篇)」 월명조(月名條)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病),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病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西京雜記, 爾雅, 周易.
필자 | 김덕원(金德原)

응종(　　)

정의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열두 번째인 응종(應鍾)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은 낮은 음으로부터 황종(黃鍾),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鍾),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鍾),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鍾)의 순으로 되어 있다.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열두 번째인 응종은 10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후한(後漢) 시대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오행편(五行篇)」에 "10월을 응종(應鍾)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종(鍾)은 움직이는 것으로, 만물이 양(陽)의 기운에 응하여 아래에 감추었던 기운을 움직이게 된다는 의미이다(十月謂之應鍾何 鍾動也 言萬物應陽而動下藏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　　義.
필자 | 홍성훈(　性　)

조동(　冬)

정의 조(肇)는 시작의 의미로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중 첫 달인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개동(開冬), 맹동(孟冬), 상동(上冬), 초동(初冬)이라고도 한다.

내용 『서경(書經)』「순전편(舜典篇)」에 "12주(州)를 처음으로 만들고 12주의 산(山)을 봉표(封表)하며 내를 깊이 파셨다(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 濬川)."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주(註)에 "조(肇)는 시작하는 것이다(肇始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書經.
필자 | 김덕원(金德原)

초동(　冬)

정의 초(初)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겨울 석달(10월, 11월, 12월) 중 첫 달인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개동(開冬), 맹동(孟冬)이라고도 한다.


初冬 한국일보 1957년 11월 17일

내용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후집(後集)」 권5에 수록된 '시월 팔일 오경(五更)에 큰 눈이 내리다(十月八日五更大雪)' 시에 "이 때가 바야흐로 첫겨울인데 두 번째 내린 눈송이 옥처럼 쌓였구려(此時方始作初冬再見雪華堆似玉)."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 .
필자 | 김덕원(金德原)

초설(雪)

정의 음력 10월 중순인 소설(小雪) 때를 즈음하여 내리는 첫눈을 뜻하는 것으로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7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두보(杜甫)의 '갱제(更題)' 시에 "다만 첫눈 내릴 때를 즈음하여 말을 타고 형주로 떠나리라(只應踏初雪 騎馬發荊州)."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家註杜工部詩 .
필자 | 김덕원(金德原)

초한( )

정의 초(初)는 처음 시작한다는 뜻으로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중 겨울이 처음 시작하는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맹동(孟冬), 상동(上冬)이라고도 한다.

내용 『전당시(全唐詩)』 권224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동일낙성북알현원황제묘(冬日洛城北謁玄元皇帝廟)' 시에 "초한(初寒) 기와 사당 밖에 승로반(承露盤) 기둥이 옆에 서 있네(碧瓦初寒外 金莖一氣旁)."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조선시대 정수강(丁壽崗)의 『월헌집(月軒集)』 권2에 수록된 '초한심엄(初寒甚嚴)' 시에 "시월이라 순음(純陰)이 모여드니 땅의 기운 막히고 천기가 비로소 상승하네(十月純陰會 地凝天氣升)."라고 한 구절이 있다. 초한(初寒)은 한랭(寒冷)한 기후가 처음 시작된다는 말로 8, 9월을 달리 부르는 뜻으로도 쓰인다.

참고문헌 | 龜溪 , 月 , 全唐詩.
필자 | 홍성훈(性)

해월( )

정의 음력 10월을 달리 부르는 말. 해(亥)는 십이지(十二支)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亥)는 10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전한(前漢) 시대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25 「율서(律書)」에 "10월은 십이지 중 해(亥)에 해당한다. 해는 갖춘다[該]는 뜻이니, 양(陽)의 기운이 아래에 감추어지기 때문에 갖춘다고 한 것이다(十月也 其於十二子爲亥 亥者該也 言陽氣藏於下 故該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전한(前漢) 유안(劉安)의 『회남자(淮南子)』 「시칙훈(時則訓)」에 "10월은 초요성(招搖星)이 해(亥)의 방향을 가리킨다(孟冬之月 招搖指亥)."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南子.
필자 | 김정석(金正錫)





정일

매년 음력 시월 이십일에
백사람들은
풍랑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털옷을 준비한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넋이 바람과 추위를
몰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학과 수전 자료에
손돌목 전설이 전하고 있다.

말날[午]

정의 음력 10월 중 '말[馬]'이라는 의미의 '오(午)'자(字)가 들어간 날. 마일(馬日)이라고도 한다.

내용 말날[午日]에는 말을 소중하게 여겨 팥떡을 해서 마구간 앞에 놓고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비는 풍속이 있다. 오늘날 풍년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가을고사의 날로 10월 말날을 많이 택일(擇日)하는데, 이날을 가장 길일(吉日)로 여기기 때문이다.

음력 정월의 첫 말날을 상오일(上午日)이라 하여 말에게 제사를 지내고 찬을 내주기도 했지만, 민간에서는 10월의 오일(午日)이 더 중요시되었다. 『세시풍요(歲時風謠)』에 "말날을 시월 중에 만나는 것이 좋으니 집집마다 떡 찌는 것이 설날과 같다. 가련하다 닭, 돼지 기르지 않는 자도 오히려 돈 많고 지체 높은 집의 말고사 풍속을 따라간다(午日欣逢亥月中 家家蒸餠歲時同 可憐未畜鷄豚者 猶襲高門馬禱風)."라고 한 데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마구간고사는 10월의 무오일(戊午日)에 가장 많이 지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경도잡지(京都雜志)』에 의하면 무오(戊午)의 무(戊)가 무(茂)와 음이 같으므로, 이날 말고사를 지내 말의 번성을 기도하였다고 한다. 한편, 병오일(丙午日)에는 병오(丙午)의 병(丙)과 병(病)이 음이 같으므로, 말이 병들까 두려워 이날에는 마구간고사를 지내지 않았다.

10월의 말날 마구간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대에 고유 명칭이 중국식 명칭으로 바뀌면서 마구간고사 또한 중국식 제사방식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민간의 풍속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한다. 중국의 고서 『주례(周禮)』에 "봄에는 마조신에게 제사 지내고, 여름에는 선목신에게 제사 지내고, 가을에는 마사신에게 제사 지내고, 겨울에는 마보신에게 제사 지낸다(春祭馬祖 夏祭先牧 秋祭馬社 冬祭馬步)."라고 하였는데, 마조제는 천사방성(天駟房星)에 대한 제사이고, 선목제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방목을 가르친 사람에 대한 제사이고, 마사제는 마구간의 토지신에 대한 제사이고, 마보제는 말을 해치고 재앙을 주는 신에 대한 제사이다. 이 중 마구간의 토지신에 대한 제사인 마사제가 말날 마구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의 기록으로 볼 때 조선 태종 초까지 관 주도의 말고사를 무격(巫覡)이 행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무격에 의해 관 주도의 말고사 풍속이 민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18~19세기의 풍속을 노래한 『세시풍요』에 닭, 돼지 기르지 않는 자도 오히려 돈 많고 지체 높은 집의 말고사 풍속을 따라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역사례 10월의 말날 풍속은 지역마다 큰 편차가 없다. 팥떡을 하여 마구간 앞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토주단지의 곡물을 새 곡물로 갈고 비는 것이 보편적인 풍속이다.

경기도에서는 팥죽을 쑤어 그릇에 담아 터주와 조왕 앞이나 마구간에 놓고 빈다. 또 무로 시루떡을 만들어 토지신인 터주에게 고사를 지내 풍년들었음을 감사하고 새해에도 풍년들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다. "가을떡 도른다"라고 하여 골고루 나눠 먹거나 안택굿을 한다. 충남에서는 고사떡으로 팥떡을 만들어 마구간 앞에 차려놓고 말의 무병을 빈다. 10월의 말날 가운데 무오일을 상마일로 치며 병오일인 경우에는 고사를 지내지 않는다. 전북에서는 말날을 '마날' 또는 '오날'이라 부른다. 이날은 "말이 살찐다."고 하며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굿을 하기도 한다. 또한 조상단지, 철륭단지, 성주단지, 삼신단지의 곡물을 새 곡물로 갈아 넣고 빈다. 이날 "도신찾는다"라고 하여 성조를 모시는 경우도 있다. 경북과 충북에서는 집안 대청소를 하고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쳐서 잡인이나 부정 탄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또 제물을 차려 조상신께 정성을 드리거나 독경을 한다. 경남에서는 "말날에는 손이 없다."고 해서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서 날을 받고 햇곡으로 제를 지낸다. 부산에서는 햇곡식으로 떡을 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굿을 하기도 한다.

의의 말의 실용성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때에는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비는 말날 풍속이 중요한 것이었겠지만, 말의 실용성이 사라진 오늘날 이르러서도 말날 풍속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의 상징적 의미가 그 토대이다. 곧, 말이 기(氣)의 왕성함을 상징하는 동물이기에 말이 상징하는 바처럼 모든 것이

왕성하고 풍요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말날 터주단지의 곡물을 새 곡물로 바꾸는 것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 謠, 時用 樂譜, 周禮,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文 財管理局, 1969~1981), 國의 俗 上(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0), 國歲時 俗 硏究(任東權, 文堂, 1985), 辭源(商務印書館, 1987),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필자 | 최원오(元午)

무오말날(戊午 -)

정의 음력 10월의 무오일(戊午日). 말날의 이칭이다.
내용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이날 '무'로 시루떡을 해서 마구간에 고사를 지내거나 집안 고사를 지낸다는 내용이 보인다. 무오일의 무(戊)가 '무성하다'는 뜻의 무(茂)와 음이 같기 때문에 말날이 무오일이면 무성과 뜻이 통한다고 하여, 이것과 음이 같은 '무'로 시루떡을 만들어 고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무'를 방언으로 '무우'라고도 하는데, '무우'는 바로 '무오'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속이 생긴 것이다. 한편, 지방에 따라서 이날을 단군이 내려온 날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팥떡을 만들어 복을 빌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竹枝.
필자 | 최원오(元午)



상마일(上馬)

정의 말날의 이칭으로 음력 10월의 오일 중에서 무오일(戊午日)일을 가리킴.
내용 민속에서는 10월을 일년 중 가장 윗달이라 하여 상달 또는 상월(上月)이라 하는데, 상달 중의 마(馬)일이 가장 길하기 때문에 이날을 상마일(上馬日)이라 부른다. 또 정월의 첫째 오일을 상오일(上午日)이라 하기 때문에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10월의 무오일을 상마일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무오일이 상마일로 정해지는데, 무오의 무(戊)와 '무성하다'는 뜻의 무(茂)가 음이 같아서 이날 말고사를 지내면 말이 잘 자라고 번식도 잘 한다고 여긴 까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한국의 민속(문화재관리국, 1970), 한국의 馬 민속(임동권 외, 집문당, 1999).
필자 | 최원오(元午)

마구간고사(馬廐間告祀)

정의 음력 10월 말날에 농가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인 마소[牛馬]의 건강과 무사를 기원하는 의례. 대개 10월 안택을 지낼 때 함께 지내며, 마구간 앞에 팥시루떡과 제물을 놓고 신에게 빈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음력 10월 오일(午日)을 말날이라 하며, 팥으로 시루떡을 만들어 외양간에 갖다놓고 신에게 기도하여 말의 건강을 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마구간고사(馬廐間告祀)가 조선시대에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함경도에서는 군웅신을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환란이 생기기 때문에 성조신보다 더 위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명 마부신(馬夫神) 또는 군웅이라고 부르는데, 곧 소의 삼신(三神)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방에서는 일년에 한 번 날을 받아 안택을 하는데, 이때 소가 있는 마구간에서도 고사를 올린다.

이를 '산' 또는 '쇠구영신'이라고 하는 지방도 있는데, 산 또는 군웅은 집안에서 소를 위해 모시는 가신이다. 이 지역 군웅의 신격은 일반적으로 소의 삼신 정도로서, 산과 군웅은 대부분 소가 있는 마구간 앞에 모시고 있으며 소가 탈이 나거나 새끼를

무시루떡 장정희

낳으려고 할 때 이 산이나 군웅 앞에서 빈다.

동해안 지역에서 마구간에 모시는 산(군웅)은 산메기 갈 때 가지고 가서 산에다 모셔두고 집에는 새로 맨다. 산은 마구간 주변에 한지를 접어서 매달아놓고 소가 새끼를 낳거나 또는 병이 났을 때 그 앞에서 물을 떠놓고 빈다. 신체는 보통 한지를 접어서 모시거나 왼새끼를 꼬아서 둥글게 묶어 걸어두고 평소 삼베를 짜면 그 수지천을 끊어서 걸었으며, 밖에서 새로운 천이 들어오거나 육고기를 집안으로 가져왔을 때도 조금씩 떼어서 이 새끼줄에 끼워둔다. 마구간에 모시던 신체는 산메기 갈 때 가지고 가서 나무에다 매어두고, 집에는 새로운 종이나 새끼줄로 다시 만들어서 매달아 둔다. 군웅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해안별신굿을 포함하여 경기도 도당굿, 제주도의 여러 굿에서 널리 모시는 신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江原道 -(文 財管理局,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산메기 현지연구(김진순, 역사민속학1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0).
필자 | 김진순(金 順)

무떡먹기

정의 음력 10월의 첫 오일(午日)에 붉은 팥으로 시루떡을 해서 마구간 앞에 차려놓고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비는 고사를 지낸 후, 그 떡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풍속. 고사떡해먹기, 가을시루, 도신떡해먹기라고도 한다.

내용 오(午)는 십이지(十二支) 가운데 말[馬]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일(午日)을 선택하여 고사를 지내는데, 10월 말날 중에서도 병오일(丙午日)일에는 고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는 병(丙)과 병(病)이 음이 같아 말이 병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오일(戊午日)을 가장 좋은 날로 여겼으니, 그것은 무(戊)의 발음이 무성하다는 무(茂)와 같아 말들이 번성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고사떡을 찔 때에는 네 꼭지 시루에 한 말 분량의 시루떡을 찐다. 떡을 찔 때에는 여러 가지 정성을 기울이는데, 변소에 다녀온 사람은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임신부가 집에 있으면 임신부에게 먼저 불을 떼게 하는 금기를 지킨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명절풍속(名節風俗)」 무오병조(戊午餠條)에는 "옛 풍속에 10월 무오일은 단군이 세상에 내려온 날이라 하여 집집마다 콩떡을 만들어 복을 비니 이를 '무오말날'이라고 한다(舊俗 十月戊午 是檀君降世之日 家家以豆餠祈福 名之曰 무오마날)."라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東竹枝.
필자 | 이창희(李)

청황패놀이(-)

정의 인천 지역에서 매년 3월 삼짇날과 10월 상달 첫 오일(午日)에 풍농(豊農)과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놀이.

내용 청황패(靑黃牌)놀이는 수령과 지방 유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이 청패(靑牌)와 황패(黃牌)로 나뉘어 시합을 한다. 시합에서 청패는 어부를 상징하는데 각종 어구(漁具)를 들고 참여하며, 황패는 농부를 상징하여 농기구를 들고 참여한다. 각 패는 각종 깃발을 비롯한 황패틀과 청패틀을 앞세우고 관원의 복장을 한 패장(牌長)의 지휘 아래 싸움을 벌이는데, 놀이는 드는 마당, 뵈는 마당, 비는 마당, 노는 마당, 얼림 마당, 싸움 마당, 화동 마당, 나는 마당 하여 모두 여덟 마당으로 나누어 한다.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양쪽 모두가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풍어와 풍농을 함께 기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흰 천에 '원도사제도신합사신위(猿島祠諸島神合祀神位)'라고 쓴 큰 깃발을 세웠다고 한다. 원도사(猿島祠)는 인천의 원도(猿島)라는 섬에 있던 제단으로,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서해 여러 섬의 신들을 함께 모아서 제사하던 곳이다. 따라서 청황패놀이는 원도사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며 그 기원은 조선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참고문헌 | 인천의 생활민속(인천문화원, 2001).
필자 | 서영대(徐永大)

하원(　元)

정의 삼원(三元)의 하나로서 10월 15일을 가리킴. 삼원이란 상원(上元: 음력 1월 15일), 중원(中元: 음력 7월 15일), 하원(下元: 음력 10월 15일)을 말하는데, 이는 도교(道敎)에서 보름을 중심으로 일년을 세 마디로 분절하여 성립시킨 삼원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달을 중심으로 세시(歲時)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권에서 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으로서, 일년을 세 등분 한 뒤 이를 총체적으로 묶어 삼원이라 칭한 데서 도교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유래 도가(道家)에서는 천상의 선관(仙官)이 일년에 세 번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 그때를 원(元)이라 하며 1월, 7월, 10월의 보름인 상원, 중원, 하원에 초제(醮祭)를 지내는 세시풍속이 있었다. 도가에서는 본래 삼회일(三會日: 1월 7일, 7월 7일, 10월 5일)이 정립되어 있었으나, 육조시대에 불교의 우란분절(7월 15일)에 자극을 받아 기존의 삼회일을 재편하여, 15일을 마디로 하는 삼원일을 성립시켰다. 곧 천상의 선관 삼관대제(三官大帝)인 상원천관(上元天官), 중원지관(中元地官), 하원수관(下元水官)이 각각 상원, 중원, 하원에 생겨났다고 하여 이날들을 삼관대제의 제삿날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하원을 10월의 의례로 광범위하게 살필 때, 고구려의 동맹(東盟)이나 예의 무천(舞天) 등과 같이 우리 민족의 제천의례(祭天儀禮)와 맞닿아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다.

내용 고려시대 이후 도교가 성행하여 조선시대에는 하원이 되면 문소전제(文昭殿祭)와 종묘대제(宗廟大祭)를 지냈으며, 서낭신과 토지신을 모시고 한 해의 벽사기복을 기원하는 초제를 올렸다. 이날은 승려들이 3개월간의 동안거(冬安居)에 드는 날[結制日]로서, 불교 신자들은 이날 결제불공을 잘 올리면 돌아가신 부모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우리 민속에서는 추수가 끝나 한 해의 수확물을 갈무리 해놓은 10월을 일년 중 가장 좋은 달[上月]이라 여겨, 조상신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풍년을 감사하고 햇곡식을 올리는 의례를 행해왔다. 마을에서는 10월에 동제(洞祭)나 대동굿을 하여 추수 감사의 의례를 올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가정에서는 5대조 이상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 묘제(墓祭)를 지낸다. 또 성주신을 비롯한 여러 가신(家神)에게 가내의 평안함을 비는 고사도 지낸다. 민가에서는 가택을 수호하는 신의 신체(神體)로서 단지 속에 곡식을 넣어두는데, 이 시기에 햇곡식으로 갈아넣은 뒤 묵은 곡식은 밖으로 내면 복이 달아난다 하여 식구들이 함께 먹었다.

지역사례 전남에서는 하원의 달이 서산에 완전히 지고 날이 새면 그해의 시절이 길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는 속설이 전한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새터)에 이날을 전후하여 행하는 '새터가을굿'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이 중 벼훑이소리를 살펴보면 "시월상달 좋은날에 가실굿을 할라해도 큰며느리 엉둥이춤 꼴보기싫어 못하겠네 모시적삼 안섶안에 분통같은 저젖보소 저젖보고 넘나들면 영결종천 귀양간다."와 같은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천 및 기타 하원은 대보름인 상원이나 백중(百中)인 중원에 비해 활발한 세시풍속으로 전해오지 못하였으며, 주로 수확을 마친 시기로서 상달이라는 10월 풍속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다. 따라서 추수를 감사하는 세계적인 의례와 공통성을 지니는데, 곧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10월을 양월(良月)이나 상동(上冬)으로 일컬었고 일본도 이달을 신월(神月)이라 여겨 햇곡식을 신에게 드리기 가장 좋은 달,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달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10월은 양력 11월이라 서구의 추수감사절과도 같은 시기로서, 수확을 중심으로 한 세계 공통적 세시(歲時)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文堂, 1985), 高麗時代 國家 佛敎儀禮 硏究(安智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 구미래(具美來)

하원달점[　元　　]

정의 음력 10월 보름 하원일(下元日)에 달이 지는 현상을 보고 그해의 연사(年事)를 점쳐보는 풍속.

내용 정월대보름을 상원(上元), 7월 보름을 중원(中元), 10월 보름을 하원(下元)이라고 하며, 이날 도교

에서는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하원 밤에는 달이 지는 것을 보아 그해의 연사를 점치는데, 달이 완전히 지고 날이 새면 그해의 시절(時節)이 길(吉)하지만, 달이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 날이 새면 그해의 시절이 흉(凶)한 것으로 여긴다.

지역사례 전남 지역에서는 달이 완전히 지고 나서 날이 새면 그해 시절이 길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흉한 것으로 여긴다. 부산 지역에서도 하원의 달이 서산에 완전히 지고 날이 새면 그해의 시절이 길하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고 여긴다.

의의 달점[月占]은 달을 소생의 상징물 또는 생명력의 상징물로 여기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원일 무렵은 한 해 농사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달이 완전히 지고 새로운 날이 밝아야 시절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查報告書-全羅南道 -(文 財管理局, 1969),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文堂, 1985),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박종오(朴宗吾)

손돌날[孫乭]

정의 음력 10월 20일로 뱃사공 손돌(孫乭)이 억울하게 죽은 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비롯한 세시기에 의하면, 이날은 해로(海路)를 통해 강화도로 파천(播遷)하는 고려의 왕을 모시던 뱃사공 손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날이라고 한다. 이날을 '손돌뱅이죽은날', '손사공죽은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손돌을 위해 매년 '주사 손돌공 진혼제(舟師孫乭公鎭魂祭)'를 지낸다. 동절기에 속하는 음력 10월 20일을 전후해서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孫乭風],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하며, 손돌이 죽은 장소를 손돌목[孫乭項]이라고 부른다. 강화도 사람들은 손돌풍(孫乭風)이 불 때에는 배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명칭의 유래 구전(口傳)과 세시기의 문헌 자료에 의하면, 손돌목은 손돌이라는 뱃사공과 관련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손돌목은 물살이 빠르고 소용돌이치는 곳으로, 이곳을 항해하는 것은 뱃사람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태조 4년(1395)에 세곡 운반선 16척, 태종 3년(1403)에 30척, 태종 14년(1414)에 66척, 세조 원년(1455)에 54척이 침몰한 것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해난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손돌목의 지형적 여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손돌목 전설이다. 이 밖에 손광유에서 유래했다는 설과 선도항(選渡項)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 권2 강화부(江華府) 산수조(山水條)에, 고려 우왕 3년에 만호인 손광유가 외적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을 손량항(孫梁項)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손광유는 외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아니라 술에 대취하여 숙면하다가 외병의 공격을 받아 대패하여 조정에 의해 하옥된 인물이다. 그리고 『여지도서(輿地圖書)』「강도부지(江都府誌)」 강화(江華) 산천조(山川條)에 손돌항이 강화부의 손방(巽方)이 되므로 일명 '손돌항'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가(地家)의 설로서 강화의 산세와 관련하여 부회한 것이다.

내용 매년 음력 10월 20일에 뱃사람들은 풍랑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털옷을 준비한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넋이 바람과 추위를 몰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헌과 구전 자료에 손돌목 전설이 전하고 있다.

고려 때 뱃사공이었던 손돌이 몽고병사에게 쫓기어 강화도로 피신하는 고종(또는 공민왕)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곳의 지형적 특성을 알지 못한 왕은 자신을 험지로 유인한다고 오해하여 손돌을 참수시켰다. 그러나 손돌은 죽으면서도 바가지 하나를 물에 띄우고 바가지를 따라갈 것을 권하였다. 이것을 따라간 왕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강화도로 들어갔다. 왕이 잘못 생각했음을 알고 죽은 손돌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손돌의 묘를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 좁은 물길을 손돌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날이 바로 음력 10월 20일이다. 또한 손돌과 관련지어 이날 부는 바람을 손돌풍이라 부르고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부른다.

매년 음력 10월 20일에 손돌목에서 부는 바람이 굳이 고려 때부터 불기 시작했을 리 만무하다. 손돌바람이 분다는 음력 10월 20일 무렵은 대체로 양력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해당한다. 이때는 절기상 소설(小雪), 대설(大雪)을 전후한 시기로, 기온이 급강하


1


2

1~2 손돌목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국립민속박물관

하기 시작한다. 이 무렵에 부는 바람이나 바람이 몰고오는 추위에는 어떤 연유를 간직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민간적 사고로 해석한 것이 바로 손돌목 전설이다.

손돌목은 그 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으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넋이 추위와 바람을 몰고온다고 믿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믿음이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여 손돌목 전설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손돌이라는 뱃사공을 등장시켜 그의 죽음이 억울하고 참혹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손돌목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으며, 손돌추위와 손돌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여 이야기에 진실성을 부여한 것이다.

현재 채록된 손돌목 전설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 김포와 인천광역시 강화뿐만이 아니라 이 전설이 전국적으로 수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손돌날이 세시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의의 손돌목 전설에서 손돌날이 생긴 이유와 손돌목, 손돌바람과 손돌추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손돌과 관련된 명칭들의 유래를 통해 민중들은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축하고 있다. 즉, 손돌의 참수를 통해 임금의 근시안적 안목과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죽는 순간까지도 왕의 안위를 걱정한 손돌의 모습은 왕의 근시안적 행위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의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만드는 구실을 한다. 현재 김포에서는 손돌공의 충성심을 3대 얼의 하나로 선정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大東地志, 東國歲時記, 輿地圖書, 國歲時 俗(任東權, 瑞文堂, 1973), 孫乭 에 對하여(朴廣成, 畿甸文 硏究 9, 仁 敎育大 畿甸文 硏究所, 1978), 期 美關係의 硏究(金源模, 高麗大 校 博士 位論文, 1980), 說 (民俗 , 敎文社, 1989), 金 郡 (金 郡 委員 , 金 郡, 1993), 손돌목(孫乭) 傳說의 分析과 場(이영수, 比較民俗 13, 比較民俗 , 1996).
필자 | 이영수(李瑛洙)

뱃사공얼어죽은날

정의 음력 10월 20일의 손돌날[孫乭日]을 달리 부르는 말. 지역에 따라서는 '손돌맹이가 얼어죽은날', '손돌추위(고놈죽은날)', '손사공얼어죽은날', '뱃사공얼어죽은날'이라 부른다.

내용 및 지역사례 뱃사공얼어죽은날인 음력 10월 20일은 절기상 소설(小雪)과 대설(大雪)을 전후한 시기에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강하하고 큰 바람과 추위가 찾아온다. 따뜻하다가도 이날만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부는데, 그것은 얼어 죽은 손돌의 원혼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무날의 추위는 빌려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반드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한다. 뱃사공얼어죽은날은 그해의 첫 추위가 찾아오는 날로 이날 추위의 강약을 보고 그해 겨울 날씨를 가늠하였다. 간혹 바람이 불지 않고 날이 따뜻하면 겨울 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고, 반대로 추위가 심하면 그해 겨울은 몹시 추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손돌날의 추위를 보고 겨울 채비를 하는데, 아주 추우면 겨울옷을 두껍게 짓고, 덜 추우면 다소 얇게 짓는다고 한다. 이날 날씨가 따뜻한 것을 두고 충북과 경북에서는 '감투(감태)장이가 우는 날'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날씨가 따뜻하여 감투가 잘 팔리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생긴 말이다.

손돌맹이추위나 손사공얼어죽은날과 같은 명칭도 이날 불어오는 바람과 매서운 추위를 염두에 두고 일컫는 말이다. 강원도에서는 이날 어김없이 닥치는 추위를 빗대어 '고놈죽은날'이라고 하고 경북 군위에서는 지독한 뱃사공이 몹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0월 스무날 배를 타고 나갔다가 얼어죽었기 때문에 '뱃사공고놈얼어죽은날'이라고 부른다. 충남 금산에서는 이날 추위로 "호랑이 붕알(불알)이 얼면, 동지 때나 되어 풀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경남 양산과 의령에서는 이날 날씨가 추우면 그해에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예측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는 이날이 오기 전에 김장을 담근다고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文 財管理局, 1969~1981), 國歲時 俗(任東權, 瑞文堂, 1973).
필자 | 이영수(李瑛洙)

손돌제(孫乭)

정의 음력 10월 20일에 억울하게 죽은 뱃사공 손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 고려가 몽고의 침입을 피해 강화로 파천(播遷)한 시기인 고종 19년(1232) 음력 10월 20일을 손돌공의 주기(週忌)로 삼아 김포에서는 매년 손돌공의 묘에서 '주사 손돌공진혼제(舟師孫乭公鎭魂祭)'를 봉행한다. 손돌공의 묘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 103-1번지, 사적 제292호로 지정된 덕포진 안에 있다.

내용 구전되는 손돌목[孫乭項] 전설에 의하면 왕이 손돌을 참수시킨 것을 후회하고 손돌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 "묘지를 만들고 사당을 건립하여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며, 『여지도서(輿地圖書)』「강도부지(江都府誌)」 강화(江華) 고적조(古蹟條)에도, "뱃사공들이 그의 시체를 강변에 묻고 그 땅을 손돌항이라 이름 붙였으며, 무덤의 형태는 지금도 완연하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손돌의 묘가 실재했으며, 전설이 형성된 초기부터 손돌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가 거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손돌제는 조선시대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일제의 침략 이후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김포군지(金浦郡誌)』에 보면, 손돌목의 대안(對岸)인 대곶면 신안리에는 언제부터인가 주사 손돌공을 모시는 사당이 세워져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파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당지기까지 있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손돌의 묘와 사당이 언제 유실되었는지 그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원혼을 달래는 것은 우리의 민간신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원혼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복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곧 손돌의 한을 풀기 위해 손돌에게 진혼제를 올리고, 그 대가로 배의 안전 운항을 기대했던 것이다. 여기서 서낭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사적 제292호로 지정된 덕포진 안에 있는 손돌공의 묘는 1970년 대곶면민들이 복원한 것이다. 대곶면 신안 2리 마을 총회에서 묘소를 복원하기로 결의하고, 마을사람 120명을 동원하여 4일간 복원공사를 진행하였다. 그해 4월 6일에 기관, 사회단체, 일반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첫 후염제를 지냈다.

참고문헌 | 大東地志, 東國歲時記, 輿地圖書, 國歲時 俗(任東權, 瑞文堂, 1973), 孫乭 에 對하여(朴廣成, 畿甸文 硏究 9, 仁 敎育大 畿甸文 硏究所, 1978), 期 美關係의 硏究(金源模, 高麗大 校 博士 位論文, 1980), 說 (民俗 , 敎文社, 1989), 金 郡 (金 郡 委員 , 金 郡, 1993), 손돌목(孫乭) 傳說의 分析과 場(이영수, 比較民俗 13, 比較民俗 , 1996).
필자 | 이영수(李瑛洙)

손돌풍(孫乭)

⇨ 손돌날[孫乭日]: 겨울편

손돌제 孫乭祭











1 제물
2 분향
3 강신
4 헌작
5 독축
6 합문
7 소지
8 음복
9 철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국립민속박물관



氣 절기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오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냉해를 줄이기 위해
수확한 무를 땅에
구덩(구덩이)을 파고
저장하기도 한다. 冬



입동 풍경 이억영

입동(立冬)

정의 24절기 중 열아홉 번째 절기.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여 입동(立冬)이라고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225도일 때이며, 양력으로는 11월 7일 또는 8일 무렵, 음력으로는 10월에 든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 후 약 15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 전 약 15일에 든다.

내용 중국에서는 입동 후 5일씩을 묶어 3후(三候)로 삼았다. 초후(初候), 중후(中候), 말후(末候)가 그것으로 초후에는 비로소 물이 얼기 시작하고, 중후에는 처음으로 땅이 얼어붙으며, 말후가 되면 꿩은 드물어지고 조개가 잡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동을 특별히 명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채비를 하기 시작한다.

입동 즈음에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땅 속에 굴을 파고 숨으며, 산야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풀들은 말라간다. 『회남자(淮南子)』 권3 「천문훈(天文訓)」에 의하면 "추분(秋分)이 지나고 46일 후면 입동(立冬)인데 초목이 다 죽는다."라고 하였다. 낙엽이 지는 데에는 나무들이 겨울을 지내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자연의 이치가 숨었다.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하기 시작한다. 입동을 전후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장이 맛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요즈음은 김장철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농가에서는 냉해(冷害)를 줄이기 위해 수확한 무를 땅에 구덕(구덩이)을 파고 저장하기도 한다. 추수하면서 들판에 놓아두었던 볏짚을 모아 겨우내 소의 먹이로 쓸 준비도 한다. 예전에는 겨울철에 풀이 말라 다른 먹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볏짚을 썰어 쇠죽을 쑤어 소에게 먹였다.

입동을 즈음하여 예전에는 농가에서 고사를 많이 지냈다. 대개 음력으로 10월 10일에서 30일 사이에 날을 받아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하고, 제물을 약간 장만하여 곡물을 저장하는 곳간과 마루 그리고 소를 기르는 외양간에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고 나면 농사철에 애를 쓴 소에게 고사 음식을 가져다 주며 이웃들 간에 나누어 먹었다.

입동에는 치계미(雉鷄米)라고 하는 미풍양속도 있었다. 여러 지역의 향약(鄕約)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계절별로 마을에서 자발적인 양로 잔치를 벌였는데, 특히 입동, 동지(冬至), 제석(除夕)날에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을 모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것을 치계미라 하였다. 본래 치계미란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으로 받는 뇌물을 뜻하였는데, 마치 마을의 노인들을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기인한 풍속인 듯하다. 마을에서 아무리 살림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년에 한 차례 이상은 치계미를 위해 출연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랑탕 잔치로 대신했다. 입동 무렵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 이때 도랑을 파면 누렇게 살이 찐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다. 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끓여 노인들을 대접하는 것을 도랑탕 잔치라고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10월부터 정월까지의 풍속으로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임금에게 우유를 만들어 바치고, 기로소(耆老所)에서도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우유를 마시게 했는데, 이러한 겨울철 궁중의 양로(養老) 풍속이 민간에서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입동을 즈음하여 점치는 풍속이 여러 지역에 전해오는 데, 이를 '입동보기'라고 한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속담으로 "입동 전 가위보리"라는 말이 전해온다. 입춘 때 보리를 뽑아 뿌리가 세 개이면 보리 풍년이 든다고 점치는데, 입동 때는 뿌리 대신 잎을 보고 점친다. 입동 전에 보리의 잎이 가위처럼 두 개가 나야 그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믿어지고 있다. 또 경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입동에 갈가마귀가 날아온다고 하는데, 특히 경남 밀양 지역에서는 갈가마귀의 흰 뱃바닥이 보이면 이듬해 목화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점친다.

이러한 농사점과 더불어 입동에는 날씨점을 치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입동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그해 겨울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여기고, 전남 지역에서는 입동 때의 날씨를 보아 그해 겨울 추위를 가늠하기도 한다. 대개 전국적으로 입동에 날씨가 추우면 그해 겨울이 크게 추울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南子, 한국 민속의 세계5-세시풍속·전승놀이-(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나경수(羅景洙)

입동보기(冬-)

☞ 입동(立冬): 겨울편

9월 입동 오나락이 좋고 10월 입동 늦나락이 좋다

정의 음력 9월에 입동(立冬)이 든 해는 추위가 빨리 오므로 조생종(早生種)이 좋고, 음력 10월에 입동이 든 해는 추위가 늦게 오므로 중만생종(中晩生種)이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오나락은 일찍 익는 벼 곧 조생종을 가리킨다. 늦나락은 늦게 익는 벼 곧 중만생종을 가리킨다. 입동은 음력 10월의 절기이나 9월 전에 윤달이 들면 9월에 입동이 들게 된다. 이처럼 9월에 입동이 든 해는 추랭(秋冷)이 빨리 오게 된다. 이런 때의 벼 품종은 등숙(登熟) 기간이 짧은 조생종이 적당하다. 그에 비해 10월에 입동이 든 해는 추랭이 늦어지므로 벼가 익는 등숙 기간도 충분해진다. 그래서 10월 입동인 해에는 중만생종이 적당하다.

의의 농사의 적기는 절기 또는 음력의 어느 시기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이 속담에는 절기와 음력 시기를 함께 보아야 농사의 적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경우를 말해주는 또 다른 속담으로 "보리갈이를 할 때는 10월 입동 후에 갈고 9월 입동은 입동 전에 간다."라는 말이 있다.

참고문헌 | 농사속담집(전라남도 농촌진흥원, 1979).
필자 | 신경숙(愼慶淑)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정의 입동(立冬)이 지나면 김장철이 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입동은 겨울[冬]에 들어선다[立]는 의미로 곧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이다. 겨울을 나는 데 필요한 월동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김장이며 대개 김장은 입동을 기준해서 한다. 입동 전 혹은 입동 직후에 해야 제 맛이 나기 때문이다. 입동이 지난 지가 오래면 배추가 얼고 싱싱한 재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입동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김장할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속담이다.

정학유(丁學遊)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의 '시월령' 첫머리도 김장에 대한 노래로 시작하고 있다. "시월은 초겨울이라 입동 소설 절기로다. 나뭇잎 떨어지고 고니 소리 높이 난다. 듣거라 아이들아 농사일을 필하도다. 남은 일 생각하여 집안일 마저 하세. 무 배추 캐어 들여 김장을 하오리라. 앞 냇물에 정히 씻어 소금 간 맞게 하소. 고추 마늘 생강 파에 젓국지 장아찌라. 독 곁에 중두리요 바탱이 항아리라. 양지에 움막 짓고 짚에 싸 깊이 묻고, 장다리 무 알밤 말도 수월찮게 간수하소." 정학유는 시월 입동 농가가 할 첫째 일로 김장을 이야기하면서, 김장의 재료와 담는 과정 그리고 김장독 묻는 일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신경숙(愼慶淑)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

정의 보리 파종 한계 시기를 강조한 속담. 남부지방의 보리 파종은 10월 중순이 알맞으나, 늦어도 입동(立冬)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내용 보리는 씨를 언제 뿌리느냐에 따라 춘파성(春播性)과 추파성(秋播性)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겨울보리는 대부분 추파성이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보리는 추위를 잘 견디는 내한성(耐寒性)으로, 겨우내 땅 속에서 충분한 성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입동은 양력 11월 상순 무렵으로 이때부터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동 후에 보리를 파종하면 발아와 생육이 부진해져 겨울 추위에 해를 입기가 쉽다. 따라서 보리 파종은 아무리 늦어도 입동 전에 마쳐 싹을 내야만 안전한 월동이 가능한데, 이 입동 전은 각종 월동 준비로 농촌의 일손이 아주 바쁠 때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입동 전에 보리 파종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일손이 모자란다면 흙먼지만 날리는 수준일지라도 반드시 파종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사속담 같은 뜻의 속담으로 "입동 전에 보리는 묻어라.", "입동 전 송곳보리다", "입동 전 가위보리다"가 있다. '입동 전 송곳보리'라는 말은 입동 전에 보리 싹이 송곳 길이로 자라야 이듬해 수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위보리는 보리잎 두 개가 돋아난 때의 모양이 가위 모양 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고, 충청도 이북에서는 입동 전에 보리 싹이 가위 모양처럼 두 잎이 나야 보리가 잘 된다는 뜻이다. 이 속담들은 모두 입동 전에 보리 파종을 끝내라는 것과 동시에 입동 전에 싹을 일정한 길이로 키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속담에서는 보리잎 두 개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입동 전 가새보리 춘분 되어야 알아본다.", "입동 전 가새보리 얼어 죽기 쉽다."가 그것이다. 가새는 가위의 방언이다. 이 속담들은 보리를 늦게 파종하여 월동 전에 보리잎이 두 개 밖에 확보되지 못할 경우, 내한성이 약해 겨울나기가 어려우므로 이듬해가 되어야만 작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곧 보리잎 두 개는 보리가 겨울을 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안전한 월동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잎이 돋아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속담들은 그만큼 파종 시기가 중요함을 말해준다.

참고문헌 | 농사속담집(전라남도 농촌진흥원, 1979),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신경숙(愼慶淑)

1~2 보리파종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소설(小雪)



소설 풍경 이억영

정의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小雪)이라고 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240도일 때이며,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 음력으로는 10월에 든다.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 후 15일,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大雪) 전 15일에 든다.

내용 중국에서는 소설 후 5일씩을 묶어 3후(三候)로 삼았다. 초후(初候), 중후(中候), 말후(末候)가 그것으로 초후에는 무지개가 걷혀서 나타나지 않고, 중후에는 천기(天氣)는 오르고 지기(地氣)는 내리며, 말후에는 폐색되어 겨울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을 명절로 생각하지 않지만, 눈이 내릴 정도로 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 채비를 한다. 그러나 한겨울에 든 것은 아니고 아직 따뜻한 햇살이 비치므로 소춘(小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는 평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첫 추위가 온다.

소설은 대개 음력 10월 하순에 드는데,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전할 정도로 날씨가 급강하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 전에 김장을 하기 위해 서두른다. 이미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위한 잔일이 남는다.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나 호박을 썰어 말리기도 하며 목화를 따서 손을 보기도 한다. 또 겨우내 소먹이로 쓸 볏짚을 모아두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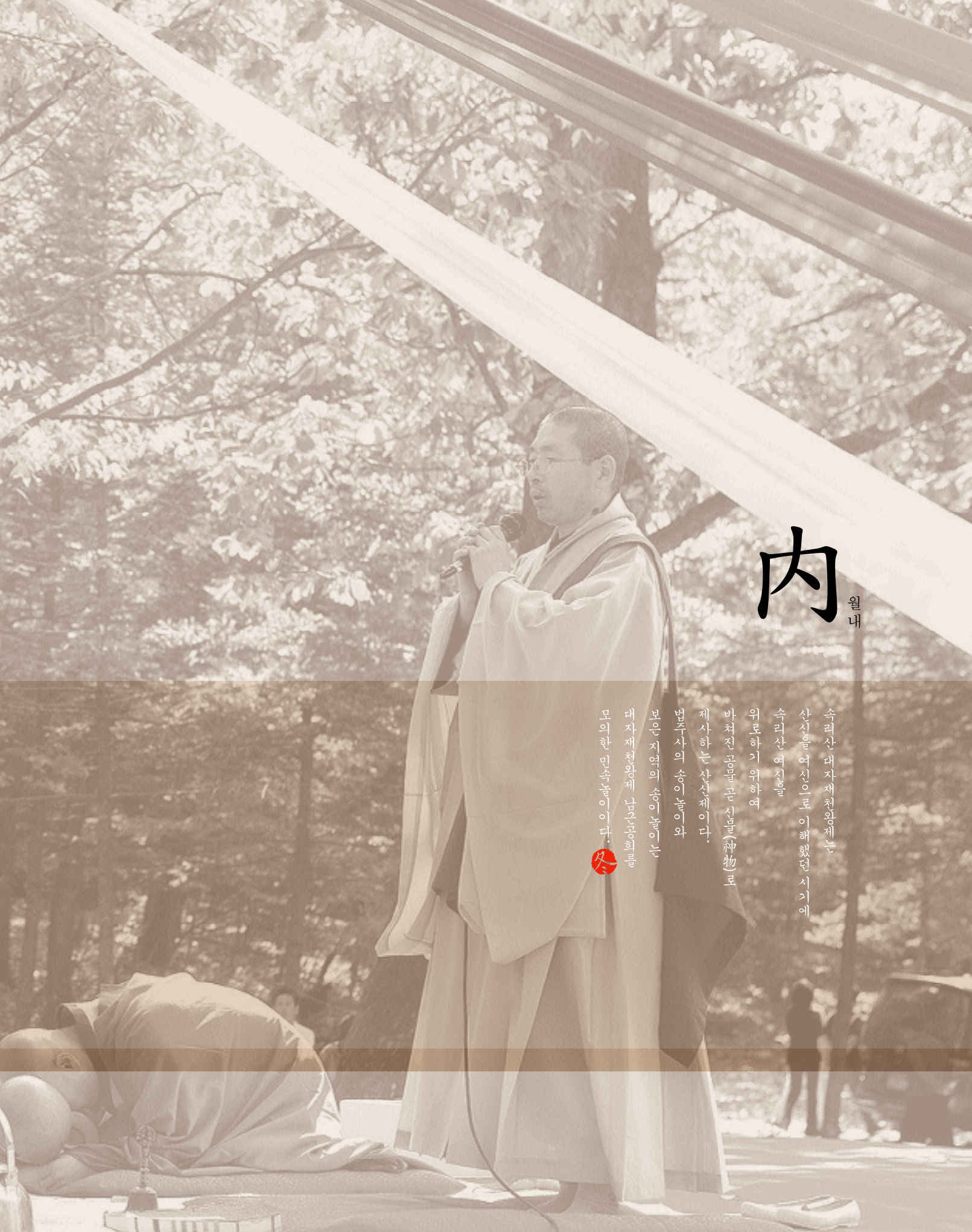
한편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설에 날씨가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대개 소설 즈음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도 추워진다. 이날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하며, 뱃사람들은 소설 무렵에는 배를 잘 띄우려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손돌바람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고려 23대 고종이 몽고군의 침략을 받아 강화도로 몽진을 가던 때라고도 하고, 조선시대에 이괄의 난을 피해 인조(仁祖)가 한강을 건너던 때라고도 한다. 사공 중에 손돌(孫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피난을 가는 왕을 모시고 뱃길을 서둘렀지만, 왕이 보아하니 손돌이 자꾸 일부러 그런 것처럼 물살이 급한 뱃길을 잡아 노를 젓는 것이었다. 왕은 의심이 갔다. 그래서 신하를 통해서 물살이 세지 않은 안전한 곳으로 뱃길을 잡으라고 하였지만 손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왕은 의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상에서 손돌을 참수(斬首)하고 말았다. 손돌은 죽기 전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지만 소용없음을 알고 바가지를 하나 내놓으며 물에 띄운 바가지가 가는 길을 따라 뱃길을 잡으라고 말하였다. 물살은 점점 급해지고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손돌이 가르쳐 준대로 바가지를 물에 띄웠다. 바가지는 세찬 물살을 따라 흘러갔으며, 왕을 실은 배도 그 뒤를 따랐다. 무사히 뭍에 내린 왕은 그때야 비로소 손돌의 재주와 충심을 알았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손돌을 죽인 후에 더더욱 세찬 바람이 불고 물살이 급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싣고 가던 말의 목을 잘라 제사를 모셨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다고도 한다. 뭍에 도착한 왕은 곧 후회를 하였지만 손돌의 목숨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현재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덕포진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장지(葬地)를 정해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이때가 음력 10월 20일이었는데, 매년 소설 즈음인 이맘때가 되면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소설 무렵에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필자 | 나경수(羅景洙)





內 월내

숙리산 대자재천왕제는
산신을 여신으로 이해했던 시기에
숙리산 여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쳐진 공물과 신물(神物)로
제사하는 산신제이다.
법주사의 송이놀이와
보은 지역의 송이놀이는
대자재천왕제 남오공희를
모의한 민속놀이이다. 冬

귀표고사[　　告祀]

정의　음력 10월 제주도에서 마소가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마소의 귀에 표시를 하면서 지내는 고사. 귀폐코사, 귀폐코ᄉᆞ, 귀폐코시라고도 하지만, 이는 단지 같은 말의 음상(音相)이 달라진 것일 뿐이다. 달리 ᄆᆞ쉬귀폐라고 하기도 한다. 방둥코사라는 말도 있으나 '방둥'의 뜻은 알 수 없다.

내용　귀표고사는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이자 방목이 끝나는 시기인 음력 10월에 지낸다. 특히 소의 경우 음력 10월 상사일(上巳日)을 가려 귀표를 하고 고사를 지낸다. 귀표고사는 전적으로 남성들에 의하여 유교식 절차에 따라 간단하게 진행되는 작은 규모의 제의이다. 귀표의 대상이 되는 소는 대개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 살된 송아지이다. 소 임자들은 매번 형편에 따라 결정된 장소에 모여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지낸다. 귀표를 하는 장소를 '귀표왓'이라고 하니, 곧 '귀표 하는 밭'이라는 뜻이다.

먼저 자신의 소유라는 뜻으로 송아지의 한쪽 귀 일부를 도려내는데, 이것이 귀표이다. 그런 다음 특정한 글자 모양을 새긴 쇠를 불에 달구어 엉덩이에 낙인(烙印)을 찍고 도려낸 귀 한 부분은 구워서 제물로 삼는다. 별도로 장만하는 제물은 돌래떡과 오메기떡 그리고 술 정도이다. 돌래떡은 새로 수확한 밭벼로 만들고 오메기떡 역시 새 좁쌀로 빚는다. 특히 마소 돌보는 일을 업으로 삼는 테우리나 마소가 많은 집에서는 메밥을 비롯한 여러 제물을 두루 차려 제사를 지낸다. 고사가 끝나면 마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고 농사를 망쳐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마소를 길러 밭갈이와 짐 운반에 이용하는 한편 그 배설물을 이용하여 거름을 얻었다. 농번기에는 마소를 쉐막이라고 하는 외양간에 매어 길렀다. 이때는 촐(꼴)을 먹이거나 잠깐씩 들로 몰고 나가 풀을 먹였다. 외양간 바닥에는 풀을 깔아 마소의 배설물과 섞이게 하였다가 나중에 걷어내어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농한기에는 한라산 중턱에 마련된 공동 목장에 마소를 방목하였다. 그 기간은 대체로 들에 풀이 자라는 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이때 다른 집 마소들과 섞이기 때문에 혼동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특별한 표시가 필요하였다. 목장에 처음으로 올려보내는 마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귀표고사는 바로 이 낙인을 찍기에 앞서 귀를 일부 도려내고 고사를 지내면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마소의 엉덩이에 표시된 낙인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누구 소유의 마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마소가 길을 잃어 멀리 사라지더라도 주인은 이 낙인을 바탕으로 수소문하여 결국 찾아내곤 하였다.

요즘에는 마소를 기르는 집이 거의 없다. 농사일에 마소를 쓸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드물게 육우(肉牛)로 내다 팔기 위하여 소를 기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개 외양간에 매어 기르거나 자기 소유 목장에서 기른다. 따라서 공동으로 방목하는 풍습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이에 따라 귀표고사도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 한우와 수입소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바코드 귀표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방식을 이은 것은 아니다.

의의　귀표고사는 마소를 한라산 자락에 공동으로 방목하던 제주도의 사정이 잘 반영된 제의다. 오랫동안 마소를 한 곳에 풀어놓아 기르다가 풀이 마르거나 농사철이 되면 제각기 집으로 몰아가야 하니, 소유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 방목하였던 암소가 새끼를 낳아 데리고 오면 다음 방목하기 이전에 표시를 해야 하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0월에 귀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참고문헌 | 濟州道民俗-歲時　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69),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濟州의 民俗 I (濟州文　資料　書1, 濟州道, 1993),　國의 歲時　俗II(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강정식(姜晶植)

남이장군사당제(南　　軍祠堂　)

정의　조선 초기에 용맹을 떨치다가 반역 혐의로 처형당한 명장 남이장군(南怡將軍)을 기리는 제의. 남이장군신(南怡將軍神)은 중부 지역 무속에서 최영장군(崔瑩將軍), 임경업장군(林慶業將軍)과 함께 장군신(將軍神)으로 승화되었으며,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는 현재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이장군사 당제 堂祭













1 제단
2 관세
3 분향
4 배례
5 강신
6 초헌
7 독축
8 아헌
9 종헌
10 음복
11 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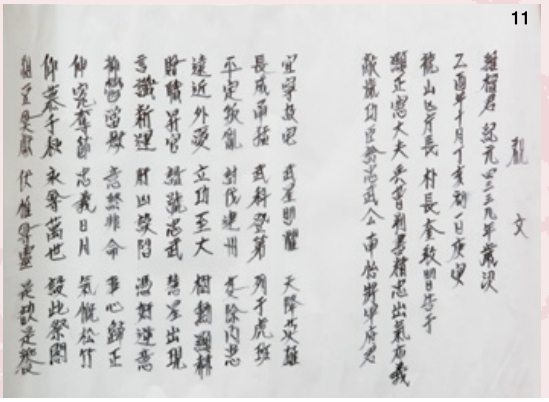
서울시 용산구 최호식


7


8


9


10


11

남이장군사 당제 - 당굿













1 산신거리
2 산신거리(사슬세우기)
3 신장거리
4 불사거리(바라팔기)
5 호구거리
6 별상거리(사슬세우기)
7 대감거리(거사돌기)
8 무감서기
9 제석거리
10 성주거리
11 창부거리(계면떡팔기)
12 황제풀이
13 군웅거리
14 뒷전

서울시 용산구 최호식


6


7


8


9


10


11


12


13


14

내용 남이장군사당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에서 음력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걸쳐 연 3회의 제를 올리고 격년으로 4월 1일에 당굿을 행하였다. 원래는 4월 1일에 대제를 올리고 10월 1일에 소제를 올렸으나 1983년에 복원되어 거행되면서 4월에 하던 당굿을 10월로 옮기는 대신 7월의 당굿은 폐지되었고 3년 마다 하던 당굿을 매년 시행하게 되었다.

남이장군사당제가 거행되는 사당과 제의 진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당 안에 있는 무화(巫畵)에 그려진 무속신은 최영장군신을 비롯하여 제단 상단 좌측 벽에 천신대감상(天神大監像)과 맹인내외상(盲人內外像)이 있으며, 두 점의 확인되지 않은 비슷한 화상(畵像)이 걸려 있다. 전면에는 좌측부터 삼불제석상(三佛帝釋像)과 호구아씨상[胡鬼-像]이 있으며, 서로 비슷한 두 점의 화상이 옆에 있다. 당 전면 중앙에는 남이장군상이 걸려 있으며, 우측에는 부군대감 내외의 화상, 최영장군상, 정추정씨와 그의 부인상이 걸려 있다. 그 우측 벽에는 산신령 내외와 토지관장(土地官長)의 화상이 있으며 그 사이에 각각 유사한 화상이 한 점씩 걸려 있다. 위의 화상 중에서 정추정씨의 상은 정숙정이란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제단의 하단에 있는 각종 화상들은 남이장군의 하졸들이다. 고려시대의 최영장군신이 배열에 끼여 있으나 상징적 존신(尊神)으로서의 위상일 뿐이다. 28점의 무속신은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을 지켜 준다는 28수(宿)의 별 곧, 28신을 뜻한다.

제관 선정은 제일 15일 전에 마을의 연로(年老)한 분들이 모여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고 부정(不淨)이 없는 원로 2인을 제관으로 뽑는다. 한 사람은 제주(祭主)이고 한 사람은 집사(執事)이다. 제주는 헌관(獻官)으로 제수를 준비한다.

제물 준비는 치제(致祭) 3일 전부터 시작하는데 제주가 당에다 신에게 바치는 제주(祭酒)인 조라를 모신다. 조라는 정결한 백미 서 되 서 홉을 쪄서 누룩을 버무려 담근다. 제물은 백반(白飯), 병(餠), 주(酒), 과(果), 포(脯), 채(菜), 탕(湯)으로 보통 제수와 같다. 준비는 집사가 하며 장에 가서 값을 깎지 않는다. 당굿에는 돼지를 잡아 통째로 바치며 굿상은 따로 마련한다. 당제 15일 전부터 부정한 일을 금기하다가 제를 지내는 당일 도가(都家)에서 제를 준비하여 밤 11시 무렵에 진설(陳設)한다. 진설은 남이장군신상 앞에 홍동백서(紅東白西), 동두서미(東頭西尾)로 하고 자정이 되면 메를 올리고 분향(焚香), 독축(讀祝), 소지(燒紙), 음복(飮福) 순으로 진행한다.

당굿은 제관 외에 화주(化主) 12명이 걸립을 하면서 시작된다. 걸립할 때에는 신당 처마 네 귀퉁이에 등롱(燈籠)을 내걸고 풍물을 울린 다음, 용기(龍旗)를 앞세우고 풍물을 울리고 선발된 동민들이 걸립에 참여한다. 등롱은 한 변이 25센티미터의 4각이며, 길이 100센티미터 가량의 청사등롱(靑紗燈籠)이다. 용기는 길이 5미터 정도의 죽간(竹竿) 꼭대기에 청룡과 황룡을 그린 기(100센티미터×150센티미터)로서 부군기(府君旗) 또는 부군대, 느림기라고도 한다. 걸립은 3~4일간 계속된다.

용기를 앞세우고 호적, 징, 꽹과리, 장구, 북, 소고로 구성된 걸립꾼들이 민가를 돌면 민가에서는 쌀을 대주의 식기에 담아 그 위에 실 한 타래를 감은 숟가락을 꽂고, 그 밑에 돈을 놓으며 소반 양 옆에 촛불을 켜서 내놓는다. 이때 걸립패의 상쇠나 중쇠가 그 앞에서 가정의 화목과 운수대통을 축원하고 마당에서는 호적, 징, 북, 장구, 소고를 울리며 용기는 집안까지 넣어 몇 차례 가로 뉘어 쓸어준다. 시장 또는 넓은 길에 들어서면 대잡이는 용기를 가로 뉘어 양 옆으로 휩쓸며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고, 수십 명의 마을 주민들은 걸립꾼의 뒤를 따르며 어깨춤을 추며 아이들도 뒤를 따라가면서 축제 분위기에 들뜬다. 걸립을 도는 범위는 용문시장을 비롯하여 용문동 일대 4백여 호이며, 만약 남이장군과 연고가 있는 주민이 청하면 다른 동이라도 걸립꾼이 간다. 걸립에서 모은 돈은 제수를 장만하는 데 사용된다.

당굿은 무당 6인과 잽이 3인(피리, 젓대, 해금)이 맡아서 한다. 당굿은 무당이 당 앞에서 주당살을 가리고 부정을 친 다음 유가(遊街)하는 순서로 시작된다. 주당살을 가리는 것을 주당가린다고 하는데, 무당이 당 앞에서 혼자 앉아 장구만 울리고 무당 외의 제관을 비롯한 동민들은 모두 당 밖으로 나가 시선이 당 쪽으로 가지 않게 등을 돌린다. 이것은 당

주위에 서려 있던 살기(殺氣)가 장구소리에 쫓겨나갈 때 동민들의 시선과 마주치면 마주친 사람에게 살이 간다고 하여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당이 무악 반주 없이 평상복을 입고 부정거리 무가를 구송한다. 유가는 등롱 2개를 앞세우고 그 뒤에는 장군기(폭 100센티미터, 길이 300센티미터의 남색천에 '남이장군사당'이라고 써서 5미터 가량의 죽간에 매단다.)가 서고 무당, 피리잡이, 젓대잡이 그리고 걸립꾼들이 풍물을 치고 따르며 뒤에 제관이 따른다. 유가도 걸립과 같이 하며 용기를 든 대잡이가 좌우로 나뉘어 휩쓸면서 부군놀림을 하며 춤을 춘다. 유가에서 용기의 느림대에 꽂고 간 지화 연꽃을 옆 동네 여신을 모신 부군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연꽃과 교환해 오는데 이것을 꽃받기라고 한다. 이것은 옆 동네 부군당의 여신을 남이장군이 초청하는 과장이다.

유가를 돌고 당으로 들어오면 다른 무당이 홍철릭을 입고 큰 머리를 얹은 위에 홍갓을 쓰고 대기하다가 마중 나가 용기를 받아 당 앞으로 가면 남이장군신이 내려 한동안 도무(蹈舞)로 춤을 추다가 신탁을 내린다. 이때 무당은 용기의 느름대를 잡고 한 손을 옆구리에 얹어 장군의 위엄을 과시하고 화주들은 손을 비비며 마을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빈다. 이는 장군신을 맞아 놀리는 부군놀음과장이 된다.

이 과장이 끝나면 용기 느름대에 꽂고 온 연꽃을 남이장군신상 옆에다 세워놓고 굿을 시작한다.

굿의 순서는 가망청배 - 부정거리 - 호구거리 - 말명거리 - 조상거리 - 상산거리 - 별상거리 - 대감거리 - 창부거리 - 제석거리 - 군웅거리 - 황제풀이 - 뒷전으로 이어진다.

굿이 끝나면 일반인이 무복을 입고 무감 곧 신춤을 추며 여흥을 즐긴다. 당굿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사례제(謝禮祭)를 지낸다. 이 제를 사례제청이라고도 한다. 사례제는 당굿을 할 때 신청에 부정한 잡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군신에게 사과하는 의미라고 한다.

참고문헌 | 祭調査報告書(金 坤 外, 祭 議 , 1984), 國 祭(國 史硏究全國 議 , 1990), 남이장군대제론(김선풍, 比較民俗 13, 比較民俗 , 1996).

필자 | 김선풍(金善)

대자재천왕제(大 王)

정의 매년 10월 범날[寅日]에 충청북도 보은 법주사(法住寺)에서 속리산의 산신인 대자재천왕(大自在天王)을 위해 거행했던 제의식(祭儀式).

내용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16 보은현(報恩縣) 사묘조(祠廟條)에는 "속리산 꼭대기에 대자재천왕사(大自在天王祠)가 있는데, 그 신(神)이 매년 10월 범날에 법주사로 내려오면 산중 사람들이 음악을 베풀어 신을 맞이하여 제사하고 45일 동안 머물게 한 뒤에 돌려보낸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간략하나마 대자재천왕제(大自在天王祭)의 제일과 제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대자재천왕은 인도 불교의 외도(外道)에서 신체(神體)로 섬기는 남자의 성기를 뜻한다. 곧 대자재천왕사는 인도 자재천외도(自在天外道)에서 신앙하는 마혜수라(摩醯首羅) 곧 남자의 성기를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 된다.

결국 대자재천왕제는 인도 시바교의 주신인 대자재가 한국에 불교와 함께 유입되어 속리산에서 토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남선(崔南善)이 정리한 바, 법주사에서는 매년 설날에 사중(寺衆)이 나무로 만든 남근을 가지고 놀다가 신당에 바치는 '송이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김영진은 법주사 승려들이 인도의 대자재를 와전하여 속리산 여신에게 바치던 남근으로 이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전승의 근거가 또한 대자재천왕의 신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대자재천왕제
충북 보은군 속리산 국립민속박물관

대자재천왕제













1 불교의식-제물진설
2 불교의식-제상
3 불교의식-전경
4 불교의식-독경
5 불교의식-공양올리기
6 불교의식-축원드리기
7 유교의식-삼헌관 모습
8 유교의식-제상
9 유교의식-합동배례
10 유교의식-초헌례
11 유교의식-독축례
12 유교의식-아헌례
13 유교의식-음복례
14 유교의식-합동배례
15 유교의식-망료례

충북 보은군 속리산 국립민속박물관


7


8


9


10


11


12


13


14


15

결국 속리산 대자재천왕제는 산신을 여신으로 이해했던 시기에 속리산 여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쳐진 공물, 곧 신물(神物)로 제사하는 산신제인 것이다. 법주사의 송이놀이와 보은 지역의 송이놀이는 대자재천왕제 남근공희를 모의한 민속놀이이다. 현재는 매년 10월 중순 무렵에 열리는 '속리산가을한마당'에서 행사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巫俗考(李能 , 啓明19, 啓明俱樂部, 1927), 六堂 南善全 10(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 岩社, 1973), 國自然信仰研究(金榮 , 州大 校人文科 研究所, 1985), 속리산의 민속과 축제(김영진 외, 민속원, 1999),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푸른사상사, 2003).
필자 | 이창식(李 植)

도신(禱神)

⇨ 상달고사[上月告祀]: 겨울편

묘사(墓祀)

정의 조상의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 주로 10월에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가리킨다. 10월에 지내는 묘제(墓祭)를 달리 칭하는 말로,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도 한다. 또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 번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 하며, 관행적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내용 10월에 5대조 이상 모든 조상에 대해 일일이 묘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시조(始祖)를 중심으로 합사(合祀)하여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묘사라고 한다. 그래서 10월에 묘소에서 지내는 관행적인 시제의 경우, 분정기에 '묘사' 혹은 축문에 '세사(歲祀)'라고 하여 묘사라고 칭하고 있다.

참고문헌 | 家禮增 ,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 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 社, 1969), 조선대세시기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順權)

⇨ 시제(時祭): 겨울편


1


2


3

묘사 墓祀 | 경주손씨 감찰공파


4


5


6


7


8

1 산신제
2 제물진설
3 초헌
4 독축
5 첨작
6 삽시정저
7 음복
8 봉송

경북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이상원

묘제(墓　)

정의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한다. 4대조(四代祖) 조상에 대해서는 설, 한식, 단오, 추석 같은 명절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절사(節祀)라고 하고,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 번 음력 10월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하며, 관행적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내용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묘제는 원래가 예가 아니라 하였으나, 3월 상순에 날짜를 정하여 묘제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설, 한식, 단오, 추석 등의 명절에 묘제를 지냈고, 한식 또는 3월, 10월에 묘제를 지냈다. 오늘날에는 서울 인근의 경기 지역이나 경북 안동 퇴계 종가에서는 재실에서 묘제를 지내거나, 지방(紙榜)으로 합동 묘제를 지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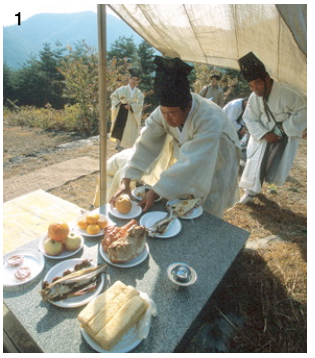
참고문헌 | 家禮增　,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　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　社, 1969), 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　順權)

▷ 시제(時祭): 겨울편

문소전제(文昭　)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묘제〉
1 진설
2 참신
3 분향
4 초헌
5 독축
6 아헌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이상원

상달고사[上 告祀]

정의 음력 10월에 가정에서 말날이나 길일(吉日)을 택해서 가택신(家宅神)들에게 지내는 고사(告祀). 성주를 비롯해 조상(祖上), 조왕(竈王), 삼신(三神) 같은 모든 가택신들에게 제사한다. 주부가 맡아 간략하게 지내기도 하지만 무당을 초빙해서 굿을 하기도 한다. 이 고사는 가을고사, 성주제, 성주굿, 성주받이굿, 안택, 안택굿, 도신(禱神), 지신제(地神祭) 같이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유래 음력 10월은 역법으로 12수에 해당하는 해월(亥月) 곧 돼지달이다. 신곡을 신에게 드리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 하여 상달[上月]이라 한다. 고대 사회의 제천의식과 관련된 기록이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있다. 예부터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니 고구려(高句麗)에서는 사당을 세워 귀신(鬼神), 사직(社稷), 영성(靈星)에 제사 지내는 제천의례(祭天儀禮)가 있었는데 그것을 동맹(東盟)이라 했다. 이 밖에도 예(濊)의 무천(舞天)을 비롯하여 마한(馬韓)에서도 농공(農功)이 끝난 후인 10월에 제천의례를 올렸다. 근대 국가에 와서도 10월이면 상달고사를 비롯하여 개천제(開天祭)와 시제(時祭)를 지내는 것은 고대 제천의례의 유습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상달고사는 10월 중 길일을 택해 지내지만 특히 말날인 오일(午日)을 좋은 날로 여긴다. 이날 팥시루떡을 하여 성주를 비롯한 집안의 신들에 올려 가내의 평안과 건강과 풍요를 빌고 팥시루떡을 마구간에 차려놓고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빈다. 10월의 오일 가운데에서도 무오일(戊午日)을 상마일(上馬日)로 치는데 무(戊)가 무(茂)와 발음이 같아 무성함을 기대한 것에서 기인한다. 반면에 병오일(丙午日)은 병(丙)과 병(病)이 발음이 같아 꺼린다. 전통사회에서 말은 소와 더불어 농사와 같은 생업에 직접 참여하여 식구와 같은 귀한 존재였다.

반드시 말날이 아니더라도 길일을 택하여 햇곡으로 술과 시루떡, 과일을 장만하여 성주신을 비롯한 가택신에게 올려 복을 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지방에 따라 성주굿, 성주받이굿, 안택굿이라고 한다. 흔히 정월고사를 안택 또는 안택고사라고 하지만 상달고사 역시 안택이라고도 한다. 중부 이북에서는 안택이라고 하는 반면 영호남에서는 주로 도신 또는 도신제(禱神祭)라 한다.

주부가 직접 고사를 지낼 경우 다른 제의 때와 마찬가지로 집 앞에 금줄을 치거나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고, 주부는 목욕재계하여 매사를 정결하게 한다. 무당과 같은 전문 사제자가 굿을 할 경우 역시 부정을 막기 위한 금기가 따른다.

성주신은 집안의 으뜸신으로 대주(大主)를 상징하며 가정의 천신(天神)과 같은 존재이다. 성주굿의 성주무가에는 하늘에서 천신이 하강하여 인간에게 집 짓는 과정을 가르쳐 주고 집의 으뜸신인 성주신으로 자리 잡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상달고사를 특별히 성주고사라 하고 무당이 주재하는 성주굿을 크게 벌이기도 한다. 물론 고사를 지낼 때에는 성주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터주, 조왕, 삼신 같은 집안의 여러 가택신에게도 기원한다.

10월 고사를 지낼 때에는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성주단지, 터주단지, 조상단지, 삼신단지 같은 신주단지의 곡물을 햇곡으로 갈아 넣기도 한다. 그리고 묵은 곡식으로는 밥을 짓거나 떡을 하는데 집안 식구끼리만 먹는다. 이 곡물은 복이 담긴 음식이라 여겨 복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다. 내보냈다가 행여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농경 과정을 파종기(播種期), 성장기(成長期), 수확기(收穫期), 저장기(貯藏期)로 나누어 본다면 상달은 수확기에 해당한다. 한가위 때에 일부 햇곡식을 수확하기도 하나 제한적이며, 대체로 음력 9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 마무리한다. 그러기에 상달고사는 추수감사제의 성격과 더불어 천신제(薦新祭)의 성격도 지닌다.

지역사례 서울 송파 지역에서는 10월 중 말날과 돼지날을 길일로 여겨 이때 고사를 지낸다. 택일이 되면 가정에서는 대문 앞에 금줄을 매어 부정을 막고 잡인의 출입을 금한다. 떡은 붉은 팥시루떡이라 하여 시루 위에 한지를 깔고 떡 한 조각을 해놓는다. 떡과 함께 쇠머리 또는 돼지머리, 북어, 술을 올린다. 고사 때에는 단골 만신이 와서 빌어주기도 하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주부들이 직접 빈다. 고사는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하거나 밤 1시 무렵에 지낸다. 원래는 인적이 없고 조용한 자정에 곱게 지내는 것인데 점차 시간을 가리지 않고 편한 시간에 지내기

상달고사 告祀













1~4 조왕고사
5~6 터주고사
7~14 성주고사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7


8


9


10


11


12


13


14

시작했다.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역시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좋은 날로 여긴다. 초순에 길일을 택해 한 해 추수를 감사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햇곡식으로 '가을떡'을 찐다. 이곳에서는 고사떡이라는 말보다 가을떡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쓴다. 가을떡은 넉넉하게 쪄 이웃과 친지들과 나누어 먹는데 이는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나누는 것이다.

가을떡과 같이 '위하는 떡'을 찔 때에는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우선 추운 날씨에 절구에 두 말 이상의 쌀을 찧으려면 얼굴이 모두 얼 지경이다. 조금 넉넉한 집안에서는 네 말 정도의 떡을 네 꼭지 시루(손잡이가 네 개 달린 큰 시루)에 찐다. 이 시루는 장정 두 명이 들어야 할 만큼 무겁다. 가을떡은 쌀가루와 팥을 켜켜로 넣고 찐다. 시루에 쌀가루와 팥을 담고 맨 위에는 소금이나 청수를 접시에 얹어서 올린다. 이는 떡을 잘 익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떡이 설지 않는다. 떡을 찔 때에는 부엌에 임신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임신부는 사람의 몸에 또 한 사람이 깃들어 있으므로, 이를 두고 사람이 '접을 붙이고 있는 턱'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임신부가 떡을 찌는 곳에 들어오면 떡도 접을 붙여서 선다고(익지 않는다고) 여긴다. 만일 임신부가 떡 찌는 부엌에 들어오는 부정을 저질렀다면 한 사발 분량의 떡은 반드시 선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부를 불러 한 부석(한 번 불을 지피는 상황) 때게 하고 절도 한 번 시킨다. 임신부가 시루에 절을 하면 이상하게도 김이 오르지 않던 시루에서 김이 오르면서 떡이 잘 익는다. 만일 임신부가 떡을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루를 올리고 처음부터 불을 혼자 때야 한다.

가을떡을 찔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시루 위에 백지를 한 장 깔고 그 위에 한 대접의 쌀가루를 붓는다. 이 쌀가루로 지어낸 떡은 손님떡이라고 한다. 이는 남에게 주지 않고 식구들끼리만 나누어 먹는다. 떡을 다 찌면 부엌에서 시루의 뚜껑을 열고, 시루 양쪽에 북어를 각각 한 마리씩 꽂고 청수 한 그릇을 올리고 치성을 드린다. 다음에는 떡을 조금씩 떼어 성주, 터주, 칠성 등 집안의 신들에게 놓는다.

이렇게 가을떡을 쪄서 가을걷이에 감사하고 가택신에게 평안을 빌지만 더 크게 정성을 드리려면 경쟁이(독경자)를 초빙하여 안택굿을 하기도 한다. 이때 성주를 새로 받아 모시기도 한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하리마을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가을떡을 해서 집안을 위한다. 한 해 농사가 잘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다. 떡은 보름 정도 수확이 빠른 올벼(오려)로 장만한다. 대개 시루떡을 찌며, 쌀 한 말이면 다섯 켜 정도를 올린다. 켜를 올릴 때에는 짝을 맞추지 않고 홀수 층으로만 올린다. 가을시루와 터주시루를 따로 찌는데 떡을 찔 때 소변을 보고 들어오거나 임신한 여자가 들어오면 떡이 선다. 시신을 보거나 개잡은 것을 보고 부엌에 들어가도 역시 떡이 선다. 한번 선 떡은 아무리 불을 때도 익지 않으므로 선떡은 나중에 보자기로 싸서 익혀 먹는다.

떡이 쪄지면 먼저 가을시루를 안방의 성주 앞에 시루째 가져다 놓는다. 성주는 집안의 여러 신령 중 가장 웃어른이므로 먼저 위한다. 성주 앞에 시루를 상에 받쳐서 청수와 함께 놓는다. 가정에 따라서 성주께 절을 올리기도 한다. 다음에는 터주시루를 장광에 올린다. 짚을 열십자로 깔고 청수와 함께 올린다. 터주를 위하고 나서 샘, 광, 뒷간을 비롯해 집의 곳곳에 떡을 떼어다 놓는다.

참고문헌 | 三國志, 國民俗大觀4-歲時 俗·傳承놀이-(高麗大 校 民族文 硏究所, 1981),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國文 상징사전2(國文 象 辭典 委員 , 東亞 社, 1995), 國의 歲時 俗II(국립민속박물관, 1998),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한국세시풍속I (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명자(金明子)

상산제(上山)

⇨ 향산제(香山祭): 겨울편

서경팔관회(西京 關)

정의 고려시대 서경(西京, 현재 평양)에서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사흘 동안 열리던 팔관회(八關會). 11월 15일의 중동팔관회보다 한 달 앞서 열리던 서경팔관회는 고구려의 10월 동맹(東盟) 풍습을 이은 것으로 불교의례이면서도 고려의 고구려 계승을 상징하던 국가의례이다.

내용 고려의 역대 왕들은 서경팔관회를 태조의 유훈을 실천하는 중요한 의례로 여겨 재위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은 서경으로 행차하여 직접 팔관회를 주재하였다. 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후대 왕들에게 서경을 중시하고 매년 팔관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한 바 있었다.

서경팔관회의 의례 절차는 중동팔관회와 비슷하였다. 국왕이 영봉문루(靈鳳門樓)로 행차하여 문무백관들의 하례를 받은 후 주연이 베풀어지고 음악과 백희가 공연되었다. 주연이 끝나면 국왕은 흥국사(興國寺)로 가서 분향하였다. 또 서경팔관회에서는 동맹의 수신제(隧神祭)가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제사는 소찬(素饌)을 차리는 불교식으로 지냈다. 수신제는 서경 동쪽 큰 동굴의 수신을 맞이하여 지내는 제사인데, 수신은 농업을 주관하는 지모신으로 섬겨졌던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어머니인 유화(柳花)와 연관되기도 한다.

국왕이 서경으로 행차하지 못할 경우 서경재제사(西京齋祭使)를 특사로 파견하였는데, 특사는 50대 초반에서 60대 후반까지의 나이가 지긋하고 경륜이 많은 관리들 가운데 선발하였다. 국왕이나 특사가 팔관회재제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올 때면 많은 봉물을 받아오곤 했는데 명종 때 최충렬(崔忠烈)은 무려 수레 30여 량에 이르는 봉물을 싣고 왔다고 한다. 서경에는 팔관회 개최를 위한 전담 관부인 팔관도감(八關都監)이 설치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高麗圖經, 高麗史, 宋史,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안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 안지원(安智源)

⇨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겨울편

성주고사(城　告祀)

⇨ 성주고사(城主告祀): 정월편

시제(時　)

정의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墓所)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일컫는 말. 한식 또는 10월에 정기적으로 묘제를 지낸다고 하여 시사(時祀), 시향(時享)이라고도 한다. 이는 5대 이상의 조상을 모시는 묘제(墓祭)를 가리키며, 4대친(四代親)에 대한 묘제를 사산제(私山祭)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래서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도 한다.

유래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제(時祭)는 2월, 5월, 8월, 11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의 신주(神主)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고 지내는 제사로 가장 중히 여긴 제사였다. 그래서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예서(禮書)에서는 사시제(四時祭)를 중심으로 기제와 묘제를 설명하였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이나 『사례집요(四禮輯要)』에도 정침 또는 중당에서 사시제를 지내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국가제사로서 종묘시향(宗廟時享)이 1월, 4월, 7월, 10월 중에 거행한 것에 반해, 사대부가의 사시제는 그 다음달인 2월, 5월, 8월, 11월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경우에는 사당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주자가례』 이후의 예서에서는 대부분 안채나 사랑채, 또는 제청에서 사당의 4대친의 신주를 모셔다가 지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묘제를 중시하여 사시마다 묘소에서 절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시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2월에는 한식, 5월에는 단오, 8월에는 추석, 11월에는 동지와 중복되어,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경우 설과 단오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한식과 추석에는 절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나아가 시제와 속절 차례 및 절사를 절충하면서, 설, 단오, 추석, 동지에는 사당에서 차례를, 한식 및 10월에는 묘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에 사당에서 지내는 사시제는 점차 설, 한식, 단오, 추석, 동지 같은 4대 명일, 또는 5대 명일에 사당에서 4대친에게 지내는 차례 또는 차사(茶祀)로 대체되어 갔고, 차례 음식도 주과포(酒果脯)를 중심으로 명절 때마다 시식(時食) 또는 절식(節食)을 올리던 것에서 사시제 또는 기제에 준하도록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에 묘제는 『주자가례』를 따라 일년에 한 번 3월에 묘소에서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제사를 지내거나, 설, 한식, 단오, 추석의 4명일에 4대친에게 절사를 지내고, 5대조 이상의

시제 - 퇴계종택













1 분정
2 강신
3 초헌
4 진찬
5 삽시정저
6 독축
7 아헌
8 종헌
9 합문
10 진다
11 합반개
12 사신재배
13 음복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퇴계종택
국립민속박물관


7


8


9


10


11


12


13

선조에 대해서는 한식 또는 10월 초하루에 지내기도 하였다.

특히 3월이나 한식 그리고 10월 초하루의 경우에는 4대친을 포함해서 선조까지 모든 조상의 묘제를 지냄으로써 시향 또는 시사(時祀)로 인식하게 되었다. 나아가 사시 묘제가 점차 한식과 10월 초하루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사시 묘제로서 시제라고 하고, 시제 대상도 5대조 이상의 묘제로서 관행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천위(不遷位)의 경우, 충청도에서는 불천위를 사당에 모신 것으로 여겨 세일사 대신에 차사와 절사로 모시기도 하며, 경상도에서는 10월 묘제에 함께 모시기도 한다.

내용 『사례집의(四禮集儀)』에는 4대친에 대한 묘제의(墓祭儀)와 5대 이상의 선조에 대한 선조묘제의(先祖墓祭儀)를 구분하였는데, 묘제의는 3월 상순에 날을 가려 일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며, 기일이나 절일에는 사당에서 먼저 차례를 지낸 후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 반면에 선조묘제의는 10월 1일 또는 상정(上丁) 혹은 다른 날로 편한 날을 따르는데, 일년에 한 번 지냈다고 하였다.

묘제는 원칙적으로 묘에서 지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재실에서 지방(紙榜)으로 합동해서 망제(望祭)를 지내기도 한다. 퇴계 이황(李滉)이 "같은 언덕에 묘가 많아서 각각 제사를 지내는 폐가 많으니, 묘역을 청소한 후에 재실에서 지방으로 합동으로 제사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한 것처럼, 재실이나 선조 묘에서 합동으로 묘사를 지내기도 한다. 재실에서 모실 경우에는 강신 후에 참신을 하며, 분축 때 지방을 함께 태운다.

시제의 절차는 『주자가례』의 묘제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4대친과 5대조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례편람』의 경우, 축문에 4대친을 대상으로 한식 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체천(遞遷)한 선조에 대한 축문은 10월에 지내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시제 준비: 하루 전날 주인이 여러 집사자들을 거느리고 묘사(재실)로 나아가 재계한다. 묘소마다 제물을 준비하며 토지신에게 지낼 제물도 준비한다. 주인은 심의(深衣)를 입고 집사자를 데리고 묘소에 가서 재배하고 묘소 안팎을 돌며 슬프게 살피기를 세 번 한다. 그리고 묘소와 그 주변을 청소한다. 저녁에는 재실에서 주인(또는 도유사, 문중의 연장자)이 중심이 되어 시도기(時到記) 또는 시도록(時到錄)을 가지고 묘소마다 헌관 및 축관, 집례, 집사자를 정한다.

② 진설(陳設): 깨끗한 자리를 묘소 앞에 깔고 제물을 차려놓는다. 석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위에 제물을 차린다. 기제에는 과일과 나물 등을 진설하고, 강신한 후에 떡과 국수, 적과 탕, 밥과 국 등을 진찬(進饌)하지만 묘제에는 진찬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묘제에서는 진설 때 모든 제사 음식을 올린다.

③ 참신(參神): 참사자 모두 참신 재배를 한다. 사계 김장생(金長生)이 "신위를 마련하여 신주가 없으면 먼저 강신을 하고, 뒤에 참신을 한다. 묘제 역시 그러한데, 『주자가례』에는 우선 참신을 하고 나중에 강신을 한다고 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격몽요결』에 묘제에는 먼저 강신을 한다고 하니 아마 옳을 듯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주자가례』에는 참신 후 강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격몽요결』과 『상례비요』에 따라 강신을 한 후 참신을 하기도 한다.

④ 강신(降神): 주인이 분향하고 잔에 술을 따라 모사기에 붓거나 석상 아래 땅에 붓고서 강신 재배를 한다. 『주자가례』에는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을 나중에 하나, 『격몽요결』 묘제에는 강신을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초헌(初獻): 주인이 첫 번째 잔을 올린다. 기제와 같이 주인이 침주(斟酒), 전작(奠爵), 좨주[祭酒]를 한다. 이때 육적을 올리고[進炙], 메의 뚜껑을 열며[啓飯蓋], 숟가락을 밥에 꽂고[揷匙] 젓가락을 바로 놓는다[正箸]. 대축이 주인의 왼쪽에서 축문을 읽으며, 독축이 끝나면 주인이 재배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을 거두어 퇴주기에 붓는다.

⑥ 아헌(亞獻): 두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아헌과 종헌은 모두 아들 또는 동생이나 친한 벗이 한다. 자제들이 없으면 주인이 스스로 삼헌을 한다.

⑦ 종헌(終獻): 세 번째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다.

⑧ 유식(侑食)과 합문(闔門):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에는 묘제에 유식과 합문의 절차가 없다. 다만 『사례집의』에는 "첨주(첨작)는 없다(한강 정구). 엄숙하게 한 번 밥 먹을 시간을 기다린다(사계 김장생)."라고 하였다. 이에 집안마다 첨작을 하기도 하며 집사자가 밥에 숟가락을 꽂고 숟가락을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는 삽시정저(揷匙正箸)를 하고, 합문의 의미로 참사자 모두 부복하거나 국궁을 하며 뒤돌아 서 있기도 한다.

⑨ 계문(啓門)과 진다(進茶): 『주자가례』와 『사례편람』에는 묘제에 계문과 진다의 절차가 없다. 다만 『사례집의』에는 "주인이 올라가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려 차를 대신하며(율곡, 『격몽요결』)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주자가례』). 수조(受胙)하지 않고, 서서 조금 기다린다(사계 김장생). 집사자 한 사람이 올라가 수저를 접시 안에 내리고 밥뚜껑을 닫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격몽요결』)."라고 하였다. 합문 후에 대축이 헛기침을 세 번 하면 계문하듯이, 참사자 모두 몸을 펴거나 일어서며, 집사자가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리면 국궁을 한다. 곧 기제와 같이 밥과 국을 올렸을 경우에는 숭늉을 드린다. 하지만 메와 갱을 올리지 않은 때에는 합문 및 진다가 생략되고 바로 사신 재배를 한다. 시제에는 기제와 달리 음복수조하는 예도 있다. 주인이 신위전에 나아가 북향하여 무릎을 꿇으면 축관이 신위전의 술을 내려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술을 조금 마신다. 이어 축관이 신위전의 밥이나 포 등을 내려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이를 맛본다. 그리고 축관이 서쪽 계단 위에 서서 동쪽을 향하여 "이성(利成)"이라고 외친다.

⑩ 사신(辭神): 국궁 후에 집사자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접시 안에 내리고, 밥뚜껑을 닫고 내려오면 참사자 모두 사신 재배를 한다.

⑪ 분축: 대축이 축문을 불사른다. 집사자가 제상의 음식을 물린다.

이어 산신제(후토신)를 지낸다. 만약 같은 산 안이면 여러 묘위에 제사를 마치고 가장 높은 묘위의 묘소 왼쪽에서 지낸다. 시제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먼저 지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家禮增　, 擊蒙要訣, 國朝五禮儀,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　要, 四禮　儀, 四禮　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　　社, 1969), 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　順權)

시향(時　)

정의 때(절기)마다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

내용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묘제(墓祭),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제는 사시제(四時祭)로서 2월, 5월, 8월, 11월 중에 사당에 모신 4대친(四代親)의 신주(神主)를 안채나 사랑채의 대청에 함께 모시고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사시제 행례가 어려워 4대친은 차례 및 절사로 지내면서, 시조에서 5대친 이상은 봄, 가을로 한식 또는 3월, 10월에 모두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시향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家禮增　,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　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　　社, 1969), 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　順權)

⇨ 시제(時祭): 겨울편

신만곡대제(新萬穀大　)

정의 음력 10월 새로 수확한 만곡(萬穀)의 풍요를 당신(堂神)에게 감사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제.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는 시만곡대제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 명칭은 만곡사시월[萬穀謝十月]에서 나온 말로 시만곡은 10월에 수확한 온갖 곡식을 뜻한다.

내용 신만곡대제는 추수한 곡식을 사람들이 맛보기 전에 신에게 먼저 바치고 예를 갖추는 의식이 주가 된다. 보통 음력 10월 15일에 지내지만, 열두 신위가 있었던 제주시 내왓당 본풀이에는 음력 9월 28일에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물로는 햅쌀로 떡과 밥을 마련하여 고기, 과일, 술과 함께 본향당으로 가지고 가서 당신에게 바친다. 이때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큰물당과 대정읍

신도리 알당의 당제에서는 조나 벼 따위의 오곡의 이삭을 베어서 묶은 채로 신에게 바치고 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큰물당 본풀이에는 "큰물당에 매인 사람들은 큰물당 할아버지에게 한 해에 한 번씩 나록 한 못씩 바친다."라는 사설이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 큰굿의 기능보유자 이중춘에 의하면 외할머니 김씨 - 어머니 한향린 - 이중춘의 3대가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알당에서 '중이또놀이'를 하면서 신만곡대제를 하였다고 한다. 굿의 진행은 초감제 - 예명올림 - 추물공연 - 중이또놀이 - 단골들 떡올림 - 떡놀리기 - 본향올림 - 산받음을 했다고 한다. 굿에서 나까시리 전침이라고 하는 떡놀리기가 이 의례에서 가장 중요시되었고, 떡을 올리고 기원할 때는 햇곡식으로 만든 떡을 마대 속에 담아 많은 양으로 정성을 다하였다.

참고문헌 | 濟州島巫俗資料事典(容駿, 新丘文 社, 1980),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聖麒, 민속원, 1991).
필자 | 좌혜경(左 景)

안택(安)

☞ 상달고사[上月告祀]: 겨울편

여제(厲)

☞ 여제(厲祭): 정월편

일산동당제(별신굿)[山洞堂 (別神-)]

정의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전승되고 있는 동제(洞祭).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일산동당제(日山洞堂祭)라는 명칭은 그 전승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마을의 동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을의 노인들은 이 동제가 최소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내용 일산동당제는 제일(祭日)과 제의(祭儀)의 형태 면에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동제는 유교식 제의와 별신굿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제일도 각기 다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에 제물(祭物)을 진설하고 신당(神堂)에서 골매기신을 위한 유교식 제(祭)를 지낸다. 그리고 2년마다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별신굿을 한다. 이 별신굿을 할 때에는 10월 초하룻날 자시(子時)에 신당에서 당신(堂神)에 대한 유교식 제를 별도로 지낸다. 신당에서 올리는 유교식 제의에는 제주(祭主)와 남자들만 참여한다.

별신굿이 있는 해에는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3~4일간 별신굿을 한다. 별신굿은 당주무당이 신당에서 신맞이굿을 하여 골매기신을 내린 후 장소를 굿당으로 옮겨 지낸다. 현재 이 마을의 당주무당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살고 있는 무녀 김영희이다.

일산동당제의 제주는 마을 사람 가운데서 선정한다. 이 마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주를 바꾸지 않는다. 제주는 유교식 제의와 별신굿 모두를 관장한다. 제주와 함께 제의에 참여하는 마을 임원들은 대개가 어촌계(漁村契) 임원들이다. 어촌계는 실질적으로 이 마을 자치 조직의 핵(核)이며, 마을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키는 구심점(求心點)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형 어선의 선주와 선원 그리고 해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산동별신굿은 일산동이라는 특정 지역의 지역단위 별신굿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동해안별신굿 중의 하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산동별신굿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에 전승하고 있는 별신굿으로 동해안 지역의 자연 마을들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많은 동해안별신굿 가운데 하나이다.

학계에서는 이 동해안 지역의 별신굿을 맡아 진행하는 무당들을 동해안세습무집단(東海岸世襲巫集團)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 무당들이 강원도의 최북단에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의 해안선(海岸線)을 따라 흩어져 살고 있고, 이들은 그 직능을 혈연 관계에 의해 세습(世襲)하는 무당 집단이기 때문이다. 세습무(世襲巫)는 글자 그대로 대(代)물림하는 무당이다.

동해안별신굿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데 아내인 무녀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굿을 진행하고, 양중이라고 불리는 무녀의 남편은 악기 반주를 하면서 아내의 굿 진행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의 굿에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세

습무집단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대물림하는 무당이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굿의 절차나 사설에 다음 세대가 새로운 부분이나 내용을 첨가하고 더욱 가다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의 굿은 자연스럽게 높은 예술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강신무의 굿보다 세습무의 굿이 예술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큰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해안별신굿 무악(巫樂)에는 타악기(打樂器)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지방의 무악에서 사용하는 피리, 대금(젓대), 해금(奚琴) 같은 선율악기(旋律樂器)는 사용하지 않는다. 반주 악기로는 주로 장구, 꽹과리, 징, 바라가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반주 악기는 장구이다.

일산동별신굿은 많은 동해안별신굿 가운데 하나이고, 동해안별신굿은 동해안세습무집단이라는 동일 집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 일산동별신굿은 상위 차원에서 보면 동해안별신굿이라는 범주에 묶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의 구체적 굿들은 각각 고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동해안의 각 마을은 "우리 마을은 몇 년에 한 번씩,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의 몇 일간, 몇 거리의 굿을 어떤 순서로 진행한다."와 같은 자기 마을만의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다. 이 틀은 마을별로 오랜 세월을 두고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각 마을의 굿은 이 고유한 절차에 따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일산동별신굿은 만 2년 마다 음력 10월 초하루부터 3~4일간 24거리로 진행하는 굿이다. 일산동의 노인들은 마을의 굿이 200년이 넘었다고 들었으며 자신들이 어렸을 때에도 24거리의 굿을 했었다고 말한다. 현재 일산동에서 하고 있는 별신굿은 대체로 부정거리, 상하당맞이, 가망거리, 세존거리, 성조거리, 군웅거리, 제석거리, 내천왕거리, 산신거리, 조상거리, 손님거리, 대왕거리, 외성조거리, 외세존거리, 우천왕거리, 용왕거리, 맹인거리, 부인거리, 소가망거리, 황제거리, 걸립거리, 장수거리, 월래거리, 대거리의 24거리이다.

일산동별신굿은 골매기할매할배를 위한 제의이자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축제이다. 골매기할매할배의 보호 아래 마을 전체가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개인의 안녕과 평화는 마을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통해서만 확보된다는 굳건한 공동체 의식이 이 별신굿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이다. 일산동 사람들은 이 별신굿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골매기할매할배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누린다. 그래서 별신굿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외지(外地)에 나가 살고 있는 지역 출신 사람들도 이 기간만은 가능하면 마을로 돌아와 합류한다. 조상의 제삿날이나 설,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던 가족들이 모두 고향집으로 모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의의 동해안별신굿은 세습무집단이 주도한다. 그러나 이는 세습무집단만이 능동적으로 굿의 진행에 참여하고 마을 사람들은 수동적 관중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별신굿의 진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세습무집단이지만, 이들에 못지않게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굿의 진행에 참여한다. 제주를 비롯한 마을 임원들과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 호응이 없으면 굿을 제대로



지화 용선
울산시 동구 일산동 국립민속박물관


1


2


3


4


5

〈일산동당제〉
1 제주집 부정거리
2 할머니당 부정거리
3 나루터 부정거리
4 굿당 부정거리
5 가망굿
울산시 동구 일산동 국립민속박물관

올릴 수 없다. 동해안별신굿은 세습무집단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습무집단과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또 일산동별신굿은 일산동 사람들의 화합(和合)과 화해(和解)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이것은 모든 굿이 가지는 기본 정신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굿은 화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굿판에서는 신과 인간이 화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합한다. 특히 별신굿과 같은 공동체의 굿에서는 신과 인간 사이의 화합 못지않게 마을 구성원인 인간들 사이의 화합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같은 마을에서 이웃으로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쁜 일, 언짢은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웃 사이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고 등을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불편한 관계는 폐쇄된 지역사회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킬 적절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데 별신굿이 바로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며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확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다. 동해안별신굿 무가 사설에 "인(人)의 마음이 좋으면 신(神)의 마음도 좋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구절은 인간들이 화합해야 신도 즐거워한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신을 즐겁게 모시려면 인간들이 먼저 화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별신굿에서는 신과 인간의 화합 못지않게 인간과 인간의 화합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산동별신굿은 바로 일산동 사람들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의미 있는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참고문헌 | 울산지방무가자료집1~5(박경신,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國의 별신굿 巫歌1~12(박경신, 국학자료원, 1999).

필자 | 박경신(朴敬伸)

종묘대제(廟大)

⇨ 종묘대제(宗廟大祭): 정월편

향산제(山)

정의 함경도에서 주로 음력 10월에 호주(戶主)가 지내는 가신제(家神祭). 함경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가신제가 지신제(地神祭), 상산제(上山祭), 향산제(香山祭), 단군제(檀君祭), 배자(배장), 안택(安宅), 고사(告祀)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여느 지방과 달리 가신제의 종류가 여럿이고 대상신도 차이를 보인다. 향산제는 고대국가에서 10월에 농사를 끝마치고 하늘에 제사 지내며 음주가무를 즐기며 놀던 풍습의 유풍으로 보인다.

내용 향산제는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오곡의 풍성을 기원하며, 집안의 재액을 제거하고 안태(安泰)를 비는 제사이다. 음력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지낸다. 햇곡식으로 떡을 빚어 깨끗한 곳에 짚을 깔고 제물을 차린 뒤에, 호주가 의관을 정제하고 분향 배례하거나 기축(祈祝)의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떡을 그릇에 담아 부엌 찬장과 낟가리에 올려놓는다. 제사가 끝나면 가족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청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부엌이나 낟가리에 올려놓았던 떡은 그달 중순 이후에야 먹는다. 이는 단군의 탄생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렇게 오래 차려두면 그날에 차려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함북의 북부 부령, 회령, 유선, 종성, 온성, 새별, 은덕의 산간 지역에는 재가승(在家僧)마을이 있었다. 재가승마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진의 후예, 형벌 노예, 산(山)의 신성인 같은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진의 후예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이 마을들에는 함경도의 일반 마을들과는 다른 특수한 문화와 풍습이 많았는데, 가신제는 배자(배장)와 상산제가 보편적이었다. 재가승마을의 상산제는 10월에 지냈으며, 일반적으로 조 찰떡을 하며 술까지 하는 집도 있었다. 모시는 신은 분명하지 않으나 많이 두려워하며 온갖 주의를 다했다. 대개 10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지냈는데, 상산제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여행을 떠나지 않았고, 짐승을 잡아도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러한 금기는 평지 마을들에서도 동일했다.

지역사례 함남 단천에서는 이 제의를 단군제라고 부르며, 10월 3일 단군 탄생일에 단군에게 풍작을 기원한다. 함북 경성에서는 단군제를 10월 중에 지내며, 단군에게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다. 함북 명천에서는 이 제의를 산상제 또는 향산제라고 부르며, 10월 1일 호주가 단군에게 제사한다. 함북 무산에서는 이 제의를 향산제 또는 단군제라고 부르며, 호주가 10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지낸다.

상산제, 향산제, 단군제는 모두 10월 중에 단군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동일한 제의이다. 그리고 같은 군내에서도 마을에 따라 동일한 가신제가 상산제, 향산제, 단군제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렀다. 또 함남 북청에서는 정초에 집안의 주부가 지내는 가신제를 지신제라 부르고, 10월 1일 호주가 집의 마당에서 지내는 가신제를 상산제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원래는 가신제인 지신제와 단군에게 제사 지내는 향산제는 다른 제의였는데 후대에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의의 향산제는 고대국가에서 10월에 지내던 제천의식의 유풍으로서 음력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오곡의 풍성을 기원하며, 집안의 재액을 제거하고 평안을 비는 가신제이다. 다른 지방의 가신제는 주부가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함경도는 주부가 지내는 가신제와 별도로 호주가 지내는 향산제도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朝鮮の 神祀-釋奠·祈雨·安 -(朝鮮 督府, 1938), 함경북도 북부 산간부락 〈"재가승" 부락〉의 문화와 풍습(황철산, 과학원 출판사, 1960), 慶源郡 (慶源郡民 , 1988),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향음주례(禮)

정의 조선시대 향촌의 선비와 유생(儒生)들이 향교나 서원에 모여 예(禮)로써 주연(酒宴)을 함께 즐기는 향촌의례(鄕村儀禮). 향음주례는 그 고을 관아의 수령이 주인이 되고,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큰 손님으로 모시고 그 밖의 유생들도 손님으로 모셔서 이루어졌다. 향음주례의 목적은 주인과 손님 사이의 예절바른 주연을 통하여 연장자를 존중하고 유덕자를 높이며, 예법(禮法)과 같은 풍속을 일으키는 데 있었다.

유래 『주례(周禮)』의 지관(地官) 향대부조(鄕大夫

條)에는 "향학(鄕學)에서 학업을 닦고 난 다음, 제후(諸侯)의 향대부가 향촌에서 덕행과 도예(道藝)를 고찰하여 인재를 뽑아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出鄕)에 앞서 그들을 빈례(賓禮)로 대우하고 일종의 송별 잔치를 베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향음주례는 본래 중국 주대(周代)에 향대부가 고을의 인재를 조정에 천거할 때 출향에 앞서 베푼 전송(餞送)의 의례가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기(禮記)』 45편 향음주의에 의하면, "향음주란 향대부가 나라 안의 현인(賢人)을 대접하는 것으로 향음주례를 가르쳐야 존장(尊長)과 양로(養老)하는 것을 알며, 효제(孝悌)의 행실도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귀천(貴賤)의 분수도 밝혀지며, 주석(酒席)에서는 화락하지만 지나침이 없게 되어 연회를 즐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되고,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기에 족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말에 성리학이 전래됨에 따라 향사례(鄕射禮)와 함께 향음주례에 대한 지식이 이미 알려진 듯하나, 그 진의가 잘 반영된 것으로는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 중 향사의(鄕射儀), 향음주의가 있다. 향사의는 오례(五禮) 중 군례(軍禮) 의식으로 "매년 3월 3일(가을에는 9월 9일)에 개성부 및 여러 도(道), 주(州), 부(府), 군(郡), 현(縣)에서 그 예를 행한다."라고 하였고, 향음주례는 가례(嘉禮)의 하나로서 "매년 맹동(孟冬)에 한성부 및 여러 도, 주, 부, 군, 현에서 길진(吉辰: 길일)을 택해 그 예를 행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향사례는 효제충신하며 예법을 좋아하여 어지럽히지 않는 자(孝悌忠信好禮不亂者) 그리고 향음주례는 나이가 많고 덕과 재주가 있는 자(年高有德及才行者)를 각각 앞세운다고 하였다.

향음주의에 기록된 행례 절차는 고을의 관(官)이 주인이 되어 나이가 많고 덕과 조행(操行)이 있는 사람을 빈(賓)으로 삼아 주탁(酒卓)을 마련하여 읍양(揖讓)하는 예절을 지키며 주연을 베푼다. 주연이 끝나면 사정(司正)이 자리에서 나가 북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우러러 생각건대, 국가에서 옛날의 제도를 따라 예교(禮敎)를 숭상하여 지금 향음주례를 거행하게 되니, 오로지 음식(飮食)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무릇 우리 어른과 어린이는 각자가 서로 권면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안으로는 규문(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는 향당(鄕黨)에 친밀하며, 서로 훈고(訓告)하고, 서로 교회(敎誨)하여, 혹시 과실과 나태함으로써 그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하라."라는 서사(誓詞)를 읽었다. 결국 향음주례는 수령이 앞장서서 향중(鄕中)의 유덕자를 골라 베푸는 주연이되, 음주를 즐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례(酒禮)를 통한 예법의 훈련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두 의례는 「오례의」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성종 때까지도 지방 수령과 감사들이 거의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 두 의례를 주목하게 된 것은 성종 초에 중앙에 진출한 김종직(金宗直)과 그 문인(門人), 종유인(從遊人)들이 향촌 질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로써

1~2 향음주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강북구청





향사례와 향음주례의 시행을 건의하면서부터였다. 이 건의는 두 가지 의례의 담당 기구로 세조 말에 혁파된 유향소(留鄕所) 제도의 부활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이들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 운동은 단순한 이전 제도의 부활이 아니라 『주례』의 향사례, 향음주례를 실천할 기구로서 유향소를 거론한 것이다. 두 의례는 각 향촌 사회에서 효제충신하고 연고유덕자(年高有德者)를 각각 앞세워 불효(不孝), 부제(不悌), 불목(不睦), 불인(不姻), 불임휼(不任恤)한 자, 다시 말해서 향촌 질서의 파괴자를 모두 다스려서 궁극적으로는 향촌의 질서를 유교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교화의 방식에 의해 자치적으로 달성코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향소 복립 운동은 당초 사림파의 의도와는 크게 어긋났다. 곧 사림의 세력이 우세했던 영남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복립 유향소를 훈구 계열이 장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중종대에 이르러 향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나, 이때는 성종 때와는 달리 향음주례만이 거론되었다. 이 시기의 논의에서 풍속 교화의 방법으로 향음주례와 함께 거론된 것은 향사례가 아니라 친영례(親迎禮)였다. 그 이유는 향사례 의식의 시행 주체는 유생들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습속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논의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성종대의 향사례, 향음주례 보급 운동이 중종대에 이르러 향촌 질서의 개선 내지 개편의 현실적 필요성이 절박해지면서 향약보급운동으로 발전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음주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풍속의 교화는 향약의 기본 취지로서, 향음주례와 향약이 추구하는 바는 서로 같았다. 향약의 강신례(講信禮)가 끝난 후에 향음주례를 베풀기도 하고 향음주례 후에 강신례를 베풀기도 하여 향약에서 양자는 연이어 계속적으로 열렸다. 향약과 향음주례는 선후의 차이밖에 없었으며 서로 혼칭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禮記, 儀禮, 朝鮮王朝實錄, 周禮, 飮酒禮攷證圖, 飮禮考(金龍德, 東方 志 46·47·48 , 延世大 校 國 硏究院, 1985), 國社 史硏究(李 , 識產業社, 1986).

필자 | 최호( )

협제(祫)

정의 대수(代數)가 지나 가묘(家廟)에서 내보낸 조상들을 모아 3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 협(祫)은 '합제사'라는 뜻으로, 합제선조(合祭先祖)라는 의미를 지닌다.

유래 『두씨통전(杜氏通典)』에 이르기를 "예전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3년상(三年喪)을 마치고 모두 선조(先祖)의 신(神)에 합(合)하고 향사(享祀)하였는데, 우(虞)나라와 하(夏)나라에서는 선왕(先王)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2년상을 마치고 협제(祫祭)하고, 은(殷)나라에서는 선왕이 죽으면 새로운 왕이 2년상을 마치고 협제하였으며, 주제(周制)에는 천자와 제후는 3년상을 마치고 담제(禫祭) 후에 곧 태조(太祖)에게 협제하고, 그 이듬해 봄에 군묘(群廟)에 체제(禘祭)한다."라고 하였고, 그 주(註)에 말하기를 "협제는 훼철(毁撤)한 묘(廟)와 훼철하지 않은 묘를 모두 태조(太祖)에게 합하여 올리는 것이며, 체제는 친묘(親廟)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다만 문무(文武; 주나라 문왕과 무왕) 이하(以下)는 훼철한 신주(神主)를 소목(昭穆)에 의하여 문무의 묘에서 제사하고, 왕계(王季) 이상(以上)은 후직(后稷)의 묘 안에서 제사하였다."라고 하였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체제는 훼철한 신주를 가져다가 모두 태조(太祖)에 합하여 제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송사(宋史)』에는 예전에 새로운 임금이 왕위를 계승한 지 3년 만에, 선왕(先王)의 상(喪)을 당한 지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냈고, 그 뒤에 새로운 신주를 부묘(祔廟)하고 특별히 체제를 행하였으며, 그해 겨울 10월에 협제를 행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선왕이 죽고 27개월 만에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하면서 협제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조상들을 모두 태조의 묘에 합하여 제사하는 것으로 대제(大祭)의 협제와 시제(時祭)의 협제가 있다. 천자와 제후는 삼년상이 끝나면 대수가 지나 옮긴 조조(祧祖)와 고조(高祖) 이하의 친묘 네 분의 신위를 모두 태조의 묘에 올리어 성대히 제사하는 것을 협제라 이른다. 이듬해 봄에 다시 태조의 묘에 체제를 지낸다. 3년에 한 번 협제를 지내고 5년에 한 번 체제를 지낸다. 천자와 제후 모두 봄에는 바치는

물건이 박하므로 협제를 지내지 않는다. 천자는 시제에 앞서서 협제를 지내고, 체협 두 제사가 합치하는 해에는 협제를 다음에 지낸다. 제후는 시제에 이어서 협제를 지내고, 체협 두 제사가 겹치는 해에는 협제를 지내고, 체제를 폐한다. 체협 두 제사는 시행 연도가 다르다는 점과 협제는 미훼묘(未毁廟; 아직 훼철하지 않은 묘)의 신위를 태조의 묘에 올려서 합제(合祭)하고, 체제는 각 조상의 신위가 있는 곳에서 제사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상은 대제의 협제이지만 따로 천자의 시제에도 협제가 있어 매년 여름과 가을, 겨울의 세 시기에 지낸다. 이 협제에는 군묘(群廟)의 신주만을 합제하고, 훼묘(毁廟; 대수가 지나 훼철한 묘)의 신주에는 제사하지 않는다.

고려에서는 3년에 한 번 지내는 대제인 협제를 10월에 지냈다. 이는 문종 2년(1048)과 문종 10년(1056), 예종 5년(1110), 의종 2년(1148)과 의종 5년(1151), 명종 8년(1178)과 명종 16년(1186), 희종 2년(1206)에 지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종 2년(1215) 10월 을미에는 구체적으로 각 실에 옥책을 받들어 존호를 올리고 협제를 지낸 기록이 보인다. 여기에는 제1의 태조실(太祖室), 제2의 혜종실(惠宗室), 제3의 현종실(顯宗室), 제4의 선종실(宣宗室), 제5의 숙종실(肅宗室), 제6의 예종실(睿宗室), 제7의 인종실(仁宗室), 제8의 신종실(神宗室), 제9의 강종실(康宗室)에 올리고 있다.

협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사(高麗史)』 권60 「지(志)」14 예(禮)2 길례대사(吉禮大祀)에 체협친향의(禘祫親享儀)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과는 달리 태조가 남향이 아닌 동향하여 모셔져 있다. 후대 임금들은 소목에 따라 남향 북향하여 모셨다. 이는 태조를 남향하게 하고 동향 서향하게 하면 장소가 남북으로 길어져야 하므로 태조가 동향하고 남향 북향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다. 여기에서는 태조의 자리는 서쪽에서 동향하고 혜종(惠宗), 문종(文宗), 예종(睿宗)의 순서로 소(昭)의 자리가 되어 북에서 남향하고, 현종(顯宗), 순종(順宗), 선종(宣宗), 숙종(肅宗), 인종(仁宗)의 순서로 목(穆)의 자리가 되어 남에서 북향하여 모시고 있다. 고종대 협제와는 달리 문종, 순종이 들어 있고 신종, 강종이 빠져 있다. 이는 무신의 난이 일어나기 전, 인종의 아들인 의종 때에 정해진 의례가 『고려사』에 실렸기 때문인 듯하다.

제의 절차는 재계(齋戒) - 진설(陳設) - 임금입장 - 성생기(省牲器; 희생을 마련하는 것을 살피는 것) - 신관(晨祼; 신이 내려오기를 비는 의식) - 궤식(饋食; 술과 음식을 권함) - 송신(送神; 신을 전송함) - 환궁(還宮)으로 이루어진다. 궤식에서 초헌관이 헌폐(獻幣; 폐백을 올림),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 독축(讀祝; 축문을 읽음), 음복(飮福; 제사에 올린 술과 음식을 맛보는 예)을 한 후 아헌관이 헌작, 음복하고 다음은 종헌관이 헌작, 음복하고 배향 공신과 7신위에 헌작하는 것이 조선과는 다르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3년(1421) 송나라 제도를 따라 영녕전(永寧殿)을 세워 매년 제사를 지내고 3년마다 협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협제를 지낼 때는 영녕전에 가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4조에 제사를 지낸 후 종묘에서 조천되어 협실에 모셔져 있는 신위를 태조묘에 합해서 협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 길례의식(吉禮儀式)에 친협종묘의(親祫宗廟儀)를 정하여 맹동(孟冬) 곧 10월에 지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영녕전이 세워져 조상들의 신위가 영녕전에 모셔지고 여기서 일년에 두 번 봄가을로 제사 지내는 데다 영녕전에 모셔진 조상의 신위를 태조묘에 모셔와 협제를 지내자니 불경스럽고 태조를 영녕전으로 모셔서 협제를 지낼 수는 없으므로 3년에 한 번 지내는 협제는 지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일년에 두 번 지내는 영녕전 제사와 일년에 네 번 지내는 종묘대제를 협제처럼 지내게 되었다. 곧 종묘에서는 사시제에 조상을 모두 제사 지냈다. 그래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영녕전과 종묘에 사시(四時)와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만 있어 사시에 지내는 협제만 남고 3년마다 지내는 협제는 없어졌다. 그 대신에 선왕의 삼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할 때 영녕전에도 제사를 지내 협제의 의미를 살렸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시제라 하여 일년에 한 번 조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협제는 원칙적으로 제후가 3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이지만 이러한 대제의 협제는 지내지 못하고 시제의 협제로서 사대부 집안에서도 일년에 한 번 지낸 것이다.

『세종실록』의 친협종묘의를 살펴보면, 제일(祭日)은 맹동의 시향(時享) 뒤로 택일하고, 재계(齋戒)는 산재(散齋) 4일, 치재(致齋) 3일을 한다. 절차는 진설 - 거가출궁(車駕出宮) - 성생기 - 신관 - 궤식(헌폐, 헌작, 독축, 재배) - 아헌(亞獻) - 종헌(終獻) - 음복 - 거가환궁(車駕還宮)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소목(昭穆)의 자리[座]를 지게문 밖[戶外]에 베푸는데,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한다. 황현조 목왕(皇玄祖穆王), 황증조 도왕(皇曾祖度王), 황고 태조 강헌 대왕(皇考太祖康獻大王)은 모두 북쪽에 있어 남향하고, 황고조 익왕(皇高祖翼王), 황조 환왕(皇祖桓王)은 모두 남쪽에 있어 북향하게 한다고 하였다.

『국조오례의』에는 친협종묘의는 없고 사시급납향종묘의(四時及臘享宗廟儀)와 춘추향영녕전의(春秋享永寧殿儀)가 있어 협제를 대신하고 있다. 의식은 재계(齋戒)는 산재(散齋) 4일, 치재(致齋) 3일을 한다. 진설 - 거가출궁 - 성생기 - 신관 - 궤식 - 아헌 - 종헌 - 음복 - 거가환궁으로 이루어져 『세종실록』「오례의」와 대동소이하고 세부적인 의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영조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서는 모셔진 신위가 세실로 늘어나고, 대한제국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에는 황제식 묘제로 바뀌었지만 의식은 대동소이하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大 禮典, 杜氏 典, 世宗實錄, 宋史, 禮記, 詩外傳.
필자 | 지두환(池斗)

무뿌리점

정의 김장철에 무뿌리가 자란 상태를 보고 그해 겨울의 추위를 점치는 풍속.

내용 10월은 월동준비를 하는 달이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입동(立冬) 무렵에 김장을 담그는 일이다. 이때 김장용으로 재배한 무를 수확하면서 그 뿌리의 길이를 보고 날씨를 점치는데, 이를 무뽑아보기, 무뿌리로 날씨점치기, 무뿌리로 점치기라고 한다. 무뿌리가 길게 뻗어 있으면 그해 겨울은 춥고, 뿌리가 짧으면 따뜻하다고 믿는다. 무도 추위를 견디기 위해 뿌리를 길게 내릴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 추론이다. 주로 경남 지역에서 전승되는데 충청도에서도 사례가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이 풍속은 단순히 겨울 추위 정도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특히 김장철에 이러한 풍속이 행해짐을 감안할 때 김장과 함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동절기에 우리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식물(副食物)은 김치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날씨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무뿌리점 풍속은 김장을 담그고 무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무의 뿌리를 보고 날씨를 점치면서 겨울철 건강을 미리 기원한 풍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부엉이울음점

정의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앞일을 예측하는 민간 점복(占卜)의 하나.

내용 및 지역사례 부엉이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로 예부터 그 울음소리는 일반적으로 죽음과 흉조(凶兆)를 상징하나 반대로 길조(吉兆)를 상징하는 경우도


수리부엉이 문화재청

있다. 경남 의령군 부림면 여배리와 용덕면 운곡마을 그리고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서는 10월에 부엉이가 울면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악질이 도는 수가 많다고 여긴다. 부산에서도 10월에 부엉이가 울면 마을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초상이 나거나 시끄럽고 불길한 일이 생기며 이듬해에 농작물이 좋지 않다고 여긴다. 반대로 경남 함안군 일대와 가야읍에서는 "남여시 북부엉"이라고 하여 10월에 남쪽에서 여우가 울고 북쪽에서 부엉이가 울면 차반(맛있게 잘 차린 음식이나 반찬)이 들어온다고 하여 길조로 여기고,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는 10월에 부엉이가 울면 이듬해에 바닷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한편 강용권의 『향토의 민속』에서는 "10월 밤에 부엉이가 앞산에서 울면 결혼식이 있고, 뒷산에서 울면 사람이 죽으며, 자주 울면 초상이 잦다."라고 하여 부엉이 울음을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구비전승 제주도의 무가 '세경본풀이'에서 "밤중만 되면 부엉이가 날아와 울어대면 서천 꽃밭에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도환생꽃들이 죽어간다."라고 하고, 속담에도 "부엉이가 울면 초상난다."라고 하여 그 울음소리를 죽음의 흉조로 보았다. 반면에 "부엉이가 동네 앞에서 울면 이바지(선물)가 들어온다."라는 속담은 부엉이가 먹을 것을 잘 찾아오듯이 먹을 것이 생긴다는 뜻이다. "부엉이 살림이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욕심이 많아서 먹이를 많이 저장하듯이 살림을 넉넉하게 지닌 것을 빗댄 말이다. "부엉이 집을 놓쳤다"라는 속담은 먹을 것이 많은 부엉이 집을 놓쳤듯이 먹을 복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부엉이 집을 만났다"와 "부엉이 집을 얻었다"라는 속담은 먹을 것이 많은 부엉이 집을 얻듯이 먹을 복이 생겼다는 뜻으로 쓴 말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부엉이의 울음은 흉조와 길조의 양면성을 지닌 동시에 부엉이는 재물과 관련 있는 새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제주도 신화(현용준, 서문당, 1972), 향토의 민속(康龍權, 石堂傳 文 硏究院, 1988), 國文 상징사전1(國文 象 辭典 委員 , 東亞 社, 1992), 한국 민간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승찬(金承)

첫눈먹기

정의 그해에 내린 첫눈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여 첫눈을 먹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그해에 내린 첫눈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여 첫눈을 받아먹거나 그것을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먹는데, 구체적으로 몸의 어디에 좋은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산에서는 겨울에 첫눈을 먹으면 추위를 타지 않으며 첫눈을 받아 병에 모아 두었다가 체했을 때 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경남 통영에서는 첫눈이 오면 이것을 받아두었다가 아이가 홍역을 앓을 때 먹이면 열이 금방 내린다고 한다. 충남 예산에서는 첫눈을 받아 녹여서 먹으면 편두통에 좋다고 하여,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첫눈을 직접 받아먹거나 쌓인 눈을 거두러 다니기도 한다. 또 연기에서는 첫눈을 먹으면 이[齒]가 강하고 좋아진다고 한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섣달에 첫눈을 받아서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몸이 좋아진다고 한다.

전남 고흥에서는 첫눈을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하며 첫눈으로 머리를 감으면 좋다는 말이 전한다. 또 목포와 무안에서는 음력 10월이 넘으면 첫눈이 내리는데, 이때 첫눈을 받아두었다 먹으면 그 이듬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며, 눈병이 나지 않고 눈[眼]이 밝아진다고 한다. 영광에서는 "10월 보름에는 눈을 꾸어서라도 온다."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맘 즈음에 내리는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지며, 허리 아픈 병에 좋다고 한다. 화순에서는 첫눈을 받아먹으면 재수가 있다고 하여 첫눈이 내리면 입을 벌리고 눈을 쫓아다니기도 하는데, 첫눈을 먹으면 허리도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믿었다.

의의 첫눈먹기 풍속은 그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리는 눈이라는 것과 눈의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 특히 눈[雪]을 먹을 때 눈[眼]이 좋다고 인식하는 것은 유감주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서해숙(徐 淑)

밀단고(蜜團餻)

정의 동그랗게 반죽한 찹쌀가루를 삶아낸 후 꿀을 바르고 고물을 묻힌 달고 작은 떡. 지금의 경단(瓊團)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단고(團餻)라는 떡 이름은 어느 문헌에도 찾을 수 없으나 다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0월 월내에 "찹쌀가루로 동그란 떡을 만들어 익힌 콩을 꿀에 섞어 바르되 붉은 빛이 나게 한 것을 밀단고라 한다. 이것들이 모두 초겨울의 시식이다."라고 소개한 것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의 찹쌀 경단을 단고(だんご)라 부르고 있다.

밀단고의 조리법이나 형상을 가지고 짐작하자면 경단이라 볼 수 있는데, 이용기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경단이란 것은 형용을 말한 것이다. 찹쌀가루를 물에 반죽하여 상수리나 밤알만큼 동글려 끓는 물에 삶아 건져낸 즉 개개히 동글고 희어서 구슬같다 하니 누런 콩가루를 묻히고 익은 꿀을 늘리고 생강즙을 치고 개핏가루를 뿌려 먹는 것을 콩경단이라 하나니라. 또 거피 팥이나 녹두 실한거나 콩가루를 묻혀 그릇에 담고 계핏가루를 뿌리고 꿀을 늘려 먹느니라."라고 설명하였다. 이 밖에 팥경단은 붉은 팥가루를 묻히는데 송도에서 흔히 만든다고 했으며 고물로는 밤, 깨, 잣도 한다고 했다.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도 경단은 은행알만큼 동글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팥소를 묻히면 팥경단, 콩가루를 묻히면 콩경단, 깨를 묻히면 깨경단이라 한다고 했다.

『요록(要錄)』에는 경단병이 있다. 찹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삶아 익힌 후 꿀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청향을 바르고 그릇에 담은 뒤 다시 꿀을 그 위에 더한다. 조리 방법이 밀단고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일찍이 귀하고 맛있는 떡으로 여겼던 것 같다.

단자는 『규합총서(閨閤叢書)』, 『윤씨음식법(尹氏飮食法)』에 나타나는 떡으로, 위의 세 책들이 1849년에 편찬된 『동국세시기』와 같은 시대의 저술들인 것으로 보아 당시 궁중이나 양반의 고급 떡이 점차 민간으로 전해지며 쉬운 재료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경단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閨　書, 東國歲時記, 是議全書, 洌陽歲時記, 要錄, 尹氏飮食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　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方信榮,　城圖書株式　社, 1942), 쉽게 맛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떡(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1999).

필자 | 한복려(　福麗)

변씨만두(卞氏饅頭)

정의 메밀이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피(皮)를 만들고 고기와 채소를 섞어 소를 만들어 모가 지게 빚어서 익혀 먹는 만두의 일종.

내용 만두는 조선시대의 조리서에 수교의, 혼둔, 편수(片水), 변시만두, 병시(餠匙)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난다. 조리법은 모두 비슷하나 다만 생김새를 원형, 반달형, 삼각형, 사각형으로 빚으면서 만두를 다르게 불렀다. 현재 변씨만두라 부르는 만두는 먹지 않지만, 조리의 형태로 보아 편수 또는 병시와 같은 음식으로 짐작된다.

변씨만두가 처음으로 기록된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혼돈(餛飩)'을 만두라고 하면서 "즉, 변시"라고 하였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변시만두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면서 "밀가루 반죽을 밀어 귀나게 썰어 소를 넣고 귀로 싸고 닭 고운 물에 삶아 초장에 쓰라."라고 하였다. 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0월조(十月條)에서는 "메밀가루로 만두를 만드는데 채소, 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로 소를 만들어 싸서 장국에 익혀 먹는다. 또 밀가루로 세모의 모양으로 만든 만두를 변씨만두라 하는데 변씨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성우는 그의 저서 『조선시대 조리서의 분석적 연구』에서 동파육(東坡肉)이 인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변씨만두도 중국에서와 같이 인명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閨　書, 東國歲時記, 名物紀略, 是議全書,　宴儀軌,　蒙字　, 李朝宮廷料理　攷(　順 외,　社, 1957), 朝鮮時代 調理書의 分析的 硏究(李盛雨,　國精神文硏究院, 1982).

필자 | 한복려(　福麗)

⇨ 편수(片水): 여름편

시루떡

정의 쌀가루를 시루에 켜켜로 안쳐서 찌는 떡. 쌀가루에 무엇을 섞었는지, 고물로 무엇을 얹었는지에 따라 떡의 명칭이 달라진다. 낙랑 유적에서 동과 흙으로 된 시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역사가 오랜 것으로 보인다.

유래 예부터 조상들은 철마다 또는 각종 경조사 때마다 떡을 해서 나눠 먹었으며, 그 중에서도 시루떡은 가장 많이 해먹는 떡이었다. 붉은 팥떡은 지금까지도 이사떡으로 이웃에 돌리는 풍습이 남아 있다.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 붉은 팥시루떡은 상달 시식으로, 붉은팥을 고물로 하여 햇곡식으로 시루떡을 쪄서 마구간과 방안에 차려놓고 주인의 생기복덕을 비는 치성을 하거나 고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내용 시루떡을 찔 때 주의할 것은 시루에 가루를 안치고 김이 새지 않도록 시룻번을 잘 돌려 붙이고, 처음엔 뚜껑을 덮지 말고 불을 지펴서 얼마 뒤에 떡에서 김이 오르면 이때 짚으로 짠 뚜껑(짚방석)을 덮어야 물이 차지 않는다. 근래에는 간편한 방법으로 찜통에 찌는데, 이때는 젖은 보를 깔거나 창호지를 오려 밑에 깔고 가루를 안친다. 시루떡을 멥쌀가루로만 하면 메떡이고, 찹쌀가루로만 하면 찰떡인데 멥쌀과 찹쌀을 합하여 반찰떡을 하면 잘 부서지지도 않고 빨리 굳지 않아서 좋다. 예전엔 반찰떡을 무당떡이라고도 했다.



시루떡 궁중음식연구원

붉은 팥시루떡은 시월 상달에 고사 지낼 때나 이사할 때, 함 받을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떡이다. 붉은 팥 고물을 쓰는 것은 잡귀가 붉은색을 무서워하여 액을 피할 수 있다는 주술적인 뜻이 담겨 있다. 잔치나 제사 때는 붉은 팥고물 대신에 흰팥이나 녹두, 깨 등을 고물로 사용하여 시루떡을 만든다. 그 밖의 시루떡으로는 떡가루에 다른 재료를 섞어서 색이나 향을 첨가한 각색편이 있다. 멥쌀가루로 켜를 얇게 해서 고물로는 밤, 대추, 잣 등의 견과를 쓰며 국화의 꽃잎이나 나뭇잎으로 장식을 한다. 특히 이 떡은 고명으로 문양을 내서 그 위에 한지를 살짝 덮어 쪄내는 공이 많이 드는 떡이므로 여러 가지 떡을 고일 때는 가장 위에 얹는 떡이기도 하다. 여름에 자주 만드는 녹두편은 노란 통고물이 보기도 좋고 품위가 있다. 4월의 초파일 즈음에는 연한 느티나무 잎을 고물 대신에 사용한 느티떡이 있고, 여름에는 상추를 이용한 상추떡, 겨울에는 무를 이용한 무시루떡이 별미이다. 그 밖에 흰쌀이나 좁쌀 또는 조찹쌀을 넣은 시루떡이 있고 호박이나 고구마를 썰어 넣기도 한다. 재가승마을에서는 조찹쌀가루와 기타 잡곡을 섞어서 열콩 부르개를 넣고 가마에 쪄낸 다음, 함지에 대고 잘 주물러 혼합시켜 칼로 베어 먹는다. 한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전라도는 호박고지나 곶감을 곁들이고 제주도에서는 고구마를 곁들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찐 시루떡은 그 지방의 별미 음식이다.

의의 각 가정에서는 시월 중에 좋은 날 하루를 택하여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가신들에게 올리는 의례를 행했는데, 기원하는 대상신은 집안의 풍요와 안위를 지켜준다고 믿는 가신들이다. 주로 터주신, 성주신, 제석신, 조왕신에게 정성을 들여 햇곡식으로 술과 고사떡을 마련하고 갖가지 과일을 준비하여 제사와 축원을 하고 이밖에 칠성신, 축신, 마당신, 문신에게는 제물만 놓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朝鮮常識問答-全 -(南善, 東明社, 1946), 한국음식 歲時記(여성중앙, 中央日報社, 1975), 팔도음식(한복진, 대원사, 1989), 명절음식(한복선, 대원사, 1990).

필자 | 박인경(朴仁璟)

신선로(神仙爐)

정의 화통이 붙은 냄비(구자)에 여러 가지 어육(魚肉)과 채소를 색스럽게 넣고 각종 마른 과일들을 장식하여 육수를 붓고 끓이면서 먹는 탕이나 전골요리. 음식 이름이면서 그릇 이름이기도 하며, 열구자탕(悅口子湯), 탕구자(湯口子), 열구자(悅口子)라고도 부른다. 궁중과 반가에서 잔치 음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신선로를 꾸밀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궁중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로 꼽힌다.

유래 중국의 훠궈르(火鍋兒)란 냄비가 수입되어 그 그릇의 쓰임새를 잘 활용하여 한국의 최고 음식으로 만든 것이 신선로라 할 수 있다. 신선로의 기원은 고문헌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 신선로의 원래 이름은 열구자탕이며, 맹자의 말 중에 "오히려 추환이 나의 입을 즐겁게 한다(猶芻豢之悅俄於口)." 에서 열구(悅口)는 음식이 입에 맞는다는 뜻이고 그 말을 본떠서 열구자탕은 '입에 맞는 맛있는 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자세히 그릇모양과 조리법이 나타난 문헌은 1700년대 한문 요리서인 『수문사설(謏聞事說)』이다. "끓이고 익히는 기구가 별도로 있다. 큰 합과 같은 모양에 발과 아궁이가 달려있다. 합 가운데에 둥근 통이 세워져 있는데 뚜껑의 바깥까지 높이 나와 있고 뚜껑은 중심에 구멍이 있어 원통이 위로 튀어나와 있다. 이 원통 안에 숯불을 피우면 바람이 아궁이로 들어가고 불길은 뚜껑 위의 구멍으로 나간다. 이 합의 둘레에 돼지고기, 생선, 꿩, 홍합, 해삼, 소의 양, 간, 대구, 국수, 고기, 만두 등을 돌려 놓고 파, 마늘, 토란을 고루 섞어놓은 다음 맑은 장국을 넣고 끓이면 각 재료에서 국물이 우러나와 맛이 매우 좋다. 몇 사람이 둘러앉아 젓가락으로 집어 먹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데 뜨거울 때 먹는다. 이 음식은 모여 앉아 회식하기에 아주 적당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가지고 온 이 기구는 전별하는 야외 모임이나 겨울밤에 모여 앉아 술자리를 즐길 때 매우 좋다."라고 하였다

『송남잡지(松南雜識)』 열구지조(悅口旨條)에서 "나부영 노인이 여러 음식을 잡팽(雜烹)한 것을 골동갱이라 하였고 …… 이것이 지금의 열구지(悅口旨)이다. 그리고 이 냄비를 화호(火壺) 또는 신선로라 한다." 라고 했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 외, 훈채, 계란을 섞어 장탕을 만든다. 이것을 열구자 또는 신선로라 하는데 중국의 난로회(煖爐會)에서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에서는 연산군 시대에 정희량(鄭希良)이란 선비가 세속을 떠나 산중에 은거하던 때에 화통이 달린 냄비에 여러 가지를 모아 끓여 먹었으므로 그 선비의 생활이 마치 신선과 같아 그 음식을 신선로라 하였다고 말했다.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서는 신선로의 내력에 대하여 "근래에 조선음식이라면 외국 사람들은 맨 먼저 신선로를 생각할 만큼 이것이 특별히 유명해지고 또 우리 신선로가 크게 특색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선로는 결코 조선의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음식에 우리 신선로와 똑같은 그릇을 훠궈르라 하여 그릇 한가운데 숯불을 피우고 그 가장자리에 국을 끓여 어육과 채소를 익혀 먹는 풍속이 있으니 신선로와 훠궈르가 이름은 다를망정 실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신선로는 간단한 어육 채소가 아니라 가지각색 재료를 볼품 있게 담고 끓여 먹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훠궈르보다 복잡한 것 같지만 중국에도 십경대과(十景大鍋)니 무엇이니 하여 우리 신선로와 흡사하게 꾸미는 것이



신선로 궁중음식연구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루 보아서 생각하건대 조선의 신선로가 중국에서 왔음을 거의 의심할 수 없으며 다만 중국에서 생긴 것일까 합니다. 중국 옛날 글에 추운 겨울에 신선로를 끼고 따뜻하게 마시고 먹는 모임을 난로회라고 이름 지은 것이 있으니 미상불 재미있는 말입니다."라고 하였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는 "놋쇠를 써서 관을 만들고 중앙에 철통자를 둔다. 모양은 입이 넓은 항아리와 같으며 뚜껑이 있다.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의 숯불이 들어가고, 둘레는 지(池)를 이루고 7~8사발의 물이 들어갈 수 있다. 물을 넣은 후에 장국을 붓는다. 뚜껑을 닫은 후 숯불을 항속에 넣고 끓인다. 탕이 끓고 재료가 고루 익으면 자기 수저로 떠먹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용 궁중의 연회 음식를 적은 『진찬의궤(進饌儀軌)』나 『진연의궤(進宴儀軌)』에는 모두 열구자탕(悅口資湯, 悅口子湯)이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선로라는 표기는 전혀 없다. 그러나 궁중의 음식발기 중에는 한글로 '신션로'란 표기가 있다.

궁중의 신선로는 탕신설로(湯新設爐)와 면신설로(緬新設爐)로 나뉘는데, 탕신설로는 열구자탕과 재료가 거의 비슷해 같은 음식으로 생각되지만, 면신설로는 간단한 국수장국 재료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선로 틀에 장국과 건지를 끓이다가 메밀국수를 말아 먹은 음식으로 볼 수 있다.

궁중음식기록에 나타난 신선로 재료는 다음과 같다. 면신설로에는 목면, 도가니, 진계, 계란, 호초말, 간장이 사용되며, 열구자탕에는 우내심육, 양, 곤자손, 두골, 저태, 우척골저각, 생치, 진계, 수어, 해삼, 전복, 표고, 계란, 청근, 수근, 생총, 진말, 녹말, 호초말, 실임자, 진유, 간장, 실은행, 실호도, 실백자, 염 등이 들어가고 탕신설로에는 우둔, 양, 곤자손, 두골, 저각, 생치, 수어, 해삼, 계란, 청근, 전복, 표고, 수근, 생총, 진말, 진유, 간장녹말, 임자, 실백자, 호초말, 실은행, 실호도가 사용된다.

신선로에 담는 것과 같은 재료를 신선로가 아닌 전골그릇에 담아서 끓인 요리가 전골이다. 옛날의 전골그릇은 주위에서 고기, 채소, 조개류를 익히면서 그 국물이 중앙의 오목한 부분으로 흐르도록 하고, 그 안에다 채소를 끓이면서 먹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신선로가 호화로운 잔칫상이나 궁중의 연회석상에 주로 오르는 고급 요리라면, 전골은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전골 그릇의 모양과 내용물은 달라졌지만, 전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의의 신선로는 모든 산해진미를 한 그릇에 담아 꾸미기 때문에 잔칫상의 압축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맛과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온갖 음식을 한 그릇에 축약하여 담았다는 것 외에도, 특이한 그릇 모양으로 신선로는 잔칫상을 마무리 짓고 입체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곧 신선로는 색다른 형태와 맛 그리고 높은 영양가로 한국 음식의 진수를 보여주는 음식이다.

참고문헌 | 簡 朝鮮料理製法, 閨 書, 東國歲時記, 名物紀略, 松南雜識, 謏聞事說, 是議全書, 林園經濟 , 宴儀軌, 儀軌, 東竹枝,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 書館, 1924), 朝鮮料理法(조자호, 서울, 1938), 朝鮮料理(孫貞圭, 日 書房, 1940), 朝鮮料理 (善 朝, 1940), 朝鮮料理製法(方信榮, 城圖書株式 社, 1942), 朝鮮常識- 俗 -(南善, 東明社, 1948), 李朝宮廷料理 攷(順 외, 社, 1957), 朝鮮王朝宮中宴 食件記(李盛雨, 1987).
필자 | 한복려(福麗)

애탕(艾)

⇨ 쑥국[艾湯]: 봄편

연포탕(軟)

정의 두부를 지져 닭고기, 표고, 석이, 다시마 같은 재료들과 함께 끓여 여기에 가루즙을 풀어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두붓국의 하나. 10월의 절식 또는 상사(喪事) 때 쓰이는 음식이다.

내용 전순의(全循義)의 『산가요록(山家要錄)』에 두부 만드는 법과 두붓국에 대한 기록[假豆泡]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0월조에는 "두부를 가늘게 썰고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지지다가 닭고기를 섞어 국을 끓이면 이것을 연포탕이라고 한다. 여기서 포라는 것은 두부를 말하며 한나라 무제(武帝) 때 신하 회남왕(淮南王)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했다.

『주찬(酒饌)』,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을 비롯한 여러 책에서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

8「치선(治膳)」 상(上) 닭고기요리[鷄肉膳]의 연포국 만들기[造軟泡羹法]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한 기록이 있다. "이 국은 겨울철에 먹어야 좋다. 쇠고기는 돼지고기만 못하고 돼지고기는 꿩만 못하고 꿩고기는 살찐 암탉만 못하다. 닭을 깨끗이 손질하고 쇠고기와 함께 푹 삶아 쇠고기는 건져내고 닭고기는 가늘게 찢어 놓는다. 한편 두부를 만드는데 단단하게 눌러야 하며 납작하게 썰어서 기름에 지진다. 끓여놓은 국물에 지진 두부를 넣고 간을 맞춘 다음 생강, 파, 표고, 석이 채 썬 것을 넣는다. 별도로 고기국물을 조금 떠서 밀가루 즙을 만들어 넣고 달걀을 풀어 국물에 넣어 잘 저어서 고루 섞이게 한 다음 준비한 닭고기와 달걀 황백지단 채를 그릇에 담아 국물을 부어 낸다."

한편 연포탕은 무, 두부, 쇠고기, 북어, 다시마 등을 넣어서 맑게 끓인 국으로 제사 때 탕과 같은 음식이고 상가(喪家)에서도 끓였다. 그러나 요즈음에 일부 지방에서 연포탕은 다른 음식명으로 쓰이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山家要錄, 酒 , 增補山林經濟,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 書館, 1924), 國의 맛(姜仁 , 大 敎科書株式 社, 1987), 세시풍속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필자 | 조후종(趙 鍾)

열구자탕(悅口)

☞ 신선로(神仙爐): 겨울편

타락죽(酪)

정의 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갈아서 절반쯤 끓이다가 우유를 섞어서 쑨 죽. 우유죽이라고도 한다. 타락(駝酪)이라는 이름은 돌궐어(突厥語)의 '토라크'에서 나온 말로 말린 우유를 뜻한다. 조선조에서는 우유 제품을 통틀어 타락이라 불렀다. 10월 초하루부터 정월에 이르기까지 내의원에서는 타락죽을 만들어 국왕에게 진상하였다.

내용 우유는 서양 문물이 들어온 이후부터 식용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본의 옛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일본에 건너간 복상(福常)이 효덕천황(孝德天皇)에게 비로소 우유를 헌상하니 우유가 몸에 좋은 약이라며 화약사주(和藥使主)라는 성을 내리고 자손대대로 조정에서 이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범의 젖', '유락(乳酪)'이 나온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이 땅에서 우유가 일부 음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타락죽 궁중음식연구원

또한 『고려사(高麗史)』 권99 「열전(列傳)」12에 보면 시인 이순우(李純佑)가 관에 상고한 기록에 "우유를 약용으로 즐겨하여 의관들이 농민의 젖소를 징발하여 우유죽을 만드니 경기지방의 농사를 지을 소마저 상하게 하니 이를 금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있다. 몽고와의 교류 뒤에 국가의 상설 기관으로 유우소(乳牛所) 또는 목우소(牧牛所)를 두었다가, 조선시대에는 타락색(駝酪色)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고려시대 국가의 상설 기관인 유우소에서 젖을 짜고 이것으로 만든 우유 제품을 왕에게 올리면 왕은 가까운 신하들에게 보양식으로 나누어 주곤 하였고, 이 제도는 그대로 조선시대로 전해졌다.

타락죽은 쌀을 곱게 갈아 체에 밭쳐 물을 붓고 된 죽을 쑤다가 우유를 넣고 몽우리 없이 풀어 흘흘하게 하여 따끈할 정도로만 데워 낸다. 식성에 따라 소금이나 꿀을 곁들여 낸다. 죽의 찬물로는 부드럽고 작은 것이 좋으며 젓국조치가 잘 어울린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遺事, 料理物語, 國食 社 史(李盛雨, 敎文社, 1984), 國料理文 史(李盛雨, 敎文社, 1985), 명절음식(한복선, 대원사, 1990).
필자 | 박인경(朴仁璟)

난로회(煖爐)

정의 음력 10월에 전골냄비에 쇠고기를 비롯한 여러 재료를 담고 육수를 부어 끓인 음식을 둘러앉아 먹던 풍속. 예전에는 숯불을 지핀 화로를 가운데에 놓고 번철을 올려 쇠고기에 기름, 간장, 파, 마늘, 고춧가루로 조미하여 굽거나 볶아서 둘러앉아 먹었는데 이를 난로회(煖爐會)라 하였다. 난란회(煖暖會)라고도 한다. 전골은 이 난로회에서 유래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이때부터 먹는 음식으로 추위를 막는 시절 음식이다.

유래 『세시잡기(歲時雜記)』에 북경 사람은 10월 초하루에 술을 걸러놓은 후 고기를 화로에 구우면서 둘러앉아서 마시며 씹는데, 이것을 '난로(煖爐)'라 한다고 하였다. 또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는 10월 초하루에 유사(有詞)들이 난로와 술을 올리라고 하면 민가에서는 모두 술을 가져다 놓고 난로회를 했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옛날의 전골틀은 돌이나 쇠로 되어 있는데 돌전골틀은 높이가 낮고 전이 따로 달려 있지 않은 움푹한 돌판의 형태이나, 쇠전골틀은 전립을 거꾸로 한 형태로 둘레에는 기름에 잰 고기나 채소를 지지고, 가운데는 장국을 끓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국물에 잠기도록 끓이는 탕전골이 아니라 국물이 없는 구이전골의 형태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숯불에 석쇠나 전골틀을 올려놓고 여럿이 모여 앉아 양념에 잰 고기를 구워먹는 난로회에서 유래한 쇠고기 전골은 지금은 남한식과 북한식에 조금 차이가 있다. 북한식에서는 고기를 잴 양념장에 식초를 넣는데 이것은 고기의 미세한 균을 없애기 위한 것이며, 식초를 넣으면 고기 본연의 씹히는 맛을 더 좋게 해준다. 쇠고기는 등심이나 안심을 준비해 얇고 넓적하게 썰어 준비하고 간장에 설탕, 다진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배, 식초를 넣고 고루 섞은 양념장을 고기에 부어 하룻밤 정도 재어 두었다가 틀에 굽는다. 구울 때 버섯이나 고추 같은 채소류를 함께 구우면 향이 좋다.

참고문헌 | 東京夢 錄, 歲時雜記, 國食 社 史(李盛雨, 敎文社, 1984), 國料理文 史(李盛雨, 敎文社, 1985), 명절음식(한복선, 대원사, 1990),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한복진, 현암사, 1998).

필자 | 박인경(朴仁璟)



야연(성협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시사(時祀)떡 나누어 먹듯 한다

정의 가을 시제(時祭)를 지낸 뒤에 그 음식을 참석자에게 전부 나누어 주듯이, 음식을 고루 나누어 먹는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시사(時祀)는 시제와 같은 말이다. 가을 시제에 올려진 갖은 음식들을 시제가 끝난 후에 참석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음식이나 그 밖의 물건들을 골고루 나누어줄 때 이 속담을 비유로 사용한다. 그만큼 차별 없고 빠짐없이 고루 나누어주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참고문헌 |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필자 | 신경숙(愼慶淑)

시월 보름사리 물이 정월 보름사리 물보고 사돈하자 해도 마다한다

정의 음력 10월 15일과 1월 15일은 다같이 조석(潮汐)의 차가 심하여 바닷물의 흐름이 빠르지만, 전자보다 후자가 더 빠르다는 의미의 속담. 전라남도 신안지방에서 주로 통용되는 속담이다.

내용 음력 정월의 해수(海水) 유속은 2월 영등(靈登)날을 앞두고 10월에 비하여 더 빠르다. 따라서 정월 보름날 사리 때 물이 시월 보름날 사리 때 물보다 유속이 더 세고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센 사돈은 맺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민들은 물발이 가장 빨라지는 사리에 바다로 나가는데, 유속이 빠른 정월 보름에는 소형 어선이나 채취선의 안전 항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다.

사리는 물이름인데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의 바닷물은 달이 차고 기우는 데에 따라 조금과 사리가 반복된다. 조금 때는 물이 잔잔해서 배들도 들어와 쉬고 물발이 제일 빨라지는 사리에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사리는 보름과 그믐에 해당하고 조금은 8일과 23일에 해당되나, 지역에 따라 날짜에 약간 차이가 있어 어민들은 각기 제 고장의 물이름을 쓴다.

참고문헌 | 漁　俗談　(全羅南道, 1980),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　, 1999).
필자 | 강재철(姜在　)

10월 시제 때 치는 꿔다 해도 한다

정의 10월 시제(時祭)를 지낼 때쯤 되면 날씨가 계절풍 교대기에 들어서 기상 변화가 심해진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치'는 절기 이름이나 보름, 그믐, 조금 같은 단어 뒤에 붙어서, 그날 무렵에 궂어지는 날씨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날씨는 음력 10월이 되면 계절풍 교대기에 들어가면서 정풍이 없다고 말한다. 동시에 8월 무렵의 태풍은 대체로 상승기류에 의해 움직이나 9월 이후의 태풍은 기압골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음력 10월이 되면 날씨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바로 이 10월의 주요 행사로 시제가 있다. 그래서 10월 시제 무렵이면 으레 기상 변화가 심해지고 날씨가 나빠지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신경숙(愼慶淑)

시월 초하룻날이 따뜻하면 서울놈 휘양 팔아버린다

정의 음력 10월 1일이 따뜻하면 그해 겨울이 따뜻하여 서울 사람들은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인 휘양[揮項]을 팔아버린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음력 시월은 가을의 마지막 달이지만, 선인들은 그 첫날인 초하루의 날씨를 겨울 석 달 동안의 날씨를 예측하는 징조로 삼았다. 속신에 "시월 초하룻날 더우면 무명 장사 울고 간다." 또는 "시월 초하룻날 따뜻하면 솜장사가 운다."라는 말이 있다. 모두 시월 초하룻날이 더우면 그해 겨울이 춥지 않다는 속설 때문에 생긴 말들이다. 남부지방에서 생긴 이 속담 역시 위의 속신들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시월 초하룻날의 날씨가 따뜻하면 그해 겨울철 날씨도 따뜻하여 방한용 모자인 휘양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　, 1999),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　)





生

생업

메주 모양은 목적이나
넓적한 전석처럼
각형(角)이로 만들지나
둥글게 원형이로 만들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간격을 주고 펼쳐 놓아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려
겉말림을 한다.
겉면이 완전히 굳으면
새끼줄로 엮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띄운다.

무배추수확

⇨ 무배추파종: 봄편

김장

정의 겨울부터 봄까지 먹기 위한 김치무리를 입동(立冬) 전후에 한번에 많이 담가두는 일.

역사 김치에 관한 기원은 사료에 나타난 고구려, 백제의 생활문화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서(隋書)』「백제전(百濟傳)」에는 "(백제에는) 오곡, 소, 돼지, 닭이 많고 화식하지 않는다(有五穀牛猪雞多不火食)."라고 하였고, 『북사(北史)』「백제전(百濟傳)」과 『주서(周書)』「백제전(百濟傳)」에서도 "(백제의) 오곡, 각종 과일, 채소 및 술, 음식, 반찬, 의약품은 중국과 많이 같다(其五穀雜果菜蔬及酒醴肴饌藥品之屬 多同於內地)."라고 하였다.

또한 『양서(梁書)』「고구려전(高句麗傳)」과 『남사(南史)』「고구려전(高句麗傳)」에는 "(고구려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장양(藏釀; 술빚기, 장 담그기 등 발효성 가공식품을 총칭)을 잘 한다(其人潔淨自喜 善藏釀)."라고 하였으며, 『해동역사(海東繹史)』「물산지(物産志)」에는 "고려국의 사신이 오면 수(隋)나라 사람들이 채소의 종자를 구하면서 대가를 몹시 후하게 주었으므로, 인하여 이름을 천금채(千金菜)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상추이다(高麗國使者來 隋人求得菜種 酬之甚厚 因名千金菜 今萵苣也)."라고 하였다.

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백제에서는 '화식(火食)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통해 발효 음식 중 냉식(冷食)을 주로 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채소에도 불구하고 화식하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고구려는 수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상추[萵苣]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장양을 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들로 백제와 고구려의 채소 가공 기술들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김치가 우리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가포육영(家圃六詠)'이다. 당시에 만들어 먹었던 순무장아찌와 순무김치에 대하여 "순무[菁] 담근 장아찌[得醬]는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漬鹽] 겨울 내내 반찬되네. 뿌리는 땅 속에서 자꾸만 커져 서리 맞은 것 칼로 잘라 먹으니 배 같은 맛이지"라고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아찌는 지염(漬鹽)이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지장(漬醬)으로 쓰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기록이다. 김치무리를 지(漬)라고 쓰는 것은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의 공통된 현상인데, 송대(宋代)에 금(金)나라에 관하여 기록한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에서도 염지(鹽漬)란 말이 있는 것에서, 북방 지역과 한반도, 일본이 모두 김치무리를 지(漬)라는 한자로 표현하고 있었다.

'가포육영'의 내용으로 보아 순무를 재료로 하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김치무리를 장지와 염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물에 담근다는 의미인 지(漬)로 미루어 소금물에 담근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염지는 지금의 동치미류로 판단된다. '가포육영'에 보이는 오이[瓜], 가지[茄], 순무[菁], 파[葱], 아욱[葵], 박[瓠]이 시사하는 것에서 당시 김치무리의 채소로는 배추보다는 순무를 더 선호하였다는 해석도 있다.

오이, 가지, 순무, 파, 아욱, 박이 가포(家圃)에서 짓는 대표적인 채소이지만, 김치무리의 대상이 되는 채소류의 폭은 넓다. 고려 말기의 사람인 이달충(李達衷)의 '산촌잡영(山村雜詠)' 시 속에는 "여뀌[蓼] 절임[鹽漬] 속에 마름[菱]도 끼고……."라는 대목이 있으므로, 김치무리의 대상은 『제민요술(齊民要術)』 이후 여전히 산야채(山野菜)를 포함하는 전 채소류에 걸쳐서 있었지만, 김장[沈藏] 행사 때 동원되는 대표적인 재료는 이규보의 시에서 나타난 대로 순무였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파, 마늘을 생산하였으므로 장지 또는 염지에는 파, 마늘과 같은 양념류를 넣어 담았을 것으로 본다. 고종 23년(1236)에 간행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약선(藥膳)을 제시한 책이며 약념[藥鹽]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 만청(蔓菁), 오이[瓜], 동아[冬瓜], 나복[蘿蔔], 무, 배추[菘], 마늘[大蒜], 부추[韮], 아욱[葵], 파[葱], 상치[萵苣], 박[瓠]과 같은 채소류도 『향약구급방』에서 다루고 있다. '가포육영', '산촌잡영', 『향약구급방』의 채소류만으로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중요한 채소류가 거의 전부 등장하고 있는 셈이며 이 모두는 김치의 재료로 보아야 한다.

김장










1 다듬은 배추
2 재료 다듬기
3 배추 절이기
4 김치속 넣기
5 김치속 넣기
6 독에 김치 넣기
7 김치독 묻기
8 볏짚 세우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조선시대에는 김치무리를 저(菹)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중국식의 표기법을 채택한 결과이다. 중종 13년(1518)의 『벽온방(辟瘟方)』에 "슌무(순무) 딤채국[菹汁]을 집안 사람 다 먹어라."라는 말이 있고 중종 22년(1527)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저(菹)를 엄채(醃菜)라고도 하였으며, 숙종 8년(1682)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함채(鹹菜)로도 표기하였다. 말하자면 고려 때에는 지(漬)라고 한 것이 중종 때에는 중국식으로 엄채라고도 쓰고 우리말로 딤채라고 한 것이다. 숙종 때에는 함채라고도 표기하고 있다. 출판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고조리서인 『주방문(酒方文)』에는 김치를 침채(沈菜)라고 쓰고 있고 한글 표기를 '지히'라 하고 있다.

한편 1715년 무렵의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는 침채와 저를 합하여 침저(沈菹)라 하고 있고, 최남선(崔南善)은 『고사천자(故事千字)』에서 침채와 지를 합하여 침지(沈漬)라고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치(딤채)는 침채 또는 침지에서 생겨난 단어로 이 양자는 모두 채소를 소금물에 절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침채, 침지에 따라 다니는 단어가 장(藏)이다. 침장채(沈藏菜) 또는 장채(藏菜)라고도 표기하여 김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태종 9년(1409) 궁중에서는 고려시대의 요물고(料物庫)와 같은 성격의 침장고(沈藏庫)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고, 순조대의 『물명고(物名考)』에는 "장채란 채소의 월동을 위하여 소금절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곧 김장은 침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고추가 본격적으로 김치의 재료로 등장한 첫 문헌은 홍만선(洪萬選)이 저술한 『산림경제』이다. 그리고 유중림(柳重臨)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8 「치선(治膳)」 상(上) 황과담저법(黃瓜淡菹法: 오이소박이)에서 오이의 배를 갈라 고춧가루[蠻椒末]와 마늘편을 소로 넣는 김치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춧가루와 각종 젓갈류가 동시에 김치 재료로 쓰였음을 기록한 문헌은 180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규합총서(閨閤叢書)』로서 젓갈류를 넣을 때 반드시 고춧가루를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식경에 등장하는 김치무리에는 『제민요술』의 염저, 곡물저, 초저, 장저가 보이고 있고, 술지게미에 채소를 넣고 발효시키는 조저는 등장하지 않는다. 『시의전서』가 쓰였던 1800년대 말에는 이미 곡물저, 초저, 장저의 대부분이 장아찌[醬果]로 변하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김치라고 부르는 것은 몇 종류의 장김치를 제외하고는 염저를 지칭한 것으로 염저가 발전하여 다양한 김치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시의전서』가 쓰였던 19세기 말에 확립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통배추를 사용한 김장김치가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 이후로서 결구(結球)배추가 중국에서 품종이 육성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발달하였는데, 배추통김치, 보쌈김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1850~186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헌종 15년(1849)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0월조와 11월조에는 "서울의 풍속에 무, 배추, 마늘, 고추, 소금으로 독에 김장을 담근다. 여름의 장담기와 겨울의 김치담기는 인가(人家) 일년의 중요한 계획이다. 무뿌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김치 담근 것을 동치미[冬沈]라 한다. 무, 배추, 미나리, 생강, 고추로 장김치[醬菹]를 담궈 먹기도 하고, 섞박지[雜菹]를 담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부여의 한 갈래로서 만주 일대의 동이문화권에 포함되어 있고, 황해를 둘러싼 산동반도를 포함하는 중국의 동북부지방 역시 동이문화권이라는 점으로 보아 북위(北魏) 시대에 산동반도의 태수였던 가사협(賈思勰)이 저술한 『제민요술』에 저(菹)를 한반도 김치의 원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김치무리를 중국에서는 저(菹)라고 한다. 저가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헌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나온 『시경(詩經)』의 「소아(小雅)」로서, 여기에는 "밭의 오이로 정성들여 저(菹)를 담가 조상께 바친다."라는 내용이 있다. 저에 관한 명칭은 『주례』, 『의례』, 『예기』, 『제민요술』로 이어지지만 『제민요술』을 기점으로 사라지고, 청대(淸代)에는 함채(鹹菜) 또는 엄채(醃菜)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중국인이 즐겨 먹는 저(菹)의 맛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신맛이 매우 강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B.C. 100년 무렵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초에 절인 오이가 곧 저(菹)라고 하고 있고, 2세기 무렵의 『석명(釋名)』에서는

소금에 절여 산을 생성시켜 숙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대 중국인의 저는 채소를 초에 담그거나 숙성시켜 신맛을 생성시킨 것으로, 단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육장에 찍어 먹는 형태였다. 따라서 다양한 맛을 내는 『제민요술』의 저(菹)는 한족(漢族) 보다는 동이족(東夷族)의 저(菹)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용 및 지역사례 김치는 김장김치와 계절별 김치로 나눌 수 있는데, 김장김치는 통배추김치, 통무김치, 총각김치 그리고 깍두기를 포함한다. 김장김치는 초겨울에 준비하여 햇채소가 날 때까지 먹는다.

가장 보편적인 김치는 배추를 통째로 가른 후 소금에 절여 잎 사이에 무채 양념을 채운 포기김치를 김장으로 많이 담근다. 지방에 따라 소로 넣는 젓갈의 종류와 양념이 달라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다. 남쪽지방은 멸치젓을 주로 써 맵고 짜게 하는 편이고 추운 북쪽지방은 젓갈과 고춧가루를 많이 쓰지 않아 담백하며 매운 맛이 덜하고 소에 배, 밤 같은 과실을 넣기도 한다. 배춧잎으로 잘 감싼 배추김치를 한 켜 놓고 그 사이에 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소금, 고춧가루로 버무려 켜켜이 넣어 담그면 시원하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은 먼저 배추의 수분을 적당하게 방출시켜 양념이 잘 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저장하면서 배추가 물러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소금은 김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치를 잘 담그려면 원료의 보존과 조미가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천일염(굵은 소금)과 정제염(고운 소금)이 주로 쓰이며 무, 배추 같은 재료를 절일 때는 굵은 소금을 사용하고 조미할 때는 고운 소금을 사용한다.

김치에 조기젓, 새우젓, 멸치젓, 황새기젓(황석어젓)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추운 고장에서는 깨끗하게 잘 삭은 날젓국을 그대로 써서 젓갈의 효소 작용으로 김치의 맛을 향긋하게 할 수 있으나 더운 고장에서는 달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배추김치의 맛은 주원료인 배추가 좌우한다. 배추는 2.5킬로그램 정도의 적당한 크기에 통이 단단하고 배춧잎의 색이 짙고 많으며 흰 줄기가 넓고 엷은 것이 좋다. 배추김치에 사용되는 원료의 배합 비율은 지역마다 집집마다, 사람의 기호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인 배추김치의 배합은 배추를 100으로 할 때 무 10퍼센트, 파 1퍼센트, 고춧가루 2~3퍼센트, 마늘 1~1.5퍼센트, 생강 0.5퍼센트, 젓국 2퍼센트, 소금 2~3퍼센트 정도이다.

경기도에서는 김장김치로 호박김치, 장김치, 보쌈김치, 섞박지, 무비늘김치, 통배추김치, 석류백김치, 동치미, 비지미를 만들어 먹는다. 충청도에는 굴깍두기, 고춧잎김치, 고갱이짠지, 파짠지, 달랭이동김치, 서털지, 더덕물김치, 삭힌풋고추김치, 박물김치, 무짠지, 양념채김치, 숙깍두기, 젓무김치가 있다. 전라도에는 비늘김치,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동아섞박지, 배추통김치, 애무김치, 파강회짠지, 부추김치, 풋고추김치, 가지무청김치, 깻잎김치, 동아김치, 쪽파김치가 있고 제주도에는 청각물김치, 솎음배추김치, 백김치, 동지김치, 남삐짐치, 배추통김치, 전복김치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솎음배추물김치, 젓국섞박지, 골금짠지, 양념김치, 부추젓지, 콩잎김치, 배추통김치, 박김치, 대구아가미깍두기, 오징어파김치, 비지미, 강지, 총각김치, 고춧잎김치, 우엉김치, 깻잎김치, 고추김치, 갈치깍두기를 담근다. 강원도에서는 서거리김치, 열무감자김치, 박나박김치, 오징어김치, 명태깍두기, 무섞박지, 해물깍두기, 씨도리김치, 무말랭이김치, 무북어김치, 가지김치, 해물김치, 명란채김치, 창란김치를 담는다. 함경도에서는 함경도식 배추김치, 삼갓김치, 대구깍두기, 가자미식해, 무청김치, 도루묵채김치, 무북어짠지를 만들어 먹고 평안도에서는 가지물김치, 가지짠김치, 분디김치, 백김치, 우거지김치, 꿩김치, 무송송이, 동치미를 담근다. 황해도에서는 나박김치, 풋고추오이동김치, 호박지, 갓물김치, 미나리김치, 고수김치를 만들어 먹는다.

보관 김치는 영상 4~5도 전후의 저온에서 저장할 때 가장 맛이 좋다. 온도가 높아 빨리 익으면 유기산의 생성이 적고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맛이 떨어진다. 김장으로 담근 김치는 발효나 저장하는 동안에 같은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겨울에 땅 속에 묻어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관한다. 특히 김장김치는 얼거나 시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여 항아리를 짚으로 싸 땅 속 깊이 묻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보관하기도 한다. 또 김치의

산패를 막기 위하여 김치 항아리에 김치를 단단히 눌러 넣고 위에는 우거지를 얹어 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독이나 항아리 대신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요즈음은 김치만 보관하는 김치냉장고가 등장하였고 냉장고에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 저장고가 부착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古事記, 攷事十二 , 故事 字, 攷事 要, 閨 書, 南史, 農政 要, 屠門大嚼,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 , 東文選, 物名考, 辟瘟方, 本朝月令, 婦人 , 北史, 山林經濟, 三朝北盟 , 穡經, 釋名, 說文 字, 詩經, 是議全書, 梁書, 呂氏 , 譯語類 , 延 式, 禮記, 要錄, 飮食譜, 飮食 味方, 儀禮, 林園經濟志, 正 院文書, 齊民要術, 周禮, 酒方文, 周書, 增補山林經濟, 峯類說, 藥救急方, 東繹史, 蒙字 , 國 葙 類 製造史(張智 , 民族文 研究6, 1972), 國食 文 史(李盛雨, 敎文社, 1984), 한국의 음식생활문화사(金尙寶, 광문각, 1997), 김치(이춘자 외, 대원사, 1998), 한성백제시대의 음식문화(김상보, 향토서울6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필자 | 김상보(金尙寶)

메주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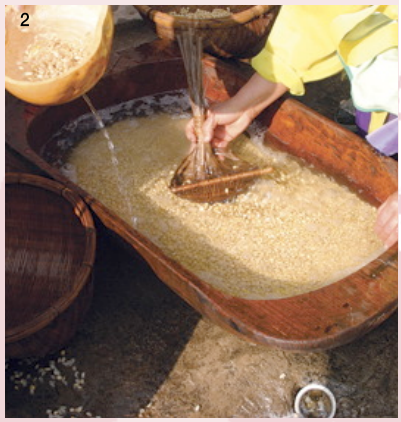
정의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醬)을 담그는 기본 재료인 메주를 만드는 일. 메주는 콩[大豆]을 삶아 찧어서 일정 크기의 덩어리 형태로 만든다.

이칭 메주는 말장(末醬), 밀조(密祖), 훈조(燻造), 장국(醬麴), 며조, 메조, 며주 등으로 일컬어졌으며, 메주의 종류는 용도, 장소, 형태, 재료에 따라 다르게 불린다. 장을 담그니까 장메주라 하며, 간장용메주와 고추장메주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용 진장을 만들 때 절에서 만든 절메주로 담갔다. 절메주는 집메주보다 4배 가량 크고 넓적하게 만든다. 삶은 콩을 찧어 덩이로 만든 메주를 떡메주라 하며, 검정콩으로 만들면 검정콩메주라 한다.

내용 메주쑤기는 보통 10~12월에 이루어지며, 특히 입동(立冬) 무렵인 음력 10월 또는 동짓달에 쑨다. 메주 쑤는 시기는 장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서는 메주쑤기를 11월에 하고 있으며, 궁중 진장(眞醬)용 메주인 절메주는 음력 4월 무렵, 집메주는 음력 10월이나 동짓달에 쑤었다. 순창에서는 고추장메주를 여름철인

삶은 콩을 찧어 덩이로 만든 메주를 떡메주라 하며 검정콩으로 만들면 검정콩메주라 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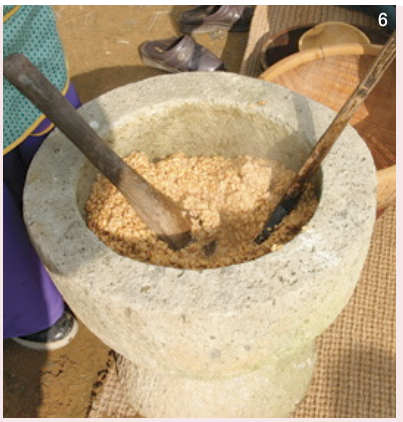

2


3


4

메주쑤기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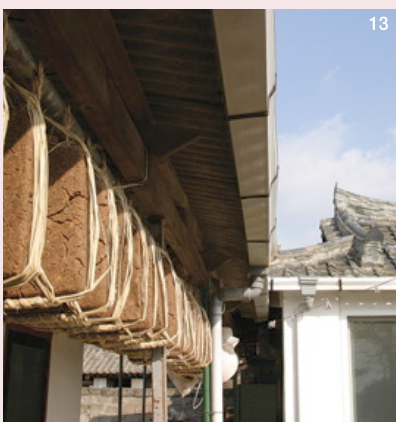

8


9


10


11


12


13

1 콩 선별하기
2 콩 씻기
3 콩 삶기
4 콩 익히기
5 삶은 콩 찧기
6 삶은 콩 찧기
7 메주모양 만들기
8 메주모양 만들기
9 메주 겉말리기
10 새끼꼬기
11 새끼줄로 메주 묶기
12 메주달기
13 메주말리기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국립민속박물관

8~9월, 처서 무렵에 쑨다. 서울, 경기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음력 10월 무렵, 충청도에서는 음력 8~10월 무렵, 전남 구례에서는 음력 10월이나 동지에 쑨다. 전북 무주는 동짓달, 부안은 가을쯤 메주를 쑤기도 하며, 남원, 평안도에서 정월에 메주를 쑤기도 한다.

「농가월령가」 11월령에서는 "부녀야 네 할 일이 메주 쑬 일 남았구나. 익게 삶고 매우 찧어 띄워서 재워 두소"라고 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콩을 정선하여 한 밤을 수침(水浸)한 뒤에 건져서 난자(爛煮)하고 절구에 찧어서 손으로 중(中)수박 크기의 덩어리를 만들고, 칼로 반을 잘라서 그 반쪽을 칼로 제며 반월형의 1촌(寸) 두께의 메주편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처음에 콩을 삶을 때에 물을 넉넉히 부어 솥바닥에 눌러 붙지 않게 하고 콩을 작은 그릇에 불리면 그릇이 터지오, 조리로 일어 가마나 솥에 붓고 끓어 넘치거든 뚜껑을 열지 말고 그냥 물만 넘기고 삶으라, 뚜껑을 자주 열면 콩도 넘어 나올 뿐 아니라 콩이 덜 무르나니라. 뜸들여 잘 무르게 한 후에 퍼내어 물이 빠지거든 깍지가 없도록 잘 찧어서 메주를 보사기만하게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 하나씩 펴놓고 하루 동안 안팎을 말린 후에 겉이 꾸덕꾸덕해지거든 멱서리나 섬이나 둥구미에 띄우되 솔잎을 깔고 한 켜씩 메주를 늘어놓아 ……(중략)…… 잘 살펴 띄우라."라고 하였다.

보통 한 가정에서 4~5말의 콩으로 메주를 쑤는데, 이것을 콩 한 되 또는 두 되로 메주 한 개 정도가 되도록 빚어 단단하게 만든다. 요즘은 1~2말 정도 메주를 쑤기도 한다.

메주쑤기 과정은 콩 선별하기(선별), 씻기(수세), 물에 담가 콩 불리기(수침), 콩 익히기(삶기, 찌기), 삶은 콩 찧기, 성형, 겉말림, 띄우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메주쑤기 과정은 아래와 같다.

대두(大豆) 또는 메주콩이라고도 하는 콩을 준비한다. 주로 황금콩, 장엽, 태광 같은 백립종 품종의 콩이다. 벌레가 먹은 것이나 썩은 것을 골라내고 좋은 콩을 선별한 후, 깨끗한 물에 잘 씻어서 하루 정도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려 놓았다가 콩을 익힌다.

콩을 익히는 방법은 물에 삶거나 시루에 안쳐 찌기도 하지만 주로 가마솥에 넣고 삶아 익힌다. 콩을 삶고 나서 처음의 2~3배 부피로 늘어나므로 양을 잘 조절한다. 물기를 뺀 콩을 가마솥에 넣고 콩의 2~3배 정도의 물을 넉넉히 붓고 콩이 완전히 무르도록 푹 삶는다. 100도에서 김이 오른 후 3~4시간 이상 삶는데, 민간에서는 5~8시간 동안 삶는다. 콩을 삶을 때 메주콩의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한번 불에 올린 솥은 끓어 넘치더라도 뚜껑을 열지 않으며, 한소끔 끓으면 불을 줄여서 뭉근하게 뜸을 들이는데, 대개 큰 장작 하나 남겨두어 은근하게 불을 뗀다. 콩을 삶는 정도는 손으로 비벼보아 반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쉽게 뭉그러질 때까지 또는 콩의 노란색이 불그스름(또는 꺼멓도록)하게 될 때까지 삶는다. 잘 삶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면 끈기도 있고 잘 뭉쳐져서 찧은 후 메주 만들 때도 좋고 메주도 잘 뜨고 장맛이 좋아진다. 덜 익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면 끈기가 없어 서로 섞이지도 않고 차지지도 않으며, 장맛이 떨어지고 담근 간장색이 탁해져 장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콩을 지나치게 익혀도 단백질 분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푹 삶은 콩을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 후 식기 전에 절구에 담아 완전히 으깨지도록 빠르게 찧어 메주틀이나 그릇에 담아 모양을 만들거나 손으로 뭉쳐서 일정한 형태로 만든다. 절구 대신 함지박 같은 큰 그릇에 놓고 찧거나, 포대에 담고 발로 밟아 으깨기도 한다. 메주틀에 베보자기를 깔고 찧은 메주콩을 넣은 뒤 베주머니로 덮고 꼭꼭 밟아서 만든다. 식은 것을 찧거나, 너무 거칠게 찧어도 알맹이가 겉돌아 잘 뭉쳐지지 않아서 좋지 않다. 또한 메주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두꺼우면 메주가 마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쓸데없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 좋지 않다.

메주 모양은 목침이나 납작한 전석처럼 각형(角形)으로 만들거나 둥글게 원형으로 만들어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간격을 주고 펼쳐놓아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려 겉말림을 한다. 겉면이 완전히 굳으면 새끼줄로 엮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띄운다.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 메주는 콩으로만 만들지만, 고추장메주는 콩에 쌀이나 밀, 보리 같은 전분질을 섞어 만든다. 콩과 밀을 6 : 4 정도의 비율로 섞고, 콩과 찹쌀을 5 : 2 정도의 비율로 섞는데, 고추장용

떡메주는 콩과 찹쌀을 하룻밤 불렸다가 함께 찐 다음 절구에 넣어 찧어서, 주먹만한 크기로 동글납작하게 빚어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겉말림하여 띄운다. 순창 고추장메주는 가운데 구멍을 볏짚줄로 꿰어 매달아 띄운다.

속담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여도 믿지 않는 경우를 뜻하며,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듣는다."는 속담은 반대의 경우이다.

참고문헌 | 閨　　書, 農家月令歌, 增補山林經濟, 조선요리제법(방신영, 보진재, 1942),　國食　文　史(李盛雨, 敎文社, 1984),　國傳來 醱　食　史 硏究(張智　, 修　社, 1989), 종가집 시어머니 장담그는 법(한복려 · 한복진, 둥지, 1995), 한국음식대관1-한국음식의 개관-(윤서석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필자 | 정현미(鄭　美)

소곡주담그기

정의 술을 빚을 때 누룩을 적게 넣어 빚은 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전통 청주의 한 가지. 우리의 술은 쌀을 주원료로 하고 누룩[麵子]을 발효제로, 물을 용매(溶媒)로 한 발효주가 기본을 이루는데, 누룩을 적게 사용하여 빚는다는 뜻에서 소곡주[小麵酒]는 '소국주(小麴酒)'라고도 부른다. 별칭으로 백일주, 앉은뱅이술이라고도 한다. 소곡주는 소국주에서 파생된 것으로 한산 소곡주[韓山素麵酒]가 대표적이다. 한산 소곡주는 1979년 충남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마의태자가 개골산에 들어가 나라를 잃은 설움을 술로 풀었는데, 그 맛이 소곡주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전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소곡주가 삼국시대 때부터 명성을 얻었던 술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기록이나 구전하는 근거는 없다. 다만 과거 백제 땅이었던 충남 한산지방에서 마을단위의 가양주로 빚어오고 있는데, 여러 옛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소곡주 제조법의 전형(典型)인 설기 형태를 답습하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소곡주에 대한 기록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비롯하여 『경도잡지(京都雜志)』, 『음식디미방』, 『음식보(飮食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곤요람(閨壼要覽)』, 『규합총서(閨閤叢書)』, 『요록(要錄)』,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양주방(釀酒方)』, 『역주방문(曆酒方文)』, 『시의전서(是議全書)』와 『부인필지(婦人必知)』, 『술 만드는 법』과 같은 문헌에 나와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는 소곡주가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술빚기가 체계를 갖추게 된 조선시대에 이르러 소곡주가 비로소 대중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헌들에 수록된 소곡주는 현재 맥이 끊긴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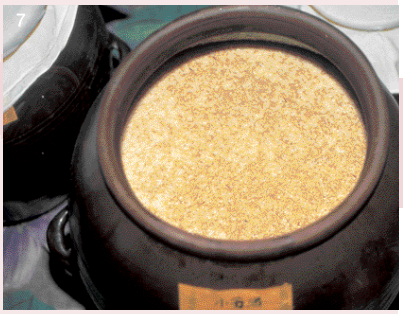
내용 조선시대 문헌의 하나인 『수운잡방(需雲雜方)』에 "멥쌀 3말을 여러번 씻어 가루로 만들어 끓는 물 3말로 개어 만든 죽을 차게 식힌 뒤, 누룩가루 5되와 밀가루 5되를 섞어 밑술을 빚고 술이 익기를 기다려 멥쌀 6말을 여러번 씻어 고두밥을 짓고 다시 끓는 물 6말을 고두밥에 섞어 고두밥이 물을 다 빨아들이면 차게 식힌 후 밑술과 합하여 술밑을 빚어 술독에 안치고 발효시킨다. 또한 밑술과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중밑술을 하는데, 덧술은 같은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음식보』에는 재료의 비율은 다르지만 앞의 기록과 같은 방법으로 "밑술을 빚어 5일간 발효시킨다. 덧술은 멥쌀고두밥에 끓는 물을 합하고 식기를 기다려 술독에 안치고, 먼저 빚어 둔 밑술을 붓고 주걱으로 저어준다."라고 하였고, 『부인필지』에도 "정월 해일에 섭누룩을 3일간 물에 불려 찌꺼기를 제거한 수곡에 멥쌀가루로 지은 흰무리를 합하고, 3일 후에 술이 끓으면 한 달간 발효숙성 시킨 후, 멥쌀로 고두밥지어 따뜻할 때 밑술과 합하고 21일간 발효시킨다."라고 하여 다양한 방문(方文)을 엿볼 수 있다.

소곡주는 여느 술과 달리 술 빚는 방법이 까다롭고 다양한데 필요에 따라 3양주를 빚기도 한다는 것과 밑술에 밀가루를 넣고, 고두밥을 끓는 물로 다시 익힌 진밥을 사용하기도 하며, 5일간 발효시킨 속성주도 있다. 또 한겨울에 빚으면서도 뜨거운 흰무리를 수곡과 합하여 1차 발효 후 술독에 담아 2차 발효시키고, 덧술도 따뜻한 고두밥을 사용함으로써 21일 만에 익힌 소곡주도 있다는 점에서 만드는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소곡주 담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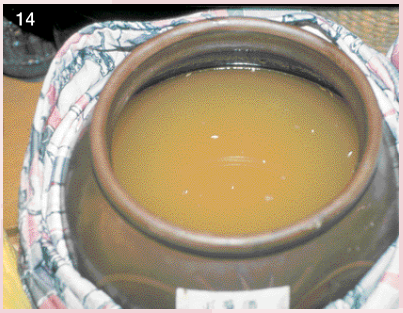










1 쌀가루 준비
2 쌀가루 개기
3 쌀가루를 갠 죽
4 누룩가루와 밀가루 넣기
5 재료 골고루 섞기
6 술밑치대기
7 술밑안치기
8 밑술의 술덧
9 고두밥에 밀가루 섞기
10 고두밥에 밑술 넣기
11 술밑빚기(덧술용)
12 술밑안치기(덧술용)
13 발효중인 덧술
14 숙성된 소곡주

한국전통주연구소


4


8

술을 빚을 때 누룩을 적게 넣어 빚은 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전통 청주의 한 가지. 우리의 술은 쌀을 주원료로 하고 누룩을 발효제로 물을 용매(媒)로 한 발효주가 기본을 이루는데 누룩을 적게 사용하여 빚는다는 뜻에서 소곡주는 소국주라고도 부른다.

한편 충남 서천에 전해오는 한산 소곡주는 "멥쌀로 설기를 만들고 누룩을 정화수에 불려 체로 밭친 누룩물과 섞어 동도지(東桃枝)로 거품이 나도록 휘저어 밑술을 빚고 7일 후에 찹쌀고두밥으로 덧술을 하는데, 메주콩과 엿기름가루 등 부재료를 넣어 빚고 술독을 땅속에 묻어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춰서 80일간 발효시킨다."라고 한다.

따라서 한산 소곡주는 약주(藥酒)이고 누룩의 양도 많으며, 장기 발효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독하면서도 맛이 달고 부드러워 많이 마시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고 하여 앉은뱅이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첫째, 누룩을 적게 사용함으로써 술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맛이 부드럽고 향기가 아름답다. 둘째, 죽(범벅; 설익힌 죽)이나 흰무리(설기)에 물누룩[水麴]을 섞어 밑술을 빚고, 고두밥으로 덧술을 빚는 2양주가 주종을 이룬다. 셋째, 덧술용 고두밥의 온기를 남겨 밑술과 합하여 1차 발효시킨 뒤, 저온에서 오랜 기간 2차 발효 숙성시킨다. 넷째, 술 빚는 시기로 '음력 정월 첫 해일'에 밑술을 담기 시작하여 최소 3일에서 5일 또는 60일 정도 발효시키고, 덧술의 발효 기간은 최소 5일과 21일, 최대 60~80일로 문헌과 방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의 소곡주는 일반적인 술빚기와는 차별화된다. 특히 소곡주의 달고 부드러운 감칠맛과 향기는 장기 발효주인 법주나 백일주, 특히 삼해주와 같이 겨울철(저온 발효)에 빚는 방법을 혼용한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밑술을 죽이나 백설기로 빚고 고두밥으로 덧술을 해넣는 방법이 전통주 제조 방법의 전형을 이루고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빚은 술의 향기와 맛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 알맞고, 누구나 선호한다는 점에서 소곡주는 주목되는 술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閨壺要覽(延大), 閨 書, 東國歲時記, 婦人 , 需雲雜方, 술 만드는 법, 술 빚는 법, 是議全書, 釀酒方, 曆酒方文, 要錄, 음식디미방, 飮食譜, 林園經濟志, 酒 , 增補山林經濟, 傳 民俗酒(無 文 財指定調査報告書 163 , 文 財管理局, 1985), 名家銘酒(朴硉潭, 효일문화사, 1999), 전통주 비법 211가지(박록담, 코리아쇼케이스, 2006).

필자 | 박록담(朴硉潭)





陽曆歲時

양력세시

화성문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한 것이다.
과거에도 행차 행렬을
무화제 기간 동안에
보여준 바 있으나
현재와 같은 대형의 능행차 행렬을
추진하게 된 것은
화성 축성 이백주년을
기념하면서부터이다.

개천절(開　　)

정의 국조(國祖) 단군(檀君)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을 건국했음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國慶日). 3·1절(三一節), 광복절(光復節), 제헌절(制憲節),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10월 3일에 해당한다. 개천절(開天節)은 민족사의 출발을 경축하는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통상 단기(檀紀)에서 한 해를 뺀 수로 횟수를 계산하는데, 단기 4339년인 2006년의 개천절은 제4338주년 개천절이 된다.

배경 개천절은 본래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와 관련이 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천제(天帝) 환인(桓因)이 홍익인간(弘益人間)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그 아들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신시(神市)를 건설하고, 환웅의 아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여 민족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개천(開天; 하늘이 열림)이라 함은 최초의 인간공동체인 신시를 열고 첫 국가 고조선을 건설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테면 민족의 탄생이나 민족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라 하겠다. 해방 후 국경일을 정할 때 그 이름을 단군의 건국을 기념한다는 의미의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로 하지 않고 개천절이라 한 것은 이 표현이 좀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개천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것은 단군의 건국을 민족사의 출발점으로 보아온 전통이다. 한국 정신사 속에는 단군을 국조로 보고, 우리 민족을 단군의 자손으로 생각해온 전통이 있는데, 이 같은 인식의 뿌리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유래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역사를 통하여 한민족을 민족적 각성과 자주 및 결속의 방향으로 인도해왔는데, 조선 말을 거쳐 일제강점기로 넘어오면 이 단군의 자손 의식이 대중화되면서 독립운동과 통일운동의 동력으로 활용되게 된다. 조선 말에 중광(重光; 기존의 교단을 중흥함)한 대종교는 이 같은 인식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켰는데, 개천절이라는 이름의 제례(祭禮)를 자기들의 종교의례 속에 포함시켰다. 대종교는 개천절을 단군의 선거일(仙去日)인 어천절(御天節: 3월 15일)과 함께 두 개의 대제(大祭)로 정하여 기념했었다. 개천절이 10월 3일로 된 과정은 확실치 않은데, 아마도 조선조 이래 단군 관련 제사 전통이나 민속 전승에서 유래되어 대종교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수확의 계절인 10월을 상달[上月]이라 하여 중시해왔고, 3이란 숫자를 길한수[吉數]로 여겨 신성시해왔었다. 대종교는 개천절을 고구려(高句麗)의 동맹(東盟), 부여(夫餘)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과 같은 고대의 제천 행사와 같은 연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개천절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데는 국학파 학자들과 애국계몽운동가들의 계몽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19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임시정부는 그해 음력 10월 3일에 국무원 주최로 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이라는 이름의 기념 행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이후 교민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거류민단의 주도로 지속되었다. 국내에서도 계몽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1920년대 중반에는 건국기원절보다는 개천절이라는 이름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개천절 행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개천절이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일제가 경계하였던 것이다.

단군을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의 구심점으로 인식해온 전통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구성되면서 통합기제의 한 축으로 국가의 제도의례 속에 편입되었다. 이를테면 개천절이 국경일로 제정되고, 홍익인간이 교육 이념으로 지정되며, 단군기원(檀君紀元: 단기)이 정부의 공식 연호로 지정된 것 등이 그것이다.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음력 10월 3일에 열렸던 개천절이 양력 10월 3일로 고정되었다. 서구화가 진전되면서 단기가 서기(西紀)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경일 개천절은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과 함께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개천절이 되면 가정과 관공서마다 국기를 게양하며, 오전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기념 행사가 각계 인사의 참석 속에 개최된다. 경축식에서는 대통령 명의의 경축사를 통상 국무총리가 대독(代讀)하며,

행사 전 과정은 방송을 통하여 중계된다. 식이 끝난 후에는 전통예술을 주제로 한 기념 공연이 이어진다. 1970년대 말까지는 지방에서도 행정기관과 학교에서 개천절 기념 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최근에는 개별 기관 차원의 행사는 생략되고 있는 추세이고, 대신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개최된다.

특히 서울 사직공원 등 각 지방에 산재한 단군사당(檀君祠堂)에서는 개천절마다 기념 제례가 열리며, 마니산이나 태백산 정상에서는 천제가 봉행되기도 한다. 대종교를 비롯한 단군 관련 종교 단체에서는 개천절을 특별한 기념일로 여겨 규모 있는 행사를 마련하는데, 민간 차원의 기념 행사는 양력이 아닌 음력 개천절에 열리기도 한다. 대종교에서는 고대의 제천 행사를 복원했다는 선의식이라는 이름의 기념 제례를 지낸다. 경남 진주에서는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라는 이름의 지역 축제를 개천절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도 교민단체들의 주관 하에 개천절 기념식이 거행되기도 하며, 특히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에서는 각국 외교사절들을 초청하여 개천절 기념 리셉션을 열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도 개천절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은 단군을 민족사의 기점으로 보고 기념하는 일을 부르주아적 유산이라 하여 외면해왔으나, 1993년에 단군릉에서 5,000여 년 전의 단군 유골을 발굴하였다는 학술보고를 내놓은 후, 우리 민족이 단군의 자손으로 실증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남북한과 재외동포들이 단군의 자손으로의 민족정체성과 자긍심에 토대하여 단결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994년에는 단군릉을 대규모로 개건하였고, 그때부터 남쪽의 사회단체 대표들과 재외동포들까지 참여한 기념 행사를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 행사라는 이름으로 단군릉에서 거행해오고 있다.

의의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그를 통하여 민족적 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기념되어왔다. 개천절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경일로 지정하여 경축해오고 있는 것이나, 최근에 와서 북한도 기념일로 지정하여 민족공동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개천절이 가지는 의미를 남북이 공히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다원화가 진전되고 개인주의나 세계주의 또는 서구중심주의 같은 탈민족적 사조가 확산되면서 개천절의 의의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져가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공휴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일 때마다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고, 특히 개신교 일부에서는 단군 숭앙을 민족 정체성 및 동질성에 관련된 상징 기제가 아닌 종교 차원의 우상 숭배로 여겨 배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러나 탈민족적 인식들이 확대되어가는 가운데서도 개천절이 가지는 의의를 중시하는 입장은 여전한데, 최근 재외동포사회에서는 개천절을 민족의 정체성과 결속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성화시켜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檀君(윤이흠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단군과 고조선 연구(단군학회 엮음, 지식산업사, 2005),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윤내현 엮음, 지식산업사, 2005).
필자 | 정영훈(鄭榮)

한글날

정의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


한글날 기념식
경기도 여주군 세종대왕릉 국가기록원

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유래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되어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다. 한글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창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어다가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추어 쓰던 불편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다.

내용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의 일이다.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양력11월 4일)을 가갸날이라 하고, 그날 서울 식도원(食道園)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이다. 그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8회갑인 480년이 되던 해였다.

당시는 우리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억압에 눌려서 위축되어 있던 때라 민족정신을 되살리고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던 것이다. 음력 9월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날로 정한 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8년(1446) 9월조의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是月訓民正音成)."라고 한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름을 가갸날이라 한 것은 그때 아직 한글이라는 말이 보편화하지 않았고, 한글을 '가갸거겨……, 나냐너녀……' 하는 식으로 배울 때였기 때문이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언문, 반절, 가갸글 등으로 불러 오던 훈민정음을 1910년대에 주시경(周時經)을 중심으로 한 국어 연구가들이 으뜸가는 글, 하나 밖에 없는 글이라는 뜻으로 지어서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 쓰임이 보편화되지 않았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었다. 1931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그러나 이 환산 방법에 의문이 생겨 1446년의 음력 9월 29일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레고리력으로 다시 환산한 결과 10월 28일과 일치하여 이날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그러던 중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되었는데, 서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에 정인지가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 훈민정음, 곧 한글을 반포한 날이 좀더 확실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이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여러 가지 통제가 심했던 까닭에 기념을 할 사정이 못 되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였다. 곧 '정통 11년 9월 상한'의 '9월 상한'을 9월 상순의 끝날인 음력 9월 10일로 잡고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1946년에는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거국적인 기념 행사를 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한글날 기념 행사는 민족주의 국어학자를 비롯한 소수 유지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한글날 행사가 전국적인 것이 되어 해마다 큰 기념식을 하였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되었다.

한글날은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1990년에 휴일이 많은 것은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어 법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해 8월에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더불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한글날 국경일 제정 운동의 결과로 200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국경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한글날 기념 행사는 광복 이전부터 한글학회가 주관해오다가 1957년부터 한글학회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고, 1981년에는 서울시, 1982년부터는 문화공보부(현재의 문화관광부)

에서 맡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은 정부 주관으로 삼부(三府)의 요인,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타 문화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하고, 국어의 연구와 발전, 해외보급에 공로가 있는 이들에게 훈포장을 주고 표창을 하는 한편, 한글을 기리는 문화 공연, 전시회 같은 행사를 한다. 이와 별도로 민간 한글 관련 단체가 세종대왕 동상에 꽃바치기, 국어학 학술대회 같은 행사를 한다.

의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기까지 우리에게 말은 있었으나 그것을 적을 글자는 없었다. 말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말은 말을 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글자이다. 말을 글자로 적으면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나,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도 지식과 정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할 수가 있다.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어다가 변형하여 쓰거나 그대로 썼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 일상생활은 물론 문화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장애를 걷어내기 위하여 세종대왕 같은 성군(聖君)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일반 백성이 쓰도록 하였으나 문화를 주도하는 조선의 사대부 계층이 오랜 한자, 한문 생활에 젖어 한글 쓰기를 거부한 데 이어, 연산군(燕山君) 때의 한글 탄압 이후로 한글은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자로 전락하였었다. 그러다가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들이 한글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개화기에 이르러 황제의 칙명으로 한글에 국문(國文)으로서의 지위를 주었다. 이때부터 박영효, 윤치호, 서재필, 이승만과 같은 선각자들, 주시경과 같은 계몽적 국어학자들의 노력으로 한글은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신문, 잡지에 널리 쓰게 되고,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도 민중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맞춤법을 만들었으며 국어 문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우리말의 말살 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았었으나 광복과 더불어 우리말과 한글을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글이 오늘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 글자로 자리를 잡기 전, 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끄러울 정도로 문맹률이 극히 높았다. 한자 또는 한문은 배우기가 어려워서 보편화되지 못했고, 한글은 배우기가 쉬웠으나 한글을 아는 것으로는 밖에 나가 행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않아서 아는 사람이 적었던 까닭이다. 글을 모르고는 지식을 습득할 수 없고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의 향상, 문화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고루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 일정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어 동력원이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여 한글의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고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한글과 국어의 발전을 다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國文字及語 史(金允經, 東國文 社, 1954), 한글학회50년사(한글학회, 1971), 國語政 論(金敏洙, 高麗大 校 部, 1973), 겨레의 글 한글(국립중앙박물관, 2000).
필자 | 남기심(南基心)

경찰의 날(警 -)

정의 경찰(警察)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민과 경찰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다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기념일. 매년 10월 21일이다.

내용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경찰중앙기구로 경무국(警務局, The Police Bureau)이 10월 21일 창설되어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지방에는 각 도지사 밑에 경찰부를 설치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지사의 권한에서 경찰권을 분리하여 독립 관청으로 만들고, 이어 1946년 2월에는


오늘「警察의 날」

오늘 警察의 날
한국일보 1957년 10월 21일

중앙기구인 경무국을 경찰부로 개칭하면서 각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켜 기구와 기능을 확대 개편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10월 21일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하여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하였다. 각 시도 경찰을 각 시장과 도지사 산하로 소속시키는 한편, 경찰총감부와 감찰제도를 폐지하였고 경찰 계급 중 감찰관을 삭제하여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순으로 계급을 개정하였다. 1974년에는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하였고 1991년 경찰청으로 바꾸었다.

경찰의 날을 매년 10월 21일로 한 것은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에 경무국이 창설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48년부터 10월 21일을 '국립경찰창설일'로 정하여 처음으로 기념 행사를 가지다가 1957년 11월 7일 내무부 훈령으로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30일에는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경찰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경찰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의 사명감을 고취하는 기념 행사를 가진다. 이날 경찰 표창규정에 따라 현저한 공적을 세웠거나 국가 이익에 기여한 경찰 공무원을 표창하며, 경찰관의 무도대회 및 사격대회 등을 개최한다.

한편 한국해양경찰청은 1953년 평화선 침범 외국어선단속, 어업자원 보호, 해상치안을 목적으로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의 설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1955년 상공부 해무청으로 소속이 바뀌었고 항로 표지 업무가 추가되었다. 1962년에는 다시 내무부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1년에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되었고, 1998년에는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었다. 해양경찰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매년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져왔으나, 1998년 해양 경찰 창설일인 12월 23일을 독자적인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날 기념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 警　十年史(內務部　安局, 1958),　國警　史1(國警　史　　委員　　, 內務部　安局, 1972).

필자 | 강혜경(姜　卿)

교정의 날(矯　-)

정의 교정(矯正)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의 갱생의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매년 10월 28일이다.

내용 10월 28일을 교정의 날로 지정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8일 일본으로부터 교정 시설 19개소와 수용 인원 22,279명, 교정 공무원 3,938명 및 교정 행정 업무 전반을 인수한 데서 유래한다.

교정의 날은 200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국가기념일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된 것이다. 교정의 날처럼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경우, 과거에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시설 같은 4대 형사사법기관 중에서 교정보호시설의 중요성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근의 사회 민주화와 인권 의식의 성장으로 인해 재소자 처우의 개선 요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히 재소자를 처벌한다는 관점보다는 재소자의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관점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은 격무, 재소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일반 국민들의 질시와 부정적인 인식, 오지 근무에서 오는 가정의 안정 저해 같은 이유로 자기 비하적 의식이 87.2퍼센트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을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

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정의 날의 제정이었다. 앞으로 교정의 날을 기해서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법적, 제도적, 상징적 차원의 여러 조치가 계속해서 취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國의 矯正 中 10個年 計 (柱旭, 矯正硏究17, 國矯正 , 2002).

필자 | 김민환(金玟)

국군의 날(國軍-)

정의 국군(國軍)의 위용을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국가기념일. 매년 10월 1일이다.

내용 1945년 8월 해방 이후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46년 1월에는 경비대를 조직하고 같은 해 3월에는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함으로써 국방 조직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점차적인 정권 이양을 목표로 한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1946년 6월 국방부를 통위부(統衛部)로 개칭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2일 광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유동열(柳東說) 장군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통위부장에 기용하고, 같은 해 12월 23일에는 송호성(宋虎聲) 중령(광복군 참장 · 훈련처장)을 경비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방부의 설치가 명문화되었으며, 8월 15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국방부훈령 제1호(1948.8.16.)에 따라 1948년 9월 1일 경비대(해안경비대 포함)의 국군 편입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9월 5일 그 명칭도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국군조직법이 공포되었다. 이때 초대 국방부장관에는 이범석(李範奭) 장군, 차관에는 최용덕(崔用德) 장군이 각각 임명되었다.

국군의 창설 과정은 1948년 8월 15일 국방부의 설치로부터 시작되어 경비대의 국군 편입, 육·해군부대의 증편, 해병대 창설을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설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미군정기에 조선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조선해안경비대는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 결단식 거행일을 각각 창설기념일로 정하여 자체적인 기념 행사를 가졌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전시를 제외하고 각 군별로 기념일 행사를 가져 왔다. 1955년까지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084호로 육·해·공군기념일을 공포했는데, 해군 및 해병대와 공군은 기념일을 종전대로 정했으나 육군은 38선 돌파일(사단단위)을 기념하여 10월 2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각 군별로 정해진 기념일을 국군의 날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38선 돌파일을 10월 1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자, 1956년 9월 21일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으로 제3사단 23연대 3대대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3군 기념일로 통합하여 국군의 날로 공포하였다.

1973년 3월 30일에 '국군의날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명시하였다가 1976년 9월 3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서도 제외하였다. 그러나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재규정하였으며, 1990년 11월 5일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

이날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3년 주기로 대규모 기념 행사를 한다.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큰 군인에게는 포상을 한다.



국군의 날 기념 행사 국가기록원

또한 10월 2일부터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체육대회를 하며, 함정 공개 및 항공기 전시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군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창설되었으면서도 기념일은 1950년 10월 1일로 정함으로써 창설주년과 기념 행사의 주년이 일치하지 않는다. 1956년 9월 21일 정부가 재정, 시행하고 있는 국군의 날에 대해 10월 1일이 국군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표현하는 날로는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찬반 논의가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 建軍 50年史(國防軍史硏究所, 1998), 建軍史(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필자 | 강혜경(姜　卿)

국제연합일(國　　)

정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한국의 국가기념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기도 하다. 유엔데이(UN Day)라고도 한다.

내용 지금은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서 거의 사라진 국가기념일이지만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념일로 간주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국제연합이 수행한 역할은 매우 막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연합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국제적으로 승인하였다. 한반도의 남북이 분단되어 각각 독자적인 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국제연합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국제연합은 한국전쟁 중에 국제연합군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한국에서 국제연합일의 제정 및 기념에는 특히 국제연합의 UN군 파견이 결정적인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0년 9월 16일에 국제연합창설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한국전쟁 이후로도 국제연합일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켜졌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는 1976년 북한이 국제연합 산하의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공휴일 지정을 철폐하였다. 그러나 공휴일 지정은 철폐되었지만 국가기념일로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낭독할 정도로 기념식의 위상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에는 외무부 산하의 한국유엔협회가 아주 간소하게 기념 리셉션을 개최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연합일은 대한민국에서 그 위상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국가기념일이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　)

유엔의 날 기념식 국가기록원



노인의 날(老　-)

정의 경로효친(敬老孝親) 의식을 높이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10월 2일이다.

배경 1948년 제3차 유엔총회는 노인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1년 10월 1일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1999년 유엔에서는

이 해를 세계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로 선포하였으며,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제2차 세계노인총회를 열어 각 나라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공동 노력을 요구하였다.

한국에서는 노인(老人)의 날이 1997년 5월 9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2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의 달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로의 달은 10월 한 달이다. 정부는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모범 노인과 단체 그리고 노인복지 기여자들을 찾아 포상하며, 노인을 격려하고 각종 위안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사회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고 있다.

노인의 날 제정이 유엔의 영향으로만 된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노인의 날 제정 이전 1982년 5월 8일에 경로헌장(敬老憲章)이 선포되었고, 노인의 날은 경로헌장의 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로헌장은 한민족의 정체성이며 세계적으로도 자랑거리인 경로효친의 덕을 실천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는 일종의 사회 협약인 것이다.

내용 노인의 날 기념식은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노인 관련 단체에서 스스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노인의 날 기념식은 중앙기념식과 단체기념식으로 구분된다. 중앙기념식으로는 매년 10월 2일 1부 기념식과 2부 기념 행사를 한다. 1부 기념식에서는 모범 노인 및 단체 그리고 노인복지 기여자와 단체를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한다. 훈격으로는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과 같은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있다. 2부 기념 행사는 축하공연을 하는데 대개 연예인 및 노인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한다. 한편 단체기념식은 각 단체별로 실정에 맞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포상을 하기도 한다.

중앙기념식에서는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전통 장수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하는데,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왕이 하사하던 전통을 이어 국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통일신라시대 이래로 80세가 넘은 노인에게 조장(朝杖)이라 하여 임금님이 하사했던 유래가 있는 지팡이이다. 청려장이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의 의서(醫書)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로의 달 행사는 각급 행정기관, 단체별로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각 단체의 여건과 관심에 따라 노인복지학술대회, 노인일자리박람회, 노인봉사활동 우수사례 경연대회, 노인체육대회, 민속경연대회, 어르신 모델 선발대회, 노인노래자랑, 무료건강진단, 경로잔치가 그 보기들이다.



노인의 날 기념식 청주시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는 1954년에 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정했으며, 2003년부터는 9월 셋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키고 있다. 이날은 공휴일이므로 자녀들은 토요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문헌 | 本 綱目, 99 世界老人의 해의 意義와 우리나라의 課題(林 植, 노인복지硏究3, 한국노인복지학회, 1999).
필자 | 김동배(金東培)

문화의 날(文 -)

정의 문화 창달의 기운 진작과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며, 국민의 문화향수권(文化享受權)을 신장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방송과 잡지와 영화 같은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벌이는 국가기념일. 매년 10월 20일이었으나 2006년에 10월 셋째 토요일로 개정되었다.

내용 1970년대에 들면서 문화 창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973년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어 여러 관련 기념일들을 통합해서 제정될 때 문화의 날도 제정되었다. 문화의 날은 그전까지 있었던 문화예술 관련 여러 기념일들을 흡수,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이를테면 국제무선통신회의에서 HL호출부호를 부여받은 1947년 10월 2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방송의 날', 김도선의 '의리적 투구'가 처음 상영된 1919년 10월 27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영화의 날', 최남선의 『소년(少年)』이 창간된 1908년 11월 1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잡지의 날'이었다.

문화의 날을 10월 20일로 정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하다. 다만 문화의 날로 흡수, 통합되는 기념일들이 대부분 10월이며, 10월은 수확과 풍요의 계절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예부터 10월 상달에 제천 행사를 해온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린다는 정부의 짧은 설명만 있을 뿐이다.

이날은 기념식에 이어 정부에서 문화 발전 유공자를 포상하며 기념 공연과 강연회 같은 행사를 연다. 이의 연장선에서 대한민국미술대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같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를 문화의 달인 10월에 연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필자 | 김민환(金玟)

재향군인의 날(軍 -)

⇨ 재향군인의 날(在鄕軍人-): 여름편

저축의 날(-)

정의 국민의 저축 정신을 높이고 저축, 보험 그리고 증권 산업의 증진을 북돋우기 위한 국가기념일.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이다.

내용 저축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자 1964년 대통령령으로 매년 9월 25일을 저축의 날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1973년 3월 30일에 여러 국가기념일들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통해 정리될 때 증권의 날, 저축의 날, 보험의 날이 매년 9월 25일의 저축의 날로 통합되었다. 9월 25일이 저축의 날이 된 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매월 25일을 저축의 날로 하라는 친서를 보낸 날이 9월 25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후 1973년 11월 20일 대통령령 제6935호에 의해 저축의 날을 매년 10월 25일로 바꾸었으며, 다시 1984년에는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을 저축의 날로 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저축의 날은 과거 한국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고속 성장을 하면서 그 밑거름으로 높은 저축률이 강조되던 때는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가기념일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규모와 의의가 축소되고 일반의 관심사에서도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경제 성



제14회 저축의 날 시상식 청주시

장의 동력으로서 저축보다 내수 확장을 위한 소비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만약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저축 홍보를 하면 당장 내수 진작을 가로막는다고 호된 비판을 당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비록 소비가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인 소비가 미덕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건전한 소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저축의 날 행사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록 과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저축의 날 기념식에는 저축 유공자를 포상하며 저축성공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최근에는 유명연예인을 저축 유공자로 포상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잊혀진 '저축의날'과 성장률(헤럴드경제, 2005. 10. 26.).
필자 | 김민환(金玟)

체육의 날(-)

정의 국민의 체력 향상과 스포츠의 범국민화, 나아가 올림픽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 매년 10월 15일이며, 4월 마지막 주는 체육주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내용 1962년 9월 17일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법령 제1146호)되었고, 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마다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시행령을 통해 체육 지도자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 학교 위탁 교육, 외국 체육계 시찰, 직장의 알선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장에 고용된 체육 지도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대표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 지도자의 보호, 육성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 체육상을 제정하여 매년 수여토록 했다. "국민의 체육정신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제2장 제7조)라는 취지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


오늘 體育의 날
조선일보 1965년 10월 15일

수선수를 육성하는 등 각 단위별로 구체적인 체육진흥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육의 날에는 대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친선 경기, 스포츠 시설의 개방, 전국체전기록영화 상영, 올림픽 사진 전시회, 걷기 운동 같은 많은 기념 행사를 벌이며, 정부에서는 체육 발전 공로자들을 포상한다. 또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를 열고, 직장에서는 직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로 지쳤던 심신을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의의 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설정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는 국민체육 시대를 여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 20세기 한국스포츠 100년(한국체육사 편찬위원회, 이길용기념사업회, 1999), 國 育百年史(이학래, 한국체육학회, 2000).
필자 | 이승수(李承洙)

레드데이(Red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애플데이(Appl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와인데이(Win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강원감영제(江原監營)

정의 강원도 원주시에서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종합축제. 강원도 원주시의 가장 오래된 전통축제의 하나이며, 조선 초기 치악산에 동악단(東岳壇)을 쌓고 조정에서 봄과 가을에 향과 축문을 보내 원주와 인접한 7개 고을 수령이 모여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봉행했던 동악제(東岳祭)가 기원이 되었다. 동악제는 조선 말기에 중단되었다가 1981년부터 원주치악제위원회 주최로 원주치악제(原州雉岳祭)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계승되었다. 원주치악제는 2005년부터 강원감영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해마다 10월에 열린다.

내용 강원도 원주시의 치악산(雉岳山)에서는 국가적 제의의 하나인 산제를 거행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46 원주목(原州牧) 산천조(山川條)에는 "치악산은 원주의 진산이다. 산정에는 보문당이라는 당이 있어서 춘추로 향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원주목조(原州牧條)에는 "원주에 명산이 치악이다. 주(州)의 동쪽에 있으며 춘추로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통하여 치악제는 소사(小祀)로 봉정되어 국가에서 향과 축문을 내려 치제(致祭)한 산제(山祭)였음을 알 수 있다. 치악제는 과거 보문사(普門寺) 자리 부근, 국향사(國享寺) 북동편의 녹전(鹿田) 계곡에 있는 제당에서 행해졌다고 전해진다.

치악제를 치악산제 또는 동악제라고도 하였다. 『원주군읍지(原州郡邑誌)』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정종(定宗)의 둘째 딸의 뇌점병(폐결핵)을 동악(東岳), 곧 치악산에서 정양하며 기도하여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후 공주의 병을 고친 조정에서는 동악산신령께 감사하는 제사를 올렸으며, 국향사 경내에 동악신단(東岳神壇)을 쌓아 봄과 가을에 향과 축문을 내려 원주에 인접한 평창, 정선, 영월, 횡성을 비롯한 7개 군(郡)의 수령들이 모여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를 봉행한 것이 동악제라는 것이다.

원주시에서는 동악제를 계승하여 1981년부터 원주치악제를 개최하였다가, 2002년에 원주 강원감영지가 사적 제439호로 지정되면서 그 명칭을 강원감영제로 변경하였다.

강원감영제 행사의 주최는 강원감영제위원회가 맡는다. 그리고 축제의 주관은 원주문화원, 예총원주지부, 민예총원주지부 등에서 맡아 민간 주도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축제의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행사로 치악제, 강원감사행차, 취타대행진, 토속제, 장승·솟대만들기, 치악산등반전국대회, 숯가마체험이 있고, 전야제로 대동놀이, 불꽃놀이, 불글씨 점화가 펼쳐진다. 폐막 행사로는 시민가요제와 대동놀이가 펼쳐지고, 부대 행사로 향토장터도 열린다.

의의 축제(祝祭)는 특별한 경축 행사로 표현된다. 신을 경배하거나 신성을 더럽히는 시간, 중요한 농작물의 경작이나 주목할 만한 사람 또는 사건의 1년간의 행사, 한 사람의 작가나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공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문화 행사, 아름다움, 유쾌함, 술잔치, 기분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축제는 하나의 행사이며 사회현상인 동시에 인간들의 문화이다. 아울러 축제는 일반적으로 형식의 다양성과 성립된 일련의 사건, 지위, 신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 지역, 종교, 나이, 성별, 역사적 연고 등을 초월한 연합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의 유형을 신을 신성시(神聖視)하는 의미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며 축제를 정의한다. 강원감영제는 조선시대에서 유래한 지역 고유의 역사적 제의를 현대의 문화나 가치로 올바르게 살려 전통성과 향토성이 충실한 축제의 모습으로 부활시켰다. 이에 원주시는 강원감영제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발굴, 계승하고 아울러 재현, 발전시켜 역사의 고장이라는 원주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통에 기초한 가치관과 원주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원주 시민 화합의 한 마당으로 승화시키며 지역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原州郡邑 ,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國文 藝術 院, 1987), 원주지역의 축제(최명환, 강원민속학15, 강원도민속학회, 2001).

필자 | 김경남(金京南)

개천예술제(開　藝術　)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해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문화예술축제.

개관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는 1949년 문총진주특별지부의 주최로 영남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며, 1959년 제10회 대회부터 개천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개천예술제는 본격적인 지역 문화예술축제로서 성화 채화로 시작하는 전야제와 개제식, 각 부문별 예술 경연과 민속 경연, 예술 문화 축하 행사, 각종 전시와 부대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으로 제55회를 맞이하였으며 최근에는 이 기간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개천예술제는 1949년 영남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개최 당시 창제 취지문에 의하면 정부 수립으로 인한 실질적인 자주독립 1주년을 기념하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제2회 대회는 1951년으로 한 해 연기되었으며, 1959년 제10회 대회부터는 개천예술제로 개명되어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역사 제1회 대회는 1949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문총진주특별지부의 주최에 의해 설창수를 대회장 및 위원장으로 하여 영남예술제라는 명칭으로 개최되었다. 개최 이후 1950년 한국전쟁 당시와 1979년 10·26을 제외하고는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어온 개천예술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영남예술제는 1959년 제10회 대회부터 개천예술제로 개명되었으며, 1961년 문총이 해산하게 되자 1962년 제12회 대회부터 1980년 제30회 대회까지는 예총진주지부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1964년부터 1968년까지의 개천예술제는 국가 원수가 개제식에 참석하는 예술제이기도 했다. 제25회를 맞은 1974년부터는 1974년 순수예술의 대중화, 1975년 민족예술의 창조 및 정립, 1976년 민족예술의 정립이라는 연도별 주제설정을 통해 축제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1981년 제31회 대회부터는 개천예술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제33회인 1983년에는 경상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되었다. 특히 제49회인 1999년부터는 개천예술제를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기획실을 상설 운영하여 행사의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50회인 2000년에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 동안에는 제55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내용 현재 개최되는 개천예술제의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 국악, 무용, 사진, 웅변 같은 문화예술 전반에 해당하며, 주요 행사로는 강연회, 백일장, 실기대회, 경연대회, 초대전, 공모전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임진왜란 당시의 순국 3장사와 논개의 순절, 진주 3·1만세운동행렬 등을 재현한 가장행렬은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며, 정확한 고증으로 이채로움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진주남강유등축제가 같은 기간에 함께 개최되며, 불꽃놀이, 궁술대회, 가두축제와 체육대회, 진주특산물전시회,

〈개천예술제〉
1 개막 행사
2 가장행렬
경남 진주 개천예술제제전위원회



1


2

남인수가요제도 함께 베풀어진다. 각 부문의 행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월 3일부터 진주성 일원에서 열리는 전야제는 진주성 순의단(殉義壇)에서 이루어지는 성화 채화로 시작된다. 채화된 성화는 진주성 특별무대에 제향되며, 개천합창제와 불꽃놀이가 함께 행해진다. 서제는 개천예술제의 정신을 살려 개천(開天)의 제단에 진주성에서 직접 채화한 성화를 안치하는 행사가 중심이 되며, 호국영령들을 위한 제등행렬이 펼쳐지고, 호국종각에서 국태민안을 비는 타종 의식이 거행된다. 서제 제향을 마치고 나면 진주 남강에서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는데, 임진왜란 당시 병사들이 가족의 안부를 전하는 신호로 사용하던 유등이 함께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루는 밤 풍경을 연출한다.

개천예술제 기간 동안 함께 개최되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등은 1592년 10월 진주대첩 당시 의병(義兵)을 비롯한 성 밖의 지원군과의 군사 신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풍등을 하늘에 올리면서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운 데서 비롯된 행사이다. 군사 신호로 쓰이기 시작한 유등은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 전술로도 쓰였으며, 진주성 안의 병사들과 사민(士民)들이 두고 온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고 한다.

예술제 둘째 날에는 진주성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개제식이 거행된다. 개제식은 식전음악회와 개제, 가장행렬 출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기존의 단조로운 개막 행사를 탈피하여 진주시민과 외부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예술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행렬의 경우 진주성을 공격한 2만이 넘는 왜병에 맞서 3,800여 명의 군사가 일주일간에 걸쳐 밤낮없이 싸워 승리한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대승첩을 묘사하고 있다. 행렬의 모습은 철저한 고증에 의한 기물과 의장을 통해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을 중심으로 한 민·관·군 합동의 참전모습을 연출한다. 또 진주성 함락 당시 촉석루에서 왜장과 함께 남강에 투신해 순절한 의기(義妓) 논개(論介)와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 함선 60여척을 침몰시킨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한산도대첩을 함께 재현해 애국충절을 추모하는 행렬을 꾸민다. 또한 3·1만세운동행렬과 형평사(衡平社)행렬, 진주농민항쟁행렬, 시민참여 가장행렬 경진대회도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개천예술제의 중심이 되는 각종 예술경연대회는 예술제 첫날부터 각 문화예술 단체의 주관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진주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진주시 일원에서 부문별로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가야금 병창, 판소리, 기악, 풍물(사물놀이), 전통무용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전통 한국무용과 창작무용에서부터 현대무용과 발레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개천무용경연대회가 있다. 또 시와 시조, 산문의 3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개천문학상과 전국학생백일장이 있고, 그 밖에도 시낭송대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음악경연대회, 개천예술학생연극제와 남가람가요제, 개천미술대상전, 전국휘호대회, 남인수가요제가 열린다. 진주시내 중심가에서는 10월 10일 진주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진주농악 한마당과 진주줄싸움이 펼쳐지는 종합축제가 열린다. 한편 진주 남강 둔치의 상설 소싸움 경기장에서 진주민속소싸움대회가 펼쳐진다. 그리고 연날리기 대회와 한시 백일장 같은 부대 행사도 예술제 기간 내내 펼쳐진다.

의의 개천예술제는 1949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거의 매년 빠짐없이 개최되어온 전국 문화예술제의 효시이자 성공적인 지역 문화예술축제이다. 개천예술제는 순수예술의 대중화와 민족예술의 창조 및 정립이라는 주제 설정 아래 해마다 새로운 변화를 꾀해왔으며, 제33회인 1983년에는 경상남도 종합예술제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개천예술제는 전통 예술 경연을 통해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진주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진주대첩이나 유등 행사 같은 지역 역사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민들의 역사 인식과 단결을 강조하고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慶尙南道 -(文 財管理局, 1972), 慶南民俗資料 (國文 院聯 慶尙南道支部, 1993), 州市史 (州市史 委員 , 1995), 의 民俗文 (康龍權, 東亞大 校 石堂傳 文 硏究院, 1996), 개천예술제팸플릿(경상남도 진주시, 2005).

필자 | 류종목(柳鍾穆)

고창모양성제(高　牟陽城　)

정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모양성(牟陽城)에서 해마다 음력 9월 9일 무렵에 열리는 축제. 모양성은 고창읍성(高敞邑城)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고창읍성답성놀이라고도 한다.

유래 고창모양성제(高敞牟陽城祭)는 성을 밟는 독특한 놀이를 전승하고 축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1973년부터 시작한 축제이다. 모양성제의 중심이 되는 답성놀이에는 여자들이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밟으면 무병장수하고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의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저승길이 환히 트여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을 다 밟은 후에는 머리에 이고 있던 돌을 성 입구에 쌓아둔다.

성밟기는 윤달, 그 중에서도 윤삼월에 해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초엿새, 열엿새, 스무엿새 등 여섯 수가 든 날은 저승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서, 고창 지역 여성들뿐만 아니라 멀리에서도 소문을 듣고 모양성으로 모여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모양성을 여성들의 힘으로 쌓았다는 설화도 생겨났다. 성밟기는 겨울 동안 얼어붙어 있던 성이 날씨가 풀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고 성벽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모양성은 조선 초기에 축조된 성으로 성의 둘레가 1,684미터이고 성안의 면적은 18만 9,764제곱미터이다.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어서 사적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모양성이라는 명칭은 백제 때 이 지역이 모량부리였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의 축조 연대는 계유년(癸酉年)이라고 성벽에 새겨진 것으로 추론해서 단종 원년(1453) 계유년이라는 설도 있고, 숙종 때 이항(李恒)이 주민들의 도움으로 8년 만에 완성시켰다는 설도 있다.



답성놀이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병수

고창모양성제 高敞牟陽城


1


2


3


4

1~4 답성놀이
5~6 조선 관아 체험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병수


5


6

축성한 뒤 고창 관아에서는 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답성놀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고창모양성제는 1973년에 모양성제란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고창모양성제로 명칭을 바꾸고 '성밟기와 다양한 고창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진행시키고 있다. 답성놀이와 조선관아 체험을 상설운영하면서 고창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일뿐만 아니라 고창을 대표하는 다른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축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고창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선사시대 고인돌 유적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 그리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인 고창농악이 있다. 모양성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문화유산들을 방문하거나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구성되어 있다. 전국답성놀이, 원님부임행차, 조선관아체험, 성황제, 농경생활재현, 민속놀이체험은 고창읍성에서 그리고 고창농악경연대회, 판소리명창공연, 고인돌체험은 인근 지역에서 열린다. 그 밖에 주요 행사로는 가훈써주기, 청소년 어울림마당, 가족노래 경연 등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그날의 나들이를 더 뜻깊게 만드는 행사도 있다.

의의 모양성제는 고창의 문화유산인 모양성의 축성과 유지를 위한 유비무환의 정신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모범을 현대에 재현하면서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깨우치게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밟기는 일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노동의 효과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공동노동 운영 방법이다. 한편 답성놀이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은 여성들도 예부터 가정을 지키는 일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공헌해왔음을 일깨워준다. 또한 고창모양성제는 고창 일대의 세계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발달한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참고문헌 | 牟陽城의 얼(고창군, 전라북도 1982), 2006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계획통보(문화관광부, 2006), 고창군(www.gochang.go.kr), 고창문화원(www.gcculture.com).
필자 | 함한희( )

동래읍성역사축제(東萊 城 史)

정의 임진왜란 때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동래읍성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결사 항전하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한 축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10월 중에 개최되며, 1995년 동래충렬제로 시작하였다가 2005년도부터 동래읍성역사축제(東萊邑城歷史祝祭)로 개편되었다.

유래 동래가 그 이름을 갖기 시작한 것은 8세기 중엽 신라 경덕왕 때이다. 동래는 조선시대에 동래도호부(東萊都護府)였으며, 동래도호부에는 좌수영(左水營)과 부산진영(釜山鎭營)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산 일대의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동래읍성(東萊邑城)은 동래부를 지키기 위한 관방의 두 번째 방어선이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때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축 과정을 거쳐 현재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견고한 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동래 지역은 온천휴양지로도 널리 알려졌다. 동래 지역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이 온천천인데 동래구청에서 온천천 유역을 여러 형태로 개발하여 현재 온천천은 이 지역의 중요한 노천 문화공간이 되었다.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이러한 동래읍성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개최된다. 개최되는 장소는 치열한 전장이었던 읍성 마당과 곳곳의 성벽 주변, 동래부의 관아 터, 동래향교, 임진왜란 때 장렬히 전사한 동래지역 백성을 위로하는 충렬사, 동래장터, 복천박물관, 온천천이다. 역사성과 현재성이 맞물리는 곳곳에서 축제가 개최되어 역사축제의 의미가 살아난다.

내용 동래읍성역사축제는 10월 초순에 닷새에 걸쳐 전야제, 주행사, 체험 행사로 나누어 개최된다.

전야제는 온천천을 중심으로 2박 3일간 펼쳐지며, 가족 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구성된다. 온천천 걷기대회, 동래야류 길놀이행렬, 온천천 가족영화제, 동래부사 · 왜군행렬, 마당극이 열린다.

본축제는 주말을 이용하여 읍성마당, 동래향교, 읍성의 북문 앞 전투지, 동래문화예술마당에서 열린다. 동래읍성 성곽밟기, 시조경창대회, 동래성 전투 퍼포먼스, 큰윷놀이, 마당극 공연, 동래야류, 동래학춤과 같은 전통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동래읍성에는 과거 동래 지역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많다. 임진왜란 당시의 복식과 병영 모습, 옥사(獄舍), 형틀을 만들어놓고 이를 체험하게 한다. 당시 전란 중에 사용된 무기들도 전시해놓고 이를 직접 사용해 보게 하여 조국을 지키기 위해 왜구와 맞서 싸운 선조들의 충렬정신을 배우도록 한다.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손바닥만한 한지에 소원을 적어 새끼줄에 매다는 행사도 한다. 동래부사의 가마행차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축제 행사장 전역에서 하루에 네 번씩 퍼포먼스 형식으로 공연된다. 동래부사 집무 모습도 재현하여 과거를 체험토록 한다.

일상적 삶과 관련된 역사 체험으로는 농업 체험, 예술 체험, 생활 체험, 장터 체험이 있다. 농기구 만들기, 짚풀공예, 천연염색, 전통연 체험, 도자기 및 생활자기 만들기, 동래탈 만들기, 동래민속연희 체험, 동래파전 만들기, 약재 및 전통 특산물 만들기, 민속주 및 전통떡 만들기, 놋그릇이나 목기 만들기와 전시가 이루어진다.

여느 축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먹을거리와 풍물난전도 운영된다. 건강 상담 같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온천천과 동래문화회관 주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도 흥미롭다. 전통 길놀이, 동래 관광 상품 전시, 축등달기 등의 행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놀이와 기원이 융합된 축제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놀이마당에서는 다양한 초청 공연도 펼쳐진다.

조선시대 뛰어난 과학자인 장영실(蔣英實)이 동래에서 출생하였는데 그를 기리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지역의 역사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와 백일장도 열리며 동래 관아 터에 있는 동래대북 울리기 놀이도 거행된다. 그리고 역사성과 현대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아동극 공연도 개최된다. 동래장터를 조선시대의 모습으로 재현하며 당시 장터를 달구었을 여러 가지 장터 공연물도 연행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과 선조들의 일상적 삶을 알게 하는 체험 형식의 축제가 동래읍성역사축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 동래(동래지편찬위원회, 1981), 東萊區 (釜山廣域市 東萊區, 1995),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필자 | 심상교(沈相敎)

동래읍성역사축제


1


2


3


4

1 동래장터 재현
2 외줄타기
3 동래성 전투 재현
4 동래야류
부산시 동래구 동래구청

백제문화제(百　文　　)

정의 백제문화권의 선양과 전통문화를 창달할 목적으로 백제의 수도였던 충청남도 공주와 부여에서 일년씩 교대로 10월에 개최하는 향토축제. 한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축제가 시작되기 이전이며, 한국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았던 시기인 1955년에 부여에서 개최된 이래 2006년 제52회가 개최되어 5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개관 제1회 백제문화제(百濟文化祭)는 백제대제(百濟大祭)라는 이름으로 1955년 부여에서 처음 열렸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백제대제집행위원회의 주관과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거행되었다. 제1회 백제대제는 백제말의 3충신(성충·흥수·계백)을 모신 삼충사(三忠祠) 제향과 백제 멸망과 함께 강물에 몸을 던진 백제 여인들을 위무하는 수륙재(水陸齋)를 올렸다. 당시의 백제대제는 이렇듯 망국의 한을 달래는 제의 중심이었고 조촐한 형태였지만 전국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기 때문에, 부여군내는 물론 전국 각처에서 몰려든 관람객으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고 한다.

백제문화제는 백제 망국의 원혼을 위로하는 제의인 백제대제로 출발하였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제의적 성격으로부터 지역종합문화 행사의 성격을 더해가게 되었다. 나아가 이 같은 성격 변화에 부응하여 제1회부터 제9회까지 백제대제로 부르다가, 1964년 제10회부터 백제문화제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개최 지역도 공주와 대전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겪었는데, 제1회(1955)부터 제11회(1965)까지는 부여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제12회(1966)부터는 공주향교 주관으로 웅진백제시대의 백제왕 추모제를 매년 봉행하던 공주에서도 동시에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20회(1974)부터는 공주와 부여 외에 대전으로까지 개최지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는 충남의 대제전으로 열기를 고조시키려는 것이었으나 분산 개최의 어려움과 상징성 약화, 전시 위주의 급조된 문화제라는 오명 속에 1978년 제24회를 마지막으로 대전 개최는 중단되었다.

이후 제26회(1980)부터는 공주와 부여가 격년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개최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는 소제(小祭)로 거행하는데, 이 같은 방식은 지금까지 일관되고 있다. 윤번제 시행은 더 긴 준비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사의 수준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40회(1994)에는 위례성, 웅진, 사비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서울 송파구의 백제문화제 행사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천도제 및 정도제, 고유제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역사성의 문제 때문에 2년만에 중단하였고, 현재는 홀수 년에 공주, 짝수 년에 부여에서 각각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백제문화제는 대개의 지역문화축제와 유사하게 10월 중에 개최되는데, 개최 시기를 보면 10월 초순이 33퍼센트, 10월 중순이 53퍼센트, 10월 하순이 14퍼센트의 비율이었으며, 기간은 2일간이 4퍼센트, 3일간이 48퍼센트, 4일간이 43퍼센트, 5일간이 5퍼센트 정도의 비중이다. 그러다가 문주왕(文周王)의 공주 천도 시기가 10월 상순이고 또한 관람객의 편의와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말을 포함하는 10월 6~10일 기간으로 고정되었다.

내용 백제문화제는 최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출발한 여느 지역 축제와 달리 백제라는 역사문화 배경을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면서 발전해온 역사문화축제로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나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와 함께 잘 알려져 있다. 공주와 부여는 백제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유적과 역사의 밀집지이자 완성된 백제의 문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한편으로는 의자왕의 비화(悲話), 낙화암의 삼천궁녀 설화, 삼충신의 충절 등 백제 최후를 지킨 영령들의 숨결도 함께 살아 있어 백제 패망의 아픔도 동시에 전하는 곳이다.

최근 백제문화제는 다양한 백제문화 소재들을 수요 계층별로 올바로 이해시키고, 흥미롭게 전승하고 현대의 가치로 승화시키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제문화제의 초기 단계인 1950~1960년대는 백제의 충절인(忠節人) 제향과 삼천궁녀 위령제(수륙재)가 중심이었고, 감성적 차원의 정신문화 계승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축제 내용을 보면 백제 중흥 5대왕 추모제와 더불어 민속, 예술, 체육대회 등을 가미한 지역적 성격의 행사 위주로 개최되었는데 전적으로 민간주도의 행사였다. 이때의 행사

종목을 보면 백제원혼에 대한 제의를 제외한다면 백제문화제로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별다른 행사가 없는 일종의 문화예술제로서의 성격을 지닌 소박한 지역 행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과 운영은 1960년대에 들어와 변화를 겪었다. 곧 행사가 관주도로 변화하고, 행사 종목이 해마다 늘어나 종합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의 백제문화제 참석과 지역 정서가 연계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때에 백제 가장행렬, 계백장군 동상과 궁녀사(宮女祠) 기공, 정림사지(定林寺址) 발굴, 국립부여박물관 건립 같은 가시적 행사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백제문화 유산 정리와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기치가 강화되면서 다소 권위적이고 대형화를 추구하는 경향까지 생겼다.

1970년대의 백제문화제는 1960년대에 행해졌던 문화예술 행사를 근간으로 하되 부수적 문화 행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초기 백제문화제의 예산을 보면 행정기관 보조금은 20~30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비용의 대부분을 지역 주민의 찬조금에 의존하여야 했으나, 1973년 이후 백제문화제의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면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조례화하고 행정기관의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8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됨으로써 백제문화제를 전국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공주와 부여의 윤번제 시행으로 정착된 1980년 제27회 백제문화제는 공주에서 개최되고 부여에서는 소제로 제전 행사(삼충제, 궁녀제, 대왕제)만 치렀는데, 이러한 윤번제 시행은 보다 많은 준비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윤번 개최가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우선 행사의 종목이 양적으로 크게 늘었다. 부여의 경우 40여 종, 공주는 70~100여 종에 달하는 매우 다채로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의 문화상품으로 선정되어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도 하였다.

백제문화제의 꽃으로 관람객들의 관심이 큰 행사로는 비판도 많고 문제도 없지 않지만 백제역사문화행렬이 있고, 제14회(1968)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한 백제문화심포지엄이 있다. 1971년의 무령왕릉유물 특별전시회, 백제의 밤(문학, 음악, 무용), 1972년의 백제문화 사진촬영대회 그리고 1973년 이후



개막식 전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국립민속박물관

백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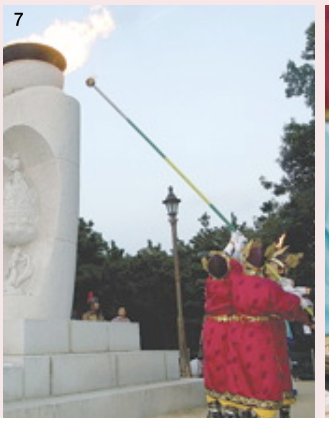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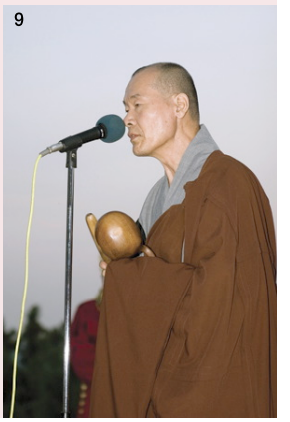












1 혼불 채화
2 팔충제-초헌(헌작)
3 팔충제-독축
4 팔충제-종헌
5 팔충제-음복
6 팔충제-망예
충남 부여군 충화면 국립민속박물관

7 삼산제-성화 점화
8 삼산제-분향
9 삼산제-염불 축원
10 삼산제-초헌
11 삼산제-제문 독송
12 삼산제-아헌(분향)
13 삼산제-종헌(헌작)
14 삼산제-헌화무
15 삼산제-음복
16 삼산제-소지
17 삼산제-천신위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국립민속박물관


10


11


12


13


14


15


16


17

백제문화제





















1 백제역사문화행렬-계백장군 출정
2 백제역사문화행렬-오제신기행렬
3 백제성왕사비정도축제-헌작
4 백제성왕사비정도축제-독축
5 백제성왕사비정도축제-소지
6 백제대왕제-위패봉안
7 백제대왕제-초헌(헌작)
8 백제대왕제-초헌(독축)
9 백제대왕제-아헌(분향)
10 백제대왕제-망료제
11 백제무왕즉위식-즉위교서 반포
12 백제무왕즉위식-옥새 찍기
13 백제무왕즉위식-무왕 행차
14 삼충제-삼충신 영정
15 삼충제-초헌
16 삼충제-망료제
17 궁녀제-참례자 배례
18 궁녀제-종헌
19 백제오천결사대충혼제
20 백제오천결사대충혼제-추도묵상
21 폐막식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국립민속박물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종합예술제의 성격으로 다양하게 열린다.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의 행사 및 경연대회도 관람객의 관심을 많이 끌었다. 그동안 고증을 통한 백제문화 재현에도 노력을 기울여 백제갑옷, 산유화가(1975), 행렬, 복식과 국악(1979), 백제천도 행사(1994), 복식, 제의, 행렬(1996), 역사문화 체험장(1998) 등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제를 정하여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백제문화 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적 노력과 기획이 돋보이는데, 예컨대 제48회(2002)의 경우 '부활 - 정도 - 재현 - 충절추모 - 대동화합'이라든가, 제50회(2004)의 '개벽 - 중흥 - 눈물 - 어울림', 제51회(2005)의 경우 '백제의 불, 금강의 빛'이라는 테마로 백제역사 퍼레이드, 백제나라로 시간여행(백제군사 성곽지키기, 성곽밟기, 백제 4왕 추모제, 백제왕 연희 등), 금강으로의 초대(불꽃놀이)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백제문화제는 다채롭기는 하지만 행사 종목이 너무 많고 특징이 없다는 비판도 받았다. 몇몇 문화 행사를 제외하고는 행사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행사로 채워져 있는데 특히 백제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은 내용을 담보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백제문화제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를테면 추모제, 행렬, 즉위식류의 행사 비중을 줄이고, 대신 백제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창작예술과의 접목을 통한 계승 방법의 창출로 수요층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창작예술발표회, 마당극, 인형극, 애니메이션 같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백제문화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그 하나이다. 아울러 백제문화제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철저한 역사고증작업의 필요성, 관광문화상품의 개발과 자원 활용 아이디어 개발 등이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참고문헌 | 백제문화제 발전에 관한 연구(임동권 외, 충청남도·백제문화제발전연구회, 1992), 백제문화제 행사의 고증과 정리(윤용혁 외,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1996), 백제문화권의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개발방안 연구(이해준 외,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1998), 제46회 새천년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발전 방안(충남발전연구원 부여군, 2000).

필자 | 이해준(李 濬)

설악문화제(雪嶽文　　)

정의 강원도 속초시에서 1966년부터 지내온 산신제(山神祭)를 중심으로 열리는 향토축제.

유래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는 일찍이 신라 때부터 지내온 국가적 제의이다. 기록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는 태백산 천제에서 중사(中祀)를 지내고 설악산에서 제사를 지냈다. 고려 인종 때 김부식(金富軾)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 권32 「잡지(雜志)」1 제사조(祭祀條)에 의하면 삼산 오악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당시 고성군 상악(霜岳)과 수성군의 설악(雪岳)이 소사로 포함되었다. 이것으로 보면 봉정산제(封定山祭)인 소사로서 설악산에서는 정기적인 국가제의가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봉정산제는 관에서 제향을 주관함은 물론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리는 제향이다.

설악산신제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첫째는 강원도 내에서는 태백의 중사와 더불어 현존 문헌상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제의중 하나라는 점이고, 둘째는 국가에서 제례를 거행한 봉정제향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영동의 진산(鎭山)인 설악산악제를 통해 정신적 일체감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진산은 한국인의 숭산의식(崇山意識)을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주산(主山)이라는 의미 외에도 의지와 안정의 뜻을 담고 있어서 지역의 무사안녕과 생활의 안정, 정성의 결집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는 삼국통일 기원의 의지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산악제로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61 「예고(禮考)」 제단(諸壇)1 악해독산천조(嶽海瀆山川條)에 의하면 봉정의 산천제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중소사의 등제(等第)를 매겨 국가에서 향사(享祀)하였으며 그 역사가 삼국 이전부터 나타난다. 신라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는 동안 설악산신과 동해신을 비롯한 명산대천의 제사는 지속되었으나 중사나 소사의 예식은 다소 흐트러졌다.

설악산은 옛 기록의 설산 또는 설화산에서 비롯되어 진산 또는 신산(神山)으로 신성시되었다. 물론 바위의 색이 희고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않아 그와 같은

설악문화제 - 설악산신제



1


2


3


4


5


6


7


8


9

1 제단
2 부정굿
3 분향
4 헌작
5 독축
6 음복
7 소지
8 산신맞이
9 산신맞이
강원도 속초 국립민속박물관

설악문화제 - 용왕제 및 삼신합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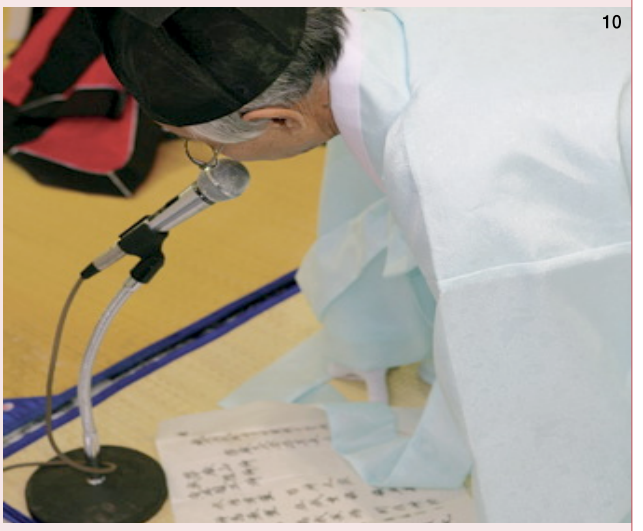
1 용왕제-제물
2 용왕제-부정굿
3 용왕제-용왕맞이
4 용왕제-용왕맞이
5 용왕제-용왕맞이
6 삼신합동제-관세
7 삼신합동제-분향
8 삼신합동제-초헌(헌작)
9 삼신합동제-삽시정저
10 삼신합동제-초헌(독축)
11 삼신합동제-아헌(헌작)
12 삼신합동제-소지
강원도 속초 국립민속박물관


6


7


8


9


10


11


12

설악문화제 - 조전제


1


2


3


4


5

1 분향
2 초헌(헌작)
3 계반개
4 독축
5 아헌(헌작)
6 종헌(헌작)
7 낙시저
8 음복
9 소지
10 신위와 제상
강원도 속초 국립민속박물관


6


7


8


9


10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나, 그것보다는 산악신앙의 뿌리 깊은 근원에서 연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은 그 위치가 태백산맥 북쪽에 있어 북쪽은 금강, 남쪽은 오대산을 거쳐 차령과 소백산으로 통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토의 중간 지점이며 백두대간의 중심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사람 안축(安軸)의 '관동별곡(關東別曲)'에도 설악의 절경과 영랑호에 대한 글이 들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45 「강원도(江原道)」 간성군(杆城郡) 산천조(山川條)에는 영랑호에 화랑들이 오유한 것을 기록하였으며 권금성의 축성설화를 다루었다. 또 송강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誌)』에도 설악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설악산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절차에 따라서 소사로 치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사는 중춘(仲春)과 중추(仲秋)에 지냈고 헌관은 지방 수령이 행하는 제의와 같은 격이라 하겠다. 『와유록(臥遊錄)』3 「낙산사기(洛山寺記)」에 의하면 고려 현종(顯宗) 2년(1011)에 거란병이 침입하므로 설악산 동록(東麓)에 성을 쌓고 수호했다는 기록으로 축성이 확인되고 축성 형태나 방법, 봉화대, 제단의 흔적이 현재 발견된다.

내용 설악문화제는 처음 개최된 1966년부터 산악제 중심으로 열렸고, 제16회에 이르러 이른바 종합형 축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제18회부터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치르기 시작하여 현재 가을철 산악축제이자 시민위안 중심의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2005년 제40회 설악문화제는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사흘 동안 청초호유원지 상설 이벤트장을 주행사장으로 상징탑 광장을 보조행사장으로 하여 열렸으며, 등반대회는 국립공원 설악산 일원에서 펼쳐졌다. 구체적으로 통일 염원 주제 행사의 지속 개최, 뿌리가 있는 축제 소재 발굴 개최, 차별화된 축제 소재의 집중 개발, 체험 및 교육형 축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축제였다.

10만 속초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된 설악문화제는 산악과 해양, 실향민 문화를 부각시켜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을 대폭 확대했고 볼거리를 다양화하였다. 권금성 봉화대에서 칠선녀들에 의해 성화를 채화한 것을 시작으로 산악인 추모 행사를 거행하고, 산악인 한마음 잔치, 산악장비전시회, 설악산소공원 산신제와 설악대제, 실향민을 위한 통일염원제가 열렸다. 한편 설악예술축전, 해양문화제전, 향토민속축전, 거리문화축전, 놀이문화축전 같은 다양한 행사들도 펼쳤다.

설악제례는 통일대제, 산신제, 용왕제, 위패봉송, 망향제, 제등행렬, 삼신합동제, 조전제, 송신제, 제례굿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염원제전은 통일염원의 밤, 갯배끌기 대회, 팔도음식시식, 통일풍선 나눠주기를 펼쳤다. 설악산악제전으로는 산악인추모제, 등산단풍축제, 한마음큰잔치를 열었다.

해양문화제전은 범선경기, 로프던지기, 든대질놀이, 오징어할복경기, 어선승선무료체험이 있고 설악예술축제에는 거리시화전, 2005 설악가요제 왕중왕전, 설악아동화거리축제, 설악서예백일장, 속초사진협회전, 훈춘촬영가협회 사진전, 도자기체험교실, 훈춘시 해당화예술단초청공연, 분재전시회, 꽃꽂이전시회, 제8회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꽃누르미 체험 및 전시, 디지털사진무료촬영, 전통국악인초청공연, 전통오색한지공예전시 및 체험이 열렸다.

청소년문화축전은 2005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한마당, 강원도청소년 댄싱경연대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열렸다. 향토민속축전은 마상무예시연, 도문메나리농요시연, 그네, 널뛰기, 씨름, 궁도대회, 건오징어 과일 야채공예전시회, 판줄공연, 시민강좌발표회, 게이트볼대회, 자통놀이, 줄다리기, 투호, 전통떡메치기, 전통통과의례상차림이 있었다.

의의 민족통일분위기 조성과 역사·향토문화의 전통과 고유성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데서 설악문화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臥遊錄, 增補文 備考, 里 , 雪嶽山-雪岳山 術調査 報告書-(文敎部, 1967), 雪岳山 開發事業 (강원도, 1981), 雪嶽의 뿌리(속초시, 1982),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속초시 어로민속지(장정룡, 속초문화원, 1997),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장정룡·김무림, 속초문화원, 1998), 속초지역 구전설화집(장정룡·양언석, 속초문화원, 1999),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장정룡 외, 속초문화원, 2002), 속초의 민요(장정룡·이한길, 속초문화원, 2003).

필자 | 장정룡(張正龍)

소가야문화제(小伽倻文　　)

정의 소가야(小伽倻)의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경상남도 고성의 지역축제. 1959년 광복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89년부터 소가야문화제(小伽倻文化祭)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다.

개관 소가야는 경남 고성군 일대에 번성했던 나라로 12개로 구성된 가야국의 하나였다. 소가야 사람들은 섬세한 감수성과 더불어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련 기술을 발달시켰으며 창조적 예술성을 나타냈다. 그런 전통은 지금도 경남 고성 지역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고성은 소가야 도읍지로 송학동 고분군 같은 가야시대의 문화 유적이 곳곳에 있으며, 이순신 장군의 전승유적지 당항포도 있다.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남해안별신굿 같은 전통 예술과 유서 깊은 고찰을 비롯한 역사 유적이 많이 남아 있으며 관광 자원도 풍부하다. 고성군 하이면의 상족암은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의 발자국이 바닷가 바위에 선명히 새겨져 있어 연구자와 관광객의 주요한 방문지이다. 고성은 산과 바다, 들판이 어우러져 물자가 풍부하고 인심이 넉넉한 곳이며,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사통오달의 교통 체계가 형성되어 있어 고성의 문화와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하다.

소가야문화제는 이러한 소가야의 문화와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이를 후대에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문화예술축제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축제를 통해 군민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군민 간의 화합과 결속도 다진다.

내용 소가야문화제는 고성군이 주최하고 소가야문화제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 문화제는 195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광복예술제라는 이름으로 격년제로 개최했었다. 1963년 제3회부터 가야문화제로 개칭하였고, 1983년 제9회부터 군민체육대회와 통합 개최되면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소가야문화보존회를 설립하였으며, 1989년 제14회 대회부터 대회 명칭을 소가야문화제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고성군민의 날도 통합하여 열기도 하며, 고성군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군재 곳곳에서 행사를 벌인다.

소가야문화제는 전야제, 식전 행사, 개막식, 식후 행사, 문화예술 행사, 전시 행사로 구성된다. 전야제는 오후 5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고성향교가 주관하는 서제(序祭)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서 고성인의 밤, 불꽃놀이, 가야벌 한마당이 열린다. 식전 행사는 가장행렬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구지봉설화(6가야 왕의 어가행렬) 재현,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승전을 기념하는 가장행렬,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 14개 읍면 농악대로 구성된 민속 가장행렬 팀이 고성읍 제1호 광장에서 출발하여 시가지를 거쳐 종합운동장까지 행진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길놀이에는 초등학교 고적대, 청년놀이패 및 철성중학교의 밴드부도 참여한다. 어린 세대도 축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개막식에서는 개회식, 성화점화, 군민상 시상이 진행된다. 식후 행사에서는 태권도와 군악대의 시범이 펼쳐진다.

문화예술 행사와 전시 행사는 행사 기간 내내 고성 전역에서 펼쳐진다.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사진촬영대회와 기록사진전, 시조경창대회, 군민노래자랑, 한글백일장, 미술(사생)대회와 서예휘호대회, 사물놀이, 농악경연대회, 민속놀이한마당, 풍년무료주점, 음악경연대회, 알뜰도서무료교환시장, 게이트볼대회, 군민바둑대회, 전통차시음회가 열린다. 전시 행사로는 수석전시, 자연사자료전시회, 민속탈전시회, 장승전시회, 농경유물전시회, 난전시회, 서화전이 펼쳐진다.

소가야문화제는 고성 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전승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것과 더불어 군민의 화합 도모도 목표로 한다. 문화제, 체육대회, 군민의 날은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각각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한 행사들이다. 축제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련 기술을 발달시켰던 가야의 후예답게 다른 성격의 문화제를 한 곳에 녹여 융합된 공동의 세계를 만든다. 이 점이 소가야문화제의 본령이다.

참고문헌 | 慶南民俗資料 (　國文　院聯　　慶尙南道支部, 1993),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경남지방 장승·솟대신앙(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 심상교(沈相敎)

소금강청학제(小金剛　　)

정의 강원도 강릉시의 오대산(五臺山) 소금강(小金剛)을 중심으로 10월에 열리는 축제. 매년 10월 중으로 축제의 날을 정하는데 대개 10월 둘째 주말 이틀간에 걸쳐 열린다.

유래 명승 제1호로 지정된 명주청학동소금강(溟洲靑鶴洞小金剛)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명승지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일부로 공원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금강산(金剛山)에 버금간다 하여 소금강이라고 하는데, 장엄한 경치뿐만 아니라 고적(古蹟)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안의 황병산(黃柄山)을 주봉(主峰)으로 하여 우측의 노인봉, 좌측의 매봉이 학이 날개를 편 형상이라 하여 청학산(靑鶴山) 또는 청학동(靑鶴洞)이라고도 한다. 소금강이라는 명칭과 청학산이라는 명칭은 모두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청학동유산록(靑鶴洞遊山錄)』에서 유래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금강산의 일부를 축소해놓은 것 같아 붙여진 것이라 하였다. 율곡 이이는 선조(宣祖) 2년(1569) 외할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 강릉에 머무는 동안 오대산 일원을 유람하며 기록을 남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청학산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율곡 이이가 명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금강에서 오대산 월정사(月精寺)까지는 무릉계(武陵溪), 십자소(十字沼), 금강사(金剛寺), 세심폭(洗心瀑), 만물상(萬物相) 등의 절경이 이어져 있다. 또 산정(山頂)에는 신라의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망국의 한을 풀고자 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아미산성(峨嵋山城)이 남아 있다. 아미산성은 금강산성(金剛山城), 만월성이라고도 하며,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소금강청학제는 예부터 수려한 산천에 제사를 지내오던 유풍(遺風)으로 1975년 오대산국립공원으로 이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소금강 번영회에서 주관하여 오늘에 이른다.

내용 소금강청학제는 2001년부터 면단위 행사로 승격시켜 전 면민이 참여하는 제례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로 운영하고 있다. 소금강 매표소를 지나 금강사 아래에 있는 광장에서 지역민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례를 올린다. 처음에는 제의(祭儀)만 올리다가 1991년부터 농악 공연 등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1994년부터 등반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제의는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진설하고 복식과 홀기, 축문을 갖추고 전통 유교식으로 올린다. 제의에 이어 농악공연, 줄다리기, 보물찾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한다. 등반대회는 산악협회가 주관하며, 가족 등반이 가능한 소금강 내 순환코스를 선정하여 당일 참석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전야제 행사로 캠프파이어, 축포, 놀이패의 산악축제도 베풀어진다.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栗谷全書,　國觀光資源　攬(　國觀光公社, 1985),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國文藝術　　院, 1987), 江陵市史 上,　(江陵文　院, 1996).

필자 | 김경남(金京南)

수원화성문화제(水原　城文　　)

정의 경기도 수원시에서 매년 10월 중순에 행해지는 지역문화축제.

내용 수원에서는 원래 10월 15일에 화홍문화제(華虹文化祭)가 열렸었다. 인천에 있던 경기도청이 1964년에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기공식을 했던 날을 기념하여 열기 시작한 행사였으나, 한동안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관변행사로 머무는 경향이 컸다.

그러다가 1997년 12월 수원의 화성(華城)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하여 1998년부터는 화성문화제(華城文化祭)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 1796년 화성이 준공된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10일을 수원 시민의 날로 정하게 되었다.

초창기의 단순했던 문화제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22회 때부터이다. 정조(正祖)의 부친이었던 사도세자(思悼世子), 곧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묘를 양주 영우원(永祐園)에서 수원 화산(華山)의 현륭원(顯隆園)으로 천장(遷葬)하고 화성행궁을 설치한 사실을 근거로 삼아, 효심(孝心)을 문화제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도입했다. 현재도 수원을 효심의 고장이라고 알리는 근거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당시의 화홍문화제는

그런 점에서 화산릉(華山陵) 참배를 시발로 삼아 다양한 행사를 거행하여왔다.

화성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정조가 사도세자를 천장한 후에 화성행궁과 함께 축조를 하였다. 정조 18년(1794) 2월 채제공(蔡濟恭)의 주관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796년 9월에 완공하였다. 화성의 축조에서 주목할 것은 전통적인 축성 방식에 근거하면서 정약용(丁若鏞) 등의 과학 지식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때 사용한 거중기나 녹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문과 동문이 훼손되었는데, 현재 대대적인 복원을 통해서 옛 모습을 되찾았다. 1801년에 간행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는 이 복원공사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화성은 우리나라 18세기 성곽 문화의 중심 유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화성문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한 것이다. 과거에도 행차 행렬을 문화제 기간 동안에 보여준 바 있으나, 현재와 같은 대형의 능행차 행렬을 추진하게 된 것은 1996년 화성 축성 200주년을 기념하면서부터이다.

원래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의 반차도에 따르면 이 행사에 동원된 사람은 약 5,661명이며 말이 1,417필이었다. 현재 재현되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4,000명 정도가 조선시대의 의상과 소품들을 그대로 착용하고 출연하여 당당한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적인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있다. 행차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 수원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대고개에서 출발하여 노송 지역과 장안문(長安門)을 거쳐 팔달문(八達門)에서 끝난다.

이와 같은 대단위 가장행렬의 모습은 많은 관광객을 모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관광 상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 園　乙卯整理儀軌,　城城役儀軌, 水原市史(水原市史　　委員　, 1986),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水原市史　(水原市, 1997), 축제로의 여행(백남천, 성하출판, 2001).

필자 | 김종대(金宗大)



화성능행도병 서장대야조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원화성문화제


1



2


3



4

1~6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경기도 수원 주병수




5


6

신라문화제(新羅文　　)

정의 신라 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경주에서 10월마다 열리는 축제.

개관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는 신라 천년 문화예술을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찬란한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화랑(花郎) 정신을 계승하고 보존하며, 신라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무명 선사들을 기리는 것도 목적에 포함한다.

신라문화제는 1962년 4월 신라문화제 경주시준비위원회에서 행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황성공원(皇城公園)과 경주시 일원에서 해마다 10월 중순에 개최되는 이 문화제는 2005년 현재 33회의 행사를 치렀으며, 4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국내 대표적인 축제이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이후 관주도의 축제 양산화의 일환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도 그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내용 행사 내용은 해마다 다르게 구성되나 대체로 전야제, 서제(序祭), 신라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가장행렬, 민속군무, 민속경연, 가배놀이, 바라춤, 대취타, 예술·학술·불교문화와 화랑정신의 재현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시화전, 음악경연대회, 향토작가전, 가장행렬, 에밀레합창단 공연, 농악놀이, 씨름대회, 궁도대회, 한글백일장, 신라의 불교정신과 화랑원화의 설화 재현, 화랑원화선발대회, 길놀이, 줄다리기, 전국국악대제전, 신라미술대전, 문예창작대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 같은 행사들도 함께 열린다.

지금까지는 제25회 신라문화제(1996)가 가장 풍성한 행사였는데, 이때의 행사는 10개 부문 41개 종목에 걸쳐 이루어졌고, 148개 기관단체에서 18,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관람객은 15만에 이르렀다.

전야제로는 화랑원화선발대회, 경축시가행진, 고적대, 축등, 불꽃놀이가 행해졌다. 개막제전으로는 서제와 향연이 각각 시민운동장과 내물왕릉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상무예, 가배놀이, 관창무, 바라춤, 동채싸움, 비천무, 예천공처농요, 청도차산농악, 대취타, 줄다리기, 그네뛰기, 궁도, 화랑씨름, 신라검법대회, 전국국악대회, 신라미술대전, 사진공모전, 한글백일장, 한시백일장, 미술실기대회, 연극공연, 합창발표회, 경축음악회, 사물놀이, 수석전시회, 분재전시회, 우리농산물전시, 신라불교영산재, 문화재해설, 신라문화학술대회 등이 축제 기간 중에 행해졌다.

행사 중 눈에 띄는 것으로는 신라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는 팔관회(八關會) 의식의 일부 재현이다.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은 551년 팔관회법을 설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령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팔관회와 더불어 연등회를 7일 동안 베풀었다. 팔관회는 불교의식에 민속신앙을 더해서 천령(天靈),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 등에 제사지내는 종합적인 종교문화 행사로, 국가와 왕실의 번영과 존속을 기원하는 호국의 의미를 지닌 국가적 제의였다. 팔관회는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고, 태조는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팔관회를 계속 거행할 것을 후대에 당부하기도 하였다. 팔관회는 조선시대에 와서 폐지되었으나 축제 때 병행했던 산대잡희(山臺雜戱)와 나례(儺禮) 등은 행사가 있을 때 궁중과 민간에 지속되었다. 신라문화제는 이러한 유구한 전통을 오늘에 이어가는 의미를 가진다. 신라문화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어져왔다. 1962년부터 2005년까지 햇수로는 44년에 해당하지만 개최 횟수는 33회에 그친다. 냉해(冷害)나 한발(旱魃) 같은 자연 재해, 다른 행사와의 중복, 재정 부담 같은 여러 요인들로 열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변화양상 신라문화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10월 중에 사흘 동안 지속된 것은 제19회를 제외하곤 일정했으며, 1984년부터 격년제로 열렸고 1998년부터는 매년 열렸다. 행사의 종목은 전체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으며, 1998년 IMF 이후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계 개최하여 국제적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주최와 주관도 신라문화제집행위원회와 신라문화선양회, 경상북도청, 경주시청 등 여러 기관에서 맡은 적이 있으나, 재정 문제 때문에 현재는 경상북도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신라문화제의 문제점으로는 축제 주제와 목적의식의 부재, 관주도의 축제, 축제프로그램의 특성화 부족, 축제 전문 인력의 부족, 재정의 약화, 창의성과 기획력의 부족, 내용 빈약, 내용의 유사성, 개최 시기의 중복, 관광자원화의 미흡, 문화행정의 정책적 노력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은 한국의

축제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축제의 내용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야 하고 지역민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라의 역사에 기초한 기획을 해야 하고, 문화이벤트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식 개선과 주관기관과 유관 기관들의 합력이 필요하며 홍보의 전반적인 개선, 적절한 장소 선정, 안정적 재원 확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新羅의 祭典(金東旭, 新羅文 祭 術發 論文 4, 新羅文 宣揚 , 1983), 문화 이벤트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조현호·유영준, 論文 11, 경주대학교 1999),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봉석, 論文 16, 서라벌대학교, 1999), 國 祭의 理論과 場(김선풍 외, 月印, 2000).

필자 | 이정재(李丁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安東國 –)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일원에서 매년 9월과 10월에 걸쳐 개최되는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Andong Maskdance Festival)은 세계적인 탈춤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세계 보편 문화인 탈과 관련된 문화를 안동시에서 선도하며, 안동 지역이 보유한 전통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1997년에 만들어졌다.

내용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첫해인 1997년에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안동시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안동 지역 문화 관련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축제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8년부터 지역민들의 의지 결집과 더불어 지역 전문 활동가들을 축제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 인력들이 축제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축제 역량이 해가



선유줄불놀이
경북 안동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 하회별신굿탈놀이-무동마당
2 하회별신굿탈놀이-주지마당
3 하회별신굿탈놀이-백정마당
4 하회별신굿탈놀이-양반선비마당
5 차전놀이
6 하회별신굿탈놀이-할미
7 하회별신굿탈놀이-이매
경북 안동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거듭되면서 축적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최우수 축제로 수차례 선정될 정도로 그 성공을 인정받고 있으며, 재정 또한 축제 수익금에 의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제1회인 1997년에는 10월 1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고, 1999년부터는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1997년 첫해 축제는 낙동강변에 무대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하회마을에서는 선유줄불놀이행사만 하였으나, 1998년부터 하회마을 프로그램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안동시내로 축제장을 넓히기 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고정 무대를 만들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행사는 한국탈춤과 외국탈춤 공연이 주를 이룬다. 첫해인 199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여한 외국 공연단은 3개국 공연단에 불과했으나 2001년 제5회 때에는 7개국이 참여하였고, 2005년에는 러시아, 대만, 스리랑카, 베네수엘라, 태국, 터키, 멕시코, 일본 등의 공식초청 8개국과 타지역 축제와 교환 공연을 포함하여 15개국 공연이 있었다.

한국의 탈춤 공연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13개 팀이 1997년부터 매년 참여하였고, 2000년부터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탈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5년 축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비롯하여 봉산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은율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6 1호), 송파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49호), 양주별산대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강릉관노가면극(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고성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통영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가산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37호),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동래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북청사자놀음(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강령탈춤(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예천청단놀음이 공연되었다.

한편 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안동민속축제를 같은 기간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하회마을전통축제도 같은 시기에 열리고 있다. 그리고 안동 지역 문화예술 공연단들의 부대 행사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전시, 공연, 기타 체험 프로그램이 매년 확대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축제가 풍성해졌다.

아울러 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평가 속에서 2003년부터 탈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여 2004년부터 Maskdance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대중 춤을 축제로 편입시켰으며 2006년에는 현대적 탈춤의 기본 춤사위, 로고송을 개발하여 대중들이 탈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의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탈춤을 모태로 현대 사회에 부응하는 축제적 시스템과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면서 안동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자 기획되었다. 탈춤의 보편성과 안동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 선정 최고의 축제라는 평가를 받으며 '만들어진 축제'로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참고문헌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조사연구(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추진위원회, 1997~2005), 國 祭의 理論과 場(김선풍 외, 月印, 2000), 1등 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편집부, 영남사, 200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과정, 성과 및 발전과제(남치호, 安東開發硏究14, 安東大 校 安東地域社 開發硏究所 ,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3).
필자 | 권두현(權斗)

안동민속축제(安東民俗)

정의 1968년 민속의 보존과 발굴이라는 취지 아래 시작되어, 매년 10월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개최되는 축제. 안동민속제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나 제6회에 안동민속제, 제9회에 안동민속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85년 제15회 때에 안동민속축제(安東民俗祝祭)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안동민속축제의 개최 시기 또한 여러 차례 바뀌다가 10월 중으로 고정되었으며, 199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시작됨에 따라 같은 시기에 열리고 있다. 축제 장소 역시 낙동강 백사장부터 안동민속경관지까지 다양했으나, 1997년 이후 낙동강변 축제장으로 고정되었다

내용 안동민속축제의 취지는 제1회 축제 때 표방된 '민속의 보존, 발굴을 통한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문구에 잘 드러난다. 그 이후 예술 행사와

체육 행사가 축제에 추가되기도 하였지만, 취지의 중심 기조만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안동민속축제는 지금까지 안동우수민속진흥회, 안동민속문화제위원회, 안동문화원, 경상북도, 안동시 같은 여러 단체에 의해서 주최되어 왔다. 이처럼 축제를 위한 민간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나, 실상은 행정 조직이 행사전반을 대부분 관장하였다. 제15회 이후부터는 주최가 경상북도와 안동시로 주관이 안동문화원으로 정착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2006년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관 기관의 변화는 안동민속축제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축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 기부금 중심으로 재정이 확보되고 있었으나,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축제의 전면에 나서면서 점차 관 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민간 기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안동민속축제는 아치, 선전탑, 애드벌룬, 포스터, 팸플릿, 현수막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한다. 제26회 축제 때는 종이탈이 제작되어 홍보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안동의 민속을 보존하고 발굴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안동 지역의 민속 전반이 안동민속축제를 통해서 재현되고 연행되고 있다. 중요한 연행을 보면 민속축제 개막을 알리는 제사인 서제, 전야제 또는 개막식날 저녁에 열리는 초롱행렬과 남성대동놀이인 차전놀이, 여성대동놀이인 놋다리밟기, 하회별신굿탈놀이, 농요인 저전논매기소리, 전통궁술인 궁도대회, 씨름대회, 풍물경연대회, 도산별시, 유등제, 한두실행상소리 등이 있다. 그 밖에 원놀이, 저전달개놀이, 그네대회, 윷놀이, 민요잔치, 탑돌이, 국악공연, 성주풀이, 널뛰기, 줄다리기, 가농작 등의 프로그램이 한 때는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연행되지 않는다.

민속 행사와 함께 예술제도 시행되는데, 예술제는 주로 사진전, 시화전, 연극 공연, 합창제 등의 예술단체의 행사로 민속과는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축제기간에 함께 진행되어 축제전체의 분위기를 함께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의 안동민속축제는 안동 지역의 민속을 발굴하고 전통을 계승하고자 기획되어 1970년대 대표적인 한국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차전놀이, 놋다리밟기, 하회탈춤 같은 한국 민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수한 민속예술들이 안동민속축제를 통해서 보다 빛을 발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안동시민들의 응집력을 앞서서 이끌지 못하고, 발굴된 민속 역시 취사선택에 의하여 그 흥과 축제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안동 사회 전반의 문화적 분위기를 주도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이벤트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이벤트가 요구되던 시점인 1997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안동에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안동 대표 축제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2006년 현재 제36회를 맞이하고 있는 안동민속축제는 현대 축제로서의 독자성과 안동이 가진 전통문화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 安東民俗　祭 調査 研究(安東大　校民俗　研究所, 1997).

필자 | 권두현(權斗　)

의암주논개대축제(　巖　論介大　　)

정의 조선시대 의기(義妓)였던 주논개(朱論介)의 충절을 기리면서 그녀의 탄신을 기념하는 축제. 논개탄생일인 음력 9일 3일 전후 3일간 열리며 본래는 논개제(論介祭)라는 이름으로 지냈으나, 2000년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유래 의암주논개대축제(義巖朱論介大祝祭)의 유래는 의암별제(義巖別祭)로 거슬러올라간다. 구한말인 고종 5년(1868) 진주 목사 정현석(鄭縣奭)이 논개를 기리는 의암별제를 시작하여, 진주의 기생들을 모아서 6월 중 길일을 택해서 제의와 가무로 구성된 논개를 기리는 제례를 만들었다. 악공을 제외하고는 제관 등 모든 제사의식을 기생들이 주관하였으며 제관도 기생이 맡았다. 이 제사는 음악, 노래, 춤이 어우러지는 제례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종묘대제나 석전대제에서만 가무가 사용되었다. 의암별제의 음악은 선비들의 음악인 정악(正樂)을 사용하였다. 1868년 첫 제례 때 300여 명의 기생들이 참여하였고 제례 후 3일 동안이나 제전이 지속되었다고






〈의암주논개대축제〉
1 주논개 제례봉행-헌작
2 주논개 제례봉행-헌작
3 주논개 제례봉행-소지
4 주논개 충절무
전북 장수 장수군청

한다. 또 1893년 진주성 함락 300주년을 맞아 열린 의암별제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기록도 있다. 이처럼 의기로 유명해진 논개가 진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으나 출생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논개의 출생지인 전북 장수군에서는 1956년 논개의 생가에 사당을 건립하고 1965년부터는 해마다 10월에 제사와 부대행사를 마련해서 오늘의 축제에 이르렀다.

내용 논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인 1593년 6월 진주성이 일본군에 의해서 함락된 직후 당시 적장이었던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촉석루 아래 바위[義巖]에서 남강으로 투신함으로써 생을 마감하였다. 논개의 충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는 의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가 성장해서 활동한 곳은 진주였지만, 생가는 전북 장수의 임현내면(任縣內面) 풍천(楓川), 현재의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로 고종 9년(1872)에 간행된 『호남읍지(湖南邑誌)』에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1574년 신안주씨 집안에 태어났다. 충의공(忠毅公) 최경회(崔慶會)는 장수 현감(縣監)으로 내려와 있을 때 논개를 만나게 되었으나, 그가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헤어졌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경회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 돌아와서 의병을 모집하는 동안 다시 논개를 만날 수 있었다. 논개는 그 후 최경회를 따르며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경회가 1592년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었다. 이즈음 논개는 최경회를 따라서 진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경회는 진주성이 함락되면서 순국하였고 논개는 왜군의 전승 축하연에 참석하여서 충절을 불살랐다.

의암주논개대축제는 주논개의 충절 정신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논개의 탄생일을 전후하여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에 있는 의암공원에서 열린다. 공식행사로는 주논개 제례봉행이 있다. 제례는 논개의 사당[義巖祀]에서 열린다. 장수의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립한 사당에는 당시(1956년) 부통령이었던 함태영의 친필 현판이 걸려 있고 김은호 화백이 그린 영정도 모셔져 있다.

의암주논개대축제에서는 마당극, 논개충절무를 비롯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민속놀이가 진행된다.

주논개선발대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미와 절개를 갖춘 여인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흠모의 뜻이 들어 있다.

의의 장수의 의암주논개대축제의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논개가 의기로 칭송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에 머물러서 고향이나 성을 찾아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던 출생지 장수군에서는 사당을 건립하고 성(姓)도 회복시켜주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출생 신분과 출생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주논개의 업적을 기리는 일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기여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로부터 양성이 평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주논개의 업적은 역사적인 교훈이 된다.

참고문헌 | 州 義妓祠記, 南邑 , 南節義錄, 州 義岩別祭 (成季玉 , 진주민속예술 보존회, 1986), 의암별제(www.nongaefestival.org), 주논개정보시스템(www.nongae.or.kr).

필자 | 함한희( )

익산서동축제(山薯童)

정의 삼국시대 서동(薯童)과 선화공주(善花公主)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서동이 무왕(武王)이 되기까지를 소재로 하여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축제.

내용 익산서동축제는 마한민속예술제(馬韓民俗藝術祭)에서 유래되었다. 마한민속예술제는 1966년 10월부터 시민들의 문화축제로서 시작되었으며, 익산이 삼한시대 마한 54국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2003년에는 익산이 백제시대에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서동요'를 앞세워서 익산서동문화제(益山薯童文化祭)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5년에는 무왕(武王)으로 등극한 서동의 치적에 중심을 두자는 취지 하에 익산서동축제(益山薯童祝祭)로 다시 명칭을 바꾸었다.

백제(百濟)의 서동과 신라(新羅)의 선화공주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2 무왕조(武王條)에 전하고 있다. 진평왕(眞平王)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예쁘다는 소문을 들은 서동은 신라로 가서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주며 '선화공주가 남몰래 결혼하고 맛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고, 이를 시작으로 둘의 사랑 이야기가 전개된다. 서동은 후에 백제 30대 무왕으로 등극해서 국운(國運)을 펼쳤으며 새로운 왕궁을 조성하고 미륵사(彌勒寺), 제석사(帝釋寺)를 창건하였다. 무왕은 익산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과거 마한의 도읍지였던 익산으로 천도(遷都)를 단행하였으며, 백제말기에 익산은 마한시대 이후 다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익산서동축제는 이를 기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익산은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고유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와 미륵사 창건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익산서동축제에서는 무왕이 곧 서동이라는 설화와 백제의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축제의 테마로 삼고 있다.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 이야기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무왕의 치적을 통해서 익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해가 더해가면서 축제의 내용이 점차 변해가고 있다. 근래의 변화 위주로 살펴보자면 마한민속예술제에서 익산서동문화제로 변경된 2003년과 2004년에는 '서동의 사랑, 무왕의 웅지, 익산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고, 2005년 익산서동축제에서는 '서동에서 무왕까지 그 생생한 이야기'로 바꾸었다.



무왕의 치적과 익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축제의 주제가 변화한 것이다.

행사 내용은 서동선발대회, 무왕제례, 무왕행렬 및 무왕즉위식, 무왕전기로 짜여 있다. 백제문양탁본, 백제병영 및 백제시대의 복식을 입어보는 체험행사도 열린다. 매년 10월에 중앙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륵사지를 비롯한 익산시 일원에서 행사가 열린다.

의의 지순한 사랑과 지역의 화합을 추구하는 대동축제로서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익산서동축제의 중심 주제이다. 서동과 선화공주가 국경을 초월하는 사랑을 이루고, 서동은 마침내 국왕에 올라 삼국통일의 뜻을 펼치고자 했던 진취성을 축제의 주제로 삼으면서, 영호남의 교류와 화합의 상징성도 곁들였다. 익산이 산업화되면서 공업도시 또는 신흥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마한과 백제시대 익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려는 뜻도 들어 있다. 한편으로는 익산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참고문헌 | 三國遺事, 익산의 역사문헌자료1(익산문화원, 2003), 지역축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채규정,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마한백제문화유산(www.godoiksan.go.kr), 익산서동축제(www.seodong.iksan.go.kr).

필자 | 함한희( )



익산서동축제 개막축하 공연
전북 익산 서동축제위원회

정선아리랑제(善–)

정의 정선아리랑(旌善-)을 주제로 삼은 강원도 정선군의 축제.

개관 정선아리랑제(旌善-祭)는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매년 10월 초에 사흘간 열린다. 1976년에 정선아리랑제 위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어 2005년까지 30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축제가 열리지 못한 것은 모두 5회인데, 1979년, 1990년, 2002년, 2003년에는 태풍과 수해로 1998년에 외환 위기의 국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정선아리랑의 원래 이름은 아라리이며, 강원도 전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전승된 민요이다. 이 노래는 꼴베기, 나물뜯기, 밭매기, 삼삼기, 모심기, 논매기 때 부르던 일노래이며, 또 여럿이 어울려 노는 노래판에서 즐기던 놀이노래인데, 산간 지역에서 더 성하게 불렀다. 정선도 산간 지역으로서 아라리를 성하게 부르던 곳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연고로 정선군은 1970년에 아라리를 가지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탔다. 이어서 1971년에 아라리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고, 노래 명칭도 정선아리랑으로 등록되었다. 이로써 정선아리랑은 아라리의 대표적 이름이 되었고, 정선 또한 아라리의 대표적인 전승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내용 정선아리랑제의 행사는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것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는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전승에 관한 것과 정선아리랑의 활용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행사로는 정선아리랑 공연,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정선아리랑 노랫말짓기대회, 정선아리랑 체험의 장(멍석아리랑) 같은 것들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행사로는 정선아리랑 창극, 정선아리랑 마당극, 정선아리랑 총체극, 아라리 문학축전이 있다.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전승에 해당하는 행사로 기본이 되는 것은 정선아리랑 공연이다. 이 행사는 기능보유자와 정선아리랑보존회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서 정선아리랑의 전승 상황을 보여주는 시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선아리랑 경창대회는 정선



아리랑의 전승을 이어갈 인재를 발굴하는 대회이기에 정선아리랑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사는 정선아리랑제의 출범과 함께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대회의 입상자들이 정선아리랑 기능보유자로서 전승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명예기능보유자 김병하, 현재 기능보유자 김남기, 김형조, 김길자가 모두 정선아리랑 경창대회를 통해 배출되었다. 정선아리랑 노랫말짓기대회는 가사가 풍부한 정선아리랑의 특성을 이어가며, 동시에 노래에 담길 정서와 생활도 정선아리랑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정선아리랑 체험의 장은 축제 참여자들이 정선아리랑을 배우고 불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서 전승의 저변을 넓히고 아울러 축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정선아리랑의 활용과 관련된 행사는 연극이 중심을 이룬다. 정선아리랑 창극 작품은 '아! 정선, 정선아리랑', '신들의 소리', '아우라지', '거칠현' 등이 있으며, 가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각 작품의 특성에 맞도록 새롭게 창작하기도 했다. 내용은 아라리를 불러온 정선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각 시대사적 굴곡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선아리랑 마당극의 작품은 '맹진사댁 경사'가 있다. 아라리를 곁들여 기존의 작품을 새롭게 꾸며냈다. 정선아리랑 총체극은 행사장 특별무대에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여 정선아리랑의 연원과 역사적 의미를 연출해내는 행사이다. 아라리 문학축전은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하거나 정선의 이미지를 그려낸 문학 작품을 낭송하며 음미하는 행사이다.

의의 정선아리랑제는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의 중심축의 하나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다. 그러므로 정선아리랑제는 지역의 전승문화를 가치 있게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꾸어 활성화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旌善 아라리의 硏究(姜騰 , 文堂, 1988), 정선아라리의 전승현장과 변이양상 연구(이현수,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강등학, 민속원, 2006), 아리랑축제(www.arirangfestival.org).

필자 | 강등학(姜騰)

진주민속소싸움대회(　　民俗-大　)

정의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매년 5월 논개제(論介祭)와 10월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 기간에 병행하여 열리는 축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최초의 전국 규모 소싸움대회이다. 넓은 들판을 가진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남강의 백사장에서 성 안팎의 부농(富農)들 간에 마을 세력을 겨루는 소싸움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가을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근 상설 소싸움장이 설치됨으로써 관광 상품으로서 기능도 확장된 진주의 전통민속축제이다.

유래 진주의 소싸움은 신라가 백제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하는 잔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다. 소를 먹이는 초동(樵童)들이 산에서 풀을 먹이면서 소끼리 싸움을 붙여왔다는 자연발생설도 전하고 있다. 소를 방목(放牧)하여 먹이면서 수소가 암소를 차지하기 위해 위세를 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붙게 되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소끼리의 싸움이 나중에 사람들이 개입하는 싸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이 1909년 〈경남일보〉에 발표한 '진양잡영(晋陽雜詠)' 12수 가운데 "농가의 8월은 막걸리가 향기롭다. 가을 곡식 드리운 꽃은 땅에 가득 차듯 누렇네. 천고의 영웅들이 전쟁하던 이 땅인데 지금에 이르러 투우장이 되었구나."라는 시와 "가을 풀 우거지고 밭갈이를 쉬었기로 목동(牧童)들은 한가한데. 억센 소가 힘이 솟아 분기(奮起)가 산과 같네. 뒤엉킨 뿔싸움 다투어 충돌하니, 절승(絶勝)한 제군(諸軍)들이 묵군(墨軍)을 파하고 돌아오네."라는 시에 진주 소싸움이 잘 나타나 있다. 장지연은 시를 발표한 후기에서도 "이곳의 투우가 심히 성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크게 충돌을 부리며 그 등약(騰躍)하고 포효하는 모습이 진실로 일대 장관이라 하였다. 이미 남강 백사장은 일제강점기 시작 전부터 '수무바다'라고 일컬어 소싸움 때면 백사장에 수많은 차일(遮日)을 치고 진주 인근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다.

오랫동안 소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의 구술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인 형태에서 시작하여, 진주의 성내와 성밖의 집단 소싸움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계속되어온 진주 성내와 성밖 간의 줄다리기와 함께 성안과 바깥의 지주들 간의 세(勢)를 과시하기 위한 소싸움이 추석(秋夕) 전후로 남강 백사장에서 큰 판으로 열렸다. 이 시기의 소싸움은 부농들이 중심이 되어 머슴을 두고 싸움소를 길러내고 비용을 전담하였으며, 부농에게 토지를 부치는 마을 사람들이 매구연습을 통해 응원에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의 자존심이 걸린 마을 대항전으로 열렸다. 남강 백사장에서 추석 전후 소싸움 판이 열리는 날은 "부잣집 뒤주 열어 놓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솥을 걸고 소머리 국밥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는 잔치판을 열었다. 소싸움에서 승리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이긴 소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며 자축하고 며칠간 동네잔치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진주 지역의 마을 소싸움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후, 규모가 커지고 대회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의 소싸움은 이전의 소싸움이 부농을 중심으로 한 마을 세력 겨루기 소싸움의 형식이었다면, 소싸움의 주체가 일소로 키우는 우축농가들로 바뀌었고 소싸움 주체도 확장되어 규모가 큰 대회로 자리 잡아갔다. 대회에 출전하는 소가 늘어나면서 광목필(廣木匹)을 부상으로 주기도 하고, 대회 외에도 막걸리 말술을 걸고 하는 장외의 내기 소싸움이 열리기도 하였다.

현재의 본격적인 대규모 체급별 투우 대회가 열린 것은 1971년부터이다. 이 시기부터는 대회 형식으로 개최되어 입상한 소에 체급별로 우승기와 상금을 수여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우승기를 수여하는 대회가 열렸지만 대회 요강(要綱)을 만들고 체급별 계량(計量)을 시작하고 소싸움 규칙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시행한 것은 전국에서 진주소싸움대회가 처음이다. 1980년에는 한국투우협회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여 정관과 규칙을 만들고 공식적인 전국 최초의 투우 단체로 출범하였다. 진주소싸움대회는 이때부터 개천예술제 내의 전통 민속놀이를 대표하는 또 다른 축제로 각광 받으면서, "개천예술제에 소싸움 구경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남 인근에서 제일로 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

진주소싸움축제는 매년 개천예술제와 동시에 열리며 또 2002년부터는 5월 진주논개제와도 때를 맞추어 열림에 따라 세인들의 이목을 더욱 더 끌고

있다. 이 진주소싸움은 관중의 대규모화로 인해 서장대(西將臺) 둔치와 진주공설운동장을 순회하면서, 대표적인 전국 소싸움대회로 발전하여 경상도 지역의 다른 소싸움대회들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회 운영 조직도 1980년 들어 틀을 새롭게 짰다. 경남일보사가 주최하고 싸움소 주인들로 구성된 한국투우협회가 주관하며 진주시 양축계, 축산업협동조합, 상공단체가 후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1990년 이후에는 소싸움이 진주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전통 민속과 관광 상품으로 더 중히 여겨져, 그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치들이 새롭게 나왔다. 우선 상설 경기장의 건립과 전문 싸움소 발굴과 싸움소 양축농가보급과 공적 자금지원, 지방자치단체의 대회주최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03년부터 남강변의 천수교 입구에 상설경기장을 갖추고 격주로 소싸움을 펼치다가, 2006년에는 진주 관문인 진양호 입구에 3천석 규모의 전용 상설 소싸움장을 개설하고 매주 토요일에 소싸움을 열고 있다.

내용 ① 소싸움의 존재 양식: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인 소싸움으로 개울가나 논밭에서 소규모로 열리다가 남강변 백사장의 개활지에서 추석 전후의 시기에 마을 대항 형식으로 열렸다. 해방이 된 후로는 우리나라 축제의 효시(嚆矢)라 불리는 개천예술제 기간의 민속 행사로 열리면서 전국 대회 규모의 형식을 갖춘 경남 지역의 볼거리로 자리 잡게 되고 전통과 역사가 가장 긴 대표적인 전국 소싸움 축제로 자리 매김하였다.

② 싸움소와 훈련: 싸움소는 품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황소 중에서 성격이 공격적이고 힘을 잘 쓰는 소를 훈련시켜 키운다. 싸움소의 판별은 대개 근성, 지구력, 싸움 기술의 세 가지 관점에서 한다. 외형으로 보아 귀가 작고 눈이 깊이 파인 소가 근성이 있고, 목이 굵고 가슴이 넓어야 근력이 좋으며, 뿔 사이가 좁고 이마가 두꺼우며 몸길이가 길어야 기술을 구사하는 데 유리하다고 한다. 소뿔의 형태는 옥뿔, 비녀뿔, 노고지리뿔로 크게 나뉘며 세 가지 형태가 조금씩 섞인 경우가 많다. 이 소뿔의 형태는 싸움소의 기술과 성격에 영향을 주는 무기(武器)나 마찬가지인데, 주로 옥뿔은 전방위로 돌출되어 찍기에 능하고, 노고지리뿔은 찌르기, 비녀뿔은 뿔걸기 기술을 사용하는 데 유리하다. 싸움소의 훈련은



소싸움 경남 진주 심디스마

달리기와 콘크리트를 채운 타이어 끌기로 지구력을 키우며, 나무찍기와 떠올리기 훈련으로 뿔치기 기술을 연마한다. 무엇보다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약한 소와 연습 경기를 자주 시켜 자신감을 키우는 연습을 가장 중히 여긴다.

③ 소싸움장과 경기 규칙: 소싸움장은 처음에는 인근 하천이나 남강변의 빈터에서 열렸으나, 투우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울장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엮어서 울을 치고 마사(磨砂)와 모래가 섞인 원형 경기장으로 바뀌었다. 경기규칙은 자연발생적인 소싸움이나 마을간 싸움일 때는 한쪽이 도망가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까지 무한정 싸우는 방식이었다. 1970년 무렵 투우대회 규정을 마련하고부터는 출전 방식, 심판, 승패에 대한 소싸움의 경기 규칙을 소싸움대회에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대회 규정은 나중에 다른 지역의 소싸움에도 널리 활용되어 전국 소싸움 대회 규정의 시안(試案)이 되었다. 소싸움 경기는 처음에는 눈대중으로 비슷한 소끼리 하다가 체급별로 나누어 갑, 을, 병종으로 나누어 싸움을 붙이게 되었다. 최근에 싸움소의 수가 늘면서 특갑, 특을, 특병으로 세분화하여 6체급으로 나누어 체급별 경기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친다. 소의 사육 방법이 발전하면서 체급별 중량도 높아져 1톤이 넘는 싸움소들도 다수 등장한다.

④ 내기: 마을 대항 형식일 때는 패한 쪽에서 막걸리나 음식을 이긴 쪽에 대접하였으나 대회 형식을 띄면서 점차 돈을 거는 내기판으로 변하였다. 소싸움 내기는 이긴 소에게 내기를 거는 맞대기 형식과 승산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에게도 거는 시간 버티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기는 경기 전에 미리 성사되지만, 경기 중에 내기를 거는 상대소간의 승리 배당 비율이 바뀌기도 하고, 시간 버티기와 맞대기가 병행되기도 한다.

의의 진주소싸움은 남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농경문화의 독특한 역사지리적 배경이 탄생시킨 전통민속이다. 남강 백사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소싸움은 진주성 안팎 마을 간 세력 경합의 대리전이라는 마을 공동체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소싸움이 조국 광복 후에는 민족 전승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마침내 우직한 황소의 가을 축제 판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진주소싸움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민속소싸움대회로서 그 의의가 더욱 더 돋보인다. 지방자치 시대 이후 전통 내기의 상설 소싸움 경기로 변화함으로써 관광상품화와 전통 민속의 열린 여가의 장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참고문헌 | 慶南民俗資料 (國文 院聯 慶尙南道支部, 1993), 김광언의 민속지(김광언, 조선일보사, 1994), 소싸움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고찰(한양명, 민속학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필자 | 고원규(高元圭)

처용문화제(容文)

정의 울산광역시에서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되는 지역문화축제. 처용문화제(處容文化祭)는 1967년 4월 20일 울산시 승격 기념일에 맞추어 개최된 울산공업축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5년에 열린 제29회부터 처용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처용문화제는 개막식과 거리퍼레이드, 처용맞이, 처용을 찾아라와 같은 주요 행사와 각종 공연 행사 그리고 처용 얼굴 만들기와 그리기, 처용민속놀이, 처용 관련 자료 전시 등으로 이루어진 체험, 전시 행사 및 경연대회로 구성된다. 시민 화합과 범시민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용문화제는 2005년으로 제39회째를 맞이하였다.

유래 1962년 2월 3일 있었던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에 이어 그해 6월 1일 시로 승격한 울산은 이후 한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업기념탑'이 세워졌다. 공업입국의 상징성을 살리고 기념탑 건립을 축하하기 위해 울산공업축제 위원회 주최로 제1회 울산공업축제가 1967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시민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문화, 예술, 체육의 잔치로 개최되었다.

1967년 4월 20일에 개최된 제1회 울산공업축제는 개막식과 성화점화, 학생무용경연대회, 한글시 백일장, 재울무용가발표회, 시서전, 영화의 밤, 장사씨름대회, 체육 행사 같은 다채로운 행사로 축제의 한마당을 꾸몄다. 이어서 제2회 울산공업축제가 울산시 승격 기념일에 맞추어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1968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울산공업축제는 본격적인 축제의 틀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제22회 울산공업축제가 개최

되어야 할 1989년에는 제27주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대축제라는 명칭의 축제가 개최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울산공업축제라는 명칭은 환경과 문화예술적 의미를 더욱 강화한 처용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2년 제27회 처용문화제에서는 축제 기간이 이틀에서 닷새로 늘어났다. 1993년에는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 처용문화제로 이름이 바뀌고 행사 기간이 다시 2일간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5년 제29회 처용문화제부터는 축제가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순수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었으며 10월 19부터 21일까지로 옮겨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로 해마다 규모를 늘리고 내실을 기해온 처용문화제는 2005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제39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처용문화제는 시민 화합과 범시민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 행사와 공연





2



3

〈처용문화제〉
1 처용맞이-처용제의
2 처용과 헌강왕 행차
3 처용맞이-처용무
울산시 남구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행사, 체험전시 행사, 경연대회가 개최하는데, 각 행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 저녁 식전공연과 함께 개최되는 개막식으로 시작되는 주요 행사는 다음날 오후 거리 퍼레이드로 이어진다. 거리 퍼레이드는 주로 신라시대 헌강왕(憲康王)의 어가행렬과 역사인물행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강왕이 개운포(울산 황성동)에서 처용을 만나 서라벌(경주)로 돌아가는 어가행렬을 재현한다. 거리 퍼레이드는 축제 시기와 상황에 따라 참여 단체와 형태가 변경되기도 한다.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처용과 헌강왕, 왕비의 역할은 '처용을 찾아라'라는 행사를 통해 시민 가운데에서 선발하는데, 이는 처용문화제의 홍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장치가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처용암에서는 처용맞이 행사가 펼쳐지는데,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처용무 공연이 함께 행해진다.

이 밖에도 주요 행사로 처용을 주제로 한 각종 무대 행사와 음악회, 무용극 등이 함께 열려 처용문화제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게 된다. 공연 행사로는 울산쇠부리놀이 및 응원제전, 댄스페스티벌 등의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데, 특히 등장의 장, 고사의 장, 쇠부리의 장, 정화의 장, 뒤풀이의 장으로 구성된 울산쇠부리놀이는 전통 불가마를 재현하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울산만의 특색 있는 놀이이다. 이러한 공연 행사는 울산 고유의 민속놀이를 널리 알리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체험 행사로는 처용얼굴 만들기와 처용 얼굴 그리기, 반구대 암각화 시민 체험, 처용 형상 목걸이를 만들어보는 부적 만들기 같은 행사와 연날리기와 떡메치기, 투호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이 행해지며, 각종 처용탈과 처용화상을 비롯한 처용 관련 자료의 전시도 이루어진다. 이 밖에 사생실기대회와 처용웅변대회, 풍물경연대회, 백일장 같은 행사들도 함께 열린다.

의의 1967년부터 시작된 처용문화제는 옛 울산공업축제부터 내려오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울산광역시의 대표적 문화축제로서 지역민들의 문화적 안식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특화된 처용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역사와 전통을 시민들에게 재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축제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 慶南民俗資料 (國文 院聯 慶尙南道支部, 1993), 의 民俗文 (康龍權, 東亞大 校 石堂傳 文 硏究院, 1996), 울산공업축제에서 처용문화제까지(蔚山文 院, 2000), 蔚山廣域市史5-사회·문화 편-(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처용문화제 개최결과보고서(울산광역시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2005).

필자 | 류종목(柳鍾穆)

탐라문화제(羅文)

정의 매년 10월 초에 제주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통문화축제. 본래 한라문화제(漢拏文化祭)라고 하였는데 2002년에 탐라문화제(耽羅文化祭)로 바뀌었다. '한라'로는 제주도 전통문화축제라는 점을 온전하게 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대신하여 '탐라'로 바꾸게 된 것이다. 탐라문화제는 2005년 현재까지 모두 44회에 걸쳐 열렸다.

내용 탐라문화제는 개벽 이래 거친 자연환경을 이겨내며 이어온 제주 고유 민속예술을 찾아 키우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본래부터 이러한 취지에서 행사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탐라문화제가 시작된 것은 1962년 5월로 명칭은 제주예술제(濟州藝術祭)였으며 행사가 열린 것은 5월 18일과 19일 이틀이었다. 이때는 5·16군사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은 제주도이며 주관한 것은 예총제주지부였다. 이 두 단체는 이후 제3회까지 제주예술제를 공동 주최하였다. 제주예술제는 대체로 기성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문학 등의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였다.



만덕제 제주도 제주시 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1 제6회 한라문화제
2 제7회 한라문화제
3 제11회 한라문화제
4 제12회 한라문화제
5 제18회 한라문화제
6 제25회 한라문화제
7 제26회 한라문화제
제주도 제주시 예총제주도연합회

학생들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일반인들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개최 시기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제주도 전통민속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였다.

지금과 같이 전 도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축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의 일이다. 이때 제주예술제가 한라문화제로 개칭되고 축제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다. 처음 열린 한라문화제는 이전 행사처럼 기성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행사가 주축을 이루었지만, 민요 합창, 입춘굿놀이 그리고 읍면 대항 걸궁 경연도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향토문화축제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후의 행사에서도 향토민속 행사가 크게 늘지 않았고, 경연 종목도 더는 확대되지 못하였다. 행사의 주최도 제주도와 예총제주지부의 공동으로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단독으로 하거나 하였으나 행사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해마다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빈번하게 열렸으나 뚜렷한 결실은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1981년에 개최된 제20회 한라문화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물허벅 경주, 듬돌들기, 제주마 경주 같은 행사가 추가되고 도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제21회 행사 때부터는 행사 일정도 매해 10월 20일로 고정되어 도민들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민요, 민속놀이, 민속무용 같은 다양한 종목의 경연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한라문화제의 행사 내용이 전통문화축제와 문화예술 행사로 대별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제30회 행사가 열린 1991년에 이르러 더 뚜렷해졌다. 전통문화축제의 성격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한라문화제의 전반적인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탐라문화제는 초기부터 지적되어온 축제의 주관, 재정 자립, 참여 확대, 관광자원화 같은 과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탐라문화제가 전통문화축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는 2002년 축제의 명칭을 탐라문화제로 바꾼 데서도 확인된다.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은 이 축제를 통하여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를 전승하고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탐라문화제는 제주도 민속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제주시 신산공원, 서귀포시 천지연 폭포, 대정읍 추사적거지(秋史謫居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행사가 펼쳐진다. 근래 열리고 있는 탐라문화제의 전체적인 구성은 대개 개막축제, 민속축제, 역사축제, 예술축제로 이루어진다.

개막축제는 만덕제(萬德祭), 개막식, 여는 마당, 개막축하 공연으로 구성된다. 만덕제는 사재를 털어 기아에 허덕이던 제주도민을 구한 의녀반수(醫女班首) 김만덕(金萬德) 의녀를 기리는 행사이다. 민속축제는 무형문화재축제, 학생민속예술축제, 시군향토축제로 이루어진다. 무형문화재축제는 다른 지방에서 초청된 고성오광대, 진도강강술래, 봉산탈춤, 황해도평산소놀음굿, 강릉관노가면극을 공연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인 칠머리당굿, 제주도무형문화재인 해녀노래, 영감놀이, 오메기술, 정동벌림장, 허벅장도 선보인다. 학생민속예술축제는 걸궁을 비롯한 민속예술 경연으로 이루어진다. 시군향토문화축제로는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에서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문화마을에서 전통민속 재현 행사가 벌어진다. 역사축제는 탐라선사인체험, 문화재체험으로 이루어진다. 탐라선사인체험은 가족과 함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행사이다. 문화재체험 행사는 탁본이나 목판을 직접 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축제로는 공연축제, 전시대전이 있다. 음악회, 무용제, 국악제, 문학백일장, 미술전, 사진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신당탐방, 오름탐방 같은 행사가 있는가 하면 영화제, 미술대회, 휘호대회, 궁도대회, 씨름대회, 서각전, 분재전, 향토음식전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의의 탐라문화제가 발전된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는 학교별, 마을별 민속경연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제주도 전역에서 행사가 분산 개최되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벌이는 제주도 사투리 말하기 경연대회와 같은 행사는 탐라문화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濟州道 3(濟州道, 1993), 濟州道 文 祭의 觀光資源 를 위한 政의 對應方案(植, 濟州大 校 碩士位論文, 1995).

필자 | 강정식(姜晶植)

태백제(白)

정의 강원도 태백시에서 해마다 10월에 열리는 종합축제. 태백시는 1981년 시로 승격되면서 산발적으로 열리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하여 1982년 제1회 태백제(太白祭)를 개최하여 오늘에 이른다. 천제(天祭)가 거행되는 태백산천제단(太白山天祭壇)은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태백제는 원래 신라시대 태백산(太白山) 정상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것에서 유래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일성이사금조(逸聖尼師今條)에 "일성이사금 왕 5년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다 친히 태백산에서 천제를 올리다(逸聖尼師今 五年冬十月北巡親祀太白山)."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삼척도호부조(三陟都護府條)에는 "태백산은 삼척 도호부의 서남쪽에 있는데 신라 때 오악(五岳) 가운데 북악(北岳)이라 하였다. 산꼭대기에는 신사(神祠)가 있는데 이름하여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이라 한다. 여러 고을 백성들이 봄, 가을로 천제를 올린다."라고 하였다.

성현(成俔)의 『허백당집(虛白堂集)』에는 "그 산은 동쪽으로 뻗어 동해를 임하여 삼척부가 있고 삼도(三道) 사람들이 산정에 신당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산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제사를 지낸 후에 신사 앞에 소를 매어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다가 3일 만에 와서 몰고 가는 습속이 있었다. 소를 두고 갈 때 뒤를 돌아보면 신의 벌을 받는다고 하여 금기를 지켰다고 하는데 소를 두고 가는 풍속을 퇴우(退牛)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삼척도호부조(三陟都護府條)에는 "신라 파사왕 때 태백산 정상에 단을 쌓고 청우(靑牛)를 제물로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후 중사(中祀)로서 나라에서 제를 올렸으며 그 뒤 산 정상에 천왕당(天王堂)이라고 하는 태백산사(太白山祠)를 짓고 경상도와 강원도 인근의 주민들이 봄, 가을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이는 태백제의 기원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늘과 산신에게 지내던 이러한 제의는 구한말 민족의 수난기에 제의의 대상이 단군으로 바뀌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년 개천절(開天節)에 봉행하여 오다가 오늘에 이른다.

내용 태백제의 주최는 태백제전위원회이다. 그리고 축제의 주관은 태백문화원, 예총태백지부, 민예총태백지부에서 맡아서 민간주도형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태백제가 시작되었던 1980년대의 주요 행사로는 단군제, 태백산신제, 산업전사위령제 등의 제례 행사, 백일장, 웅변대회, 노래자랑, 가장행렬 등의 문예경축 행사, 굿마당, 씨름, 윷놀이, 갈풀썰이, 지게싸움놀이 등의 전통민속 행사가 있었으나, 개편을 거듭하여 2005년에는 천제, 단군제, 산신제 등의 제례와 한밝백일장, 주부가요제, 국악공연, 전국사진공모전, 서예전시회, 사생대회 등의 문예 행사가 개최되었다. 또 씨름, 널뛰기, 통나무자르기, 배추쌓기, 갱목나르기, 동별장기자랑 등의 체육 행사도 개최되었다.

의의 태백제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향토축제이자 시민축제이다.



풍물놀이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三國史記, 世宗實錄, 白堂 ,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國文 藝術 院, 1987), 태백산 천제(겨祭)(김강산, 강원민속학15, 강원도민속학회, 2001).

필자 | 김경남(金京南)


1


2


3


4


5


6

1 태백산천제단
2 번시례
3 분향례
4 초헌례
5 종헌례
6 소지행렬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국립민속박물관





十

십일월

겨울 추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촌에서는 가을걷이가 끝나고
농한기로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겨우살이 준비는 이달부터이다.
남자들은 짚으로 이엉을 엮어
초가의 지붕을 얹고
가마니 오쟁이 멍석 같은
농기구를 엮으며
겨우내 쓸 땔감도 마련한다.

11월(　　)

개관 음력 11월은 동짓달, 지월(至月), 중동(仲冬), 자월(子月), 창월(暢月), 고월(辜月), 황종(黃鍾), 복월(復月), 양복(陽復) 등으로 일컫는다. 11월을 고대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자월이라 하여 세수(歲首)의 달로 삼았다. 이는 이달에 해가 남회귀선(南回歸線)에서 다시 북쪽으로 회귀하는 날인 동지(冬至)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겨울 추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촌에서는 가을걷이가 끝나고 농한기로 접어든다고는 하지만 겨우살이 준비는 이달부터이다. 남자들은 짚으로 이엉을 엮어 초가의 지붕을 얹고 가마니, 오쟁이, 멍석 같은 농기구를 엮으며, 겨우내 쓸 땔감도 마련한다. 또 부녀자들은 베짜기, 메주쑤기, 장담그기 같은 일을 한다.

절기 음력 11월에 드는 절기(節氣)로 대설(大雪)과 동지가 있다. 대설은 24절기 중 스물한 번째 절기로 태양의 황경(黃經)이 255도에 달한 때로서 양력 12월 8일 무렵에 든다.

동지는 24절기 중 스물두 번째 절기로 대설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무렵이다. 이날은 해가 남회귀선 곧 적도(赤道) 이남 23.5도인 동지선(冬至線)에 이르는 때인데, 이때 북반구에서는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14시간 26분이나 된다. 동지가 지나면 낮이 차차 길어지기 시작하고 봄기운이 시작되므로 『여씨춘추(呂氏春秋)』「중동기(仲冬紀)」에는 "이달에 낮의 짧기가 극에 달한다. 왕성한 음기는 이제 위로부터 수그러들고 미약한 양기가 아래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모든 싹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하였다. '사친가(思親歌)'에서도 "십일월 동지일에 만물이 미생(微生)하니, 일양(一陽)이 초동(初動)이라."라고 노래하였다. 동짓날을 기해서 비로소 일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중동에 거국적인 행사인 팔관회가 베풀어진 것도 결국 해가 새롭게 부활하는 동지가 들어 있어 이 행사가 신년의례겸 토속신에 대한 예축의례로서 치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동지는 설,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다. 동지를 일명 작은설, 아세(亞歲), 지일(至日)이라고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이날 관상감(觀象監)에서 이듬해의 달력을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은 황장력(黃粧曆)과 백장력(白粧曆)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새(御璽)를 찍어 모든 관원에게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이조(吏曹)의 아전들은 벼슬한 집에서 자신이 도맡아 고신(告身)을 써준 사람이 만약 직무에 취임하게 되면 그로부터 당참전(堂參錢)을 받고 통례로 청장력(靑粧曆) 한 권을 그 사람에게 바친다. 서울의 풍속에 단오에는 부채를 관원이 아전에게 나눠주고 동지에는 달력을 아전이 관원에게 바치는데 이를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한다. 이 풍속이 시골까지 전파되어 친지, 묘지기, 소작인도 그렇게 하였다. 내의원(內醫院)에서는 육계(肉桂), 산초, 당밀(糖蜜)을 쇠가죽을 이용하여 삶아 응고(凝膏)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을 전약(煎藥)이라 하여 진상하였으며, 각 관청에서도 이를 만들어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전약은 악귀를 물리치고 추위에 몸을 보(補)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한다. 홍석모(洪錫謨)의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동지아세(冬至亞歲)에 "동짓날 궁중에 버선을 바치고(獻襪金宮長至日)"라는 구절이 있다. 또 『성호사설(星湖僿說)』 권4 「만물문(萬物門)」 동지헌말조(冬至獻襪條)에서도 "지금 풍속에 새로 출가한 부인은 동지가 되면 시부모에게 버선을 바친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동지헌말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풍속은 중국 한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삼성혈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 입동권





1 버선짓기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서현강

2 동지팥죽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동짓달에 청어(靑魚)를 경남 통영과 해주[발해의 철리부(鐵利府)에 속한 지방 행정구역]에서 진상하면 종묘에 천신하였는데,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집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제주목(濟州牧)에서 귤, 유자, 홍귤을 진상하면 종묘에 천신하고 궁중 나인들과 근신들에게 하사하였다. 옛날 탐라의 성주가 귤을 바칠 때 치하하는 뜻으로 과거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이를 답습하여 태학(太學)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귤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과거 시험을 황감제(黃柑製)라 한다.

동지가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兒冬至], 중순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하순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로 나눔이 일반적이나, 지방에 따라서는 보름을 기준하여 동지가 보름 전에 들면 애기동지, 보름 이후에 들면 어른동지 또는 일반동지, 노동지로 나누기도 하고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기동지, 중순과 하순에 들면 노동지로 나누기도 한다.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와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창원시 대산면 갈전리에서는 동짓달 초사흘에서 초닷새 사이에 동지가 들면 애기동지라 한다.

동지에는 절식으로 팥죽을 쑤어 먹는데 중동지와 노동지에 주로 쑤어 먹는다. 그런데 경기도 남양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과 전북 익산, 전주 및 제주도의 남제주군에서는 노동지에만 팥죽을 쑤어 먹는다. 그런가 하면 애동지에 괴질로 죽은 사람이 있는 집과 괴질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팥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 애동지에 팥죽을 쑤면 아이들이 많이 죽거나 아이에게 액이 든다고 하여 팥죽을 쑤지 않고 대신 팥시루떡을 해서 먹는다. 또 강원도 원주, 철원, 횡성에서는 동짓날이 간지(干支)로 '병(丙)'자가 들면 병동지라 하여 팥죽을 쑤지 않는다. 이는 병(丙)과 병(病)이 동음이기 때문에 마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탈상(脫喪)을 하지 않은 집에서도 팥죽을 쑤지 않는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서는 탈상을 하지 않은 집에서 팥죽을 쑤면 죽은 사람의 혼령이 구천을 떠돈다고 하고, 기장읍 내리에서는 동네에 줄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경남 통영시 욕지면에서는 탈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지차사에 팥죽 대신에 녹두죽을 빈소에 차린다.

팥죽은 팥을 삶아 으깨어 체에 걸러서 그 팥물에다가 찹쌀이나 수수쌀로 만든 단자를 새알만큼씩 만들어 넣어 죽을 쑨 것인데, 이 단자를 지방에 따라 새알, 새알심, 새심이, 옹생이, 옹심이, 옹실내미, 용실렝이, 옹스레미, 오그랑이라 부른다. 그런데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서는 액막이하는 팥죽에는 새알심을 넣지만 동지차사에 쓰는 팥죽에는 넣지 않는다고 한다. 가묘(家廟)가 있는 집에서는 동지에 팥죽과 간단한 제물을 장만하여 동지차사를 올리고, 가신(家神)을 신앙하는 집에서는 성주, 조왕, 삼신, 터주, 용단지에 팥죽을 한 그릇씩 떠 놓는다. 주로 동지시(冬至時)에 맞추어 팥죽물을 그릇에 떠서 숟가락이나 솔잎으로 대문과 집 둘레의 담벽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뿌려 액을 막고 역귀(疫鬼)를 물리치고 나서 먹는다.

팥죽을 뿌려 역귀를 물리치게 된 연유를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공공씨(共工氏)가 변변찮은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동짓날 죽어 역귀가 되어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그런데 그 역귀가 생전에 팥을 두려워하였으므로 동짓날 팥죽을 먹어 그를 물리쳤다. 동짓날 중국에서 팥죽을 먹어 역귀를 쫓는 풍속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수용되고 고려시대에 보편화된 것이라 추정된다. 팥죽으로 역귀를 물리치는 것은 팥죽의 붉은 색이 벽사색(辟邪色)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지팥죽을 먹어야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동지를 작은설 또는 아세라고 하여 새해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동지팥죽을 먹을 때에는 나이 수만큼 팥죽의 새알심을 먹는다.

속신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겨울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으며, 세 집을 돌며 팥죽을 얻어먹으면 장수한다고 믿었다. 또 동짓날 팥죽에 든 새알심을 많이 먹어야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한다.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기 전에 팥과 솔잎을 외양간이나 변소 같은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며 "잡귀야 나가라, 잡귀야 나가라." 하고 연신 외쳐 잡귀를 몰아낸다.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서는 집안의 액운이 없어지라고 동짓날 수수를 빻아 동그랗게 만들어 그것을 화살에 꽂아 밖으로 멀리 쏘아 버린다고 한다. 경남 밀양시 부북면과 단장면에서는 동짓날 베개 속에 메밀껍질을 넣어 베개를 만들어 베고 자면 건강에 좋고 질병예방에도 좋다고 한다. 동짓날에 경북 영덕, 예천, 칠곡, 월성 등지와 경남 고성군 대가면에서는 동지할머니에게 대접한다면서 장독 위에 팥죽을 떠 놓는데 이렇게 하면 된장 맛이 좋다고 한다. 부산 강서구와 전북 군산에서는 동짓날 뱀 '사(蛇)'자를 종이에 써서 솥 위의 부엌 벽이나 집 기둥에 거꾸로 붙여 악귀의 퇴치와 침범을 막는다.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원장마을에서는 동짓날 뱀 사자를 써서 부엌문에 거꾸로 붙여 뱀이 부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점복 동짓달에 행하는 점복(占卜)에는 팥죽점, 새알심점, 날짐승점, 보리뿌리점, 용갈이점[龍耕占], 날씨점이 있다. 팥죽점은 동지팥죽을 그릇에 담아 놓고 시간이 경과한 뒤 팥죽의 표면을 보고 강우량을 점치는 것이다. 전북 임실, 순창, 장수와 전남 나주, 신안과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에서는 그릇에 담아 둔 팥죽의 표면에 금이 없거나 금 사이에 물기가 돌면 이듬해에는 비가 많아 풍년이 들고, 표면이 굳어져 금이 많거나 금 사이에 물기가 없으면 가물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에서는 팥죽을 열두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표면을 보는데, 금이 생기지 않고 그릇가에 물기가 빙 둘러 있는 달은 비가 흔해 좋고 세 갈래로 금이 나 있으면 가문다고 점친다. 반대로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서는 팥죽 표면이 많이 갈라진 그릇에 해당하는 달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또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에서는 팥죽을 달별로 열두 그릇을 차례로 떠보아 그 중 새알이 많이 담기는 그릇에 해당되는 달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동지에 팥죽이 쉬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반면 강원도 양구, 양양, 속초에서는 동짓날 날씨가 따뜻하여 팥죽이 일찍 쉬면 이듬해에 날씨가 더워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새알심점은 동지팥죽의 새알심으로 점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옹심이점이라고도 한다. 강원도 속초와 전북 순창, 경북 의성, 포항과 경남 통영에서는 동짓날 옹심이(새알심)를 빚을 때, 임신한 여자가 옹심이를 화롯불이나 부엌 아궁이에 구워보아 쪼개지면 딸, 길쭉하게 불거지면 아들이라 점친다. 메주점은 11월 중 메주를 말릴 때 갈라지는 금의 유무(有無)로 점치는 것이다.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는 메주를 말릴 때 금이 많이 나 있으면 가문다고 점친다.

날짐승점은 동짓날 저녁 솔개나 매가 마을 또는 지붕 위를 높이 뜨면 풍년이 들고, 낮게 뜨면 흉년이 들고 흉사가 일어난다고 한다. 해운대구에서는 동짓날 저녁에 마을 또는 집 위에 매가 높이 뜨면 그해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한다. 보리뿌리점은 입춘(立春)에 행하는 보리뿌리점과 같다. 부산에서는 동짓날 저녁에 보리뿌리를 뽑아 뿌리가 깊이 내렸으면 보리농사가 풍작이고 낮게 내렸으면 흉작이라고 한다. 전남에서는 보리뿌리가 셋이면 풍년이고 둘이면 평년, 하나면 흉년이라 점친다.

용갈이점은 연못의 얼음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갈라졌는가를 보고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호서(湖西)의 홍주(洪州) 합덕지(合德池)에 매년 겨울 용갈이[龍耕]의 괴이함이 있는데, 언덕가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세로로 용갈이가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있으면 흉년이 들며, 동서남북에 종횡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영남 밀양의 남지(南池)에도 용갈이로 점친다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연안도호부(延安都護府) 산천조(山川條)에도 와룡지[臥龍池, 南大池]에 겨울철 못의 얼음이 가로로 갈라지면 풍년이 들고 세로로 갈라지면 물이 넘치며, 갈라지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였다.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에도 용갈이가 남쪽을 향해 갈려 있거나 복판만 갈려 있으면 풍년, 북을 향해 엇갈리거나 옆으로 갈려 있으면 흉년, 좌우로 마구 갈려 있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복 행위는 유사주술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날씨점은 동짓달 초하루에 바람이 불면 보리가 잘 되고, 동짓날 밤이 청랑하면 모든 작물이 흉작이며, 동짓달 중에 무지개가 서면 콩이 잘 되고, 그믐에 풍우가 있으면 봄에 춥고 가물다고 한다. 또 동지에 얼음이 얼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고, 이날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가을에 비가 많지만 남쪽에서 불어오면 여름에 큰 가뭄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오동지라는 말이 있듯이 경남 함안과 합천, 경북 영양에서는 동지에 비가 많이 오면 이듬해 5월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동짓날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에 충해(蟲害)가 없다고 하고, 이날 자정에 천둥이 있으면 양기가 선동(先動)하므로 풍년이 들 징조라 한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서는 첫눈이 밤에 사람 모르게 많이 오면 풍년이 들고, 낮에 조금만 오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과 기장군의 여러 마을에서는 겨우내 밤새 모르는 사이에 눈이 세 번 오면 풍년이 들고 시절이 좋다고 한다. 제주도



풍등놀이
경남 통영 한산대첩기념사업회

북제주군에서는 동짓날 눈이 많이 오면 물이 흔해 풍년이 들고 보리농사도 잘 된다고 한다.

동지가 10월 상하순 무렵에 들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에서는 동지가 일찍 들면 풍년이 들고 늦게 들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다.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서는 동지가 동짓달 초에 들면 팥이 흉작이고 늦게 들면 팥이 풍작이라 점친다. 전남에서는 동짓달 스무날에 달이 완전히 지고 나서 동이 트면 시절이 좋고, 달이 지면서 또는 달이 지지 않았는데 날이 새면 시절이 나쁘다고 점친다. 동짓날 닭 울음소리가 열 번 이상 들리면 풍년이 들고 그 이하이면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금기 동짓날 밤에 부부간의 방사(房事)를 금한다. 경남 양산과 의령, 울산광역시 울주,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가덕도에서는 동짓날이 일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로 이날 밤을 경건하게 무사히 보내야 탈이 없는데, 부부간에 방사를 하면 잡귀가 시기하여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남자가 급사(急死)하거나 남자에게 액운이 닥친다고 믿었다. 한편 부산 금정구 금성동과 두구동에서는 동짓날 밤에 호랑이가 교미하기 때문에 이날 밤 부부가 방사하면 부정을 타서 자식이 귀하다고 여겼다.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 2리에서는 동짓날 바가지를 머리에 쓰면 흉년이 든다고 하여 쓰지 못하게 하였다. 전라도에서는 동짓달 처마에 달린 고드름을 아이들에게 끊지 못하게 한다. 고드름을 끊는 것은 곧 나락의 모가지나 수수의 모가지를 끊는 것과 같아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한편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에서는 고드름을 끊으면 서숙 농사가 안 된다고 한다.

절식 동짓달 절식으로 냉면(冷麵), 골동면(骨董麵), 동치미, 장김치(醬-)가 있다. 냉면은 메밀국수를 무김치, 배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섞은 것이고, 골동면은 잡채와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썬 것과 기름, 간장을 메밀국수에 섞은 것이다. 동치미는 소금물에 크기가 비교적 작은 무와 배, 풋고추를 넣어 삭인 물김치이고, 장김치는 무, 배추, 미나리, 생강, 고추로 담근 김치이다.

잡사 동지가 되면 머슴은 고공(雇工)살이의 계약이 끝나 주인집을 떠난다. 동짓날 팥죽을 먹고 세경(일년치의 삯)을 받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2월 1일부터 동지까지 일하면 계약 기간이 끝난다. 농촌에서는 14일에 이듬해 메뚜기, 멸구 같은 충해를 막기 위해 논둑이나 밭둑을 태운다. 강원도와 경북 청송, 전북 장수에서는 정월대보름 때처럼 동짓날 남자에게는 "팥죽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을 하라."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팥죽 아홉 그릇 먹고 삼 아홉 광주리를 삼아라."라고 한다. 또 전북 익산과 무주에서는 "동짓날은 팥죽을 열두 그릇 먹고, 나무도 열두 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팥죽을 많이 먹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이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11월의 기념일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소방의 날, 농업인의 날, 순국선열의 날, 무역의 날이 있다. 이달의 현대세시로 빼빼로데이(-Day), 오렌지데이(Orange Day), 무비데이(Movie Day), 쿠키데이(Cookie Day)가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陶厓詩集,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星 儼說, 呂氏 秋, 洌陽歲時記, 禮記, 楚歲時記, 朝鮮の占卜と豫言(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3),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文 財管理局, 1969~1981),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國歲時 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속초의 향토민속(속초문화원, 199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교육출판공사, 1993),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中 節日 俗全書(趙 根, 山書社, 1996), 國의 歲時 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國의 歲時 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의 축제(이송미, 성하출판,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세시풍속 I (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승찬(金承璨)

가월(葭)

정의 율관 속에 있는 갈대 줄기 속의 엷은 막을 태운 재가 처음 움직인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황종(黃鍾), 동지(冬至), 지월(至月)이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갈대 줄기 속에 있는 엷은 막을 태운 재를 서로 다른 율관 속에 넣은 다음 나무 상자 속에 넣어 3중의 밀실에 두고, 어느 율관 속에 있는 재가 움직이는가를 관찰하여 열두 절기를 알았다. 이때 황종 속에 들어 있던 재가 움직이면 동지가 된 것으로 여겼는데, 이는 황종은 십이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율관이고 동지는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기는 때이기 때문이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소지(小至)' 시에 "하늘의 때와 사람 일이 날마다 서로 재촉하니, 동짓날 양의 기운 생겨 봄이 또 돌아왔네. 수놓은 다섯 음효에 미약한 실 같은 양효 하나 더해지니, 육관 속에 기운이 이르러 재가 문득 날리네(天時人事日相催 冬至陽生春又來 刺繡五紋添弱線 吹葭六琯動飛灰)."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고사성어고(古事成語考)』「세시편(歲時篇)」에 "동지가 되면 갈대 속 태운 재가 날리고 입추가 되면 오동잎이 떨어지네(冬至到而葭灰飛 立秋至而梧葉落)."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古事成語考, 律呂新書, 纂註分類杜詩.
필자 | 류상범(柳尙範)

고월(辜)

정의 한 해가 거의 다 지나서 옛 일이 되었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고(辜)는 고(故)와 같은 글자이다.

내용 『이아(爾雅)』「석천편(釋天篇)」 월명조(月名條)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청(淸)나라 유월(兪樾)의 『군경평의(群經平議)』「이아(爾雅)」2에 "11월을 고(辜)라 하고 12월을 도(涂)라 하니, 고(辜)는 옛날의 의미이고 도(涂)는 다 지나갔다는 의미이다. 한 해 중에 이 시기가 되면 옛 것을 다 제거하고 새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11월을 고(故)라 부르고 12월을 제(除)라고 부른다(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 辜之言故 涂之言除也 一歲至此 將除去故舊而更新矣 是以十一月謂之故 十二月謂之除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群經 議, 爾雅.
필자 | 류상범(柳尙範)

기한(祈)

정의 기(祈)는 크다[祁]는 의미이고 기한(祈寒)은 추위가 매우 혹독한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중국 원(元)나라 게혜사(揭傒斯)의 『문안집(文安集)』 권13 「유복묘지명(劉福墓誌銘)」에 "학문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문득 가서 서로 교유하였고, 대인 선생이 계시면 문득 가서 의심스러운 일을 여쭈었으며, 추위가 혹독[祈寒]하거나 더위가 심할 때에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聞有學出己上 便往與交 聞有大人先生 便往質其所疑 祈寒極暑不懈)."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송신종 희녕(宋神宗熙寧)」 8년조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듣자니 백성들이 신법(新法)을 매우 고통스러워한다고 한다'라고 하시니, 왕안석(王安石)이 답하기를 '혹독한 추위나 심한 더위, 많은 비에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한탄하니 이런 일로 심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런 일이 혹독한 추위[祈寒]나 심한 더위, 많은 비에 대한 원망처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帝曰聞民間殊苦新法 安石曰祈寒暑雨 民猶怨咨此無庸卹 帝曰豈若幷祈寒暑雨之怨亦無邪)."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文安集, 續資 鑑.
필자 | 류상범(柳尙範)

남지(南)

정의 해가 남쪽의 극점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지월(至月), 동지(冬至)라고도 한다.

내용 『한서(漢書)』 권21 「율력지(律曆志)」 상(上)에 "『춘추(春秋)』에 이르기를 소공(昭公) 20년 2월 기축에 '해가 남으로 끝까지 갔다'하였으니 이것은 윤월(閏月)을 잘못 계산하여 동지(冬至)가 제 달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전(傳)에 동지(冬至)라 쓰지 않고 '해가 남으로 끝까지 갔다'고 쓴 것이다(春秋曰……至昭二十年二月己丑 日南至 失閏 至在非其

月 梓愼望氛氣而 弗正 不履端於始也 故傳不曰冬至而曰日南至).”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
필자 | 류상범(柳尙範)

동짓달[冬]

정의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짓달을 어학적으로 보면 ‘동지(冬至)+ㅅ+달[月]’로서 ‘동지의 달’이며 ‘ㅅ’은 사잇소리[間音]이다. 곧 11월의 절기인 동지가 들어 있는 동짓달[冬至月]이며 줄임말로는 동지(冬至)가 된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11월을 ‘동지ㅅ둘’이라고 하였다. 지월(至月) 또는 창월(暢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11월은 중동(仲冬)이라 하며 대설(大雪)과 동지의 절기가 들어있다. 고려가요 ‘동동(動動)’에는 “1 1월ㅅ 봉당 자리예 아으 한삼(汗杉) 두퍼 누워 슬 홀ᄉᆞ라온뎌 고우닐 스싀움 녈셔 아으 동동(動動)다리”라고 11월을 노래하였으며,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도 11월을 “십일월은 중동이라 대설 동지 절기로다. 바람 불고 서리치고 눈 오고 얼음 언다. …… 해 짤라 덧이 없고 밤 길기 지루하다. …… 등잔불 긴긴 밤에 길쌈을 힘써 하노. …… 늙은이 일 없으니 기작이나 매어보세.”라고 하여 동짓달은 ‘대설동지’이며 ‘바람 불며 서리치고’의 계절이면서 ‘해 짤라 밤 길기 지리하다’를 느낄 수 있고, ‘기작이나 매어보세’에서처럼 돗자리를 짜는 계절이라고 하였다.

동짓날은 음력으로는 11월이지만 양력으로는 12월 22일 무렵인데, 한자로는 아세(亞歲)라고 하여 작은설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사민월령(四民月令)』에 보면, 중국에서는 조상의 제사며 군사(郡師) 기로(耆老)를 모시기를 정월(正月)과 같이한다고 하였다. 『송서(宋書)』에도 동지의 조하(朝賀)는 모두 원일(元日)의 의식과 같다고 하고 이날 팥죽을 먹는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도 동지를 맞이하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여, 설날에 떡국을 먹어 나이 한 살 더 먹는 경우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 이것은 동지와 설날을 동격(同格)으로 본 것으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도 동짓날을 아세라 하였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四民月令, 宋書,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 校 部, 1964),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복월( )

정의 복월(復月)은 양의 기운이 회복된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신양(新陽), 양복(陽復), 선양(線陽), 일선양(一線陽)이라고도 한다.

내용 복괘(復卦; ䷗)는 『주역(周易)』의 64괘(卦) 중의 하나로 상괘(上卦)는 곤괘(坤卦; ☷)이고 하괘(下卦)는 진괘(震卦; ☳)로 이루어졌다. 우리 조상들은 주역의 64괘 중 12괘를 택하여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동짓달을 복괘라고 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류상범(柳尙範)

설한( )

정의 눈이 내리고 추위가 매우 심하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응호(凝沍), 성한(盛寒)이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11월은 북방의 시베리아 기단이 매우 강하게 발달하여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많이 유입된다. 이 때문에 이 시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차가운 북풍도 강하게 불어오며 특히 눈이 내린 뒤에 불어오는 북풍은 더욱 차갑게 느껴진다. 이달에는 24절기 중에서 눈이 많이 내린다는 소설(小雪)과 대설(大雪)이 들어 있다. 『동문선(東文選)』 권9에 수록된 ‘동봉관의 하교를 지나며(過東峯館河橋)’ 시에 “뾰족뾰족 뭇 봉우리 사이에 무지개다리가 푸른 시내에 걸쳤네. 이 설한에 북으로 가기 시름일러니 따스한 바람 불면 동으로 돌아오리(蔟蔟亂峯間 虹橋跨碧灣 雪寒愁北去 風暖喜東還).”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東文選.
필자 | 류상범(柳尙範)

신양(　　)

정의 양의 기운이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신양(新陽)은 『주역(周易)』의 복괘(復卦)에서 온 말이며 달리 복월(復月), 선양(線陽), 일선양(一線陽), 양복(陽復)이라고도 한다.

내용 신흠(申欽)의 『상촌집(象村集)』 권12에 실린 '동고가 소릉하 도중에서 지은 운을 차하다(次東皐少陵河途中韻)' 시에 "절서가 사람 몰아 날마다 재촉하여 동짓날[新陽] 갈대 속에 재가 날아 움직이네(歲序驅人日日催 新陽葭管動飛灰)."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象村集, 周易.
필자 | 류상범(柳尙範)

양복(　　)

정의 양의 기운이 회복되었다는 뜻으로 『주역(周易)』의 복괘(復卦)에서 온 말이며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복월(復月), 선양(線陽), 일선양(一線陽), 신양(新陽)이라고도 한다.

내용 기대승(奇大升)의 『고봉집(高峯集)』 권1에 실린 '서당에서 임금이 출제한 아세를 쓰다(書堂御題亞歲)' 시에 "박이 다하면 양이 다시 생기니 면면히 땅 속에서 배태했네(剝盡陽復生 綿綿胚窮泉)."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高峯集, 周易.
필자 | 류상범(柳尙範)

오동짓달

정의 음력 11월을 달리 이르는 말.

내용 오동짓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오-동지(-冬至)'로서 동지가 동짓달 초순에 들어 있는 경우이며, 둘째는 오동지(五冬至)로서 음력 오월과 동짓달을 말함인데 이는 동짓달에 오는 눈의 양을 보고 이듬해 오월에 올 비의 양을 헤아릴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오-동지'는 문헌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동지는 없으므로 '오-동지'는 오동짓달을 말하는 듯하고, 오동지라고 말함은 다분히 민속적인 듯하다. 곧 애동지[兒冬至]를 '오-동지'라고 하며 이것은 동지가 동짓달 상순에 들어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 또한 만주어에서 '兒'를 'ajige'라고 하는데 이 '兒'인 '애-'와 'ajige'의 'aji-'인 'ajige-'의 어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만주어인 '兒'와 '애', '아이', '아직' 그리고 만주어인 'ajige'는 동근어(同根語)인 셈이다. 우리 민속에는 애동지가 들면 그해는 아이들이 무고하며 매사에 좋다고 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 滿　辭典(羽羽田 亨, 京都大　, 昭　12年),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　校　　部, 1964),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集文堂, 1987),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응호(　氷)

정의 세상 만물이 다 얼어붙어 응결될 정도로 매우 춥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설한(雪寒), 성한(盛寒)이라고도 한다.

내용 『육신주문선(六臣註文選)』 권15에 실린 중국 한(漢)나라 장형(張衡)의 '사현부(思玄賦)'에 "맑은 샘이 얼어서 흐르지 않네(淸泉氷而不流)."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춘추좌전(春秋左傳)』「소공(昭公)」



얼어 있는 논 심디스마

4년조에 "얼음을 보관하는 곳은 깊은 산 궁벽한 골짜기이니, 이런 곳은 진실로 늘 그늘지고 얼음이 얼 정도로 추운 곳이기 때문이다(其藏氷也 深山窮谷 固陰沍寒)."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六臣註文選, 秋左傳.
필자 | 류상범(柳尙範)

자월(　　)

정의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자(子)는 십이지(十二支)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子)는 11월에 해당한다.

내용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권4 「선택(選擇)」 월건길신조(月建吉神條) 주(註)에 "자월(子月)을 11월, 축월(丑月)을 12월로 하고 각 달마다 길신에 해당되는 간지(干支)를 선택하여 각 해당하는 길신(吉神)에 나열해 놓음으로써 혼인(婚姻), 건축(建築), 장매(葬埋), 출행(出行) 같은 제반 행사를 시행하기 좋은 날을 가려 쓰기에 간편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論語, 山林經濟, 書經.
필자 | 김정석(金正錫)

정동(　冬)

정의 제대로 갖춰지는 것을 뜻하는 정(正)자와 겨울을 뜻하는 동(冬)자가 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정(冬正)이라고도 한다. 11월은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중의 하나이며, 양의 기운 하나가 첫 번째로 생겨나는 달이라는 의미이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권10 「경신편(敬愼篇)」에 "정동(正冬)에는 느릅나무 잎을 딴다(正冬采榆葉)."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북사(北史)』 「수방릉왕용전(隋房陵王勇傳)」에는 "황태자가 비록 왕위 승계에서 윗자리에 있지만 의리상으로 보면 신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각 지방의 모든 수령들이 정동(正冬)에 황제를 뵙고 축하를 드리며 공물을 바칠 때에 동궁에 따로 올립니다(皇太子雖居上嗣 義兼臣子 而諸方岳牧正冬朝賀 任土作貢 別上東宮)."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北史, 說苑.
필자 | 최호석(崔　晧)

중동(　冬)

정의 겨울의 가운데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고월(辜月), 창월(暢月), 복월(復月), 양복(陽復), 남지(南至), 지월(至月), 가월(葭月), 황종(黃鍾), 자월(子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서경(書經)』 「요전(堯典)」에 "해가 짧아지고 묘수(昴宿)가 남중하는 때로 중동을 삼으라. 그리하면 백성들은 아랫목에서 편히 쉬고 짐승들은 털갈이를 할 것이다(日短星昴 以正仲冬 厥民隩 鳥獸氄毛)."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중동의 달에 해는 두수(斗宿)에 있고, 저녁에는 동벽성(東壁星)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진수(軫宿)가 남중한다. …… 얼음이 더욱 굳어지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티티새는 새벽에 울지 않고 호랑이는 교미를 시작한다(仲冬之月 日在斗 昏東壁中 旦軫中……氷益壯 地始坼 鶡旦不鳴 虎始交)."라고 하였다. 이 밖에 『회남자(淮南子)』 「시칙훈(時則訓)」과 『여씨춘추(呂氏春秋)』 「중동기(仲冬紀)」에도 「월령편」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書經, 呂氏　秋, 禮記,　南子.
필자 | 신하령(申　令)

지월(　　)

정의 양의 기운 하나가 처음 생기는 절기인 동지가 들어 있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남지(南至)라고도 한다.

내용 『광재물보(廣才物譜)』 「천도부(天道部)」 11월편에 "11월은 건자월(建子月), 고월(辜月), 중동(仲冬), 지월(至月), 주정(周正), 창월(暢月), 일지일(一之日)이라고 한다(十一月 建子月 辜 仲冬 至月 周正 暢月 一之日)."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廣才物譜.
필자 | 류상범(柳尙範)

지한( )

정의 동짓달의 추위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지호(至沍)라고도 한다.

내용 『한훤차록(寒暄箚錄)』 권1 「시령류(時令類)」 지월조(至月條)에 "설한(雪寒), 설호(雪沍), 지한(至寒), 지호(至沍), 졸한(猝寒), 응호(凝沍), 극호(極沍), 극한(極寒), 대한(大寒), 대설(大雪), 심한(甚寒), 융한(隆寒), 기한(祈寒), 동난(冬暖), 학한(虐寒)이라고 한다(雪寒 雪沍 至寒 至沍 猝寒 凝沍 極沍 極寒 大寒 大雪 甚寒 隆寒 祈寒 冬暖 虐寒)."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箚錄.
필자 | 류상범(柳尙範)

지호(沍)

정의 동짓달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추위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지한(至寒)이라고도 한다.

내용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해남윤씨편(海南尹氏篇)」 간찰류(簡札類)에 "눈보라가 심한 추위 속에 하인 편에 보내주신 편지를 읽고, 동짓달 얼음[至沍]이 꽁꽁 얼어 있는 추위에도 신령이 보호하듯 원기가 왕성하시다는 것을 알고는 제 마음이 매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러러 송축하는 바입니다(雪窻中涓漢來到 謹承審至沍 靜體事護旺 昻慰且頌)."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古文書集成, 箚錄.
필자 | 류상범(柳尙範)

창월( )

정의 창(暢)은 내부를 가득 채운다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동(仲冬), 지월(至月), 주정(周正), 남지(南至)라고도 한다.

내용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음력 11월은 땅의 기운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이를 일러 천지의 방이 열렸다고 한다. 여러 곤충들이 다 죽고 백성들은 역병이 생기며 죽는 일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11월을 이름하여 창월이라고 한다(仲冬之月 地氣沮泄 是謂發天地之房 諸蟄必死 民必疫疾 又隨以喪 命之曰暢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예기집설(禮記集說)』 권45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서 "이달을 가득 채우는 달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만물들로 하여금 내부를 충실하게 가득 채움으로써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言名此月爲充實之月 當使萬物充實 不發動故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禮記, 禮記集說.
필자 | 류상범(柳尙範)

황종( )

정의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은 낮은 음으로부터 황종(黃鍾),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鍾),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鍾),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鍾)의 순으로 되어 있다.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첫 음인 황종은 11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후한(後漢) 반고(班固)의 『백호통의(白虎通義)』 「오행편(五行篇)」에 "11월을 황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황(黃)은 중화(中和)의 색이고 종(鍾)은 움직인다는 뜻이니, 양의 기운이 땅 속에서 움직여 만물을 배양한다는 의미이다(十一月謂之黃鍾何 黃中和之色 鍾者動也 言陽氣動於黃泉之下 動養萬物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 義.
필자 | 홍성훈(性)



氣 절기

동지에는
동지팥죽을 먹는다.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하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부른다.





1 대설 풍경 이억영

2 오늘은 大雪
서울일보 1956년 12월 7일

대설(大)

정의 24절기 가운데 스물한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소설(小雪)과 동지(冬至)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소설에 이어 오는 대설(大雪)은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래 재래 역법(曆法)의 발상지이며 기준 지점인 중국 화북지방(華北地方)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이 시기에 적설량(積雪量)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내용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인 대설은 시기적으로는 음력 11월, 양력으로는 12월 7일이나 8일 무렵에 해당하며 태양의 황경은 255도에 도달한 때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음력 10월에 드는 입동(立冬)과 소설, 음력 11월에 드는 대설과 동지 그리고 12월의 소한(小寒), 대한(大寒)까지를 겨울이라 여기지만, 서양에서는 추분(秋分) 이후 대설까지를 가을이라 여긴다.

특히 24절기 중 대설이 있는 음력 11월은 동지와 함께 한겨울을 알리는 절기로 농부들에게 있어서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농한기(農閑期)이기도 하다. 옛 중국에서는 대설로부터 동지까지의 기간을 다시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산박쥐가 울지 않고, 중후(中候)에는 범이 교미하여 새끼를 치며, 말후(末候)에는 여지(荔枝: 여주)가 돋아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열두 달에 대한 절기와 농사일 및 풍속을 각각 7언 고시의 형식으로 기록한 19세기 중엽 소당(嘯堂) 김형수(金逈洙)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 11월이라(時維仲冬爲暢月)
대설과 동지 두 절기 있네(大雪冬至是二節)
이달에는 호랑이 교미하고 사슴뿔 빠지며(六候虎交麋角解)
갈단새 울지 않고 지렁이는 칩거하며(鶡鴠不鳴蚯蚓結)
염교(부추)는 싹이 나고 마른 샘이 움직이니(荔乃挺出水泉動)
몸은 비록 한가하나 입은 궁금하네(身是雖閒口是累)
……(하략)……

이 시기는 한겨울에 해당하며 농사일이 한가한 시기이고 가을 동안 수확한 피땀 어린 곡식들이 곳간에 가득 쌓여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풍성한 시기이다. 한편 이날 눈이 많이 오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지지만 실제로 이날 눈이 많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또 눈과 관련하여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보리를 덮어 보온 역할을 하므로 동해(凍害)를 적게 입어 보리 풍년이 든다는 의미이다.



폭설
충북 제천 심디스마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穡經,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國의 歲時 俗(金星元, 明文堂,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사전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이관호(李官)

동지(冬)

정의 24절후의 스물두 번째 절기.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개관 동지(冬至)는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남회귀선) 곧 황경(黃經) 270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그래서 양력 12월 22일이나 23일 무렵에 든다. 양력으로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兒冬至], 중순에 들면 중동지(中冬至), 그믐 무렵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태양력인 동지에다가 태음력을 잇대어 태음태양력으로 세시풍속을 형성시켜 의미를 부여하였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라 하였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하는 것이다. 이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라는 말처럼 동지첨치(冬至添齒)의 풍속으로 전하고 있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여 '호랑이장가가는날'이라고도 부른다.

중국 주나라에서는 이날 생명력과 광명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여 동지를 설로 삼았다. 당나라 역법서(曆法書)인 선명력(宣明曆)에도 동지를 역(曆)의 시작으로 보았다. 『역경(易經)』에도 복괘(復卦)에 해당하는 11월을 자월(子月)이라 해서 동짓달을 일년의 시작으로 삼았다. 동지와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당(唐)의 선명력을 그대로 썼으며, 충선왕 원년(1309)에 와서 원(元)의 수시력(授時曆)으로 바뀔 때까지 선명력을 사용하였다. 이로 보아 충선왕 이전까지는 동지를 설로 지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구미(歐美) 각국의 성탄절(크리스마스)도 초기 기독교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Mithraism)의 동지 축제일이나 태양 숭배의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게 한 것이다. 신약성서에도 예수의 탄생 날짜 기록은 없다. 농경민족인 로마인의 농업신인 새턴(Saturn)의 새턴네리아 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성했고, 그 중 25일이 특히 동지 뒤 태양 부활일로 기념된 날이었다.

궁중풍속 궁중에서는 원단(元旦)과 동지를 가장 으뜸되는 축일로 생각하여 동짓날 군신(君臣)과 왕세자(王世子)가 모여 잔치를 하는 회례연(會禮宴)을 베풀었다.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하여 이날을 축하하였고, 지방의 관원(官員)들은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궁에 바친다. 나라에서는 이 책에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어새를 찍어 백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달력은 황장력(黃粧曆), 청장력(靑粧曆), 백장력(白粧曆)의 구분이 있고, 관원들은 이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것을 단오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아울러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는 지방 수령들에게 표지가 파란 청장력을 선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달력은 내용이나 효용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특히 옛날에는 농경사회였던 만큼 24절기 등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달력이 요긴하

였고, 기재 내용도 그에 맞게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요즈음에도 동지 무렵의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은 여전하다.

황감제(黃柑製)라는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였는데, 『동국세시기』 11월조에 제주목에서 귤, 유자, 귤감을 진상하는 일을 적고 있다. 이 귤들을 종묘에 진상하고 신하들에게도 나누어준다. 옛날 탐라의 성주가 이를 바칠 때 치하하는 의미에서 과거를 설치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를 답습하여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이고 귤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과거의 이름을 감제(柑製)라 했다. 내의원에서는 소의 다리를 고고 여기에 백강(白薑), 정향(丁香), 계심(桂心), 청밀(淸密) 등을 넣어서 전약(煎藥)을 만들어 진상하였는데, 각 관청에 이를 나누어 주었다. 이 약은 악귀를 물리치고 추위에 몸을 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동지가 되면 동지하례(冬至賀禮)를 행하며 버선을 선물하는데 이를 동지헌말(冬至獻襪)이라고 한다. 또 종묘에 청어(靑魚)를 천신하는데 경사대부(卿士大夫)의 집에서도 이를 행하였다고 한다.

민간풍속 동짓날이 되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연못의 수면이 얼어붙어 얼음의 모양이 쟁기로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된다. 이것을 용갈이[龍耕]이라고 한다. 『동국세시기』 11월 월내조에는 "충청도 홍주 합덕지에 매년 겨울이 되면 얼음의 모양이 용이 땅을 간 것 같이 되는 이상한 변이 있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 갈아나간 자취가 있으면 이듬해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복판을 횡단하여 갈아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 데로나 종횡으로 가지런하지 않으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농사꾼들은 이것으로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 경남 밀양 남지에서도 용이 땅을 갈아 이듬해의 농사일을 징험한다고 한다(湖西洪州合德池 每年冬 有龍耕之異 自南而北 縱而薄岸則歲穰 自西而東 徑斷其腹則荒 或西或東或南或北 橫縱不整則荒穰半 農人推之來歲輒驗 嶺南密陽南池 亦有龍耕 以驗年事)."는 내용이 있다.

또 이날은 동지부적(冬至符籍)이라 하여 뱀 '사(蛇)'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 잡귀를 막는 속신(俗信)이 있으며, 팥죽을 쑤어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생기며 잡귀가 성행한다는 속신이 있다. 동짓날 일기(日氣)가 온화하면 이듬해에 질병이 많아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하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여긴다. 또 동짓날이 추우면 해충이 적으며 호랑이가 많다는 믿음이 있다.

예부터 동짓날이 되면 백성들은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즐겼다. 또 일가친척이나



1 동지 풍경 이억영



2 새알심 넣기
경북 예천군 감천면 황현만

이웃간에는 서로 화합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마음을 열고 풀어 해결하였다. 오늘날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는 것도 동짓날의 전통이 이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동지팥죽 동지에는 동지팥죽을 먹는다.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하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부른다.

팥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려 동지고사(冬至告祀)를 지내고, 각 방과 장독, 헛간 같은 집안의 여러 곳에 놓아두었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다. 사당에 놓는 것은 천신의 뜻이고 집안 곳곳에 놓는 것은 축귀의 뜻이어서 이로써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모조리 쫓아낸다고 믿었다. 이것은 팥의 붉은색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붉은 팥은 옛날부터 벽사(辟邪)의 힘이 있는 것으로 믿어 모든 잡귀를 쫓는 데 사용되었다. 『동국세시기』에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공공씨(共工氏)에게 바보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 귀신이 되어 붉은 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동짓날 붉은 팥죽을 쑤어서 그를 물리친다."라고 적혀 있다.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귀를 쫓는 주술 행위의 일종이다. 그러나 동짓날이라도 동지가 음력 11월 10일 안에 들면 애동지라 하여 아이들에게 나쁘다고 해서 팥죽을 쑤지 않는다. 또 그 집안에 괴질로 죽은 사람이 있어도 팥죽을 쑤어먹지 않는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는 사당에 팥죽으로 차례를 지낸 다음 방, 마루, 장광 등에 한 그릇씩 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는다. 경상도에서는 동지에 팥죽을 쑤어 솔가지에 적셔 집안 대문을 비롯하여 담벼락이나 마당에도 뿌리며 마을 입구에 큰 고목에도 뿌려 잡귀들의 동네 침입을 막는다. 강원도에서는 팥죽의 새알심으로 찹쌀이나 수수쌀로 만든 '옹심'을 넣어 나이 수대로 먹는다. 일꾼들은 이날 팥죽 아홉 그릇을 먹고 나무 아홉 짐을 져야 한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서 팥죽이 쉬면 이듬해 농사가 풍년이라고 여긴다. 충남 연기에서는 동짓날 동지불공(冬至佛供)을 드리러 절에 다녀오며, 집에서 팥죽을 쑤어먹는다고 한다. 또 애기동지에는 팥시루떡을 해먹고 노동지에는 팥죽을 쑤어먹는다. 그리고 중동지는 떡이나 팥죽 중 하나를 해서 먹는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쑤어 상가(喪家)에 보내는 관습이 있다. 이것은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다. 팥죽은 동지에만





1~2 동지차례
경북 예천군 감천면 황천만

쑤어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상(喪)을 당하였을 때 쑤어 부조하기도 한다.

우리 조상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에는 팥죽, 팥밥, 팥떡을 해서 먹는 풍습이 있었다. 요즈음도 이러한 풍습이 이어져 고사를 지낼 때에는 팥떡을 해서 고사를 지내고 있다. 고사의 목적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번성하기를 기원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팥이 들어가는 음식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 팥이 지닌 여러 가지 효능으로 보아 건강식품임에는 틀림없다. 팥은 피부가 붉게 붓고 열이 나고 쑤시고 아픈 단독에 특효가 있으며,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설사, 해열, 유종, 각기, 종기, 임질, 산전산후통, 수종, 진통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楚歲時記,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종철(李鐘哲)

노동지(老冬)

정의 동짓달 그믐 무렵에 든 동지. 애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이라면 노동지는 지역에 따라 보름 이후 또는 하순에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노동지(老冬至)를 경북에서는 어른동지, 강원도에서는 구동지(舊冬至), 늙은이 동지, 강원도 삼척에서는 늦동지, 전남 화순에서는 노인동지, 제주에서는 종동지로 전승되고 있다.

내용 애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먹지 않지만 노동지 때는 팥죽을 쑤어 먹는다. 그러나 강원도 삼척에서는 25일 무렵에 드는 늦동지 때도 팥죽을 쑤지 않는다. 애동지가 들면 그해는 아이들에게 좋고, 노동지가 들면 늙은 노인들에게 좋다는 속설이 있다. 이것은 동지를 새해로 여기던 유풍으로 동짓날에는 누구나 한 살씩 더 먹는데 어린애는 빨리 크기를 원하니 동지가 며칠간이라도 빨리 들면 좋아할 것이고, 또 노인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이라 동지가 늦게 들면 몇 날을 더 살아야 한 살을 먹게 되니 노인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애동지, 노동지 같은 풍속이 생겨났다.

참고문헌 |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종철(李鐘哲)

병동지(冬)

정의 일진(日辰)에 병(丙)자가 든 동짓날. 강원도에서는 동짓날의 일진(日辰)에 병(丙)자가 들 때 병동지(丙冬至)라고 하여 팥죽을 쑤어 먹지 않는다.

내용 날과 달의 순차를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를 결합해서 60갑자를 만드는데 병(丙)자가 들어간 일진은 병인(丙寅), 병자(丙子), 병술(丙戌), 병신(丙申), 병오(丙午), 병진(丙辰) 등 여섯 번 등장한다. 이처럼 동지의 일진에 병(丙)자가 들어간 날이 바로 병동지가 된다. 이는 병(丙)과 병(病)이 발음이 같은 데서 생긴 풍속으로 10월 상달의 병오일(丙午日) 행사를 꺼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참고문헌 |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이종철(李鐘哲)

수세( )

정의 한 해가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라는 뜻으로 음력 11월에 들어 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동지를 달리 부르는 말. 원정동지(元正冬至), 아세(亞歲)라고도 부른다.

내용 『초학기(初學記)』 권4에 수록된 중국 송(宋)나라 원숙(袁淑)의 '영동지(咏冬至)' 시에 "이어진 별자리들 태초부터 있었으니 아름다운 11월 동지[首歲]에 이르렀네(連星貫初曆 永月臨首歲)."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初 記.
필자 | 류상범(柳尙範)

아세( )

정의 음력 11월에 들어 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동지를 달리 부르는 말. 아(亞)는 버금간다는 뜻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작은설'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설날 다음 가는 작은 설날이라는 의미이다.

내용 이날은 양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겼다는 뜻에서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대 농사력에서는 매우 중요시하였다.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志餘)』 권20에 "동지를 아세라 하니 관민(官民)이 다같이 설날처럼 경축한다(冬至謂之亞歲官府民間各相慶賀一如元日之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西 遊覽志餘.
필자 | 류상범(柳尙範)

애동지[冬]

정의 동짓달 초순에 든 동지를 일컫는 말. 동지는 양력 12월 21일 또는 22일로 그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만 음력 날짜는 유동적이다. 동지는 보통 음력 동짓달에 드는데 음력으로 동지가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兒冬至]라 하고, 동짓달 중순에 들면 중동지(中冬至)라 하며, 동짓달 하순에 들면 노동지(老冬至)라고 한다.

내용 애동지는 경북과 강원에서는 애기동지, 아동지라고 하며, 전남에서는 아그동지로 강원과 전남에서는 소동지로도 부른다. 전국적으로 애동지 때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팥죽을 해먹지 않고 떡을 해먹는 풍속이 일반적이다.

참고문헌 |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종철(李鐘哲)

이장(履)

정의 음력 11월에 들어 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동지의 이칭.

내용 이장(履長)에 대한 기록은 중국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조자건집(曹子建集)』에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오랜 옛날부터 동짓날 신발[履]과 버선[襪]을 바쳤다."고 한다. 이러한 이장의 기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아악 십이율(十二律)의 상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곧 "동짓날의 태양은 남극(南極)에 위치하고, 그림자가 가장 길며 율은 황종(黃鍾)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황종은 아악의 기본음으로 양율(陽律)에 속한다. 따라서 동지는 양의 기운의 으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동짓날의 상서로움을 맞아 그것을 신발[履]과 버선으로 오랫동안[長] 밟고 있어라.'는 기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부녀자들의 노동과 관련된 것이다. 곧 "동지에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나 낮이 이로부터 점차 길어진다. 부녀자들은 이 절기에 신발과 버선을 시부모님께 바쳐서 여자의 일이 시작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동지를 기점으로 부녀자들이 자신들의 주된 노동일을 상징하는 신발과 버선을 바쳐 본격적인 노동이 시작됨을 알린 것이다.

참고문헌 | 曹子建集, 初 記, 辭源(商務印書館, 1987), 大字源(張三植, 三省 社, 1988), 語大詞典(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필자 | 오세길(吳世吉)





1 애동지 시루떡 찌기
충남 청양군 정산면 대초리 황현만

2 버선 국립민속박물관

작은설[　　]

정의 민간에서 동지를 일컫는 말.

내용 동지는 하루의 해가 하지(夏至)부터 차츰 짧아지기 시작하여 극한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동지부터 낮이 다시 차차 길어지는 현상을 고대인들은 태양의 부활로 여겨 생명과 광명의 주인인 태양신에 제의를 올렸다. 천문학에 의하면 이날을 신년(新年) 원단(元旦)으로 하는 풍속이 적지 않았다. 옛 사람들은 이것을 "일양(一陽)이 생(生)하도다"라고 하여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 속절로 삼았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작은설[亞歲]이라고 하여 어느 집이나 팥죽을 쑤어먹었다. 정월 설날에 떡국을 먹고 "한 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지에 팥죽을 먹고도 "한 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동지로 설을 삼았던 유풍(遺風)에서 비롯한 것이다.

『역경(易經)』에서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 복괘(復卦)로 11월에 배치하였으며,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정하였다. 그리고 당(唐)나라의 선명력(宣明曆)도 "11월을 자월(子月)이라 해서 동짓달부터 1년의 시작을 삼았다(十一月甲子朔夜半冬至)."라고 기술하고 있다. 고려에서도 신라에 이어 당의 선명력을 그대로 썼으며 충선왕(忠宣王) 원년(元年)에 와서 원(元)의 수시력(授時曆)으로 역법을 바꿀 때까지 선명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충선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지로 설을 지낸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문헌 | 易經,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이종철(李鐘哲)

중동지(　冬　)

정의 동짓달 중순에 든 동지.

내용 동지는 대설(大雪) 15일 후 부터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보통 양력 12월 22일 무렵에 해당한다. 양력으로 12월 22일이 음력으로 초순에 들면 애동지라 하고 중순에 들면 중동지라 하며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한다. 보통 애동지에는 팥죽을 끓이지 않고 중동지나 노동지에는 팥죽을 끓인다. 경북 구미 지역에서는 팥죽을 끓일 수 있는 중순에 동지가 걸리면 온동지라고도 한다. 이는 중동지에 해당하는 말이다. 온동지는 중동지, 청년동지, 보통동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龜尾·善山의 歲時　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이종철(李鐘哲)

지일(　　)

정의 음력 11월에 들어 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동지를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주역(周易)』「복괘(復卦)」에 "선왕 때에는 지일(至日)이 되면 관문을 닫아 상인들이 다니지 못하였다(先王以至日閉關 商旅不行)."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동지(冬至)' 시에 "매년 지일마다 오래도록 나그네 되니 홀연히 궁색한 수심이 사람을 못살게 하네(年年至日長爲客 忽忽窮愁泥殺人)."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周易, 纂註分類杜詩.
필자 | 류상범(柳尙範)

호랑이장가가는날

정의 음력 11월에 들어있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동지(冬至)를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 말은 호랑이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되어 유래되었다. 민간에서 호랑이는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날씨가 춥고 밤이 긴 동짓날에 암수가 교미를 할 것이라고 여겨 이날을 '호랑이장가가는날'이라 하였다. 한편 이날은 부부간의 방사(房事)를 금기시한다. 그 이유는 호랑이가 동짓날 교미를 하여 평생 한 마리의 새끼만 낳기 때문에 사람도 방사를 하면 자식이 적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세시풍속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그 의미는 다소 변하였다. 곧 호랑이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언급은 탈락되고 단순히 방사를

금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전승되고 있다. 방사 금기의 이유도 달라졌다. 동지는 일년 중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잡귀의 활동이 왕성하다고 하여 방사를 하면 잡귀가 시기하여 남자에게 액운이 닥치며 심지어는 급사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慶尙南道 -(文 財管理局, 1972),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동지고사(冬 告)

정의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려 잡귀의 침입을 막기 위해 행하는 고사. 지역에 따라 팥죽제, 동지차례(冬至茶禮)라고도 부른다.

내용 동짓날은 예부터 해가 바뀌는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졌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이날이 지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 행여라도 귀신이 틈탈까 하는 마음에서 동지에는 벽사(辟邪)의 기능이 강한 붉은 팥죽을 쑤어 집안에서 고사를 지낸다.

중국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공공씨(共工氏)의 재주 없는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질(疫疾) 귀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두려워하여 팥죽을 쑤어 물리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하여 팥죽을 쑤어먹는데, 팥죽을 쑬 때 찹쌀로 새알 모양으로 빚은 속에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 또한 팥죽은 제사상에도 오르며 팥죽을 문짝에 뿌려 액운을 제거하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팥이 지닌 벽사적 기능과 신구(新舊)의 변화를 연관 짓는 데서 비롯된 주술적 의례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습의 연속으로 지금껏 각 가정에서는 팥죽을 쑤어 먼저 한 그릇 퍼들고 나가 집 울타리 안에 숟가락이나 솔가지를 이용하여 조금씩 뿌린다. 그런 다음 사당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당에 천신(薦新)하고, 장독대의 터주와 방안의 성주께도 각각 한 그릇씩 떠올린다. 이때 각 방과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다.

의미 옛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에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동지를 새로운 해의 시작 또는 각 가정을 책임지는 신구 신령의 교체로 이해하였다. 시작과 끝은 변화의 기점으로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종교적인 관념이 형성된다. 동지는 이처럼 신구가 교체하는 종교적 시간의 분기점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고사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동지고사〉
1 동지고사-성주상
2 비손
경북 예천군 감천면 황현만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楚歲時記,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효경(金 慶)

동지불공(冬　　供)

정의 동짓날 절에 가서 공양물로 팥죽을 올리고 새해의 발원(發願)을 다짐하는 의례. 동지(冬至)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하지(夏至)부터 짧아진 해가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옛 사람들은 태양이 재생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동지는 시작, 재생, 부활의 종교적 상징성을 띄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민간신앙과 습속을 수용하여 불공의례가 행해진다. 민간에서 동짓날 먹는 팥죽을 공양물로 올리고 새해의 발원을 다짐하는데, 동지불공은 그 성격상 액(厄)을 소멸하고 새해의 길운(吉運)을 추구하는 기원적 요소가 강하다.

내용 동지는 입춘(立春)으로부터 일년 24절기의 스물두 번째 절후다. 동지는 낮이 하지로부터 차츰 짧아지기 시작하여 극에 이르렀다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죽음과 재생이라는 종교적 모티브를 지녔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신앙적 습속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역경(易經)』에서도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았으며,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정하였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동지를 '작은설'이라는 의미로 아세(亞歲)라 하여 어느 집이나 팥죽을 쑤어먹으며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 속절(俗節)로 삼고 있다.



동지불공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김영광

신라와 고려에서는 동지를 전후하여 팔관회(八關會)를 지냈는데, 이를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라고 한다. 불교는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를 불공의례로 수용하면서 민간신앙의 요소도 흡수하게 되었다. 사찰에서도 동지불공을 할 때 팥죽을 쑤어 불전에 공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불공으로 올린 팥죽은 의례에 의하여 성화(聖化)되고 염력(念力)이 깃들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얻어가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먹이면서 새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불공의례는 헌공(獻供), 정례(頂禮), 참회(懺悔), 발원(發願), 회향(回向), 시식(施食)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동지불공에서는 지난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해의 희망을 발원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가 강조된다. 따라서 불공의례로 성화된 동지팥죽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지난해의 액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로 몸에 착용했던 헌 옷가지를 불에 태우는 소대의식(燒臺儀式)도 행한다. 신도들은 동지불공에 참여하여 기도정근을 하면서 새해의 삶을 신앙심으로 다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遺事, 易經, 國民俗大觀3(高麗大 校 民族文 硏究所, 1981), 불교와 세시풍속(안길모, 명상, 1993), 형초세시기(종름 원저, 상기숙 역저, 집문당, 1996).

필자 | 김구산(金龜山)

⇨ 초파일불공[初八日佛供]: 여름편

동지책력(冬　　曆)

정의 조선시대 관상감(觀象監)에서 다음 해의 책력(册曆)을 만들어 궁중에 헌납하면 이날 백관(百官)에게 나누어 주고, 각 관아(官衙)의 서리(書吏)도 동지의 선물로서 책력을 친지들에게 보내던 풍속. 책력의 표지 색깔에 따라 황장력(黃粧曆), 청장력(靑粧曆), 백장력(白粧曆)이라고 불렀다.

내용 예로부터 책력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고 농사의 적기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력의 간행은 제왕(帝王)으로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인식되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의 하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

역적 차이로 인해 중국에서 반포한 역서(曆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시기와 절후가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간 동지사(冬至使)가 역서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걸려 먼 지방 사람은 절후의 빠르고 늦은 것을 알지 못하여 농사일에 때를 놓칠 염려가 있었다. 또한 역서의 내용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상감을 설치하여 매년 책력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편찬된 책력은 『해동죽지(海東竹枝)』에 "옛 풍속에 동짓날 책력을 내려 준다. 시골과 여항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은 서로 주고받는데, 그것을 '동지책력(冬至册曆)'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동지책력을 나누어 주던 풍속은 성주덕(成周悳)의 『서운관지(書雲觀志)』에 의하면 "국초에는 진헌 외에 서운관에서 4천 건을 인출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아와 종친, 문무당상관 이상에게 반사하였다."라고 하였듯이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관상감에서 명년(明年)의 책력을 진상하면 임금께서 친히 내려 주신다. 상품(上品)은 모두 줄로 동여 장식[粧繢]하고, 그 다음은 청장력과 백장력, 월력(月曆), 상력(常曆) 등 각양각색인데, 종이의 품질과 꾸민 모양에 따라 차별을 둔다. 서울 관서의 각 부처에서는 미리 종이를 마련했다가 관상감에 맡겨 인쇄토록 하고, 장관(長官)과 관료[朗僚]들에게 차등 있게 나누어주어, 고향 친지와 이웃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게 한다. 이조(吏曹)의 서리(胥吏)는 고관[搢紳]의 집을 나누어 담당하는데, 맡은 집으로 한 사람 이상의 이름이 전랑(銓郞)에 속해 있는 집에는 의례 청장력 한 건(件)을 증정한다."라고 하여 동지책력의 반포 경위와 인쇄 종이의 품질과 꾸민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관상감에서 역서를 진상하면, '동문지보(同文之寶)'라 새긴 어새(御璽)를 찍은 황장력과 백장력을 모든 관원에게 내려 준다. 여러 관서도 모두 나누어 받는 몫이 있으며, 각 관서의 아전들도 각기 친한 사람을 두루 문안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조의 아전들 중에는 특정 벼슬아치 집에서 임명장을 도맡아 써 주는 일을 맡은 자가 있는데, 그 집안 사람이 지방 수령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게 당참전(堂參錢)을 주기 때문에 의례 청장력 한 권을 바친다."라고 하여, 책력에는 반드시 옥새를 찍어서 반포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조운종(趙雲從)의 『면암집(勉菴集)』에 수록된 「세시기속(歲時記俗)」에도 "동지를 아세(亞歲)라 하니, 이날 모든 관리들의 문안은 설날의 의례와 같다. 관상감에서는 새 달력을 인쇄하여 이 날에 비로소 반포하니, 청장력, 백장력, 월력, 중력(中曆), 상력 등의 명품(名品)이 있다."라고 하여 동짓날 관리들이 문안할 때 책력을 나누어 주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의의 책력은 일년 동안의 농사 시기를 살필 수 있는 절기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에 해도 좋은 일과 하면 좋지 않은 일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중요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관상감에서 제작하여 동짓날에 반포하였다. 지금도 연말이면 달력을 선물로 주고 받는 것도 이러한 풍속에서 유래되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勉菴集, 書雲觀志, 洌陽歲時記, 東竹枝,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경진년 대통력(庚辰年大 曆) 소고(小考)(金鍾 , 생활문물연구7, 국립민속박물관, 2002),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종태(金鍾)

동지첨치(冬)

정의 동지에 팥죽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뜻.

유래 『역경(易經)』에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 복괘(復卦)로 11월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삼았다. 이러한 중국의 책력과 풍속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옛 사람들은 동지를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여겨 속절(俗節)로 삼았다. 이것은 동지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유풍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동지를 아세(亞歲), 작은설이라고 하여 설 다음 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였으며, 동지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여겼다.

내용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설이라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동지팥죽을 쑤어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

는다는 풍습이 생겼다. 그래서 동지팥죽에는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먹는 사람의 나이 수만큼 넣어서 먹는 풍습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라 했는데, 이는 태양의 부활을 뜻하며 설에 버금가는 대접을 하였다.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동짓날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하는 팥죽은 시절식의 하나이면서 신앙적인 뜻을 지닌 음식이다.

동지팥죽은 먼저 사당에 올리고 여러 그릇에 퍼서 장독, 곳간, 헛간, 방에 놓아둔다. 그리고 대문과 벽, 곳간에 뿌리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팥죽의 붉은색이 양색(陽色)이므로 잡귀를 몰아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지팥죽은 잔병을 없애고 건강해지며 액을 면할 수 있다고 전해져 이웃간에 서로 나누어 먹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易經, 洌陽歲時記, 한국세시풍속기(강무학, 도서출판 청화, 1985).
필자 | 최덕원(崔德源)

동지하례(冬　　禮)

정의 동지(冬至) 아침에 조정 대신들과 관리들이 왕에게 올리는 축하 인사. 동지조하(冬至朝賀)라고도 한다.

내용 동지는 기운이 음(陰)에서 양(陽)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첫날로,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여기기도 하였다. 특히 동지에는 책력(冊曆)을 나누어 주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로 인식하였고, 작은설이라 하여 설 다음의 경사스런 날로 여겼다. 이에 설날과 같이 조정 대신들이 대궐에 나가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전문(箋文)을 바쳤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 관리들은 표문을 올려 축하 인사를 대신하였다.

이러한 동지하례는 정조하례(正朝賀禮)와 같이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여겨지나, 본격적인 동지하례 관련 기사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난다. 성종(成宗) 2년(983)에 왕이 원화전(元和殿)에 나가 조하(朝賀)를 받고 신하들을 사현전(思賢殿)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거나, 공민왕(恭愍王) 21년(1272)에 왕이 면복(冕服)을 갖추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고, 이어 백관들은 또 본조하례(本朝賀禮)를 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 권중(卷中)에는 동지에 여러 목(牧)과 도호부에서 전례대로 하표(賀表)를 올려 상부(相府)에 하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상(國喪) 중이거나 비와 눈 같은 악천후가 있을 때에는 동지하례를 중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서 동지에 정조(正朝)와 같이 왕이 망궐례와 배표의(拜表儀)를 행하고, 왕세자와 왕세자빈은 조하의(朝賀儀)를 행하였다. 그리고 해마다 중국에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冬至使)를 파견하여 이날을 축하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동지에도 정조와 같이 전문을 올리는 행사를 한다."라고 하였고,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국조오례의에는 설날이나 동지에 왕이 대궐에 나가 조하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시로 명령을 내려 임금이 나아가지 않고 권도(權道)로서 식만 거행하는 권정례(權停例)를 행하였다."라고 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천자국(天子國)으로서 정조와 같이 중국에 대한 망궐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황태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황제에게 동지하례를 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음력 대신 양력을 사용하고, 양력 1월 1일에 신년하례식을 거행하면서 동지하례는 폐지되었다. 양의 시작이나 신년의 시작이라는 동지의 의미가 줄어들면서 이날에 거행하던 하례식도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東國歲時記, 補　集, 洌陽歲時記,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삼국 · 고려시대 편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신문 · 잡지 편 1876~1945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동지헌말(冬　　襪)

정의 동지에 집안의 며느리들이 시할머니나 시어머니, 시누이, 시고모 등 시집의 여자들에게 버선을 지어 바치는 일. 동지에는 형편이 허락하면 어른의 옷을 지어 드리고 아이들의 옷도 만들어주었다. 옷을 짓지 못할 형편이라도 버선은 꼭 지어드렸다. 풍년을

빌고 다산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풍정(豊呈)'이라고도 하였다.

내용 송나라 때 동짓날 버선을 지어 바쳐 복을 비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민간으로 퍼져 시부모에게 버선을 지어 바쳐 수복(壽福)을 빌었다. 『현종실록(顯宗實錄)』 현종 5년(1664) 11월 5일조에 대사간 남구만(南九萬) 등이 동지를 맞아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차자(箚剌)를 올렸는데, 동지에 신발과 버선을 바치는 정성으로 글을 올린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동지에 버선을 바치는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의 실학자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그 당시 풍속으로 새로 출가한 부인이 동짓날 시부모에게 버선을 지어 바쳤다고 적혀 있다. 이 또한 중원[中國]에서 전해진 풍습으로 동지에는 해가 극남으로 가서 그림자가 동지 전보다 한 길 세 치나 긴 까닭에 장지(長至)라고 했으므로 신고 다니는 물건을 어른에게 드리는 것은 수복을 누리시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동지부터 해가 길어지기에 수(壽)도 따라 길어지길 기원하는 뜻이다. 새 버선을 신고 이날부터 길어지는 그림자를 밟고 살면 수명(壽命)이 길어진다고 믿었다. 동짓날에 버선을 지어 바치는 것은 음기(陰氣)가 다하고 양기(陽氣)가 커지기 시작하는 날이므로, 버선이 가지고 있는 풍요 다산의 유감주술적인 뜻도 있다.

참고문헌 | 星 僿說, 宗實錄, 동지헌말(朝鮮日報, 1992. 12. 29), 산타옹과 조왕신(朝鮮日報, 2002. 12. 25.).

필자 | 최덕원(崔德源)

문소전제(文)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날짐승점

정의 동짓날에 날짐승의 움직임을 보고 길흉(吉凶)을 점치던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날짐승점은 지방에 따라서 동짓날 저녁에 보기도 하고, 정초에 보기도 한다. 흔히 날짐승 가운데 까치를 길조(吉兆)로 여겨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믿는 반면 까마귀, 매, 솔개, 독수리는 흉조(凶兆)로 여겨 이 새가 가까이에서 울거나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불길하게 생각한다.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는 소리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에서는 독수리에 관심을 두고 보는데, 특히 초도리에서는 독수리가 정초에 마을을 날아다니면 불길할 뿐만 아니라 날아다니다가 누구 집이든 그 위에서 고개를 숙이면 그해에 그 집은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부산에서는 동짓날 저녁에 날짐승이 마을 또는 지붕 위를 높이 떠서 날아가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낮게 뜨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동짓날의



1 버선짓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2 까마귀 무경

날짐승을 보는 것 외에도 전남에서는 원일(元日)에 날짐승이 일찍 기동하면 풍재(風災)가 든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특히 까마귀가 먼저 지저귀거나 동(動)하면 바람이 세다하여 그해 병이 흔한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全羅南道 -(文 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서해숙(徐 淑)

동지부적(冬)

정의 동지(冬至)를 맞아 부엌의 벽이나 기둥에 붙이는 부적(符籍).

내용 동지는 해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동시에 동지를 시작으로 하여 해가 길어진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런 점에서 양기(陽氣)가 시작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옛날부터 동지를 새해로 보기도 하였으며, 아세(亞歲)나 작은설로도 불렀다.

동지가 되면 설날 대문에 붙이는 문배(門排)와 마찬가지로 동지부적(冬至符籍)을 붙여서 잡귀를 쫓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그해의 시작이 되는 날 문에 부적을 붙이면 일년 동안 벽사초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동지팥죽으로 잡귀를 물리치는 행위도 동지부적과 같은 속성을 지닌 풍속이다.

동지부적은 문배로 붙이는 유형과 유사하다. 최영년의 『해동죽지(海東竹枝)』「명절풍속(名節風俗)」 문신부조(門神符條)를 보면 옛 풍속에 궁중에서 울지공(尉遲恭)과 진숙보(陳叔甫), 신도(神荼)와 울루(鬱壘)를 그린 신장상(神將像)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 이를 대문에 붙이는데 문비(門裨)라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울지공과 진숙보는 당나라를 건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으로 당 태종의 고굉지신(股肱之臣), 곧 당태종이 가장 중하게 여기던 신하였다. 이들이 문배의 한 신상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러한 공로와 함께 싸움을 잘한다는 능력 때문인데, 이러한 능력은 바로 잡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같다고 믿어왔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를 보면 이런 풍속이 원일(元日)에 행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매우 상세한 기록인데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그림을 대궐에 붙이고 이를 여염집에서도 따른다고 한다. 그 중에는 울지공과 진숙보, 신도와 울루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설에 행해진 풍속이 동지에도 행해지는 이유는 특히 태양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때가 설에 해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동지에 맞춰 대문에 부적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부적을 의미한다. 또한 뱀 '사(蛇)'자를 써서 거꾸로 붙이는 풍속이 널리 행해졌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에서는 전북 군산에서 이러한 풍속이 전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서는 주로 부엌문에 '사(蛇)'자를 거꾸로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부엌에 뱀이 출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달리 부산에서도 동짓날 '사(蛇)'자를 거꾸로 붙이는 풍속이 전승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지역에서는 솥 위의 부엌 벽이나 집 기둥에 붙인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악귀를 퇴치하고 악귀의 침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원래는 뱀의 퇴치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확대되어 잡귀까지도 퇴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지부적〉
1 동지부적 붙이기
2 동지부적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1


2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竹枝, 國民俗綜 調査報告書-全羅北道 -(文 財管理局, 1971),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國의 歲時 俗II(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종대(金宗大)

문신부적(門)

⇨ 동지부적(冬至符籍): 겨울편

새알심점

⇨ 팥죽점: 겨울편

용경(耕)

정의 동지(冬至)를 전후하여 못에 언 얼음의 갈라진 방향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알아보는 농사점. 용갈이 또는 용의 밭갈이라고도 한다.

내용 못에 언 얼음이 마치 극젱이로 밭을 갈아놓은 듯이 얼음장이 양쪽으로 넘겨져 있어 사람들은 이것을 '용의 짓'이라 하여 이것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 월내조에 보면 "충청도 홍주(洪州) 합덕지(合德池)에 매년 겨울이 되면 용이 땅을 가는 이상한 변이 있었다. 그 갈아 젖힌 것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있으면 풍년이 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운데로 향하여 있으면 흉년이 들며, 혹 동서남북이 온통 갈아 젖혀져 있으면 평년작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남 밀양(密陽)의 남지(南池)에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태종실록(太宗實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따르면 황해도 연안도호부(延安都護府)의 와룡지[臥龍池, 南大池]에서의 용경(龍耕)과 관련한 현상과 이에 대한 농사점을 경기도 관찰사 안노생(安魯生)이 태종에게 보고하자, 태종은 이를 기이하게 여겨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매년 춘추(春秋)로 연안부 남지에 제사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6년(1475) 8월 28일조에 이르기를, 세조(世祖) 때 남대지(南大池)를 터서 전지(田地)로 개간하자 제언별감(堤堰別監) 이신지(李愼之)가 "남대지는 다만 논에 물을 대어 모자람을 보태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못에는 용(龍)이 있어 매년 겨울에는 얼음이 저절로 갈라지므로 사람들이 이를 용경(龍耕)이라 이르는데, 이것으로써 연사(年事)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게 됩니다."라고 하니, 세조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쌓아서 제방(堤防)을 보존하게 하였다고 한다. 성종 또한 "용경(龍耕)이란 말은 괴이하고 허망(虛妄)하여 믿을 수가 없지만, 백성을 위하여 논에 물을 대게 할 뿐이다."라고 하여 제방을 유지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성종실록』 성종 20년(1489) 10월 30일조에 정석견(鄭錫堅)이 와룡지를 없애지 말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고려 문종(文宗) 때 이곳을 흥왕사(興王寺)에 주어 논으로 개간하여 그 해에 가뭄이 들었는데 제방을 다시 쌓으니 흑룡이 나타나며 큰 비를 내려 풍년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용경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어 저수지로 그대로 두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용경이라는 농사점의 영험을 이용하여 풍흉을 예상하면서, 농업 생산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물의 원활한 공급을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용경과 관련된 저수지는 와룡지 외에도 경북 상주의 공검지(恭儉池), 충남 당진의 합덕지, 황해도 안악(安岳)의 석통지(石筒池), 경남 밀양의 남지가 있다. 이 중 공검지와 관련하여 고상안(高尙顔)의 『태촌집(泰村集)』에 "얼음이 얼면 용이 얼음 위에서 밭갈이를 하여 얼음이 갈라터지는 형상을 보고 이듬해의 풍흉을 점쳤다."라는 용경 설화가 전한다.

합덕지에서는 매년 결빙기인 음력 정월 14일 밤 빙면(氷面)이 마치 논밭을 간 것처럼 갈리는데, 방죽 가운데 부분이 갈리면 풍년이고, 주변만 갈리면 흉년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도깨비가 방죽 간다."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일대 각 가정에서는 정월 14일 밤에는 반드시 소에게 밤참으로 소죽을 먹이는 풍습이 있었다. 이때 밤참을 먹는 소들은 항상 땀이 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른들은 이를 합덕방죽에 가서 논을 갈고 왔기 때문이라 하였다.

얼음을 이용하여 풍흉을 점치는 예는 용경 외에

도 함경도 용평역 부근의 장연(長淵)이란 호수에서 동지 전에 결빙하면 대풍, 동지 후에 결빙하면 흉년이라는 결빙복(結氷卜), 정월 소보름날 밤 물 두 사발을 남북으로 갈라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남방과 북방의 풍년을 점치는 동복(凍卜), 봄에 해빙이 빠르면 흉년이라고 여기는 해빙점(解氷占), 겨울철 물이 깊게 얼면 풍년이라는 후동점(厚凍占), 함경도에서 겨울에 도로면이 동결되어서 횡으로 갈라지면 풍년, 종으로 갈라지면 홍수 또는 흉년의 징조라는 도로면점(道路面占)이 있다.

이 밖에 동짓달에 팥죽 열두 그릇을 식혀 나타난 현상을 통해 풍흉을 점치는 방법이 있고, 보리뿌리점, 동짓달 스무날의 달보기, 언땅의 모양, 날씨에 의해 팥죽이 쉬는 정도, 동지날씨점, 고드름으로 점치기, 오동지 점풍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듬해의 풍흉의 정도를 예상해보려는 농사점이 행해진다.

의의 용경은 농경사회에서 풍농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과 겨울 기후와 관련된 민속으로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경험에 의해 풍흉을 점치면서 독창적으로 유지되어온 자생적인 민속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成宗實錄, 輿地勝覽, 燃藜室記述, 宗實錄, 村集, 朝鮮の占卜と豫言(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33),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文 財管理局, 1969~1981), 恭儉池(권태을 외 공저, 상주문화원·상주산업대학교, 1995), 唐津郡誌 하권(唐津郡, 1997), 國의 歲時 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國의 歲時 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김도현(金道)

팥죽뿌리기

정의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 부엌, 마당, 담장 등 집 주위에 뿌려 잡귀의 출입을 막는 풍속.

유래 동짓날 팥죽을 쑤어 역귀(疫鬼)를 쫓는 풍속은 중국에서 전래하였다. 동지팥죽의 유래에 대하여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중국의 공공씨(共工氏)가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죽어서 역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역귀는 붉은색 팥을 두려워했고, 또 동짓날에 죽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귀를 쫓는 풍습이


1


2


3


4

1~4 팥죽뿌리기
경북 예천군 감천면 황현만

생겼다. 팥죽을 이용한 축귀(逐鬼) 풍습이 언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목은집(牧隱集)』, 『익재집(益齋集)』 등에서 팥죽이 고려시대에 이미 우리의 절식으로 정착된 것을 보면 잡귀를 물리치는 풍속으로서의 팥죽뿌리기도 병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내용 및 지역사례 동짓날 팥죽을 쑤어먹지 않으면 쉬이 늙고 잔병이 많이 생기며 잡귀가 성행한다고 믿는다. 또 팥죽을 먹으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동짓날 팥죽뿌리기 풍속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행해지는 풍속으로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집안팎에 뿌린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경기도에서는 사당에 팥죽제사를 지내고 마루, 장광 등에 한 그릇씩 퍼놓기도 하고, 동네 앞의 고목에도 뿌려 재앙을 막기도 한다. 강원도에서는 팥죽을 뿌리는 곳도 많지만 팥 삶은 물(팥물)을 뿌리는 지역도 많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 담장이나 대문에 뿌리기도 하지만, 팥죽제라고 하여 당산나무나 장승에 바치기도 하고, 또 새집을 사서 이사 갈 때에도 팥죽을 쑤어 뿌리기도 한다. 충남 공주에서는 팥죽을 바가지에 담아 들고 울타리 주변으로 나가 숟가락으로 떠서 뿌리고, 당진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떠서 마당으로 나가 솔개비(솔잎)에 팥죽을 묻혀서 대문에 세 번 뿌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도액(度厄)한다'고 한다. 도액을 한 후에야 비로소 부엌의 조왕, 안방의 성주, 뒤란의 터주, 굴뚝, 식구들이 생활하는 방의 순으로 한 그릇씩 갖다놓고, 한참을 두었다가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참고문헌 | 牧隱集, 益齋集, 楚歲時記,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한국민속대사전1,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속학의 이해(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國의 歲時 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 민속학 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國의 歲時 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國民俗 새로 읽기(최인학 외, 民俗苑,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태수(金 水)

팥죽점

정의 동짓날 절기 음식인 팥죽으로 이듬해 농사의 풍흉과 날씨 그리고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감별해보는 점속(占俗).

내용 팥죽점은 붉은색 팥죽으로 점을 치는 팥죽점과 팥죽 속에 들어 있는 옹심이(새알심)로 점을 치는 옹심이점(새알심점)으로 나눌 수 있다. 팥죽점은 팥죽을 쑤어 그릇에 담아놓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팥죽의 표면이 갈라지는 상태를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이나 기후를 점치는 것이고, 옹심이점은 주로 임부가 있는 집에서 옹심이를 불에 굽거나 물에 넣고 끓일 때 그 상태를 보고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감별하는 것이다. 임부가 없는 가정에서도 재미로 옹심이점을 쳐보기도 한다. 임신한 사람의 팥죽에 들어있는 옹심이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딸이요, 쏙쏙 빠져나오면 아들이라고 믿었다.

지역사례 경남의 어촌 지역에서는 동지의 팥죽점을 '열두굿'이라고 한다. 동지팥죽 열두 그릇을 부뚜막에 올린 후 벌어지면 가물고 안 벌어지면 시절이 좋다고 생각한다. 열두 그릇의 팥죽은 일년 열두 달을 표현한 것이고, 그릇에 담긴 팥죽의 표면이 갈라졌는지의 여부로 그 달의 풍흉과 좋고 나쁨을 예측하는 것이다. 또 팥죽 열두 그릇을 놋쇠그릇에 떠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팥죽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데, 이때 물이 적셔지는 팥죽이 있는 달에는 비가 오고, 표면이 마르거나 갈라진 달에는 한해(旱害)가 든다고 한다. 전남에서는 열두 달을



팥죽 황현만

상징하는 열두 개의 접시(그릇)에 1월부터 차례로 팥죽을 담은 후, 팥죽의 표면에 아무런 금이 생기지 않고 접시 가장자리에 물기가 돌면, 이 접시에 해당하는 이듬해의 달은 물이 흔하여 시절이 좋다고 믿었다.

옹심이점은 새알심점이라고도 하는데 강원도에서의 옹심이점은 팥죽 속의 옹심이를 꺼내 화롯불에 놓아 길쭉하게 늘어나면 아들을 낳고, 동그랗게 오그라들면 딸을 낳는다고 한다. 경남 통영에서는 팥죽에 넣는 떡을 새알심이라고 하며, 동짓날에 팥죽을 끓이면서 새알심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全羅南道 -(文 財管理局, 1969), 한국의 민속(김성배, 집문당, 1980), 한국민속대사전1,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國의 山村民俗 I (金 坤 外, 敎文社, 1995), 國의 歲時 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國의 歲時 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2001), 國民俗 새로 읽기(최인학 외, 民俗苑, 2001), 경남 어촌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태수(金 水)

동지팥죽

정의 동짓날에 쑤는 붉은 팥죽.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했고 민간에서는 작은설이라 하였다. 옛날부터 이날 팥죽을 쑤어 조상께 제사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의 무사안일을 빌던 풍습에서 남아 있는 절식이다. 동지팥죽은 새알심을 넣어 끓이는데 가족의 나이 수대로 넣어 끓이는 풍습도 있다. 그래서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동지팥죽 궁중음식연구원

유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의하면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그 아들이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질 귀신을 쫓는 것이다(共工氏有不才之子 以冬至死爲疫鬼 畏赤小豆 故冬至日作赤豆粥以禳之……)."라고 했다. 이러한 풍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여겨지나 전래된 시기는 알 수 없다. 고려말의 학자인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에 팥죽의 기록이 있으니, 그 이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을 것은 분명하다.

내용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 음(陰)이 극에 달한 날이어서 음성인 귀신이 성하는 날이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상대적인 양(陽)의 기운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양을 상징하는 붉은 팥죽이 음의 기운을 물리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고대인들은 붉은색이 주술적인 위력을 지닌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태양, 불, 피 같은 붉은색을 생명과 힘의 표식으로 삼았고 이를 숭상한 것이다. 따라서 동지는 태양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적색 신앙의 잔영으로 붉은색의 팥죽을 쑤게 된 것이다.

『해동죽지(海東竹枝)』에 "붉은 팥으로 집집마다 죽을 쑤어 문에 뿌려 부적을 대신한다. 오늘 아침에 비린내 나는 산귀신을 모두 쫓으니 동지에 양기 나면 길한 상서 맞는다."라는 시에서 보듯이 붉은 팥죽의 벽사성을 알 수 있다.

동짓날 팥죽은 조상께 제사 지내고 방, 마루, 광, 헛간, 우물, 장독대에 한 그릇씩 놓는다. 또 들고 다니며 대문이나 벽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고조리서인 『규합총서(閨閤叢書)』, 『군학회등(群學會謄)』, 『부인필지(婦人必知)』 등에 구체적인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붉은 팥을 씻어 일어서 물을 충분히 붓고 한소끔 끓인다.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부어 팥이 터질 때까지 푹 삶아서 거르고, 찹쌀가루는 익반죽하여 새알 모양의 단자를 만든다. 이를 새알심이라고 한다. 거른 팥의 웃물을 먼저 붓고 끓여 빛깔이 고와지면 앙금을 넣어 저으면서 다시 끓인다. 펄펄 끓을 때 새알심을 넣는데 새알심이 떠오르고 짙은 팥색이 되면서 걸쭉해지면 소금으로 간을 하여 불에서 내려놓는다. 식성에 따라 설탕을 넣어 먹기도 한다. 동지를 작은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도 했다.

의의 세시음식을 차려먹는 것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일체감을 결속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동지팥죽도 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모든 사람이 먹음으로써 신분의 격차가 극심했던 시절에도 민족의 동질성 확인이나 강화와 함께 사회적, 신분적,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평등화의 강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한편 동지팥죽에는 가족과 이웃이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새로운 한 해에 건강하고 액을 면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우리 마음속의 사악함도 씻어내기를 염원하는 정성도 깃들여 있다.

기타 경상도에서는 동구 밖에 서있는 신목(神木)에 금줄을 치고 팥죽을 뿌려 마을의 안일을 빌었다. 전라도에서는 새해 풍년을 점치는 데 팥죽을 썼다. 동지 외에도 여름 삼복에도 끓이며 이사하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도 팥죽을 쑤어서 잡귀를 쫓아내고 무사를 기원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팥죽을 쑤어 길에 뿌려 병마를 쫓았으며 초상집에 팥죽을 쑤어가 잡귀를 범접하지 못하게도 하였다.

참고문헌 | 群　　騰, 閨　叢書, 東國歲時記, 牧隱集, 婦人知,　東竹枝,　楚歲時記, 食문화의 뿌리를 찾아8(유수안, 얼과 문화24, 우리문화연구원, 1990), 한국음식대관4(장지현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1), 세시풍속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필자 | 조후종(趙　鍾)

전약(　　)

정의 소가죽을 진하게 고아 만든 아교에 대추고[膏]와 꿀, 한약재인 마른 생강[乾薑], 관계(官桂; 두꺼운 계수나무 껍질), 정향(丁香), 후추 등을 넣어 오래 고아 차게 굳혀서 먹는 동지 절식. 겨울 보양식에 해당한다.



전약 궁중음식연구원

내용 고려시대에는 전약(煎藥)을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의 진찬(珍饌)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기록에는 "동지에 내의원에서 전약을 만들어 진상한다. 각 관청에서도 이를 만들어 나누어 갖는다."라고 했다. 순조(純祖) 3년(1803) 동지사(冬至使) 서장보(徐長輔)를 연경(燕京)까지 수행한 선비가 쓴 기행문인 『계산기정(薊山紀程)』 권5 「부록(附錄)」 음식(飮食)에 "녹용고(鹿茸膏)는 반양(潘陽)에서 파는 것인데 수박의 인(仁)이나 살구인 등을 그 속에 넣어서 고를 만들어서 그 맛을 도와주니 이는 우리나라의 전약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전약과 같은 음식이 중국에도 있었던 것 같다. 『군학회등(群學會騰)』, 『시의전서(是議全書)』, 『규합총서(閨閤叢書)』,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과 같은 여러 옛 음식 책에 전약에 대한 기록이 많다.

만드는 법은 이러하다. 먼저 소가죽과 소머리, 소족 등 콜라겐 성분이 많은 부위를 진하게 고아서 아교질을 만들고 대추를 따로 고아 어레미(구멍이 굵은 체)에 내려 대추고를 만들어 섞고 여기에 꿀과 마른 생강, 관계, 정향, 후추 등 한약재 가루를 넣어 다시 푹 고아서 굳힌다. 『시의전서』에는 녹각교(鹿角膠; 사슴 뿔 고은 것)를 이용한다고 했으니 콜라겐 성분이 많은 재료들이 이용되었다고 보인다. 『보

한재집(保閑齋集)』에서는 아교 대신 우유나 마유를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전약은 족편(足片)같이 야들야들하고 묵보다는 더 쫄깃한 것으로 궁중에서 겨울에 혹한을 이기고 몸을 따뜻하게 보하는 음식으로 이용되었으며 보혈, 지혈, 안태(安胎)의 효능이 있고 악귀를 물리치는 주술적 효능도 있다는 기록이 있다.

창덕궁에 전약을 고던 은(銀)솥이 남아 있는데 전약을 골 때는 참숯을 청동화로에 피우고 겅그레(물에 잠기지 않게 솥 안에 받침으로 놓는 물건)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끓였다고 한다.

한편 조리 원리와 조리법이 전약과 비슷한 음식으로 족편이 있다. 족편은 소족, 소꼬리, 소가죽 등을 장시간 고아 양념하고 고명을 뿌려 응동(凝凍; 차게 하여 굳힘)시켜서 묵처럼 만든 음식으로 족병(足餠), 우족교(牛足膠), 교병(膠餠), 우두병(牛豆餠), 연육이라고도 한다. 족편도 겨울철 음식이며 반가에서는 설 음식, 잔치 음식으로도 만들었다. 전약보다 일반화된 음식으로 여기에는 대추고와 한약재가 들어가지 않았다.

1717년의 『진연의궤(進宴儀軌)』에 족병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 있어 궁중연회용으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합총서』에는 저피수정회법(猪皮水晶膾法)이라 하여 돼지껍질을 고아서 묵처럼 엉기게 하는 조리법이 있다.

전약이나 족편은 동물성 식품에서 결체조직 속에 많은 불용성 콜라겐을 물과 함께 장시간 가열하면 가용성 젤라틴이 되는데 굳지 않은 상태를 졸(sol) 상태라 하며 이것을 차게 식히면 굳어져 젤라틴이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한 음식들이다.

족편 만드는 법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소족을 토막 내어 깨끗이 손질한 것에 생강, 통후추, 사태고기를 넣어 약한 불에서 장시간 끓인 다음, 체에 밭쳐서 지저분한 것들은 골라낸다. 그리고 고기는 다져 양념하여 다시 국물에 넣고 끓인 다음, 모난 그릇에 담아 위에 달걀지단채, 석이채, 잣가루 같은 고명을 얹어서 차게 굳힌다. 그러면 연하고 부드러운 족편이 완성되는데 이를 연육이라고도 한다. 전약이나 족편은 앞으로 노인 음식이나 어린이 음식, 저열량 음식, 건강 음식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음식이다.

참고문헌 | 薊山紀程, 群　　騰, 閨　叢書, 東國歲時記, 保齋集, 是議全書, 進宴儀軌,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方信榮,　城圖書株式　社, 1942),　國料理文　史(李盛雨, 敎文社, 1985),　國의 맛(姜仁　, 大　敎科書株式　社, 1987), 세시풍속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필자 | 조후종(趙　鍾)

풍등놀이(　燈-)

정의　경상남도에서 동짓날 저녁에 행하는 민속놀이. 서당의 생도들이 이웃 서당의 생도들과 등불을 가지고 싸움하는 놀이로서 등싸움, 초롱쌈이라고도 한다.



1~3 풍등띄우기
경남 통영 한산대첩기념사업회

내용 등싸움이 시작되기 직전에 등제(燈祭)를 드리는데, 서당의 대궁(보)에다가 '○○서재지구(○○書齋地區)'라고 써 붙이고, 간단한 잔치를 끝내고 나서 등싸움 장소로 출발한다. 이때 풍등(風燈)을 올려서 신호로 삼는데, 풍등은 대나무와 한지로 제작하고 기구(氣球)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중에 띄우는 일종의 풍선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풍등을 띄운 다음 약속한 장소(대개 시장터)를 향해서 가는데, 이때 싸움에 사용할 등(燈)을 앞세우고 간다. 등의 행렬은 1등(燈), 2등(燈), 3등(燈)의 순서로 나아가며, 개인별로는 초롱등을 하나씩 들고 간다.


2


3

싸움 장소에 도착하면 각각 진을 치고 임전 태세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이 온 방향에 따라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는 것이 보통이다. 진을 치는 모습은 1등을 가운데 세우고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둥글게 모여서 1등을 옹위보호(擁衛保護)한다. 그리고 다시 2등과 3등을 든 사람들이 둘러서고, 가장 바깥쪽에 초롱꾼들이 이중, 삼중으로 원형을 만들어 1등을 지킨다.

이렇게 진을 치고 심판은 밥주걱 두 개를 세 번 부딪혀 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그러면 서당꾼들은 "자-" 하는 소리를 지르며, 두세 자[尺] 정도의 막대기를 가지고, 상대방 진의 중앙에 있는 1등의 촛불을 향하는데, 촛불을 먼저 끄는 편이 승리한다. 놀이의 승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심판은 서당의 접장이 맡으며, 참가팀은 제한이 없고 서당의 수에 따라 증감된다.

이 놀이는 현재 경남 통영에서 개최되는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등의 규모나 모양은 옛것을 본뜨고 있다. 그러나 놀이 방법은 옛날처럼 1등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네의 풍등이 공중에 가장 높게 올라가고 오랫동안 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승부를 가리고 있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慶尙南道 -(文 財管理局, 1972),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박성석(朴性錫)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정의 동지(冬至)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에 들어간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또는 절기와 결부하여 식물의 생태를 되새길 때 사용하기도 한다.

내용 동지는 태양이 황도의 가장 낮은 점을 지날 때로 북반구에서는 연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던 태양이 다시 올라와 낮이 길어지므로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듬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아세(亞歲)라고도 했다. 궁중에서는 이날 천지신과 조상께 제사를 올리고 신하들과 연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풍습을 홍석모(洪錫謨)는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에서 "동짓날 자정에 음(陰)이 가고 양(陽)이 와, 인간사 천시(天時)에 작은설 돌아오네. 해 길어지자 궁전에 버선 바치고 조하(朝賀)하는 반열(班列)에선 전문(箋文) 올리네."라고 읊었다. 여기서 전문이란 새해를 축하하는 일종의 연하장이다.

민간에서도 이날을 작은설로 여겨 동지팥죽을 쑤어 먹고 문에도 뿌려 악귀를 막았다. 이런 까닭에 동지가 지나면 몸을 움츠렸던 각종 푸성귀들도 다가올 봄을 향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고 여겼다. 동지는 사람도 자연도 새해를 맞이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날이었다.

참고문헌 | 陶厓詩集,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 卨)

동지 때 개딸기

정의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
내용 동지(冬至)는 24절기의 스물두 번째 절기로 양력 12월 22일 무렵이다. 이런 한겨울에 산딸기든 개딸기든 있을 리 없다. 요즘엔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지만 과거 겨울철에 딸기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개딸기는 산딸기와는 달리 먹을 수도 없는 딸기다. 먹을 수 없는 개딸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동지에 개딸기 찾는다." 또는 "동짓달에 멍석딸기 찾는다."가 있으며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도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 卨)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다.

정의 동지(冬至)가 지나면 밤이 짧아지고 조금씩 낮이 길어진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동지는 입춘(立春)으로 비롯되는 24절기 가운데 스물두 번째에 해당되는 절기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이 속담은 동지를 지나면서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원래 노루의 꼬리는 흔적만 남아 있기 때문에 노루꼬리는 흔히 매우 짧다는 뜻의 관용어로 쓰인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소 누울 자리만큼 길어진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國文 상징사전1(國文 象徵辭典 纂委員 , 東亞 社, 1992).
필자 | 김기창(金基昌)

배꼽은 작아도 동지팥죽은 잘 먹는다.

정의 얼핏 보기에는 사람이 변변치 않은 것 같으나 하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배꼽이 작다는 것은 배가 작다는 뜻으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동지팥죽을 잘 먹는다는 뜻이니, 이 속담은 별 볼일 없는 겉보기와는 달리 하는 일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의 행동과 일이 예상외로 뛰어날 때 사용된다. 동지팥죽은 맛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많이 먹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國文 상징사전2(國文 象徵辭典 纂委員 , 東亞 社, 1995),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필자 | 김기창(金基昌)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

정의 겨울 추위가 동지(冬至) 무렵 시작되어 입춘(立春) 무렵 누그러지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속담.

내용 우리나라 추위는 동지인 양력 12월 22일 무렵부터 시작됐다가 입춘인 양력 2월 3일 무렵이면 풀리기 시작한다. 요즘은 추위가 더 일찍 찾아와 더 늦게 떠나는 듯 느껴지지만, 말 그대로 겨울이 이르는 동지와 봄이 고개를 드는 입춘은 오랜 경험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관념이다. 동짓날이 추워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지가 되면 제대로 추웠고 또 추워야 한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니 겨울잠을 자지 않고 겨울을 나는 동물들의 몸도 꽁꽁 얼게 마련이다. 동물 가운데 용맹이 으뜸이고 화기(火氣)나 양기(陽氣)를 상징하는 범의 불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민중들의 경험과 관념에 바탕을 둔 상상력이 범의 불알이 얼고 녹는다는 해학적인 표현을 일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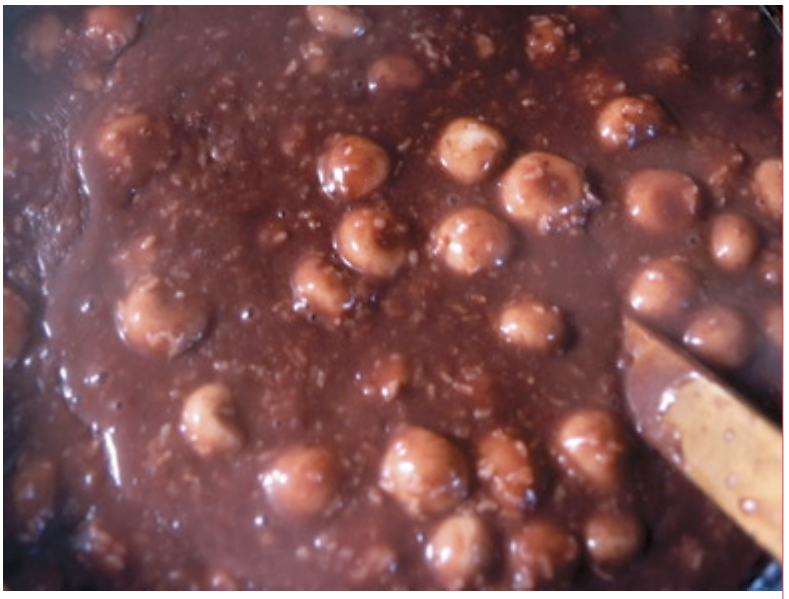
참고문헌 | 상말속담사전(宋在璇 , 東文選, 199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 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 卨)

새알 수제비 든 동지팥죽이다

정의 음식이나 일이 잘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속담. 또는 매우 맛있거나 별미인 음식을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한다.

내용 설에 떡국을 끓여 먹듯이 작은설로 여긴 동지(冬至)에는 팥죽을 끓여 먹었다. 동지에 팥죽을 쑤어먹는 풍속에 대한 기록이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보인다. 옛날 신화 속 인물인 공공씨(共工氏)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 죽어 역귀(疫鬼)가 되었는데, 그가 붉은 팥죽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동짓날 팥죽을 쑤어 역귀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동지팥죽의 유래에 대한 다른 전설이 있다. 옛날 몹시 우둔하고 몰염치한 대감이 살았는데 마을에 상사(喪事)가 나기만 하면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죄다 먹어치우기 일쑤였다. 마을의 큰 골칫거리였는데 어느 날 한 집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팥죽을 쑤었다. 그랬더니 "어디 팥죽이야 먹을 수 있나?"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감은 사람이 아니라 '멍청이귓것'이었다. 이 귓것은 사람에게 감기도 주는 악귀여서 상가는 물론 동지에도 귓것을 물리치는 의미로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먹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지팥죽을 쑤는 것은 양의 기운이 새로 싹트는 동지에 한 해의 상서롭지 못한 액을 피하려는 의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팥죽쑤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또 동지팥죽에는 찹쌀이나 수수가루로 만든 경단 곧 새알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새알은 나이를 상징하기 때문에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이 나왔다. 요즘에 팥죽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과거에 팥죽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별식이었으며, 특히 동지에 먹는 팥죽에는 새알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나 일이 제대로 갖추어진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속담이 사용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陶厓詩集, 楚歲時記.
필자 | 조현설(趙 卨)


山禁



內 월내

유천동 산신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질병의 화를 면하게 해주고
물과 불의 피해를 면하게 해주며
교통사고 등을
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산신제의 주된 목적이다.

마보제(馬　　)

정의 11월에 말을 해치는 재앙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

유래 마보제(馬步祭)는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와 함께 중국 고대부터 시작되었다. 『주례(周禮)』 권33 「하관사마(夏官司馬)」 교인조(校人條)에 의하면, "봄에 마조에게 제사지낼 때는 망아지를 쓰고, 여름에 선목에 제사지낼 때는 거세한 수말을 쓰며, 가을에 마사에 제사지낼 때는 길들인 말로써 하고, 겨울에 마보에 제사지낼 때는 헌납한 말 중에 어부(馭夫)가 길들인 말을 쓴다."라고 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마보제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려사(高麗史)』 권6 「세가(世家)」6에 의하면, 정종 12년(1046) 2월에 마조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마도 이때에 마보, 마사, 선목에 대한 제사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려사』 권63 「지(志)」17 예(禮)5 길례소사(吉禮小祀)에 의하면, 마조제는 중춘(仲春)에, 선목제는 중하(仲夏)에, 마사제는 중추(仲秋)에, 마보제는 중동(仲冬)에, 모두 길일(吉日)을 택하여 지냈다. 마보제는 이들 제사와 함께 소사(小祀)로 거행되었는데 희생으로는 돼지 한 마리를 썼다.

마보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거행되었다. 태종 11년 10월에 마보, 마사, 마조, 선목 등에 제사하는데 모두 강일(剛日)에 지낼 것을 명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권1에 의하면, 마보제는 마조제, 선목제와 함께 소사에 올라 있으며, 중동 중기 이후의 강일에 제사한다고 하였다. 마보단(馬步壇)은 동교(東郊)인 홍인문 밖 사근사리(沙斤寺里)에 있었다. 신위(神位)는 단 위의 북방에 두고 남쪽을 향하게 하고 희생은 돼지 한 마리를 썼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례는 제대로 행해지지 못했는데 마보제 역시 그러했던 것 같다. 정조 21년 1월에 들어 마조제가 부활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마보제, 마사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마보제는 마사제, 선목제와 함께 폐지되었다고 한다.

의의 말은 군사용, 교통통신용 또는 교역품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양육과 보호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사무였다. 따라서 말에 대한 제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리하여 말과 관련하여 마보제, 마조제, 마사제, 선목제를 지냈다. 곧 마보제는 말을 중시하고 보호하려는 의례의 하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序例, 國朝五禮儀, 大典　　, 世宗實錄, 周禮,　宗實錄,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　　周, 一潮閣, 2002),　國中世 國家祭祀의 體制와 雜祀(金澈雄,　國硏究叢書68,　國硏究院, 2003).

필자 | 김철웅(金澈雄)

삼성혈제(　　)

정의 삼을나(三乙那)의 탐라개벽(耽羅開闢)을 기리고 도민(島民)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에 삼성혈(三姓穴)에서 지내는 제사. 탐라개벽을 기리는 뜻에서 제사의 명칭을 건시제(乾始祭)라고 하며, 과거에는 음력 11월 상정일(上丁日)에 지냈었다. 이 제사는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 세 신인(神人)이 출현하였다고 하는 구멍이 있는 곳에 마련된 제단에서 지내기 때문에 혈제(穴祭)라고도 한다. 1973년 제사의 명칭을 건시대제(乾始大祭)로 바꾸기 이전까지는 모흥단향(毛興壇享)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삼성혈을 본래 모흥혈(毛興穴)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내용 삼성혈제(三姓穴祭)는 고량부삼성사재단(高梁夫三姓祠財團)에서 주관한다. 이 재단에서 주관하는 삼을나에 대한 제사로는 크게 춘제(春祭), 추제(秋祭)와 건시제가 있는데 건시제가 곧 혈제이다. 재단에서는 이를 각기 춘기대제(春期大祭), 추기대제(秋期大祭), 건시대제라고 한다. 춘제와 추제는 삼성전(三姓殿)에서 베풀어지고 건시제는 혈단(穴壇)에서 베풀어진다. 춘제와 추제 때는 세 성씨 집안 사람들이 제관을 맡지만, 혈제 때는 제주도지사와 기관장, 지역 유지가 제관을 맡는다. 이렇듯 춘제와 추제는 후손들의 제사요, 혈제는 도민들의 제사인 셈이다.

삼성혈제는 석전제(釋奠祭)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초헌관(初獻官)은 지방 장관,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은 기관장과 유지 중에서 선임된다. 근래에는 초헌관은 도지사가 맡고, 아헌관은 도의회 대표, 종헌관은 군의회의 대표가 맡기도 한다. 헌관과 집사는 전사청(典祀廳)에서 재계(齋戒)를



삼성혈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 최호식

한다. 이곳에서 제일(祭日) 오전 11시가 가까워지면 혈단 앞으로 이동한다. 삼헌관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하는데, 이는 삼성혈제가 본래 탐라왕(耽羅王)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머지 집사들은 일반 청의(靑衣)를 입는다. 혈 앞에 비석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나지막한 세 개의 제단이 있다. 제단은 넙적한 돌을 장방형으로 다듬어 만들었다. 각 제단 앞에도 돌로 만든 향석(香石)이 놓여 있다. 사정에 따라 제단 위에 천막을 치기도 한다. 희생(犧牲)으로 신위마다 돼지머리를 올리며, 제단의 오른쪽에 관세위(盥洗位)를 둔다. 11시부터 제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집례(執禮)가 읽는 홀기(笏記)의 내용에 따라 헌관은 알자(謁者)의 안내를 받으며 움직이고 집사들도 제각기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헌관들은 울타리 가까이 도열하여 있다가 관세위로 이동하여 관세를 하고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가 배례를 하며 맡은 소임에 따라 폐백을 올리거나 술잔을 올린다. 모든 의례가 끝나면 참석한 사람 모두가 전사청 앞마당으로 이동하여 음복을 한다.

삼성혈제는 본래 11월 상정일에 지내던 것이다. 조선조 중종(中宗) 21년(1526)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삼성혈 주위에 돌담을 쌓고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워 삼성(三姓)의 후예로 하여금 봄과 가을에 제사를 모시게 하고, 아울러 매년 중동(仲冬)에 도민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수동 목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뒤에도 삼을나에 대한 제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이후에도 삼을나에 대한 제사를 권장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조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영조(英祖) 48년(1772)에 양세현(梁世絢) 방어사가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주고 향청(鄕廳)으로 하여금 혈제를 올리게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지원조치의 결과 삼성사는 점차 풍부한 재력을 갖추게 되었고 매년 끊임없이 제사를 규모 있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삼성혈이 성역화되고 유교식 제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인근에 있었던 광양당(廣壤堂)과 같은 곳에서 당굿 형태의 무속제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삼을나의 후손과 관(官)의 주도로 삼성혈에서 유교식 제의가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당굿은 오랫동안 그대로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巫俗神 와 文 神 (容駿, 집문당, 1992).

필자 | 강정식(姜晶植)

유천동산신제(　　洞　　)

정의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에서 행해지는 보문산 산신을 모시는 제의. 1997년 1월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었다. 매년 음력 동짓달 초사흘에 지내는 유천동산신제(柳川洞山神祭)는 본래 버드내산신제라 하였다. 버드내는 유천(柳川)의 한글 표기로 버들내에서 변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곧 천변에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는 데에서 천변을 끼고 있는 마을 이름이 버들내가 되었고, 버들내가 음운변화를 거쳐 발음하기 쉬운 버드내가 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지명에 근거하여 유천동산신제를 버드내산신제라 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마을이 확장되면서 버드내보다 유천동이란 지명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곳의 제의 명칭이 버드내산신제에서 유천동산신제로 변화하였다.

유래 유천동은 도마동과 하천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하천은 천변에 늘어서 있는 버드나무로 인해 유등천으로 불린다. 이 유등천의 북쪽 일대가 바로 유천동이다. 이 곳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촌마을로 유천동은 보문산 산자락에 위치한 정도에 따라 상평, 중평, 하평으로 나뉘었다. 과거의 산신제는 마을이 연합하여 지냈다.

유천동산신제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 구전에 따르면 16세기 중반, 460여 년 전부터 호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산제당이 보문산 산기슭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구전에 의한 것으로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나이 많은 제보자에 따르면 1930년대에도 산신제가 있었으며, 선대로부터 지속해온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유천동의 산신제는 적어도 100여 년 이상의 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유천동산신제의 주된 목적은 마을 주민들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축문에도 보이듯이 질병의 화를 면하게 해주고, 물과 불의 피해를 면하게 해주며, 교통사고 등을 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산신제의 주된 목적이다. 물론 이 외에도 소지를 올리는 과정에서 농사의 풍년이나 가축의 번성을 기원한다. 과거와 현재의 축문(祝文)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유천동산신제 축문〉

維歲次 ○○年 十一月朔初三日 ○○
柳鄕契選出代表幼學○○○敢昭告于
寶文山神靈 伏有天有靈 地有靈 人爲貴
天以日月爲耳目 地耳山川爲血脉 人爲天地爲父母
惟我 寶文山神靈 鎭座畿湖之中央俯
八方之物色生育地方之人物貳千萬年矣
伏願 神靈 陣此庶裔 一免病疫之禍
二免水火之災 三免交通輪禍之亂
咸賴天地父母亡息一域安過太平
千萬幸甚謹準年例選定
祭員齋戒三日沐浴更衣略設犧牲
參神奠獻 尙饗

〈현행 유천동산신제 축문〉

維歲次 西紀 ○○○○年 ○○歲十一月 ○○初三日 ○○
幼學○○○은 柳鄕契員과 柳川洞民을 代表하여 敢히
寶文山神靈任께 仰告하옵나이다.
幼學等 愚昧한 本洞民들은 神靈任의 恩德을 天地爲
父母하고 日月星辰照鑑下에 길이 保全하고 있사옵
니다. 寶文山神靈任께서는 이곳 中都大田에 鎭座하
시와 億兆蒼生을 굽어살피시고 愛護撫育하여 주심
에는 衷心으로 感銘不已이옵나이다. 神靈任께서는
上通天하시고 不遠地하시며 全知全能 하신줄 믿사
옵니다. 伏願컨대 우리 柳鄕契員 및 洞民들과 畜生
에 이르기까지 雨順風調로 各其生業에 따라 所願成
就하고 富裕한 生計를 이룩하여 有能한 英才를 많이
胚出케 하여 주시옵고 一便 疫疾의 殃禍와 水火의
災殃과 兵役中 橫厄, 交通事故 등 諸般 患難疾苦를
防禦하여 주시옵고 우리 柳川洞民 各 家庭에 幸運이
깃들게 도와주시옵기 祝願하나이다. 悚懼하옵게도
今年은 幼學이 祭典에 選定되와 沐浴齋戒하옵고 略
設淸酌하와 삼가 奉行하오니 歆饗하시옵소서.

현행 축문은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업에 따라 소원성취하고 부유한 생계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나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게' 해달라는 것, 자녀의 '병역 중 횡액'이나 '교통사고 등의 환난질고'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은 요즘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천동산신제는 매년 음력 11월 중 길일을 골라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동짓달 초사흘로

유천동 산신제









1 산신도
2 산제당
3 제장의 샘
4 황토
5 금줄
6 금줄 친 산제당
대전시 중구 유천동 국립민속박물관





유천동산신제

洞山神祭


1



2


3


4


5

1 제물 준비
2 길놀이
3 길놀이
4 진설
5 제단
6 제관과 참례자
7 분향
8 배례
9 헌작
10 퇴주
11 독축
12 소지
13 음복

대전시 중구 유천동 국립민속박물관


6


7


8


9


10


11


12


13

제의 일자를 확정하여 매년 같은 날에 산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유천동산신제는 유향계(柳鄕契)가 중심이 되어 시행된다. 유향계원은 대부분 이곳 유천동의 토착민들이다. 제관은 유천동 유향계원들이 회의를 통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제관은 제주와 축관, 유사 각 1인이다. 이들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산신제를 지낸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 지내기 사흘 전부터 근신생활을 한다. 각자의 집 대문 앞에 황토를 놓고, 대문에 금줄을 걸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 금줄은 산제가 끝난 뒤에도 일주일 정도 걸어두었다가 뗀다. 또 대문 밖 출입을 삼가며 목욕재계를 하여 몸을 청결히 유지한다. 부부간의 잠자리를 피하고 먹는 것에서도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제주와 그 일행은 제 지내기 사흘 전에 제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현 유천동산제당은 도심에 위치하여 있다. 이는 시가가 확장되면서 산제당이 자연스럽게 민가에 둘러싸인 것이다.

현 대전시 중구 유천1동 256-1번지에 위치한 산제당은 30평의 대지에 세워져 있다. 건평은 3.5평이고 단칸 기와집이다. 당의 내부에는 보문산 산신령을 모시고 있다. 당의 내부 전면 벽에 호랑이와 산신령이 함께 있는 산신도가 있다. 이 산신도는 이전의 것이 낡고 퇴색하여 1970년대 말에 다시 제작한 것이다. 건물 또한 2001년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보수하였다. 현재 유천동의 산신제는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내려오고 있다.

제장의 한쪽에 샘이 있다. 이 샘은 제의 때에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는 샘이다. 또 산제당의 전면 오른쪽엔 수령이 100여 년 된 소나무가 있다. 본래 산제당 주변에는 여러 그루의 소나무가 있었다. 보문산에서 캐어다 심은 것들인데 주변이 주택가가 되면서 베어지고 지금의 산제당 옆에 선 소나무 한 그루만 남게 되었다.

산신제의 제물은 돼지머리, 시루떡, 탕, 명태포, 대추, 밤, 배, 나물, 술 등이다. 제물은 유사가 당일 아침 시장에 가서 구입해 온다. 유사는 제수를 구입할 때 값을 흥정해서는 안 된다. 또 가고 오는 과정에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런데 1997년 유천동의 산신제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제의 자체가 이전보다 확장되었다. 이를테면 돼지머리 대신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리고, 그 밖의 제수 역시 이전보다 푸짐하게 준비하여 올린다.

산신제는 당일 저녁 10시 무렵에 준비하여 11시 무렵에 지낸다. 제주 일행은 제주의 집에 모여 있다가 10시 무렵에 산제당으로 이동한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간 제물을 당의 전면 상에 진설한다. 이어 11시가 되면 제를 지낸다. 제의 순서는 분향 - 강신 - 배례 - 초헌 - 독축 - 아헌 - 종헌 - 첨작 - 소지의 순이다. 이러한 과정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제사와 유사한 것으로, 소지올림 과정만 제외한다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지올림의 과정에서 대동소지를 올린 뒤 제의에 참여하거나 관계된 각각의 상인, 공사단체, 영업장의 소지를 올린다.

산신제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끝나면 제주 일행이 유사의 집에 모였다. 제주 일행과 유향계원이 유사의 집으로 가서 음복하며 밤이 늦도록 환담을 나누었다. 그러다가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부터는 제주 일행과 관공서 참여자, 상인들이 두루 모여 음복하고 있다.

의의 유천동산신제는 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공동체 신앙이 도시화와 맞물려 소멸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천동산신제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처럼 도심 속에서 산신제의 존립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토착민들이 중심이 된 유향계가 산신제를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제의 주체가 공동체 신앙의 기능에 관심을 두고 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제의에 담으려고 노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업이나 사업장의 번창,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 유능한 인물 배출, 군대에 간 자녀의 안전 같은 변화한 거주민의 소망을 담아내려 노력하였다. 바로 이 점이 유천동산신제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밭의 마을신앙(대전직할시향토사료관 학술총서1, 대전직할시 향토사료관, 1993), 유천동 산신제(한대수, 대전문화 뿌리찾기 무형문화재 기록도서2, 대전광역시, 2005).

필자 | 박종익(朴鍾翼)

중동팔관회(仲 冬 八 關)

정의 고려시대 수도 개경(開京)에서 중동(仲冬)인 11월 보름에 개최되던 불교의례. 불교의례 중 가장

큰 규모의 국가적 연례 행사였다.

유래 팔관회(八關會)는 본래 인도의 팔계재(八戒齋)에서 나온 것이다. 불교에서 계(戒)는 소극적으로는 잘못을 막고 악을 방지하는 힘을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업을 발생시키는 근본을 뜻한다. 팔계재는 불교계율의 사미십계(沙彌十戒)에서 비롯되었다. 사미십계는 ① 살생하지 말라 ② 도둑질하지 말라 ③ 음란한 일을 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을 마시지 말라 ⑥ 몸에 꽃 장식을 하고 향을 바르지 말라 ⑦ 노래하고 춤추는 풍악놀이를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가서 보고 듣지도 말라 ⑧ 높고 넓은 평상에 앉지 말라 ⑨ 때 아닌 때 먹지 말라 ⑩ 돈과 금은보화를 가지지 말라는 열 가지 조항이다. 이 중 앞의 다섯 조항은 승려와 재가신도(齋家信徒)를 막론하고 종신토록 지켜야 할 기본적인 5계(五戒)로 하고, 여기에 ⑥항과 ⑦항을 합하여 제6계로, ⑧항을 제7계로, ⑨항을 제8계로 하여, 이를 팔계재라 총칭하여 일컬었다.

재가신도들은 평상시에는 팔계(八戒)를 엄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잿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절에 모여 팔계재를 지키는 의식을 행하여, 살아서는 재액을 막아 복업을 이루고 죽어서는 죄업을 소멸시켜 욕계육천(欲界六天)에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쌓고자 하였다. 이러한 팔계재의 공덕은 초기 경전인 『중아함경(中阿含經)』 권55 경202 「지재경(持齋經)」에서부터 언급되었으며, 대승불교시대에 접어들자 재가신도들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수행법으로 더욱 중요시되어 『팔관재경(八關齋經)』, 『우바이타사가경(優婆夷墮舍迦經)』, 『불설재경(佛說齋經)』 같은 단독 경전에도 기록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도의 팔계재는 중국으로 전해진 명칭이 팔관재(八關齋)로 바뀌게 되었다. 일찍이 중국에서는 팔관(八關)이라는 관념이 있었는데, 팔(八)이라는 숫자는 팔방(八方) 곧 천하를 상징하고, 관(關)이라는 글자는 막아냄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팔관은 외적 및 위험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방어의 요새지에 팔관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팔계재를 포교하기에 산스크리트어의 직역인 팔계라는 말보다는 전통적 액막이 관념인 팔관을 차용하는 것이 친숙하여 더 효과적이었다. 삼간다는 뜻의 계(戒)가 금(禁)과 통하고 금은 관(關)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2월조(二月條)에 의하면 팔관재는 남북조시대 초기부터 이미 불탄일(佛誕日) 행사에서 중요한 불교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법원주림(法苑珠林)』 권6 「육도편(六道篇)」 4 귀신부(鬼神部)11에 의하면 팔관재가 재액을 막는 데 전통적인 도교 주술보다 효험이 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특히 미륵신앙이 유행하면서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 도솔천에 왕생하기 위한 공덕으로 팔관재가 강조됨에 따라 팔관재는 명복을 비는 위령제로 빈번히 설행(設行)되기 시작하였다. 『약사경(藥師經)』에서도 역시 팔관재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치병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팔관재가 성행하였다.

당(唐)에 이르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여 인원 동원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법회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팔계를 지킨다는 재계(齋戒)로서의 의의는 퇴색하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으로 변질하였다. 또 명칭도 팔관재에서 팔관회로 변화하였다.

역사 우리나라에서 팔관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은 고려가 건국된 918년 중동 11월 15일이었다. 『고려사(高麗史)』 권1 「세가(世家)」1의 태조(太祖) 원년(元年) 기사(記事)와 권69 「지(志)」23 예(禮)11 기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1 「태조 신성대왕(太祖神聖大王)」 원년 기사에 의하면 태조는 건국한 해 11월에 중동팔관회를 열어 위봉루(威鳳樓)로 나아가 행사를 구경하였고 이후 해마다 이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의 팔관회는 실제로는 이전부터 있던 것을 계승한 것이다. 태조 왕건(王建)은 태봉(泰封)의 궁예(弓裔)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는데 태봉에서는 매년 중동팔관회가 열리고 있었다.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던 궁예는 고구려의 동맹(東盟)처럼 추수감사제 성격의 계절 축제인 팔관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4 「열전(列傳)」4 거칠부조(居柒夫條)에 의하면 원래 팔관회는 삼국전쟁 때 고구려에서 시작되어 통일신라시대에도 지속된 위령제 기능을 하던 불교의례였다. 신라의 팔관회는

화랑과 낭도들로 구성된 사선악부(四仙樂部)가 주도하고 용과 봉황, 코끼리와 말 형상으로 꾸민 배 모양의 수레들이 행렬을 벌이던 화려한 행사였으며, 위령제로 그치지 않고 생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불교의 이상 세계인 용화세계가 신라에 구현될 것을 기원하는 축제였다.

태조는 이러한 기존의 팔관회 성격들을 종합하고 나아가 호족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각 지역의 토착 신앙을 중앙 집권 체계로 통합하기 위해 팔관회를 구상하였다. 태조는 지역적 성격을 띠고 그 지방 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큰 역할을 하던 지역의 산천신앙들을 고려라는 국가 체계 속에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팔관회의 개최가 효과적이라 생각하였다. 팔관회는 불교의례이면서도 액막이의 기능이 중요하였으므로 토착신앙을 신봉하는 고려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고려사절요』 권1「태조 신성대왕」 원년 기사에 팔관회를 '부처를 공양하고 귀신을 즐겁게 하는 모임(供佛樂神之會)'이라 칭하였다는 기록이나, 훈요십조(訓要十條)의 제6조에서 연등(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천령(天靈)과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천(大川),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라 언급한 내용은 팔관회가 토착신앙을 포섭한 불교 행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태조가 손수 지은 '개태사 화엄법회소(開泰寺華嚴法會疏)'를 보면 불교의 신불들과 토속신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구별되어서 병존 관계를 이루나, 일상적으로는 불교 속에 토속신들이 포섭된 형태로 신앙되고 있었다.

태조는 후대 왕들을 위해 유훈(遺訓)으로 남긴 훈요십조 제1조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우리의 토착신앙이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천명한 후, 제5조에서는 삼한 산천신령들의 음덕으로 왕업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이어 제6조에서 팔관회를 매년 반드시 설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역대 왕들은 이를 준수하여서 팔관회는 고려의 국가의례 구조 속에 최상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가 행사로 자리 잡았고 멸망하기 전 해인 공양왕(恭讓王) 3년(1391) 11월까지 지속되어 고려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내용 팔관회는 가장 중요시되었던 국가의례였던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준행되었으며, 고려의 국가의례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관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습의(習儀)라는 예행연습이 있었다. 팔관회의 의전은 『고려사』 권69「지」23 예11 가례잡의(嘉禮雜儀) 항목의 중동팔관회의(仲冬八關會儀)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형화된 절차는 정종(靖宗) 즉위년(1034)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중동팔관회는 11월 14일인 소회일(小會日), 15일인 대회일(大會日) 이틀에 걸쳐 설행되었으며 16일까지가 공식휴일이었다. 행사일 훨씬 전부터 관청의 부서들은 각기 소임들을 맡아 궁성 안팎에서 채비를 시작한다. 첫날 소회일 행사는 난가출궁(鑾駕出宮) 의식과 좌전수하(坐殿受賀) 의식의 2부로 구성된다. 난가출궁은 내전에서 좌전수하 의식이 거행되는 의봉문까지 국왕이 행차하는 의식으로, 마지막에 국왕은 의봉문루에 봉안된 태조의 초상화 앞에 술을 올리고 배례하는 예조진작헌(詣祖眞酌獻)을 행하였다. 의봉문은 구정(毬庭)으로 나가는 궁궐 남문으로 양편에 정문보다 작은 규모의 부속 문이 있는 삼문(三門) 양식이며 누각 형태로 동서 양편에 층계를 이용해 문루로 올라갈 수 있었다. 『고려사』 권72「지」26 여복(輿服) 의위(儀衛) 항목에 있는 중동팔관회출어간악전위장(仲冬八關會出御看樂殿衛杖)에 따르면 이때 국왕의 수레를 의식용 기물을 손에 들고 정복을 착용한 위풍당당한 3,276명의 의위사(儀衛士)들이 호위하였다고 한다.

좌전수하는 국왕이 의봉문루에서 구정에 도열한 모든 군신들로부터 조하(朝賀)를 받은 후 헌수(獻壽)와 하사(賀詞)를 반복하며 연회를 하는 의식이다. 태자 이하 종신(宗臣)들과 중앙의 문무백관이 위계에 따라 하례를 올린 후에 지방관들이 파견한 관원들이 팔관회를 경축하는 하표를 올리고 조하하였다. 이로써 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하고 국왕의 권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기능을 하였다.

조하의식 이후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술과 음식을 나누며 당대 최고 양부(兩部) 악관들의 음악과 교방(敎坊)의 가무, 백희(百戱)를 감상하고 즐겼다. 이는 신들을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는 팔관회 본래의 기능에 충실함과 동

시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출신지를 초월하여 고려인으로서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하였다.

궁정 행사가 끝나면 국왕은 황궁 동편의 법왕사(法王寺)로 행차하여 모든 불보살과 토속신에게 분향하고 돌아와 궁궐 마당에서 백신(百神)에게 배례하였다. 이것은 지역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전국 각지의 토착신앙을 중앙집권적인 일원적 구조로 수도 개경에 통합한다는 의식이었다. 지방의 호족 세력이 주재하였던 토착신의 제사들을 국왕이 주재하여 합사한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구정이 개방되어 일반 백성들도 궁성 안으로 들어와 화려하게 가설된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처럼 팔관회는 고려 사람들의 문화축제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튿날의 대회일 행사는 전반적으로 소회일과 유사하였지만 외국인들의 조하의식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고려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의식 절차로 송(宋)의 상인과 여진, 말갈, 탐라(耽羅)의 사절단, 멀리 아라비아 대식국(大食國: 사라센 제국)의 상인들까지도 와서 토산물들을 바치고 조하하였다. 고려 왕실은 답례로 봉물을 회사하고 팔관회의 참여를 허락하여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고려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는 별도로 고려가 또 다른 천하의 중심일 수 있다는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천하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팔관회를 통해서 구현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팔관회는 각국에서 온 무역상들과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활발히 교역을 하는 계기도 되었다.

국가 행사 가운데 가장 중시된 팔관회였던 만큼 소요 경비와 동원 인원은 막대하였다. 따라서 개경과 서경에는 팔관회의 경비 조달과 진행을 총괄하는 팔관보(八關寶)라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으며 경제적 폐해 또한 적지 않았다. 『고려사』에는 팔관회에 대한 공출 부담과 비용 전가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사례들이 보인다.

이처럼 건국 직후부터 고려와 함께 한 팔관회는 고려의 상징적 행사였던 만큼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 문화 청산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인 철폐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며 배불(排佛)을 주장하던 사대부들은 팔관회의 혁파를 강력히 상소하였다.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조 원년(1392) 8월 5일조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팔관회와 연등회의 폐지를 주청하였다는 기록 이후 중동팔관회에 대한 기사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중동팔관회는 일찍이 조선 건국 직후부터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불교 행사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세시풍속이 되었던 팔관회는 다시금 불교의 지계행사(持戒行事)로 회귀하였고, 이제는 사찰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참고문헌 | 高麗大藏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正新脩大藏經, 法苑珠林,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楚歲時記, 關 攷(安啓 , 東國史 4, 東國大 校史 , 1956), 한글대장경(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편,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1966),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안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 안지원(安智源)

청어천신( )

정의 겨울과 봄에 새로 난 청어(靑魚)를 조상에게 올리는 의례. 조상 숭배의 하나로 주로 궁중과 양반가에서 행한 풍속이다. 청어천신은 흔히 동짓날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동짓달인 11월과 2월 또는 1월에도 천신하였다. 요동(遼東)사람들은 청어를 새로 생긴 물고기라 하여 '신어(新魚)'라고도 하였다 한다.

내용 천신은 제철에 새로 난 물건을 조상에게 먼저 바치는 의례이므로 겨울과 봄에 청어가 새로 나면 양반가에서는 사당이나 가묘(家廟)에, 대궐에서는 종묘에 먼저 천신한 다음에 먹었다. 대궐에서는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청어를 진상하면 반드시 먼저 종묘에 천신한 뒤에 임금이 맛을 보았으며, 그런 뒤 신하들에게 진상품을 나누어주었다. 특히 영조는 절후가 일러서 종묘에 천신하지 않은 송이를 바치자 끝내 들지 않아 이후부터는 이미 종묘에 천헌(薦獻)한 것이 아니면 감히 임금께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 월내조(月內條)에 따르면, "청어를 종묘에 천신한다. 경사대부의 집에서도 이를 행한다. 생각건대 『예기(禮記)』



「월령편(月令篇)」에 '계동(季冬)의 달에 천자는 물고기를 맛보시는데 먼저 종묘에 천신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제도도 그와 같다. 청어의 출산지로는 통영(統營)과 해주(海州)가 가장 성황을 이룬다. 겨울과 봄에 진상하는데 어선이 경강(京江; 뚝섬으로부터 양화도, 곧 현재 제2한강교 근처까지 이르는 한강의 일대)에 와 닿으면 온 시내의 생선장수들이 거리를 누비면서 청어를 사라고 소리친다. 통영에서는 갑생복(甲生鰒: 전복)과 대구어(大口魚)도 진상한다. 진상하고 나머지는 예에 따라 재상들에게 선물한다."라고 하였다.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에는 "해주에서 잡은 것은 2월에 맛이 극히 좋다."라고 하여 진상품으로서 특히 유명했던 것 같다.

경북 안동에서는 가신(家神)을 모시는 집의 경우 설날 차례를 지낸 뒤 성주고사 때 청어를 올린다. 이때 청어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고등어는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올린다. 중국 화룡시 동성진 해란촌의 조선족은 한식 성묘 때 청어나 송어를 올린다.

시기 및 산지 청어천신의 시기는 11월 동짓달과 2월로 되어 있는데, 1월에 진상하기도 하였다. 천신 물품 중에는 정해진 월령(月令)에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시기를 특별히 제철에 맞추어 봉진하도록 허락한 것들이 있는데, 이는 제철에 나는 신물(新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어천신의 경우에도 청어가 나는 시기가 철의 이름과 늦음 그리고 물산의 진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청어는 경상도(동래의 가덕·천성진, 영일의 주진, 통영), 전라도(만경, 부안의 위도·활도), 충청도(남포, 비인, 홍주, 태안, 서산, 보령, 결성의 광천), 황해도(해주, 옹진, 장연, 강령, 풍천)지방과 함길도(함경도) 경원에서 많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6년(1511) 4월 8일조에는 서해안의 위도는 예전부터 청어가 다산하던 곳이나 중종 1년(1506) 이후부터는 청어가 잡히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고,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도 봄철에 서남해에서 항상 다산하던 청어가 선조 3년(1570) 이후부터 전혀 산출되지 않는다는 기록에서 청어의 변동 현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황해도에서 잘 잡히지 않았던 청어가 나타나자 인조 7년(1629) 3월 5일 황해감사 이경용(李景容)이 봉진한 뒤 이어 인조 8년 2월 19일에 황해 감사 이여황(李如璜)이 청어를 진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58 「어염(魚鹽)」 조선(朝鮮)에서는 전북 위도에서 많이 잡히던 청어도 철종 때는 고기가 다른 데로 이동하여 잘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청어를 잡는 시기는 겨울철로서 11~2월에 잡았는데, 청어를 먼저 잡는 지역인 경상도 영일의 주진에서 나라에 바친 뒤 여러 고을에서 잡았다 한다.

속신 청어는 푸른빛을 내는 길상적(吉祥的)인 물고기로서 그 이동과 생산의 많고 적음으로 나라의 태평과 풍요를 점치는 점복 기능이 있다. 『인조실록(仁祖實錄)』 인조 7년 3월 5일조에 따르면 서해에 청어가 다시 나자 이를 시대가 평화롭고 풍년이 들 징조로 여겼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경상도(慶尙道)」 영일현(迎日縣) 산천조(山川條)의 주진에 관한 기록에서 "해마다 겨울에 청어가 반드시 먼저 여기에서 생산되어 나라에 바친 연후에야 여러 고을에서 비로소 잡기 시작하며, 그 생산의 다소를 가지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에는 임진왜란 직전에 발생한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가운데 "동해의 물고기가 서해에서 나고 점차 한강까지 이르렀으며, 원래 해주에서 나던 청어가 근 10여 년 동안이나 전혀 나지 않고 요해(遼海)에 이동하여 나니, 요동 사람들이 이를 신어라고 일컬었다."라고 하고 있다.

의의 동짓달의 청어천신은 동지를 작은설이라고 하였듯이 이날을 기점으로 점차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므로 새해에 새로 난 청어를 조상에게 바치는 동지차례 또는 동지천신의 주요 제수로서 더욱 의미가 있었던 듯하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明宗實錄, 宣祖實錄, 惺所覆瓿藁, 世宗實錄, 純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英祖實錄, 禮記, 仁祖實錄, 中宗實錄, 增補文　備考, 芝峯類說, 懲毖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김이숙(金利淑)

황감제(　柑　)

정의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과 사학(四學)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진상된 귤을 유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科擧).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특별시험 가운데 하나로서, 매년 겨울에 제주도에서 감귤이 진상되면 그 일부를 성균관과 사학에 거재(居齋)하고 있는 유생들에게 나눠주고 시제(試題)를 내려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 황감시(黃柑試) 또는 감제(柑製)라고도 하였으며, 인일제(人日製), 삼일제(三日製), 칠석제(七夕製), 구일제(九日製)와 함께 일종의 절제(節製)였다.

내용 원래 임금이 감귤을 하사하고 이에 대해 글을 지어 올리는 일은 조선조 초기부터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현직 관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전통이 중종조에 들어서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에게 감귤을 내린 뒤 글을 지어 올리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중종조 말 명종조 이후에는 거둬들인 시권을 과차(科次; 성적을 매겨 등수를 정하는 일)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 초시나 복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급제를 의미했다)의 특혜를 줌으로써 성균관 유생의 사기를 진작하고, 성균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장권(奬勸) 기제로 발전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성균관 유생에게 술과 감귤을 내리면서 제술시험을 시행한 최초의 사례는 중종 31년(1536) 1월에 보인다. 다만 시험 결과에 따른 시상이 있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후 명종조를 거치는 동안에 동일한 행사를 통하여 작성된 제술시권에 대해서도 어떤 시상을 하였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감귤을 내려 성균관 유생을 시험 보게 한 후 과차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직부전시, 그 밖의 입격자에게 등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상한 사례는 선조 38년(1605) 12월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동전고(東典考)』 권6 「관직(官職)」 과제조(科制條)에도 "이로부터 황감사제(黃柑賜第)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숙종조부터는 거의 매년 시행하였으며 『속대전(續大典)』에 황감제 규정이 들어감으로써 상전(常典)의 위상을 갖추었다. 이후 황감제는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근대적 고시제도로 크게 변통되기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시험 과목은 식년·증광 문과 전시(殿試)나 절일제(節日製)와 같아 대책(對策), 표(表), 전(箋), 잠(箴), 송(頌), 제(制), 조(詔)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하였다. 『속대전』 이후에는 논(論), 부(賦), 명(銘)이 추가되었다. 수석을 차지한 유생에게는 직부전시 그 다음 등수에게는 직부회시(直赴會試; 초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 또는 급분(給分; 문과 초시에 가산점을 주는 혜택), 그 다음은 지필묵을 시상하는 것이 통례였다.

참고문헌 | 大典　，東典考,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官考,　志, 학제와 과거제(조좌호,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김경용(金敬容)

동짓달스무날달보기

정의 동짓달 스무날 저녁에 달이 지는 것을 보고 그 해의 연사(年事)를 점치는 풍속.

내용 동짓달은 음력 11월을 말한다. 중국의 『역경(易經)』에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冬至)로 보고 11월에

배치하였고, 주(周)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삼았다. 동지는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陰)이 극에 이르지만, 이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이러한 동짓달 스무날 저녁에 달이 지는 것을 보고 그해의 연사를 점치는데, 달이 완전히 지고 그 이튿날의 동이 터오면 시절(時節)이 좋지만, 달이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 동이 트면 시절이 나쁘다고 여긴다. 전남에서는 이날 달이 완전히 지고 다음날의 동이 터오면 시절이 좋으나 달이 지지 않았는데 다음날이 새면 시절이 나쁘다고 한다.

의의 동짓달의 동지를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는데, 이는 양의 기운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짓달 스무날에 달이 완전히 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것을 길한 것으로 여긴다.

참고문헌 | 易經, 國民俗綜 調査報告書 -全羅南道 -(文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1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박종오(朴宗吾)

골동면(骨董麵)

정의 메밀국수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 양념장으로 고루 비벼서 먹는 국수. 비빔면 또는 비빔국수를 이르는 말이다. 골동(骨董)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재료가 섞인다는 것을 말할 때 쓰이기도 한다. 예전에는 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류를 섞어 간장 양념에 비볐으나, 언제부터인지 고추장 양념으로 맵게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북쪽지방에서 겨울철에 즐겨먹던 매운 냉면(冷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11월 월내조에 "메밀국수에 잡채, 배, 밤, 쇠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간장 등을 넣어 섞은 것을 골동면이라 한다. 생각건대 나부영(羅浮穎)이라는 노인이 여러 가지 식품을 섞어서 만든 갱(羹)을 골동갱이라 하였는데 골동이란 뒤섞는다는 뜻이다. 지금의 잡면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의전서(是議全書)』의 면부에는 "비빔국수는 황육(쇠고기)을 다져 재워서 볶고 숙주와 미나리를



삶아 묵을 무쳐 양념을 갖춰 넣은 다음 국수를 비벼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위에는 고기 볶은 것과 고춧가루, 깨소금을 뿌리고 상에는 장국을 함께 놓는다."라고 하였다.

한편 『부인필지(婦人必知)』의 반죽(飯粥) 제품편에는 "발 가늘고 질긴 국수를 삶아서 그릇에 한 켜 놓고 숙육(수육)과 삶은 제육, 해삼을 저며 놓고 배추, 생강, 표고, 파를 다 채쳐 볶는다. 정육을 다져 속에 통잣을 넣고 완자를 만들어 삶은 미나리와 앞의 모든 재료를 합하여 잣, 깨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국수에 넣어 비비되 좋은 초장을 부으면 희한하다."라고 하였다.

비빔국수를 만드는 법은 오늘날도 거의 같다. 다만 국수에 넣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각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골동면은 비단 동짓달의 시식으로만 먹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면도 메밀국수와 밀국수가 함께 이용되었다.

의의 골동면은 각종 국수류를 장국에 말지 않고 제철 채소류와 버섯류, 육류, 해물까지도 이용해서 비벼 먹는 일품요리로 골동반과 같이 한 그릇에 영양과 맛을 함께 담아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밑간을 하는 음식이다. 초대 음식이나 단체 급식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婦人 知, 是議全書,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晉社, 1991), 조선왕조 궁중음식(性, 궁중음식연구원, 1993).

필자 | 조후종(趙 鍾)

냉면(冷麵)

정의 차게 식힌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만든 음식.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는 메밀국수를 무김치와 배추김치에 말고 돼지고기를 섞은 것을 냉면(冷麵)이라고 하면서, 음력 11월의 시절음식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오늘날 냉면은 사시사철 언제나 먹을 수 있다.

내용 현재까지 알려진 냉면 관련 기록이 있는 문헌으로는 장유(張維)의 문집인 『계곡집(谿谷集)』을 꼽을 수 있다. 이 책 권27에 '자장냉면(紫漿冷麵, 자줏빛 육수의 냉면)'이란 시가 실렸다. 그 중 냉면과 관련된 대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줏빛 육수는 노을빛처럼 비치고, 옥색의 가루가 눈꽃처럼 흩어진다. 젓가락을 입에 넣으니 그 맛이 입속에서 살아나고, 옷을 더 입어야 할 정도로 그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뚫는다(紫漿霞色映 玉紛雪花勻 入箸香生齒 添衣冷徹身 客愁從此破)."라고 했다. 이후 『재물보(才物譜)』, 『진찬의궤(進饌儀軌)』, 『동국세시기』, 『규곤요람(閨壼要覽)』의 기록에도 냉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이후에 북한 지역은 물론이고 당시의 한양에서도 유행 하였음을 짐작할 수있다.

냉면을 내리는 국수틀은 한자로 '면자기(麵榨機)'라고 쓴다. 그 구체적인 실체는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잘 기록되어 있다. 냉면을 만드는 면자기는 사람이 올라가서 힘을 주도록 만들어졌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국수내리는모양'이란 그림에 잘 나와 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어 근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평양에는 전문적으로 냉면을 판매하는 식당이 자리를 잡았다. 1910년대에 평양의 대동문 앞에는 2층으로 된 냉면집이 있었다. 1920년대가 되면 평양 시내에 수십 곳의 냉면집들이 속속 들어섰다. 그래서 평양면옥상조합(平壤麵屋商組合)이 생겼을 정도였다.

평양냉면집은 1920년대 초반에 서울로 진출한다. 낙원동의 부벽루, 광교와 수표교 사이의 백양루 그리고 돈의동의 동양루가 모두 냉면 전문점으로 그 당시 이름을 떨쳤다. 소설가 김랑운은 1926년 『동광(東光)』8에 소설 「냉면(冷麵)」을 발표했다. 한참 세계



냉면 궁중음식연구원

경제의 공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신문사 기자인 순호가 여름이 극성을 부리는 8월 줄어든 월급봉투를 들고 집을 향하다가 종로 근처에 내려 돼지편육과 채를 썬 배쪽 그리고 노란 겨자가 위에 수북한 냉면 한 그릇을 먹는 과정이 이 소설에 담겨 있다. 1930년대가 되면 냉면은 배달 음식으로 서울에서 팔렸다. 유기그릇에 담긴 냉면은 15전에 배달되었고, 배달부에게 별도로 10전을 수고비로 주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지역의 유명한 냉면으로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이 있다.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에 녹말을 조금 섞어 반죽을 하면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것을 국수틀에 넣고 눌러서 국수를 뽑아낸다. 여기에 편육, 쇠고기볶음, 오이채, 배채, 삶은 계란 중에서 알맞은 재료를 고명으로 골라 국수 위에 올린다. 국물로는 쇠고기, 닭고기, 꿩고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 끓인 육수를 차게 하여 쓰든지, 동치미 국물을 붓는다. 여기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먹는 냉면이 바로 평양냉면이다. 이에 비해 함흥냉면은 국수에 홍어나 가재미를 썰어서 고추장과 마늘 등으로 양념을 하여 비벼서 먹는다. 반면, 감자녹말로 만든 삶은 국수를 국물에 말지 않고 홍어회나 가재미의 생선회를 맵게 하여 먹는 것이 함흥냉면이다.

그 밖에 남한 지역의 이름난 냉면으로 진주냉면이 있다. 진주냉면은 순메밀로 국수를 만들며, 쇠고기를 삶아 수육을 썰고 그 국물을 냉면육수로 쓰는데 돼지고기는 쓰지 않는다.

얼음 공장이 생기면서 냉면은 겨울만 아니라,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1929년 12월 1일에 발간된 『별건곤(別乾坤)』4-7에는 '김소저'란 필명으로 「사시명물(四時名物) 평양냉면(平壤冷麵)」이란 글이 실렸을 정도다. 당시 서울의 냉면집 밖에는 길게 늘어뜨린 종이가 휘날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선전 방식은 서울 돈의동의 동양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바람이 불면 마치 수양버들 가지가 흩날리듯 흰 종이자락이 나부꼈다. 이와 같은 냉면집의 유행은 일본의 화학조미료 회사 아지노모도(味の素)가 1927년 평양 대동문 근처에 냉면집을 열어서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그 후 조선간장으로 간을 한 동치미 국물 육수와 함께 화학조미료가 첨가된 육수에만 냉면도 팔리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 남한 전역에서 냉면이 유행을 했고, 이제는 계절을 따지지 않고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으며, 특히 불고기나 갈비 같은 고기를 먹고 난 후 냉면을 먹는 관습이 자리를 잡았다.

참고문헌 | 谿谷集, 閨壺要覽(延大), 東國歲時記, 林園經濟志, 才物譜, 進饌儀軌, 冷麵(金浪雲, 東光8, 1929), 別乾坤4-7(景仁文 社, 1929), 우리 생활 100년-음식-(한복진, 현암사, 2001),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주영하, 사계절출판사, 2005).
필자 | 주영하(周永)

⇨ 골동면(骨董麵): 겨울편

동치미

정의 통째 혹은 크게 썬 무를 소금에 잠깐 절인 후 소금물을 심심하게 하여 가득 붓고 익힌 김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조에서는 무뿌리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김치를 담근 것을 동침(冬沈)이라 했다. 동치미는 한자어 동침을 일반인들이 동침이 혹은 동치미라고 부르면서 생긴 이름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동침저(凍沈菹)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한자 명칭에 담긴 의미는 겨울에 물에 담가서 먹는 김치라는 뜻과 겨울에 국물이 언 김치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주로 겨울에 먹는 물김치를 동치미라 불렀다.

내용 및 지역사례 조선시대 동치미란 이름이 등장하는 문헌으로는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합총서(閨閤叢書)』,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가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규합총서』에 나오는 동치미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잘고 모양 예쁜 무를 꼬리째 정하게 깎아 간 맞추어 절인다. 하루 지나 다 절거든 정하게 씻어 독을 묻고 넣는다. 어린 외를 가지째 재에 묻는 법으로 두면 갓 딴 듯하니 무를 절일 때 같이 절였다가 넣고, 좋은 배와 유자를 왼쪽 방향으로 껍질을 벗겨 썰지 말고 넣고, 파 흰 뿌리 부분을 한 치 길이씩 베어 위를 반씩 잘라 넷으로 쪼갠 것과 생강을 넓고 얇게 저민 것과 고추씨 없이 반듯하게 썬 것을 위에 많이 넣는다. 좋은 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고운 체에 밭쳐 가득히 붓고 두껍게 봉하여 둔다. 겨울에 익은 후 먹을 때 배와 유자는 썰고, 그 국에 꿀을 타고 석류에 잣을 흩어 쓰면 맑고 산뜻하며, 그 맛이 매우 좋고, 또 좋은 꿩고기를 백숙으로 고아서 그 국의 기름기를 없애고 얼음을 같이 채워 동치미 국에 붓고, 꿩고기 살을 섞어 쓰면 그 이름이 이른바 생치김치이며, 동치미국에 가는 국수를 넣고 무, 오이, 배, 유자를 같이 저며 얹고, 돼지고기와 계란 부친 것을 채 쳐서 흩고 후추와 잣을 뿌리면 이른바 냉면이다."라고 적었다.



지역마다 동치미 담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전남 해남에서는 유자를 넣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규합총서』에도 적혀 있다.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서도 '동침이별법'이라 하여 이와 비슷한 조리법을 소개하였다. 함경도에서는 국

물을 매우 많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지역에서는 겨울에 동치미 국물이 언 것을 깨서 온돌방에서 이가 시릴 정도로 찬 것을 그대로 먹든지, 아니면 여기에 메밀국수를 넣고 냉면을 만들어 먹었다.

최근까지도 김장 때 동치미는 배추김치, 깍두기와 함께 가장 많이 담그는 김치 중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연탄가스를 마셔 정신이 혼미할 때 동치미 국물을 마시는 민간요법이 유행했었다.

참고문헌 | 閨　叢書, 東國歲時記, 林園經濟志, 增補山林經濟, 조선요리제법(방신영, 보진재, 1942),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주영하, 도서출판 공간, 1994).
필자 | 주영하(周永　)

장김치(　-)

정의 무와 배추를 간장에 절여 미나리, 갓 등을 섞어 간장을 탄 물에 꿀이나 설탕을 쳐서 담근 김치. 조선 후기 문헌에서는 장김치, 장저(醬菹), 장침채(醬沈菜)로 적혀 있고 보통 장김치라고 부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조에 장김치를 담가 먹기도 한다는 기록이 나오듯이 장김치는 주로 겨울에 담그지만 여름에 먹기도 하였다. 간장으로 절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장김치가 되었다.

내용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가포육영(家圃六詠)'이란 시에는 "청(菁)을 장에 담그면 여름 3개월 동안 먹기에 매우 마땅하고, 소금에 절이면 겨울 9개월을 능히 견딜 수 있네. 뿌리는 땅 밑에 휘감겨서 약간 통통한데, 서리가 내릴 때 칼로 자르면 가장 먹기 좋은데 그 모양이 배[梨]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여기서 청은 무를 가리키는데 여름과 겨울에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봄무와 가을무 두 종류를 각기 가리킨다. 그런데 봄무는 간장에 담그는 것으로 장김치의 일종이다. 고려 후기의 이색(李穡)은 『목은고(牧隱藁)』에서 "개성 사람 유순이 우엉, 파, 무와 함께 침채장(沈菜醬)을 보내 왔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침채장 역시 일종의 장김치이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는 장짠지라 하여 여름에 어린 오이와 무, 배추를 간장에 절이고 청각과 고추를 켜켜히 넣는다고 했다.



장김치 궁중음식연구원

『동국세시기』에서는 무, 배추, 미나리, 생강, 고추로 장김치를 담그는데 겨울에 주로 먹는다고 하였다. 아마도 여름 장김치에는 오이가 들어가고 겨울 장김치에는 오이가 들어가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 19세기 때 장김치는 사시사철 언제나 먹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시의전서(是議全書)』에서는 무, 배추, 배를 간장에 절이고 여기에 마늘, 생강, 갓, 석이, 표고 따위를 채 썰어서 담근다고 했다. 곧 『규합총서』와 『동국세시기』의 기록과 달리 1890년대가 되면 고추가 들어가지 않는다. 20세기 이후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조선간장에 비해서 단맛이 강한 일본간장에 양파를 절여서 국물을 낸 장김치가 유행하기도 했다.

장김치는 일반 김치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 밤, 대추, 석이버섯 같은 귀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궁중에서 이용되었다. 떡을 주로 한 주안상이나 떡국상, 주안상에 잘 어울리는 김치이며, 사계절 모두 먹을 수는 있으나 특히 겨울에 제 맛이 나는 김치이다. 또 소금과 젓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매운 음식을 피해야 하는 환자나 아이들에게 적합한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閨　叢書,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集, 牧隱藁, 是議全書,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주영하, 도서출판 공간, 1994).
필자 | 주영하(周永　)


南怡將軍祠堂祭保存會



陽曆歲時

양력세시

주당물림에서
가망청배까지는
굿판을 정화하고
여러 신격을 굿판에 모시는
의미를 가진다.
남이장군이
마을의 주신이어서
장군 신장과 대감을
먼저 불러 모시는 것이
남이장군사당제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농업인의 날(農 -)

정의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農業)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11일에 해당한다.

내용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업국이어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다. 왕이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勸農)의식은 고구려시대까지 올라간다.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3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현재 만주인 동부여에서 압록강을 건너와 고구려를 건국할 때 오곡 종자를 가지고 와서 권농에 진력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후에도 권농 관련 기록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독 백제 때에 권농유사(勸農遺事)가 많다. 이것은 백제 지역에는 평야가 많아서 농사가 특히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에도 왕들이 들에서 권농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에 나타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는 6월 14일을 농민데이 또는 권농일로 제정하였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정한 농민데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권농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임이 인정되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농민의 날로 바꾸어 부르고 6월 15일로 정했다. 그 후 다시 모내기 적기일인 6월 1일을 권농의 날로 정하였으나, 1973년에는 어민의 날, 권농의 날 그리고 목초의 날을 권농의 날로 통합하여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하였다. 1996년 권농의 날을 폐지하고 11월 11일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였다가, 1997년 농업인의 날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림부가 주관하여서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각종 기념 행사를 치른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헌신하는 농업인을 발굴해서 포상하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범국민적 차원에서 거행한다. 한편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정부와 농업협동조합 같은 기관에서는 DDA, FTA, 쌀협상을 비롯한 농업통상협력과 개방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정책도 홍보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농업의 위상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뜻이 담겨 있다.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배경은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土'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상정하였고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또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인접국가사례 세계농민의 날은 4월 17일이다. 1996년 4월 17일 브라질에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들의 발포로 19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날을 세계농민의 날로 정하였다. 농민의 날을 기념일로 정한 나라들의 특징은 모두 농업의 역사가 긴 나라들이다. 러시아에서는 10월 10일, 미얀마는 3월 2일을 농민의 날로 정해 놓고 있다.

의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날로 기울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 농업과 농민들은 기로에 서 있기 마련이다. 국제 사회의 농업통상협력에 대한 압력이 더해지면서 농산물도 더 이상 비교역 대상 품목으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농업이 위축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농촌과 농민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파악할 수 없는 역사성과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새 시대에 맞는 농정을 펼치면서 농업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의 한 표시로 법정기념일로 지켜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農民의 날」 說(金 , 農 10-2, 大 水利組 聯 , 1959),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필자 | 함한희( )

무역의 날(貿 -)

정의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貿易立國)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매년 11월 30일이다.

내용 무역의 날은 그 기원이 원래 '수출의 날'이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오다가, 1973년 3월 30일에 여러 국가기념일들이 '각종기념일등에관한 규정'을 통해 정리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족일인 5월 1일 기념하는 '중소기업의 날'과 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일인 10월 31일을 기념하는 '상공인의 날'을 흡수하게 되었다. 1977년에는 수출 100억불 달성에 대한 기념식을 거행하였고, 1981년에는 200억불 달성 기념식을 수출의 날에 거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그 명칭을 무역의 날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95년에는 수출 1,000억불 달성 기념 행사를, 2005년에는 무역 5,000억불 달성 기념 행사를 각각 거행하였다.

무역의 날 기념식은 산업자원부의 주관 아래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며, 보통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제 발전에 공이 큰 순서에 따라 개인에게 금탑·은탑·동탑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자원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다. 그 밖에 부대 행사로 클래식 콘서트, 경제 토론회, 심포지엄 같은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 내용은 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무역의 날 전후 한 주일을 무역주간으로 지정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　)

소방의 날(　　-)

정의 국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에 해당한다.

내용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는 작용을 소방(消防)이라고 한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소방의 날 훈련 시범
1964년 11월 27일 국가기록원

금화(禁火)로 명시되어 있다. 세종(世宗) 8년(1426) 2월에는 병조(兵曹) 아래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최초의 소방관아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부에서는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여 11월 1일에 유공자 표창, 불조심 캠페인 같은 기념 행사를 하였다. 이후 1963년부터는 내무부가 주관하여 '소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다가,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하였다. 현행 소방법 제14조에서는 "시도(市道)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소방의 날의 제정과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1999년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고, 2000년에는 대통령 참석 아래 88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3년에는 제41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방을 비롯한 안전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중앙단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4년에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어 2005년에는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

짐에 따라 소방 방재는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2005년 7월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제가 시행되었으나, 소방공무원만 유일하게 2교대로 주당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 인력의 증원과 근무환경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별도의 정원 책정 기준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世宗實錄, 서울民俗大觀3(서울 別市, 1993), 서울民俗大觀4(서울 別市, 1993), 제4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개최(소방방재신문, 2005. 11. 09.), 지방화시대 소방인력관리 개선방안(이창원, 119magazine185, 2005).

필자 | 이유나(李泑娜)

순국선열의 날(殉國先烈-)

정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가운데 일신(一身)과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殉國先烈)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17일이며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1997년 5월 9일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유래 1919년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39년 11월 21일에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2005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지청천(池靑天), 차이석(車利錫)을 비롯한 6인이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殉國先烈共同記念日)'로 제안하였고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념일이 시작되었다.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선택한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된 을사조약(乙巳條約)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순국선열공동기념일을 제정한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추모 행사를 주관했다. 광복 초기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는 민간단체가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김구(金九)와 이승만(李承晩) 같은 당시의 주요 정치인과 사회 지도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1962년 이후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했다. 1970년 이후에는 정부 행사 간소화 조치로 인해 공식 행사는 현충일(顯忠日) 추념식에 포함되어 거행되었으나 민관 합동의 추모제는 계속되었다. 1997년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그해의 기념식부터 다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순국선열의 날이 제정된 것은 당시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역사 바로 세우기'정책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내용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지칭한다. 순국선열은 동일한 활동을 하였으나, 생존했던 애국지사와 더불어 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생생하게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이들의 활동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현재화한다는 의미에서 광복절만큼이나 뜻깊은 날이다.

기념식은 국가보훈처의 주관 아래 독립유공자 및 유족, 3부(三府) 및 헌법기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공무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기념식은 한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으나, 백범기념관이 건립된 뒤로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기념식 횟수는 임시정부가 기념일을 제정한 이후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2005년 11월 17일에는 제66주년 기념식이 백범기념관에서 거행되었다.

기념식의 진행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국선열 약사 보고, 헌사, 기념사, 기념시 낭송,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 및 식후 행사로 영상물 상영과 특별공연이 마련된다.

기타 1994년 8월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의 서대문 독립공원 안에 '순국선열추념탑'이 건립되었으며, 1997년 4월에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 순국선열 위패 1,684위가 봉안되었다.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임시정부요인 묘역과 애국지사 묘역이 설치되어 관련자들 다수가 안치되어 있다.

한편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관에는 1981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대한민국 순국선열유족회'가 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순국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민족번영에 기여하며, 그 유적을 보존하고 그 유족을 육성하여 조국의 위난에 앞장서는 실천자가 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고문헌 | 국경일 · 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달력 속에서 만나는 숨은 우리 날 찾기2(김선섭, 씨앤드씨그룹, 2000), 현대 한국사회 국가의례의 상징화와 의미분석(김현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 정호기(鄭滸基)

학생독립운동기념일 (獨立 動記念)

정의 항일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학생들의 자율 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매년 11월 3일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53년에 '학생의 날(學生-)'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래 부침을 거듭하다가, 2006년 2월 9일 국회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學生獨立運動記念日)'로 명칭 변경이 의결되었다.

유래 1929년에 일제에 항거하고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이 발생했다.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으로 명명되었던 이 사건은 1929년 11월에 광주에서 촉발되어 1930년 3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항일 학생운동은 192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축적되어오다가 1929년 11월에 크게 폭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3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날 광주역 앞에서 한일 학생들 사이에 큰 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이유로 일제가 10일 간의 휴교령을 내렸던 것에 기인한다.

광복 이후 11월 3일은 항일과 반제, 독립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의 기념일이 되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1953년 10월에는 제2대 국회가 이날을 학생의 날로 지정하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생의 날은 점차 억압되고 축소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군사정부는 1945년에 발생한 '신의주학생의거(新義州學生義擧)'를 기념하여 1956년에 11월 23일로 지정되었던 '반공학생의 날'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동안 두 개의 학생의 날이 병존했으나, 1973년 3월 30일에 제정, 공포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의 날이 폐지되었다. 학생의 날이 폐지된 이유들 가운데 하나로 1973년에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학생의 날이 폐지된 이후에도 재야단체와 학생들이 이날을 전후하여 기념식을 거행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학생들의 기념탑 참배도 금지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학생의 날이 부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고, 학생들이 참여한 독립정신의 의미를 애국심의 증대로 발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84년 9월 22일에 학생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부활하였다. 학생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2005년 11월 3일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에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애국심 함양을 고취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수차례의 부침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이 부여되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초기에는 항일과 독립운동, 애국정신 같은 의미가 강조되었으나, 박정희 군사정부 아래에서는 반공정신이 강조되었다. 한동안 폐지되었던 학생의 날은 1984년에 부활되었으나 방치된 것과 다름없었다. 이와는 다른 흐름으로 학생의 날의 의미와 의의를 반독재와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려는 활동이 있었다.

학생의 날은 다시 국가기념일이 되었으나 기념행사는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같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광복 제5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기념 행사를 공동 주관하면서 다소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기념식은 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에는 학생의 날 기념식이 가장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해의 기념식은 개식선언(開式宣言), 국민의례, 교육부장관의 식사(式辭), 학생독립운동동지회장의 기념사, 대통령의 치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전국의 194개 학교 가운데 북한 지역의 학교를 제외한 남한 지역 69개 학교 가운데 63개 학교의 대표와 기수단이 참여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단체 주관으로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되면서 항일정신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능력의 향상과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타 1929년의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념 시설들은 주로 광주광역시 내에 집결되어 있다. 1954년 6월 10일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정에 국민성금으로 마련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이 건립되었고, 1967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에 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정에 광주학생운동기념역사관이 건립되었으며, 2005년에는 1967년에 건립된 기념회관을 대체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에 완공되었다. 이 밖에도 전남 나주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비(光州學生獨立運動震源記念碑)와 전라남도 시도기념물 제183호로 지정된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나주역사(光州學生獨立運動震源地羅州驛舍)가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전남여자고등학교의 일부가 광주광역시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광주학생운동연구(한국역사연구회·전남사학회 공편, 아세아문화사, 2000), 달력 속에서 만나는 숨은 우리 날 찾기2(김선섭, 씨앤드씨그룹, 2000), 현대 한국사회 국가의례의 상징화와 의미분석(김현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 정호기(鄭滈基)

무비데이(Movi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빼빼로데이(-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오렌지데이(Orang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쿠키데이(Cookie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남이장군사당제(南　　軍　堂　)

정의 남이장군(南怡將軍)의 원혼을 달래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제의를 발전시킨 서울특별시의 축제.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일원에서 음력 10월 1일에 행하는 마을 신앙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이장군대제(南怡將軍大祭), 용문동부군당굿, 남이장군당굿으로도 불린다. 남이장군을 모신 남이장군당에서 행하는 당제와 당굿과 함께, 사당제를 올리기 전에 행하는 걸립, 꽃등행렬,

장군출진, 사례제(謝禮祭) 및 대동잔치를 포함하여 발전시킨 축제이다.

유래 남이장군사당제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서 행해지게 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전설과 고로(古老)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할 때 약 300년 전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시애(李施愛)의 난(亂) 때 남이장군이 지금의 용산 삼각지 부근인 된지미에서 정병을 훈련시켰고, 훗날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곳 역시 한강변 새남터로 용산 부근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남이장군을 추모하는 사당을 세우게 되면서 지금의 남이장군사당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4년에 철도가 개통되고 도로가 생기면서 주위가 소란해지자 사당을 조용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용산구 원효로 2가에서 현재의 용산구 용문동 107번지로 새 사당을 짓고 옮겨서 모시고 있다. 1972년 당굿을 끝으로 10여 년간 중단되었다가 1982년에 서울시의 당제 조사 보고에 의하여 복원사업이 시작되었고, 1983년 당굿에 여러 문화 행사가 결합된 지금의 축제 형식으로 모습이 갖추어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마을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남이장군사당제의 중심 장소는 용산구 용문동 107번지이다. 새남터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대지 130평에 남이장군 영정을 모신 사당과 부속건물 2채로 이루어져 있다. 축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용문동과 산천동 일원에서 거행된다. 현재 남이장군사당제는 남이장군대제사업회가 주관하고 있다. 사업회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이장군사당제 전반의 행사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다. 행사에서 남이장군당굿을 담당하는 무녀를 당주무당이라 하고 음악을 담당하는 악사를 당주악사라 한다. 당주무당 이명옥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어 전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주악사로는 김순봉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사망했고, 현재는 한영서가 당주악사 역할을 맡고 있다.

내용 남이장군사당제는 음력 4월 1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봉행한다. 4월 1일은 소제(小祭)라 하여 유교식 제의만 간단하게 올리고, 10월 1일에 치성의례를 하는데, 닷새에 걸쳐 걸립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를 펼친다.

축제는 걸립부터 시작된다. 걸립은 당제와 당굿에 소요되는 제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걸립패를 짜서 동네 가가호호를 다니며 추렴을 하는 행사이다. 당의 느림기를 앞세우고 풍물패가 마을을 돌면 주민들이 솔선해서 소반에 한지를 깔고 돈과 곡식을 차려 내놓는데 식구 수만큼 실타래를 놓고 가내 평안을 기원한다. 이렇게 모인 돈으로 사당제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걸립보다는 사당제를 널리 알리는 식전 행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사당제가 열리기 하루 전에는 산천동 부군당에 가서 꽃을 받아오는 꽃받기를 한다. 산천동에서 여신을 받들어 모셔오는 의미를 가진 이 행사는, 강릉단오제에서 대관령 산신을 모셔다가 강릉 여서낭에 합사하는 의식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는 꽃받기 행사를 꽃등행렬로 확장시켜 축제적인 성격을 강화시켰다. 100여 개의 등이 열을 지어 용문시장을 거쳐 산천동 부군당까지 행진하는 것은 하나의 전야제 행사로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본행사인 당제와 당굿은 음력 10월 초하루에 지낸다. 당제는 원래 당굿 전날 지내게 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당굿과 같은 날 지낸다. 상에는 편, 술, 과일, 나물, 탕(湯)을 유교식 제사 법도에 맞게 차린 후 일동배례(一同拜禮),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독축(讀祝), 첨작(添酌), 일동배례 순으로 진행한다. 당제를 지내는 동안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행사인 장군출진을 재현한다. 남이장군이 반란군을 정벌하기 위하여 출진하던 옛 모습을 재현한 이 행사는 유가돌기(遊街-)의 현대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당이 부정을 물린 다음 유가를 돌았는데 여기에 역사교훈적인 의미를 더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당 앞에 따로 상을 차린 후 당굿을 올린다. 당굿은 당을 관장하는 무녀 당주무당이 맡아 진행하는데 현재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명옥이 맡아 진행한다. 당굿은 17거리로 주당물림, 부정청배, 가망청배, 장군신장, 대감, 불사, 말명, 조상,

상산, 별상, 신장, 제석, 성주, 창부, 황제풀이(황제푸리), 군웅, 뒷전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굿거리의 짜임은 서울굿의 일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주당물림에서 가망청배까지는 굿판을 정화하고 여러 신격을 굿판에 모시는 의미를 가진다. 남이장군이 마을의 주신(主神)이어서 장군 신장과 대감을 먼저 불러 모시는 것이 남이장군사당제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불사부터 뒷전까지는 서울굿의 구조와 흡사하다. 황제풀이는 남이장군사당제에서만 볼 수 있는 거리다. 황제풀이는 대개 성주를 새로 모시거나, 굿을 하는 집의 대주가 특별한 나이가 될 때 행하는데, 남이장군사당제에서 행하는 황제풀이는 마을의 운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현재 마을굿 중에서는 여기서만 행한다. 군웅은 마을의 수호신을 받들어 모시는 거리로 이때 당주무당은 사방으로 화살을 날려 마을의 액을 쏘아 물리치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 당굿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마을 주민들이 굿판에 참가하여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나누면서 한바탕 잔치를 한다. 마을을 떠나 객지에 살던 주민들도 이날만은 마을로 돌아와 남이장군 영정을 참배하여 술잔을 올리고 배례를 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당굿이 끝난 다음날 사례제를 올린다. 신성한 당내에 잡인이 들어와 당을 시끄럽게 했을 뿐 아니라 당을 더럽혔음을 사죄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관(祭官), 화주(化主), 당주무당이 모여 사례치성을 드리는데 초헌, 아헌, 종헌, 독축, 소지(燒紙)의 순으로 진행한다. 소지는 대동소지 한 장과 개별소지를 호주 성명을 부르며 올린다. 사례제가 끝나면 제물을 내려 대동잔치를 벌인다. 현재는 대동잔치를 당굿이 열리는 날로 옮겨 함께 벌인다. 남이장군당이 있는 왕복 4차로를 막아 차량을 통제하고 1,000여 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일대 장관이다. 이렇게 걸립부터 사례제 및 대동잔치까지 일련의 과정을 남이장군사당제라 부른다.

의의 현재 서울 전역에 많은 마을굿이 남아 있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마을 주민이 참가하는 마을굿은 흔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남이장군사당제는 서울특별시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의 축제이다. 거대도시 서울 속에 이러한 마을굿이 남아 있는 그 자체가 값지다고 할 수 있다.

남이장군사당제는 첫째, 계급사회가 아닌 현대 산업사회에서 굿이 나갈 방향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당굿이 민중 중심의 행사였지만, 지금의 축제화된 당굿은 민중의식과는 관련이 없이 글자 그대로 사람들이 한바탕 즐기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군출진, 연등행렬 같이 과거의 행사를 현대적인 행사로 되살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만하다.

둘째,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다. 남이장군이라는 인물 전승에 내재해 있는 민중의식을 중시하기보다는 당굿을 놀이 중심으로 재현한 것은 전통을 현대에 어떻게 창조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들이 강릉단오제와 같은 행사에 와서 찬송가를 불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남이장군사당제에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남이장군사당제를 축제로 바꿈으로 인해 무속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면서 성공적으로 현대화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굿을 종교적 심성이 아닌 놀이적 심성으로 바라보게 하여 사람들의 참여도를 꾸준히 지속시키고 있다. 비록 적극적으로 굿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고, 젊은층의 참여도 적지만 굿 또는 미신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우리의 민속문화, 전통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중간에 당주무당이 바뀜으로 인해 굿거리와 전승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성공한 현대적인 축제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앞으로 남이장군사당제 전반에 관한 자료집의 간행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남이將軍 堂祭(金　坤, 전통문화137, 전통문화사, 1984), 서울의 마을굿(박흥주, 서문당, 2001), 남이장군대제의 의미와 변화상 연구(홍태한, 東아시아古代　7, 東아시아古代　, 2003).

필자 | 홍태한(　　)

남이장군사당제 - 꽃등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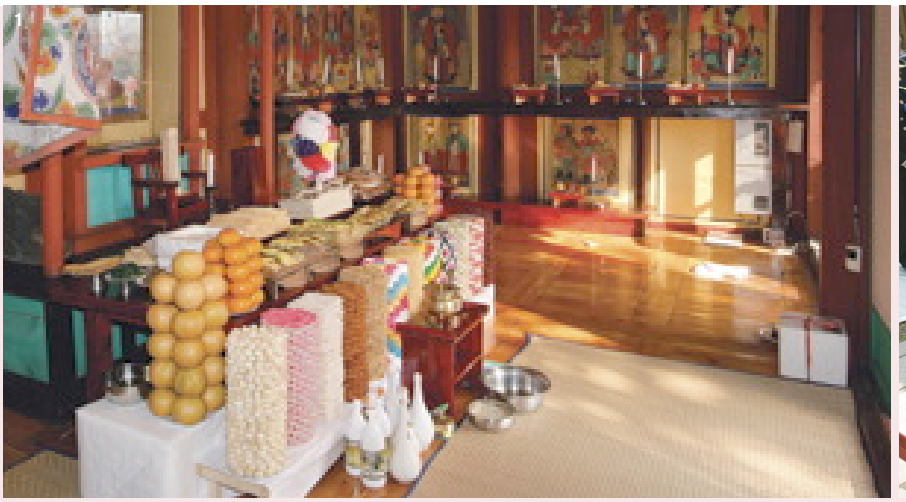




1 꽃등행렬
2 꽃등행렬
3 부군당 이동 행렬
4 꽃받기
5 부군놀음
6 꽃등
7 배례

서울시 용산구 최호식

남이장군사당제 - 당제















1 제상
2 관세
3 분향
4 강신
5 독축
6 아헌
7 종헌

서울시 용산구 최호석

남이장군사당제 - 장군출진









1~4 장군출진
서울시 용산구 최호식





十

십이월

십이월은 주로
한 해의 여러 일을
마무리하고
이듬해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해의 빚을 청산하고
빌리거나 빌려준 물건을
모두 찾고 돌려준다.
농가에서는
보리밟을 맑고
방아를 찧으며
종자를 보관한다.

12월(　　)

개관 12월은 계동(季冬), 납월(臘月), 모동(暮冬), 절계(節季), 막달, 섣은달, 섣달이라고도 불린다. 이달에는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의 절기가 들어 있고,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과 작은설, 세밑, 제석(除夕)으로도 부르는 섣달그믐이 들어 있다. 한편 제주도 풍속인 신구간(新舊間)은 24절기 가운데 대한 5일 후부터 입춘(立春) 사흘 전까지 약 일주일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12월은 주로 한 해의 여러 일을 마무리하고 이듬해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그해의 빚을 청산하고 빌리거나 빌려준 물건을 모두 찾고 돌려준다. 농가에서는 보리밭 밟기를 하고 방아를 찧으며 종자를 보관하고, 어촌에서는 가오리와 가자미 등을 잡는다.

절기 및 명절 음력 12월의 절기인 소한은 동지(冬至)와 대한 사이에 들며 음력 12월, 양력 1월 5일 무렵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285도에 이른 때이다. 절기의 이름으로는 대한이 가장 추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한이 더 추운 절기이다. 따라서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거나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옛날 중국인들은 소한부터 대한까지 15일 기간을 5일씩 나누어 삼후(三候)로 잡았는데,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북으로 돌아가고, 중후(中候)에는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며, 말후(末候)에는 꿩이 운다고 하였다.

대한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양력으로는 1월 20일 무렵이며, 태양의 황경이 300도에 달하는 날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시작하여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 최고에 이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 무렵이다. 따라서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라거나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소한이 대한 무렵보다 훨씬 춥다는 뜻이다.

한편 12월에는 납일이 들어있으며, 납평(臘平)이라고도 한다. 납일에는 그해 일년 동안의 농사형편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납향(臘享) 또는 납제(臘祭)라고 했다. 동짓날로부터 세 번째 미일을 납일이라 정하여 이날 종묘와 사직에서 대향사(大享祀)를 행하고 이를 납향이라 한 것이다. 『지봉유설(芝峯類說)』 권1 「시령부(時令部)」 절서조(節序條)에는 채옹(蔡邕)의 말을 인용하여 "청제(靑帝; 東)는 미일(未日), 적제(赤帝; 南)는 술일(戌日), 백제(白帝; 西)는 축일(丑日), 흑제(黑帝; 北)는 진일(辰日)을 납(臘)이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에 위치하여 목(木)에 속하므로 미일을 납으로 했다."라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납향에 쓰이는 고기로 산돼지와 산토끼를 사용했다. 경기도 내 산간의 군(郡)에서는 예부터 납향에 쓰는 산돼지를 바쳤다. 그래서 그 곳 수령은 온 군민을 발동해서 산돼지를 수색하여 잡았다. 그러나 정조(正祖)는 특히 이 관습을 파하고 서울 장안의 포수더러 용문산, 축령산 등의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바치도록 했다."라고 하였다. 내의원(內醫院)에서는 납일에 여러 가지 환약을 제조하여 바쳤는데, 여기서 만든 환약을 노신(老臣)과 각사(各司)에 나누어주었다. 특히 벽온단(辟瘟丹)이라는 향을 만들어 임금에게 진상하면 설날 이른 아침에 이 향을 피웠다. 납일에는 납평전골과 납설수(臘雪水), 납향엿을 먹으며, 참새를 잡아 구이를 해먹는 풍속이 있었다. 또한 문소전제(文昭殿祭), 사직대제(社稷大祭), 종묘대제(宗廟大祭) 같은 의례가 납일에 행해졌다.

제석은 동지 전날 밤과 섣달 그믐날 밤을 지칭하는



통시 수리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함성춘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섣달 그믐날 또는 섣달 그믐밤과 같은 말로 쓰인다. 작은설, 까치설이라고도 하며, 제일(除日), 세제(歲除),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섣달그믐 무렵은 한 해의 끝이라는 의미로 세모(歲暮), 세말(歲末), 세진(歲盡), 궁랍(窮臘)으로도 부른다.

제(除)라는 말은 구력(舊曆)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과 그해의 온갖 나쁜 것을 제거한다는 뜻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말이다. 옛날에는 궁중에서 한 해가 끝남을 기념하여 지내는 의식으로 연종제(年終祭)를 지냈다. 제석 전날에는 몸의 병마를 퇴치하고 연말의 재액을 털기 위해 구나의식(驅儺儀式)을 가졌는데, 악귀를 쫓는다고 하여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제금[銅鈸과 북을 울리면서 궁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것은 일년 동안의 묵은 잡귀를 쫓아내고 새해를 깨끗하게 맞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제석 전날에는 연종포(年終砲)라고 하여 대포도 쏘았는데 지방 관아에서는 소총을 쏘고 징도 울렸다.

이러한 풍속은 고려 정종(靖宗) 때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조선조 말기까지 궁중에서 행해졌다. 대궐과 관아에서의 이와 같은 풍속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관상감(觀象監)에서 행했던 대나(大儺) 의식의 유속(遺俗)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선조 말까지는 섣달 그믐날 조관(朝官) 2품 이상과 시종(侍從) 신하가 대궐에 들어가서 묵은해 문안을 올렸다는 기록도 『동국세시기』에 전한다.

이 밖에도 제석에는 묵은세배[舊歲拜]와 수세(守歲) 풍속이 있고, 연중의 거래 관계를 청산하는 날이어서 각 가정에서는 정월의 준비나 채권,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분주하였다. 이날 밤이 지나면 정월 상순까지는 결코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 예(禮)였다. 또 이때에는 이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점복(占卜)도 행하였으며, 섣달그믐에 아이들에게 까치두루마기를 입히기도 하였다.

속신 및 지역사례 납일에 참새를 먹으면 영양이 많다고 하며,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두창(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납향에는 새뿐만 아니라 털 가진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이날 새를 잡지 못하면 소나 돼지고기를 사먹는다. 『동국세시기』에도 납일에 참새를 잡아서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마마를 깨끗이 한다고 항간에서는 이날 그물을 쳐서



한강 채빙 작업 국가기록원

참새를 잡기도 하고, 탄환을 재어서 총을 쏘아 잡아도 묵인했다고 한다. 경남에서도 납일의 참새는 "황소 한 마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고 새를 잡아 구워먹는 풍습이 있다. 특히 총으로 잡은 새가 더 약이 된다고 해서 납일 전 장날에는 손으로 잡은 새라도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찔러서 파는 일도 있었다.

납일의 눈[雪]은 약이 된다고 하여 이날 내린 눈 녹은 물을 약으로 사용한다. 또 이날 내린 눈 가운데 깨끗한 부분을 취했다가 녹여서 병에 넣어두고, 그것을 김치에 넣으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고 맛이 변치 않으며, 의복이나 책에 뿌리면 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의 민속에는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일주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신구간이라 해서 집수리나 이사를 이 기간에 행한다. 이때는 조왕(竈王) 할머니를 비롯한 집안의 여러 신들이 천상의 옥황상제 앞에 회의 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자리를 모두 비운다고 한다. 따라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하고 손질해도 탈이 없는 기간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기 어렵다. 경남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이면 조왕신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일년 동안 집안에 있었던 일을 낱낱이 보고하고 돌아온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날 밤에는 주부가 조왕단지의 물을 새로 갈며, 부엌 바닥이나 부뚜막에 짚을 깔고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는 조왕신에게 이듬해에도 집안이 평안하고 재수가 있게 해달라고 비손한다.

제주도의 신구간이나 남부지방의 조왕제사와 같은 풍습은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12월 23일을 소연하[小年下, 小歲暮]라고 부르며 이날 조제(竈祭)를 지내고 신상(神像)들을 다 떼어서 불사른다. 그리고 제석의 접신(接神) 때가 되면 다시 새 신상을 걸어 모신다. 중국의 조신(竈神)은 남신으로서 위로는 궁중의 왕후, 백관에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상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모셨다고 한다. 속신에 의하면 12월 23일에 조신이 승천해서 옥황상제 앞에 각 가정의 일년간의 선악(善惡)을 모두 보고하고 옥황상제는 그 말대로 상벌을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승천하는 조왕의 입이 붙어 집안의 나쁜 일을 많이 보고하지 못하도록 엿을 바친다. 부뚜막은 일상생활에 중요한 불과 관계가 깊고, 불은 재산에 비유되기 때문에 조신은 집안의 재정(財政)과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겨졌다. 제주도의 신구간은 신관(新官)과 구관(舊官)인 여러 신들이 교체하는 기간이라는 해석들이 많다. 그러나 위의 중국 풍속과 견주어볼 때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뱃고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최호식

섣달 그믐날 한밤중에 생대를 불에 태우면 대 마디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터지는데 이것을 폭죽, 대총, 대불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숨어 있던 악귀들이 놀라서 멀리 달아나게 되므로 집안이 깨끗하고 무사태평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엄나무를 매달아 귀신을 내쫓기도 하였다.

조상차례를 섣달그믐에 지내는 경우도 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섣달 그믐날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에 배알(拜謁)한다고 하였다. 부산에서는 섣달 그믐 오후에 제물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그해의 마지막 조상차례를 지내는데, 이 차례를 메밥제사라고 하고, 설날 차례를 떡국제사라고 하였다.

뱃고사를 섣달 그믐날 지내기도 한다. 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제물을 장만하여 배에 가지고 가서 배서낭 앞에 제물을 차리고 조업 중 무사고와 풍어를 비손한다. 부산 사하구에서는 섣달 그믐날 저녁에 주부가 간단하게 제물상을 차려 산을 보고 산신에게 수복과 소원을 소리쳐 빈다. 저녁에 산을 보고 "메산(산신)아" 하고 부른 뒤 산울림이 미치는 곳에 가서 소원을 비손한다. 또 강서구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생밤을 깨물면 일년 내내 이가 아프지 않고, 또 밤을 먹으면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제석 바로 다음날이 설날이기 때문에 제석에는 설날 차례를 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이를 세찬(歲饌)이라 한다. 세찬은 살림살이의 정도나 차례를 지내는 집과 안 지내는 집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든 멥쌀가루를 쪄서 안반 위에 놓고 자루 달린 떡메로 무수히 쳐서 길게 떡가래를 만들었다. 예전에는 제석에 상사나 친척 또는 친지들에게 세찬으로 쓰는 생치(生雉), 전복, 어란(魚卵), 육포, 곶감, 대추 등을 선물하여 문안하였다.

주부들이 세찬을 만들 때 남자들은 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는데, 외양간을 청소하고 거름도 퍼내며 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묵은 것을 모두 청산하고 맑고 깨끗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병을 막고 새해 행운도 더 성해진다고 해서 누구나 집을 깨끗이 하려고 했다.

예전에는 겨울철에 목욕하는 일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날만은 밤중에 가마솥에 물을 끓여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다.

섣달 그믐날 밤에는 구세배(舊歲拜) 또는 묵은세배라 하여 가묘에 배알하고 존속의 친지나 지인 사이에 어른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다. 원래 세배는 정초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섣달 그믐날에는 한 해를 보내는 인사로서 과세(過歲)를 편히 하라고 정초와 같이 일가친척 어른들에게 문안을 올린다. 다만 묵은세배는 가까운 집안에만 한정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시집간 딸들이 친정 부모나 친척집에 가서 세배를 하는 것을 망년과세(忘年過歲)라고 한다. 전남 진도에서는 설을 앞두고 '멸뱃기'라 하여 자손들이 시부모나 친정 부모에게 음식을 차려 가지고 명일(名日) 이바지를 하였다.

이날 밤에 방, 부엌, 곳간, 변소 할 것 없이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놓고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수세라 한다. 이는 잡귀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며, 부뚜막 솥 위에 불을 밝히는 것은 조왕신(竈王神)을 위한 것이다.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해서 밤새도록 윷놀이를 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운다. 부인들은 세찬 준비에 바쁘고 또 왕래하는 묵은세배꾼들도 있어서 수세는 자연적으로 되는 셈이다. 충북에서는 한 해의 마지막 밤이므로 저녁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며, 바느질하던 것도 해를 넘기지 않게 한다. 전북에서는 이날 밤에 잠을 자면 굼벵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섣달 그믐밤에 자는 아이의 얼굴에 검정칠을 하면 일년 내내 아이가 건강하다고 믿었다.

섣달 그믐날 밤에는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간단한 제물을 진설한 뒤 이듬해 집안이 무사하고 자식들이 소원성취하라고 비손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날 동제를 지내는 곳도 있다. 자기 집에 샘물이 많이 나지 않거나 메말라 있으면 섣달 그믐날 밤에 샘 안에 촛불을 켜고 남의 집 좋은 샘물을 세 바가지 또는 세 항아리 정도 길어와 붓는다. 또 이듬해 보리농사가 잘 되도록 섣달에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밟아주기도 한다.

점복 섣달 그믐날 밤에 날씨가 맑으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흉년이 들고 바람이 많다고 한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섣달 그믐날 저녁에 바람이 일찍 불면 오려(올벼)가 잘 되고, 늦게 불면 늦나락이 잘 된다고 한다. 전북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시루떡을 해서 방 안에 놓는다. 그리고 밥그릇에 쌀을 담고 등잔불을 켜놓아 불똥이 앉는 것을 보고 재수를 점친다.

섣달 그믐날 밤에 부녀자들이 긴 실을 자기 나이 수대로 매듭을 지어서 불을 붙여 잘 타면 이듬해 신수가 좋다고 점친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여러 가지 벼 종자의 무게를 똑같이 달아 마당에 늘어놓았다가 설날 아침 각각의 무게를 달아보아 무거운 벼 종자로 농사를 지으면 그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 섣달 그믐날 수탉이 꼬리를 길게 내리면 이듬해 농사가 잘 되고 꼬리를 들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어촌 지역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이 깜깜하면 이듬해 풍어(豊漁)가 든다고 믿었다.

금기 섣달 그믐날 맨발로 다니면 이듬해에 발이 아





1 성탄예배
서울시 중구 영락교회 국립민속박물관

2 성탄미사
서울시 중구 명동성당 국립민속박물관

프고 벗겨지거나 종기가 생긴다고 믿어 금기하였다. 부산 금정 지역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자는 사람을 깨우면 자던 사람이 놀라서 죽는다고 믿었다. 강서에서는 그믐날 자는 아이의 얼굴에 검정칠을 하면 아이의 혼이 빠져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 죽게 된다고 한다.

현대세시풍속 양력 12월의 기념일로는 소비자의 날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일로 12월 25일의 성탄절(크리스마스)이 있다. 크리스마스는 점차 기독교 국가뿐만 아닌 범세계적인 기념일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 芝峯類說,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國民俗綜調査報告書(文 財管理局, 1969~1981),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國의 歲時 俗(金星元, 明文堂, 1987), 의 民俗文 (康龍權, 東亞大 校 石堂傳 文 硏究院, 1996),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민속문화(류종목 외,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류종목(柳鍾穆)

가평(嘉)

정의 고대 중국에서 한 해가 끝날 때에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명칭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납월(臘月), 사월(蜡月), 청사(淸祀)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진혜문공(秦惠文公) 12년에 처음으로 납제(臘祭)를 지냈는데 시황(始皇) 31년에 납제(臘祭)의 명칭을 가평(嘉平)으로 바꾸었다(秦惠文公十二年初臘 始皇三十一年更名臘曰嘉平)."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한위육조백삼가집(漢魏六朝百三家集)』 권110에 수록된 중국 북제(北齊) 위수(魏收)의 '사절(蜡節)' 시에 "얼음이 꽁꽁 어는 추운 계절 청사(淸祀)가 다가왔으니 술을 담가 가평절(嘉平節)에 잔치하리(凝寒迫淸祀 有酒宴嘉平)."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魏六朝百三家集.
필자 | 최호석(崔 晳)

계동(季冬)

정의 겨울의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로는 엄월(嚴月), 납월(臘月), 가평(嘉平), 사월(蜡月), 제월(除月), 빙월(氷月), 도월(涂月), 모동(暮冬), 만동(晩冬), 궁동(窮冬), 모세(暮歲), 모절(暮節), 대려(大呂), 축월(丑月)이 있다.

내용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에 "계동의 달에 해는 무녀[婺女, 女宿]에 있고, 저녁에는 누수(婁宿)가 남중하고 새벽에는 저수(氐宿)가 남중한다. ……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까치는 비로소 둥지를 틀고 장끼는 까투리를 찾으며, 닭은 알을 품는다(季冬之月 日在婺女 昏婁中 旦氐中……雁北鄕 鵲始巢 雉雊雞乳)."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과 『여씨춘추(呂氏春秋)』「계동기(季冬紀)」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呂氏 秋, 禮記, 南子.
필자 | 신하령(申 令)

궁기(窮紀)

정의 궁(窮)은 다했다는 뜻이고 기(紀)는 일년이라는 뜻이니, 궁기(窮紀)는 일년이 다 지나갔다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초학기(初學記)』 권3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1 2월은 계동(季冬)이니, 모동(暮冬), 초동(杪冬), 제월(除月), 모절(暮節), 모세(暮歲), 궁임(窮稔), 궁기(窮紀)라고도 한다(十二月季冬 亦曰暮冬 杪冬 除月 暮節 暮歲 窮稔 窮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初 記.
필자 | 최호석(崔 晳)

궁동(窮冬)

정의 궁(窮)은 다했다는 뜻이고 궁동(窮冬)은 겨울의 석 달(10월, 11월, 12월) 중에 음력 12월이 막바지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동(晩冬), 계동(季冬), 모동(暮冬), 심동(深冬), 융동(隆冬)이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중운이관질증지(重雲李觀疾贈之)' 시에 "궁동에 온갖 풀들 다 죽었는데 그윽한 계수나무는 이제야 향기를 풍기네(窮冬百草死 幽桂乃芬芳)."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중국 명(明)나라 송렴(宋濂)의 『문헌집(文憲集)』 권8 「송동양마생서(送東陽馬生序)」에 "내가 스승님을 모시고 다닐 때에 책보따리 짊어지고 신을 끌면서 깊은 산과 큰 골짜기를 지나는데 늦겨울 매운 바람이 불어오고 많은 눈이 내려 몇 자나 쌓였습니다(當余之從師也 負篋曳屣 行深山巨谷中 窮冬烈風 大雪深數尺)."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文　集, 昌黎先生集.
필자 | 최호석(崔　晳)

궁임(窮　)

정의 궁(窮)은 다했다는 뜻이고, 임(稔)은 한 번 농사짓는 기간인 일년을 뜻하니, 궁임(窮稔)은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초학기(初學記)』 권3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12월은 계동(季冬)이니, 모동(暮冬), 초동(杪冬), 제월(除月), 모절(暮節), 모세(暮歲), 궁임(窮稔), 궁기(窮紀)라고도 한다(十二月季冬 亦曰暮冬 暮冬 杪冬 除月 暮節 暮歲 窮稔 窮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初　記.
필자 | 최호석(崔　晳)

궁호(窮冱)

정의 궁(窮)은 한 계절의 마지막을 의미하고 호(冱)는 얼음이 언다는 뜻이니, 겨울의 마지막 달 얼음이 꽁꽁 얼 정도의 극심한 추위라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해남윤씨편(海南尹氏篇)」 간찰류(簡札類)에 "보통 노인들에게는 근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의인데 하물며 얼음이 꽁꽁 어는 추위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때 어찌 노인이 먼 길을 떠나시게 한다는 말입니까(凡在老人 不以筋力爲禮 而況窮冱在前 此豈老人遠役之時哉)."라고 한 구절이 있다.


겨울 지리산 풍경 김진열

참고문헌 | 古文書集成.
필자 | 최호석(崔　晳)

납월(臘　)

정의 납(臘)은 사냥한다는 의미의 렵(獵)과 통하는 말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일반적으로 고대 중국에서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두루 가리키는



호렵도 국립민속박물관

말이다. 당시에는 한 해가 끝날 때에 조상신에게 제사지냈으며, 산짐승, 들짐승, 날짐승들을 사냥하여 제물로 사용하였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48 「진섭세가(陳涉世家)」에 "섣달에 진왕(陳王)이 여음(汝陰)에 갔다가 하성보(下城父)로 돌아왔다(臘月 陳王之汝陰 還至下城父)."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중국 당(唐)나라 낙빈왕(駱賓王)의 '배윤주설사공단도계명부유초은사(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游招隱寺)' 시에 "푸른 대나무는 추운 날씨에 새순이 나오고 붉은 파초는 섣달에 꽃이 피었네(綠竹寒天筍 紅蕉臘月花)."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駱賓王文集, 史記.
필자 | 최호석(崔 晳)

대려(大)

정의 대려(大呂)는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십이율은 낮은 음으로부터 황종(黃鍾),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鍾),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鍾),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鍾)의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음인 대려는 12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후한(後漢) 반고(班固)의 『백호통의(白虎通義)』 「오행편(五行篇)」에 "12월을 율(律)에서 대려(大呂)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大)는 크다는 뜻이고 여(呂)는 항거한다는 뜻이니, 양의 기운이 솟아나오려고 하는 것을 음의 기운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여(呂)를 항거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뚫고 나오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많은 수가 누르고 억제하기 때문이다(十二月謂之大呂 何 大大也 呂者拒也 言陽氣欲出 陰不許也 呂之爲言拒者 旅抑拒難之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 義.
필자 | 홍성훈(性)

도월(涂)

정의 도(涂)는 제(除)와 같은 뜻인데 도월(涂月)은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아(爾雅)』 「석천편(釋天篇)」 월명조(月名條)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중국 청(淸)나라 유월(兪樾)의 『군경평의(群經平議)』 「이아(爾雅)」 2에 "11월을 고(辜)라 하고 12월을 도(涂)라 하니, 고

(辜)는 옛날의 의미이고 도(涂)는 다 지나갔다는 의미이다. 한 해 중에 이 시기가 되면 옛것을 다 제거하고 새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11월을 고(故)라 부르고 12월을 제(除)라고 부른다(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 辜之言故 涂之言除也 一歲至此 將除去故舊而更新矣 是以十一月謂之故 十二月謂之除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群經 議, 爾雅.
필자 | 최호석(崔 晳)

막달[末]

정의 월력(月曆)에서 '마지막 달[末月]'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막달은 '마지막'에서 '-막'과 '달[月]'의 합성어로 보인다. 따라서 12월의 이칭을 막달이라고 하는 것은 월력상 마지막 달인 막달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태어난 자식을 막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음력 12월은 섣달로서 월력상 가장 마지막 달이 되며, 이 달에는 제석(除夕), 제야(除夜)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달에는 흔히 대청소, 구세배(舊歲拜), 폭죽(爆竹), 수세(守歲)하는 풍속이 있다.

참고문헌 |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 校 部, 1964), 國歲時 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만동(晩冬)

정의 만(晩)은 저물었다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동(晩冬)은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중 마지막 달인 음력 12월을 가리킨다. 일년 열두 달을 사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하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만(晩) 혹은 모(暮), 계(季)라고 한다. 따라서 12월은 만동(晩冬), 모동(暮冬), 계동(季冬)이라고 한다.
내용 신숙주(申叔舟)가 쓴 『보한재집(保閑齋集)』 권3에 수록된 '제병풍(題屛風)' 시에는 "茅索整籬落 人人喜靜適 爲樂當及時 南畝事方息"라고 하여 만동의 풍경을 묘사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保 齋集.
필자 | 최호석(崔 晳)

모동(暮冬)

정의 모(暮)는 저물었다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가운데 마지막 달인 음력 12월을 말한다.
내용 『위서(魏書)』 권21 하(下) 「팽성왕협전(彭城王勰傳)」에 "세월이 쉽게 흘러가서 어느새 섣달이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들 것만 생각합니다(歲月易遠 便迫暮冬 每思聞道 奉承風敎)."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중국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만청(晩淸)' 시에 "고당대(高唐臺)의 섣달 눈 내린 모습이 장엄하니 먼지처럼 자욱하던 예전의 장기가 모두 사라졌네(高唐暮冬雪壯哉 舊瘴無復似塵埃)."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魏書, 纂註分類杜詩.
필자 | 최호석(崔 晳)

모세(暮)

정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모절(暮節), 절계(節季)라고도 한다.
내용 『위서(魏書)』 권65 「이해전(李諧傳)」에 "추운 겨울 섣달이 바로 앞에 닥쳤는데 멀고 먼 험난한 관산(關山)을 거쳐 가네(迫玄冬之暮歲 歷關山之遐阻)."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魏書.
필자 | 최호석(崔 晳)

모절(暮)

정의 한 해의 모든 계절이 다 저물어가는 때라는 말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모세(暮歲), 절계(節季)라고도 한다.

내용 『세시광기(歲時廣記)』 권4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12월은 계동(季冬)이니, 모동(暮冬), 초동(杪冬), 제월(除月), 모절(暮節), 모세(暮歲), 궁임(窮稔), 궁기(窮紀)라고도 한다(十二月季冬 亦曰暮冬 杪冬 除月 暮節 暮歲 窮稔 窮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필자 | 최호석(崔 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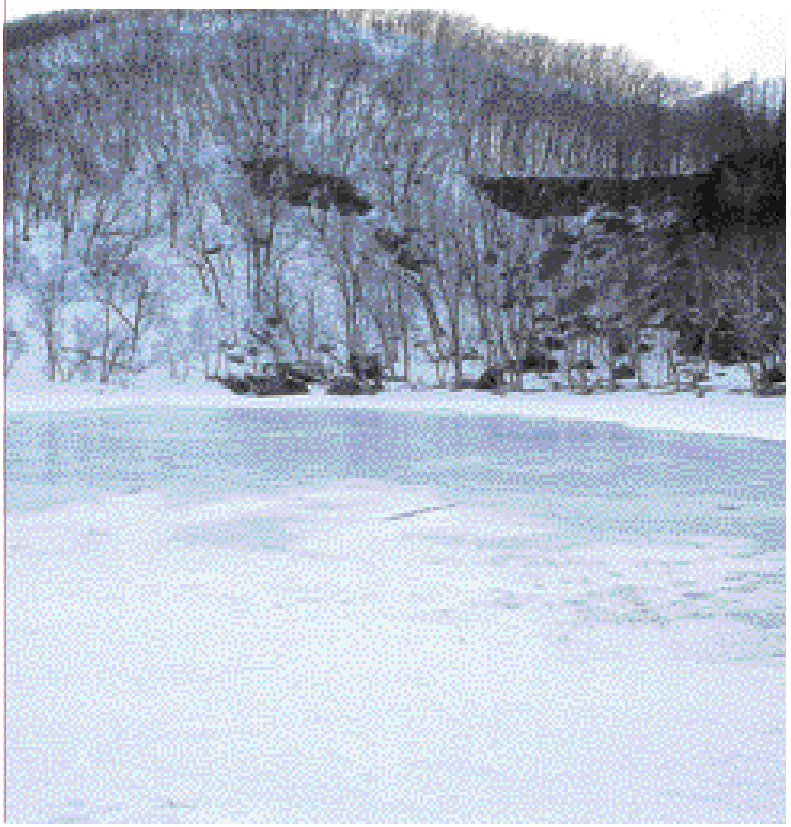
빙월(　　)

정의 세상 만물이 모두 얼어붙어 있는 때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궁동(窮冬), 궁호(窮冱), 잔호(殘冱), 혹한(酷寒)이라고도 한다.

내용 『안자춘추(晏子春秋)』 권2 「내편(內篇)」 간하(諫下)2에 "경공(景公)이 병사를 거느리고 성을 공격하였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음력 12월의 추운 때였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 공격에 실패하였다(景公令兵搏治 當臘氷月之間而寒 民多凍餒而攻不成)."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 같은 책 간하13에도 "옛날 성인들께서 의복을 만드실 때에 겨울에는 옷이 가볍고도 따뜻하게 하였으며 여름에는 가볍고도 서늘하게 하였다. 이제 임금께서 옷을 갖추어 입으시기를 12월에 입는 것처럼 하신 것은 추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古聖人製衣服也 冬輕而暖 夏輕而凊 今君之履 氷月服之 是重寒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晏子　秋.
필자 | 최호석(崔 晧)

얼어 있는 호수
강원도 춘천 무경



사월(蜡　)

정의 사(蜡)는 고대 중국에서 한 해가 끝날 때에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명칭으로 사월(蜡月)은 한 해가 끝날 때에 지내는 제사이므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납월(臘月), 가평(嘉平), 청사(淸祀)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채옹(蔡邕)의 『독단(獨斷)』 권상(卷上)에 "네 왕조에서 섣달에 지내는 제사의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불렀다. 하(夏)나라 때는 가평(嘉平)이라고 하였고, 은(殷)나라 때에는 청사(淸祀)라고 하였으며, 주(周)나라 때에는 대사(大蜡)라고 하였고, 한(漢)나라 때에는 납(臘)이라고 불렀다(四代臘之別名 夏曰嘉平 殷曰淸祀 周曰大蜡 漢曰臘)."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獨斷.
필자 | 최호석(崔 晧)

서웃달

정의 음력 12월을 달리 이르는 말.

내용 12월을 서웃달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학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서웃달에서 '서'는 섣달의 '섣'을 '서'라고 줄인 것의 형태이다. 이러한 어학적인 현상은 둘셋을 두서로, 둘셋넷을 두서너로 사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받침인 'ㄹ, ㅅ'이 생략된 것이다. 둘째, 서웃달에서 '웃'은 '上', '頭', '首'의 뜻이다. 예를 들면 중세 한국어에서 웃머리는 상수(上首)이며 웃마리는 상두(上頭)이기 때문이다.

또 현대 한국어에서도 '웃-'이 더함, 위의 뜻으로 쓰이는데, 그 예로 웃돈, 웃어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의 예로 볼 때 섣달+웃달+달을 축약한 어형태(語形態)의 어휘(語彙)가 바로 섣웃달이며, 이를 민간어원적(民間語源的)으로 서웃달이라고 한 것이다.

참고문헌 |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 校 部, 1964),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섣달

정의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음력 12월을 일컫는 말. 극월(極月), 납월(臘月)이라고 한다. 또한 섣달그믐을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곧 제일(除日)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설은 새해의 첫날, 곧 원단(元旦)이라고도 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설은 '살'로서 오늘날 나이를 뜻한다.

내용 섣달은 설[元旦] 또는 설(나이)과 서로 연관이 있는 듯하다. 곧 설은 섣달에 있으며 이를 맞이하면 곧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학적으로 보면 몽고어의 saran은 달[月]인데 이는 saran〉sara〉sar가 되어 살[설; 月]의 개연성(蓋然性)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어학적인 관계는 몽고어의 naran이 태양(太陽)인데 이는 naran〉nara〉nar가 되어 현재 우리말에 날[日]을 태양으로 보는 것과 같다. 날짜를 일시(日時)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위와 같은 어학적인 사실을 통해 설, 살, 섣의 상호연관성은 비교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滿蒙 三文 壁語教科書(東京大 本, 1908), 滿 辭典(羽羽田 , 京都大 , 昭 12年),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 校 部, 1964),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세초(杪)

정의 초(杪)는 나뭇가지의 끝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각 계절이나 한 해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세초(歲杪)는 일년 열두 달 가운데



나뭇가지
경북 경주 김창호

가장 끝에 위치한 12월에 해당한다. 겨울 석 달(10월, 11월, 12월) 가운데 맨 마지막 달인 12월은 곧 그 해의 끝이라는 뜻에서 초동(杪冬)이라고도 하고, 한 해가 다 지나갔다는 뜻에서 도월(涂月)이라고 한다.

내용 양의 기운이 땅속에서 올라와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음의 기운이 크게 막는다는 의미로 십이율(十二律)에서는 대려(大呂)를 세초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십이지(十二支)로는 축월(丑月), 주역의 64괘로는 상괘(上卦)가 곤괘(坤卦; ☷)이고 하괘(下卦)가 태괘(兌卦; ☱)로 이루어진 임괘(臨卦; ䷒)에 해당된다고 하여 임월(臨月)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白 義, 周易, 初 記.
필자 | 이창희(李昌)

썩은달

정의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하여 묵은 것과 나쁘고 썩은 것을 버리는 달[月]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이르는 말.

내용 국어사전에서 '썩다'는 물질이 부패균의 작용으로 본래의 질보다 나쁘게 변한다는 의미이다. '썩은-새'는 썩은 초가집의 지붕이나 담을 잇기 위하여 엮은 집을 말한다.

12월에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예를 들면 딱총놀이[爆竹], 대불놓기, 빚 청산, 청소와 목욕, 머리태우기, 사당제(祠堂祭), 묵은세배[舊歲拜] 등이 있다. 제석(除夕)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썩은달을 보내며 새로운 달을 맞이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달에 비해 지난달은 자연스럽게 썩은달이 되기 마련이다.

참고문헌 |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 校 部, 1964), 國歲時 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한국민속학의 이해(민속학회, 문학아카데미, 1994).
필자 | 박상규(朴相圭)

엄월( )

정의 추위가 혹독한 달이라는 의미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12월은 겨울의 끝부분이지만 한 해의 마지막 추위가 위세를 떨치는 시기이다.

내용 12월에는 가장 춥다는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들어 있다. 특히 소한 때는 우리나라에서 일년 중 가장 추워서 속담에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심한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감내하고자 했던 까닭으로 "소한의 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라고도 하였다.

중국 명(明)나라 팽대익(彭大翼)이 편찬한 『산당사고(山堂肆考)』 권229에 "엄월은 늦겨울에 해당한다(嚴月 季冬之月也)."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山堂肆考.
필자 | 최호석(崔 晧)

절계(季)

정의 절(節)은 계절을 나타내고 계(季)는 마지막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절계(節季)는 한 계절의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이다. 일년 열두 달을 사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하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만(晩) 혹은 모(暮), 계(季)라고 한다.

내용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7년(1476) 6월 27일 「사가독서문신권장사목(賜暇讀書文臣勸奬事目)」에 이르기를 "각각 읽은 경사(經史)의 권수(卷數)를 절계(節季)마다 개사(開寫)하여 아뢰도록 하라(各其所讀經史卷數 每於節季 開寫以啓)."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절계(節季)는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인 3월, 6월, 9월, 12월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成宗實錄.
필자 | 최호석(崔 晧)

제월( )

정의 제(除)는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12월이기 때문에 일컫는 말이다.

내용 『초학기(初學記)』 권3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12월은 계동(季冬)이니, 모동(暮冬), 초동(杪冬), 제월(除月), 모절(暮節), 모세(暮歲), 궁임(窮稔), 궁기(窮紀)라고도 한다(十二月季冬 亦曰暮冬 杪冬 除月 暮節 暮歲 窮稔 窮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初 記.
필자 | 최호석(崔 晧)

청사( )

정의 청사(淸祀)는 고대 중국에서 한 해가 끝날 때에 조상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명칭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납월(臘月), 가평(嘉平), 대사(大蜡)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사들은 모두 12월에 지내기 때문에 후세에는 모두 12월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내용 중국 한(漢)나라 응소(應劭)의 『풍속통의(風俗通義)』 권8 「사전(祀典)」 납조(臘條)에 "하(夏)나라에서는 가평(嘉平)이라고 하고, 은(殷)나라에서는 청사(淸祀)라고 하고, 주(周)나라에서는 대사(大蜡)라고 하고, 한(漢)나라에서는 납(臘)이라고 하였다(夏曰嘉平殷曰淸祀周曰大蜡漢改爲臘)."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俗 義.
필자 | 최호석(崔 晧)

초동(杪冬)

정의 초(杪)는 가지 끝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초동(杪冬)은 겨울의 끝이라는 의미이다.

내용 『천중기(天中記)』 권5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12월은 계동(季冬)이니, 모동(暮冬), 초동(杪冬), 제월(除月), 모절(暮節), 모세(暮歲), 궁임(窮稔), 궁기(窮紀)라고도 한다(十二月季冬 亦曰暮冬 杪冬 除月 暮節 暮歲 窮稔 窮紀)."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天中記.
필자 | 최호석(崔 晧)

축월( )

정의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해(亥)는 십이지(十二支)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축(丑)은 12월에 해당한다.

내용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삼통(三統)은 하(夏)나라의 정월(正月)은 인월(寅月)로 하였으니 인통(人統)이 되고, 상(商)나라의 정월(正月)은 축월(丑月)로 하였으니 지통(地統)이 되고, 주(周)나라의 정월(正月)은 자월(子月)로 하였으니 천통(天統)이 됨을 이른다(三統 謂夏正建寅 爲人統 商正建丑 爲地統 周正建子 爲天統)."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論語, 書經.
필자 | 김정석(金正錫)

혹한( )

정의 혹(酷)은 혹독하다는 뜻이고 혹한(酷寒)은 몹시 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12월을 달리 부르는 말. 극한(極寒), 호한(沍寒)이라고도 한다.


酷寒의 燈心 고구마장수

酷寒의 燈心 고구마장수
한국일보 1959년 1월 6일

내용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18 '진양후(晉陽侯)가 그날그날 당번든 문객(門客)들의 성자(姓字)를 모아 운(韻)을 만들고 문하(門下)의 시인(詩人)들에게 명하여 겨울철 모란[牡丹]을 부(賦)하게 하므로 나도 따라 한 수를 지어서 바쳤다(晉陽侯集其日上番門客之姓爲韻 命門下詩人輩賦冬日牡丹 予亦和進一首)'에 "구슬 같은 기골(肌骨) 혹한에도 얼지 않는데 굳이 온탕지(溫湯池) 찾아 목욕하랴(酷寒猶不凍瓊肌 何必更浴溫湯池)."라는 구절이 있다. 또 강희맹(姜希孟)의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에 "추분날 바람이 건방(乾方)이나 손방(巽方)에서 불어오면 다음 해에 큰 바람이 있고, 감방(坎方)에서 불어오면 겨울이 몹시 춥다(秋分日風從乾及巽來 來歲大風 坎來冬酷寒)"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四時纂要抄.
필자 | 최호석(崔 晧)





정일

선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므로
새벽녘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다.
수세(守歲) 풍습은
송구영신(送舊 新)의 의미로서
우리나라에
역법이 들어온 이래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막신쟁이의 날

정의 음력 섣달 스무이튿날로 경상남도 진주에서 나막신쟁이의 전설과 관련지어 이르는 날.

유래 나막신쟁이의 날은 경남 진주에서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말티고개에 나막신을 깎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나막신이라는 것이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가족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장날에 한 켤레도 팔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가하던 중에, 읍내에 사는 부자가 관가에서 곤장 서른 대를 맞게 되어 대신 매 맞을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나막신쟁이는 그 길로 부잣집을 찾아가서 돈 석 냥을 받고 그 부자를 대신하여 관가에서 곤장을 맞았다. 돈 석 냥이 생긴 기쁨에 곤장 맞은 아픔도 잊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나막신쟁이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길가에 쓰러졌고, 장독(杖毒)이 몸에 퍼져 길거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여 모진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매서운 겨울 날씨로 돌변하였다. 밤늦게 주인을 찾아나섰던 가족들은 돈 석 냥을 손에 꼭 쥔 채로 숨져 있는 나막신쟁이의 시신을 발견하였으며, 이듬해부터 나막신쟁이가 죽은 날이 되면 해마다 똑같은 추위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나막신쟁이의 한(恨)이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하여, 진주 사람들은 음력 섣달 스무이튿날을 나막신쟁이의 날이라 하고, 이 무렵에는 반드시 모진 추위가 한 차례 온다고 믿어왔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내고장의 傳 (晋州市, 1992), 晋州市史(晋州市史 纂委員 , 1995).

필자 | 박성석(朴性錫)

납일(臘)

정의 동지 뒤 세 번째 미일(未日). 납일(臘日)은 납평(臘平), 납향일(臘享日)이라고도 한다.

유래 부여(夫餘)에서는 영고(迎鼓)라 하여 12월 중 하루를 택하여 하늘에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신라(新羅)에서는 12월 인일(寅日)에 제사를 지냈고, 고려(高麗) 문종(文宗) 때는 술일(戌日)로 정하여 지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을 납일로 정하게 되었다.

납일에 대해서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중국 한나라 때의 학자인 채옹(蔡邕)의 설을 인용하여 "청제(靑帝)는 미랍(未臘)으로써, 적제(赤帝)는 술랍(戌臘)으로써, 백제(白帝)는 축랍(丑臘)으로써, 흑제(黑帝)는 진랍(辰臘)으로써 한다라고 했으므로 한국은 미(未)에 해당하므로 미일을 납일로 삼았다(청제는 봄을 맡은 동쪽의 신이고, 적제는 여름을 맡은 남쪽의 신이고, 백제는 가을을 맡은 서쪽의 신이고, 흑제는 겨울을 맡은 북쪽의 신이다. 한국은 동쪽에 해당하므로 미일로 정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용 납일이 되면 대개 음력으로 12월 연말이므로 지난 일년을 돌아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한해 동안의 농사 형편이나 그 밖의 일을 고하는 제사를 묘사(廟社)에서 지내는데, 조정에서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 형편에 대하여 고했다. 또 사직에서는 농사 형편을 아뢰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을 종묘대제(宗廟大祭)와 사직대제(社稷大祭)라고 한다.

한편 민간에서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초하루 아침에 사당에 지내는 제사나 명절에 지내는 제사와 같다. 이와 같이 이날에 제사 지내는 것을 납향(臘享)이라 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보면 이날 종묘사직에 제사 지내는 것을 사맹삭(四孟朔)과 더불어 오대제향(五大祭享)이라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기록에 의하면 "내의원에서 각종의 환약을 만들어 올린다. 이것을 납약진상(臘藥進上)이라고 한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근시(近侍)와 지밀나인[至密內人] 등에게 나누어 준다. 청심원(淸心元)은 정신적 치료를 하는 데 효과가 있고, 안신원(安神元)은 열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며, 소합원(蘇合元)은 곽란을 다스리는 데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륭(健隆) 경술년(1790)에 새로 제중단(濟衆丹)과 광제환(廣濟丸)의 두 종류의 환약도 만들었으니 실로 밝으신 생각에서 고안해낸 것이다. 이것들은 소합원보다 효과가 더욱 빠르다. 그것을 모두 영문(營門)에 나누어주어 군사들을 치료하는 데 쓰게 했다. 또 기로소(耆老所)

에서도 납약을 만들어 여러 기신(耆臣)들에게 나누어주고 각 관청에서도 많이 만들어 나누어주기도 하고 서로 선물하기도 했다."라고 한다. 이날 제조한 약을 납약(臘藥)이라고 한다.

최연(崔演)이 지은 『간재선생문집(艮齋先生文集)』 권8에 보면, 납일에 내의원에서 숙직하면서 납약 제조를 감시하며, 임금에게 올리며 느낀 소감을 몇 줄 적었는데 "소신은 재능이 없으나 능히 나라의 의원이 되었으니, 다만 선단(仙丹)을 바치며 만수를 축원합니다. 천년 동안 옥토끼는 영단(靈丹)을 절구에 찧었고, 신선은 얼룩얼룩 문채가 나는 만개의 과단(顆團)을 만들었습니다. 삼가 대궐에 헌상하여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오니, 오래도록 천하를 무위로 다스리고 홍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열양세시기』에는 "중국 북경 사람들은 청심환이 다 죽어가는 병자들을 소생시키는 신단(神丹)이라 하여 우리 사신이 북경에 들어가기만 하면 왕공(王公), 귀인들이 모여 구걸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왕왕 들볶이는 것이 귀찮아 약방문을 전해주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것이 약밥의 경우와 같다.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북경 안에는 우황이 없어 낙타 쓸개를 대용하므로 비록 약방문대로 만들었으나 복용해보면 영묘한 효력이 없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한편 납일(臘日)의 '납(臘)'자는 사냥한다는 뜻의 '렵(獵)'자에서 유래된 글자로 이날 사냥하는 풍속이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는 "경기도 산간에 있는 군에서는 전부터 이날에 쓸 돼지를 공물로 바치는데 군민을 풀어 산돼지를 찾아 사냥하므로 상감(정조)께서 특히 이를 파하고, 장용영(將勇營)의 장교들로 하여금 포수들을 데리고 용문산과 축령산으로 가서 잡아다가 바치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날 잡은 짐승의 고기는 사람에게 다 좋지만 특히 참새는 늙고 약한 사람에게 이롭다고 하므로 민간에서는 그물을 많이 쳐서 잡는 관습이 있다. 참새를 잡아 어린이에게 먹이면 마마(천연두)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서울 장안에서는 새총을 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날만은 참새 잡는 것을 허용한다. 농촌에서는 청소년들이 패를 지어 새 통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새가 사는 지붕의 추녀를 찾아다닌다. 통발을 추녀에 대고 긴 막대기로 추녀를 치면



참새잡이 이서지

새들이 자다가 놀라서 날아 나오다가 통발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 또는 새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밭을 찾아가 그물을 치고 대나무를 흔들면 놀라서 날아가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납일에 잡은 새는 맛이 있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가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침을 흘리지 않는다고 전한다. 새는 여름 동안은 풀을 뜯어먹고 또 벌레를 잡아먹으므로 고기 맛이 없으나 가을부터는 곡식만 주워먹으니 납일 무렵이면 제일 맛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참새가 소 등에 올라가서 네 고기 열 점과 내 고기 한 점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참새잡이와 아울러 납일에 잡은 고기를 납일고기[臘肉]라고 한다.

또한 납일에 온 눈의 녹은 물은 약용으로도 쓰며, 그 물에 물건을 적셔두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납일에 내린 눈을 곱게 받아 깨끗한 독 안에 가득 담아두었다가 그 녹은 물로 환약을 만들 때 반죽하고 안질을 앓는 사람이 눈을 씻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며, 책이나 옷에 바르면 좀이 먹지 않고 김장독에 넣으면 김장의 맛이 변하는 일이 없이 오래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납일에 오는 눈을 '납평치' 또는 '납설수(臘雪水)'라고도 한다.

엿만들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심디스마



납일에 충청과 호남에서는 저녁에 엿을 고는 풍속이 있다. 꿀과 엿에서 주로 당분을 취하던 옛날에는 엿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길일인 납일에 엿을 고면 잘 되고, 또 납일의 엿이 맛이 좋으며 약으로도 쓰여 이날 엿을 고는 풍속이 생겼다. 초저녁부터 솥에 불을 때고 엿을 고기 시작하면 새벽이 되어서야 엿이 되고 단지 안에 퍼넣어 두었다가 긴요하게 쓴다. 이날 고아 먹는 엿을 일컬어 납향엿이라고 한다. 또 이날은 노루, 사슴, 메추리 같은 고기로 전골을 만들어 진상하는데, 이것을 납평전골이라 한다.

한편 김종직(金宗直)의 『점필재집(佔畢齋集)』 권8에는 납연(臘宴)을 베푼 광경이 그려져 있다. "납일에 납연을 베풀었는데, 이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납일의 거센 바람에 아랑곳 않고, 사방 마을 노인들이 반열에 함께 참여하였네. 처음 자리에는 질서 있게 약간 예의를 차리다가, 취한 후에는 시끄럽게 서로 다투어 즐거워하네."

참고문헌 | 艮齋先生文集,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佔　齋集, 芝峯類說, 朝鮮歲時記(　錫謨 外 · 李錫　　譯註, 東文選,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인학(崔仁　)

납평(臘　)

정의 한 해가 끝날 무렵에 그해의 농사와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인 납향(臘享)을 달리 부르는 말. 납(臘)은 음력 12월인 섣달을 뜻하며, 평(平)은 그동안 잘 다스려진 것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내용 납일(臘日)은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풍속이지만, 그 날짜는 나라마다 달라서 한(漢)나라와 송(宋)나라에서는 술일(戌日), 위(魏)나라에서는 진일(辰日), 진(晉)나라에서는 축일(丑日)로 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는 대개 술일로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미일(未日)로 정하였다. 평(平)은 『서경(書經)』「우공편(禹貢篇)」에 "채산(蔡山)과 몽산(蒙山)에 여제(旅祭)를 지내다(蔡蒙旅平)."라고 하였고, 그 전(傳)에 "여평(旅平)은 잘 다스리는 공(功)을 마치고 여제(旅祭)를 지내는 것이다(旅平者 治功畢而旅祭也)."라고 하였다. 『춘추좌전(春秋左傳)』「희공(僖公)」 5년 동조(冬條)에 "궁지기는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나면서 이르기를 '우(虞)나라는 납제(臘祭)를 지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宮之奇以其族行曰 虞不臘矣)."라고 하였다.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에 "선조(先祖)와 오사(五祀)에 납제를 지낸다(臘先祖五祀)."라고 하였다. 원호문(元好問)이 편찬한 『중주집(中州集)』 권8에 수록된 왕중원(王仲元)의 '설중동주신내한부(雪中同周臣內翰賦)'에 "납평에 들판의 바람 잔잔하니 보리에 맑은 기운 일어나네(臘平野風閒 麥有秋清興)."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書經, 禮記, 中州集, 芝峯類說,　秋左傳.
필자 | 김한기(金　基)

납약진상(臘　　)

⇨ 납일(臘日): 겨울편

납향(臘　)

정의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이룬 농사와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神)에게 고하는 제사. 납평제(臘平祭), 팔사(八蜡), 사(蜡), 자(禡)라고도 한다. 납일은 납향(臘享)을 지내는 날로 동지(冬至) 후 셋째 술일

(戌日)이었는데, 조선 태조(太祖) 이후부터 동지 후 셋째 미일(未日)로 정하여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서 대제(大祭)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 납일을 미일로 한 것은 동방이 음양오행 중 목(木)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관 납향은 국가제사로 납일에 사직단과 종묘에서 대사(大祀)로 지냈다. 종묘에서는 사계절 중 첫 달 상순과 납일에 오대제(五大祭)라고 하여 대향(大享)을 올렸고, 초하루와 보름 및 정조(正朝),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 동지(冬至) 같은 시속 명절에 작은 제사를 올렸다. 왕실에는 고유의 세시 행사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시(四時) 제사와 납일 제사 곧 납향이 중심을 이뤘다. 왕실뿐만 아니라 사대부나 민간에서도 납향을 지낸 기록들이 있다. 이이(李珥)는 『격몽요결(擊蒙要訣)』「제례장(祭禮章)」에서 속절을 정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6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 및 납일로 보았다. 고상안(高尙顔)은 『태촌집(泰村集)』 권3 「잡저(雜著)」 유훈(遺訓)에서 "속절에는 당연히 시절음식을 올려야 하나 요즈음 세상에는 때마다 중시하는 것이 달라 정조, 한식, 단오, 추석에는 중하게 여기고 상원, 답청, 칠석, 중원, 중양, 납일은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이날 참새를 잡아 어린아이에게 먹이면 마마(천연두)를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여 그물을 치거나 활을 쏘아 참새를 잡는 일이 있었다.

유래 『예기(禮記)』「교특생(郊特牲)」에 "천자대사팔(天子大蜡八)" 곧 천자가 여덟 신에게 대사를 지낸다고 하였는데, 사(蜡)란 '찾는다'라는 뜻으로 12월에 밭쥐를 잘 잡아먹는 고양이처럼 백성에게 공이 있는 만물을 찾아 보답하고 이듬해에도 잘 돌보아줄 것을 빌었다는 제사다. 이를 근거로 납향을 팔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 백제는 마한의 제천의식을 이어 시조묘 제사를 지냈고 한성에서 사비로 옮기고부터는 시조묘 제사보다는 오방신 제사를 국가의례로 발전시켰으며 중국 풍속을 수용하여 12월 인일(寅日)에 신성(新城) 북문에서 소를 제물로 팔자(八蜡) 곧 여덟 신에 대한 납향을 지냈다.

조선에서는 세종(世宗) 때 「오례의(五禮儀)」를 제정하면서 납향을 대사로 정한 이후 사직과 종묘에서 매년 납일에 납향을 모시게 하였고, 지방관아에서는 나례를 열어 한 해를 정리하는 행사로 삼았다. 재상집과 양반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신제의 하나로 납향을 행한 것 같다.

납향을 올리는 납일에 내의원(內醫院)에서는 각종 환약을 만들어 임금에게 올린다. 이것을 납약(臘藥) 또는 납제(臘劑)라고 하는데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소합원(蘇合元)의 세 가지 환약을 가장 요긴하게 여겼다. 정조 때인 경술년(1790)에 제중단(濟衆丹)과 광제환(廣濟丸)이 새로 제조되어 모든 영문(營門)의 군졸들 치료에 사용되었다.

내용 납향의 형식과 내용은 조선 세종 때에 그 대략이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제탁(祭卓)에 화초(花草)를 두었고 제상(祭床)에는 첫째 줄에 중박계(中朴桂) 네 그릇, 둘째 줄에 붉고 흰 산자(散子) 다섯 그릇, 셋째 줄에 다식(茶食) 다섯 그릇, 넷째 줄에 실과(實菓) 여섯 그릇을 올리고 면협탁(面俠卓)에는 화초 없이 첫째 줄에 각색(各色) 떡 여섯 그릇, 둘째 줄에는 잡탕(雜湯)과 세면(細麵) 등 여섯 그릇, 셋째 줄에 작(爵) 셋을 올린다.

납육(臘肉)이란 납향에 사용하는 산짐승 고기로 멧돼지와 산토끼를 쓴다. 경기도 산간 고을에서는 예부터 납향 때 쓸 돼지를 바치기 위해 해당 지역 백성들을 동원하여 멧돼지를 수색하여 잡았으나, 민폐가 되어 정조(正祖) 이후 폐지하고 서울 장안의 포수를 시켜 용문산(龍門山), 축령산(祝靈山) 등 여러 산에서 사냥하여 바치도록 하였다.

종묘의 납향대제는 전사관(典祀官)과 판관(判官)이 주재하였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된 납향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예조에 납향에 대한 보고를 하면 예조에서는 계문(啓聞)하고 유사에 고하여 직책에 따라 공판(供辦)하면서 납향이 시작된다. 제향(祭享) 전 8일에 예조에서 계문으로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임금은 4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2일은 정전(正殿)에서, 1일은 재궁(齋宮)에서 행한다.

제향 전 4일 미명(未明) 5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제사에 참석할 여러 관리들을 인도하여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고 통찬사인(通贊舍人)이 영의정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서문(誓文)을 대독한다.

"금년(今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전하께서 종묘에 납향을 올리시니 무릇 행사할 집사관과 배제할

군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 부추, 마늘, 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고, 각기 그 직무에 충실할 것이니 혹시 어긋남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진설(陳設)은 제향 사흘 전에 시작한다. 이틀 전에는 종묘령(宗廟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종묘의 안팎을 소제한다. 하루 전에는 장생령(掌牲令)이 생(牲)을 끌고 향소(享所)로 나아간다. 제향하는 날 축시(丑時) 전 5각(刻) 곧 3경(更) 3점(點)에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재실(齋室)을 열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几]을 설치한다. 축시부터 거행되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일반 대제의 절차를 따른다.

① 신관례(晨祼禮): 초헌관(初獻官)이 거행한다. ② 궤식(饋食):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을 받들고 정문(正門)으로 들어와 각 5실에 음식을 올리는 궤식례를 한다. ③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작(爵)을 드리고 대축이 신위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④ 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 아헌례와 종헌례는 독축이 없고 다른 절차는 초헌례와 같다. ⑤ 음복(飮福)·조육(胙肉):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神位) 앞의 조육을 덜어낸다. 초헌관이 음복을 한다. ⑥ 재배(再拜)·철상(撤床):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들이 모두 두 번 절하면 여러 대축이 들어가 변두를 치운다. ⑦ 망예(望瘞): 초헌관이 망예위(望瘞位)에 서고 여러 대축과 집례가 파놓은 구덩이에 흙을 반을 채운다. ⑧ 예필(禮畢)·사배(四拜)·복명(復命): 초헌관 이하 집사관(執事官)이 대궐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서 복명하고 사배하고 물러간다.

변천 및 현황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일(蜡日)이라는 것이 있어 납일과 같은 뜻으로 주로 백성들이 즐긴 풍속이었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점필재집(佔畢齋集)』 권23 '이십사일랍(二十四日臘)'에서 김종직(金宗直)은 "사일엔 백성의 마음이 모두 즐거운데 누가 온 나라가 미친다고 말했던가(蜡日民心樂 誰言一國狂)."라고 하여 조선 전기까지 하나의 세시풍속으로 지내온 것 같으나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그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전승된 것 같지 않다.

의의 납향은 궁중이나 관아 또는 일부 재상집에서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민간에서는 연중 행사로 널리 지켜온 풍속인 것 같지는 않다. 단지 관아의 나례가 백성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지역의례였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갑오개혁 이후에도 탈놀음 등으로 변형되어 민간이 즐기는 세모(歲暮) 의례의 기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擊蒙要訣, 國朝五禮儀, 世宗實錄, 禮記, 佔　齋集,　村集,　　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정승모(鄭勝謨)

문소전제(文　　)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사직대제(　　大　)

⇨ 사직대제(社稷大祭): 봄편

종묘대제(　廟大　)

⇨ 종묘대제(宗廟大祭): 정월편

납설수(臘　　)

⇨ 납일(臘日): 겨울편

납향엿먹기(臘　–)

⇨ 납일(臘日): 겨울편

참새잡이

⇨ 납일(臘日): 겨울편

납육(臘　)

⇨ 납일(臘日): 겨울편

납평전골(臘　-)

⇨ 납일(臘日): 겨울편

신구간(舊間)

정의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까지 약 일주일간.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한 집안 손질을 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내용 묵은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새해의 첫 절기인 입춘 사이에 구년세관(舊年歲官)의 신들이 신년세관(新年歲官)의 신들과 임무를 교대한다. 『천기대요(天機大要)』 세관교승조(歲官交承條)에서는 신구세관(新舊歲官)이 바뀌는 때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가 신구간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은 지상에 내려와 인간사를 수호, 관장하던 신들이 한 해의 임무를 마치고 하늘의 옥황상제 앞으로 올라가고, 새로 내려올 신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신들의 부재 기간'이다. 이때에는 불길한 날이나 길일(吉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날을 가리지 않고 이사를 가거나 집과 변소를 고치거나 집 울타리 안의 땅을 파고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구간이 아닌 시기에 조왕(부엌), 정낭, 통시(변소), 쇠막(외양간)을 고치거나 집의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울타리 안에서 흙을 파는 일, 울담(울타리 돌담)을 고치는 일 등을 하면 집 울타리 안 각각의 곳을 관장하는 신 때문에 동티[動土]가 난다고 생각한다. 다리, 눈, 머리, 목, 가슴 등이 아프거나, 전신불수가 되거나 하는 동티로 아픈 증상은 똑같지 않게 나타나는데, 조왕, 고팡[고방(庫房)의 제주어], 변소 등의 동티는 대개 눈이 아픈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급한 동티가 생겼을 때에는 심방(무당)을 데려다가 빌 사이도 없이 죽는다.

신구간에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와 '푸는 체(키)'만이라도 이 기간에 먼저 옮긴다. 체와 푸는 체가 이사에 중심이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옮겨버리면 이사는 다 된 것이나 다름없고, 나머지 살림들은 나중에 옮겨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사에 따르는 긴요한 물품으로 체와 푸는 체 이 외에 솥, 단지(요강), 화로를 넣기도 한다.

신구간이라 할지라도 이사 갈 곳의 방위만큼은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위를 '명삼살이 방위'와 '해삼살이 방위'라 한다. 명삼살이는 평생 막혀 있는 방위를 가리키며, 가장(家長)인 대주 한 사람만으로 보는 방위이다. 해삼살이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그해만 지나면 해삼살이의 방위는 트이게 된다.

명삼살이에 걸려 있는 방위에는 한 울타리 속에서도 그 쪽 방향에는 집을 못 짓게 되며, 다만 이사가야 할 곳이 먼 곳이면 그러한 명삼살이를 무시하기도 한다. 해삼살이에 걸린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다. 가령 대주가 현재 북쪽에 살고 있고, 그해의 해삼살이가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라면, 대주가 서쪽이나 동쪽에서 2~3주 가량 묵고서 그곳으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신구간의 풍습이 지켜지고 있다. 신구간에 이사가 집중되고,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입주일도 대개 신구간에 맞춘다. 1998년 1월 9일자 〈제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신구간 동안 2만여 가구의 대이동이 있었다. 제주시의 경우 13,751가구(제주시 전체 가구의 17퍼센트)의 34,484명(제주시 전체 인구의 13퍼센트)이 신구간에 이사를 하였다. 이는 일년 동안 이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한라일보〉 1991년 10월 4일자 사설).

그러나 1988년에 실시된 의식 조사를 보면, '나는 신구간에만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 반응(57퍼센트)이 긍정적 반응(28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구간 풍습에 대해서 긍정적 의식은 낮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로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의식 차원과 행위 차원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주로 이 기간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신구간이 아닌 때에는 집을 빌리기가 어렵고, 추운 겨울철에 이사하는 것도 고역이다. 한꺼번에 이사를 하기 때문에 집세나 이사 비용도 오르고, 집을 짓는 것도 신구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를 비롯한 물가가 오르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다른 지방 사람들이

新舊間 신구간


1


2


3


4


5


6


7

1 이사하기
2 통시 수리
3 올담 보수
4 올담 보수
5 올담 보수
6 벽 수리
7 부엌 수리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함성춘

제주도로 이사를 올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주도의 신구간 풍습이다.

1955년 무렵 제주시에서 축사와 변소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 변소 개량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으나,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다시 신구간을 변소 개량 운동 기간으로 정하여 박차를 가하였더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신문〉의 사설은 신구간을 변소 개량 운동 기간으로 정한 그 시책이 현명한 시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의의 가신(家神)신앙이 무속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신구간에는 가신들이 전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집안을 고치더라도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신구간 풍습은 무속과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濟州道 -(文 財管理局, 1974), 南國의 民俗-濟州道歲時 俗-(진성기, 敎 社, 1981), 川略史(오문복, 풍천국민학교, 1987), 제주도의 전통문화에 대한 재평가(김인호, 濟州文 의 再照明, 一念, 1991), 濟州의 民俗 I (濟州文 資料叢書1, 濟州道, 1993),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김항원,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필자 | 유철인(庾喆仁)

섣달그믐

정의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섣달그믐은 세밑, 눈썹세는날, 제석(除夕), 제야(除夜), 제일(除日), 세제(歲除), 세진(歲盡)으로도 부른다. 이날을 제석이라고 하는 것은 제(除)가 구력(舊曆)을 혁제(革除)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유래 섣달그믐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이므로 새벽녘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다. 이러한 수세(守歲) 풍습은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의미로서 우리나라에 역법(曆法)이 들어온 이래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세는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통과의례로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내용 섣달그믐에는 묵은세배[舊歲拜], 수세, 만두차례, 나례(儺禮), 약태우기, 연말대청소, 이갈이예방, 학질예방과 같은 풍속이 전한다. 또한 내의원(內醫院)에서는 벽온단(辟瘟丹)을 진상(進上)하기도 했다.

섣달그믐은 묵은설이라 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일가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데, 이를 묵은세배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저녁 식사 전에 하기도 하는데, 이날 만두를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한다. 저녁에 만둣국을 올려 차례를 지내고 이를 만두차례, 만두차사, 국제사라고 한다. 한 해 동안 잘 보살펴주신 조상께 감사드리는 의식으로 해질 무렵 만둣국, 동치미, 삼실과, 포 같은 음식을 차려서 조상에게 올린다.

일부 가정에서는 복만두(보만두)라 하여 만두 하나 속에 엄지손톱만한 작은 만두를 여러 개 집어넣어 만든다. 차례가 끝난 후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만둣국을 끓일 때 복만두를 넣는데, 이것이 들어간 그릇을 받는 사람이 신년 복을 가져간다고 점친다.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만두를 소에게 먼저 먹이고 식구들이 먹는다.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지나가는 한 해를 지킨다는 뜻으로 밤을 새우는 풍습을 수세라 한다. 수세는 장등(長燈), 해지킴, 밤새우기라고도 하는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인가에서는 다락, 마루, 방, 부엌에 모두 등잔을 켜놓는다. 흰 사기접시 하나에다 실을 여러 겹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 환하게 켜놓으니 마치 대낮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데 이것을 수세라 한다. 이는 곧 경신을 지키던 유속이다."라고 하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잠을



보만두 궁중음식연구원

자지 않는데, 그 유래는 섣달 중 경신일(庚申日)에는 자지 않고 밤을 지켜야 복을 얻는다는 경신수세(庚申守歲)의 도교 풍속에서 나왔다. 경신수세의 풍습은 중국 한(漢)나라 때도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원종(元宗) 6년(1265)에 태자가 경신수세를 했고, 연산군(燕山君)도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성대하게 경신수세를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경신일에 밤을 새워 지키는 것은 동지가 지나 경신이 되는 날에 하는데, 섣달 경신일이 진정한 경신수세 또는 수야(守夜)라 한다. 이 풍습의 유래는 사람의 몸에는 세 마리의 시(尸)가 있어 삼시(三尸)라 하며 이것이 그 사람의 잘잘못을 기록해두었다가 연말 경신일에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고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려 죽게 되므로 경신일에 밤을 새워 삼시가 몸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올라가 고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한다. 동지 이후의 경신일은 6년에 한 번 드는데 경신수세를 7번 하면 삼시신은 아주 없어진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42년 동안 경신수야(庚申守夜)하면 불로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교의 삼시설이 불교로 흡수되어 일부 사찰에서 행하고 있다.



서쌀금음날관부애 ᄆᆡ고ᄂᆡ는 모양
기산풍속도 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민간에 전하기로는 이날 잠을 자면 영원히 자는 것과 같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밤을 샌다고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과 그 전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날 잠을 자면 계속 연결하여 새날을 맞이할 수 없다는 관념에서 수세의 풍속이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집안 곳곳에 밤새 불을 켜두면 광명이 비쳐서 복이 들어오고 잡귀를 쫓는다고 믿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 하나씩을 식구불로 정해 점을 치는데, 새해에 고생할 사람의 불은 가물거리고 운 좋을 사람의 불은 빛이 좋다고 한다. 또 개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날 불을 밝혀두면 새해에 개가 잘 큰다고 한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12월조에 세모(歲暮)의 농촌 풍경이 그려져 있는데 "앞뒷집 타병성(打餠聲)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 새 등잔(燈盞) 새발심지 장등(長燈)하여 새울 적에, 윗방 봉당(封堂)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明朗)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 하난고나."라고 하여 떡 만들고 곳곳에 장등불을 켜놓고 초롱불을 들고 묵은세배를 하러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어린아이들이 곤하여 졸면 야단을 치면서 "오늘 저녁에 자면 눈썹이 희게 센다."라고 말하며 잠을 못 자게 했다. 지금도 어린이들이 잠을 자면 밀가루를 몰래 눈썹에 칠하고 밤새 나이를 먹어 눈썹이 세었다고 놀리고, 잠을 자면 굼벵이가 된다고 놀린다. 일부 지역에서는 '불총'이라 하여 타버린 재를 자는 사람의 팔다리에 놓고 다시 불을 붙여 뜨겁게 하여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한다.

수세 풍속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면서 송구영신하는 풍속인데, 이날 밤에는 밤을 새우기 위해 윷놀이나 화투를 치면서 놀며, 주부들은 세찬 준비로 바쁜 가운데 감주나 과줄, 호박엿 따위를 내놓는다.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는 이날 "달걀 같은 만두며 꽃 같은 적을 해놓고 찬품을 많이 대접하니 특별한 정이라 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매년 세모 때는 다양한 찬거리나 음식을 주고받는데 이를 세찬(歲饌)이라 하였다. 세찬 속에는 속칭

총명지(聰明紙)라 하여 특산품의 물목을 적은 편지를 함께 넣었으며, 궁중에서는 70세 이상 관원에게 쌀과 어류를 나누어 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섣달그믐에 재앙을 쫓기 위한 연종제(年終祭)로 나례의식을 펼쳤는데, 민간에서는 대나무를 태워 요란한 소리를 내는 폭죽이나 대총, 지포인 딱총을 놓기도 하고 궁중에서도 연종포(年終砲)를 터뜨렸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숨어 있던 잡귀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무사태평(無事泰平)하다는 것이다. 『동국세시기』에는 궁중 풍속으로 제석 전날부터 연종포라 하여 대포와 불화살인 화전(火箭)을 쏘고 징과 북을 울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청단(靑壇)이라는 나례의식이다. 이것은 마치 둥근 기둥 안에 기름 심지를 해박은 것과 같이 하여 그것을 켜놓고 밤을 새워 징과 북을 치고 나발을 불면서 나희를 행하는 것이다.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도 빙등(氷燈)을 설치하고 나례를 행했다고 한다. 『열양세시기』에 의하면 섣달 그믐날 내의원에서 벽온단이라는 향을 만드는데, 이것은 염병을 물리치는 데 유용하다 하여 임금은 설날 아침에 그 향 한 심지를 피운다고 한다.

섣달그믐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이므로 밀린 빚이 있으면 이날 안에 갚고, 그러지 못하면 정월대보름 이전에는 빚 독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섣달은 '남의달'이라 하여 한 해를 조용하게 마무리한다. 성주, 조왕, 용단지 같은 가신(家神)에게도 불을 밝혀주는데 예전에는 종지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만들어 넣어 불을 켰다. 섣달에는 매사를 정리하고 큰 물건을 함부로 사지 않으며, 솥을 사면 거름에 엎어두었다가 그믐날에 부엌 아궁이에 걸면 탈이 없다고 한다. "섣달그믐이면 나갔던 빗자루도 집 찾아온다."라고 하여 '막가는달'에는 마무리를 잘 하는데 "숟가락 하나라도 남의 집에서 설을 지내면 서러워서 운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전에 빌렸던 남의 물건도 모두 돌려주고 돈도 꾸지 않으며 혼인도 하지 않고, 연장도 빌려주지 않는다. 이날 잠을 자지 않고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새해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것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한 해의 마지막 밤인 섣달 그믐밤이 되면 집에서는 저녁밥을 남기지 않고 말끔히 먹으며, 바느질하던 것도 끝내어 해를 넘기지 않는다. 경남에서는 이날 밤에 맨발로 땅을 밟으면 무좀이 생긴다하여 반드시 버선과 신을 신은 다음 땅을 밟는다. 함경도에서는 도깨비가 잘 나오는 터가 센 집에서는 이날 밤에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범벅을 잘게 만들어 흩어주는 곳도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섣달에 문종이를 많이 바르며, 정초에 창호지가 찢어지면 정월대보름이 지나서야 바른다고 한다. 또 섣달 그믐날 밤에는 양말을 신고 잔다. 그러지 않으면 "비우자리 먹는다"고 하는데, '비우자리'는 발바닥이 하얗게 되는 증상이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섣달 그믐날 어둡기 전에 미리 빨랫줄을 거두는데, 그 이유는 조상이 들어오다가 목에 걸린다고 하여 치우는 것이다.

섣달 그믐날의 날씨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는데 이날 날씨가 좋거나 비가 순하게 와야 이듬해 농사가 잘 되고 고기도 많이 잡힌다고 한다. 경남에서는 섣달그믐에 동남풍이 불면 이듬해에 잔고기가 많이 난다고 한다. 또한 그믐날 저녁에 샛바람이 불면 이듬해 고기가 적게 난다고 한다. 이날 밤은 아주 어두워야 좋고 다른 곳보다 더 어두운 바다에 미역과 고기가 많이 난다고 한다. 또 이날은 맞바람이 불어야 좋고 농사도 풍년이 든다고 한다. 충남 지역에서는 섣달에 눈이 많이 오면 유월에 비가 많아 농사짓기에 유리한 반면 동짓달에 눈이 많이 오면 5월에 비가 많다고 한다. 이를 각각 '육섣달' 혹은 '오동지'라 말한다. 전남에서도 섣달그믐의 밤이 어두워야 한 해가 좋다고 하는데, 이날 바깥을 보아 칠흑처럼 컴컴하면 길하다고 한다.

이날 바람이 부는 것으로 점치기도 하는데, 부산에서는 그믐날 저녁 날씨를 보아 이듬해 풍년을 점친다. 곧 날씨가 고요하면 올벼가 잘 되고, 새벽바람이 불면 늦나락이 안 좋다고 한다. 또 그믐날 저녁에 샛바람이 불면 흉년, 남쪽 들바람이 불면 풍년이라고 한다. 그믐날 하늘의 별이 많고 맑으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고 한다. 그믐날 밤에 날씨가 맑고 바람이 잠잠하면 이듬해 풍년 들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흉년 들고 바람이 많이 분다고 점친다.

제주도에서는 이날 하늘이 캄캄하면 목장에 잡초가 많고 바다 쪽이 캄캄하면 해변 농사에 잡초가 많이 생긴다고 여기며, 이날 목욕하면 감기에 걸리지

수세 풍속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않는다고 하여 목욕을 하기도 하였다. 강원도에서는 샛바람이 불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경남 어촌에서는 섣달 그믐날 배에 성황기와 만선기를 비롯해 모든 기(旗)를 달고 선주가 고사를 지낸다. 경북에서는 약불이라 하여 한 해 동안 가족들이 먹던 한약재를 섣달 그믐밤에 마당에 모아놓고 불에 태우는데, 이렇게 하면 새해에 병 없이 건강하다고 한다. 또 '정성불'이라 하여 함지박에 쌀과 가래떡을 담고 기름종지에 불을 켜 우물 속으로 내리는데, 이 불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도 꺼지지 않고 잘 타면 이듬해 그 집 운수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섣달 그믐날 밤이면 "정성불 켜러 가자" 하며 샘과 같이 물이 있는 곳을 찾는다. 부산에서는 섣달 그믐날 닭꼬리점, 벼 종자 무게점, 촛불점, 실태우기점, 도깨비불점, 그믐밤점, 그믐날 날씨점을 치고, 부스럼 나지 말라고 이날 밤에 무나 달걀, 눈[雪]을 먹는다. 또 학질예방을 위해 쌀을 구워 먹거나 삼 껍질, 삼씨를 먹기도 한다. 이 외에도 발병 나지 말라고 맨발로 다니지 않으며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는 금기도 전한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이날 오후에 사년(辭年)이라 하여 어린이들이 어른에게 예를 표하고 폭죽을 터뜨린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연야반(年夜飯)을 먹고 수세주(守歲酒)를 마신다. 부뚜막에 불을 켜두고 집안 청소를 하며 문신화나 종규도를 문에 새로 걸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또 도화분(跳火盆)이라 하여 그릇에 짚불을 피워놓고 뛰어넘는데 새로운 해에 액운을 건너게 해달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제야의 종을 108번 치는데 일본에서도 종을 108번 울린다.

의의 섣달그믐의 수세풍속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양력 12월 31일 밤 자정을 기해 서울 보신각(普信閣)에서는 33번의 제야의 종을 친다. 33번은 108번을 줄여서 치는 것으로 불교의 33천(天)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종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해갈이 통과의식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歲時 謠, 燕山君日記, 洌陽歲時記, 國의 歲時 俗(崔常壽, 人文 社, 1960), 國民俗 論攷(李杜 , 硏社, 1984),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中 歲時 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불교와 세시풍속(안길모, 명상,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우리고장의 세시풍속-동해시-(김시래, 동해문화원, 1994),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평창군 민속지-용평면-(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한국세시풍속 I(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장정룡(張正龍)

궁랍(窮臘)

정의 다해 가는 납월(12월), 끝나 가는 납월 또는 납월이 다함이라는 뜻으로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납미(臘尾), 연말(年末), 세밑, 세모(歲暮)라고도 한다.

내용 궁(窮)은 穴(구멍)과 躬(몸)자로 이루어진 한자이다. 궁(窮)자는 동굴(穴)이 어떻게 생겼나 끝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추구하다, 다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한자이다. 랍(臘)은 月[肉: 고기]과 鬣(긴갈기; 말이나 사자 등의 목에 있는 긴 털)자가 합쳐진 글자이다. 랍(臘)자는 옛날 큰 사냥을 하여 얻은 사냥감으로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이름이다. 또는 제사를 거행하는 연말의 뜻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안재철(安載澈)

눈썹세는날

정의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수세(守歲), 제석(除夕),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섣달 그믐날 밤에는 방이나 마루, 부엌, 다락, 뒷간, 외양간에 불을 밝게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데, 섣달 중의 경신일(庚申日)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는 도교(道敎) 장생법의 하나인 경신수세(庚申守歲)에서 유래하였다.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이 되면 사람 몸에 기생하던 삼시충(三尸蟲)이 사람이 잠든 사이에 몸을 빠져나와서 옥황상제에게 지난 60일 동안의 죄(罪)를 고해 바쳐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음으로써 삼시충이 옥황상제께 고해바치지 못하도록 하여 천수를 다하려는 신앙의 한 형태이다.

권용정(權用正)의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겁주기를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 라고 하는데, 아이들 중에는 이 말을 그대로 믿어서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다. 소당(嘯堂) 김형수(金逈洙)의 『소당풍속시(嘯堂風俗詩)』에 "나이 더한 늙은이는 술로써 위안 삼고 눈썹 셀까 어린 아이 밤새도록 잠 못 자네(翁感齒添醉爲慰 兒愁眉皓眠未成)."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嘯堂 俗詩, 陽歲時記.
필자 | 김한기(金 基)

세경(竟)

정의 경(竟)은 끝에 다다르거나 수명이 다했다는 뜻으로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세경(歲竟)은 각 계절이나 한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한 해가 다 가는 것을 농사가 끝나는 것과 관련지어 세추(歲秋), 납월(臘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주례주소(周禮注疏)』 권25에 "세경(歲竟)에 역귀를 쫓기 위해 사방에 놓아둔다는 말이다(謂歲竟逐疫 置四方)."라고 한 기록이 있으며, 『한서(漢書)』 권74 「위상병길전(魏相丙吉傳)」에 "병길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다투어 서로 죽이고 다치게 하는 일은 장안령과 경조윤이 법규에 따라 잡아들이면 될 것이다.'라 하고는 세경(歲竟)에 승상으로서 고과(考課)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상벌을 시행할 것을 아뢸 뿐이었다(吉曰民鬬相殺傷 長安令京兆尹職所當 禁備逐捕 歲竟 丞相課其殿最 奏行賞罰而已)."라고 한 기록이 있으며, 『송사(宋史)』 권160 「선거지(選擧志)」에 "매년 세경(歲竟)에 제수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고과(考課) 점수의 높고 낮음을 살펴 그 중 가장 심한 자들은 높여주기도 하고 물러나게 하기도 하였다(或有除授 則稽差殿最取 其尤甚者 而進退之)."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宋史, 周禮注疏, 書.
필자 | 이창희(李昌)

세말(末)

정의 말(末)은 어떤 단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으로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각 계절이나 한 해의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세말(歲末)은 일년 열두 달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12월에 해당하며, 다른 말로 연말(年末)이라고도 한다.

내용 『주역요의(周易要義)』 권9 「설괘(說卦)」에 "축(丑) 방향을 세말(歲末)로 삼고 인(寅) 방향을 세초(歲初)로 삼으니 이것은 사물의 끝과 시작이 된다(丑爲歲末 寅爲歲初 是物之終始)."라고 한 기록이 있으며, 『정씨경설(程氏經說)』 권3 「시해편(詩解篇)」 빈7월조(豳七月條)에 "얼음을 캐는 일은 반드시 세말(歲末)에 있으며 그것을 보관하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양이 세 개인 때에 얼음집에 넣는다.'라고 하였다(鑿氷必在歲末 而藏之須待春至 故云三之日納於凌陰)."라고 한 기록이 있으며, 『후한서(後漢書)』 권96 「진왕열전(陳王列傳)」 왕윤조(王允條)에 "손서(孫瑞)가 말하기를 세말(歲末)부터 지금까지 태양이 제대로 비추지 않고 장맛비가 오래 내리고 있으며 달은 집법성(執法星)을 침범하기도 합니다(瑞曰自歲末以來 太陽不照 霖雨積時 月犯執)."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程氏經說, 周易要義, 書.
필자 | 이창희(李昌)

세모(歲暮)

정의 모(暮)는 저문다는 뜻으로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각 계절이나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세모(歲暮)는 일년 열두 달 가운데 가장 끝에 위치한 12월에 해당하며 같은 의미로 궁랍(窮臘), 세만(歲晩), 세말(歲末)이라고도 한다.

내용 『시전대전(詩傳大全)』 권13 「북산지십(北山之什)」 '무장대거(無將大車)' 시의 주(註)에 "대부가 2월에 서쪽으로 행역을 떠나 세모(歲暮)가 되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부르며 호소하는 것이다(大夫以二月西征 至于歲暮 而未得歸 故呼天而訴之)."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예기의소(禮記義疏)』 권25 「월령(月令)」에는 "주(周)나라 때는 세모(歲暮)에 길[行]에 제사를 지냈으니, 길은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들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고 세모도 오는 해와 가는 해가 교차하는 때라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것이다(周於歲暮實祀行 蓋行者往來之道 而歲暮亦往來之交 故於此祀之)."라고 하였다. 또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0 「예(禮)」7 제조(祭條)에는 "선생은 무원(婺源)의 옛 풍속을 따라 세모(歲暮) 26일에 돼지 한 마리를 삶아 집안의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중당(中堂)에 나아가서 두 번 북이 울리면 예를 시작하였다(先生依婺源舊俗 歲暮二十六日烹豕一祭家先 就中堂二鼓行禮)."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傳大全, 禮記義疏, 朱子語類.
필자 | 이창희(李昌)

세밑(歲-)

정의 세(歲)는 한 해를 뜻하고 밑은 사물의 아래쪽을 뜻하므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나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을 두루 이르는 말. 세모(歲暮), 궁랍(窮臘), 세만(歲晩), 세말(歲末), 세저(歲底), 세종(歲終)이라고도 한다.

내용 세밑이 되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세찬(歲饌)과 차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 그리고 사당에 절을 하고 어른에게도 절을 하는 묵은세배를 하며,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수세(守歲)를 한다. 가까운 이웃에게 세찬을 보내며 여러 가지 놀이와 의례를 행하고, 고사(告祀) 같은 제의(祭儀)를 행하기도 한다. 김지하(金芝河)의 '세밑' 시에 "하늘은 반지 같이 흰 초승달 끼어 세밑 아직 멀었네."라고 하였다. 김광규(金光圭)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시에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 나누고……"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勉菴集,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金光圭 詩集-(金光圭, 文 과 知性社, 1979), 開-김지하시집-(김지하, 실천문학사, 2002).
필자 | 김한기(金 基)

세제(歲除)

정의 제(除)는 몰아내거나 제거한다는 뜻으로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옛날에는 동지(冬至)가 지난 뒤 세 번째 술일(戌日)에 북을 치며 역귀를 몰아냈던 풍습이 있었는데 이 행사는 한 해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행하였다. 따라서 세제(歲除)는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역귀를 몰아내는 행사를 하는 날을 뜻하지만, 후대에는 그날이 들어 있는 달인 12월을 일반적으로 일컫게 되었다. 세종(歲終), 제월(除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오례통고(五禮通考)』 권96 「길례(吉禮)」 종묘시향조(宗廟時享條)에 "홍무 원년에 종묘에 지내는 제사를 제정하였는데 매년 각 계절의 첫 번째 달과 세제에 지내니 모두 다섯 번이다(洪武元年 定宗廟之祭 每歲四孟及歲除 凡五享)."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오대사(五代史)』 권47 「잡전(雜傳)」에 "조연수(趙延壽)가 병사들을 나누고 대대적으로 공략하여 난성(欒城)과 백향(栢鄕) 등 아홉 현을 깨뜨리고 남쪽으로 형주(邢州)까지 이르렀다. 이때는 세제(歲除)의 즈음이라 출제(出帝)가 가까운 신하들과 술을 마셨는데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병을 얻어 출정할 수 없게 되었다(延壽分兵大掠 攻破欒城栢鄕等九縣 南至邢州 是時歲除 出帝與近臣 飮酒過量 得疾不能出征)."라는 구절이 있다. 『속통지(續通志)』 권333 「열전(列傳)」 조급조(趙及條)에 "(조급을) 불러 염철부사(鹽鐵副使)로 삼았으나 질병을 이유로 여주자사(汝州刺史)로 바꾸어주기를 요청

하였다. 세제(歲除)에 다시 불러 부사(副使)로 삼았으나 부임하지 못하였고 하중부사(河中府使)로 옮겼다가 특별히 천장각 대제(天章閣待制)를 제수하였다(召爲鹽鐵副使 又以疾 請知汝州 歲除復召爲副使 不赴 徙知河中府 特拜天章閣待制)."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續　志, 五代史, 五禮　考.
필자 | 이창희(李昌　)

세종(　　)

정의 종(終)은 끝나거나 완료된다는 뜻으로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 각 계절이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기를 가리킨다. 따라서 세종(歲終)은 일년 열두 달 가운데 마지막인 12월에 해당하며, 다른 말로 절계(節季), 연종(年終), 세진(歲盡), 세모(歲暮)라고도 한다.

내용 『주역집해(周易集解)』「명이(明夷)」 구삼효(九三爻)의 주(註)에 "구가역에 이르기를 '세종에 사냥하는 것을 수라 한다'고 하였다(九家易曰 歲終田獵名曰狩也)."라는 구절이 있고, 중국 송(宋)나라 풍의(馮椅)의 『후재역학(厚齋易學)』 권35 「역외전(易外傳)」3 함괘(咸卦)에 "사계절은 봄이 다하면 여름으로 변하고 여름이 다하면 가을로 변하며 가을과 겨울도 그러하다. 성인의 마음에 세종(歲終)을 한 해가 시작하는 때이며 정령을 반포하는 시기라고 여기는 것은 끝남은 다시 시작이 있다는 의미이니 이는 변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四時春化則變夏 夏化則變秋 秋冬亦然 聖人之心 歲終又爲正歲頒政令 皆終則有始之意 所以爲常而久也)."라고 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권16 「직역(職役)」에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말하기를 '만약 조정에서 관리를 배치하여 바치는 세금을 거두어들인 다음 세종(歲終)에 반포하여 마음대로 조목을 만들어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하면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그렇게 하라' 고 하였다(楚材曰若朝廷 置吏收其貢賦 歲終頒之 使毋擅科徵 可也 帝然)."라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續文　　考, 周易集　,　齋易　.
필자 | 이창희(李昌　)

세진(　　)

정의 세(歲)는 해(일년)의 의미를 지닌 한자이고, 진(盡)은 음력의 그믐날을 뜻하는 한자로 섣달그믐을 가리키는 말. 세모(歲暮)라고도 한다. 주로 경상남도에서 사용되었다.

내용 장유(張維)의 『계곡집(谿谷集)』 권27에 수록된 '세밑에 기암자(畸庵子)에게 답한 시(歲暮答畸庵子)'에 "세밑이 되고 보니 어찌 그리 처량한지 멀고 먼 하늘 저쪽 꿈길 역시 더디구려(歲盡懷彌惡 天長夢亦遲)."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谿谷集.
필자 | 안재철(安載澈)

세흘(　　)

정의 세(歲)는 해(일년)의 의미를 지닌 한자이고 흘(訖)은 마치다, 다하다의 의미를 지닌 한자로 한 해가 다감(끝나감), 끝나 가는 해로 풀이되며 섣달그믐을 가리키는 말. 세진(歲盡), 세모(歲暮)라고도 한다.

내용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 "한 해를 마치는 것을 세흘이라고 일컫는다(年終俗稱歲訖)."라는 기록이 있다. 이날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축원하며 서신을 보내기도 하고, 바로 다음날이 새해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을 맞아 음식 준비를 하게 된다. 이날이 되면 시기에 늦지 않도록 많은 선물들이 부호가의 집으로 계속 배달되는데, 이때 배달되는 품목은 차와 엿, 소금, 건어물, 소박한 반찬 등이었다.

참고문헌 | 歲時　謠,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조선대세시기II(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 안재철(安載澈)

앙광이귀신내려온날

⇨ 야광귀쫓기(夜光鬼-): 정월편

연말(年末)

정의 연(年)은 한 해를 뜻하고 말(末)은 나무의 끝이라는 뜻으로 한 해의 끝을 나타내는 말. 세밑, 세말(歲末), 세모(歲暮)가 있다.

내용 정관해(鄭觀海)가 지은 『관란재일기(觀瀾齋日記)』 신미년(辛未年) 납월(臘月) 11일조에 "연말이 되면 계획한 것을 거두었다(只爲年末 則撤裝計也)."라는 구절이 있다. 『일성록(日省錄)』 순조 12년(1812) 5월 9일에는 "영남 제민창(濟民倉)의 조운(漕運)하는 세곡 2천 석을 옮겨 신수곡(信需穀)으로 만들라고 명하니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 곡식이 적은 곳으로 하여금 환곡에서 얻은 모미(耗米)를 신수곡으로 만들고 절목(節目)을 작성하여 정식으로 관청에 보고하고 상고하도록 하고, 또 연말마다 별도로 책을 만들고 곡식 일체를 담당하여 마감하는 일을 분부하도록 청하니 윤허하였다(命嶺南 濟民倉漕稅米二千石移作信需穀 備局啓言卽見……穀少處使之作還取耗名之以信需穀 成節目永爲定式報司憑考 且於各年末別具成册與句管穀一體磨勘事 請分付允之)."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觀瀾齋日記, 日省錄,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안재철(安載澈)

연모(年暮)

정의 연(年)은 한 해를 뜻하며, 모(暮)는 해[日]가 저녁 무렵에 풀섶 사이로 넘어가는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 연모는 저물다 또는 해가 지다라는 의미로 섣달그믐을 가리키는 말. 연모(年暮)는 한 해가 저물어감, 저물어가는 한 해,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때라는 의미이며 섣달그믐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세진(歲盡), 세모(歲暮), 연말(年末)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선생집(東岳先生集)』 권10 「금계록(錦溪錄)」 '제일(除日)' 시에 "荏苒流年暮 蒼茫落日昏 唐虞幾甲子 稷契此乾坤 身老空看鏡 途窮未叫閽 竹符荒峽內 只欲問桃源."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東岳先生集,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안재철(安載澈)

연종(年)

정의 연(年)은 한 해를 뜻하고 종(終)은 마친다는 뜻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이나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을 두루 이르는 말. 궁랍(窮臘), 설밑, 세만(歲晩), 세말(歲末), 세저(歲底), 세종(歲終)이라고도 한다.

내용 연(年)은 한 해를 뜻하는 말로 『이아(爾雅)』 「석천편(釋天篇)」에 "연(年)은 벼가 한 번 익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取禾一熟)."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 해를 마칠 때가 되면 민간이나 조정에서 한 해 동안 돌봐준 신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날을 받아 조상이나 종묘(宗廟) 또는 사직(社稷)에 제사를 지낸다. 한(漢)나라 학자인 응소(應劭)의 『풍속통의(風俗通義)』 「사전(祀典)」에 "연종(年終)에 대제(大祭)를 지낸다(年終大祭)."라고 하였다. 중국 당(唐)나라 시인인 백거이(白居易)의 '제사소홍등전우작(祭社宵興燈前偶作)'에 "다시 연종(年終)이 지나기를 기다려 돌아갈 계획을 생각하네(更待年終後 支持歸計看)."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白氏文集, 爾雅, 俗 義.
필자 | 김한기(金 基)

제석( )

정의 제(除)는 섣달그믐을 뜻하고 석(夕)은 저녁을 뜻하는 말로 섣달그믐을 가리키는 말. 제야(除夜), 세모(歲暮)라고도 한다.

내용 김육(金堉)의 『잠곡유고(潛谷遺稿)』 권1에 수록된 '동쪽으로 돌아온 뒤 느낌이 있어 건제체(建除體)를 써서 짓다(東還後有感作建除體)' 시에 "제석날 연경 숙소 묵고 있을 제 병석 누워 오랑캐 소식 듣고는 온 눈 가득 우국의 눈물 흘리며 심골(心骨) 놀라 동쪽으로 돌아왔다네(除夕在燕邸 病臥聞虜兵滿眼憂國淚 東歸心骨驚)."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潛谷遺稿.
필자 | 안재철(安載澈)

제야(　　)

정의 제(除)는 섣달그믐을 의미하고 야(夜)는 밤을 뜻하는 말로 섣달 그믐날 밤을 가리키는 말. 제석(除夕), 세모(歲暮)라고도 한다.

내용 『동문선(東文選)』 권4에 수록된 최해(崔瀣)의 '스물한 살의 섣달 그믐날 밤에(二十一除夜)' 시에 "나는 이미 그 나이 지났는데도 일찍이 일명의 벼슬도 못 얻었구나. 스물한 살의 섣달 그믐밤에 속절없이 해를 보내며 슬퍼하노라(我今旣云過 一命未曾縻二十一除夜 空作徂年悲)."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東文選.
필자 | 안재철(安載澈)

제일(　　)

정의 제(除)는 섣달그믐을 뜻하고 일(日)은 해, 날을 뜻하는 말로 섣달그믐을 가리키는 말. 주로 경남 지역에서 사용한다. 제석(除夕), 세모(歲暮), 제야(除夜)라고도 한다.

내용 이식(李埴)의 『택당집(澤堂集)』 권4에 수록된 '섣달 그믐날의 폭설(除日大雪)' 시에 "섣달그믐까지 납설이 이어지고 게다가 비렴이 또 기승을 더욱 부리나니 아곡을 온통 눈으로 파묻을 듯 수리봉엔 외로이 한기(寒氣)만 감도누나(臘雪連除日 飛廉氣更麤 勢塡鴉谷滿 寒擁鷲峯孤)."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堂集.
필자 | 안재철(安載澈)

귀성(歸　)

☞ 귀성(歸省): 가을편

나례(儺禮)

정의 가면을 쓴 이들이 주축이 되어 일정한 규식에 의거해 구귀축역(驅鬼逐疫)하는 주술적 벽사의례(辟邪儀禮). 『예기(禮記)』에 의하면 계춘(季春)에는 국나(國儺), 중추(仲秋)에는 천자나(天子儺), 계동(季冬)에는 대나(大儺)를 행했다고 하였다. 초기 나례는 방상씨(方相氏) 중심의 단순한 구역의식(驅疫儀式)이었으나, 이후에는 질병의 근원인 여역(厲疫)은 물론 모든 재앙과 재해의 근원이라 생각되는 잡귀와 잡신들을 물리치는 총체적 벽사의례로 부상되었다. 나례가 총체적 벽사의례로 부상되면서 나의식(儺儀式)에 나신(儺神)이나 태음신(太陰神)에 대한 제의가 부가되었고, 이와 함께 오신적(娛神的) 가무나 오인적(娛人的) 가무가 나의식에 병연(倂演)되어 성대한 굿놀이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갖추어갔다.

유래 고대 중국 장강 유역의 농업 민족인 신농(神農)씨족의 원시신앙에서 비롯된 나제(儺祭)는 농업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전역에 파급되었으며, 선진시대부터는 왕실에까지 유입되어 국가적인 연례 행사로 정립되었다. 우리나라에 나례가 뿌리 내리기 시작한 시기는 고려 초엽으로, 관부에서 중국의 나의식을 유입하여 세말(歲末)에 정례적인 국가의식으로 계동대나례(季冬大儺禮)를 제도화하면서부터이다.

사료에 의하면 고려 정종(靖宗) 6년(1040)에 비로소 나례의 기사가 보여 정종대부터 계동대나례가 시행된 것으로 기술되나, 우리나라에 중국 나례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때는 고려 성종대에 관부에서 당대(唐代)의 궁중 나의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세말에 정례적인 국가의식으로 채용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성종은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최승로(崔承老)와 이양(李陽)의 건의에 따라 『예기』「월령편(月令篇)」에 준거해 유교적 의례인 토우(土牛) 행사와 적전(籍田) 행사를 실행하였는데, 이 월령에는 대나도 함께 거론되고 있어 이 시기에 나례도 함께 국가의식으로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병권(兵權)의 중앙집중화를 위한 군조직의 재편과 군인의 복색 제정을 단행하였으므로 나례를 포함한 군례(軍禮)도 그에 따라 새로이 상정(詳定)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당시 중국이 송대(宋代)로 넘어온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송대 나의식이 아닌 당대 나의식을 전범으로 삼았던 연유는 나희(儺戱)로 변모한 송대와 달리 당대의 고나(古儺)가 극점으로 장중하고 엄숙한 나의식이었기 때문이다. 당대의 나의식은 후한대의 나의식과 비슷하나 공인, 고취

령, 태복령, 무사, 태축, 재랑 등 참가자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 또한 성대하였던 것으로서 방상씨 중심의 축역의식을 골간으로 하는 고나의 결정체였다.

나례는 거행되는 장소와 주재자에 따라 일반적으로 궁정나(宮廷儺), 민간나(民間儺), 군나(軍儺), 사원나(寺院儺)로 나뉜다. 궁정나의 경우 행사의 주관은 고려시대에는 사천대,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에서 하였고, 실무는 고려시대에는 병장방과 순위부,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나의(儺儀)는 관상감에서, 나희는 의금부와 군기시에서 맡되, 일시적으로 별정직인 도감을 설치하여 나례는 나례도감에서, 산대는 산대도감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희의 연희자는 악공과 우인, 재인, 기녀 등이 위주였는데, 고려시대에는 후기부터 무녀가, 조선시대에는 현수(絃首, 絃手; 무녀를 도와서 신사를 하는 자)가 참여하였다.

나례는 축역자들이 가면을 쓰고 일정한 규식에 따라 구귀축역하는 것이 그 본령이었으나, 나의식에 병연되는 가무백희가 점차로 나례의 본의식과 무관한 잡희들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엄숙한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면모는 퇴색되고 끝내는 나의식 자체도 놀이로 변모해갔다. 나례가 점차로 오락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그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재정적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나례를 정파하기에 이르렀는데, 궁중의 계동대나의는 영조 30년(1754)에 공식적으로 정파되었으며, 사신 영접 때 행한 나례 행사는 정조 24년(1800)에 공식적으로 정파되었다.

내용 나례는 방상씨 중심의 구나의식부와 이에 병연되는 오신적, 오인적인 가무백희부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굿놀이다. 계동대나의의 진행과정은 나자들의 축귀(창축귀사) - 축사의 독축문(신위는 태음신) - 술과 양물(禳物) 묻기의 순서이나, 나의 뒤에 나희가 거행되고 축귀의 주역신을 나신으로 설정하고부터는 전체적 기본구조가 청신(請神) - 오신과 오인 - 송신(送神)으로 변하였다.

고려 성종대에 수용하여 시행한 나례는 중국 당대의 나례를 전범으로 한 것이나, 고려 말기에 이르면 오락적 행사로 변모한 송대의 나례가 일부 수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 우리의 전통적 구역의식의 일부를 습합하여 소위 한국적 나의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고려사(高麗史)』, 『세종실록(世宗實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용재총화(慵齋叢話)』,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수록되어 있는 계동대나의 구역의식은 두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고려사』와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나의식은 당대(唐代) 나의식을 전범으로 하는 유형이며, 방상씨 중심의 구역의식은 『신당서(新唐書)』의 대나지례, 『악부잡록(樂府雜錄)』의 구나, 『통전(通典)』의 대나 등에 수록되어 있는 당대 나의식과 대동소이하다. 반면, 『증보문헌비고』, 『용재총화』에 수록되어 있는 대나의식은 당대 나의식과 송대 나의식 등 중국 나의식의 일부와 민간에 전래되어온 전통적 나의식의 일부가 혼합되어 독특한 구나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조선 초기 한국적 나의식으로 변모한 양상은 전대와 대비해 대략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① 방상씨의 축역 도구가 방패에서 딱딱기로 일부 바뀌었다는 점



상요압폐방상제
기산풍속도 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② 지군(指軍), 판관, 조왕신, 소매(小梅) 등 새로운 축역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③ 한대(漢代)의 가택신 중 주신인 십이신(갑작, 필위 등)이 십이지신(자신, 축신 등의 방위신)으로 교체되어 새로이 등장한다는 점 ④ 진자(侲子)의 역할이 축역자에서 구축대상자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중 ②는 송대 나의식과 나희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③과 ④는 중국의 나의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변용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적 변용 사례 중 특히 주목할 사항은 ④이다. 진자가 역귀의 역할을 전담하면서 나의식은 완연한 연극적 형식으로 변모되었다. 전대까지 방상씨가 주축이 되어 거행되던 축역 장면은 역귀는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극의 방백과 같이 주술적인 행위와 주사를 연출하는 것임에 비해, 역귀의 가시적인 설정은 선악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해소하는 일련의 드라마를 등장 인물들의 대사, 연기로 재현하고 있다. 신계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는 이러한 나의식의 극적 구성이 이후 인간계의 대립과 갈등을 풀어내는 현전 가면극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나례의 구역의식에 병연되었던 가무백희를 나희라 지칭한다. 고려 예종대(1105~1122)에 이르면 나례를 거행하기에 앞서 창우(倡優), 잡기는 물론 외관유기(外官遊妓)까지 불러 모아 대대적으로 나희 경연을 벌인 사실이 있다. 이는 나례의 본식과 무관한 잡희들이 대거 궁중의 나례 행사에 수렴되었음과 아울러 고려 중엽부터 나례 행사는 본식인 구역의식보다 가무백희가 중심을 이루는 세말 축제로 바뀌어갔음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고려 성종대에 공의로 채용된 나례 행사는 그 뒤 처용무(處容舞), 오방귀무(五方鬼舞), 백택무(白澤舞) 등의 벽사가면무와 토화(吐火), 탄도(呑刀), 화교(華僑)의 답교(죽광대) 등의 단순 기예 그리고 서역 호인희(胡人戱), 어룡지희(魚龍之戱) 같은 오락적 가면희와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 소학지희(笑謔之戱)를 수렴하여 연행하는 나희를 형성하였다. 나희(산대희)는 계동대나례 이 외에도 사신영접 때나 왕의 부묘(祔廟) 뒤, 친경(親耕) 뒤, 친제(親祭) 뒤 환궁 행사 때, 안태(安胎) 때 같은 왕실이나 국가의 중요 행사에 수반되어 연희되기도 하였다.

의의 고려 초엽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 벽사의례이자 축제로 존속해왔던 나례가 우리나라 민속문화나 연희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나례는 의례 자체가 일종의 집단적 가면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병연되는 나희 또한 잡희와 함께 가면희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국가의 중요 행사에 수반되었던 나희(산대희)는 각 도의 관아에 예속되었던 재인[才人, 戱子]들이 서울로 상송(上送)되어 행하였다. 그로 인해 서울로 상송되었던 지방 재인들이 함께 한 연희문화는 행사 뒤 그들의 귀도(歸道)와 더불어 지방관아로 자연 전파되기 마련이었으므로 일부 지방관아에서는 그들이 가져온 서울의 연희물을 향리가 중심이 되어 지역적 환경에 맞추어 재현, 전승하는 과정에서 현전하는 가면희 형성은 물론 지역의 민속연희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牧隱藁, 新唐書, 樂府雜錄, 禮記, 慵齋叢 , 朝鮮王朝實錄, 增補文 備考, 典, 國 音樂 硏究(李 求, 國民音樂硏究 , 1957), 儺戱·儺文 (廣修明, 中國 僑 公司, 1990), 儺文 芻論(柯琳, 中央民族大 社, 1994), 儺史(林 , 東大圖書公司, 1994),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황경숙, 月印, 2000).
필자 | 황경숙(京淑)

망년과세(忘年過)

정의 일년의 마지막 날인 섣달 그믐날 저녁에 시집간 딸들이 친정 부모나 친척을 찾아가서 세배를 하는 것.

내용 망년과세는 섣달 그믐날 사당에 참례하고 집안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묵은세배 풍속의 하나이다. 묵은세배를 갈 때는 여러 가지 선물도 가져가는 것이 특색이다. 선물로는 버선, 토시, 휘양(방한모) 따위를 들 수 있고, 이러한 선물은 손수 만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가져가는 음식으로는 주로 쇠고기를 넣은 메밀칼국(메밀국수)이다. 시집간 딸들은 이러한 음식을 마련하여 어버이를 찾아가서 "해 넘어 감시메, 요거 한적 자사봅서." 하고 드린다. 또 버선 같은 선물을 드리면서 "신년이 돌아오민 요거 보선 신읍서."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자식이 만들어온 물건을 기꺼이 받아 자식의 앞에서 잘 들어

맞고 안 맞음을 확인한 후 벗어서 잘 두었다가 설에 꺼내서 신는다. 할머니에게는 치마, 저고리, 유채기름을 선사하는데 설날 이러한 것들로 단정하게 치장을 하고 세배를 받는다. 노인네들은 자식이 준 선물을 신거나 쓰고 앉아 있다가 설날 손님들로부터 세배를 받을 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식이 해준 것이라고 자랑을 한다.

망년과세와 비슷한 풍속으로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 풍속이 있는데, 보리를 거둬들일 때면 처음으로 개역(보리 볶은 가루)을, 추수 때에는 좁쌀(찰조)로 오매기떡(수단의 큰 것)을 만들어 콩개역(콩 볶은 가루)에 묻혀서 친정 부모님께 드린다. 이렇게 철에 따라 바뀌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철가리'라고 하며, 이러한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하러 가는 것을 "철가리하러 간다"라고 말한다. 이는 부모 자식 사이의 따뜻한 마음의 표시이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濟州道歲時 俗-(진성기, 敎 社, 1981).

필자 | 김성례(金成禮)

묵은세배[舊]

정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그믐에 가족과 친지에게 감사의 뜻으로 올리는 세배. 구세배(舊歲拜), 그믐세배라고도 한다. 섣달그믐을 작은설이라 하여, 설과 같이 어른이나 조상신에게 세배를 올려 과세(過歲)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내용 유만공(柳晩恭)의 『세시풍요(歲時風謠)』 제석조(除夕條)에 "섣달 그믐날 만나고 맞이하며 또한 절하고 물러가니, 바쁘기가 홀연히 멀리 떠날 때와 같다."라고 하였다. 섣달 그믐날이 되면 이웃이나 친척을 찾아 문안 인사를 하는 데 이것을 묵은세배라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2월 제석조에 "조정의 신하는 2품 이상과 시종관들이 대궐에 들어가 묵은해 문안을 올린다.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에 참례한다. 연소자들이 친척 어른을 찾아 방문하는 것을 구세배라 한다. 그리하여 이날은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길거리의 등불이 줄을 이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였다. 요즘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집안의 어른들에게 묵은세배를 드린다.

묵은세배는 한 해가 가기 전에 살아 있는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에게 올리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조상에게 먼저 만둣국을 올리는 국차사를 지낸 다음, 저녁을 먹고 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묵은세배를 올린다. 일부 가정에서는 이웃의 친척을 찾아 묵은세배를 올리고 한 해 동안 돌보아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지역사례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는 섣달 그믐날 일몰 전에 사당 문을 열고 주(酒), 과(果), 포(脯)를 진설하고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는데 4대 조상의 수대로 국을 퍼서 올린다. 부모에게는 취침 전에 묵은세배를 올린다. 사우(祠宇)가 없는 집은 조상의 지방을 써놓고 떡국차례를 지낸다. 평창 지역은 저녁 먹을 때쯤 국차사를 지내는데 산골에서는 떡이 귀하기 때문에 떡국보다는 만둣국을 올린다. 만두 속에 들어가는 육고기로는 닭과 꿩고기를 이용한다. 돼지고기를 넣기도 하나, 꿩고기를 넣는 것이 맛있다고 하여 꿩을 잡으러 다니거나 사육한 꿩을 쓰기도 한다.

설차사를 아침 일찍 지내는 것과 달리 섣달그믐의 국차사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지내고, 상을 물리고 나서 묵은세배를 한다. 그리고 음복(飮福)을 하고 저녁을 먹는다. 지금도 옛날 풍습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묵은세배를 시킨다. 지역에 따라서는 저녁식사 전에 묵은세배를 하는데 만두를 먹어야 나이가 비로소 든다고 하기도 하며, 만두 40개를 먹어야 철이 든다고도 한다.

경북에서는 과세지낸다라고 하여 섣달 그믐날 가족이나 친척끼리 모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구세배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해 환갑이 되는 사람은 다른 마을에 있다가 그믐날 밤을 지내고 정월 초하루 새벽에 집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만일 다른 마을에 갈 형편이 못 되면 닭이 울기 전까지 변소에 앉아 있다가 돌아온다고 한다. 그것은 옛날부터 환갑 맞은 노인은 그해를 넘기기 어렵다 하여 액막이의 방편으로 임시로 피한 것이다. 과세지내는 풍습은 세배는 하지 않아도 서로 한 해 동안 베풀어준 감사의 정을 나누는 것이다.

의의 묵은세배는 설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보내면서 조상과 부모, 이웃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례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國의 歲時 俗(崔常壽, 人文 社, 1960), 國民俗 論攷(李杜 , 研社, 1984), 國歲時 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中 歲時 俗 및 歌謠研究(張正龍, 集文堂, 1988), 불교와 세시풍속(안길모, 명상, 1993),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평창군의 세시풍속(김선풍 외, 평창군, 2004), 한국세시풍속 I (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장정룡(張正龍)

벽온단진상(辟 丹)

⇨ 섣달그믐: 겨울편

연종방포(年 放)

⇨ 나례(儺禮): 겨울편

경신수야(庚)

⇨ 수세(守歲): 겨울편

과일나무에 시루물주기

정의 섣달그믐에 시루떡을 찌고 남은 물을 과일나무에 부어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풍속.

내용 과일나무 기풍 주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과일나무시집보내기[嫁樹]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섣달그믐에 다양한 양식의 기풍 주술이 전승되는데,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나무에 특정한 물질을 부착하거나 투여하는 행위로 과일나무시루물주기, 감나무에 오줌붓기, 감나무에 좁쌀밥붙이기, 묵은거름주기가 있다. 여기서 시루물은 팥을 쪄낸 물이기 때문에 팥의 속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結果)를 방해하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는 기능을 한다. 또 오줌은 남성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투여는 성적 결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좁쌀밥도 조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이듬해에 과실나무에 과실이 많이 열리고 잘 되라는 의미에서 섣달 그믐날 밤에 아이들이 발가벗고 과실나무 주위를 돌며 오줌을 누거나, 남자 변소에 가서 남몰래 오줌을 떠서 과실나무 주위에 붓는데, 이때 나무에 더해지는 물질은 제액, 성적 결합, 풍요의 상징을 지닌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과일나무위협하기가 있다.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장곶마을의 경우, 섣달그믐에 가장(家長)이 감이 잘 열리지 않는 감나무에 가서 도끼로 겨누며, "감도 안 열리는 나무 비뿔란다(베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한다. 혹은 실제로 세 번 정도 가볍게 찍기도 한다. 그러면 옆에 있던 아내가 "명년에는 많이 열릴기요, 놔두소." 하고 말린다. 이렇게 하면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린다고 한다. 이처럼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시늉을 하거나 상처를 내는 것은 위협을 통해 현실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민간신앙에서의 한 주술 방식에 해당한다.

한편, 과일나무위협하기는 대부분의 경남 지역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하는 풍속이다. 그리고 나무에 치마입히기가 있다. 이것은 나무의 여성성을 적극 인정해줌으로써 더 많은 결과물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남 양산에서는 섣달 그믐날 과일나무 기둥에 베로 만든 치마를 둘러 입히면 이듬해에 과일이 많이 열린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섣달그믐에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이구마을의 경우 과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12월에 과일나무에 베로 만든 치마를 둘러 입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과일나무시집보내기가 있다. 이것의 의미는 가수(嫁樹)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하죽마을에서는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강 건너(바다 건너 다른 지방)의 몽돌(둥글고 반들반들한 돌)을 섣달그믐 저녁에 끼우면 과일

이 많이 열린다고 믿었다.

한편 경남 지역에서는 해걸이(한 해 많이 열렸다가 이듬해에 많이 열리지 않는 것)하는 감나무에 섣달그믐 저녁에 한 사람은 도끼를 쥐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따라가서, 한 사람이 도끼를 찍으면서 "많이 열래?" 하면 따라간 사람이 "많이 열겠습니다." 하고 말리고, 또 도끼로 찍으면서 "안 떨어질래?" 하면 "안 떨어지겠습니다." 하고 말린다. 그리고 뿌리에 오줌을 한 동이 부어주고 서숙밥(좁쌀밥)을 나무에 붙인다. 감이 익지 않고 풋감일 때에 떨어지는 감나무에 찰떡을 붙이고 뿌리 둘레에 구덩이를 파서 오줌을 붓고 흙으로 덮는다. 이렇듯 기풍 주술은 두세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개별적인 행위로 보고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慶尙南道 -(文 財管理局, 197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오세길(吳世吉)

귀신달구기

정의 섣달그믐이나 음력 정월 16일에 잡귀를 방비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주술행위. 음력 정월 16일을 귀신날, 귀신닭날, 귀신단지날, 귀신달기날로 부르는데, 이날이 되면 외출을 삼가고 귀신달구기를 한다. 원래 달군다 또는 후달군다라는 말이 남을 괴롭힌다는 뜻으로 통용되므로, 귀신달구기 또는 귀신달림은 귀신을 괴롭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섣달그믐의 귀신달구기 풍속은 전국에 걸쳐 전승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에서는 이듬해 드는 귀신을 방비하기 위해 가시가 촘촘히 박힌 엄나무 가지를 꺾어 X자 모양으로 처마에 달아맨다.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에서도 야광귀(夜光鬼)를 방비하기 위해 벚나무를 X자 모양으로 처마에 달아매고 신발을 들여놓으며, 해가 떨어지면 부녀자들의 바깥출입을 절대 금한다. 또 잡귀의 근접을 방비하기 위해 메밀, 명주, 고추씨를 왼쪽으로 꼰 새끼줄 위에 얹어놓고 숯으로 태운 후 이 재를 가능한 멀리 갖다 버린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에서는 가시가 박힌 벙구나무 가지를 꺾어 문 앞에 걸어둔다. 뿐만 아니라 이사한 후에 집터가 좋지 않다고 여기면 항시 벙구나무 가지를 벽에 걸어둔다. 또 천북면 신죽리에서도 가시가 박힌 벙구나무 가지를 꺾어 문 앞에 매단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에서는 엄나무 가지를 잘라서 방문 위에 걸어두며, 스스로 말라 떨어질 때까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에서도 엄나무 가지를 꺾어서 대문이나 방문 위에 걸어둔다. 방문 위 양편에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걸쳐놓는데, 스스로 말라 떨어질 때까지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부산에서는 대문 옆에 대나무를 꽂아놓고 불을 지르거나 고춧가루, 머리카락, 소금, 팥, 콩, 쌀을 한데 볶아 집 안 구석과 대문 앞에 뿌리고 메밀과 고추를 한데 볶아 뿌린다. 경북 문경에서는 귀신이 와서 신을 보고 있으면 그 주인이 죽는다고 해서 신을 방 안에 넣고 잤다. 귀신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잠그거나 부적을 그려 붙이고, 대문 앞에 매운 고춧불을 놓는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귀신이 싫어하는 명씨(목화씨)와 고추씨를 화롯불에 태우며, 구멍이 가는 체를 대문에 걸어둔다. 또 신발을 방에 들여 놓거나 봉당에 엎어 놓기도 한다.

의의 예부터 잡귀가 집에 들어오면 탈이 난다고 여겼다. 그래서 정초에 머리카락이나 명씨, 고추씨 따위를 화롯불에 태워 심한 냄새를 피우거나, 대나무를 태워 요란한 소리를 내거나, 대문에 구멍이 가는 체를 걸어두어 잡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과학이 부재(不在)하고 의학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재액을 대비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술적 힘을 원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속신(俗信) 행위를 통해 민간에서 행했던 기원의 일단과 민중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國의 歲時 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國의 歲時 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창식(李昌植)

달걀먹기

정의 경상남도에서 섣달그믐에 달걀을 깨끗한 오줌에 담갔다가 먹거나 오줌에 삶아서 먹는 풍속.

내용 경남에서는 섣달 그믐날 저녁에 달걀을 오줌에 담가두었다가 그것을 꺼내서 삶아먹는 풍속이 전해오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잔병치레를 하지 않고 부스럼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오줌에 삶은 달걀은 특히 염병(장티푸스)에 특효가 있는데, 염병이 유행하면 오줌에 담근 달걀을 삶아 환자에게 먹이면서 "너 혼자 해라."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병이 전염되지 않는다고 한다. 염병뿐만 아니라 학질, 다리와 허리가 아픈 데에도 오줌에 담근 달걀을 삶아먹으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관절염이나 소화불량인 사람은 섣달그믐에 달걀이나 오리알을 오줌에 담가두었다가 삶아서 먹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지금도 오리알을 오줌에 담가두었다가 삶아서 먹는 풍습이 민간에 전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慶尙南道 -(文 財管理局, 1972),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박성석(朴性錫)

도깨비모시기

정의 섣달그믐에 도깨비를 모셔 부와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 대개 개인 고사로 행해진다.

내용 섣달그믐에 모시는 제의는 대개 설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듬해의 풍요와 제액초복을 기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제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부산과 경남에서 행해지는 도깨비고사이다. 부산과 경남 기장에서는 그믐날 저녁에 도깨비를 불러들이기 위해 메밀을 마당에 뿌린다. 이것은 도깨비가 재물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렇게 하면 도깨비가 집을 찾아와 복을 주고 간다고 믿었다.

이러한 풍속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담이 남해안에서 전승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전라도 석수영(石水營)에 살던 한 나무꾼이 제석날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우연히 도깨비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들은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메밀묵을 만들어 그 자리에 갖다놓았다. 메밀묵을 잘 먹은 도깨비들이 그 대가로 산과 개울을 이용해서 논밭을 만들어주어 부자가 되게 하였다.

이 유래담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도깨비의 부신성(富神性)을 이용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특히 메밀을 뿌려서 도깨비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인다는 속신이 만들어진 점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섣달 그믐날 도깨비불보기를 들 수 있다. 원래 도깨비불보기는 도깨비를 모신다는 측면보다는 도깨비불이 알려준 자리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는 어촌 지역의 속신이다. 부산에서부터 전남 진도에 이르는 남해안에서 주로 전승하는 풍속이라는 점에서 도깨비고사와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

지역사례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일운면 망치리 양화마을, 하청면 어온리 장곶마을에서는 주로 정치망을 하는 어민들이 도깨비불을 보기 위해서 섣달 그믐밤에 산 위에 오른다. 바다를 보다가 도깨비불이 나타나는 것을 찾는데, 도깨비불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진해시 죽곡동 어은마을과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중촌마을에서도 섣달그믐에 도깨비불보기를 한다.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와 조도면 관매리에서도 섣달그믐에 도깨비불보기를 한다. 주로 연근해에서 소형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어민들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풍속임을 알 수 있다.

의의 이처럼 섣달그믐 도깨비를 모시는 고사를 지내거나 도깨비불보기를 하는 것은 도깨비가 풍요를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섣달그믐에 행하는 이유는 이듬해에 재수가 좋고 부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신앙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도깨비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도깨비를 둘러싼 민간신앙과 설화(김종대, 인디북, 2004).
필자 | 김종대(金宗大)

⇨ 도깨비불점: 정월편

동백꽃목욕

정의 섣달 그믐날 저녁에 피부병에 좋다 하여 동백꽃을 우린 물로 하는 목욕.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巨文島)에서 행하던 풍속이다.

내용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는 동백나무가 많아 섣달 그믐날 저녁이면 뜨거운 물에 동백꽃을 우려서 그 물로 목욕을 하였다. 그 물로 목욕을 하면 종기에 약이 되고 평소에는 피부병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동백꽃목욕은 약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성행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이를 행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고 한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全羅南道 -(文 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서해숙(徐 淑)

메산

정의 섣달 그믐날 저녁에 산신(山神)인 메산이를 부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풍속.

내용 메산이는 산에 사는 산신으로 경남에서는 겨울에 눈이 온 다음날이면 날씨가 따뜻해서 산에서 메산이가 시냇가로 내려와 눈에 낯도 씻고 빨래도 한다고 전해오고 있다. 섣달 그믐날 저녁에 산을 마주 보고 "메산아!" 하고 부르면, 그 소리가 메아리쳐 되돌아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메산이의 대답이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소원을 메산이에게 부탁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메산아!", "와(메아리 소리)", "메산아!", "와(메아리 소리)", "메산아!", "와(메아리 소리)" 이렇게 세 번 부르고, "우리 집에 궂은 것은 니(너)가 다 가아가고(가져가고) 좋은 명(命)과 복(福)은 다 내헌테(나에게) 주라."라고 하던지 "내 더우(더위) 사가거라." 또는 "우리 ○○(아이 이름) 명복 많이 도라(달라)."라고 하면 메아리 소리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메산이가 대답을 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慶尙南道 -(文 財管理局, 1972),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박성석(朴性錫)

별세( )

⇨ 수세(守歲): 겨울편

불밝히기

⇨ 수세(守歲): 겨울편

세포( )

정의 세말(歲末)인 제석(除夕) 전날 또는 제석날, 대궐에서 역귀(疫鬼)를 쫓아내기 위해 대포를 쏘던 나례풍속(儺禮風俗). 대궐에서 대포를 쏘는 것을 연종포(年終砲), 연종방포(年終放砲)라고 한다. 나례와 더불어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분히 역귀를 쫓는 의례에서 행한 대포쏘기이다.

내용 음력 섣달 그믐밤에 대궐 안에서는 대포를 쏘아 역귀를 쫓고, 민가에서는 지포(紙砲)를 놓거나 폭죽(爆竹) 소리로써 역귀를 쫓던 풍속이 있었다.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는 "제석날 대궐에서 큰 나례를 행하며 포화(炮火)를 놓는다."라고 하였고,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대궐 안에서는 제석 전날부터 대포를 놓는데 이를 연종포(年終砲)라 하며, 화전(火箭)을 놓고 징과 북을 울리는 것은 곧 대나(大儺)의 역귀(疫鬼) 쫓는 행사의 유제(遺制)이고, 제석과 설날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귀신을 놀라게 하는 제도를 본뜬 것"이라 하였으며, 또 "의주(義州) 풍속에 동네에서 지포를 놓는 것은 연경(燕京)의 풍속을 본뜬 것"이라 하였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의 기록에 보면 "대궐 안 궁전 근처에서는 각각 총을 놓아 세 번 울리고, 지방 관청에서는 광대들이 허수아비의 탈을 쓰고 바라를 울리며 막대를 휘두르고 호령을 하며 무엇을 쫓는 시늉을 하면서 두루 몇 바퀴를 돌다가 나가는데 그것은 나례의 유법(遺法)"이라 하였다. 『세시풍요(歲時風謠)』에 "포 쏘는 소리마다 대궐이 진동하고, 사귀 쫓고 통금 푸니 연말이라네. 밝고 빛나게 어지러이 쏘아 기(旗) 같은 화살 오르니, 홀연히 황혼을 깨고 벽공에 오르네(砲放聲聲動九宮 祓除淸禁屬年終 明煌亂發升旗箭 忽破黃昏上碧空)."라고 하여, 궐내에서는 제석에 연종의 방포와 화전으로 사귀(邪鬼)를 물리친다고 하였다.

지역사례 왕실에서 행하던 풍속이므로 현재 이 풍속이 행해지고 있는 곳은 없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태워서 큰 소리를 내어 액운을 쫓는 풍속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다. 물론 세포 풍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풍속이 행해지는 목적인 액귀를 쫓는다는 것과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큰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다소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풍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송암마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 밤에 마당에 대나무, 고춧대, 피마자대를 모아놓고 자정에 불을 놓는데, 이는 축귀(逐鬼)의 뜻을 가진 액막이 행위이다. 대나무가 불에 타면서 펑펑 튀는 소리에 잡귀가 물러가라고 하는 의식이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서는 정월 16일 밤 삽짝에 목화씨, 머리카락, 대나무를 놓고 불을 피우는데, 이들이 탈 때 탁탁 소리를 내어 야광귀가 집안에 범접하는 것을 막는다고 한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서는 정월대보름 밤에 고추, 머리카락을 넣고 마당에 불을 피워 놓으면 대가 튀면서 탁탁 소리를 내어 귀신을 쫓는다. 그러나 이날 제사가 드는 집은 조상귀신이 들어오지 못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에서는 정월대보름 밤에 귀신을 쫓기 위해 머리카락과 대나무를 태우는데, 대나무를 태우면 탁탁 총소리가 난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서는 정월대보름 저녁에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문 밖에 대나무를 쌓아 불을 놓아 귀신을 쫓는다. 이는 대나무가 터질 때 총소리와 같이 큰소리가 나므로 귀신이 놀라서 도망간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歲時　謠, 洌陽歲時記, 陽歲時記, 아름다운 민속어원(최창렬, 新亞　　社, 1989), 한국의 벽사의례와 연희문화(황경숙, 月印, 2000).

필자 | 황경숙(　京淑)

⇨ 나례(儺禮): 겨울편

수세(　　)

정의 섣달 그믐날 밤에 집안 곳곳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는 풍속. 경신수야(庚申守夜), 별세(別歲), 불밝히기, 해지킴이라고도 한다.

유래 중국 송(宋)나라 때 온혁(溫革)의 『쇄쇄록(瑣碎錄)』에 "섣달 그믐날 밤에는 신불(神佛) 앞이나 마루, 방, 변소 등에 새벽까지 불을 밝혀 집안에 광명을 주었다."라고 하였고,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는 "섣달 그믐날 밤 사람들이 집에서 화롯가에 둘러앉아 아침이 되도록 자지 않는데, 이를 수세(守歲)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중국 촉(蜀)나라 풍속을 기록한 대목에 섣달 그믐날 잔치를 베풀어 술과 음식으로 서로 맞이하는 것을 별세라 했고, 밤에 불을 밝히고 자지 않는 것을 수세라 하여 이 풍속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다. 밤에 잠을 자지 않는 풍속은 도교의 경신수야 또는 수경신(守庚申)이라는 풍속과 관련이 있다.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庚申日)이 되면, 사람의 몸에 기생하고 있던 삼시(三尸) 또는 삼시충(三尸蟲)이 잠든 사이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상제(上帝)에게 그 동안의 죄과를 낱낱이 고해 바쳐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는 풍속이 있었다. 섣달 그믐날의 수세 풍속은 수경신 풍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경신 신앙은 고려 때 매우 성했고 조선조까지 행해졌다.



수세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내용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함께 모여 밤을 지새우며 새해를 맞이한다. 『동국세시기』에 "섣달 그믐날 밤 인가에서는 방, 마루, 다락, 곳간, 문간, 뒷간에 모두 등잔을 켜놓는다. 흰 사기 접시 하나에다 실을 여러 겹 꼬아 심지를 만들고 기름을 부어 외양간, 변소까지 불을 켜놓아서 마치 대낮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지 않는데 이를 수세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섣달 그믐날

밤에 사람이 거처하는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놓고 밤을 지새웠다. 이날은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竈王神)이 하늘에 올라가 천신(天神)에게 그 집안에서 일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보고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뚜막 위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꿀을 바르기도 했다. 경남지방에서는 불을 켜는 장소에 따라 조왕불, 성주불, 용왕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경북 문경, 김천, 예천지방에서는 액막이라 하여 이날 켜둔 촛불을 훔쳐간다. 훔쳐가다가 들켜 욕을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며 이것을 명도적(命盜賊)이라 하였다.

궁중에서는 나례(儺禮)를 베풀고 연종포(年終砲)를 쏘아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풍속이 있었다. 민간에서 행하는 수세의 모습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십이월령(十二月令)'의 "앞뒷집 타병성(打餠聲)은 예도 나고 제도 나네, 새 등잔 세발 심지, 장등(張燈)하여 새울 적에, 윗방 봉당(封堂)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 하는구나."라는 묘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속설에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굼벵이가 된다.",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라는 속신이 있다. 가족끼리 모두 모여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잠을 자지 않았다. 밤새도록 화롯가에 둘러앉아 옛날이야기를 하거나 윷놀이를 하면서 졸음을 쫓으려 애썼으며, 남자들은 망년주(忘年酒)를 마시면서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섣달 그믐날 저녁을 일찍 먹으면 농사일을 일찍 마친다고 하여 서둘러 먹으며, 부스럼이 없어진다고 하여 무를 먹기도 한다. 부녀자들은 밤을 새며 한 자리에 모여 실을 길게 나이대로 매듭을 지어 불을 붙여서 조금 타면 초년고생, 중간쯤 타면 중년고생, 다 타면 만사형통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잠들면 흰 밀가루나 쌀가루를 개어서 눈썹에 발라두고 이튿날 아침, 깨어났을 때 눈썹이 세었다고 놀리기도 했다.

의의 섣달 그믐날 밤에 불을 밝혀 밤을 새우는 수세는 수경신의 유풍으로 집안 곳곳에 불을 밝혀 새해에 복(福)을 받으려는 풍속이다. 이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잠을 잘 일이 아니라, 묵은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설계를 하라는 숨겨진 교훈이 깃들인 풍속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農家月令歌, 東京夢 錄, 東國歲時記, 瑣碎錄, 洌陽歲時記, 國民俗大觀4(高麗大 校 民族文 硏究所, 1981), 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 校 部, 1985),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歲時俗(崔常壽, 瑞文堂, 1988), 서울六百年史-民俗 -(서울 別市史 纂委員 , 1990),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한국의 풍속사1(김용덕, 밀알, 1994), 조선풍속사(김내창 편저, 사회과학출판사, 1998), 초월의 상상(정민, 휴머니스트, 2002),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김용덕(金容德)

윷점[ ]

☞ 윷점[栖占]: 정월편

조수점( )

정의 섣달 그믐날 조수(潮水)의 양(量)을 보아 그해의 풍흉(豊凶)을 점치는 풍속.

내용 물은 창조의 원천이며 생산적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양이 많을수록 그 생산력 또한 크다고 믿는데, 바닷물의 양이 많고 활동적일수록 생산력이 커져 수확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고 여긴다. 이러한 연유로 한 해가 끝나는 섣달 그믐날 바닷물의 양을 보아서 이듬해의 시절(時節)을 점쳐보는 것이다. 또 새로이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하드렛날(이월 초하루)에 전해의 섣달 그믐날 봐두었던 조수의 양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지난해와 새해의 풍흉을 점쳐보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곧 바닷물이 해면(海面) 가까이 올라오면 어업이 풍성해진다고 믿거나, 섣달 그믐날보다는 하드렛날 조수의 양이 많으면 시절이 좋다고 여긴다.

지역사례 전남 해안지방에서는 섣달그믐에 조수의 양을 보아두는데, 이는 이듬해 하드렛날의 조수점(潮水占)을 보는 기준을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곧 2월 1일의 조수간만의 차(差)를 섣달 그믐날 조수의 양과 비교하여 그 양이 비슷하거나 더 불어나면 그 해의 시절이 좋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흉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산에서도 섣달 그믐날 조수의 간만을 보아 두었다가 2월 1일 조수 간만의 차이와 비교하여 연사(年事)를 점친다. 제주에서는 섣달 그믐날에 바닷물이 해면의 돌 위에까지 올라오면 그 해의 농업이나 어업은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인심도

좋아지지만,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면 새해의 시절은 시원치 않게 된다고 여긴다.

의의 섣달그믐은 한 해가 끝나는 날이고 2월 1일은 한 해 농사나 어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양을 서로 비교하여 한 해의 풍흉을 점쳐보는 것이다. 이는 물을 창조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양이 많을수록 그 생산력 또한 크다고 믿는 것에서 기인한다.

참고문헌 | 國民俗綜 調査報告書-全羅南道 -(文 財管理局, 1969), 國歲時 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濟州道誌3(濟州道, 1993),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박종오(朴宗吾)

촛농점[膿]

정의 섣달 그믐밤에 초가 탈 때 흘러내리는 촛농[燭膿]을 보고 운수를 예측하는 민간 점복(占卜).

내용 및 지역사례 섣달 그믐날 밤에 민가에서는 촛불을 하나 또는 식구 수대로 켜 촛불에서 흘러내리는 촛농을 보고 이듬해의 가운(家運)이나 식구 개개인의 운수를 점치는 풍속이 있다. 부산에서는 섣달 그믐날 밤에 이듬해의 운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주로 여인들이 밥그릇에 쌀을 담은 뒤 그 위에 초를 세워놓고 불을 켠다. 촛불이 잘 타고 촛농이 흘러내려 둥글둥글 층층이 쌓이면 이를 잿장이라 하는데, 이 잿장이 많이 쌓이면 이듬해에는 집안에 운수가 좋고 재화(財貨)가 많이 불어나며, 반면에 촛불이 잘 타지 않거나 촛농이 한쪽으로 흘러내리면 이듬해에 집안에 재화도 모이지 않고 운수도 좋지 않다고 여긴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영동마을에서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섣달 그믐날 밤에 아이의 어머니가 밥그릇에 쌀을 담고 그 위에다가 초를 세워 불을 켠 뒤에 아이가 한 해 동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천지신명에게 기도한다. 이때 촛농이 잘 흘러내려야 그 아이에게 복이 온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승찬(金承璨)

키점[箕]

☞ 키점[箕占]: 정월편

까치두루마기

정의 길과 소매를 검정을 제외한 밝고 고운 색으로 만들어 어린아이들이 입는 길이가 긴 웃옷. 우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색을 모아 길상(吉祥)의 기(氣)를 받고, 인간이 염원하는 장수(長壽), 부귀권세(富貴權勢), 영화(榮華)를 염원하면서 아기들에게 만들어 입혔다. 그 이름이나 기록 그리고 유물 자료로 보아 1900년대 초반이 지나서 나온 것이다. 오방장두루마기(五方丈–)라고도 한다. 까치설날이라고도 부르는 섣달그믐에 아이들에게 입혔으며, 때론 설빔으로 입히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돌옷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내용 까치두루마기는 섶이나 길과 무는 같거나 다른 색으로, 특히 소매에는 여러 가지 색을 이어 만든, 아이들 입성거리 중에서 가장 치레한 옷이다. 흰 동정을 달며 겉고름은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도록 길게 하였는데 이를 '돌띠'라고 한다. 주로 여유 있는 집 아이들(특히 남아)이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수한 날에 입었다.

이 옷 위에 남색 전복(戰服)을 덧입는데 허리에는 빨간색 옷감에 곱고 상서로운 꽃이나 나비, 새 등을 수놓은 수돌띠 또는 빨간색의 술띠[細條帶]나 금박대(金箔帶)를 매었다. 깃과 옷고름, 끝동의 색은 남색(藍色)과 홍색(紅色)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색은 남녀(男女)를 구분하거나, 관직과 혼인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여아(女兒)

식구불켜기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1리 김영광



오방장두루마기 국립민속박물관

는 홍색, 남아(男兒)는 남색을 주로 입히는데 지방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홍색은 관(官)발을, 남색은 혼인(婚姻)발을 받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홍색은 높은 관직자[堂上官]가 도포 등 포(袍)를 입을 때 허리에 매는 띠[帶, 細條帶]의 색이므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색동은 시각적으로는 아름답고 고운 것이며 오래 전부터 삼원색(三原色) 또는 오방색(五方色)이라 하여 사방과 팔방 및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까치는 야생조류로 오작교(烏鵲橋) 설화나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외에 여러 설화나 속신(俗信)에도 등장한다. 까치는 부자[豊饒], 벼슬, 치병(治病), 만남, 보은(報恩) 등을 상징하며 우리 민족과 친근한 길조(吉鳥)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옷에 색동을 곁들이는 것은 일반 두루마기가 단색인 것에 비해 다른 색을 섞어 만듦으로써 좋은 기운을 받도록 함이며, 까치라 이름 붙인 것은 길조인 까치를 연상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루마기라는 명칭의 어원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에 의하면 사방이 터진 창옷과 중치막으로는 속옷을 가릴 수 없으므로 다시 사방 둘러막은 옷을 만들어서 웃옷의 밑받침으로 입었고 이 옷은 두루 막혔다 해서 두루마기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는 두루막이가 두루마기로 어형이 변하여 고정된 것으로 『아학편(兒學編)』에서 두루막이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까치두루마기라는 명칭이 나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다. 특히 왕실의 기록에서는 1900년대 초 자료에도 두루마기라는 이름은 없고 모두 주의(周衣)로 나오고 있다. 또한 주의가 일반화되어 입기 시작한 것도 조선 후기 고종 21년(1884)에 관복(官服)의 간소화로 의제개혁(衣制改革)을 하면서, 사복(私服)은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넓은 소매의 옷 대신 주의를 입고 관직자는 그 위에 전복을 덧입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10년 뒤 1895년 을미개혁(乙未改革) 때는 단발령과 함께 관(官)과 민(民)이 모두 검정 두루마기를 입게 하여 통상예복으로 입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아이 옷으로 주의와 관련된 자료로는 정조(正祖)의 장남으로 다섯 살(1786)때 요절한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빈궁혼궁도감의궤(殯宮魂宮都監儀軌)』에서 염습의(殮襲衣) 중 소렴제구(小殮諸具)에 겉은 자적면주(紫的綿紬), 안은 백주(白紬)로 만들어진 주의 한 벌이 나온 것이 있다. 또 순조(純祖) 19년(1819) 순조의 세자 효명(孝明)부터 1918년의 덕혜옹주(德惠翁主)까지 100여 년 동안 왕실의 자녀 의복 16건을 기록한 의복발기가 있는데, 그 중에 1898년 영왕(英王)의 백일부터 1905년 아홉 살 생일까지 사용했던 주의가 보인다. 전대와 복건(幞巾)이 한 틀(1작)로 되어 있으며, 가장 늦은 자료로 1916년 사월초파일에 불명(不明)의 왕자 옷으로 주의 두 벌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색동이라는 명칭도 색동두루마기보다는 색동저고리에 먼저 나온다. 옹주아기씨(덕혜옹주로 추정) 다섯 살(1916) 생일 저고리 네 벌 중 처음으로 관사색동저고리 한 벌이 보인다. 또 1925년 김숙당(金淑堂)이 쓴 한국 최초의 재봉책인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색동저고리의 색과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추리면 "연두 길에 소매와 섶은 색으로 모아 다는데 깃은 여자는 자주로, 남자는 남색으로 단다. 동에는 홍을 대고 끝동에는 자주가 되도록 다는데 짝을 맞추지 말고 열세 동이나 열다섯 동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殯宮　宮都監儀軌, 三國史記, 三國遺事, 朝鮮裁縫全書(金淑堂,　文社, 1925), 朝鮮常識問答-全　-(崔南善, 東明社, 1946), 兒　(정약용 원저·지석영 註, 昨晟社, 1985), 衣(石宙善, 檀國大　校　部,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國服飾18(檀國大 校石宙善紀念博物館, 2000), 한국전통어린이복식(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名選 中(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필자 | 고부자(高富子)

☞ 설빔: 정월편

오방장두루마기(方 –)

☞ 까치두루마기: 겨울편

골동반(骨董飯)

정의 남은 음식은 해를 넘기지 않는다고 하여 섣달그믐날 저녁에 남은 음식을 모아 비비는 밥. 민간의 풍속에 음력 섣달그믐에 남은 음식을 모두 모아서 골동반(骨董飯)을 먹는다고 한다. 여기서 골동반은 비빔밥을 가리키는 한자어이다.

유래 중국 명나라 때의 동기창(董其昌)이 쓴 『골동십삼설(骨董十三說)』이란 책에서는 분류가 되지 않는 옛날 물건들을 통틀어 골동(骨董)이라 부른다고 하면서, 이 뜻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혼합하여 조리한 국을 골동갱(骨董羹)이라 하고, 밥에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서 익힌 것을 골동반이라 한다고 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1월조에서 골동면(骨董麵)을 언급하면서 골동은 뒤섞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강남(江南) 사람들은 반유반(盤遊飯)이란 음식을 잘 만든다. 젓, 포, 회, 구운 고기 등을 밥 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이것은 곧 밥의 골동이다. 그러므로 예부터 이런 음식이 있었다."라고 하여 골동반이 곧 지금의 비빔밥임을 보여준다.

내용 지금까지 발견된 문헌 중에서 '골동반'이란 글자가 적힌 가장 앞선 기록은 『시의전서(是議全書)』이다. 이 책에는 한자로 골동반(骨董飯, 汨董飯)이라 쓰고, 한글로 '부븸밥'이라 적었다. 그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밥을 정히 짓고 고기는 재워 볶고 간납은 부쳐 썬다. 각색 나물을 볶아놓고 좋은 다시마로 튀각을 튀겨서 부숴놓는다. 밥에 모든 재료를 다 섞고 깨소금, 기름을 많이 넣어 비벼서 그릇에 담는다. 위에는 잡탕거리처럼 계란을 부쳐서 골패짝만큼씩 썰어 얹는다. 완자는 고기를 곱게 다져 잘 재워 구슬만큼씩 빚은 다음, 밀가루를 약간 묻혀 계란을 씌워 부쳐 얹는다. 비빔밥 상에 장국은 잡탕국으로 해서 쓴다."라고 했다. 이미 조선 초기부터 '골동'이란 단어가 쓰였고, 여기에 음식 이름이 붙어 19세기 이후 골동반이란 말도 생겨났지만, 20세기 이후에는 비빔밥으로 대체되었다.



골동반 궁중음식연구원

『별건곤(別乾坤)』4-7의 특집기사인 '팔도명식물예찬(八道名食物禮讚)'이란 기사에는 「경상도명물(慶尙道名物) 진주(晋州) 비빔밥」이란 글이 실렸다. 진주비빔밥은 서울비빔밥이 큰 고깃덩어리와 긴 콩나물 발을 넣은 것과 달리 하얀 쌀밥 위에 파란 채소와 고사리나물, 숙주나물 같은 각색 나물을 놓고, 쇠고기를 잘게 썰어 끓인 장국을 부어 비비기 좋게 하고, 그 위에 황청포, 육회, 고추장을 얹어서 상에 낸다고 했다. 그 값이 10전에 지나지 않아 상하계급을 가리지 않고 쉽게 먹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렇듯 제사 후에 음복을 할 때 먹거나 섣달그믐에 묵은 음식을 모두 섞어서 먹던 비빔밥이 20세기 이후 도시의 식당에서 팔리는 중요한 끼니 음식이 되었다. 1960년대 전주의 비빔밥 식당이 서울로 진출한 이후 전주비빔밥이 명성을 얻어서 지금은 비빔밥 하면 전주비빔밥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골동반이란 단어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참고문헌 | 骨董十三說, 東國歲時記, 是議全書, 別乾坤-7(景仁文　社, 1929).
필자 | 주영하(周永　)

널뛰기[跳　　]

☞ 널뛰기[跳板戱]: 정월편

농주(弄　)

정의 두 손으로 공 또는 방울을 여러 개 공중으로 던지고 받으며 노는 놀이. 흔히 공놀리기 또는 죽방울이라고 부르는 이 기예는 한자로는 농구(弄毬), 농구(弄球), 농환(弄丸), 금환(金丸), 농령(弄鈴), 도령(跳鈴), 도환(跳丸), 수환(垂丸), 농옥(弄玉), 공죽(空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유래 농주(弄珠)에 대한 기원은 자세하지 않다. 중국 한나라 때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와 이우(李尤)의 「평락관부(平樂觀賦)」에 비환도검(飛丸跳劍)이라 하여 공과 칼을 던지고 받는 기예가 보이고, 진전원(晋傳元)의 「정도부(正都賦)」에 도환척극(跳丸擲戟)이라 하여 공과 창을 던지고 받는 기예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 고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자(莊子)의 「서무귀편(徐無鬼篇)」에 의하면, "시남(市南)의 의료(宜僚)가 농환(弄丸)을 하고 양가(兩家)의 난(亂)을 해결하였다."라고 쓰고, 주석(註釋)에서 "시남(市南)의 의료(宜僚)가 환령(丸鈴)을 다루기를 잘 하여 항상 8개는 공중에 있고 1개는 손에 있었다. 초나라가 송나라와 전쟁할 때 의료가 군대 앞에 나가 환령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자 송나라 군대가 구경에 빠진 틈을 타고 드디어 승리하였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북사(北史)』「백제전(百濟傳)」에 "투호(投壺), 저포(樗蒲), 농주(弄珠), 악삭(握槊) 등의 잡희(雜戱)가 있다."라고 하여 농주가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농주는 백제 잡희의 하나로 크게 유행한 듯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 사람들이 축국으로 농주의 희(戱)를 삼았다."라고 하여 농주가 신라에서는 축국으로 통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최치원(崔致遠)의 '향악잡영(鄕樂雜詠)' 오수(五首) 가운데 금환(金丸)이 등장한다. 고구려(高句麗) 장천(長川) 1호분, 강서 수산리 고분(江西修山里古墳), 팔청리 고분(八淸里古墳), 강서 약수리 벽화고분(江西藥水里壁畵古墳)의 벽화에 의하면, 방울받기, 곤봉과 방울을 엇바꾸어 받기 등의 기예가 확인된다. 이와 같이 농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에서 모두 크게 성행했다. 특히 최치원이 신라의 금환을 묘사하며 초나라 농주의 달인인 웅의료(熊宜僚)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였다.

삼국시대의 농환은 고려시대로 이어졌다. 고려 때에는 매년 말에 시행하는 나례 때와 국왕을 위한 연회 자리인 산악백희(散樂百戱) 또는 잡희의 하나로 크게 성행했던 것 같다. 다만 잡희라는 기록 속에 묻혀 농주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드러나지 않는다.

농주는 조선시대에 들어와 잡희 가운데 규식지희(規式之戱)의 하나로서 농령 또는 농환이라고 불렀다. 농주는 매년 말 벽사를 위해 궁중의 나례희(儺禮戱) 때와 외국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 때 시행하였다. 조선 초기의 학자 성현(成俔)이 쓴 『허백당집(虛白堂集)』 권7의 '관괴뢰잡희(觀傀儡雜戱)' 시 중에 "농환의 뛰어난 기예가 많다."라고 하고, 같은 책 '관나(觀儺)' 시 중에 "농환의 기예가 실로 의료에 비길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기예가 대단했던 모양이다. 농주와 같은 규식지희는 광대, 서인층(庶人層)이 주로 담당하였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농주는 조선시대의 궁중에서 나례희 때와 사신 접대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 외국 사신 접대를 위한 연희가 축소되고 사라지면서 민간에서 주로 시행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9세기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풍속도첩(風俗圖帖)에서 확인된다. 김준근의 그림 가운데는 민간에서 솟대타기, 윤고와 함께 죽방울치기의 연회를 그렸다. 이는 19세기까지 민간에서 농환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내용 원래 농주는 말 그대로 공 또는 구슬의 둥근 물체를 가지고 노는 놀이를 뜻하는 범칭(凡稱)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손과 발로 공을 다루는 놀이를 모두 포괄하였다. 실제로 삼국시대에는 공을 발로 차는 축국과 두 손으로 공을 던지는 농환을 모두 농주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점차 발로 공을 차는 놀이가 축국으로 굳어지면서, 농주는 주로 손으로 공이나 방울을 가지고 노는 기예를 뜻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농주는 그 도구의 대상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고 그 범위가 대단히 넓은데, 공[毬, 球, 丸], 방울[鈴], 구슬[珠], 옥(玉), 칼[劍], 창(槍), 막대기[棒] 등 재질에 따라 달랐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도구가 바로 공이나 방울을 이용하는 형태이다. 나무로 만든 공 또는 방울 한 가지만 다루는 형태가 있는가 하면, 공과 칼 또는 방울과 막대기를 혼합해 사용하는 형태도 있다. 심지어 베개[枕], 병(甁), 바퀴[輪]까지 사용하였다.

농주를 할 때에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공을 쓰는데, 처음에는 3~4개로 재주를 부리다가 8~9개까지 사용한다. 공을 위로 던질 때에는 직선이 아니라 둥그런 원을 그리며 던진 공끼리 충돌하는 것을 막는다.

농주의 방식은 한 사람이 하는 형태와 두 사람이 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두 사람이 농주를 할 때에는, 훨씬 많은 공을 사용하게 된다. 농주는 보통 땅 위에서 기예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간혹 높은 장대에 올라가 그 위에서 공 놀리기를 하는 형태도 있다. 이를 '솟대장이 죽방울'이라고 하기도 한다.

농환의 기예는 처음에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였으나 점차 왕실의 공연으로 속하면서 그 내용과 종목이 복잡해졌다. 농주는 공이나 방울을 손으로 던져 논다는 점에서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곡예(曲藝) 내지 교예(較藝)의 일종이다. 따라서 농주는 일반인이 공을 가지고 노는 형태라기보다는 전문 예인들에 의해 전문화된 기예였다. 특히 왕실에서 베푸는 공연 행사인 산악백희에 등장하는 관람용 기예의 하나로 발달해왔다는 특색을 지닌다. 그 가운데 농주는 입담을 통해 재미를 전달하는 소학지희(笑謔之戱)와는 달리, 놀라운 기예나 재주 위주의 공연문화인 규식지희에 속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 위로는 왕실에서 아래로는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보편적인 관람용 유희의 하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농주가 크게 성행하자, 아예 『천자문(千字文)』에 여포의 활솜씨와 의료의 공놀이를 지칭한 포사요환(布射僚丸)이라는 합성어가 들어 외우게 할 정도이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왕실에서 베푸는 공연 행사에서 잡희가 점차 사라지면서 농주는 주로 장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종목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 기예는 왕조 체제가 무너지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남사당패와 같이 소수의 민간 기예로만 남게 되었다.



죽방울받는모양
기산풍속도 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한편 최남선은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 농주를 공놀리기 또는 죽방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공놀리기인 농주와 죽방울은 다르다. 죽방울은 가느다란 노끈에 장구 모양의 작은 나무토막을 걸어 이리저리 굴리다가 공중으로 높이 치뜨리고 떨어지는 것을 다시 받아 걸어 굴리는 놀이로서, 공죽(空竹)이라고 하였다. 청(淸)의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 의하면, 죽방울을 세게 굴리면 공중에서 "윙윙" 종소리 같이 난다고 해서 공종(空鐘)이라 불렀다. 이처럼 공이나 죽방울을 공중에 올렸다가 받는 형태는 같지만 노끈을 이용해 받는다는 점에서 죽방울은 농주와 구분된다.

참고문헌 |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文宗實錄, 北史, 燕京歲時記, 千字文, 白堂集, 朝鮮常識- 俗 -(崔南善, 東明社, 1948), 國民俗大觀4(高麗大 校 民族文 硏

究所,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축국(蹴鞠)의 역사와 특성(심승구, 전통과 현대20, 전통과 현대사, 2002), 공차기를 통해 본 한국인의 놀이문화(심승구, 숨소리, 토지문화관, 2004), 한국의 전통연희(전경욱, 학고재, 2004).

필자 | 심승구(沈勝求)

⇨ 나례(儺禮): 겨울편

등불써기놀이

정의 음력 섣달 그믐날 충남 도서 지역에서 등(燈)을 매개로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청소년들의 놀이. 지신밟기와 풍어제를 근간으로 성립된 풍어놀이로서 지역에 따라 등불싸움, 등불놀이, 등맞이라고도 부른다. 이 놀이는 제3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발굴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長古島)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매년 10월 1일 만세보령문화제 행사에서 시연되고 있다.

유래 등불써기놀이의 유래는 분명치 않다. 다만 지난날 서해안 섬마을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그믐제사나 뱃고사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아울러 놀이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샘굿과 걸립에서 알 수 있듯이 어른들의 지신밟기를 모방했을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놀이의 심층에는 정월대보름 저녁에 아이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밥얻어오기와의 친연성도 발견된다.

내용 충남 서해안의 장고도, 원산도, 효자도, 고대도에서는 해마다 음력 섣달그믐 저녁이 되면 15세 전후의 청소년들이 등불을 켜고 당산과 우물을 돌며 샘굿을 한다. 이어 집집마다 걸립으로 마련한 떡을 가지고 동산으로 올라가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을 베푼다. 이 놀이는 섬마다 대동소이한 절차로 진행되는데, 장고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섣달 그믐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으레 등을 만들어준다. 등을 만들려면 가느다란 대나무를 깎아 네 기둥을 세우고 사면(四面)에 한지를 발라 팽팽하게 말린다. 이때 풀은 생선부레를 녹여서 만든 강력한 부레풀을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밀가루풀로 대신한다. 정육면체 형태의 등이 완성되면 이를 때려서 소리를 나게 하는 가느다란 대나무채를 준비한다.

이윽고 땅거미가 내리면 아이들은 각자 등을 들고 동산으로 몰려든다. 이 무렵 이웃한 고대도에서도 마주 보이는 봉화산에서 등불써기 준비를 한다. 잠시 후 아이들은 이웃 마을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서 등불을 켠다. 만일 불을 켜다가 고대도 아이들에게 발각되면 상대편에서는 "고대도가 이겼다." 하고 함성을 지른다. 어느 편이 먼저 상대에게 발각되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서 등에 불을 붙인다.

놀이가 시작되면 아이들은 등불을 들고 동산의 상봉을 빙빙 돈 다음 두 패로 편을 나눈다. 그리고 한 무리는 당산 앞을 돌아 우물로 가고, 다른 한 패는


1


2

〈등불써기놀이〉
1 개인등에 소원적기
2 샘굿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최호식

당산 뒷길을 거쳐 우물로 간다. 마을의 공동우물에서 합세한 아이들은 샘 주위를 돌며 "등하 등하 아하 등하" 혹은 "이엉(영) 이엉 아하 이엉", "영소리가 아하 이엉" 하고 노래를 부른다. 아울러 그 장단에 맞춰 대나무채로 등을 때리면 한지가 울려서 마치 징소리처럼 "쨍쨍" 하고 굉음을 낸다. 아이들은 우물을 돌면서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하고 고사소리로 사시사철 우물물이 흘러넘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샘굿을 한 다음 걸립에 들어간다.

마을로 내려온 아이들은 처음 닿는 집부터 차례로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가령 어느 집에 도착하면 대문 앞에서 등을 두드리며 "문엽쇼, 문엽쇼, 수문대장 문엽쇼, 이엉 이엉 아하영 이엉서리가 아하영." 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하여 떡과 사과 등을 성의껏 내준다. 이 음식은 그믐고사와 뱃고사를 지낸 제물(祭物)이다. 아이들은 그 보답으로 우물로 가서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곤지곤지 …… 이엉 이엉 아하영 이엉서리가 아하영." 하고 고사덕담으로 축원을 해준다.

이와 같이 집집마다 돌고 나면 밤이 깊어지고 자루에는 떡이 차고 넘친다. 아이들은 더 신나게 등을 두드리며 처음 모였던 동산으로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납작한 돌을 주워 사방팔방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떡과 사과를 진설한 뒤 절을 올리며 치성을 드린다. 축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고도로 재물이 와서 장고도 배가 그득그득 차게 해주소
갯바닥의 조개나 굴도 모두 장고도로 와주소
굴아 다른 마을로 가지 말고 우리 마을로 와라
연평도 조기 떼는 다 모여라
조개도 많이 들어오너라
모집하러 오는 놈들은 번지거리에 빠져라

축원문 속에는 고기잡이로 연명하던 섬마을 청소년들의 소박한 바람이 배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모집하러 오는 놈들' 운운하는 마지막 구절인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젊은이들을 징발하러 장고도에 왔던 일본 순사는 번지거리에 빠지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비손을 하고 나면 서해의 고기떼를 부르는 주술적인 놀이가 시작된다.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가 "연평도 조기떼는 다 모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이들은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각자 바닥을 기면서 조기가 헤엄치는 시늉을 한다. "흑산도 갈치는 다 모여라."라고 하면 역시 손을 엉덩이에 대고 꼬리를 휘젓는 갈치의 시늉을 하며 모여든다. 이와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모든 고기떼가 장고도로 몰려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한바탕 놀이를 한 뒤에 떡과 사과를 조금씩 떼어 사방에 던지고 함께 나누어 먹는다.

한편 파제(罷祭) 후에 나이가 많은 몇몇 청소년들은 자루를 빌려준 집으로 가서 남은 떡을 준다.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다니면서 골고루 떡을 나누어 준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국을 끓여 아이들을 대접하며 이로써 모든 과정은 끝이 난다. 장고도에서는 해마다 등불써기를 하지 않으면 마을에


3


4


5

3 완성된 등
4 걸립
5 등불써기놀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최호식

궂은 일이 발생한다는 속설(俗說)이 전한다.

의의 등불써기놀이는 등바루놀이와 더불어 충남 도서지방을 상징하는 풍어놀이이다. 다만 등바루놀이가 굴과 조개의 성수기인 음력 4월에 여아들에 의해 행해진 놀이라면, 등불써기는 섣달 그믐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신밟기와 풍어제를 근간으로 성립된 이 놀이는 지난날 서해안 섬마을의 문화적 특징이 잘 녹아 있다. 무엇보다도 풍물의 대용으로 준비되는 등불과 제사 후에 어패류를 부르는 모방주술적 유희는 등불써기놀이의 독특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향토문화(충남대학교, 1986), 충남의 민속예술(한상수, 충청남도, 1995), 島嶼誌-上·中· -(淸南道· 南大 校 淸文 硏究所 共 , 충청남도, 1997),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보령의 민요(이소라, 보령문화원, 2005).

필자 | 강성복(姜成福)

여도판희(女跳)

☞ 널뛰기[跳板戱]: 정월편

윷놀이[ ]

☞ 윷놀이[柶戱]: 정월편

저포희(樗)

정의 짧은 나무토막으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엎어지고 젖혀진 사위로 승부를 겨루는 내기놀이.

유래 저(樗: 가죽나무)와 포(蒲: 부들)의 열매가 모양은 같으나 색이 달라서 이 열매로 주사위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저포희(樗蒲戱)는 원래 중국의 놀이이다. 『오잡조(五雜俎)』 권6에 저포(樗蒲)는 삼대[하(夏), 은(殷), 주(周)]에 이미 있었다 하고, 『태평어람(太平御覽)』 권726에 저포는 노자(老子)가 서융(西戎)에 가서 만든 것이라 한 것을 보면 아주 오래된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북사(北史)』 동이전(東夷傳) 백제국지부(百濟國之部)에 백제에 저포희가 있다고 하였으니, 백제시대에 이미 저포를 놀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시대에 일본에서도 널리 저포희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박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금령을 내리기도 했다. 『속일본기(續日本記)』에 의하면 서기 699년 왕명으로 저포놀이 금지령이 발표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태형(笞刑)으로 다스린다는 기록이 있다. 1712년에 발간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는 저포를 발음대로 '쪼보'라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가리우치(加利宇智)라 부른다고 하였다. 7세기에 유입하여 널리 놀았던 저포희가 18세기 무렵까지 전승되었으므로 그 사이 놀이방법이나 도구 등이 상당히 변화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내용 『당국사보(唐國史補)』에 이 놀이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말밭(놀이판)은 360자(子)로 되어 있으며, 말[馬]은 놀이하는 사람마다 여섯 개씩 가진다. 주사위는 위는 검고 밑은 흰데 다섯 가락[五木]을 한꺼번에 던져 그 사위를 본다. 그 중에서 다섯 개가 모두 검게 나오는 노(盧)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으로 치(雉), 독(犢), 백(白)이 좋다. 이러한 좋은 사위[貴采]가 나오면 계속하여 주사위를 던질 수 있으며 남의 말을 잡거나 관문(關門)을 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개(開), 새(塞), 탑(塔), 독(禿), 궐(撅), 효(梟)와 같은 나쁜 사위[雜木]가 나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저포경(樗蒲經)』 구화(舊畫)에 의하면 원래는 주사위가 네 개[四木]였다고 한다. 이 놀이는 중국에서 도박의 하나로 성행함으로써 도박희(賭博戱) 또는 박희(博戱)로 불리기도 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놀이 방법이 다양하게 변하여 그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 놀이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성했는지는 역시 알 수 없다. 놀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윷놀이 방법과 비슷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윷놀이를 나타내는 이름인 유(杻·忸·流·由), 윷[遊齒], 사희(柶戱), 척사(擲柶) 등과 저포(樗蒲, 摴蒱)가 혼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기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권35에 있는 '저포시(樗蒲詩)'는 윷놀이를 읊은 것이요, 16세기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에도 저포를 '윳'으로 풀었다. 15세기에 김시습(金時習)이 쓴 『금오신화(金鰲新話)』 중의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서 양생(梁生)이 부처님과 내기놀이로 저포놀이를 하였는데, 중국 전래의 도박인 저포희가 아니

라 우리나라 고유의 윷놀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저포희가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6~7세기 이래 한동안 민간에서 활발하게 놀았던 것으로 보이나 어느 한때에 쇠퇴하여 영원히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 전하는 저포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저포희를 재구성할 수가 없다. 그것은 기록이 소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포희가 오랜 세월 전승되는 사이에 방법이나 도구가 다양하게 변하여 그 실체를 기록하기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화한삼재도회』에도 『오잡조』의 놀이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 제도가 고금에 한결같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 해설문이 소상하지 못하여 내용 파악이 어렵고, 중국 기록처럼 놀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박희(博戱)로서 일시적으로 유행한 듯하다.

현재, 경북 안동에서는 정초에 윷놀이를 하면서 저포송(樗蒲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풍속이 있다. 저포송의 내용은 도송(刀頌), 개송(介頌), 걸송(傑頌), 유송(由頌), 모송(毛頌)으로 짜여 있다. 윷놀이 때에 바라던 '모'가 나오면 윷을 던진 사람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송'을 부르고, 바라던 '걸'이 나오면 '걸송'을 부르는 식이다. 이때의 저포는 분명히 우리의 윷이다. 또 70~80세정도 되는 노파 중에 '윷'을 '자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포는 저포가 모음조화된 표현이다.

참고문헌 | 唐國史補, 牧隱集, 北史, 續日本記, 五雜俎, 樗經, 御覽, 蒙字 , 三才圖 (寺島良安 , 吉川 文館, 1906), 國 民俗놀이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閨房歌詞 各論(權寧徹, 雪 社, 1986), 윷놀이의 比較民俗的 考察(成炳 , 國民俗 23, 民俗 , 1990).
필자 | 성병희(成炳)

처용무(舞)

정의 섣달그믐의 나례(儺禮) 또는 궁중이나 관아의 의례에서 처용(處容)의 가면을 쓰고 잡귀를 쫓아내는 벽사적인 춤. 1971년 1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현재는 국립국악원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해마다 처용문화제(處容文化祭)에서 공연되고 있다.

유래 처용무(處容舞)의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편(紀異篇)」2에 나오는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의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출발한다. 신라시대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밤놀이에 취해 늦게 귀가하여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내는 축귀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 처용은 당시 왕을 모시는 국무(國巫)의 성격이 강하며, 이때의 처용무는 무당이 베푸는 굿 의식에서 행해졌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처용의 특별한 능력을 문신(門神)으로 받아들여 집집마다 그의 화상(畵像)을 문에 걸어두고 잡귀를 쫓기도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처용무는 궁중을 비롯한 상층의 무용으로 정착되었다. 처용무는 주로 섣달 그믐날 잡귀를 쫓는 나례의식에서 행해졌으며, 그 외에 산대잡희(山臺雜戱), 각종 연회, 중국 사신 접대, 정조(正朝)의 궁중다례 때에도 연희되었다. 처용은 중국 종규(鐘馗)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는 설도 전한다.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의하면 섣달 그믐날 붉은색 옷을 입은 수십 명의 동자로 이루어진 진자(侲子)들의 축귀의식무(逐鬼儀式舞)가 끝난 뒤에 처용무를 추었다. 이것은 전도(前度)와 후도(後度)로 나뉘는데, 전도에서는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만 추고, 후도에서는 처용무에 이어 학무(鶴舞), 연화대, 불가(佛歌)인 미타찬(彌陀讚), 본사찬(本師讚), 관음찬(觀音讚)에 의한 불교적 춤이 이어진다.

고려 말기의 처용무는 종교 의례로서 연말의 나례에 연희되었지만, 점차 오락적인 성격의 나희에서 행해졌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칠언시(七言詩) '구나행(驅儺行)'에는 역귀 쫓는 의식 다음에 처용무를 비롯한 가면희, 인형극, 줄타기, 마술, 1인극 같은 각종 산악잡희(散樂雜戱)가 포함되어 오락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사(高麗史)』에 충혜왕(忠惠王), 우왕(禑王), 신하들이 직접 처용무를 추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궁중이나 상층의 연회 때 처용무가 하나의 여흥으로 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연산군이 처용무를 풍두무(豐頭舞)라 명칭을 바꾸고 직접 추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에 오면 처용무를 구분해서 기록하기도 했다.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中宗)



처용무
울산시 남구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

19년(1524) 12월 10일조에 처용을 양재처용(禳災處容)과 관처용(觀處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조다례(正朝茶禮)에서 양재처용을 반드시 실시하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양재처용은 축귀적 의식무의 성격을 지닌 춤이며, 관처용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춤으로 구분되고, 이 중에 양재처용의 비중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처용무는 궁중무용으로 전승되다가 1971년 1월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내용 처용무는 원래 검은 탈을 쓰고 1인이 추던 것이었으나, 조선시대 세종 때에 와서 오방처용(五方處容)으로 바뀌었다. 신라시대 불교에서 나타나는 오방신(五方神)과 고려시대에 중국 송나라의 오방춤의 유입에 의해 처용무도 오방처용무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처용무는 상층의 의식무나 연희로 전승되었으므로 기층 집단의 탈춤인 지역 가면극에는 전승되지 않았다. 현존 가면극에는 축귀의식무로서 오방신장무나 사상좌무, 사자춤이 처용무를 대신하고 있다.

한편 처용탈은 원래 검은색이며, 저포(苧布, 모시)나 칠포(漆布, 옻칠한 베) 겹질 또는 유자나무로 만든다. 탈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정도로 크며, 긴 콧수염과 약간의 턱수염이 있다. 『악학궤범』에 나오는 처용탈은 턱이 각지고, 코가 큰 다소 이색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탈 위에 대나무로 망을 짜서 만든 사모(紗帽)를 쓴다. 사모를 쓴 머리 좌우에 목단화(牡丹花)를 꽂고, 가운데에는 복숭아 세 개와 복숭아나무 가지로 장식한다. 여기서 모란은 부귀를 상징하며, 복숭아나무 가지는 잡귀를 쫓는 벽사적인 성격, 복숭아는 벽사와 신성성을 상징한다. 귀에는 주석 귀고리와 납구슬을 단다. 옷은 청, 백, 홍, 흑, 황 비단의 오방색(五方色)으로 만든다. 동방(東方)은 청색, 서방(西方)은 백색, 남방(南方)은 홍색, 북방(北方)은 흑색, 중앙(中央)은 황색의 비단으로 되어 있다. 치마[裳]는 황색 비단으로 만들며, 바지[裙]는 동과 북은 홍색, 서와 남은 흑색, 중앙은 남색 비단으로 만든다. 천의(天衣)는 목에 감은 상태에서 겉옷 위에 걸치는데, 녹색비단에 덩굴꽃[蔓花]을 그리며, 안에는 홍색 명주를 사용한다. 한삼은 긴 백색 비단이며, 허리의 대는 홍색 가죽띠, 신발은 흰 가죽[白皮]에 끈이 달린 것을 착용한다.

춤은 5인이 청, 백, 홍, 흑, 황의 순서로 등장하며, 이때 반주는 수제천(壽齊天)이다. 입장해서 좌로 돌아 북향한 다음 춤이 시작된다. 이어 처용가(處容歌)를 부르고 다양한 동작의 춤이 이어진다. 기본적인 준비 동작은 손등이 위로 가게 살짝 쥐고, 양손을 허리에 대는 동작이다. 대무할 경우에는 대체로 청, 백, 홍, 흑이 하나이고, 황색은 별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거나 도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으며, 수시로 움직임이 바뀐다. 마주 보고 대무하거나 서로 등을 지는 경우도 있고, 색깔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나뉘기도 한다.

춤 동작은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발과 다리를 이용해 좌우로 방향을 트는 동작, 빙빙 도는 동작, 앞으로 세 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서는 동작, 허리를 구부렸다 펴는 동작, 가슴을 웅크렸다가 하늘을 향해 활개를 펴는 동작, 양손을 앞에서 위로 또는 좌우로 올렸다가 뿌리는 동작, 한 손을 들어 어깨 위에서 뿌리는 동작, 손을 반대 방향의 어깨에 대는 동작이 있다. 그리고 앞의 동작을 상호 결합하며 다리와 발, 허리, 손동작에 따라 다양한 춤동작을 만들어내며, 방향의 전환과 대무 방식에 따라 여러 동작이 나타난다. 음악은 수제천, 향당교주(鄕唐交奏), 영산회상(靈山會相)의 세영산(細靈山)과 삼현환입(三絃還入)으로 이루어진다.

출연 인원은 『악학궤범』에는 처용 5인, 의물 6인,

악사 40인이 등장한다고 하여 대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처용 5인에 악사로 집박 1인, 피리 2인, 대금·해금·장구·좌고가 각각 1인씩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예전에 비해 규모가 간소화되었다.

현재 처용을 중심으로 한 처용문화제가 울산 지역에서 해마다 10월 초에 열리고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개운포(開雲浦) 앞바다의 처용암(處容巖)과 처용비(處容碑)에서는 처용제사를 지내며,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처용의 개운포 입항과 헌강왕과 화랑과의 만남, 역신을 쫓아내는 처용무를 보여준다. 그리고 헌강왕과 왕비 선발대회, 처용퍼레이드와 가면페스티벌, 국제민속춤페스티벌, 전국탈춤경연대회, 마두희(馬頭戱),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를 하고 있다.

의의 처용무는 신라시대에는 원래 무속의 굿에서 탈을 쓰고 춤추는 축귀적인 의식무였다. 수신(水神)과 용(龍) 신앙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정을 없애려는 원초적인 정화의식의 탈춤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점차 궁중의식무로 자리를 잡아 연말의 나례나 상층의 의례 때에 추어지면서 기층집단의 의식무가 상층의 의식무로 자리 잡게 되는데, 춤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주술종교적인 종합 가무극의 형태였다. 처용무는 붉은 옷을 입은 진자들의 춤, 십이지신의 춤, 방상씨 춤, 그 외에 학춤, 연화대, 불가(佛歌)의 춤과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이 고려 말기에 점차 상층의 연회에서 여흥으로 춤을 추게 되고, 나례 때에는 산악백희가 결합되면서 점차 오락적인 가면무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문헌 | 高麗史, 牧隱集, 三國遺事, 樂 軌範, 慵齋叢 , 中宗實錄, 國傳 舞踊研究(張師 , 一志社, 1977), 처용무(이흥구, 화산문화, 2000), 國 儺禮의 假面劇史的 意味 考察(鄭 , 東아시아古代 2, 東아시아古代 , 2000).
필자 | 정형호(鄭)

⇨ 나례(儺禮): 겨울편

폭죽( )

정의 섣달 그믐날 청죽(靑竹)을 불에 태워 잡귀를 쫓는다고 하여 큰 폭음을 내는 풍속. 대불놓기라고도 한다.

내용 섣달 그믐날 해가 지면 마당이나 대문 밖 골목에 불을 피워놓고, 마디가 있는 대나무 토막을 불에 던져 넣으면 대나무가 폭발하여 큰 소리를 내며 요란스럽게 탄다. 이렇게 폭음을 내면 묵은해에 집 안에 들어와 죽치고 있던 잡귀 잡신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신성하고 깨끗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폭죽(爆竹)은 서울이나 시골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으며, 1900년대 초 개화기에도 서울의 골목골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다 시대상황의 변화로 1940년대 초에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1960년대 초에 이르러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종이로 만든 대롱에 화약을 넣은 종이폭죽을 만들어서 가게에서 팔았다. 청소년들은 이것을 사서 섣달그믐 무렵부터 정월 초순까지 터뜨리며 놀았다. 그러나 현재는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뜨려 놀며 각종 축제에는 반드시 종이폭죽을 울리는 것이 놀이의 관습이 되었다.

조선 말기에 대궐 안에서는 섣달그믐 전날부터 대포를 쏘았는데 이를 연종포(年終砲)라 하였고, 화살에 불을 붙인 화전(火箭)을 쏘고 징과 북을 요란하게 울렸는데, 이 행사는 섣달 그믐날 궁중에서 악귀를 쫓아내는 대나(大儺) 곧 역질과 귀신 쫓는 행사의 유습이라고도 한다. 또는 그믐날과 설날에 폭죽을 터뜨려 귀신을 놀라게 하는 것을 모방한 풍속이라고도 한다. 또 나라에서 설날[元日] 새벽에 세포(歲砲)라 하여 대포를 세 번 쏘는 관습이 있었는데, 역시 폭죽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에는 "중국에서는 섣달그믐 무렵부터 정월 한 달 동안 끊임없이 폭죽 소리가 들리는데 제야(除夜)로부터 사흘 동안은 특히 많이 들린다."라고 하였고, 『신이경(神異經)』을 인용하여 "서쪽 깊은 산속에 키가 1척 남짓 되는 외발 달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꺼비나 게를 잡아먹고 산다. 그에게 범접하면 열병을 앓게 된다. 이 사람을 산조(山臊)라 하는데, 그는 청죽 토막을 불에 태워 팍팍 큰 소리를 내면 놀라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종이로 폭죽을 만들어 대나무 대용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 폭죽은 아주 오래된 풍습으로 원래 청죽을 태우던 것이 명나라 시대에 이미 종이폭죽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폭죽 외에 폭간(爆竿), 폭장(爆杖), 요죽(燎竹) 같은 이칭도 각종 기록에

보인다. 기능도 역시 고대부터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일본에서는 정월대보름날 현관 앞에 장식한 솔가지와 금줄을 거두어 불에 태우는 것을 폭죽 또는 사기쵸(左義長)라 했는데, 같은 민속이 차츰 변하여 여러 곳에 행해지고 있는 '불축제'로 발전하였다.

의의 굉음을 내어 음귀나 잡귀를 쫓는 풍속은 중국 전래의 풍속으로 우리나라의 장례(葬禮) 때 사기접시나 바가지를 깨뜨려 음귀를 쫓는 풍속도 폭죽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燕京歲時記, 神異經, 朝鮮常識問答(崔南善, 東明社, 1946), 國歲時 俗(任東權, 瑞文堂, 1973), 國의 歲時 俗(張籌根, 雪 社, 1984).
필자 | 성병희(成炳)

⇨ 나례(儺禮): 겨울편

눈이면 다 제석( ) 눈이냐

정의 눈이 온다고 다 섣달 그믐날 밤에 오는 눈은 아닌 것처럼 겉모양이 같다고 질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의미의 속담. 표리부동(表裏不同)이란 말이 있듯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을 때 쓰인다. 겉모양은 얌전한데 행동은 경박하다는 말이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하고 침착한 듯한데 행동은 경솔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내용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사귀다가 결국은 큰 손해를 입기가 쉽다.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경각심으로 일러주는 속담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도 이런 속담을 되새길 만하다 할 것이다.

비교되는 속담으로는 "섣달 눈은 보리풍년이 들고 봄눈은 보리흉년이 든다."가 있다. 겨울눈은 보리를 덮어주어 풍년을 들게 하지만, 봄눈은 녹아 보리를 얼리기 때문에 흉년을 들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사귀되 보리를 덮어주는 겨울눈과 같은 사람을 사귀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인학(崔仁)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정의 무엇을 너무 많이 헤프게 퍼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의미의 속담.

내용 섣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그래서 묵은 바느질을 하거나 또는 그해 일의 끝단속을 하기도 하고 묵은 빚을 남김없이 청산하기도 한다. 섣달이 한 해의 끝인 데서 이 속담이 생겨났다. 이 말은 시집을 못 가고 해를 넘기게 된 노처녀가 초조감과 홧김에 개밥을 푹푹 퍼 준다는 뜻으로 쓰인다. 더러는 섣달 그믐날은 먹을 것이 많아서 개밥도 후하게 주듯이 남에게 음식을 후하게 준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서문당, 1983), 우리 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김기창(金基昌)

섣달 그믐날 시루 얻으러 가다니

정의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안타깝게 애쓰니 미련하다는 의미의 속담. 섣달그믐은 어느 가정이나 설날에 먹을 떡을 만드는 날이므로 떡시루를 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잘 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안타깝게 애쓰는 것은 미련한 짓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로 이와 같이 농사일도 미리미리 준비해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다.

내용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남에게 폐가 되거나 손해를 끼치는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임박해서 당황하는 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뜻이다.

시루에 대한 속담은 여러 개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시루에 물 퍼붓기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는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만은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으로 "시루에 물은 채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라는 말이 있다. 또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로 "시루 안 떡도 먹어야 먹는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農事俗談(農村振　廳, 1989),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인학(崔仁　)

섣달 그믐날은 부지깽이도 꿈틀거린다

정의　섣달 그믐날은 설맞이 준비를 하느라 일손이 모자라서 몹시 바쁘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부지깽이는 재래식 집에 꼭 필요한 취사도구라고 할 수 있다. 검정 가마솥이 아궁이에 걸려 있고 불을 때는 아낙의 오른손에는 부지깽이가 들려 있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부엌 풍경이었다. 부지깽이는 쉴 틈 없이 불꽃을 일게 한다. 더구나 섣달그믐에는 설맞이 음식을 만드느라 쉴 틈이 없다. 따라서 부지깽이도 바쁘다. 여기에서 부지깽이가 바쁜 만큼 일손도 모자란다는 표현이 나왔다.

부지깽이는 불을 일구기도 끄기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술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호남지방에서는 이웃집에 불이 났을 때 타버린 막대기나 부지깽이를 갖다가 자기 집 대문에 꽂으면,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더는 나지 않는다고 하는 감염 주술의 기능을 믿기도 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필자 | 최인학(崔仁　)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정의　누구에게서 정신없이 매를 맞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 섣달 그믐날은 떡을 만들기 위해 떡메로 사정없이 내려치기를 계속한다. 이때 떡메로 내려치는 것같이 모진 매를 맞는다는 뜻의 속담이다.

내용　충남 공주 지역 민요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있다. "똥 누다가 감투 잃고 도랑 건너 뛰염 뛰다 고드래상투 마자 잃고 부애김에 술집 가니 술값 내라 이짝 저짝 섣달그믐 흰떡 치듯 뺨만 실컷 두들겨 맞고……." 외상 빚이 많았던 술집에 섣달그믐에 갔으니, 외상값 내놓으라는 성화에 뺨만 실컷 맞았다는 내용이다.

또 『춘향전』에는 "여북하오면 굶고 다닐 적이 만삽고 그러하옵기 변지변(별리에 변리) 이지이(이익에 대하여 또 생기는 이익)하여 주는 경주인의 빚이 무수하옵고 환자도 매양 바칠 길이 없사와 볼기를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하옵니이다."라는 대목이 있다. 몹시 가난하여 환자(還子)도 갚을 길이 없어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하였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정은 옛날 가난한 농민에게는 많았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인학(崔仁　)

섣달그믐이면 나갔던 빗자루도 집 찾아온다

정의　섣달그믐이 되면 남의 집에 빌려주었던 사소한 물건들까지 다 찾아들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그믐날은 새해 맞을 준비의 하나로 깨끗이 청산하는 풍습이 있다. 이를테면 연중에 있었던 거래의 종결을 맺는데, 빚이 있는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고 이날 모두 청산한다. 그래서 받을 빚이 있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줬던 사람은 이날 찾아다니며 받아야 하며, 만일 자정이 넘도록 받지 못한 빚은 하는 수 없이 탕감해 주거나 정월대보름까지는 독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빗자루는 귀중한 농기구로 사람의 손때가 묻은 것을 허투루 버리거나 하면 도깨비가 되어 사람을 해친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손때가 묻은 것은 잘 보관했다가 섣달 그믐날 밤에 태워야 한다는 민속이 있다. 그리고 빗자루를 쓸 때 안쪽으로 쓸어야지 만일 바깥으로 쓸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는다. 이같이 주술성이 강한 빗자루를 영물(靈物)로 빗대어 속담으로 만든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섣달그믐이면 모지랑비도 제 집 찾아온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필자 | 최인학(崔仁　)



節氣 절기

소한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이다.
소한 무렵은
정초한파(正初寒波)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이다.
농가에서는 소한부터
날이 풀리는 이듬해 전까지
약 한 달 간 혹한(酷寒)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둔다.



소한 풍경 이억영

소한(小　)

정의 24절기 가운데 스물세 번째 절기로 작은 추위라는 뜻의 절기. 소한(小寒)은 양력 1월 5일 무렵이며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된다. 태양이 황경(黃經) 285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내용 옛날 중국 사람들은 소한부터 대한까지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고 중후(中候)에는 까치가 집을 짓기 시작하고 말후(末候)에는 꿩이 운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중국 황하 유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절기의 이름으로 보면 소한 다음 절기인 대한(大寒) 때가 가장 추워야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무렵이 가장 춥다. 우리나라에서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양력 1월 15일 무렵이다. '소한땜'이 아니라도 이때는 전국이 최저 기온을 나타낸다. 그래서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만큼 소한추위는 맵다. 그러나 추위를 이겨냄으로써 어떤 역경도 감내하고자 했던 까닭으로 "소한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라고도 했다.

의의 소한은 해가 양력으로 바뀌고 처음 나타나는 절기이다. 소한 무렵은 정초한파(正初寒波)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시기이다. 농가에서는 소한부터 날이 풀리는 입춘 전까지 약 한 달 간 혹한(酷寒)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둔다. 눈이 많이 내리는 지방에서는 문밖 출입이 어려우므로 땔감과 먹을거리를 집안에 충분히 비치해 두었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천진기(千鎭基)

소대한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말랬다

정의 추울 때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써서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 또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대접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일수록 더욱 현명하게 대처하고 노력하여 극복해내기를 바라는 깊은 뜻으로도 사용된다.

내용 소한과 대한이 드는 시기는 시베리아 기단의 맹위로 몹시 추운 날이 계속되고, 건조한 날씨로 불이 일어나기 쉬우며, 가뭄이 들 때가 많아 보리와 같은 겨울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소대한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말랬다."라는 속담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추운 소대한 때일수록 건강에 주의해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계의 의미가 있고, 이것이 여러 생활 장면에 적용될 때에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접을 해주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한승원의 소설 『내 고향 남쪽 바다』에서는 이 속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소한, 대한에 얼어 죽은 귀신들은 물밥도 못 얻어먹는다는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한겨울의 무서운 치들을 잘 피해 넘어가곤 하지만, 흔히 설 쇤 뒤의 늦추위에 큰일을 당하곤 했다."

유사속담 "소대한에 집 나간 사람은 기다리지도 말랬다."라는 속담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라는 속담에서처럼 귀할수록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고비를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대접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쓰였던 속담인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정종진 엮음, 태학사, 1993),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소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잡놈 없다

정의 소한(小寒)과 대한(大寒)이 아무리 춥다고 하여도 이때만 지나면 봄기운이 돌아오기 때문에 얼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의 속담. 아울러 어떤 일에 대하여 몹시도 힘들어하거나 곧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만 잘 참고 이겨내면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을 아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잡놈이라는 비속어까지 동원한 속담이다.

내용 우리 조상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소재로 삼아 제 뜻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속담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그 중에서도 24절기는 기후와 관련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조상들에게는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는 소재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24절기를 소재로 선택하여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는데, 이 속담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속담이 만들어진 옛날에는 생활이 궁핍하여 의식주가 너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보릿고개라고 하여 배고픔이 극에 달했던 춘궁기(春窮期)도 있었고, 소한과 대한 추위처럼 극심한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이 속담에서는 조상들의 어려웠던 생활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나 상황이라고 해도 그때만 잘 견디고 이겨내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 또한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소한과 대한 같은 강추위가 닥친다고 해도 그때를 슬기롭게 이겨내면 얼어 죽을 사람이 없으니, 추위를 이겨내자는 일차적인 의미와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차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속담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어려서 고생하면 부귀다남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가 있으며, 힘든 고비를 참고 견뎌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주로 쓰인다. 또한 단순히 소대한이 지나면 추위가 가신다는 뜻으로 "소대한에 얼어 죽지 않는 놈이 우수 경칩에 얼어 죽을까."라는 속담이 같이 사용된다.

참고문헌 |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필자 | 유재복(柳在福)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정의 소한(小寒)이 대한(大寒)보다 더 춥다는 의미의 속담. 또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에만 기대어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내용 소한은 동지(冬至)와 대한 사이에 있으며 음력으로는 12월 초순, 양력으로는 1월 5일 무렵이며, 태양이 황경 285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대한은 24절기의 마지막 절후로 소한과 입춘(立春) 사이에 있으며 음력으로는 12월 하순, 양력으로는 1월 20일 무렵이고 태양의 황경이 300도에 있을 때이다.

24절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절기의 이름으로 보아 소한보다 대한이 마땅히 더 추워야 하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무렵보다는 소한 무렵이 훨씬 더 추운 것이 사실이다. 대한은 음력 섣달로 일년을 매듭짓는 마지막 절후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 무렵이므로 다소 사정이 다르다.

이 속담의 화용의미는 단순한 절기상의 의미를 뛰어넘어, 어떤 현상이나 이론에만 기대어서 자기를 변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론과 실제의 모순을 일깨우고 더 이상의 엄살이나 이론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데 있다. 또 실제 날씨와 관련해서도 곧 봄이 올 것이 분명한데도 대한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추위 핑계만 대는 사람에게 절기의 특징을 인용하여 일깨우고 경계하는

강추위 기승
경향신문 1970년 12월 28일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으로 “대한이 소한 집에 가 얼어 죽는다.”,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도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다.”,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 “소한이 대한 잡아먹는다.”, “소한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와 같은 속담을 들 수 있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는데, “小寒の氷, 大寒に解く”라는 속담이 그것이다. 이 속담은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와 같은 의미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필자 | 유재복(柳在福)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정의 소한(小寒) 때가 가장 추울 때이므로 춥지 않다가도 소한 때가 되면 추워진다는 의미의 속담. 속담 속에 숨은 이차적인 의미로는 일이 잘 되거나 못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연유가 있다는 의미로도 쓰이며, 필연적인 결과 또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 일과 딱 들어맞는 어떤 결과가 있을 때를 빗대어 이르기도 한다. 또 일이 반드시 순서대로만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내용 24절기의 하나인 소한은 동지(冬至)와 대한(大寒) 사이에 있으며 음력 12월, 양력으로는 1월 5일 무렵으로, 태양이 황경 285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절후의 이름으로 보아 대한 때가 가장 추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한 때가 가장 춥다고 한다. 따라서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과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 “소한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와 같은 속담이 생긴 것이다.

이 속담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과 내용은 일차적인 문면 그대로의 의미는 소한이 되면 반드시 큰 추위가 오게 된다는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있다. 그러나 이것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화용 의미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곧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공교롭게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이것을 빗대어 행운 또는 불행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나 자연의 섭리임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기 위한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의 속담을 적절하게 이야기 상황에 끌어들임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더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유사속담 “아니 되는 놈의 일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궁하면 통한다”, “재수 없는 놈은 고양이 꼬리를 밟아도 호랑이로 둔갑한다.”, “재수가 없으려면 쇠똥에 미끄러져서 말똥에 코 박고 넘어진다.”,

"운수가 사나우면 찬물을 먹다가도 이가 빠진다."와 같은 속담들도 모두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라는 속담의 이차적인 화용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대한(大　)

정의 24절기 가운데 마지막 스물네 번째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의 절기. 대한(大寒)은 음력 12월 섣달에 들어 있으며 매듭을 짓는 절후이다. 양력 1월 20일 무렵이며 음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된다. 태양이 황경(黃經) 300도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내용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으로 갈수록 추워진다. 소한 지나 대한이 일년 가운데 가장 춥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의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사정이 달라 소한 무렵이 최고로 춥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처럼 대한이 소한보다 오히려 덜 춥다. 제주도에서는 대한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까지 약 일주간을 신구간(新舊間)이라 하여, 이사나 집수리를 비롯하여 집안 손질과 행사를 해도 큰 탈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濟州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천진기(千鎭基)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정의 대한(大寒)이라는 큰 추위의 고비만 넘기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이라는 의미의 속담.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 속담이 인용되는 의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다.

내용 대한은 음력 섣달로 겨울을 매듭짓는 절후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立冬)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 풍경 이억영

소한(小寒)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일년 중 가장 추운 때는 대한으로 여겨왔으며 이 고비만 넘기면 입춘(立春)이 바로 돌아와서 따뜻한 봄을 맞을 때가 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 속담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24절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대한 추위가 지나면 입춘,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으로 이어지는 절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이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고비를 현명하게 극복하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속담으로 널리 인용되어 왔다.

유사속담 비슷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으로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면 행복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뜻을 세워 일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이겨내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속담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정종진 엮음, 태학사, 1993),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柳在福,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필자 | 유재복(柳在福)





月內 월내

겨울에는 농점을 쳐서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에 보리농사가 잘 되고
비가 많이 내려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믿는 것이다.
섣달에 눈이 많이 오면
오뉴월에 비가 많이
농사짓기에 유리하다고 본다.
함박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고성사당제(高城祠堂祭)

정의 조선시대 강원도 고성(高城)에서 지낸 사당제(祠堂祭).

유래 강원도 고성군의 사당제는 연말부터 연시에 이르기까지, 포가면(布假面)을 쓴 내방신(來訪神)에게 제사지낸 것이다. 음력 12월을 납월(臘月)이라 하듯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재액을 막기 위해 납제(臘祭)를 지내는데, '납(臘)'이란 납육(臘肉)으로 제사지내는 풍요수확의 납제와 역귀를 구제하는 나례(儺禮)의식을 뜻한다. 그러므로 고성사당제(高城祠堂祭)는 나례신(儺禮神)으로 형상화한 신격을 모셔놓고 풍요를 기원하고 재액을 방지한 제사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 고대부터 방상씨(方相氏) 가면을 쓰고 벽사진경(辟邪進慶)을 한 행사가 전승했는데, 한 해의 마지막 달인 섣달에 재앙을 쫓는 의식으로 조선시대 궁중과 민간에서도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관상감에서 주관하여 제석(除夕) 전야에 악귀를 쫓는 방상씨나 초라니 가면을 쓰고 행하던 나례의식이 있었다. 민간의 사례로는 함경도의 청단(靑壇)과 강원도 고성의 가면희(假面戱)가 전하며, 연종포(年終砲)를 쏘고 농악대의 매귀(埋鬼)인 매구치기와 지신밟기가 있었다. 고성군에서는 신이 내린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포가면을 쓰고 마을을 순례하던 사당제사가 전했는데, 이것은 마을의 재앙과 역신을 쫓기 위한 행사로 볼 수 있다.

내용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2월 월내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고성 풍속에 군의 사당에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관에서 제사를 지낸다. 비단으로 신의 가면을 만들어 사당 안에 비치해 두면 12월 20일 이후에 그 신이 그 고을 사람에게 내린다. 그 신이 오른 사람은 그 가면을 쓰고 춤추며 관아의 안과 고을을 돌아다니며 논다. 그러면 집집마다 신을 맞이하여 즐긴다. 그렇게 하다가 정월 보름 전에 그 신을 사당 안으로 돌려보낸다. 이 풍속이 해마다 있으며 나례신의 종류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분석하면 강신(降神), 오신(娛神), 송신(送神)의 세 단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포가면 가장(假裝) 형태의 가면희가 마을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신이 내린 사람이 포가면을 쓰고 신의 행세를 하면서 주민들과 즐긴 것은 신격 상징의 연행으로 한국연희사에 중요한 자료이다.

특성 고성사당제의 가면희는 금단작신가면(錦緞作神假面)으로 포가면을 쓰고 노는 것이 특징이다. 포가면의 상징성은 강릉관노가면극의 장자마리 가장처럼 대체로 가농작(假農作)으로도 파악되는데, 통영오광대의 중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의 주지와 같이 대부분 벽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비단으로 신가면을 만들어 음력 12월 20일 이후, 신이 고을 사람에게 강림하면 그 가면을 쓰고 돌아다닌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성격은 내왕신격(來往神格)으로 파악된다. 신이 내린 포가면을 전신에 뒤집어쓰고 나타나는 가장은 신화적 상징 표현으로 분석된다.

의의 고성사당제는 섣달부터 정초에 이르는 동안 마을 공동의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 행해진 나례신 중심 벽사연행의 중요한 사례이다. 이는 신이 마을로 강신하는 형태의 내왕신격을 보여주며, 나례신이 재앙을 쫓는 춤을 추고 놀고 주민들도 함께 즐기는 것은 벽사진경의 의식무를 춘 것으로 민속연희의 기층적 시원이 마을 제의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演劇史(李杜鉉, 民衆書館, 1973), 韓國民俗文藝論(金宅圭, 一潮閣, 1980),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江陵官奴假面劇硏究(張正龍, 集文堂, 1989).

필자 | 장정룡(張正龍)

기설제(祈雪祭)

정의 음력 11월이나 12월에 눈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제사. 눈이 와야 할 시기에 눈이 오지 않는 것을 천재(天災)라고 믿어 기설제(祈雪祭)를 지냈다. 그리고 동지 후 셋째 미일(未日) 곧 납일(臘日)까지 눈이 세 번 오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눈이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하여 기설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설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거행된 국가의례의 하나이다.

내용 기설제에 관한 기록은 고려시대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 권4에 의하면 현종 7년(1016) 11월에 산천신(山川神)에게 눈 오기를 기원

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기설제는 종묘와 사직을 비롯해 산천, 신묘(神廟) 같은 다양한 장소와 신격(神格)에게 지냈으며, 도교 의식인 초례(醮禮)로 거행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들어 기설제는 중종대 이후부터 지냈다. 중종 6년(1511) 12월 8일 예조에서, "우리나라에 기설제의 전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상고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고, 중종 9년(1514) 10월 26일에 전교하기를 "기설제를 행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이후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기설제는 중종대에 비로소 지내기에 이르렀다.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기설제는 두 번에 걸쳐 거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종묘, 사직, 북교(北郊)에 정2품관을 보내어 지내고, 두 번째는 풍운뇌우단, 산천, 우사단(雩祀壇)에 정2품관을,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는 근시관(近侍官)을 보내어 주관하게 하였다. 기설제는 특별히 정한 시기에 거행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행하였다.

의의 기설제는 기우제와 함께 농사와 직결된 대표적인 의례이다. 그러나 기록은 매우 드문 편인데, 이는 기우제를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설제를 거행하여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를 빌고 풍년을 염원하였던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과 중농사상을 엿보게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續大典,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필자 | 김철웅(金澈雄)

사한제(司　祭)

정의 사한단(司寒壇)에서 추위와 북방의 신(神)인 현명씨(玄冥氏)에게 지내는 제사. 음력 12월에 얼음을 떠서 빙고에 넣을 때 장빙제(藏氷祭)를 지냈고, 춘분(春分)에 빙고문을 열 때 개빙제(開氷祭)를 지냈는데 이를 사한제라 한다. 그리고 추워지지 않아 얼음이 얼지 않을 때에도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기한제(祈寒祭) 또는 동빙제(凍氷祭)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의례에서 소사(小祀)로 행하였다.

유래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실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 보인다. 『시경(詩經)』「국풍(國風)」 빈풍(豳風) '칠월(七月)' 시에, "이양(二陽)의 날에 얼음을 깨어 삼양(三陽)의 날에 빙고에 넣나니 사양(四陽)의 날 아침에 염소를 바치고 부추로 제사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례(周禮)』「천관총재(天官冢宰)」에는 12월에 얼음을 잘라서 저장한다고 하였다.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에는 춘분에 어린 양을 바치고 빙실(氷室)을 열어 얼음을 꺼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사한제는 중국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얼음을 채취한 예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新羅本紀)」4 지증마립간(智證痲立干) 6년(505) 11월조에 의하면 "처음으로 해당 관서에 명하여 얼음을 저장토록 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신라는 빙고전(氷庫典)이라는 관청을 두어 빙고를 관리하였으나 사한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사한제에 대한 문헌 기록은 고려시대에 비로소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 권63 「지(志)」17 예(禮)5 길례소사(吉禮小祀) 사한조(司寒條)에 의하면, 사한은 맹동(孟冬: 음력 10월)과 입춘(立春)에 얼음을 저장할 때 춘분에 얼음을 낼 때 제사지내며, 제사에 바치는 희생으로는 돼지 한 마리를 썼다. 제삿날에 상림령(上林令)은 복숭아나무로 만든 활과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을 빙실 안 오른쪽에 마련해놓고 제사가



장빙제
경북 안동시 성곡동 국립민속박물관










〈장빙제〉
1 관세
2 분향
3 배례
4 초헌
5 독축
6 아헌
7 종헌
8 음복
경북 안동시 성곡동 국립민속박물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두었다. 이는 활과 화살이 재앙을 없애준다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이다.

조선시대에도 사한제를 지냈다. 『용재총화(慵齋叢話)』 권10에 "사한단은 동빙고에 있는데, 얼음을 저장할 때면 날씨가 추워지기를 제사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경지략(漢京識略)』 권2 빙고(氷庫)에 따르면 "해마다 12월이면 제관이 사한단에서 현명씨에게 제사를 드리고 비로소 한강에서 얼음을 뜨기 시작한다. …… 춘분에 개빙제를 드린 후에 얼음을 나누어준다."라고 하였다.

사한제는 태종 13년(1413) 4월 13일에 고려의 예(禮)에 따라 제사를 소사로 정하였다. 세종 30년(1448) 11월 9일에는 사한제가 12월 월령(月令)에 있는데 장빙은 매양 11월에 있음을 지적하고, 기후가 일정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장빙할 시기가 오면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장빙제는 12월에 지내게 되었다.

사한제는 3품의 관원이 주관했으며, 제사를 지내는 사한단은 동빙고 근처에 있었다. 조선의 사한제는 융희 2년(1908) 칙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의의 사한제는 나라의 제사와 잔치 그리고 여름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얼음을 잘 보관하기 위한 의례였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이변이 없기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詩經, 禮記, 慵齋叢話, 朝鮮王朝實錄, 周禮, 增補文獻備考, 漢京識略.
필자 | 김철웅(金澈雄)

세의(歲儀)

정의 세밑[除夕]에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물건. 궤세(饋歲), 세궤(歲饋), 세찬(歲饌)이라고도 한다. 세찬은 세밑에 선사하는 물건 혹은 세배 온 사람에게 대접하는 음식을 가리킨다. 세밑이 다가오면 설날 차례(茶禮)를 지내기 위해서 제수를 장만해야 하는 데다 정초에 식구들이 먹고 하객을 접대하려면 세찬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찬은 살림살이의 정도에 따라 또는 차례를 지내는 집이나 안 지내는 집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모두 흰떡을 장만했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2월 월내조에 세의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평안도, 황해도 두 병마절도사는 예에 따라 세찬을 조정의 벼슬아치와 친지의 집에 보낸다. 각 도의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와 수령(守令)도 세궤(연말에 진상하는 공물)의 예를 따른다. 서신 안에 따로 작게 접은 종이를 준비하여 토산물 여러 종류를 열거하여 적는다. 이것을 '총명지(聰明紙)'라고 한다. 각 관청의 아전들 역시 생치(生雉), 곶감 같은 물품을 자기와 친한 집에 선물한다. 생각건대 주처(周處)의 『풍토기(風土記)』에 '촉(蜀) 풍속에 연말에 서로 선물하고 문안하는데 이를 궤세라 한다.' 라고 했다. 또 생각건대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쟁반에 큰 잉어를 가로놓고, 소쿠리를 내놓으니 두 마리 토끼가 누웠다.' 하였으니 이 풍속은 예부터 그러했다(關西海西兩節度例送歲饌於朝紳暨親知家 各道藩閫守令亦歲饋之例 書緘中 另具小摺紙 列錄土産諸種 謂之聰明紙 各司胥隷亦有以生雉乾柿等物 饋問於所親家 按周處風土記 蜀俗晩歲相饋問 謂之饋歲 又按東坡詩 置盤巨鯉橫 發籠雙兎臥 此風自古而然矣)."라고 했다.

정월 원일조에 "시절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세찬이라 하고, 술을 세주(歲酒)라고 한다. …… 또 생각건대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서 '설날 도소주(屠蘇酒)와 교아성[膠牙餳; 맥아(麥芽)를 고아 만든 엿으로 이를 단단히 한다 하여 이 굳히엿이라고도 한다.]을 올린다.' 고 했다. 이것이 곧 세주, 세찬의 시초이다(饋以時食 曰歲饌 酒曰歲酒 …… 又按宗懍荊楚歲時記 元日進屠蘇酒膠牙餳 此卽歲酒歲饌之始)."라고 했다.

『동국세시기』 10월 월내조에 세찬으로 강정[乾飣]을 들며 "…… 설날 아침과 춘절(春節)에 인가(人家)의 제물(祭物)로 실과(實果) 항렬에 들며 역시 세찬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至于正朝春節人家祭品 叅用果列 亦以歲饌供客 而爲不可廢之需)."라고 했다. 강정은 찹쌀가루에 술을 쳐서 반죽하여 크고 작게 잘라 햇볕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고치같이 부풀어 오르게 한 뒤에 거기에 흰깨나 검은깨, 노랑콩가루, 파랑콩가루를 물엿에 개어 붙인 것이다. 강정에는 오색강정과 잣가루나 송홧가루를 바른 송자강정[松子乾飣], 또 찹쌀을 불에 튀겨 꽃 모양으로 만들어 엿으로 붙인 매화강정[梅花乾飣], 이 밖에 홍색강정[紅色乾飣], 백색강정[白色乾飣] 등이 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정월 · 원일조에 "설날과 정월 보름에 인가에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강정(羌飣)을 으뜸으로 친다."라고 했고, "손님이 오면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를 세찬이라 한다(客至設酒肉餉之曰歲饌)."라고 했다. 『경도잡지(京都雜志)』 권2 세시 · 원일조에 "시절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세찬이라 하고……(饋以時食曰歲饌……)."라고 했다.

즉 세찬은 떡국, 교아성, 강정 등 시절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석(除夕)에는 역시 상사(上司)나 친척 또는 친지들에게 세찬으로 쓰는 생치, 전복, 어란(魚卵), 육포(肉脯), 곶감, 대추 등을 선물하며 문안을 하였고, 그 외에 고기, 생선, 꿩, 닭, 과일, 담배, 술 등 각종 물건을 보내어 인사한다. 이러한 풍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연말에 지인과 친지들에게 선물을 하여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연말연시를 잘 보내기를 기원한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韓國民俗大觀 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상기숙(尙基淑)

세초(歲抄)

정의 조선시대에 매년 6월과 12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죄가 있는 벼슬아치를 적어 상주(上奏)하는 것이나 군인(軍人) 중 사망, 도망,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원을 조사하여 보충하는 일. 또

조선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 포상해야 할 사람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을 가리키기도 한다. 포상할 사람으로는 농상(農商)이나 목축에 빼어난 자, 효행(孝行)이나 절의(節義)가 있는 자, 시험 성적이 좋은 관리 따위를 추천했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2월 월내조에 "초하룻날 선부(選部; 이조와 병조)에서 조신(朝臣) 중에 파면(罷免)되었거나 강등(降等)되었던 사람의 이름을 상신하는 것을 세초(歲抄)라 한다. 그러면 왕은 이 세초 중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 밑에 점을 찍는데 그 점이 찍힌 자는 서용(敍用; 죄로 인하여 면관된 사람을 다시 씀) 또는 감등(減等; 은전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형벌을 경감함)된다. 6월 초하루에도 역시 그러했다. 이는 대체로 대정(大政; 관원을 성적에 의하여 직위를 박탈 내지 승진시키는 일)이 6월과 12월에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의 경사가 있어 사면하게 될 때에는 따로 세초를 상신한다. 이는 대체로 소탕(疏蕩, 掃蕩; 휩쓸어 죄다 없애버림)의 은전(恩典)에서 나온 것이다(朔日 自選部抄啓朝官中罷削人名曰 歲抄 點下者敍用或減等 六月朔亦然 盖因大政在於六臘故也 因有慶赦 別歲抄 入啓 盖出疏蕩之典也)."라고 했다.

조선시대 해마다 6월, 12월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인을 조사하여 군보(軍保)의 결원을 보충한 일을 또한 세초라 했다. 기병, 보병, 충익[忠翊; 原從功臣], 충찬[忠贊; 성중관(成衆官)의 하나. 오위(五衛)의 하나인 충좌위(忠佐衛)에 속했던 군대]의 여정(餘丁), 장인(匠人), 율생(律生), 의생(醫生), 서원(書員), 일수(日守; 지방의 하위관리), 악생보[樂生保; 악생은 장악원(掌樂院)의 잡직(雜職)의 하나. 악생보는 시골 백성에게서 받아들이는 악생의 요포(料布)], 창준[唱準; 校書館 잡직의 하나], 사복시 제원(諸員), 상의원[尙衣院; 어의대(御衣帶)를 진공(進供)하고 대궐 안의 재물과 보물을 맡아 관리하던 관청. 태조 때 베풀어서 고종 32년에 상의사(尙衣司)로 고침] 제원, 전설사[典設司; 장막(帳幕) 따위를 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의녀보(醫女保), 내관보(內官保), 나장, 차비(差備;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함), 진부(津夫; 나라에서 설치하여 두었던 나룻배의 사공), 봉군호보(烽軍戶保) 등이 보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인을 조사하여 보충할 때에는 일정한 법률에 따라 충정하도록 했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충군(充軍)하였을 경우 제위율(制違律)로 수령과 색리(色吏)를 다스렸다. 또한 수륙의 모든 군사를 일정 기간에 전혀 보충하지 않은 수령은 파직으로 다스렸고, 세초를 그 기한에 마치지 못한 수령은 추고(推考)하여 강등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상기숙(尙基淑)

장빙제(藏氷祭)

⇨ 사한제(司寒祭): 겨울편

칠사(七祀)

⇨ 칠사(七祀): 봄편

겨울천둥

정의 겨울철의 천둥소리를 말하며, 이것을 그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혼란이 일어날 징조로 보는 일종의 천기점법(天氣占法).

내용 제주도 속담에 "동삼(冬三) 석 둘에 천동ᄒᆞ민 머리빡 씬 사름 하영 죽나(겨울철 석 달에 천둥하면 머리빡 센 사람 많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겨울 천둥소리는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人士)에 해(害)가 있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뜻이다. 비가 많은 여름철 천둥과는 달리 겨울철 천둥은 백성들의 무슨 잘못으로 인해 하늘님께서 화가 나서 욕하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밤잠을 자다가도 천둥소리를 듣게 되면, 어른들은 식구를 깨우며 "하늘님이 용심 낭 ᄒᆞ는디 느네들 ᄒᆞᆫ정 일여낭 앚이라(하느님이 화나서 하는데 너희들 어서 일어나 앉아라)."하고, 혹시 누워 있는 환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괴양ᄋᆞᆯ으로 돌아누워사 ᄒᆞᆫ다(조심히 옆으로 돌아누워야 한다)."라고 하여 편한 자세를 취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믿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歲時風俗(秦聖麒, 濟州民俗文化硏究所, 1969).
필자 | 진성기(秦聖麒)

고드름점

정의 겨울에 처마 끝에 열린 고드름의 상태를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는 풍속.

유래 조선시대까지의 문헌에는 고드름점에 관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드름점의 역사는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드름을 농사와 관련시키는 풍속은 눈점[多雪占] 풍속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인다. 12월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속신은 고려시대부터 그 사례가 발견된다. 고드름은 눈이 내리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다. 눈이 많이 내리고 날씨도 추워야 고드름이 크고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고드름점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 고드름에까지 확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고드름점은 겨울에 처마 끝에 열린 고드름의 길이나 굵기, 모양, 개수 같은 고드름의 상태를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이다. 전국적으로 그 유형이 발견되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전남에서는 처마 끝에 고드름이 길게 열리면 이듬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점친다. 전북에서는 처마 끝에 고드름이 굵게 많이 열리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고드름이 적게 열리면 시절이 별반 좋지 않을 것이라는 속신이 있다. 경남에서는 처마 끝에 고드름이 가지런하게 달려 있으면 이듬해에 농사가 잘 되고, 듬성듬성 달리거나 들쭉날쭉 달리면 농사를 망친다고 점친다. 충남에서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많이 열리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적게 열리면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

의의 고드름점은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사회의 의식이 반영된 속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음력 12월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이지만 일반 민중들의 관심은 여전히 농사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드름점은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 얻어낸 합리적인 민간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이 추워야 고드름이 많이 열리는데, 날이 추우면 논과 밭의 벌레가 모두 얼어서 죽게 되므로, 이듬해 농사에서는 병충해가 적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풍년이 들게 되는 것이다.


고드름 심디스마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삼국 · 고려시대 편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이옥희(李玉姬)

눈점[多雪占]

정의 겨울에 내리는 눈[雪]의 양과 그 모양을 보고, 이듬해 농사의 풍흉(豊凶)과 강우량을 점치는 점속(占俗).

유래 언제부터 눈점[多雪占]을 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高麗史)』 권63 「지(志)」17 예(禮)5 길례소사(吉禮小祀) 잡사조(雜祀條)의 기록을 보면, 12월에 눈이 오기를 기원하는 기설(祈雪) 풍속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어,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2월에 눈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풍년을 예측하는 사례는 조선시대 이황의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45와 조선조의 세시기인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에서도 보인다.



눈 덮인 지리산 김진열

내용 겨울에는 눈점을 쳐서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에 보리농사가 잘 되고, 비가 많이 내려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믿는 것이다. 충남에서는 섣달에 눈이 많이 오면 오뉴월에 비가 많아 농사짓기에 유리하다고 본다. 충북에서는 함박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농사는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

의의 눈점 풍속은 자연 현상에 대한 민중들의 세심한 관찰과 농사 경험을 통해 얻어낸 유용한 민간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보리밭은 눈으로 인해 단열효과를 갖게 되므로 보리뿌리가 썩지 않는다고 한다. 또 눈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흙 속에 있던 각종 병충해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으며, 초봄에 녹은 눈으로 토양의 수분이 적당하게 유지되어 고사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맥류의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철의 강설량과 여름철의 강우량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모내기 시기인 6월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歲時風謠, 退溪先生文集,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삼국 · 고려시대 편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이옥희(李玉姬)

해초점(海草占)

정의 겨울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의 풍흉 상태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성(豊盛)을 점치는 풍속.

내용 대개 농사와 어업을 겸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제주도민들 사이에는 겨울 바다 해초의 됨됨이를 특별히 주시하게 된다. 제주도 속담에 "저실 바당 푸성거리가 잘 안난 해오년에는 그해 용시에도 그르치게 된다(겨울 바다 해조류가 잘 안 된 해에는 그해 농사도 망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농어민들은 해조류가 흉년인 때는 그해 밭농사에서 대개 특용작물 재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저실 바당에 멜 하영 들민 그해 밭용시엔 ᄌᆞ미가 엇나(겨울 바다에 멸치 많이 들면(잡히면) 그해 밭농사에는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경우는 겨울 어장의 풍성함이 오히려 밭농사에는 이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해조류에는 식용이 되는 '춤몸(해조류의 일종)'과 식용이 안 되는 '지름몸(해조류의 일종)'이 있어서, 해초가 잘 된 해의 지름몸은 건져다가 밭의 거름으로 쓴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금비(비료)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歲時風俗(秦聖麒, 濟州民俗文化硏究所, 1969).

필자 | 진성기(秦聖麒)



해초 김상수

난모(暖帽)

정의 겨울에 쓰는 방한모의 총칭. 대체로 검은색의 명주나 비단과 같은 견직물을 사용하여 만들고 모피로 선(緧)을 두르기도 한다.

내용 난모(煖帽, 暖帽)란 머리와 뺨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방한모를 통칭하는 용어이나, 박일원(朴一源)이 편찬한 『추관지(秋官志)』에 따르면 난모는 특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방한모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또한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 3년(1779) 1월 13일에 전경문신(專經文臣)의 전강(殿講)에서 수석한 사람에게 난모를 하사한 기록과 정조 12년(1788) 1월 5일에 대사간으로 삼았던 사람을 등연(登筵) 때 난모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직(遞職)시킨 기록으로 보아 의례적인 용도의 쓰개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난모는 문관, 음관, 무관이 10월 초하루에서 이듬해 1월 그믐날까지 관복을 입을 때에 사모 안에 착용하였는데, 재료는 당상관일 경우 초피(貂皮)였고 당하관은 서피(鼠皮)로서 모피의 재료에 차이를 두었다고 한다.

난모로 통칭되는 방한모들에는 한자로 표기되는 이엄(耳掩), 액엄(額掩), 풍차(風遮), 삼산건(三山巾), 휘양[揮項], 만선두리(滿縕頭里)와 한글로 표기되는 볼끼, 남바위, 아얌, 굴레, 조바위, 풍뎅이가 있다. 이들 중 이엄, 삼산건, 휘양, 풍뎅이, 만선두리는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것이고, 볼끼, 남바위, 풍차는 남녀 양식에 차이가 없는 것, 아얌, 조바위는 여성 전용, 굴레는 어린이 전용의 방한모인데, 이엄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한모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방한모의 형태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머리 위쪽이 대부분 트여 있다는 것인데, 여자들은 방한모의 정수리 트임의 앞뒤를 장식 끈이나 산호구슬을 꿰어 연결하고 이마와 뒤통수 부근에 매듭과 장식술, 비취나 옥관을 달아 장식했다.

이엄은 조선 초기부터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방한모의 하나로 피견(披肩)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예전(禮典)」 의장(儀章) 관조(冠條)에 의하면 당상관은 단(段)·초피이엄, 3품 이하 9품까지의 당하관은 초(綃)·서피이엄으로 품계에 따라 재료에 차이를 두어 사용한 의례적인 쓰개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보면 이엄은 왕 이하 신하, 사인들이 사용했던 방한구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귀를 가릴 정도의 크기였고 후에는 머리를 덮을 정도로 커졌다고 한다. 특히 조선 전기의 기록에 이엄이 초피관(貂皮冠), 초관(貂冠), 모관(毛冠), 감투(甘套) 등의 방한모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엄은 한자풀이 그대로 주로 귀를 가렸던 용도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숙종 13년(1687) 10월 1일의 기록에는 상의원에서 들여온 이엄 초피의 품질이 나빠 무역해온 역관(譯官)을 가두도록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엄의 재료인 초피는 주로 수입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풍차는 남바위와 비슷하나 볼끼를 더하여 귀와 뺨, 턱을 가릴 수 있는 방한구로서, 볼끼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뒤로 젖혀서 뒤통수에 맨다. 검은색 비단을 사용하고 가장자리에 모피를 두른 형태의 것은 겨울용이나 모피를 두르지 않고 안을 융으로 대어 비교적 엷게 만든 것은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풍차는 조선시대 어휘집에서 풍령(風領), 난이(煖耳)의 대역어로 기록되어 있어 귀를 가리는 볼끼가 더해진 방한구였음을 알 수 있다.

삼산건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나이 많은 조사(朝士)가 대궐을 출입할 때 쓰는 작은 풍차를 항풍차(項風遮) 혹은 삼산건이라 한 것으로 보아 풍차와 유사한 형태로서 조선 후기에 관복에 사용된 방한모로 보인다. 『헌종실록(憲宗實錄)』 헌종 10년(1844) 12월 10일의 기록에는 조복(朝服) 가운데 이엄을 삼산건으로 대신하되 당상은 초피로, 당하는 흑피로 가장자리를 꾸미라고 명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는 삼산건이 이엄을 대신하여 관복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휘양은 조선 후기에 사용된 명칭으로 호항(護項)의 중국 발음에서 기원한 것이다. 『아언각비(雅言覺非)』 권2 호항(護項)에는 목을 감싸는 털쓰개[毛幪]라 하였는데, 현존하는 유물에서 형태를 보면 정수리 부분은 뚫리고 크기는 앞이마와 귀, 머리, 등을 넉넉히 덮을 정도로 크며, 앞쪽에 끈을 달아 앞가슴에서

여미도록 되어 있다. 『추관지』에 의하면 휘양은 융복에 혹은 군병 또는 노인이 쓰는 것이라 하였는데,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1월 22일의 기록에서도 병사의 방한구로 휘양을 쓰게 하라고 전교하고 있어 특히 군사가 쓰는 방한모임을 알 수 있다.

만선두리는 조선 후기에 사용된 명칭으로 무신들이 공복에 쓴 방한모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털로 된 목도리의 앞, 뒤 그리고 바깥 쪽 가장자리를 초(貂)로 선 둘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 하였다. 길이가 길어 뒤로 길게 넘어가며, 끝은 제비꼬리 모양이고, 가장자리에는 털, 주로 담비 털로 선을 둘렀는데, 볼끼가 달려 있다.

볼끼는 어휘집에서 보면 차검피(遮臉皮), 피마호(皮馬虎), 자포(腦包) 등의 한자 표기에 대한 우리말 풀이로서 뺨과 턱을 덮기 위한 방한구이다. 안쪽에는 털을 받치고 겉은 주로 남색이나 자주색 비단을 대고, 또는 가죽이나 헝겊 조각에 솜을 두어 만든다. 두 뺨을 가려 싸고 양끝의 끈으로 머리 정수리에서 잡아매는데, 노인들은 이 위에 남바위를 덧쓰기도 하였다.

남바위는 뒤가 목덜미까지 오는 형태로 겉감은 검은색, 남색, 자주색 비단을 사용하고, 안감은 녹색, 붉은색, 연두색 등의 비단이나 면직을 사용하며, 안에는 털이나 융을 대거나 솜을 두기도 하였다. 앞은 이마를 덮고 뒤는 귀를 거쳐 목과 등을 덮으며 위쪽에는 구멍을 뚫었다. 부인이나 노인들이 주로 착용하였고 특히 여자용에는 겉면에 수부다남(壽富多男)의 글자와 길상문(吉祥文)의 금박을 넣었고, 앞면 윗부분에 술, 보석, 매듭 등으로 장식하였다.

굴레는 조선 후기 상류층 가정에서 돌쟁이부터 4~5세 이하의 남녀 어린이가 사용한 방한을 겸한 장식적인 쓰개로 자수나 금박 장식을 하기도 한다. 지방에 따라 형태가 약간씩 다른데 서울의 굴레는 세 가닥으로 되었고, 개성의 굴레는 아홉 가닥으로 되었다. 겨울에는 검정 비단으로, 봄가을에는 갑사(甲紗)로 만들었다. 가닥마다 색이 다르며 수를 놓거나


1


2


3


4

1 아얌
2 남바위
3 조바위
4 풍차
국립민속박물관

금박을 박고, 뒤에는 도투락댕기를 달았으며, 정수리 부분에는 구슬이나 보석을 달았다.

아얌은 겨울에 부녀자들이 나들이할 때 추위를 막으려고 머리에 쓰는 방한구이다. 아얌은 귀를 내놓고 이마만 덮는 형태로서 고급품은 겉은 고운 털로 하고 가장자리에는 2~3센티미터의 검은 털로 선을 둘렀다. 뒤에는 아얌드림을 늘어뜨렸는데 아얌드림은 검은 자줏빛으로 댕기와 비슷하며, 밀화(蜜花)나 금판(金板)으로 만든 매미를 군데군데 달아 장식하였다. 앞 중심과 뒤통수에 걸쳐 자주 또는 검은색 조영(組纓)이나 산호주(珊瑚珠)를 꿴 끈을 달고 술 장식을 드리웠다.

조바위는 조선 후기부터 서양의 목도리가 등장할 때까지 부녀자들이 사용한 방한모이다. 겉은 검정 비단, 안은 남색 비단이나 무명이 대부분이며, 겹으로 만들었다. 정수리 부분은 열려 있고, 앞이마와 귀, 머리 전체를 덮는다. 뺨에 닿는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귀가 완전히 덮이고 길이는 뒤통수를 가릴 정도이다. 귀를 덮는 부분은 안으로 1~3센티미터 정도 오긋하게 휘었다. 옥, 마노, 비취 따위로 앞과 뒤를 장식하고 오색 술을 달았으며, 꼭대기의 앞뒤에 끈목이나 산호 줄을 연결했다. 부귀(富貴), 다남(多男), 수복(壽福), 강녕(康寧) 같은 글자와 꽃무늬 금박을 가장자리에 올려 만든 것도 있다. 오늘날에는 돌날 여아들이 쓰는 예장용 쓰개로 사용되고 있다.

풍뎅이는 조선시대 말기에 남바위와 함께 휘양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는데, 풍동이, 풍등이, 풍댕이라고도 표기된다. 풍뎅이라는 명칭은 풍뎅이라는 곤충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도 하고, 머리가 물에 풍덩 빠지듯 덮어씌우는 모자라는 뜻의 토속적인 말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형태나 쓰임새는 남바위와 닮았으나 남바위와는 달리 목 뒷부분이 짧고 이마를 감싸는 부분이 넓으며 가장자리에 두르는 모피의 폭이 좁다. 대체로 공단이나 검은 물을 곱게 먹인 명주를 겹으로 하고 그 속에 고운 솜을 넣은 다음 흰 끝동이나 빨간 끝동을 둘렀거나 사냥한 고운 짐승의 털을 붙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난모들은 조선 후기 이전에는 상류사회의 쓰개로 지위, 부의 상징물의 의미가 컸으나, 조선 후기 이후에는 일반화되어 남녀노소 모두 목적으로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

의의 난모는 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방한모로 사신 또는 공덕을 쌓은 신하에게 베푸는 중요한 하사품의 하나였다. 뿐만 아니라 지위와 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쓰개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방한구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난모로 통칭되는 방한모의 명칭들은 한 자로 표기되는 이엄(耳掩), 액엄(額掩), 풍차(風遮), 삼산건(三山巾), 휘양[揮項], 만선두리(滿縮頭里)가 있었고, 한글로 표기되는 볼끼, 남바위, 아얌, 굴레, 조바위, 풍뎅이가 있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는 방한모의 명칭들이 다양해졌고 특히 조바위나 아얌, 굴레와 같이 장식을 겸한 방한모가 등장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雅言覺非, 燃藜室記述, 五洲衍文長箋散稿, 朝鮮王朝實錄, 秋官志, 朝鮮時代의 冠帽(溫陽民俗博物館, 1988).

필자 | 강순제(姜淳弟)

가자미식해(-食醢)

정의 가자미에다가 익힌 곡류, 무, 소금, 고춧가루 따위를 넣어 식해(食醢)로 만든 음식.

내용 식해는 절인 생선에 익힌 곡류와 소금을 섞어 만드는 것이 기본인데, 지방이나 용도에 따라 무채, 고춧가루, 엿기름, 파, 마늘, 생강을 넣고 담그기도 한다.

가자미식해는 함경도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함경도에서는 좁쌀로 지은 밥을 넣어 담그지만, 동해안에 접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리밥이나 쌀밥을 넣어 담근다.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쓰이는데 함경북도에서는 김장하듯이 담가서 땅에 묻어두고 겨울의 밥반찬으로 먹는다.

가자미식해에 관한 오래된 기록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식해에 관한 기록으로는 중국의 진(晉)나라 때 장화(張華)가 쓴 『박물지(博物志)』에 도미로 식해 만드는 법이 나온다. 그리고 6세기 말에 북위(北魏)의 가사협(賈思勰)이 저술한 『제민요술(齊民要術)』「농산가공편」에 '자(鮓)'가 나오는데 이것이 식해이다. 일본의 유명한 음식인 스시(鮨)의 원형이 식해와 아주 비슷한 나레즈시이다.



가자미식해 궁중음식연구원

가자미식해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초겨울 김장철에 손바닥 크기만 한 노란색이 나는 참가자미를 골라 등쪽의 비늘을 긁어내고 물에 헹구어 내장을 빼내고, 머리와 꼬리를 잘라낸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둔다. 손질한 가자미에 소금을 넣어 삼삼하게 절인다. 절인 생선을 건져서 베보자기에 싸서 무거운 돌로 눌러놓는다. 메조로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 미지근하게 식혀놓은 다음, 여기에 다진 마늘, 소금, 생강, 고춧가루, 체에 친 엿기름 가루를 넣어 버무려둔다. 이때 소금의 양은 가자미의 짠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하는데, 가자미가 짜면 소금을 조금 넣고 싱거우면 소금을 많이 넣는다. 항아리에 가자미를 한 켜 깔고 그 위에 조밥을 눌러 담고 그 위에 가자미, 조밥의 순으로 담아 봉해서 사나흘 둔다. 가자미를 항아리에서 꺼내 잘게 썰고 무는 굵게 채 썰어 소금에 심심하게 절였다가 꼭 짜서 함께 버무려 다시 항아리에 담아 익힌다. 밥알이 삭아 물이 올라오면 익은 것이다. 먹을 때는 물을 따라 버리고 먹는다.

참고문헌 | 博物志, 韓國料理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すしの本(篠田 統, 柴田書店, 1981), 우리나라 젓갈의 지역성 연구(徐惠卿,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齊民要術(尹瑞石 외 옮김, 民音社, 1993).

필자 | 서혜경(徐惠卿)

감제떡[甘藷-]

정의 고구마를 껍질째 씻어 말려 가루로 만들어 찹쌀가루에 섞어 찐 떡. 또는 고구마녹말에 생고구마를 얇게 썰어 함께 버무려 찌거나 고구마를 썰어 말려서 가루로 만든 전분으로 송편처럼 빚어 찐다.

내용 고구마를 단맛의 마 또는 토란이란 뜻으로 감저(甘藷)로도 표기하며, 또 남쪽에서 왔기에 남저(南藷), 남감(南甘)이라고도 한다. 감제는 감저의 제주도 방언이다. 감제떡은 『음식방문(飮食方文)』, 『규합총서(閨閤叢書)』, 『시의전서(是議全書)』, 『부인필지(婦人必知)』,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이름과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감제떡은 감제침떡, 빼대기떡이라고도 하며, 『규합총서』에 따르면 1763년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감저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저병(甘藷餠)이라고도 한다. 또한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남방(일본)에서 들어왔다 하여 남방감저병(南方甘藷餠)이라고도 부른다.

감제떡은 고구마의 껍질까지 씻어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 찹쌀가루와 섞어 만든 떡으로 그 맛이 꿀맛 같다고 『시의전서』에 소개되어 있다. 감제떡 일명 감제침떡은 제주도 향토음식이며 겨울의 절식(節食)으로서 고구마녹말에 생고구마를 얇게 썰어 함께 버무려 찌는 떡이다. 빼대기떡이라고도 불리는 감제떡은 고구마를 썰어 말려서 가루로 만든 전분으로 송편처럼 빚어 찐 떡이다.

고구마의 성분은 수분 68.5퍼센트, 탄수화물 26.4퍼센트, 단백질 1.8퍼센트, 지방 0.6퍼센트이고, 프로비타민A인 카로틴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특히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주식 대용이 가능하며 예부터 구황작물로 재배되어 왔다. 간식으로도 이용되고 엿, 과자, 잼, 당면 같은 먹거리의 원료가 된다.

참고문헌 | 簡便朝鮮料理製法, 閨閤叢書, 婦人必知, 是議全書, 飮食方文,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한국의 떡·한과·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한국음식대관 3(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이영옥(李永玉)

골무떡

정의 절편과 같이 치는 떡의 한 종류로 멥쌀가루를 쪄서 꽈리가 일도록 친 다음 가래떡처럼 가늘게 빚어 손을 세워 한입 크기로 끊어 만든 떡.

내용 골무떡은 납월(臘月)의 절식으로 전해오고 있다. 조선조의 서울 풍속을 적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좋은 쌀을 빻아 체로 쳐서 고수레 한 다음 시루에 쪄서 안반 위에 놓고 떡메로 쳐서 조금씩 떼어 손으로 비벼서 둥글고 길게 문어발같이 늘이는데 이것을 권모(골무떡)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권모(拳摸)란 '주먹 권', '잡아쥘 모'의 뜻을 지닌 이름이다. 골무떡이란 떡 반죽을 쳐서 가래떡과 같이 손으로 잡아 비벼 길게 늘여 잘라 만든 떡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모가 전래되면서 골무떡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일년 열두 달 명절을 만들어 뜻있게 보냈는데, 이때 항상 함께 하는 음식이 떡으로 열두 달 내에 있는 각각의 명절마다 의미를 달리하여 다양한 떡을 빚어 먹었다.

골무떡에 대한 고서의 기록으로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나오는 흰떡(골무병, 백병), 『규곤시의방(閨壺是議方)』에는 흰떡의 일종인 골무편이 나온다. 그러나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에서 골모편은 "흰떡을 만들어 손가락보다 약간 굵게 비벼 3센티미터 크기로 자르고 흰떡과 쑥 넣은 청색 떡, 송피 넣은 적갈색 떡을 함께 조화 있게 담는다."라고 하여 방법에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음식방문(飮食方文)』에도 골무떡이 나오는데, 『규곤시의방』, 『간편조선요리제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의 것과 비슷하다.

음력 12월을 동지섣달이라 하는데 이때의 섣달을 납월이라 한다. 납월에는 차례에 쓸 제물과 세찬, 정월에 먹을 후식류를 마련하였는데, 특별히 차례상에 얹기 위해 멥쌀가루로 흰떡을 쳐서 떡살로 무늬를 내어 절편[切餠]을 하거나 손을 세워서 가래떡을 꼬리 있게 잘라 골무떡을 만들고 위에 색떡을 얹어 둥근 떡살로 꾹 눌러 꽃절편을 만들어 장식했다. 또 흰떡[白餠]을 뽑아 색색으로 물을 들여 골무같이 빚어서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다.



골무떡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簡便朝鮮料理製法, 閨壺是議方, 洌陽歲時記, 飮食方文,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한국의 떡 · 한과 · 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한국음식대관3(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윤숙자(尹淑子)

메밀묵

정의 메밀녹말로 쑨 묵. 겨울철의 별미 음식으로 모밀묵, 메물묵, 교맥유(蕎麥乳)라고도 한다.

내용 구황식품인 메밀은 잎이 파랗고 꽃이 희며 줄기가 붉고 열매가 검으며 뿌리가 노랗다. 이처럼 오색(五色)을 갖춘 오방지영물(五方之靈物)이라 하여 먹는 것 이상의 뜻을 부여해왔다. 예전 겨울밤에 부녀자들이 메밀묵 추렴을 곧잘 했던 것도 오방색(五方色)을 갖춘 메밀을 먹으면 아들을 잘 낳는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강원도 산골에서는 도로리 모임이라고 해서 밤참으로 메밀국수나 메밀묵을 먹어왔다.

메밀의 원산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밀과 관련된 유물과 문헌이 아직 보이지 않는데, 원산지와 일본에서 나온 유물로 미루어 메밀은 동이계(東夷系)로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된 곡물로서, 이것이 일찍이 중국에 전해졌으며 일본에도 전해진 것 같다.

메밀가루 만드는 법은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메밀을 불려서 거피하고 절구에 찧어서 물을 치고 매(맷돌)에 갈아서 체에 밭쳐 가라 안쳐 웃물은 따라버리고 만든다. 맷돌에 갈 때에 껍질을 벗긴 녹두를 조금 넣어 갈면 더욱 좋다. 이렇게 만든 메밀가루로 국수, 간저냐, 총떡, 메밀묵, 메밀산자 등을 만드는 데 쓴다.

메밀묵을 쑤는 법은 『시의전서(是議全書)』에 "녹말을 가는 체로 밭쳐 물에 가라앉힌 후 물만 따라 버리고 쑤되, 되면 딱딱하고 불이 세면 누르니 약한 불로 쑨다."라고 하였다.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는 "모밀을 더운 물에 담가 불려서 거피해 절구에 찧어서 물을 부어가면서 체에 밭쳐 가라 안쳐 웃물은 따라버리고, 솥에 쏟아놓고 물을 쳐가면서 불을 때고 쉬지 말고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쑤어 그릇에 담아 굳힌다. 메밀 넉 되에 물 한 동이 비율이다."라고 하여 메밀가루와 물의 농도, 약한 불에서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메밀묵 쑤는 법은 지금과 별 다른 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시의전서』에는 "메밀묵을 먹을 때 소금, 기름, 깨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무쳐 담을 때 김을 부수어 넣는다."라고 하여 메밀묵에 신김치를 채 썰어 넣고 무쳐 먹는 현재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례 강원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메밀묵을 기제사 등에 제물로 이용한다. 산이 많아 척박한 땅에서 메밀의 이용도가 높았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제물의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름이 되면 묵사발이라 하여 메밀묵을 굵게 썰어 담고 시원한 김치국물을 부어 낸다. 반면 겨울에는 뜨거운 장국에 말아내기도 한다. 강원도는 메밀의 산출이 많은 까닭에 메밀묵 외에도 메밀전, 메밀막국수, 메밀만두 같이 메밀을 이용한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메밀의 이용이 높다는 점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이나 더운 기후 때문에 메밀묵은 많이 먹지 않는다. 메밀은 아무 것도 버릴 것이 없으므로 제주도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구황작물이다. 여름 작물이 홍수나 폭우, 가뭄의 피해로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메밀을 파종하는데, 일조량이 짧고 가을이 빨리 오는 중산간 지역에서 특히 많이 재배한다. 어릴 때는 나물로, 자라서 꽃이 피고 나면 뿌리만 놔두고 나머지는 썰어 솥에 오래 끓여 죽을 만들어 먹는다. 가축의 사료로 쓰기도 하고 심한 흉년이 들 때는 메밀대를 삶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기도 하였다. 메밀가루는 뜨거운 물에 타면 곧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들에 마소를 돌보러 나갈 때 비상 식량으로 이용하기도 한 겨울철에 이용도가 높아 꿩메밀칼국수, 꿩메밀만두, 메밀쌀죽, 메밀고구마범벅, 메밀수제비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참고문헌 |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古代 韓國食生活史硏究(李盛雨, 鄕文社, 1992) 음식족보(유태종, 아카데미북, 1998), 우리 음식 이야기(조후종, 한림출판사, 2001), 韓國飮食(尹瑞石, 修學社, 2002).
필자 | 윤덕인(尹德仁)


메밀묵 궁중음식연구원

묵물죽

정의 녹두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의 웃물에 쌀을 넣고 끓인 죽. 묵물은 녹두를 갈아 체로 거른 맑은 물이다. 녹두죽과는 다르다. 녹두죽은 녹두를 삶아서 체에 걸러 녹두 앙금과 쌀을 넣고 끓인 것이다.

내용 『시의전서(是議全書)』 녹말수비법에 "녹두를 타개서 물에 담갔다가 불면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는다. 껍질 벗긴 녹두를 매(맷돌)에 갈아 굵은 체로 걸러서 무명 견대에 넣어 짜고, 물에 넣어 주물러 빨아 큰 자배기에 담는다. 이것이 가라앉으면 누른



물을 모두 따라 버리고 앙금을 묵을 만드는 데 쓴다. 이 묵물로는 묵물죽도 쑤고 알국도 끓인다. 새로 물을 부어 손으로 저어 두었다가 그 이튿날 또 따르고 붓기를 여러 날 한다. 이렇게 하여 물이 냉수같이 맑으면 물을 따라 버리고 볕에 놓아 물기를 거둔 후 앙금을 떠서 유지에 널어 바싹 말려 쓴다."라고 하였다.

대량으로 녹두묵을 쑤거나 녹두가루를 장만할 때 버려지는 웃물인 묵물을 이용하는 데서부터 묵물죽이 시작되었으리라고 본다. 이덕진(李德珍)은 "가을이 다가와 청포묵이니 도토리묵이니 할 때면 시장에 나가 묵물을 사오게 한다. 들통을 들고 묵물을 사오면 여기에 잘게 썬 시래기나 우거지를 넣고 다진 새우젓을 넣고 끓인다."라고 하였다. 이 묵물로 묵물죽을 쑤기도 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묵은 가을부터 특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면 그 맛이 더 난다. 그러므로 묵 가공 때 나오는 묵물을 이용한 묵물죽도 가을부터 겨울철 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식품이라 여겨진다. 녹두 가공 시에 나오는 잉여 웃물을 이용하여 별미식을 만들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是議全書,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韓國飮食(尹瑞石, 修學社, 2002).
필자 | 윤덕인(尹德仁)

생치만두(生雉饅頭)

정의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여 빚은 만두. 꿩만두라고도 한다. 꿩이 흔하였던 조선시대에 궁중을 비롯한 서울지방에서 겨울철에 즐겨 먹던 음식이다.

내용 꿩의 잔뼈와 살을 곱게 다져서 쇠고기 다진 것과 두부 으깬 것 등을 합쳐 소금 양념을 하여 소를 준비한다. 꿩은 살코기 맛이 약간 새콤하기 때문에 신김치를 넣지 않고 담백한 재료를 가지고 소를 만든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지름 6센티미터로 둥글게 만두껍질을 만들어서 소를 넣고 빚는다. 빚어진 만두는 꿩뼈와 양지머리를 고아서 만든 장국에 넣어 익힌다. 또는 꿩 자체 살을 다져서 둥글게 빚어서 녹말만 묻힌 굴림만두처럼 만들기도 한다. 1828년의 사료에 의하면 궁중에서는 메밀 반죽에 다진 꿩고기를 소로 넣어 빚었거나, 삶은 꿩살을 얇게 하여 껍질로 삼고, 다른 고기들을 다져서 볶아 소로 만들어 빚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재료로 꿩, 돼지다리, 소안심, 메밀가루, 생강, 파, 참기름, 간장, 잣, 후춧가루가 쓰였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한국음식대관6(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필자 | 이영옥(李永玉)

안동식혜(安東食　)

정의 감주계식혜(甘酒系食醯)가 아닌 감미와 독특한 향미가 있는 붉은색의 저온 발효시킨 민속적인 음청류(飮淸類)의 하나.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지방(조선시대 안동부)의 전통적인 계절음식이다.

유래 어식해(魚食醢)는 밥에 생선, 소금, 무채, 누룩, 향신채 따위를 섞어 삭힌 것이며, 『수운잡방(需雲雜方)』, 『미암일기(眉巖日記)』, 『쇄미록(瑣尾錄)』에 기재되어 있다. 소식해(素食醢: 채소식해)는 어식해에서 생선이 빠진 것이며, 『제민요술(齊民要術)』에 포약(蒲蒻: 부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부들, 연뿌리, 죽순 따위로 만든 자채(鮓菜: 소식해)도 식해라고 했다. 소식해는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에서 쌀, 누룩, 소금, 엿기름 등으로 채소를 삭힌 것도 식해라 하며 고기식해에서 이름을 빌려왔다고 했다. 안동식혜는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과 지역민의 기호에 맞게 소식해에 들어간 고가의 홍국(紅麴) 대신에 엿기름과 고춧가루(홍색)를 넣은 것이므로, 고추와 엿기름의 이용으로 보아



안동식혜 궁중음식연구원

18세기 중엽 이후에 지금 형태로 정립된 음청류로 추정된다.

내용 하룻밤 물에 불렸다가 푹 찐 찹쌀 지에밥에 체에 밭친 엿기름물과 잘게 썬 무와 생강즙, 고춧가루 우린 물을 넣고 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아 저온 발효시킨다. 발효 시간은 온도에 따라 다르나 4~6시간이 걸리며 밥알이 삭으면 급히 냉각시켜 차가운 곳에 저장하였다가 먹는다. 특히 겨울철의 절식으로 쓰였던 것은 감주 계열 식혜와 같이 끓이지 않으므로 삭힌 후 급히 냉각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따라서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는 겨울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었다. 지금은 냉장고의 보급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경북 안동에서는 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또는 귀한 사람을 접대할 때 아주 즐기는 기호 음식이다. 안동 외에 북부지방 사람들은 안동식혜라 부르지 않고 식혜라고만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소식해의 풍습이 남아 마늘과 소금을 넣는 곳도 있다. 어식해는 태국 북부인 메콩강 유역에서 발생하여 동방으로 전래되어 일본에서도 어식해인 나레즈시(鮓)가 생선 초밥으로 변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의 녹말의 저온 발효로 찡하고 산뜻하며 맵고 단맛을 지니면서 엿기름과 무의 디아스타아제 효소로 식후 소화제로 또는 숙취 해소제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攷事十二集, 眉巖日記, 瑣尾錄, 需雲雜方, 齊民要術, 增補山林經濟, 안동식혜의 조리법에 관한 연구(윤숙경,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3-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8).

필자 | 윤숙경(尹淑瀅)

족편(足)

⇨ 전약(煎藥): 겨울편

가락지찾기놀이

정의 겨울철 여자아이들이 방안에서 가락지를 놀잇감으로 즐기는 놀이.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많이 행해졌으며 반지놀음, 가락지감추기라고도 한다. 가락지는 한자어로 지환(指環)이라고도 하는데, 가락지와 반지(斑指)의 총칭이면서 가락지만을 뜻하기도 한다. 가락지는 두 짝의 고리로 된 것이고, 반지는 한 짝의 고리로 된 것으로서 '한 쌍을 나눈 반(斑)'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유래 여자아이들이 언제부터 가락지를 놀잇감으로 즐겼는지 알 수 없으나, 장신구로서 가락지를 사용하면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철기시대 유적지인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제4호 토광묘(土壙墓)에서 은으로 만든 지환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환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몽고의 침입으로 여성들이 원나라로 끌려갈 때 부모나 친지로부터 반지를 정표로 받아 손가락에 끼고 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반지는 처녀가 손가락에 끼고 가락지는 혼인한 부인이 손가락에 끼어서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지환은 장신구 혹은 신분의 상징으로서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애용한다.

내용 가락지찾기놀이의 놀이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여자아이들이 방안에 둘러앉아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술래(지역에 따라 범, 고양이라고도 함)를 정한다. 술래는 여자아이들이 둘러앉은 가운데에 들어가 눈을 감거나 가린다. 술래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여자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가락지를 옆사람에게 돌리다가 술래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어느 한 사람에게 감춘다. 술래는 여자아이들의 '됐다'는 신



가락지 국립민속박물관

호에 따라 눈을 뜨고 가락지를 감춘 사람을 찾는다. 이때 둘러앉은 여자아이들은 술래가 가락지를 찾지 못하도록 놀려 주거나 자기가 가락지를 가진 것처럼 혼란을 주기도 한다. 술래는 누가 가락지를 가지고 있는지 찾기 위해 둘러앉은 여자아이들의 얼굴 표정이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세밀히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지목한다. 가락지를 숨기고 있던 사람을 지목하여 가락지를 찾으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술래를 해야 한다. 이때 가락지를 감춘 사람을 찾지 못한 술래는 둘러앉은 여자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노래부르기 같은 벌칙을 받고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의의 가락지찾기놀이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겨울철 방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던 놀이였다. 이와 유사한 놀이인 비녀돌리기, 종지놀음, 수건돌리기 같이 놀잇감과 놀이방법이 변형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컴퓨터게임, 모바일게임 같은 다양한 놀이가 있어 잊혀지고 있지만 특별한 놀잇감이 없었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즐겨했던 놀이였다.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抱川郡誌(抱川郡, 1984), 漣川郡誌(漣川郡, 1987),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민속놀이와 명절 하(대산출판사, 2000).
필자 | 장상교(張庠敎)

궐희(闕　)

정의 대궐(大闕)놀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행하던 모의 조정(模擬朝廷) 놀이.

유래 『문헌고략(文獻攷略)』에 따르면 조선 태종(太宗) 때 어떤 환관(宦官)이 천도(遷都)놀이를 보고 성균관 유생들이 모반을 꾀한다고 상주(上奏)했으나 이것은 성균관 유생들이 옛날부터 하던 놀이이며, 태종 자신도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불문(不問)에 부쳤다고 한다. 태종이 성균관에 재학한 것은 고려말이다. 따라서 궐희(闕戱)는 고려말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9에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궐희는 조선 전기에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의 부족으로 언제까지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 매년 여름과 겨울에 성균관 유생들은 종이에 '궐(闕)'자를 써서 붙이는데, 이때 궐이란 군주(君主)의 상징이다. 이로써 성균관은 천자(天子)의 대궐이 되며, 성균관에서 모시는 공자(孔子)는 천자로 여겨지게 된다.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은 추천에 의해 각자 벼슬을 맡고, 벼슬에 해당하는 관복을 착용한다. 예컨대 재추(宰樞)에 임명된 유생은 백지를 잘라 만든 옥관자(玉貫子)를 붙였고, 장수로 임명된 사람은 종이로 만든 깃을 갓 위에 꽂아 군복처럼 했다. 또 벼슬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조(吏曹)에서는 추천된 유생의 현부(賢否)를 판별하였으며, 의금부에서는 죄인을 재판하고 처벌하였다. 뿐만 아니라 궐희에서는 모의 석전제(釋奠祭)를 거행하였으며, 천도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는 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때 한성의 사학(四學)인 동학(東學), 남학(南學), 중학(中學), 서학(西學)에서도 이 놀이에 동참했는데, 여기서 이들 사학은 제후국으로 간주되었다. 곧 사학을 각각 안회(顔回)의 나라, 자사(子思)의 나라, 증삼(曾參)의 나라, 맹자(孟子)의 나라로 나누었다. 그래서 사학에서는 제후국에서 천자국에게 하듯이 성균관에 조공을 바쳤으며, 성균관에서는 사학에 천사(天使)를 파견했는데, 중국인 흉내를 내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천사의 일행은 좋은 구경거리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 文獻攷略, 慵齋叢話.
필자 | 서영대(徐永大)





1~2 눈싸움 놀이
강원도 화천 방상운

눈싸움놀이[雪戰]

정의 겨울철 아이들이 야외에서 편을 나누고 눈덩이를 만들어 상대편을 향하여 던지며 즐기는 놀이. 한자어로는 설전(雪戰)이라고 한다.

내용 아이들이 언제부터 눈[雪]을 놀잇감으로 즐겼는지 알 수 없으나, 눈이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그 연원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을 보면 일제강점기에 경기도 고양에서는 마을 대항으로 눈싸움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징이나 북소리를 신호로 눈싸움을 시작하는데 먼저 소년들, 다음에 청장년의 순서로 눈덩이를 던져 승부를 겨루었다. 1950년대의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눈싸움놀이를 즐겼음을 엿볼 수 있다. 전선(戰線)의 군인들이 눈싸움놀이를 하였다거나 청소년들이 추위를 잊은 듯 눈싸움놀이를 하였다는 기사들이 있다.

눈과 관련된 대표적인 놀이로 눈싸움놀이와 눈사람만들기가 있다. 눈싸움놀이는 아이들이 주로 마을의 공터에서 편을 나누어 일정한 거리에 마주 서거나 상대편을 쫓아다니면서 눈덩이를 뭉쳐 맞히는 놀이이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대편이 던진 눈덩이에 맞으면 놀이를 계속하지 못하거나 눈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는 편이다. 그러므로 눈싸움놀이는 상대방을 잘 맞히기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눈덩이를 잘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살아 있는 수가 많은 편이 승리하였다.

한편으로 편을 나누어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의 진을 점령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놀이 방법도 있다. 이 놀이는 상대방의 몸에 눈덩이를 맞히는 것보다 상대방의 방어를 뚫고 진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사람만들기는 눈뭉치를 굴려서 크게 만들어 이를 몸통으로 하고, 따로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 그 위에 올려놓아 사람 모양으로 꾸미는 것이다. 이 놀이는 편을 갈라 크게 먼저 만드는 편이 승리하는 방식이 있고, 편을 나누지 않고 눈사람만들기 그 자체를 즐기는 방식이 있다.

의의 눈싸움놀이는 썰매타기와 함께 겨울철 아이들의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즐거움이었다. 오늘날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야외에서 놀이를 즐기기보다는 혼자 방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전자오락을 선호하지만, 특별한 놀잇감이 없었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즐겨했던 놀이였다.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前線서 눈싸움(동아일보, 1951. 3. 8.), 추위잊은 눈싸움(동아일보, 1956. 1. 23.),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조선의 민속전통5(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민속놀이와 명절 하(대산출판사, 2000).

필자 | 장상교(張庠敎)

다리세기놀이

정의 여럿이 마주 보고 앉아 다리를 쭉 뻗어 맞물리게 한 다음, 노래에 맞추어 다리를 세면서 노는 아이들 놀이. 지역에 따라서 다리뺏기놀이, 다리셈놀이, 이거리저거리, 다리헤기, 하날때놀이, 평양감사놀이, 군수놀이, 행경놀이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내용 주로 10세 전후의 여아들이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방안에서 많이 했던 놀이이다. 특히 정월대보름이나 명절 때 또래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다리세기를 했다. 이 놀이는 온돌을 기본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오랜 주거생활의 전통에서 발생한 놀이로 짐작되나 그 유래는 분명치 않다.

다리세기는 대개 순서를 정하거나 꼴찌를 한 아이(술래)에게 벌칙을 부과할 목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놀이를 하려면 먼저 5~10명이 두 줄로 마주 본 채 다리를 펴고 앉는다. 그리고 한쪽 다리가 서로 엇갈리도록 맞은편 아이의 다리 사이에 끼운다. 이윽고 놀이가 시작되면 흥겹게 합창하며 차례로 다리를 세되, 노래가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짚인 다리는 오므린다. 이를테면 다음의 가사와 같이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 만사 두만사, 돌아간다 장두칼, 여땅개 저땅개, 쇠머리땅개 끝바끔" 하고 노래를 부른다. 이때 한 구절마다 다리를 세다가 '끝바끔'에 지목된 아이의 다리는 구부리게 한다. 그런 다음 남아 있는 다리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놀이를 시작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리세기를 반복하여 양쪽 다리를 모두 오므린 아이의 순으로 등위가 매겨진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지목받지 못해 한쪽 다리를 펴고 있는 아이는 술래가 된다. 이때 술래에게 가해지는 벌칙은 노래하기, 춤추기, 심부름, 등 두드리기, 알밤주기 같은 것들이 있다.

지역사례 다리세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전승했던 놀이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놀이의 방법이 다양할 뿐 아니라 연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재미있게 변용시킨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전남 함평에서는 노래를 부르며 손바닥으로 다리를 짚어가다가 노래의 끝자를 부르고 '땡'을 외치는 순간, 미처 다리를 오므리지 못하면 지게 된다. 반면 날쌔게 오므리면 그 옆에 있는 다음 다리의 아이가 탈락이 된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맨 나중에 다리 하나가 남았을 경우, 방바닥과 다리를 번갈아 센다. 그리하여 마지막 땡이 다리에 닿으면 그냥 꼴찌가 되지만, 땡이 방바닥에 닿으면 꼴지 중에서도 꼴찌가 되어 이긴 사람들의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서 해야 된다.

평북 선천에서는 다리세기를 응용한 평양감사 놀이를 한다. 이를 위해 평양감사, 관리 몇 사람과 함께 개, 돼지, 돼지주인 등의 배역이 필요한데, 각 배역은 다리세기로 결정한다. 곧 가장 먼저 두 다리를 오므린 아이가 평양감사가 되고, 그 다음은 좌수, 사령, 개, 돼지, 돼지주인이 된다. 놀이가 시작되면 돼지주인은 개가 자기집의 돼지를 잡아먹으려 했다는 이유로 관리에게 고발한다. 이것이 상달(上達)되어 평안감사에게 이르면 감사가 이를 처결한다.

평북 용천에서도 이와 유사한 군수놀이가 전승한다. 놀이의 방법은 열 명 이상의 아이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양다리를 펴서 앞사람의 가랑이 사이에 끼워 넣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한알궁(1) 두알궁(2) 삼재(3) 엄재(4) 호박(5) 꺾기(6) 두루미(7) 찌강(8) 가드라(9) 꿍(10)을 부르며 다리를 헤아리되, (10)에 해당하는 '꿍'에 짚인 아이는 발을 구부린다.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양다리를 굽힌 아이가 군수를 맡고, 차례로 좌수, 공리, 사령, 백성이 된다. 백성은 원고와 피고로 나뉘어서 재판을 벌이는데 이때 군수가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준다.

강원도 양구에서 채록된 하날때놀이는 한층 흥미롭다. 군수놀이와 마찬가지로 (1)~(10)까지 노래를 부른다. 곧 하날때(1) 두알때(2) 사마정(3) 날때(4) 영낭(5) 거지(6) 팔때(7) 장군(8) 고드래(9) 뼁(10)을 센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짚어가다가 '뼁'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리를 오므린다. 역시 가장 먼저 두 다리를 오므린 아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은 사람, 이어서 차례로 개, 닭, 말이 되고 꼴찌는 거지가 된다. 배역에 따라 거지가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다른 짐승들이 이를 보고 일제히 짖거나 울어서 알려준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거지는 시치미를 떼며 여간해서 훔쳤다고 자백하지 않는다. 그러면 왕이 거지를 불러 큰소리로 야단을 쳐서 자백을 받는다.

제주도에서는 다리세기 놀이와 유사한 놀이로 행경놀이가 있다. 주로 겨울철 아이들 너댓이 방 안에 모여 앉아 서로 다리를 섞어 마주 뻗어 앉아 연장자가 정해진 동요를 외우며, 손으로 다리를 짚어 세어 그 동요가 끝나는 대목에 해당되는 다리를 거두게 해서 누가 양쪽 다리를 먼저 거두게 되느냐로 선후를 가리는 놀이이다. 행경은 바지를 입었을 때, 다리에 끼웠던 복식 차림의 한 가지이다. 이 놀이의 내용을 보면, 대개 맨 먼저 양쪽 다리 거둠이 끝난 이는 사또가 되며, 그 다음으로는 차례대로 하인, 머슴,

말이 된다. 그리하여 말이 된 사람이 팔꿈치와 무릎으로 엎드리면 사또는 그 위에 탄다. 그리고 하인은 앞에서 그 말의 양쪽 귀를 잡아 방향을 잡으면 머슴은 말의 뒤에서 재촉을 하며 방 안을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하여 놀이는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한편 다리세기놀이의 노랫말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한강 이북의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한알때(한알동) 두알때(두알동)'로 시작되는 가사가 우세한 편이다. 반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이거리(한거리) 저거리(두거리) 각거리'로 시작하는 노랫말이 폭넓게 전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양쪽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독특한 노랫말도 적지 않은데, 각 지역에서 구전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천사 만사 두만사
조도김치 장두칼
장땅개 이땅개
스무리땅개 꽃바꿍(충남 부여)

한알때 두알때
육남 거리 팔괘 장군
누루 사슴이
범에 약대
고드레 땡(평안도)

한알동 두알동
삼사녀 녀교
오두오두 부두
제비사니 게사니
종재비 팔딱(황해도)

한알대 두알대
삼사 나그네
영남 거지 탈대 장군
구드레 뻥
똥기 땡(경기도)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청사 망사 도망건
도어리 김치 장독간
서울 양반 두양반
진주댁이 열석량
까마귀까우 양지벌이
벌이 사시
빵땡 코파(경상도)

한콩 두콩
연질 녹두
금상 가치
섬에 딱콩(전북 김제)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다리셈놀이(리석중,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88), 금산의 풍악과 소리(정인삼 · 이소라, 금산문화원, 1992), 論山의 民俗(論山文化院, 1992), 부여의 민요(이소라, 부여문화원, 1992),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부여의 민속놀이(강성복, 부여문화원, 1994), 洪城의 勞動謠(이소라, 홍성문화원, 1994), 민속놀이와 명절 상,하(대산출판사, 2000),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과천 민속놀이의 개발(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 과천시, 2003), 경기민속지Ⅶ(경기도박물관, 2004).
필자 | 강성복(姜成福)

뚜럼놀이

정의 겨울철 제주 지역 아이들 놀이의 하나.

내용 제주에서 '뚜럼'은 걸음걸이나 말솜씨 같은 언어와 행동이 약간은 어눌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다. 또는 다리가 길어서 걷는 모습이 불안한 새인 '두루미'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처럼 뚜럼을 소재로 희화적(戱畵的)인 모양새를 본따서 아이들이 만들어 노는 놀이로 뚜럼놀이가 있다.

아래옷인 바지를 이용하여 바지 가랑이 한쪽에 두 발과 두 다리를 집어넣고, 다른 쪽에는 상체를 넣어서 몸 전신을 가장하여 두루미처럼 두발로는 위로 뛰면서 허리는 구부린 형태로 손을 이용하여 상대와 겨루어 쓰러뜨리는 편놀이다. 특히 야외에서 놀 수 없는 때인 겨울철에 주로 했다. 손과 발이 불편한 상태에서 겨루는 놀이로 아이들이 인내심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참고문헌 |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매사냥[放鷹]

정의 음력 10월 초부터 이듬해 해동(解凍)이 될 때까지 길들인 매로 꿩을 잡는 사냥놀이. 옛 기록에는 방응(放鷹)이라고 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의 매사냥은 1998년 1월 9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능보유자인 전영태(全永泰)에 의해 전통적인 방법의 매사냥이 전승해오고 있다.

유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매사냥이 이어져왔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百濟本紀)」23 아신왕조(阿莘王條)에 의하면, 백제 아신왕(392년 즉위)은 지기(志氣)가 호매(豪邁)하여 매사냥과 말타기를 좋아했다. 또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百濟本紀)」5 법왕(法王) 즉위년(599) 12월조에 의하면, 백제 법왕은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게 하고 민가에서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주었다. 이로 보아 삼국시대에 이미 매사냥이 매우 성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에서 매를 바칠 것을 요구하므로 세공(歲貢)으로 매를 보냈고, 이를 관장하기 위해 응방(鷹坊)을 설치했을 정도였다. 조선시대에는 명매[名鷹] 해동청(海東靑)의 공헌으로 명나라와의 곤란한 교섭이 해결된 바도 있다. 조선 태조는 자주 매사냥을 구경했고, 태종은 친히 활과 화살을 차고 말을 달리며 매사냥을 자주했다. 문인 김창업(金昌業)은 매사냥을 시로 남길 정도로 좋아했다. 일제강점기까지도 매우 성행했던 매사냥은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나, 전북 진안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매사냥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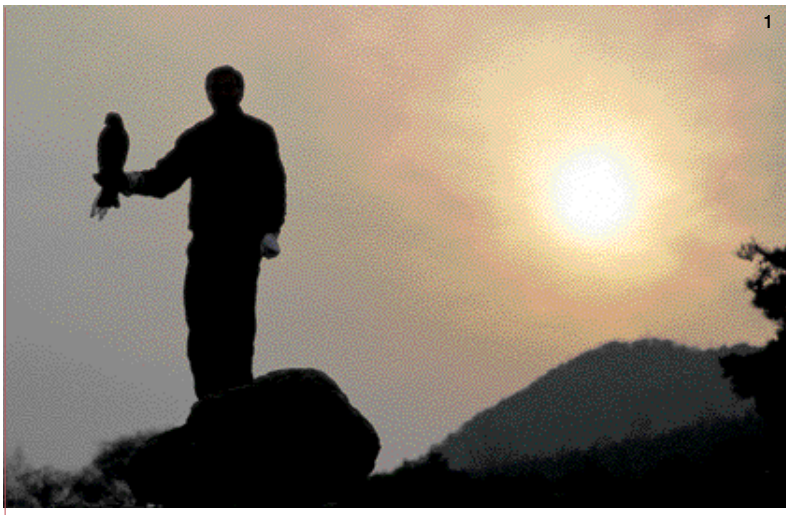
내용 매는 나이와 포획 후의 연수(年數)에 따라 그 명칭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① 보라매: 둥지를 떠난 지 6~7개월이 지나 잘 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를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매를 잡아 훈련시킨 것이다. 곧 둥지를 떠난 지 일년이 경과하지 않은 매이다. ② 초진(初陳)이: 일년 동안 사육하면서 훈련시킨 것이다. 곧 2년생 매이다. ③ 수진(手陳)이: 수진이는 3년 이상 훈련시킨 매를 말한다. ④ 산진(山陳)이: '산진매'라고도 부르는데, 야생에서 일년 이상 자란 매를 잡아다 훈련시킨 것이다. ⑤ 육조(育鳥): 둥지에 있는 새끼매인 추(雛)를 잡아와 사육하면서 훈련시킨 것이다. 이 외에 해동청(海東靑), 백송골(白松鶻)도 있다.

매의 주인은 수할치, 매방재, 매부리 따위로 부른다. 매를 잡는 데는 비둘기를 미끼로 매를 유인한 후 그물로 덮쳐잡는 방법, 매의 둥지에서 새끼매를 잡아 양육하는 방법, 매가 밤에 둥지에서 잘 때 올가미로 잡는 방법, 매가 전에 잡아먹다가 남긴 먹이를 미끼로 해 덧치(싸리나무로 만든 큰 광주리)로 잡는 방법이 있다.

매를 잡은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련한다. 우선 잡아온 매를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데리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수탉을 잡아 고기를 잘게 찢은 다음 2~3일간 물에 담가 피와 기름을



호렵도 국립민속박물관


1


2

1~2 매와 매부리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심디스마

뺀 후 먹인다. 처음에 매는 씻은 닭고기가 맛이 없어 먹지 않지만 나중에 배가 고프면 먹는다. 매를 처음 잡아왔을 때는 산에서 먹은 것이 있어 파란 똥을 누지만, 며칠 동안 씻은 닭고기를 먹으면 물똥을 눈다. 이는 매의 몸에 있는 기름이 다 빠졌다는 징조이다. 매를 처음 잡아왔을 때는 매의 가슴에 살이 많고 단단하지만 물똥을 눌 때가 되면 가슴에 살이 빠지고 물렁물렁하다. 이때쯤 해서 매를 데리고 산에 가서 길들이는 연습을 한다. 우선 매를 놔 줬다가 손에 꿩고기를 들고 유인해 다시 주인의 팔에 내려앉게 하는 연습을 거듭한다.

매가 완전히 길들여지기 전에 두 발목에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끈을 붙들어 매고, 꼬리에는 방울과 함께 소유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은 쪽지를 밀납으로 봉한 후 흰 닭의 깃털로 치장한다. 매의 꼬리에 방울을 매다는 이유는 매가 꿩을 잡은 후 땅에 내려앉아 꿩을 잡아먹으려 할 때, 방울소리를 통해 매의 위치를 얼른 찾기 위함이다. 매를 길들인 후 첫 번째 사냥에서 잡은 꿩은 매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3일간 매를 쉬게 한다. 그리고 다시 수탉고기 씻은 것을 먹여서 꿩고기를 먹은 속을 훑어낸다. 그런 다음 며칠 후 방매꾼 곧 몰이꾼을 데리고 매사냥에 나선다. 매부리가 매를 받고 시야가 좋은 산봉우리 높은 곳에 오르면 2~3명의 몰이꾼이 산중턱에서 꿩을 날리면서 "나간다, 매부리여" 하고 외친다. 이때 매는 매부리의 손을 떠나 하늘 높이 솟아올라 꿩의 뒤를 쫓아가 잽싸게 발톱으로 쳐서 꿩을 잡는다. 그러면 개부리 곧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개를 풀어놓아 매가 잡은 꿩을 가져오게 한다. 매부리가 매의 먹이로 꿩고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조금씩 손에 꺼내 놓으면 매가 손에 내려와 먹는다. 매사냥은 음력 10월부터 한식 무렵까지 한다. 이후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례 매사냥은 전국적으로 행해졌지만 그 중에서도 함경남도가 단연 으뜸이었고 다음이 평안북도였다. 함남에서는 매사냥으로 북청군과 갑산군이 가장 유명했다. 함경도에서는 보라매를 추매, 초진이를 육두(六頭)매, 육조를 와추(窩雛)매라고 부른다. 북청군에서는 매부리를 소하치(수할치의 사투리)라고 불렀다. 또한 함경도에서 매의 포획 시기는 가을 9월 하순부터 10월 말에 이르기까지이며 백두산, 갑산, 풍산 등으로 깊은 산골의 일반 새들이 남쪽지방으로 이동하는 때이다. 매가 이 새들을 쫓아 날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음력 9월 한로(寒露)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이때 추매를 잡는다. 백두산 같은 원시림에서 새끼를 쳤다가 가을에 남쪽으로 날아오는 매들을 잡기 위해 조망이 좋은 능선을 골라 그물을 치고, 그물 서쪽 밑에 흰 비둘기의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매어둔다. 그리고 사수막이라는 임시로 만든 움막 속에 숨어 있다가, 매가 높이 솟아 산마루를 스쳐갈 때 끈을 잡아당겨 비둘기를 푸드득 거리게 하면, 이것을 본 매가 비둘기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든다. 이때 그물을 덮쳐 매를 잡는데 이를 사수 또는 사수잡이라고 한다.

의의 매사냥은 왕, 양반층,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성인 남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놀이로서, 산야를 뛰어다니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매우 흥겨운 겨울철 운동이다. 한 해의 농사를 끝낸 후 농한기에 생활의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면서 행했던 매사냥은 취미 활동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놀이였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朝拜人名錄(日本宮內省 式部職編),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못치기

정의 쇠못이나 대[竹]못을 내리쳐서 상대의 못을 쓰러뜨려 승부를 겨루는 겨울철 아이들의 놀이. 지역에 따라서 못박기, 못따먹기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쇠못이 귀해 나무로 깎은 막대기나 대못을 가지고 주로 놀았기 때문에 나무치기, 말뚝박기, 말뚝놀이, 말뚝치기로도 불렸다.

유래 못치기에 관한 유래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늘날 '못' 하면 쇠못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 본래의 뜻은 끝을 뾰쪽하게 만든 가느다란 물체 곧 쇠못, 나무못, 대못 따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따라서 못치기는 이러한 못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생활용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시기부터 놀이의 한 가지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용 못치기는 주로 겨울철에 양지바른 논이나 땅이 무른 공터에서 청소년들이 즐겨했다. 여기에 사용되는 못의 길이는 10센티미터 남짓한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나무못이나 대못으로 놀이를 할 때는 막대 또는 대나무를 30~40센티미터 크기로 잘라 한쪽 끝을 뾰쪽하게 깎아서 사용한다. 이 놀이는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못치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땅바닥에 적당한 크기로 원을 그린다. 그런 다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못치기를 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다. 이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원 안에 못을 꽂아둔다. 그러면 1등부터 힘껏 못을 내리쳐서 상대의 못을 쓰러뜨리되 자신의 못은 원 안에 꽂혀 있어야 한다. 넘어진 못은 공격자의 것이 되며 성공하면 계속해서 못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상대의 못을 쓰러뜨리지 못하거나, 둘 다 못이 넘어가면 무효가 되어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준다. 지역에 따라서는 원을 그리지 않고 그냥 바닥에서 못치기를 하기도 한다.

지역사례 전남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못치기는 위와는 다소 다르다. 자신의 못으로 상대의 못을 넘어뜨리면 그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쓰러진 못을 겨냥하여 내리친다. 이때 그 못을 맞춰 퉁기면 이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게 기회를 넘겨준다. 물론 그 전에 상대의 못을 쓰러뜨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못이 땅에 꽂히지 않은 경우에도 기회를 잃게 된다.

못치기는 나무나 대나무로 깎은 못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 훨씬 흥미가 있다. 그것은 못이 크기 때문에 내리쳐 꽂는 동작이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상대의 못이 튀어나가는 반발력이 그만큼 커서 놀이하는 재미도 커지는 까닭이다. 충남 금산 지역에서는 이를 '나무치기'라고 하는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각자 나무막대로 깎은 못을 20여 개씩 준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부를 겨룬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못치기를 변용한 놀이도 성행했다. 가령 충남 논산과 부여 지역에서는 땅뺏기의 일종으로도 못치기를 했다. 곧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던져서 바닥에 꽂은 다음 그 거리만큼 금을 그어서 땅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가령 두 사람이 놀이를 할 때는 먼저 바닥에 자기 집을 표시한 다음, 가위바위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 이긴 사람은 자기 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못을 던져서 바닥에 꽂히면 선을 그어서 연결한다. 일단 못박기에 성공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상대에게 기회를 넘겨준다. 이때 한 번에 못을 박을 수 있는 거리는 미리 정하기 나름인데 통상 한두 뼘을 넘지 않는다. 만일, 거리 규정을 어기면 못박기에 성공했어도 무효가 된다. 또 상대가 먼저 선을 연결한 곳은 넘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어느 한 쪽이 길목을 봉쇄하여 더 이상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승부가 난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못치기가 전승하고 있다. 넨카라(ネンカラ) 또는 넷키(ネッキ)라 부르는데, 목넨(木ネン), 금넨(金ネン)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나무로 못치기를 할 때는 주로 동백나무로 깎은 못을 많이 쓰고, 쇠못일 때는 배에 쓰는 못을 사용한다. 이 못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못치기처럼 땅바닥에 꽂아서 쓰러뜨리기를 겨룬다. 그런데 일본의 못치기는 그들의 민간신앙 곧 마을의 수호신인 신사제(神社祭)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출산한 집 앞에서 아이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산실(産室)을 세우기도 한다.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전래 어린이놀이(최상수, 웅진출판, 1989), 論山의 民俗(論山文化院, 1992), 서울民俗大觀3(서울特別市, 1993),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부여의 민속놀이(강성복, 부여문화원, 1994),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과천 민속놀이의 개발(한양대학교 미래문화연구소 · 과천시, 2003).
필자 | 강성복(姜成福)

사냥놀이

정의 주로 농한기인 겨울철에 매나 꿩과 같은 산짐승을 잡는 수렵 활동. 겨울철의 사냥놀이는 매사냥을 포함하여 새매사냥, 개사냥(꿩사냥)이 있다. 함경도에서는 새매사냥을 저리사냥이라고 부른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로 황병산(黃柄山)사냥놀이가 전한다.

유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매사냥이 이어져왔으므로 새매를 사용하는 저리사냥도 그 유래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百濟本紀)」5 법왕(法王) 즉위년(599) 12월조의 "백제 법왕은 영을 내려 살생을 금하게 하고 민가에서 매와 새매를 거두어 놓아주었다."라는 내용에서 매사냥과 함께 새매를 이용한 사냥도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개를 이용해 꿩을 잡는 개사냥도 삼국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종 2년(1420) 1월 15일조의 "(양녕이) …… 무시로 왕래하여 술을 마시며, 활을 쏘며, 고기잡이를 하며, 매사냥, 개사냥, 장기, 바둑 같은 놀이"를 했다는 기록에서 개사냥을 찾아볼 수 있다.

내용 저리사냥은 백로(白露) 후 음력 8월 초부터 음력 10월 초까지 저리 곧 새매를 이용하여 메추리(메추라기, 뫼초리)를 잡는 놀이이다. 새매사냥도 매사냥처럼 전국적으로 행해졌지만 함경도의 저리사냥이 유명하다. 매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저리사냥도 한다. 저리는 매보다 덩치가 작다. 그래서 사냥감도 꿩보다 덩치가 작은 메추리를 대상으로 한다. 저리의 조련 방법은 매의 경우와 비슷하다. 꽁지에는 소리가 잘 나는 방울을 달고, 방울 아래 소유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은 밀납 쪽지를 붙인다. 또 흰 공이새의 꽁지를 붙이면 날 때 흰 것이 번득거려 저리가 가는 곳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매나 저리는 사냥철이 끝나면 방안에서 짐승의 고기를 먹이다가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집 밖에 덕을 매고 키운다. 가을이 되면 다시 사냥을 시작하는데, 매나 저리는 2~3년이 지나면 늙어서 사냥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놓아준다. 이러한 매나 저리를 수진매, 수진저리라고 부른다. 매와 저리로 사냥하는 사람들을 보통 소하치나 매부리라고 부른다.

추위가 빨리 찾아오는 함경도의 경원군에서는 9월 중순 추수가 끝난 다음부터 탈곡까지 약 1개월간이 사냥개를 동원해 꿩을 사냥하는 시기이다. 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서면서 "사냥 가자" 하고 서로 큰 소리를 지른다. 서로 신호하면서 알았다는 뜻으로 "외애액-, 외애액-" 하고 신호한다. 그러면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된다. 지정된 장소(야산)의 반경 8킬로미터 외곽에서 완전 포위하여 차츰차츰 좁히면서 꿩을 날린다. 하늘로 솟아오른 꿩은 다음 고개나 다음 숲속에 내려앉는다. 그러나 이곳에도 마을 사람들이



사계산수도(김두량, 김덕화)
국립중앙박물관

지키고 있다가 내려앉으려는 순간 개를 풀어 꿩을 쫓는다. 이때 꿩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데 그곳에도 역시 마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 세 번이나 쉬지 못하고 떠올랐던 꿩은 기진맥진해 날지 못하고 넝쿨 속이나 구멍에 머리를 처박는다. 이때 개가 달려들어 꿩을 잡는다.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 전해오는 황병산사냥놀이는 산신제를 올리고 나서 행했다. 이 지방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래서 폭설이 내리면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된 산짐승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해쳤는데, 이때 주민들이 창을 이용해 산돼지나 곰을 잡았다.

의의 저리사냥, 개사냥 같은 사냥놀이는 성인 남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진 놀이로서, 산야를 뛰어다니면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매우 흥겨운 겨울철 놀이였으며, 한 해의 농사를 끝낸 후 농한기에 생활의 긴장을 풀고 여유를 가지면서 행하던 취미 활동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世宗實錄, 新北靑面誌(新北靑面誌編纂委員會, 1986), 慶源郡誌(慶源郡民會, 1988),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필자 | 전경욱(田耕旭)

썰매타기

정의 겨울철에 눈이나 얼음판 위에서 아이들이 썰매(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끌거나 미끄러지게 만든 기구)를 타고 노는 놀이 행위. 썰매는 지역에 따라 서르매, 산서르매, 설매라고도 부른다. 한자어 표기 설마(雪馬), 설응(雪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썰매는 눈 위를 말이나 매처럼 빠르게 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종류 및 형태 썰매는 짐을 실어나르는 썰매, 발에 신는 썰매, 아이들이 타고 노는 썰매가 있다. 물건을 실어나르는 썰매는 바닥이 둥글게 휘어지도록 깎고 앞뒤 끝 부분은 위로 향하도록 굽혀 미끄러지기 쉽게 만든다. 좌우에 두툼한 판자를 세우는데, 좌우 판자의 사이는 두 자 정도로 하고 이것을 6~7개 정도의 가로대로 연결한다. 제일 앞 가로대에 끈을 매어 이 끈을 잡아끈다. 이 썰매는 조선시대의 건축 공사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6세기 수원성곽



썰매타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공사에서 썰매 9틀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창경궁, 창덕궁의 재건 공사를 기록한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와 『창덕궁영건도감의궤(昌德宮營建都監儀軌)』에서도 물건을 나르는 도구로서 썰매를 확인할 수 있다.

발에 신는 썰매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100센티미터 전후의 것을 사용하지만, 어린이용으로 50센티미터 정도 되는 것도 있다. 너비는 12센티미터 정도이며 두께는 5센티미터가 보통이다. 썰매의 앞쪽은 스키 부리처럼 위쪽으로 들려지도록 휘어 굽힌다. 중간 네 곳에 구멍을 뚫고 끈을 달아서 발을 죄도록 되어 있다. 창을 스키의 스틱처럼 사용한다. 발은 옆 부리만 고정시키고 뒤꿈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좌우로 회전하거나 제동을 할 때는 뒤꿈치를 쓴다. 이 썰매를 신으면 잡목림 속에서도 움직이기 쉬워 사냥을 할 때 매우 편리하다.

아이들이 타고 노는 썰매는 어린이가 앉을 만한 크기의 판자 밑에 각목을 나란히 붙여 대나무나 쇠줄을 박아 만든 것으로 눈이나 얼음 위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다. 이 썰매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어린이가 앉을 만한 널판의 바닥에 적당한 높이의 각목을 나란히 붙이고, 그 밑에 대나무나 쇠줄을 박아서 눈이나 얼음판 위에서 잘 미끄러지도록 한 것이다. 썰매를 탈 때는

썰매타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2리 송봉화



양손에 기다란 송곳의 막대를 쥐고 이것으로 바닥을 찍어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방향 전환을 하거나 멈추기도 한다.

내용 썰매를 탈 때는 송곳으로 양쪽의 얼음을 찍어가며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고 멈춰서는 동작을 한다. 송곳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썰매의 좌우 양끝에 못이 박힌 주걱 모양의 나무를 붙여서 방향을 바꿀 때 이것을 잡아당기도록 고안한 것도 있다. 눈이 많은 곳에서는 굵은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구부린 다음 댓가지에 양발을 얹어 얼음을 지치기도 한다. 평평한 데서는 썰매 위에 올라앉아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타고, 비탈진 장소에서는 엎드리거나 누워서 탄다. 이때 힘을 적게 들이고 빨리 달리도록 하려면 썰매 바닥의 날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차처럼 여러 어린이의 썰매를 한 줄로 이어 붙여서 밀거나 당기며 놀기도 한다. 눈밭이나 얼음판이 좁은 곳에서는 썰매 자체의 바닥을 높게 하고 나무토막을 앞에 붙여 사용한다. 이는 썰매가 서로 부딪치는 일이 많아 그럴 때 충격이나 위험을 적게 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昌慶宮營建都監儀軌, 昌德宮營建都監儀軌,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창식(李昌植)

잉어놀이

정의 겨울철 제주 지역에서 줄놀이의 형태로 놀던 아이들 놀이.

내용 잉어놀이는 연못의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아이들이 차례로 등을 굽히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아 한 줄로 늘어선 다음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해서 이긴 사람은 늘어선 사람의 등을 밟으면서 지나가도록 한다. 이때 등을 굽힌 사람이 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 등에서 떨어지면 벌을 받게 된다. 기와밟기 놀이와 비슷하다.

이런 놀이의 변형으로 두 줄로 늘어선 후 양손을 내어 방석처럼 상대의 손목을 엮은 다음 그 엮은 손 위로 지나가게 하는 놀이도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벌칙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제기차기

정의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는 놀이.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에 얇고 질긴 종이나 천을 접어서 싼 다음,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 너풀거리게 한 놀이기구이다. 주로 겨울에서 정초에 걸쳐 노는 어린이 놀이이다.

유래 제기는 이미 고대의 공차기인 축국(蹴鞠)에서 비롯된 놀이이다. 제기 또는 제기차기라는 말도 축국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원래 공을 차는 축국을 조선 초기에는 '뎌기'라고 했다가 18세기 이후 '져기' 또는 '졕이'를 거쳐 '제기'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공을 제기로 사용하다가, 공 이 외에 새로이 건(毽), 건자(鞬子), 척건자(踢毽子) 같은 제기가 출현하였다. 특히 척건자는 무거운 물체에 종이나 털을 엮어 만든 아동용 제기였다. 공을 쉽게 구하거나

만들 수 없던 상황에서 아이들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제기가 등장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내기를 위한 엽전제기가 등장하다가 근대 이후 쇠붙이에 플라스틱을 합쳐 만든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축국의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공중으로 높이 차서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이고, 둘째는 땅에 구멍을 파놓고 공을 넣는 방식이다. 셋째는 공문을 만들고 차 넣는 방식이 그것이다. 첫 번째가 주로 민간의 놀이로 행해졌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식은 주로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발달하였다. 제기차기는 이처럼 축국의 발달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온 놀이이다.

우리나라는 제기차기 방식이 주로 성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모두 축국을 즐겼다는 기록이 확인되는데, 특히 신라의 축국 기록에서 확인되는 놀이의 형태는 제기차기 방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기차기 방식의 축국이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놀이문화로 성행했기 때문이다. 축국은 고려 때에 이르러 돼지 방광으로 만든 기구(氣毬)라고 불리는 공기공을 사용하였다.

고려 때까지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놀이였던 축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변화를 맞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 이념의 확산으로 인해 놀이가 곧 잡희(雜戱)로 인식되면서 축국은 아이들의 놀이로 굳어졌다. 그런데 공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새로운 놀이도구인 엽전제기가 출현하였다. 중종 22년(1527) 최세진(崔世珍)이 편찬한 『훈몽자회(訓蒙字會)』에 "건(鞬)을 '뎌기 건'이라 풀이하면서, 소아(小兒)들이 차는 것으로 민간에서는 척건자라 부른다."라고 설명하였다. 종래 죽방울이라고 불리던 공[毬] 이 외에 별도로 건, 건자, 척건자 같은 새로운 제기가 출현한 것이다. 특히 척건자는 무거운 물체 위에 종이나 털을 엮어 만든 아동용 제기였다. 그 결과 축국이라고 불리는 제기차기는 공을 이용한 방식과 척건자를 이용한 방식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제기차기는 조선시대에 아동들의 놀이로 크게 유행하였다. 실제로 조선시대 재상을 지낸 이항복(李恒福)이 어린 시절에 씨름과 축국을 좋아했다는 기록은 이를 잘 증명한다. 제기차기가 아이들의 놀이로 발전한 사실은 19세기에 편찬된 『아희원람(兒戱原覽)』에서 축국 곧 제기를 아이들의 놀이로 소개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제기차기는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가능했으나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즐기는 놀이로 더 발전하였다. 추운 날씨에 집 밖에서 공을 차면서 땀을 내고 체력을 기르며 건강도 유지한 것이다. 이미 신라 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정월 오기일에 축국을 한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제기차기는 조선 후기에는 아예 겨울철 세시풍속으로 정착하였다.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그 같은 사실을 잘 말해준다. 당시 공기공에 꿩의 깃을 꽂아 만들었다고 해서 이를 축치구(蹴雉毬)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는 청년들이 내기 축국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다 보니 아예 엽전제기가 만들어졌다. 소위 돈제기라고 불리는 엽전제기는 내기 축국에 좋은 수단이자 상품이었던 셈이다. 제기차기가 전국적으로 발달한 탓으로 그 칭호도 매우 많았다. 순조 때 편찬된 『재물보(才物譜)』에는 축국이 농주, 답국, 척국, 백타, 건자, 행두, 축융, 원사, 척구, 원정 따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축국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간에서 성행한 제기차기는 근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특히 제기차기는 석전(石戰)과 함께 구한말 서양의 선교사들이 가장 신기해 한 풍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다가 서양의 근대식 축구가 도입되면서 공을 이용한 제기차기 형식의 축국은 점차 사라져 갔다. 그 결과 돈제기만 남은 셈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제기라고 하면 엽전제기를 생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엽전제기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제기라 부르지만, 평안도에서는 테기, 체기, 전라도에서는 재기, 제주도에서는 쪽기라고도 한다.

내용 및 특징 오늘날 제기차기는 축국이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공 대신 제기로 바뀐 형태이다. 제기는 구멍이 뚫린 엽전을 얇은 미농지(美濃紙)로 싸고 종이의 두 끝을 한 구멍의 같은 방향으로 꿰어서 그 끝을 갈래갈래 찢어서 만든다. 헝겊에 흙이나 마른 말똥을 싸서 잡아매고 꿩의 꽁지깃을 꽂아 만들기도 한다. 오늘날은 비닐로 된 상품을 많이 쓴다.

제기를 차는 방법에는 발들고차기, 양발차기, 외발차기, 뒷발차기가 있다.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한 번 차고 땅을 딛고 또 차고 땅을 딛는 제기차기를 땅강아지, 두 발을 번갈아가며 차는 것을 어지자지, 땅을 딛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헐랭이라고 한다. 전남 고흥지방에서는 땅강아지를 땅지기, 어지자지를 양방지기, 헐랭이를 들지기라고 한다. 이밖에 한 번 차서 제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고, 다시 차고 입에 무는 물지기, 키를 넘게 올려 차는 키지기, 차서 머리 위에 얹었다가 떨어뜨려 다시 차는 언지기도 있다.

앞의 여러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미리 정해 차기도 하고, 삼세 가지라고 하여 위의 세 가지를 모두 차서 합계를 내어 승부를 짓기도 한다. 잘 차는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 몇 백까지 차는데, 차올린 제기를 머리 위나 어깨로 받아서 한참씩 다리를 쉬거나 발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이고 발등과 발뒤축 또는 무릎으로 차는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진 쪽에서는 종들이기라는 벌칙을 받는다. 종들이기는 진 사람이 상대의 서너 걸음 앞에서 제기를 발 앞부리에 던지면, 이긴 사람은 이것을 앞으로 멀리 차낸다. 진 쪽이 그것을 잡지 못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제기를 드려야 했다. 이긴 쪽에서는 찬 제기를 잡히거나 헛발질을 하면 죽는데, 이때 진 쪽은 종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차는 쪽에서는 죽지 않으면 혼자서 몇 번이고 차다가 주위에 서 있던 자기편에게 넘기기도 한다. 진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 찬 사람에게까지 종들이기를 한다. 그러므로 종이 된 사람은 상대방이 제기를 차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몸을 손으로 쳐야 했다. 제기를 받은 사람은 종이 된 사람이 치기 전에 제기를 차야 했다. 만일 차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편끼리 제기를 손으로 주고받으며 기회를 본다. 제기를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서울에서는 '와따리 갖따리'라고 한다. 종이 된 술래는 제기를 잡든지 아니면 제기를 잡고 있는 상대편을 몸을 쳐 만져야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들이는 사람은 가능한 제기를 던지는 헛시늉을 하거나 일부러 다른 데로 던져서 상대의 헛발질을 유도한다.

또 세 사람 이상이 찰 때에는 갑이 을에게 차 넘긴 것을 다시 병이 받아 차면서 순서대로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며, 여러 사람이 둥글게 둘러서서 순서 없이 아무나 차기도 한다. 이때에는 헛발질을 한 사람이 종을 들이게 된다.

명차는모양
기산풍속도 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참고문헌 | 嘉林四稿, 高麗史, 大東韻府群玉,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集, 武藝圖譜通志, 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歲時雜詠, 兒戲原覽, 魏書, 才物譜, 朝鮮王朝實錄, 花郎世紀, 海東竹枝, 後周書, 訓蒙字會, 朝鮮武士英雄傳(安自山, 明星出版社, 1919), 朝鮮常識-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시대 抛毬樂의 놀이적 特性에 관한 硏究(심승구·최영란, 體育史學會誌9, 韓國體育史學會, 2002), 한국의 축국(심승구, BESETO. VOL84, 2002), 한국 축구의 도입과 초창기 모습들(심승구, BESETO. VOL84, 2002), 한국의 축국과 그 특성(심승구, 전통과 현대20, 전통과 현대사, 2002), 한국의 놀이(스튜어트 컬린 저·윤광봉 역, 悅話堂, 2003), 공차기를 통해 본 한국인의 놀이문화(심승구, 숨소리, 토지문화관, 2004), 조선무사영웅전(안확 지음·심승구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05), Games of the Orient: Korea, China,

Japan(Culin, Stewart, Philadelphia, USA, 1895), Korean games with notes on the corresponding games of China and Japan, University of Pennsylvania(Culin, Stewart, Philadelphia, USA, 1895).

필자 | 심승구(沈勝求)

지게발걷기

정의 겨울철 제주 지역에서 지게를 이용하여 놀던 아이들 놀이.

내용 및 지역사례 지게발걷기 놀이는 눈이나 비가 온 날 발을 적시지 않거나 눈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놀이로, 몸의 수평을 이루는 것이 놀이의 관건이다. 눈 위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비틀거리면서 하던 놀이가 익숙해지면 마치 묘기를 하는 것처럼 재치 있게 지게발을 이용해서 걸어 다닐 수 있다.

먼저 지게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굵기로 두 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지게발을 만든다. 양손으로는 지게발 나무 꼭대기를 잡고 아래편의 가지에 발을 디뎌 걸어가면 지게 모양의 형태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 대체로 나무는 잘 마르고 단단한 것을 이용해야만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여러 명이 겨루기를 할 수도 있고 둘 또는 혼자서 할 수도 있다. 겨루기 형식으로는 얼마나 쓰러지지 않고 멀리 갈 수 있는가, 누가 빨리 가는가, 서로 밀치기 같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편놀이의 형태로 경쟁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게발 막대의 아래쪽에 발판을 만들어 발을 디디기도 하는데, 지면에서 약 50센티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도록 한다. 놀이를 할 때에는 땅에서 떨어진 자신의 몸이 공중에 올라가 뜬 기분이 되어서, 걸어다닐 때는 마치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누릴 수 있다.

참고문헌 |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축국(蹴鞠)

정의 가죽으로 싼 공을 차고 노는 공놀이. 축국(蹴鞠)은 '격이' 또는 '제기'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축구(蹴毬), 축구(蹴球), 축국(蹴踘), 답국(踏鞠), 척국(踢鞠), 백타(白打), 기구(氣毬), 격구(擊毬), 타구(打毬), 격환(擊丸), 농주(弄珠), 건자(鞬子), 행두(行頭), 축융(蹙戎), 축융(蹙融), 원사(圓社), 척구(踢毬), 원정(圓情) 같이 다양한 용어로 불렀다. 공을 가지고 노는 놀이라 하여 희구(戱毬)라고도 불렀다.

유래 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전한(B.C. 206~A.D. 8) 때 유향(劉向)이 편찬한 『별록(別錄)』에 의하면, "황제가 만든 것으로 군대 병세(兵勢)의 기본이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설에는 "축국이 전국시대에 시작하여 무사들을 훈련시켜 재주 있는 자를 알아냈다."라고 한다. 그런데 황제가 만들었다는 기록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전국시대에 축국이 행해졌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된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제(齊)나라 사람들이 답국(축국)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축국이 이미 전국시대(B.C. 403~B.C. 221)부터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축국은 한대(B.C. 202~A.D. 220)에 이르러 더 발전하여, 반고(班固)가 편찬한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축국 25편'이 실려 있다. 현재 이 내용은 전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축국이 체계화된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한나라 때의 축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국역(鞠域)이라고 불리는 경기장의 양편에 여러 개의 구멍을 파놓고 공을 차 넣는 형태였다. 특히 한의 고조는 국성(鞠城)이라 하여 왕궁 안에 장방형의 담장을 쌓고 그 안에 국역을 만들어 축국을 하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별도의 경기장 없이 공을 높이 차 올려 오래 차는 형태였다. 전자가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발전한 놀이로 오늘날 축구의 원시적 형태에 가깝다고 한다면, 후자는 주로 왕실을 비롯한 귀족들의 놀이 형태로 제기차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공차기였다.

축국은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당대(618~907)에 들어와 더욱 발전하였다. 종래 경기장 안의 구멍에 공을 차 넣는 형태의 축국을 변경하여 구멍 대신 그물망을 얹은 골대를 세우고 공을 차 넣는 형태의 축구(蹴毬)를 개발하였다. 당나라 때에 새로운 형태의

축구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당시 서역에서 폴로(Polo)가 전해짐에 따라 그 경기 방법을 응용하여 종전의 축국을 변형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폴로가 도입됨에 따라 당나라 때에는 축국 이 외에 새로이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격구[打毬, 馬毬]가 성행하였다. 이로써 당나라부터 오늘날 축구와 비슷한 형태의 축국이 시작하였다.

당나라 때 축국이 발전하게 된 까닭은 전국시대 이래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서 여전히 중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당시 군사 훈련의 핵심은 바로 진법 훈련이었다. 진법은 전시를 대비하여 군사들이 일정한 대형을 이룬 상태에서 나아가고 물러서며 앉고 서는 진퇴좌작(進退坐作)의 훈련을 말한다. 공차기를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면서 가능한 공수(攻守)의 일정한 진법 대형을 유지하는 놀이형식의 훈련이 바로 축국의 장점이었다. 바로 오늘날 현대 축구에서 4-4-2, 4-3-3과 같은 전술은 사실 그 옛날 진법 대형의 연장선상에 있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당나라에는 후한 이래 행해진 제기차기 형태의 축국도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제기차기 형태의 축국은 군사 훈련의 목적과는 달리 왕실이나 귀족은 물론 문인들의 놀이로 발달한 특징을 지닌다. 실제로 함통(860~873) 연간에는 중국의 과거시험에 새로 합격한 진사들이 함께 모여 축국을 했다는 기록에서 그 인기를 짐작할 만하다. 중국에서 일찍부터 축국이 성행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축국의 가장 오랜 기록은 신라 29대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가 김유신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최근에 종전보다 100여년 이상 앞선 시기에 행해진 축국 기록이 발견되었다. 신라 화랑들의 역사를 기록한 김대문의 『화랑세기(花郎世紀)』에 따르면, 신라 23대 법흥왕이 누이(보현공주)의 아들인 영실공과 함께 궁궐 안뜰에서 축국을 한 기록이 보인다. 『화랑세기』는 6세기 초 신라에서 축국이 시행된 사실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라의 축국이 당나라 이전에 시행된 사실을 말해주며, 일본의 축국 기록이 7세기 중엽에 처음 보이는 점과도 비교된다.

하지만 실제로 축국이 한반도에서 시행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다. 『후한서(後漢書)』「고구려전(高句麗傳)」의 "바둑과 투호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축국에 능하였다."라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후한 때의 기록에서 고구려의 축국을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고구려의 축국은 1세기에서 늦어도 3세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실은 한국 축국의 역사가 적어도 2천여 년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고구려 사람들이 축국에 능했다."라는 기록은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시기에 고구려에서 축국이 널리 시행되었음을 시사한다. 백제에서는 축국을 농주(弄珠)라고 불렀다.

삼국시대의 축국은 통일신라와 발해로 이어졌다. 그 같은 사실은 발해의 풍속이 고구려와 같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다만 이 시기에는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가 크게 성행한다. 통일신라 때 격구 채를 든 무신상이 발견되는가 하면, 발해가 822년 일본에 사신을 보내 격구를 선보인 기록이 그것으로 이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축국보다는 격구가 유행했음을 뜻한다. 이 시기에 축국이 잘 확인되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격구가 성행한 점과 관련이 있다. 축국은 보병들이 진법을 익히는 수단 또는 귀족들의 놀이 수단이었다. 반면 격구는 기병들이 기병술을 연마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격구의 발달은 보병들의 훈련인 축국을 위축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기병술의 연마를 위해 발달한 격구는 이후 후삼국을 거치며 더욱 발달한 듯하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인 태조 원년(918), 수도인 개경에 격구장을 설치한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격구의 발달 때문인지 축국과 관련된 기록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도 축국은 행해졌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축국과 관련한 기록이 등장한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고 가죽으로 감싼 공인 기구(氣毬)를 차고 놀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려시대에 축국이 민간을 중심으로 성행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고려의 국방 체제는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한 북방민족에 대비하여 궁술과 기병술을 연마하는 것이었다. 보병들의 군사 훈련으로 축국이 갈수록 군사 훈련과 멀어져간 반면, 마치 오늘날 탱크부대와 같은 기병술을 연마하기 위해 격구는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었다. 기마 격구의 발달은 땅위에서 공을 차는 축국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듯하다. 축국은 대신 민간의 놀이로 발전해 나갔다. 그 결과 진법 훈련의 일환인 축국은 점차 사라지고 제기차기 형태만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새로운 공놀이로서 포구(抛毬)와 타구(打毬)가 도입되었다. 포구는 송나라에서 도입한 포구락(抛毬樂)이라는 궁중무용 속에 포함된 공 던지기 놀이였다. 또한 원 간섭기에는 타구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기병술과 궁술 위주로 훈련이 집중되는 추세 속에서 축국은 군사 훈련에서 사라졌다. 더구나 성리학 이념의 확산으로 놀이가 곧 잡기(雜技)로 인식되면서 축국은 아이들의 놀이로 정착되었다.

한 예로 조선 중기의 재상 가운데 한 사람인 백사(白沙) 이항복이 서울에 살면서 어린 시절에 씨름과 축국을 좋아했다는 기록은 이를 잘 증명한다. 축국이 아이들의 놀이로 발전한 사실은 19세기에 편찬된 『아희원람(兒戱原覽)』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로 발달하기 시작한 축국은 공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새로운 놀이도구인 엽전제기가 출현하였다. 그 결과 축국은 공을 이용해 만든 제기차기와 엽전을 이용한 제기차기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축국은 어디에서나 아무 때나 가능했으나, 주로 겨울에서 봄 사이에 즐기는 놀이로 더 발전하였다. 추운 날씨에 집 밖에서 공을 차면서 땀을 내고 체력을 기르며 건강도 유지했던 것이다. 이미 신라 때 김춘추와 김유신이 정월 오기일에 축국을 한 것도 그 같은 이유인 듯하다. 그래서인지 축국은 조선 후기에는 아예 겨울철 세시풍속으로 정착하였다. 19세기 중엽에 편찬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축국이 겨울철의 전국적인 세시풍속이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당시 공기공에 꿩깃을 꽂아 만들었다고 해서 축국을 축치구(蹴雉毬)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축국이 전국적으로 발달한 탓으로 이를 부르는 이름도 매우 많았다. 순조 때 편찬된 『재물보(才物譜)』에는 축국을 농주, 답국, 척국, 백타, 건자, 행두, 축융, 원사, 척구, 원정 따위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 축국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용 및 특징 축국은 원래 공차기를 포함하여 공놀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한 용어였다. 그러한 사실은 송나라 때 편찬된 『상소잡기(緗素雜記)』에 "대개 축국(蹴鞠)이 갈려나간 파(派)가 두 가지이니, 기구(氣毬)는 공[鞠]을 발로 차는 것이요. 격구(擊毬)는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확인된다. 실제로 당나라의 채부(蔡孚)가 "타구(打毬)는 옛날의 축국(蹴鞠)이다."라고 한 것이나, 백제인이 축국(蹴鞠)을 농주(弄珠)라고 부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축국을 이해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축국의 개념에 대해 혼선을 빚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차기 놀이는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그 가운데 축국은 삼국시대 이래 한국 공차기의 전통을 지켜온 대표적인 놀이이자 스포츠였다. 축국은 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운동장 양 끝에 구멍을 파놓고 공을 넣는 형태 둘째, 운동장 양쪽에 설치된 공문에 공을 넣는 형태 셋째, 오늘날 제기차기와 같은 형태가 있다. 첫째와 둘째는 주로 군사들의 전술 훈련과 관련된 축국이었던 데에 반해, 셋째 형태는 민간에서 놀이 형식으로 크게 발달하였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축국은 제기차기 위주의 공차기로 발달하였다. 제기차기 형태의 축국은 공을 공중으로 높이 차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받아 차는 형식이었다. 그 형식은 혼자서 공을 차는 것을 1인장,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차는 것을 2인장, 세 사람, 네 사람이 마주서서 차는 것을 3인장, 4인장이라 하며, 가장 많게는 9명이 참가하는 9인장까지 있었다. 둥그렇게 원으로 서되 일정한 순서대로 서로 번갈아 돌려가며 차는 경기로서 공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 진다.

축국은 아이에서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행하였는데, 주로 마을의 공터나 도시의 큰 거리에서 행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은 축국을 하면서 내기놀이로 즐겼다. 축국은 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돼지 오줌보로 공을 만드는 것 이 외에 농촌에서는 추수를 한 후에 짚으로 만들어 차기도 하였다. 당시 축국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모양이다.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 의하면, "왼다리로 차 공중에 올리고 바른 다리로 땅에서 받아 차니, 원앙(鴛鴦) 같은 두 다리로 차는 법이 신묘(神妙)한 지경에 이르렀구나. 공[毬] 하나를 천금(千金)으로 살 수 없고, 오히려 장가(張家)보다 나은 것을 어찌 할 수 없구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보병들의 군사 훈련 위주로 발달했던 축국은 점차 기병 훈련이 강조되고, 병기 무예 위주로 보병 전술이 강조되면서 그 기능성을 잃은 듯하다. 그 대신 축국은 민간 놀이로 발달해 왔다. 그러한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일본의 게마리(蹴鞠)는 축국의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세팍타크로(Sepaktakraw)도 제기차기 형태의 공놀이로서, 다르게 발전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축국은 조선 말기까지 겨울철 세시풍속으로 가장 신나는 아이들의 놀이였다. 구한말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보고 가장 신기해 한 것이 바로 제기차기라 불린 축국과 석전(石戰)이었다. 그러나 19세기말 서양의 근대식 축구가 도입되면서 공을 이용한 제기차기 형식의 축국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 결과 돈제기만 남은 셈이다. 오늘날 한국에서 제기라고 하면 엽전제기만을 생각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참고문헌 | 嘉林四稿, 高麗史, 大東韻府群玉, 東國歲時記, 東國李相國集, 武藝圖譜通志, 別錄, 北史, 史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緗素雜記, 歲時雜詠, 兒戲原覽, 魏書, 才物譜, 朝鮮王朝實錄, 漢書, 海東竹枝, 花郎世紀, 後周書, 朝鮮武士英雄傳(安自山, 明星出版社, 1919), 朝鮮常識-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조선시대 抛毬樂의 놀이적 特性에 관한 硏究(심승구 · 최영란, 體育史學會誌9, 韓國體育史學會, 2002), 한국의 축국(심승구, BESETO. VOL84, 2002), 한국 축구의 도입과 초창기 모습들(심승구, BESETO. VOL84, 2002), 공차기를 통해 본 한국인의 놀이문화(심승구, 숨소리, 토지문화관, 2004), 조선무사영웅전(안확 지음 · 심승구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05).
필자 | 심승구(沈勝求)

팽이치기

정의 겨울철에 눈이나 얼음판 위에서 아이들이 팽이를 돌리며 노는 놀이. 조선 숙종 때 편찬된 『역어유해(譯語類解)』나 정조 때 편찬된 한어 · 만주어



사전인 『한청문감(漢淸文鑑)』에는 팽이를 '핑이'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핑이는 어떤 물체가 빙빙 돈다 또는 핑핑 돈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17세기 말까지는 팽이를 핑이로 부르다가 그 이후에 팽이라고 부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팽이를 평안도에서는 세리, 세루, 함경도에서는 봉애, 방애, 경상도에서는 뺑이, 핑딩, 전라도에서는 뺑돌이, 제주도에서는 도래기로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팽이라는 말이 통용하고 있다.

유래 팽이치기는 도토리나 상수리 따위를 돌리며 장난한 놀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만 그 유래가 정확하지는 않다. 통상적으로 중국 당나라 때 성행하였던 것이 신라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보고 있다. 일본 나라(奈良) 때의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신라에서 팽이가 유입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바, 신라 성덕왕 때에 이미 팽이치기가 행해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팽이를 고마(高麗)라고 한다.

종류 및 재질 팽이는 둥근 나무토막의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아 채로 치거나 끈을 몸체에 감았다가 풀면서 돌리는 어린이의 장난감을 말한다. 팽이의 종류는 그 생김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원추형으로 아랫부분을 점차 뾰족해지도록 만든 말팽이가 가장 보편적이다. 그 밖에도 위아래 양쪽을 뾰족하게 깎아서 양쪽 모두 돌릴 수 있도록 만든 장구팽이, 상수리나무 열매로 만든 상수리팽이가 있다. 팽이는 주로 소나무의 관솔이나 박달나무, 향나무, 팽나무와 같이 무겁고 단단한 나무를 깎아 좌우 대칭이 되게 만든다. 그 밖에도 대나무, 금속, 유리로 만들기도 하며 동전이나 단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팽이에 오색을 넣거나 기름을 바르기도 하는데, 팽이의 끝에는 작고 둥근 뿔이나 못(총알)을 박아서 오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이 팽이를 직접 깎아 만드는 것 자체도 놀이가 된다.

한편 팽이를 치는 채는 40~50센티미터의 싸리나무 같은 막대기 한 끝에 40~50센티미터의 끈을 달아 만들며, 이를 가지고 팽이가 도는 방향으로 때리면 빠른 속도로 오래 돈다. 끈으로는 헝겊이나 닥나무껍질이 이용된다.

내용 팽이치기의 놀이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중심축을 통해 동체가 회전운동을 하도록 한다. 혼자서 하거나 여럿이 하지만 여럿이 노는 경우에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오래 도는 내기를 많이 한다. 팽이를 누가 더 오래 돌리는지 겨루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놀이 방법이다. 놀이 장소는 주로 마당이나 골목이며, 얼음 팽이치기의 경우 공간은 따로 없고 겨울의 강가, 연못, 논바닥의 얼음판에서 한다.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팽이를 잘 돌리려면 팽이채를 적절하게 쳐주어야 한다. 팽이를 손으로 돌린 다음 팽이채로 쳐서 계속 돌아가게 한다. 멀리 던져 돌리기는 팽이끈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지런히 감은 다음 바닥에 힘차게 던지는 놀이다. 이 외에도 목표지점을 설정해놓고 팽이 허리를 쳐서 빨리 돌아오기, 돌고 있는 팽이를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팽이를 쓰러뜨리는 싸움놀이, 아래위에 심이 박힌 팽이를 팽이줄로 감아 머리위로 또는 팔을 옆으로 비켜서 마치 야구공을 던지듯이 팽이를 던져 돌려 서로 맞부딪치게 하는 팽이찍기가 있다. 이때 팽이가 먼저 쓰러지면 지게 된다.

의의 오늘날 다양한 놀이문화가 발달하면서 여느 전통놀이가 모두 그렇듯이 전통적인 형태의 팽이치기 역시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팽이치기는 눈과 손, 눈과 팔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성의 법칙 같은 자연의 원리나 법칙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 팽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팽이치기를 통해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譯語類解, 日本書紀, 漢淸文鑑,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의 遊戱民謠(李昌植, 집문당, 1999).
필자 | 이창식(李昌植)

물레질노래

정의 물레에서 실을 자아내며 부르는 노래. 지역에 따라서는 물레질소리, 명(미영)잣는소리, 실잣는소리, 물레타령이라고도 한다. 보통 한가한 겨울 동안 물레로 실을 자아서 베짜기 준비를 한다.

내용 물레는 고려 때에 문익점(文益漸)이 중국 원(元)에서 목화를 가져온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며, 물레질노래도 이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레질노래는 부녀자들이 목화에서 실을 뽑기 위하여 물레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작업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따라서 지루하고 힘든 일의 고통을 해소하고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로 부른다. 베짜기노래처럼 물레의 구조를 노랫말로 엮어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부녀자의 시집살이에 대한 심회를 호소하거나 잠을 없애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가창 방식은 단체로 물레질을 할 경우에는 선후창 방식을 취하지만 대개는 독창형식으로 부른다. 선후창일 경우의 노랫말은 지역의 대표적 노래(전라도의 경우에는 흥타령이나 산아지타령, 함경도의 경우에는 신고산타령)의 후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독창의 경우 음영조의 소리를 많이 부른다.

목화 농사가 주로 남도지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레질노래도 남도에서 널리 성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목화 재배법이 발달하여 전국적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널리 분포되어 있는 노랫말은 물레질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지역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물레 부분품에 대한 지방 언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 노랫말은 물레가 잘 돌기를 바라는



단원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마음을 표현한 것과 잠을 쫓는 말, 시집살이에 대한 고통을 하소연한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물레가 잘 돌기를 바라며 부르는 노래는 대개 물레의 부분품 명칭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물레에는 물레의 기반이 되는 물레바탕과 괴머리바탕이 있고 이 둘을 연결하는 가롯대, 물레줄이 있다. 물레바탕 위에는 물레살, 손잡이(회젖), 꼭지(두)마리(손잡이의 힘을 굴뚱에 전달함), 굴뚱(물레살을 유지하는 줄), 동줄(물레살을 연결하는 줄)이 있다. 괴머리바탕에는 실을 뽑아 감는 두 가락 가락토리, 고동이 장치되어 있다. 물레살은 전후방에 각 4개씩 있어 물레질노래에서는 보통 팔형제라 표현된다. 굴뚱(궁걸동)은 좌우에 하나씩 있으며, 물레줄은 무지개처럼 반원을 그리고 있다. 가락토리는 물레질노래에서 '춘삼월 붉은 달에 구름이 떠도는 모양'으로 비유된다.

이들 부분품이 삐걱거리면 일이 더디게 진행되어 시어머니한테 꾸중을 듣게 된다. 그래서 물레질노래에는 물레가 잘 돌기를 바라는 마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노랫말이 많다. 그리고 물레가 잘 돌아가서 빨리 일을 마치고 임을 보러 가기를 바라는 처녀의 그리움도 물레질노래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마음이 나타난 물레질노래는 아래와 같다.

물레야 물레야 어리빙빙 돌아라
남으 집 귀동자 밤이슬 맞는다
저 달 뒤어는 새별이 딸코
우리 님 뒤에는 내가 딸네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지루하도록 반복되는 물레노동은 필연적으로 잠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잠을 물리치려는 노력이 눈물겹도록 표출되곤 한다. 아래에 제시된 노래들은 인간과 자연을 잠을 통하여 하나로 묶는 비유의 세계가 잘 형상화하고 있다. '잠 - 시어머니의 꾸중 - 임의 사랑 상실'이라는 연쇄적 상황을 설정하여 잠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물레질노래의 노랫말은 대개 "물레야 빙빙 잘 돌아라"로 시작되나, 잠노래는 "잠아 잠아 오지 마라"로 시작한다.

잠아 잠아 오지 마라　　시어머니 눈에 난다
시어머니 눈에 나면　　임의 눈에 절로 난다
요내 눈에 오는 잠은　　말도 많고 숭도 많다
잠오는 눈을 쏙 빼어다　　탱자낭게다 걸어놓고
들며 보고 날며 보니　　탱자나무도 꼬박꼬박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아래의 노래는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끅끅"을 의성어로 흉내 내면서 동시에 이 소리를 시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어 목이 잠긴 가창자의 심정으로 연결하여 골계미를 자아내고 있다.

물레야 돌아라 살살 돌아라 끅끅
시어머니 알면은 매맞갔구나 끅끅
아이고데고 성화로구나 끅끅
물레가락은 패뱅팽 도는데 끅끅
기지개만 살살나누나 끅끅
고초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끅끅

(황해도)

의의 물레질노래는 여성 길쌈노동요에 해당하면서 물레질하는 여성의 삶과 정서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노래이다. 특히 물레의 구조를 소재로 하여 기억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물레질에 관한 교육적 효과도 거두고 있다. 그리고 부녀자들의 문학적 상상력이나 비유적 표현이 매우 뛰어난 노래가 많아 대체적으로 문학성이 높다.

참고문헌 | 韓國民謠集 I (任東權 編, 集文堂, 1993), 영남의 소리(김기현 · 권오경, 태학사, 1998),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최상일, 돌베게, 2002), 한국 구연민요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속원, 2004).

필자 | 권오경(權五慶)

베짜기노래

정의 베를 짜거나 심심할 때 베틀의 구조를 소재로 하여 부르는 노래. 베틀가, 베틀노래라 하기도 한다.

유래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 부녀자들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길쌈내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삼한시대부터 이미 베틀을 사용했으며, 이때부터 베짜기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베짜기노래의 노랫말과 가창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특히 영남 지역의 베짜기노래의 노랫말은 대개 천상에 놀던 선녀가 죄를 지어 지상에 내려왔는데 심심하여 베틀을 만들고 베를 짠다는 줄거리를 가진다. 그리고 노래의 끝은 서울 간 남편이 죽어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베짜기노래에는 부녀자들의 현실적 고통과 그 고통을 벗어나고픈 세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노랫말 엮음 방식은 베틀을 구성하는 각 부분품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서사구조를 지닌다. 부르는 방법은 음영조의 독창 형식이 일반적이다.

베짜기노래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가 비교적 잘 전승되는 곳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일대이다. 베짜기노래는 지역적 차이가 크게 없다.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대표로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하날우에 옥황선녀 천시강 내려와서
심심하여 할일이 없어 세폭 한 필을 잦으려니
세폭 한 필을 짤라꼬 하니 베틀이 없어서 못짜겠네
뒷동산 치여달여 달 속에 계수나무
동에 동창 뻗은 가지 베틀 한 쌍을 놓겠구나
……(중략)……
노세 노세 배틀 놓세 옥낭간에다 베틀노세
베틀다리는 사형제요
앞다리를 돋이놓고 뒷다리를 낮이놓고
가르세를 쇠를 질러 앉히키를 높이놓고
그게 앉인 저 옥녀는
우리나라 금상님의 용상잡이도 앉인 듯이
저게 걸린 저 빗대도 절로 솟아
저 봉들이 허래앉게도 둘린 듯이
말코라 감기는 양은 삼대독재야
외동의 아들 밍줄 복줄을 감갠 듯이
굽이 굽이 청청 잘 감갠다
……(중략)……
비개는 육형제라 홍무연나
높으나 잔채 배푸잔도 들른 듯이
살금살금 사친대는 창칼로도
애운듯이 대칼로도나 애운 듯이
살금살금 질만치네 길을 채우야 비를 짜지
용두머리 우는 양은 새벽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럭아
한양 성내 가시거던 우리 낭군님이 서울 간 적에
석삼년이 다 와도 편지 한 장 못전했네
……(중략)……
저게 오는 저 선부요 우리 선부 안오데꺼
오기사 오지마는 칠성판에 누어오네
아이고 답답은 내 일이야
갑사댕기 디랜 몸에 흰댕기가 웬말이오
……(중략)……
원술러라 원술러라 서울 과게도 원술러라
천상 베필이 아일런가 세상연분이 아일런가
여보 정 할 대는 백년 살자고 하였더니
죽단 말이 웬말이오

(경북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예부터 베 특히 비단은 매우 중요한 신화적 상징을 지닌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1 연오랑세오녀(延烏郎細烏女) 설화에서도 '비단[細綃]'은 사라진 신라의 해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대체물이다.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駕洛國記)에서도 김수로왕을 만나는 허황후가 처음 육지에 상륙하여 한 것이 '비단바지[綾袴]'를 걸고 산신제를 지낸 것이다. 이처럼 '베-비단'은 하늘과 닿는 신성한 존재였다. 이러한 인식이 베짜기노래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베를 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베짜기 노동은 매우 힘들고 그 결과물인 베는 귀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베짜기노래의 노랫말을 구성하는 부분품과 비유되는 표현을 살펴보면, 가로대(가로새)와 앉을깨는 '금상님의 앉은 모양', 북은 '청새 옥새가 앞뒤로 날아드는 듯', 도투마리는 '청룡, 황룡, 노룡이 구비치는 소리', 바디 소리는 '옥황상제 바둑, 장기 두는 소리'이다. 이에서 보듯이 지상의 세계보다는 천상의

세계와 관련한 소재가 많으며, 지상의 것이라 해도 역사적으로 위대하거나 신비한 대상, 아름다운 모양을 소재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베짜는 작업은 작은 공간에서 지루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상상의 세계는 넓고 화려하게 전개된다. 이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게 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밖에 베짜기노래의 노랫말에는 아래에 제시된 두 노래처럼 첩(시앗)이나 시누이의 죽음에 따른 기쁨을 드러내거나 베짜는 처녀의 모습을 묘사한 것도 있다.

……(전략)……

하늘에다 베틀을 놓고　　구름을 잡어 잉애 걸고
알그당 딸그당 짜노란께　　편지 왔네 편지 왔네
앞문으로 받어딜에　　뒷문에서나 피어나 봉께
시앗 죽은 편지로세

……(후략)……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하늘에다 베틀 놓고　　구름 잡어 잉애 걸어

……(중략)……

그 베 짜서 멋 할랑가　　우리 오빠 장개가면



단원풍속화첩 국립중앙박물관

청포도포 지을라네　　물멩지 단속곳 치매
포두집 바람에 팔랑팔랑　　박속같은 저네 살성
장부 간장 다 녹겄네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또한 이러한 베짜기노래 외에 다음과 같이 중중모리 장단에 맞춘 신식 베짜기노래도 있다. 유희요에 해당하는 노래로 놀이판에서 주로 부른다.

오늘도 하심심하여 베틀 노래나 불러나볼까
에헤야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띄누나
낮에 짜며는 일광단이요 밤에 짜며는 월광단이지
일광단 월광단 다 짜 가지고
정든 님 와이셔츠나 하여서 드릴까

(경남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의의 베짜기노래는 원래 베틀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여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베짜기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는 부녀자들이 고달픈 현실을 잊고 신화적 상상의 나래를 펴며 현실을 잠시 이탈할 수 있다. 베짜는 부녀자는 천상의 선녀와 등가성(等價性)을 가지기 때문이다. 베짜기노래는 베짜는 일과 이를 소재로 한 노래를 결합시킴으로써 노래의 전승을 강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문학적 형상화에 성공한 노래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4), 영남의 소리(김기현 · 권오경, 태학사, 1998).

필자 | 권오경(權五慶)

갯 겨울 가뭄에 김 고장으로 딸 시집보낸다

정의 겨울 가뭄으로 흉작이 되어 고생인데 시집까지 김 고장에 보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전남 해안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속담이다. 예부터 남해안 다도해 지역은 전국 제일의 김[苔] 생산지로 유명하다. 그것도 양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대량 채취함으로써 어획에 못지않은 어촌의 경제 작물로 꼽히고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속담이다. 시집살이도 고생스러운데 가뭄 든 김 재배 고장으로 시집을 가서 고생이 더 심하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濟州俗談總論(高在奐, 민속원, 2001).
필자 | 김기형(金基珩)

겨울 가죽옷이다[冬日麑裘]

정의 시기에 알맞은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거나 때를 잘 맞춘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중국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의 사상가인 한비(韓非)가 쓴 『한비자(韓非子)』 권19 「오두(五蠹)」에 요임금[堯王] 시대의 일을 말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지붕을 띠로 잇고 가지런히 자르지 않았으며, 통나무로 된 서까래를 다듬지도 않았다. 궂은 쌀과 피로 지은 밥과 명아주의 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먹었다. 겨울에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든 옷[冬日麑裘]을 입었으며, 여름에는 칡으로 짠 옷[夏日葛衣]을 입었다. 비록 문지기의 의복과 음식일지라도 이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겨울 가죽옷', '여름 갈포옷'이란 말이 나왔는데, '때에 알맞은 물건' 또는 '때를 잘 맞추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유사속담 "겨울 털옷이요 여름 갈포옷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 역시 시기에 알맞은 물건 또는 때를 잘 맞췄다는 뜻으로 쓴다.

참고문헌 | 新譯 韓非子(南晩星 譯註, 玄岩社, 1975),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최운식(崔雲植)

겨울 날씨와 양반은 한갓 고달이 있다

정의 마냥 순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한 가지 성질은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의 속담.
내용 한갓은 한 가지라는 뜻이고, 고달은 거만을 떠는 것이라는 의미로, 겨울 날씨는 따스하다가도 갑자기 추워져서 매운 날씨가 되고 양반은 순한 것 같으나 성질을 내면 사납다는 뜻이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사람이 무섭게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릴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김기형(金基珩)

겨울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

정의 겨울 날씨는 변화가 심하여 믿기가 어렵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겨울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변하여 기온이 뚝 떨어져서 찬바람이 불기도 하고 눈이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겨울 날씨 좋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겨울 날씨와 늙은이의 근력 좋은 것은 모른다."가 있다. 이것은 겨울 날씨와 늙은이의 건강은 변하기 쉽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겨울 날씨와 여자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다. 여자의 마음은 변하기 쉽다는 것을 자주 변하는 겨울 날씨와 대응시켜 하는 말이다. 겨울을 가을로 바꾸어서 "가을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라고 하기도 한다. 이것은 가을 날씨도 변화가 심하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가을 날씨 좋은 것과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가을 날씨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가을 날씨와 사내 마음은 모른다."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운식(崔雲植)

겨울 따슨 해 보리 굼벵이 자른다 (저슬 뜨슨 헤 보리 굼벵이 쯔른다)

정의 겨울철에 기온이 높아 따뜻하면 애벌레가 보리농사를 망쳐서 그해는 흉년이 들기 십상이라는 제주 지역의 속담.
내용 농사는 날씨와 관련이 깊어서 날씨에 따라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예언하는 속담들이 많은 편이다. 제주에서 보리는 주된 양식이었다. 따라서 보리농사는 그해의 살림살이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생업이어서, 겨울철의 보리 성장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관심이 깊었다. 비료가 없던 시절, 돼지우리에서 마당으로 돗거름을 낸 후 거름과 보리씨앗을 섞어서 밭에 뿌리기 때문에 거름 속의 병충해가 보리에 해를 입히기 십상이다. 겨울철에 기온이

높아 온도가 따뜻하면 애벌레의 번식이 커서 보리뿌리를 갉아 먹게 되고 보리농사를 그르치는 수가 많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濟州道歲時風俗-(진성기, 敎學社, 1981).
필자 | 좌혜경(左惠景)

겨울바람이 봄바람보고 춥다고 한다

정의 제 허물이 큰 줄을 모르고 도리어 남의 작은 허물을 들어 트집 잡고 흉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봄바람이 아무리 춥다고 하더라도 겨울바람이 더 춥기 마련이다. 그러니 겨울바람이 봄바람을 춥다고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겨울바람이 봄바람을 춥다고 하는 것이니,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단점을 들추어내는 사람을 비유하여 사용하는 속담이다.
유사속담 유사속담으로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똥 묻은 접시가 겨 묻은 접시를 흉본다.", "쌍언청이가 외언청이 타령한다.", "언덕에서 자빠진 돼지가 평지에서 자빠진 돼지를 나무란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김기형(金基珩)

겨울밤이 길다 해도 내 새끼끈만은 못하다

정의 동지섣달 밤이 아무리 길다 해도 농부가 밤늦게까지 꼰 새끼줄의 길이만큼은 못하다는 뜻이니, 농부들이 추운 겨울밤에도 늦도록 새끼를 꼬는 일들로 인해 일손이 쉬지 않음을 이르는 속담.
내용 봄의 파종부터 가을의 수확에 이르기까지 농사일로 바빴던 농부들은 겨울 농한기(農閑期)가 되어도 일손을 놓지 않는다. 겨울밤 늦게까지 이듬해 농사에 쓸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며, 짚신이나 망태기를 삼기도 한다. 때로 동네 사랑방에 모여 한담(閑談)을 나누면서 새끼를 꼬느라 긴 겨울밤을 새는 경우도 있다. 겨울밤의 길이가 실감나는 문학적 표현으로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라는 황진이의 시조가 있다. 이렇듯 겨울밤이 길어도 농부가 꼰 새끼의 길이보다 짧다는 뜻이니, 농한기에도 쉴 틈이 없는 농부의 노역이 얼마나 고된 것인가를 말해 주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겨울 베옷도 안 입은 것보다 낫다

정의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겨울에 베옷을 입는 것은 추위를 막아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입지 않는 것보다는 베옷이라도 입는 것이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속담은 변변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의의를 인정할 때 사용한다.
유사속담 유사속담으로 "굵은 베옷도 없는 것보다 낫다.", "누더기 옷도 없는 것보다 낫다."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필자 | 김기형(金基珩)

겨울 보리밭은 밟을수록 좋다

정의 겨울에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하면 보리밭에 서릿발이 생겨서 뿌리가 말라죽게 되므로, 보리를 자주 밟아주어 착근(着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우리나라의 보리농사는 이모작에 의한 겨울보리가 대부분이다. 봄철에 논에다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고 가을이면 벼를 거둔 그 땅에 다시 보리를 심어서 이듬해에 거두는 이모작 방식은 이미 조선시대 이래로 농경의 근간이 되어왔다. 따라서 겨울

보리는 겨울 추위를 밭에서 견뎌야 한다. 겨울동안 서릿발로 인해 보리 뿌리가 떠오르거나 말라죽는 것을 막고 보리가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보리를 밟아주어야 한다. 겨울의 보리밟기는 더러 보리의 순(싹)을 밟고 부러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토양 속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함으로써 결국은 보리를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속담에는 겨울의 보리밟기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2(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겨울 새벽에 개똥 줍는다

정의 예전에는 겨울 새벽이면 농민들이 인가 근처를 돌아다니며 개똥을 주워 모아 거름으로 썼다는 의미의 속담. 이듬해 농사를 위해 농한기인 겨울에도 부지런히 준비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내용 농사는 거름을 만족스럽게 주어야 수확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거름을 많이 장만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거름더미는 쌀더미이다.", "한 사발의 밥은 남에게 주어도 한 삼태기의 재는 주지 않는다."라는 옛말들을 통해서 농가에서 거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농민이 그것을 장만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인분뇨와 퇴비, 소똥[廐肥], 재를 주로 거름으로 썼다. 그것으로 부족할 경우에 개똥도 주워서 두엄간에 보탠다. 개똥은 밭거름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그대로 뿌리거나 물 또는 분뇨에 섞어서 썼다. 특히 참외밭에다 개똥을 거름으로 주면 그 열매가 달다고 하여 많이 썼다. 겨울 새벽에 개똥을 주워모으는 것은 다가오는 해의 봄농사에 낼 거름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개똥 거름을 주어 밭을 간다는 뜻으로 '개똥갈이'라는 말이 있고, 개똥을 모으기 위한 개똥삼태기가 농가마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전에는 개똥을 주워모아 거름으로 쓰는 일이 다반사였음을 알 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한설(寒雪)날 개똥 줍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2(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겨울 소 값은 떨어지고 봄 소 값은 오른다

정의 농한기(農閑期)인 겨울에는 소를 부리지 않으므로 값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소를 많이 부리므로 값이 오르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농번기(農繁期)에는 소가 필수적인 존재이므로 값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겨울 농한기가 되면 소를 부리기보다 오히려 돌봐야 하므로 값이 떨어지게 된다. 대개 소는 음력 7월에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때 한 해의 중요한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 가격도 연중 주기성을 띠고 상승과 하락을 거듭한다. 논농사가 마감되는 음력 7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소 값은 겨울을 지나고 봄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오르기 시작한다. 소의 상품 가치가 한 해 농업의 주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르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필자 | 천혜숙(千惠淑)

겨울 소 팔자다

정의 겨울 소가 놀면서 편히 지내듯이 일하지 않고 편하게 놀고먹는 사람을 비유한 속담.

내용 전통적인 농가에서 소는 인간 노동을 보조하는 역축(役畜)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농사일에서 소는 논밭갈이, 논밭골타기, 써레질, 농산물 운반 작업에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사람이 인력 농기구를 가지고 일할 때보다 소를 이용하여 일하는 것이 작업 능률 면에서 열 배가 넘는다고 하니, 영농이 기계화되기 전까지 농업 생산 및 농업 기술에서 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 알 수 있다. 논농사가 끝나고 행하는 호미씻이(풋굿)에서는

화려하게 장식된 소가 농사 장원한 사람(머슴)을 등에 태우고 앞장서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논농사의 마감을 알리는 이 호미씻이는 한 해 농사에서 소의 노역이 끝났음을 알려 주는 행사이기도 하다.

겨울 농한기(農閑期)가 되면 소는 그야말로 놀고먹는 편안한 신세가 된다. 농번기(農繁期)가 끝나고 농가에 따라서는 더러 소를 내다팔기도 하지만, 가을 보리밭에 낼 거름을 얻거나, 무엇보다 이듬해의 농사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계속해서 소를 사육한다. 야생의 풀을 먹일 수도 없는 동절기인지라 조짚이나 보리짚 또는 볏짚을 소의 먹을거리로 마련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갖가지 먹이를 섞어 쇠죽을 끓여서 하루에 세 번씩 먹인다. 하루만 지나면 더러워지는 외양간도 청소해주어야 하므로 겨울 동안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소를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편히 놀고먹는 사람을 겨울 소에 비유한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그늘에 누운 여름 소 팔자다."가 있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필자 | 천혜숙(千惠淑)

겨울에 베옷이다

정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겨울철 추위를 막아내는 데 베옷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베옷은 여름에나 유용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솜옷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할 때,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겨울에 베옷이다"라는 속담을 사용한다.

유사속담 유사속담으로는 "오뉴월 두룽다리(추위를 막기 위하여 모피로 길고 둥글게 만든 물건)", "한 더위에 털 감투", "겨울 부채요 여름 화로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編, 一潮閣, 1980),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김기형(金基珩)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

정의 산야에서 푸른빛이 다 없어진 한겨울이 되어야 솔[松]이 비로소 푸른 줄 안다 함이니, 난세가 되어야 훌륭한 사람이 뚜렷이 나타나 보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소나무는 침엽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종류로 우리나라의 북부 고원 지대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상록수(常綠樹)이다. 소나무는 활엽수들이 모두 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에도 그 푸름을 간직하고 있어 겨울철 소나무에서는 굳센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소나무의 특성 때문에 예로부터 소나무는 대나무와 더불어 절개를 상징했으며, 문인화나 시조를 비롯한 예술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이 속담은 이런 소나무의 특성을 활용하여 겨울이 되어 다른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진 뒤에야 사철 푸른 소나무의 푸른색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듯이 사람도 어려운 때를 당해서야 훌륭한 사람의 진가가 드러남을 비유한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서리가 내려야 국화의 절개를 안다.", "겨울이 돼야 송백(松柏)의 절개를 알게 된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겨울이 돼서야 솜옷을 장만한다

정의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급박해서야 준비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을 예견하여 준비하지 못하고 눈앞에 닥쳐서야 대비한다는 의미의 속담. 입동재의(入冬裁衣)로 쓰이기도 한다.

내용 혹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미리 예견하여 준비해야 함이 생활의 지혜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폭설에 대비해 싸리비나 가래를 수십 개씩 늦가을에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였는데, 이 속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복을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겨울철 추위는 미리 대비해야 할 고난의 대표격으로 선택된 것이어서 겨울이나 추위를 우리

민족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思考)했는지 엿볼 수 있다. 겨울과 솜옷의 관계로부터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삶의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대한(大寒)이 닥쳐서야 털옷을 찾는다.", "넘어진 뒤에 지팡이 찾는다.", "불난 것 보고 우물 판다.", "말 태우고 버선 깁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세계속담 대사전(서정수, 한양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4).
필자 | 김경섭(金鏡燮)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정의 겨울이 가야 봄이 오듯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으며, 세상일은 순서가 있어 급하다고 억지로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속담.

내용 사계절의 순서를 강조하여 겨울과 봄의 차례를 통해 일의 순서를 나타낸 속담이다. 세상 어떤 논리나 방법으로도 계절의 순서를 바꿀 수 없듯이 모든 일에는 그것에 합당한 순서와 순리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세상사의 순리를 강조하기 위해 계절의 순서를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겨울의 추위와 봄의 따뜻함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 속담은 고난 뒤에 오는 성공이나 기쁨을 뜻하는 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꽃이 펴야 열매도 연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급하다고 콩마당에 간수 칠까"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우리말 속담사전(조평환 · 이종호, 파미르, 2006).
필자 | 김경섭(金鏡燮)

겨울철 안개에는 해동비가 내린다

정의 겨울에 생기는 안개는 비와 관련되고 이 비는 얼어붙은 것들을 녹여준다는 의미의 속담. 다른 계절의 안개는 화창한 날씨를 의미하지만, 겨울철의 안개는 다른 기후 여건상 비와 관련되고 이 비가 모든 것을 녹여 주기에 해동비라 부르는 것이다.

내용 겨울철 안개가 끼면 기압과 습도, 온도의 영향으로 주로 날씨가 흐려져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비가 동절기의 모든 것을 녹여준다고 우리 민족은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 속담에서 겨울철 안개와 관련된 비가 곧 기온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겨울철 안개가 주로 늦겨울에 집중됨을 고려한다면 그 시기상 안개와 비가 해동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안개는 크게 증발과 냉각에 의해 생성되며, 이에 따라 크게 냉각안개와 증발안개로 분류한다. 냉각안개는 지면과 접해 있는 공기층의 온도가 이슬점 이하가 되면서 발생하는 안개를 말하며, 여기에는 복사안개, 이류안개, 활승안개가 있다. 증발안개는 수면에서 찬 공기로 수증기가 증발할 때 발생하는 안개를 말한다. 여기에는 증기안개, 전선안개가 있다.

여기서 겨울철 발생하는 안개는 주로 복사안개를 말하는데, 다른 계절에 복사안개가 낀 날은 날씨가 좋게 되지만 겨울철에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늦겨울 다습한 날씨와 관련되기에 이 비를 기온의 상승 조짐으로 판단했거나, 이 비가 모든 것을 녹여주기에 해동비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겨울철 안개에 관련된 비를 해동비로 여기게 된 것이다. 여름에 안개가 끼면 날씨가 좋지만 늦겨울 안개에는 비가 온다는 뜻으로 "늦겨울에 안개가 끼면 해동비가 온다."가 사용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4),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김경섭(金鏡燮)

겨울 화롯불은 어머니보다 낫다

정의 어떤 상황에서 가장 요긴한 것을 일컬을 때 쓰는 속담.

내용 추위를 막아주기 때문에 겨울과 같이 추운 계절에는 화롯불이 제격이다. 평소 어머니가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 하더라도 겨울에 추위를 이겨내는 데는 화롯불만 못하다. 말하자면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이 최고라는 의미를 강조한 속담이다.

유사속담 유사속담으로 "만진(萬塵) 중의 외 장수", "열 소경에 한 막대", "겨울의 털옷, 여름의 갈포옷"이 있다.

참고문헌 |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김기형(金基珩)

김장은 겨울철의 반 양식

정의 김장은 겨울에 여러 가지 반찬으로 활용도가 높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양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이 속담은 우리 민족의 식생활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장만하는 김장이 아주 중요함을 이르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 겨울철은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없는 계절이기에 김장은 특히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이 속담에서 김장이 강조되고 있다.

김장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 더 중요한 양식이었다. 실제로 이 속담은 "없는 사람은 김치를 많이 먹게 된다."라는 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서민들의 생활과 김치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김장은 절반 양식"이 있으며 무와 배추가 풍년일 때는 늦게 해야, 흉년일 때는 일찍 해야 헐하다는 말로 "김장은 풍년이면 늦게 담그고 흉년이면 일찍 담가야 한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4), 우리말 속담사전(조평환 외, 파미르, 2006).
필자 | 김경섭(金鏡燮)

눈 온 뒷날은 거지가 빨래를 한다

정의 눈이 갠 날은 일기가 따스하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날이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내린 다음날에는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빨아 입는다는 것이다. 어지간해서는 옷을 빨아 입지 않는 거지들조차 빨래를 할 만큼 따스하다는 말인데, 눈이 내리고 나면 날이 포근해지는 계절적 특징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속담이다.

유사속담 유사속담으로는 "눈 온 다음날 샛서방 빨래한다."와 "겨울철은 따뜻해야 눈이 온다."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미디어, 2003).
필자 | 김기형(金基珩)

동지섣달에는 닭서리다

정의 옛날 농촌에서는 계절에 따라 서리를 하였는데, 11월과 12월에는 닭서리를 많이 했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서리는 옛 농촌 풍속의 하나로 떼를 지어 남의 채소, 과일, 가축을 훔쳐 먹는 일종의 장난을 말한다. 서리는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하는 장난이기 때문에 도둑질과는 다르다. 따라서 서리는 도둑질과 달리 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서리의 대상이나 시기는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른데 주로 오뉴월에는 밀, 육칠월에는 참외, 칠팔월에는 콩, 복숭아, 수박, 팔구월에는 포도, 대추, 구시월에는 무, 감 그리고 동지섣달에는 닭을 서리했다. 닭서리는 주로 나이가 든 장년층에서 행해졌다. 동지섣달 긴긴밤에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거나 화투를 치다가 자정이 넘어 속이 출출해지면, 허술하면서도 들켜도 이해해 줄 만한 집의 닭장을 택해 서리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닭들은 횃대에 나란히 올라앉아 서로 몸을 의지해 잠이 들기 마련인데, 이상할 정도로 자기 몸만 건드리지 않으면 옆의 닭이 잡혀가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만약 한 마리가 울게 되면 다른 닭들도 우는 것은 물론 주인에게 들통이 나게 마련이어서 숙련된 솜씨로 날갯죽지에 모가지를 휙 비틀어 쑤셔 넣어 단 한 번에 숨이 끊어져 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서리는 궁핍한 시절에 행해졌던 일종의 도둑 행위였지만 서리하는 사람들의 착한 심성과 이를 도둑 행위로 여기지 않았던 넉넉한 인심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놀이의 하나였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필자 | 강재철(姜在哲)

동지섣달 해는 노루꼬리만 하다

정의 동지섣달 해는 노루꼬리처럼 짧아서 일할 시간이 없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노루는 사슴과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어깨의 높이나 뿔 모양이 사슴과는 확연히 다르다. 야산, 구릉지대, 숲, 풀밭에 서식하며 새싹, 잎, 과실을 먹고 산다. 잘 놀라고 먼 데를 바라보는 버릇이 있으며 뛰기를 잘 한다. 그리고 여느 짐승과 달리 몸체에 비해 꼬리가 매우 짧아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리의 흔적만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노루꼬리가 짧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구전 설화가 내려오기도 한다. '노루꼬리가 짧아진 까닭'이란 설화가 그것이다. 유래담의 하나로 동물담(animal tale)의 일종인데 애초에는 노루꼬리가 길었으나, 호랑이가 노루꼬리를 문 채 뛰다가 싹둑 잘라져 오늘날처럼 짧아졌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속담은 해의 길이를 노루꼬리에 빗대어 동지섣달에는 낮의 길이가 매우 짧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사속담 노루꼬리가 짧음을 비유한 속담으로는 이 밖에 "노루꼬리만 하다", "노루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까.", "해가 노루꼬리만 밖에 남지 않았다.",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이기문, 民衆書館, 1974),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필자 | 강재철(姜在哲)

섣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

정의 시일을 아무리 연장하여도 일을 성취하거나 일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섣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달로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제일(除日)에는 남은 빚을 청산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날까지 받지 못한 빚은 정월 보름까지는 독촉도 하지 않고 갚지도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한편 이날 시집 못 간 노처녀는 개밥을 푹푹 퍼준다고 한다.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해를 다 보내고 나니 홧김에 개밥을 많이 퍼준다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섣달인데, 이러한 섣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는 이 속담은 마무리의 말미를 열아홉 번 주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니 성사(成事)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섣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않다."가 있다. 파란(波瀾) 많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하다. 섣달이 여러 번 계속되어도 부족하다는 이 속담은 밤이 제일 긴 12월 저녁에 누워서 자기의 신세타령을 비롯해 이제까지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면 밤이 모자랄 정도라는 말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館, 1962), 조선속담집(엄병섭 외, 사회과학출판사, 1992),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강재철(姜在哲)

해태 철에는 개도 백원짜리 물고 다닌다

정의 김[海苔] 생산 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김 산지(産地)의 경기가 매우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해태는 김을 말하며 우리나라 서남 연안에서 많이 양식한다. 이 속담의 주된 통용 지역인 전남 완도 지역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을 대량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위탁판매장을 통하여 많은 돈이 풀린다. 그래서 이 무렵이 되면 이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며 씀씀이도 헤퍼진다. "해태 철에는 개도 백원짜리 물고 다닌다."라는 말은 이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農漁俗談辭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운식(崔雲植)





生業

생업

농지는 법식이
목적이지 대부분
왕업할 생명력과
밀어붙일 자기의 힘이다.
사일건이를 하면서
농산기 가장 잘 된 것에서
따로 저두지나
파직할 때 절여 먹을 것을
따로 떨어 두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쓰다

방아찧기

정의 곡식을 이용하기 쉽게 껍질이나 겨를 벗겨내고 부수거나 가루로 만드는 일. 여기에는 찧기, 쓿기, 빻기, 타기 따위의 일이 있다. 찧기란 쓿고 빻는 일을 총칭하는 말이고, 쓿기는 곡식의 겨를 벗겨 깨끗하게 하는 일, 빻기는 가루로 만드는 일, 타기는 곡식을 성글게 부수는 일을 가리킨다.

내용 및 특징 가을걷이가 끝나면 갈무리해둔 곡식을 햇볕에 잘 말려 방아를 찧는데, 보통 추운 겨울철에 많이 했다. 대체로 화로에 잉걸불을 담아놓거나 겻불을 피워놓고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방아찧는 일은 섬세하고 잔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녀자가 주로 하고 집안의 노인이나 아이들이 거들었다. 또한 "저녁방아는 찧어도 새벽방아는 못 찧겠네."라는 방아노래의 가사처럼 오랜 시간 작업해야 하는 매우 지루하고 고된 일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찧을 곡식이 많으면 힘을 덜기 위하여 이웃과 품앗이를 하는 풍습이 있고, 여럿이서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노동요인 방아노래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방아에는 곡식에 충격을 주어 곡식의 알갱이끼리 또는 알갱이와 연장 사이의 마찰력과 충격력으로 쓿거나 빻는 절구, 디딜방아, 물방아, 물레방아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사이에 곡식을 넣어 쓿거나 타거나 빻는 매통, 맷돌, 연자매가 있다. 곡식의 종류와 찧은 곡식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연장에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곡식의 양이 많으면 디딜방아와 연자매를 쓰고 적으면 절구나 맷돌을 쓴다. 나락을 쌀로 만드는 쌀방아는 디딜방아, 물방아, 물레방아, 연자매를 쓴다. 디딜방아는 확돌에 나락을 넣고 찧다가 절반가량 껍질(왕겨)이 벗겨지면 키나 풍구로 까부르고, 다시 찧고 까부르기를 반복하여 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는데 보통 세벌찧기로 끝낸다. 디딜방아에는 방아채를 밟는 사람이 1~4명, 방아확의 곡식을 돌보는 사람, 까부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물방아와 물레방아는 찧는 방식이 디딜방아와 같지만 물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아채를 밟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

연자방아는 둥글고 큰 두 개의 방앗돌로 구성되는데, 바닥에 눕힌 아랫돌(바닥돌) 위에 윗돌(방앗돌)을 세운다. 아랫돌 위에 나락을 깔고 그 위를 소에 메워 윗돌을 빙빙 굴리면 나락의 낟알이 서로 눌리고 비벼져서 왕겨와 겨가 벗겨진다. 보통 한 번에 5센티미터 두께로 한 가마 분량의 나락을 깐다. 윗돌이 구르면서 밖으로 밀려 내려오는 나락을 한 사람이 함께 돌면서 비로 쓸어 고줏대 쪽으로 모아 올린다. 연자방아는 다른 방아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방아를 찧을 수 있지만 나락이 부서지는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보리방아에 많이 쓰고, 나락은 애벌찧기만 하고 두벌과 세벌찧기는 디딜방아를 썼다. 만일 두벌과 세벌도 연자방아를 쓸 때는 나락을 바싹 말리거나 솥에 쪄서 말린 다음 방아를 찧기도 한다.

연자방아는 윗돌을 굴리는 방틀에 소를 메워 돌리는데, 회전반지름이 2미터 남짓 되는 작은 원을 계속해서 돌아야 하므로 소가 어지러워한다. 그래서 검은 헝겊으로 소의 눈을 가리고 돌리기도 하였다. 소는 보통 아이들을 시켜 몰게 하였다.

디딜방아나 연자방아로 세벌찧기를 해서 나온 쌀은 겨가 완전하게 벗겨진 백미(白米)가 아니고 현미(玄米)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을 더 찧어 백미로 만들거나 현미 상태로 보관하다가 밥을 짓기 전에 절구에 넣고 찧어서 겨를 벗겨낸다. 이때 물을 조금 넣고 찧으면 겨가 잘 벗겨진다.

디딜방아나 연자방아보다는 뒤에 나온 매통은 왕겨만을 벗겨내는 도구로서, 굵은 통나무 두 토막을 맷돌처럼 위짝과 아래짝으로 하고 그 위와 아래 면을 울퉁불퉁하게 홈을 낸다. 위짝의 가운데에 난 구멍으로 나락이 흘러내려가게 하고 위짝을 손으로 좌우로 밀고 당기면 홈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 왕겨가 벗겨진다. 매통에서 나온 쌀은 겨가 전혀 벗겨지지 않은 현미(매조미쌀)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수 있는 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구나 디딜방아로 다시 찧어야 한다.

조, 수수, 보리를 찧는 방법도 나락과 같이 세벌찧기를 한다. 다만, 수수와 보리는 겉껍질이 단단하고 매끄럽기 때문에 물을 뿌려 불려가면서 찧는다. 그러고도 완전히 겨가 벗겨지지 않으면 밥을 짓기 전에 절구에 찧거나 돌확으로 쓿는다. 한편 메밀방아에는 맷돌을 쓰는데, 거칠게 타서 메밀쌀로 만들

거나 가루로 만들 때는 맷돌로 여러 번 타거나 디딜방아로 빻은 다음 체로 쳐낸다.

전통적인 우리의 방아는 일제강점기 이후 도정기(搗精機)가 도입되면서 급속하게 자취를 감추었고, 예전의 물레방앗간도 발동기나 전동기를 갖춘 정미소(精米所)로 바뀌었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대규모 도정공장, 제분공장, 미곡종합처리장이 이들을 대신하고 있다. 다만 재래시장 같은 곳에 있는 소규모 방앗간에서 고추방아나 떡방아를 찧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최신식 기계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도정기구의 변천과정과 연자방아의 도정도구사적 의의(김재호, 민속학연구5, 국립민속박물관, 1998), 디딜방아 연구(김광언, 지식산업사, 2001), 한국의 농기구(박호석·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 박호석(朴虎錫)

종자보관(種子保管)

정의 이듬해 농사에 쓸 씨앗을 갈무리하는 일. 씨갈무리라고도 한다. 씨앗은 농사의 근본이므로 신성시하는 풍속이 있는데, 만약 종자를 보관한 장소에서 사람이 죽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이듬해 씨앗으로 쓰지 않는다.

내용 종자(씨앗)는 번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과 발아력(發芽力)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가을걷이를 하면서 농사가 가장 잘 된 곳에서 따로 거두거나, 타작할 때 잘 여문 것을 따로 덜어두었다가 이듬해 씨앗으로 쓴다. 만일 농사가 잘못되면 잘된 집의 것을 구해다 쓴다.

곡식을 개상이나 탯돌에 타작할 때 맨 앞에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씨앗으로 쓰는데, 잘 여문 것이 무거워 앞쪽에 떨어진다고 여긴다. 이를 잘 말려 자루나 가마니에 담아서 방 한구석에 겨우내 쌓아두었다가 이듬해 종자로 쓴다. 재배 규모가 작은 작물의 씨앗은 뒤웅박이나 씨주머니에 담아 보관하고, 상추와 같이 소량의 씨앗은 닥종이에 싸서 다른 씨앗과 함께 보관해둔다. 그리고 조, 수수, 기장, 옥수수, 고추 같은 작물은 이삭이나 열매를 따서 한 줌씩 묶거나 실에 꿰어 다락이나 대청마루, 곳간 등의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걸어 두었다가 이듬해 떨어서 씨앗으로 쓴다. 보관 중에는 가끔 벌레가 없는지, 상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한두 차례 맑은 날 바람에 잘 말려 다시 보관한다.

한편 고구마는 씨로 쓸 것은 반드시 상강(霜降) 전에 캐서 크기가 적당하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골라 며칠 동안 그늘에서 말린 다음, 여물과 섞어 망태에 담아 사람이 사는 방의 벽에 걸어두거나, 흙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서 방 한구석에 두고 보관한다. 그러나 감자는 서늘한 곳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땅속에 움을 파거나 곳간 같은 곳에 얼지 않게 두었다가 씨앗으로 쓴다.

그러나 지금은 종자를 농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농가에서 채종하는 경우에는 품종이 퇴화하거나 병의 감염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농사를 망치기 쉽다.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종묘회사에서 채종포를 운영하고 거기서 생산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한다. 종자의 보관도 발아력이 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습도가 자동 조절되는 저온저장시설을 주로 이용한다.

참고문헌 | 增補山林經濟, 作物學槪要(趙載英 等, 鄕文社, 1962), 韓國 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出版部,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박호석(朴虎錫)

가오리잡이

정의 타이완·동중국해, 일본 남부해, 한국 서해·남해 연안에 분포하는 겨울철 가오리를 잡는 행위.

개관 가오리는 연골어류 홍어목(*Order Rajiformes*)의 물고기를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색가오리과의 노랑가오리와 홍어과의 홍어가 주요 어업 대상종이다. 노랑가오리는 타이완·동중국해, 일본 남부해, 한국의 서해와 남해 연안의 얕은 바다에 주로 분포하며, 홍어는 타이완, 동해, 동중국해, 한국 연안 등의 북서태평양 연안에 분포한다. 노랑가오리는 노랑가부리(부산), 창가오리, 간재미, 가오리(전남), 딱장가오리, 딱장가부리로 불린다.


1


2

1 가오리 양육
2 자망 가오리잡이
강원도 고성 김상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홍어를 태양어(邰陽魚), 하어(荷魚), 분어(鱝魚)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공어(鮥魚)라고도 하였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노랑가오리를 황분(黃鱝), 홍어를 분어(鱝魚)라고도 하며, 분어는 모든 가오리 무리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하였다. 홍어의 지역명은 전남에서는 고동무치, 함남에서는 물개미, 포항에서는 가부리, 신미도에서는 간쟁이라 부른다.

내용 체반(body disc; 가오리류에서 몸통 부분과 머리 부분이 가슴지느러미와 합쳐져서 넓고 평평한 부위를 형성한 것)의 가장자리는 만입된 부분이 두 곳 있고, 주둥이 끝은 가늘고 뾰족하다. 눈은 크고 돌출되어 있으며 눈의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 다섯 개 가량의 작은 가시가 나 있다. 두 눈 사이는 넓고 약간 오목하게 만입되어 있으며, 눈의 바로 뒤쪽에는 동공 크기의 분수공(spiracle; 눈의 뒤쪽에 목과 몸 표면을 연락하는 한 쌍의 작은 구멍으로 가오리류가 숨을 쉬기 위해서 물을 들이마시는 주요 기관)이 위치한다. 몸의 등쪽 정중선에는 가시가 없지만 분수공의 약간 뒤쪽에는 가시가 한 개 있고, 체반의 앞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가시가 무성하며, 전반부에는 비교적 날카로운 가시가 분포한다. 꼬리에는 세 줄의 가시가 있는데, 등쪽 정중선을 따라 한 줄, 좌우 바깥쪽으로 두 줄이 있다. 배쪽의 감각공(sensory pore; 측선의 유공과 같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구멍)은 크고 체반의 전반부와 안쪽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체반의 등쪽은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며 군데군데 황색의 둥근 점이 고루 분포하며 배쪽은 희다. 수컷은 배지느러미 뒤쪽에 막대기 모양의 교미기 두 개를 가지고 있다.

산란기는 9~3월(산란성기는 11~12월)이며, 1회에 4~5개의 알을 산란하는데 이 알은 난각에 싸여 있다. 수명은 5~6년 정도이다. 최대 몸길이는 약 150센티미터이다. 주요 먹이로는 오징어류, 새우류, 게류, 갯가재류를 먹는 포식성의 어류이다.

어획방법 가오리를 잡는 어구로는 가오리 저자망과 가오리 주낙이 있으며, 어기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동해구 트롤에서도 가오리가 잡힌다. 가오리 저자망은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닻으로 바닥에 고정시켜 부설 조업하는데 뜸은 수압에 잘 견딜 수 있는 유리 뜸을 사용하며, 그물이 바닥에 닿아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돌줄을 내어서 단다. 강원도, 경북 연안에서부터 20~40마일 해역의 수심 400~500미터의 모래 또는 사니질 지역에서 조업한다. 어획물의 구성은 가오리가 약 50퍼센트, 붉은 대게 약 40퍼센트 그리고 기타 약 10퍼센트로 이루어진다. 어선은 목선 20톤급 1척당 약 80~120폭의 어구를 사용하여



가오리 건조
강원도 고성 김상수

약 40폭을 1조로 2~3곳에 분산 투망하고, 투망 2~3일 후에 양망한다.

가오리 주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어장에 도착하면 배가 천천히 전진하면서 낚시 40개마다 500그램 정도의 돌을 한 개씩 달고, 세 개의 바스켓마다 부표를 연결하면서 100~150개의 바스켓을 투승한다. 조금 때에는 저녁에 투승하여 다음날 아침에 양승하고 사리 때에는 투승 후 약 30분간 대기하였다가 양승하며 1일 1회 조업한다. 어기는 3월에서 7월까지이며 서해 연안 수심 50미터 내외의 암반 지역에서 조업한다. 조업 시 미끼로는 까나리, 고등어, 오징어를 사용하며, 주요 어획 종은 노랑가오리와 상어가오리이다.

기타 홍어는 지방이 적고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과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 홍어회는 목포의 지역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홍어회에는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데, 이것은 홍어나 가오리와 같은 판새류의 삼투압 조절을 위한 체내 요소와 TMAO(trimethylamine oxide)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홍어를 단지에 담아두면 스스로 소화되어, 요소는 우레아제(urease)에 의하여 암모니아로, TMAO는 세균에 의해 환원되어 TMA(trimethylamine)로 변하는데, 이 두 물질이 홍어의 독특한 향과 맛을 낸다. 이렇게 삭힌 홍어는 맛과 영양, 소화율이 처음보다 월등히 좋아진다고 하며 사람들은 홍어회를 막걸리와 함께 홍탁이라 부르며 전국 곳곳에서 애용한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本草綱目, 玆山魚譜(정약전 지음 · 정문기 옮김, 知識産業社, 1977), 두산세계대백과사전1(斗山東亞百科事典硏究所, 1996), 한국연근해 유용어류도감(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1999), 생선회 100배 즐기기(조영제, 한글, 2001),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현산어보를 찾아서5(이태원, 청어람미디어, 2002).

필자 | 장창익(張昌翼)

가자미잡이

개관 가자미류는 일반적으로 가자미목(*Order Pleuronectiformes*)에 속하는 넙치류, 가자미류, 서대류와 같이 몸이 편평한 어류들을 모두 포함하며, 넙치, 도다리, 서대처럼 이름이 알려진 몇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자미로 총칭한다. 『후한서(後漢書)』에는 가자미를 비목어(比目魚) 또는 접어(鰈魚)라 하였으며, 『이물지(異物志)』에는 약엽어(箬葉魚), 혜저어(鞋底魚), 『임해지(臨海志)』에는 비사어(婢屣魚) 그리고 『풍토기(風土記)』에서는 노갹어(奴屩魚)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가자미류 물고기들의 형태가 반쪽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들이다.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가자미류를 통틀어 접어라고 부르며, 세부적인 종들의 이름은 소접(小鰈), 장접(長鰈), 전접(羶鰈)으로 가자미류의 이름 끝에 모두 접자를 붙여 구분하였다. 가자미는 지역에 따라서 가재미와 개재미라고도 부른다.

가자미류의 머리를 마주 봤을 때 눈이 둘 다 오른쪽에 몰려 있는 어류들은 가자미류, 왼쪽에 몰려 있는 어류들은 넙치류라고 부른다. 서대류는 가자미류와 같이 눈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생선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광어는 넙치류의 일종이며, 도다리는 가자미류의 일종이다.

내용 가자미의 성어(成魚)는 몸이 달걀 모양이고 매우 납작하다. 몸은 한 쪽이 거무스름하고 다른 쪽은 희다. 검은 쪽에 두 눈이 접근해 있으며, 눈이 있는 쪽을 위로 향하고 바다 밑바닥에서 산다. 눈이 있는 쪽은 주위의 색에 따라 변하여 보호색이 되는 종류도 많다. 성어가 되면 몸 좌우의 모양이나 빛깔이



참가자미 건조
경북 울진 김상수

다르지만, 치어(稚魚)의 경우는 부화 당시에 머리의 양측에 한 개씩의 눈이 있고 다른 고기와 같은 방법으로 표층 가까이에서 헤엄친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왼쪽 눈이 머리의 배면을 돌아 오른쪽 눈에 접근해온다. 이때부터 치어는 몸의 오른쪽을 위로 해서 바닥에 눕게 되며, 몸 빛깔도 좌우가 각각 달라진다.

가자미류에서 좌우가 비대칭인 기관은 눈과 코에 관련되는 신경뿐이고 뇌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은 좌우대칭이다. 대개의 가자미류는 미성숙기에는 암수가 같은 상태로 성장하지만 성숙 후에는 암컷이 1~5센티미터 더 크다. 기름가자미의 경우 수컷이 약 17센티미터인데 비해 암컷은 약 23센티미터이다. 성비도 나이에 따라 다른데 나이가 적은 무리에서는 수컷이 많고 나이가 많은 무리에서는 암컷이 많다. 물가자미의 경우 1~2년이 지나면 수컷이 약간 많고, 3세어부터는 암컷이 많아져서, 4세어 이상은 거의 암컷이다. 이는 수컷이 암컷보다 단명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란기는 종에 따라 다르나 겨울철에 산란하는 종이 많다. 먹이는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눈이 한쪽으로 모이기 이전의 유영생활 단계에서는 미세한 부유생물을 먹고, 눈의 이동이 끝날 즈음 저서생활(底棲生活)을 하면서 모래 속에 사는 작은 갑각류를 먹는다. 더 크면 갑각류, 작은 조개류, 극피동물 따위를 먹는다. 세계적으로 온대와 한대에 널리 분포하며, 한국에서는 전 연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어류이다.

어획방법 가자미의 어획 방법으로는 가자미 주낙, 가자미 외줄낚시, 가자미 저자망과 가자미 삼중자망이 있다.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업에서도 가자미류를 많이 잡는데 동해안에서는 연간 어획량의 30퍼센트를, 남해안에서는 15퍼센트를 가자미가 차지하고 있다. 동해구 저층 트롤은 연중 평균적으로 청어, 가자미류가 어획물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한다.

가자미 주낙은 멍, 부표, 낚싯줄 순으로 투승하며 낚시가 바닥에 묻히거나 해류와 조류에 의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40~50개마다 소형 뜸과 발돌을 달거나 발돌만을 모릿줄에 단다. 어선 1척이 모두 12~13개의 바스켓을 단 어구를 한 장소에 일직선으로 투승하거나, 약 4개의 바스켓을 1조로 하여 여러 곳에 나누어 투승한다. 어구를 다 던져 넣고 나서 약 10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사람이 직접 양승한다. 경북에서는 연안 2~3마일 해역의 수심 30~40미터 되는 모래 또는 사니질 지역에서 조업하며, 가자미는 주로 겨울철에 많이 잡는다. 미끼는 겨울에는 주로 작은 새우를 사용하며, 봄부터 가을까지는 지렁이나 조개의 살을 사용하는데,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자미 외줄낚시는 낚싯줄에 길이 90센티미터 되는 보채를 연결하고, 보채의 중앙에는 200그램 정도인 납추 1개를 달며, 보채의 양 끝에는 목줄을 40센티미터 정도 연결한 다음, 그 끝에 낚시 1개씩을 달아서 사용한다. 보채는 활처럼 휘어지게 하며, 보채의 중앙에 연결하는 추는 조류의 세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게 사용한다. 동해 연안 수심 15~35미터의 사니질 지역에서는 갯지렁이를 미끼로 하여 조업하는데 어기는 3~11월이며, 3~6월에 어획이 양호하다. 이 시기의 어획종은 가자미가 약 90퍼센트이며 쥐노래미, 노래미 등 다른 종이 10퍼센트를 차지한다.

가자미 저자망은 망목 120밀리미터 또는 망목 76밀리미터 내외를 주로 사용하며, 뜸줄의 성형률은 약 38퍼센트, 발줄의 성형률은 약 35퍼센트로 주름을 많이 주어 대상 생물이 잘 얽히도록 어구를 바닥에 고정시켜 조업한다. 오전 5~6시에 출항하여 전날 물에 넣은 어구를 건진 다음, 건진 어구를 다시 투망하고 귀항한다.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연안 수심

20~50미터 사니질 지역에서 연중 조업이 가능하며, 2~5월에 어획이 양호하다. 어획종은 가자미가 약 60퍼센트이고 노래미, 볼락, 게류 같은 어종이 약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가자미 삼중자망에서는 원살 그물은 망목 50~90밀리미터 내외를, 바깥살 그물은 망목 300밀리미터 내외를 주로 사용한다. 어선 1척당 10~20폭의 어구를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오후 5~6시 무렵 조류를 따라 투망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6~7시에 천천히 전진하면서 인력으로 걷어 올려 귀항한다. 어장은 경남 연안의 수심 약 5~20미터 지역과 경북, 강원, 울릉도 연안의 수심 20~60미터 지역으로 저질은 사니질 또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연중 조업이 가능하며, 남해안에서는 4~10월에, 동해안에서는 1~5월에 주로 조업한다. 잡히는 어종으로는 가자미가 약 50퍼센트이며, 노래미가 약 20퍼센트, 볼락, 게류 같은 그 밖의 어종이 약 30퍼센트이다.

기타 가자미는 육질이 단단하고 담백하며 지방질 함량이 적으며, 봄에 맛이 가장 좋다.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양식이 되지 않아서 자연산 생선회로 인기가 높다. 가자미를 이용한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음식 중 하나가 가자미식해다. 가자미식해를 만드는 법은 가자미를 넣은 깨끗한 물에 조밥, 소금, 고춧가루, 엿기름을 섞어주면, 엿기름의 작용으로 조밥의 녹말이 당화되어 단맛이 생기게 된다. 완성된 식해는 차게 보관해두었다가 먹기 알맞은 크기로 가자미를 잘라 그대로 먹거나, 향신료로 알맞게 조리하여 밥반찬 또는 술안주로 이용한다.

참고문헌 | 異物志, 臨海志, 風土記, 後漢書, 玆山魚譜(정약전 지음 · 정문기 옮김, 知識産業社, 1977),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斗山東亞 百科事典硏究所, 1996), 한국연근해 유용어류도감(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1999), 생선회 100배 즐기기(조영제, 한글, 2001),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현산어보를 찾아서5(이태원, 청어람미디어, 2002).

필자 | 장창익(張昌翼)

넙치잡이

정의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남해, 거제도, 울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과 서해, 제주도 서남방, 북한의 동해 등지에서 넙치를 잡는 행위.

명칭 넙치(flat fish)는 넙치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의 총칭으로 한자어로는 광어(廣魚), 화제어(華臍魚), 비목어(比目魚)라고 하는데, 광어가 가장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 연해에서는 넙치, 별넙치, 점넙치 그리고 벌목탁가자미과에 속하는 6종을 포함해서 9종이 잡힌다. 몸길이는 약 38센티미터 정도이며 몸은 긴 타원형이다. 눈은 머리의 왼쪽에 붙어 있다. 몸빛은 눈 있는 쪽은 유백색이고 반대쪽은 흰색이다. 『전어지(佃漁志)』에서는 "넙치는 동해와 남해에서 나며, 모양이 가자미와 비슷하나 그 크기는 배나 된다."라고 하였다.

넙치는 가자미와 같이 몸이 납작하며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넙치의 눈은 왼쪽으로 가재미의 눈은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치어 때는 다른 어류와 같이 눈이 양편으로 붙어 있다가 커가면서 바다 저층에서 생활하게 됨과 더불어 몸이 납작해지고 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바다 밑바닥에 누워서 살기 때문에 밑면인 배쪽은 희고 윗면인 등쪽은 바다 저질의 색깔을 닮아간다.

내용 어기는 연중 조업이 가능하지만 주로 10월에서 5월까지이다. 여름철에는 배와 장비 그리고 어구를 손질한다. 넙치는 우리 바다의 전 연안에 분포하는데 주어장은 서해, 제주도 서남방, 북한의 동해이다.

넙치잡이는 주로 주낙, 저자망, 기선저인망으로 한다. 동해안은 수심 약 350미터 이내 해역, 남해안은 수심 약 100미터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진다. 이 지대의 저질은 뻘 또는 사니질이다. 어선은 350~650마력 내외의 40~100톤급이며, 12~13명이 승선하여 조업을 한다.

어구의 형태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저층트롤망과 비슷하지만 어획 방법이 다르다. 그물을 끌 때 그물 입구가 오므라들지 않도록 배 2척이 한 통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날개 그물 앞쪽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조업하는 저층트롤은 원하는 거리만큼 그물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외끌이 기선저인망은 투망 때 후릿줄과 끌줄을 삼각형 또는 마름모꼴로 내린 다음 끌줄을 끌어 끌줄과 후릿줄이 오므라들면서 어군을 그물 속으로 몰아넣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물은 거의 이동하지 않으며 끌줄과 후릿줄에 의해 포위된 어군만 잡는 것이 가능하다.

넙치주낙은 서해 연안에서 많이 사용된다. 위도 연안의 수심은 대개 6~7미터이며, 저질은 뻘이다. 어선은 20마력 내외의 2톤급이며, 2~3명이 승선하여 조업을 한다. 미끼는 밴댕이나 꽃새우를 한 마리씩 사용한다. 낚시 간격은 약 5미터다.

오후 3~4시 무렵 닻, 부표, 낚싯줄 순으로 투승을 하며, 낚시가 펄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고 해조류에 낚시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 약 10개마다 모릿줄에 소형 뜸과 발돌을 달고, 1~2통마다 부표를 달아 투승한다. 어선 1척당 총 10~12통을 사용하며, 어장의 조건에 따라 어구 전체를 거의 일직선으로 넣거나 2~3곳에 분산하여 투승하기도 한다. 양승은 다음날 오전 7~8시 무렵에 인력으로 한다. 그물을 올릴 때 어획물을 처리하며 처리가 끝나면 어구를 정리하고 미끼를 갈아 끼워서 다시 투승한 다음 귀항한다. 한 번 투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양승 소요시간은 약 5시간이다.

저자망 특히 삼중자망은 동해 연안의 방법이 대표적이다. 11월에서 이듬해 2월에 주로 조업을 하며, 어장은 강원도, 경북 연안 2~3마일 해역의 수심 20~70미터, 저질은 모래 또는 사니질이다. 어선은 20~150마력 내외의 2~5톤급이며, 2~3명이 승선하여 조업을 한다.

오후 3~4시 무렵에 출항하여 해조류의 방향을 가로질러, 해저에 닿도록 부표줄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배 뒤끝에서 1조에 30폭을 연결하여 투망하며, 양망은 다음날 오전 4~5시 무렵에 출항하여 그물 전체를 사이드드럼으로 감아올린다. 어획물은 양망 중 그물에서 떼어내어 활어창이나 수조에 넣어 살아있는 상태로 귀항한다. 어구 1조당 투망 소요시간은 약 40~50분, 올리는 데는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이다.

기선저인망은 저층에 서식하는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을 주 대상으로 어선 1척이 양측에 날개그물이 달린 자루그물을 투망한 다음 후릿줄로 대상 생물을 그물 속에 몰아넣어 잡는 것이다.

따라서 끌줄과 후릿줄이 어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어군의 포위면적을 크게 하기 위하여 쌍끌이 기선저인망이나 저층트롤보다 훨씬 길게 사용한다. 또한 어군을 효과적으로 그물 속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끌줄과 후릿줄이 어군보다 빨리 오므라들지 않도록 후릿줄에 작은 체인을, 후릿줄과 끌줄 사이에 큰 체인을 달아 사용하며, 갑판에 잘 사려지는 굵은 섬유로프나 콤파운드 로프를 주로 사용한다. 투망 전에 그물을 좌현 갑판에 이동시켜 정리하고, 좌현 끌줄과 후릿줄은 끌줄 끝이 위로 오도록 하여 좌현 갑판에, 우현 끌줄과 후릿줄은 그물에 연결된 후릿줄 끝이 위로 오도록 우현 갑판에 각각 정리한다.

투망 준비가 완료되면 예망 예정 방향에 대해 좌현 쪽으로 약 150도의 방향으로 배를 전속 전진하면서 좌현 끌줄 끝에 있는 부표부터 투하한다. 좌


1


2

1~2 **넙치잡이** 충남 보령 김상수

현 끌줄이 모두 나가고 후릿줄과 연결된 부분에서 큰 체인이 나오면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90도 가량 돌려 후릿줄을 투하한다. 후릿줄이 거의 투하되면 기관을 정지시키고 타력으로 전진하면서 좌현 날개그물, 자루그물, 우현 날개그물의 순으로 투망한 다음 다시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30도 돌려 우현 후릿줄을 투하한다. 우현 쪽 큰 체인이 투하되면 선수를 우현 쪽으로 약 90도 돌려 처음 투하한 부표를 향하여 우현 끌줄을 투하한다. 투망이 모두 끝나면 좌우 끌줄의 끝을 선미 비트에 걸고 그물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대기하였다가 그물을 끈다.

그물을 끌다가 좌우 끌줄이 거의 나란해지면 약 10~15분간 전속으로 끌하여 자루그물 입구쪽에 있는 어군을 끝자루로 몰아넣음과 동시에 입구가 거의 오므라들도록 한다.

양망은 선수가 그물 쪽을 향하도록 180도로 배를 돌리면서 끌줄 끝을 선수 양쪽 롤러를 통과시켜 양망 드럼으로 가져온 다음 끌줄과 후릿줄을 차례로 감아올린다. 날개그물 앞에 있는 갯대가 선수 롤러에 오면 배를 우현 쪽으로 돌리면서 그물을 좌현 쪽으로 가져와 데릭으로 달아 올린다.

과거에는 끌줄과 후릿줄을 사이드드럼으로 감아올리면서 사람이 갑판에다 사렸으나 현재에는 유압식 양승기를 이용하여 양승은 물론 갑판에 자동적으로 사려지도록 되어 있다.

그물끄는 속도는 약 1.5~2노트이며, 1회 끄는 시간 곧 끌줄과 후릿줄이 나란해지는 시간은 약 50~60분이다. 밤낮으로 1일 10여 회 조업을 하며, 1항차 소요 일수는 어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외이다.

기타 어부들은 넙치를 잡아서 등뼈를 빼낸 다음 펴서 햇볕에 말려 싱거운 포를 만든다. 차진 것과 메진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메진 것은 살이 거칠고 맛이 얕으며, 차진 것은 살지고 기름기가 흐르는데 쫄깃하고 맛이 좋다. 요즈음에는 광어회로 만들어 즐긴다.

참고문헌 | 佃漁志,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조선의 바다(박승국·윤익병, 한국문화사, 1999).

필자 | 권삼문(權三文)

우금해제(牛禁　除)

정의 조선시대에 농우(農牛)를 보호하기 위해 소의 도살을 금했던 풍습인 우금(牛禁)을 섣달 그믐날 하루나 이틀 전부터 정월 초하루까지 해제하는 제도.

내용 섣달 그믐날 하루나 이틀 전부터 정월 초하루까지 법사(法司; 법 집행을 담당한 관청으로 형조와 한성부를 말함)에서는 순찰 군관이 지니고 다니던 금패(禁牌)를 회수하여 우금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우금해제(牛禁解除) 또는 장패(藏牌)라고도 하는데 우금이 실시되고 있을 지라도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맞이하여 부분적으로 금령을 완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소의 도살과 함께 쇠고기의 판매가 허용되었다. 이것은 설을 잘 쇨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평소 쇠고기 판매를 독점했던 현방(懸房; 성균관 노비들이 소를 도살하여 판매하던 가게)의 불평이 높았다고 한다.

『영조실록(英祖實錄)』 영조 30년(1754) 1월 2일조에 "경조(京兆)에 명하여 우금을 늦추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우금해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흉년인 경우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순조실록(純祖實錄)』 순조 32년(1832) 12월 1일조에 보면 "하교하기를 '우금은 명년 농정(農政)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일이다. 평년에는 혹 임시로 장패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는 풍년이 들어 풍예(豊豫)로울 때의 흥청거리는 정사이지 결코 흉년에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묘당에서는 시기에 앞서 미리 각도(各道)와 4도(四都)에 알려 전보다 갑절 엄히 단속하게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도 미리 단속함과 아울러 도성의 내외에 거듭 분명히 효유(曉諭)하여 금령(禁令)을 범하여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좌우 포도대장도 한결같이 주지(周知)하도록 하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우금해제는 농사가 풍년인 경우에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연말이면 세찬이나 차례를 위한 육류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잠시 우금을 해제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勉菴集, 純祖實錄, 英祖實錄,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서영대(徐永大)





陽曆歲時

양력세시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인 대부분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세시로
인식되고 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소비자의 날(消費者-)

정의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 매년 12월 3일이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날이 12월 3일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2년 3월 15일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던 케네디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4대 권리를 선언한 날을 기념해 매년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여느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에서 매년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한 이유는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서 비롯하였다. 1982년부터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消費者保護團體協議會)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제정한 소비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 1996년 5월 30일에야 비로소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소비자보호의 날'이 지정되었던 것이다. 소비자보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에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점이 국가기념일 제정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1987년 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새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에는 소비자보호의 날 외에도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이 있다. 한국의 사회민주화가 더욱 공고하게 진행되면 이런 종류의 국가기념일은 더 늘어날 것이다.

2000년에는 소비자보호의 날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의 날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소비자의 날 제정의 바탕이 된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자체가 한국의 소비자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명칭 변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소비자운동은 각종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해왔다. 1988년의 콩나물 농약 사건, 1996년의 우유 및 분유의 발암 물질 검출 사건, 1997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병원균이 검출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인 소비자의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안하는 대안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환경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비자운동의 역할을 알려나가기 위해서 소비자의 날에는 토론회, 세미나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머니데이(Money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성탄절(聖　節)

정의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탄생일. 성탄일(聖誕日), 크리스마스(Christmas)라고도 한다. 크리스마스는 영어이며 '그리스도(Christ)의 미사(mass)'라는 의미로 고대 영어인 Cristes maesse에서 유래하였다. X-mas라고 쓰는 경우의 X는 그리스어의 그리스도(크리스토스: ΧΡΙΣΤΟΣ)의 첫 글자이다. 프랑스에서는 노엘(Noël),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Natale), 독일에서는 바이나흐텐(Weihnachten)이라고 한다.

개관 일반적으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며 전날인 24일 밤을 크리스마스 이브(Christmas Eve)라고 한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하루를 전날의 일몰부터 다음날의 일몰까지로 쳤기 때문에 전야인 이브가 중시된 것으로 보인다. 신약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만 탄생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초기 기독







1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대
1967년 12월 21일 중앙일보사

2 서울역 크리스마스 장식
1959년 12월 24일 국가기록원

3 크리스마스 거리 풍경
1965년 12월 국가기록원

교도들은 1월 1일, 1월 6일, 3월 27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지만, 교회 차원에서 성탄절을 축하하지는 않았다. 성탄절이 12월 25일로 고정된 것은 교황 율리우스 1세(재위 337~352) 때이다.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는 1월 6일에 탄생을 기념했으나, 4세기 말이 되면서 점차 12월 25일을 탄생일로 받아들였다. 현재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1월 7일에 성탄절을 맞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그레고리력에 따르지 않고 율리우스력에 따르기 때문이다. 율리우스력의 12월 25일은 그레고리력으로 1월 7일이 된다.

내용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게 된 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 태양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natalis solis invicti)'과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날은 3~4세기에 로마에 보급된 미트라교(Mithraism)의 중요한 제일이기도 하였고 로마의 동지(冬至)이기도 했다. 또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사투르날리아(Sāturnālia)라고 불린 농경신 사투르누스에 대한 제사가 행해졌다. 이처럼 12월 25일 무렵에 행해지던 당시의 축제들이 성탄절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살한 가축의 고기도 많고 창고에는 수확한 곡물이 가득 찬 이 시기에 로마인들과 게르만인들은 성대한 축제를 베풀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힘을 약화시키고 겨울을 가져올 자연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고 불을 피웠다. 온 세상이 메마를 때 푸름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서 장식되었다. 이처럼 성탄절은 로마와 게르만의 전통 관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이 합쳐져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의 성탄절에서는 기독교 이전의 자연종교적 축제가 큰 제한 없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곧 6세기부터 점차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르만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인 율축제를 성탄절에 함께 행하였다. 영국의 왕당파와 영국교회는 즐거운 전통으로 성탄절을 축하했지만, 근엄한 청교도들은 기존의 성탄절

성탄예배
서울시 중구 영락교회 국립민속박물관



을 향락적이라 하여 공격하였다. 이후에 장로파는 성탄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고자 시도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폭동 때문에 성탄절을 인정하기도 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 성탄절은 공휴일로 공적으로 기념되었다. 그러나 성탄절 하루만 휴일이 되었고, 이를 축하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성탄절의 미래를 어둡게 보기도 하였다. 19세기 중엽에 성탄절은 이웃사랑과 자선이 중시되고 과거의 축제 관습이 더해졌으며,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즐기는 날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Santa Claus), 크리스마스 카드가 도입되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부활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정찬(디너)이 서민 가정에도 도입되었는데, 오늘날 서구에서 축하하는 성탄절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성탄절은 급속히 확대되어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축하하는 날로 성립되었다. 성탄절의 중심 행사인 미사는 초기부터 교회에서 한밤중에 행해졌다.

한국의 성탄절 역사는 기독교의 전래로부터 시작된다. 천주교는 1700년대 후반에, 개신교는 1800년대 후반에 각각 전래되었는데, 이 당시부터 신자들은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당시는 신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 한국에는 근대적 언론매체가 등장하였는데, 언론매체의 보도는 공론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독립신문(獨立新聞)이나 조선일보(朝鮮日報), 동아일보(東亞日報)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에서는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중요한 축일로 소개하고 기독교인들의 행사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였다. 이 당시 농촌에 거주하던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날이 아니었으나, 도시의 비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유흥을 즐기는 날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마스 축하연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 유흥가에서는 '토산(土産) 크리스마스'를 즐겼다.

이러한 성탄절 풍경은 해방 후에도 이어져서 이즈음에 발행된 신문에 크리스마스 축하 파티에 대한 여러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탄절은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에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한 미군정의 정책과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정권도 성탄절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 공휴일 정







1 성탄미사
2 성탄장식
3 성탄미사(영성체 의식)
서울시 중구 명동성당
국립민속박물관

책의 특수한 면을 볼 수가 있다. 또 1945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 행해진 야간통행금지가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도 성탄절을 한국인들이 특별한 날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현재 성탄절은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인 대부분에게 한 해를 마감하는 세시로 인식되고 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12월이 되면 어김없이 길거리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며 이는 한 해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성탄절이 중요한 세시의 하나로 정착하는 데에는 국가의 공휴일 정책과 기독교도의 증가,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 상업적 이익추구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孤兒들을 초대 慰勞 크리스마스 축하회(朝鮮日報, 1947. 12. 21.), 「크리스마스」로 오늘 관공서 휴무(朝鮮日報, 1947. 12. 25.), 크리스마스 전야에 야통금지 해제(朝鮮日報, 1954. 12. 20.), 크리스마스와 우리생활(朝鮮日報, 1954. 12. 23.), 색연필-요사이 관청이나 무슨 기관의 장(長)들 간에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는 것이 대유행-(朝鮮日報, 1954. 12. 25.), 一事一言-불탄일과 크리스마스-(朝鮮日報, 1955. 5. 19.),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밤의 금족 풀린다(朝鮮日報, 1962. 12. 23.), 전선엔 크리스마스 공세, 높이 20미터의 트리세워(朝鮮日報, 1964. 12. 23.), 흑서의 월남전선 혹한의 휴전선, 장병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냅시다(朝鮮日報, 1965. 11. 3.), 브리태니커22(한국브리태니커, 1994), 종교학대사전(종교학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사전연구사, 1998),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 · 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30년대 조선을 거닐다[12]-토산(土産) 크리스마스-(朝鮮日報, 2005. 12. 24.), Die Familie(Ingeborg Weber-Kellermann, Insel Verlag, 1989).
필자 | 강정원(姜正遠)

양말데이(-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허그데이(Hug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閏月

윤달

윤달에는 아무런
재액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믿어왔다.
통속적으로
결혼하기에 좋고
관을 준비하거나
수의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한다.

윤달[閏月]

정의 태음력(太陰曆)에서 일년 열두 달 외에 불어난 어느 한 달을 말하며, 태음력에서 날짜가 계절과 한 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 두 번 거듭되는 달. 윤달[閏月]은 가외로 더 있는 달이기 때문에 덤달, 여벌달, 남은달이라고 부른다. 윤달을 썩은 달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윤달이 사람의 피부, 신체 부분에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속담에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 놓아도 아무 탈이 없다."라고 할 만큼 윤달을 무탈한 달로 여겼다.

내용 및 지역사례 윤달에는 아무런 재액(災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통속적으로 결혼하기에 좋고, 관(棺)을 준비하거나 수의(壽衣)를 만드는 것도 좋다고 여겼다.

전남 지역에서는 수의를 먼 곳으로 갈 때 입는 옷이라 하여 '머능옷'이라 하며, 죽을 때 입는 옷이라 하여 '죽으매옷'이라고도 한다. 경북 안동에서는 수의를 '머농'이라고 하며 명주나 삼베로 짓는다. 이처럼 윤달에는 수의를 짓기도 하지만 수의를 지을 옷감을 준비해두기도 한다. 전북 진안에서는 집에 노인이 있으면 윤달에 수의를 짓고 널(관)을 짜서 그 속에 수의를 넣어두기도 하며, 미리 수의를 준비해 놓은 집에서는 윤달이 오면 꺼내어 손질한 다음 다시 보관해둔다.

그런가 하면 윤달에는 집짓기를 시작하거나 집을 수리하기에 좋다고 하고, 이사를 마음대로 하여도 좋으며,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것도 좋다고 여긴다. 예전에는 변소를 고친다든가 수리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장독대도 함부로 옮기지 않았다. 이처럼 윤달에는 부정이나 액이 없다고 믿어 집수리, 이사와 같은 평소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집안의 일들을 마음놓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광주(廣州) 봉은사(奉恩寺)에서는 매양 윤달을 만나면 서울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탑(榻) 위에 놓는다. 그리하여 그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파들이 분주히 달려와 다투어 모인다. 서울과 그 밖의 절에서도 대개 이런 풍속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동국세시기』의 기록과 같이 윤달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렸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민간에서는 '윤달이 든 해는 절에 세 번만 가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복이 온다.'라고 하여 부녀자들은 이름 있는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러 가는 삼사순례(三寺巡禮)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북 고창에서는 윤달에 성돌이(성밟기)를 한다. 성돌이를



예수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최호식


1 이사하기
제주도 제주시 함성춘


2 숯 띄우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황현만


3 말린 고추 넣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황현만


4 창호지 바르기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김영광

하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이 모여서 하였다.

사찰에서는 윤달에 예수재(預修齋)를 올리기도 한다. 예수재는 글자 그대로 사후의 복을 살아서 미리 닦는 재로, 그동안 지은 죄를 씻고 사후에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한다. 지금도 태고종(太古宗)에서는 예수재를 성대히 지내며, 조계종(曹溪宗)에서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에서 예수재를 크게 지내고 있다.

윤달이 드는 해에 장승제를 지내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앞실마을에서는 윤달이 든 정월 열나흗날 밤에 장승제를 지낸다. 이 마을의 장승은 나무 장승이어서 소나무를 베어 마을 사람들이 직접 깎는다. 낮에 장승과 솟대를 세우고 풍물을 치며 한바탕 놀아준 후 대보름 자정을 전후하여 장승제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새벽 1시 무렵이면 제사가 끝난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창리에서는 윤달이 드는 해 정월 초나흘에 장승제를 지내는데,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윤달이 드는 해는 질병이 떠돌고 재앙이 심하여 그 예방으로 장승을 세운다고 한다.

정월이나 2월에 윤달이 들면 장을 담그고 팥죽을 쑤어 먹기도 한다. 충남 서산에서는 윤달에 장을 담그기도 하고, 지곡면 중왕리에서는 팥죽을 쑤어 먼저 성주, 조왕, 지신 등 가택신(家宅神)이 있는 곳에 차린 뒤, 대문에 팥죽을 뿌리고 나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이웃에 나누어주기도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불교와 세시풍속(안길모, 명상, 1993),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표인주(表仁柱)

가웃달

정의 가외로 있는 달이라는 의미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공달, 남의달이라고도 한다. 윤달은 태음력에서 계절의 추이를 맞추기 위하여 평년의 12개월에다가 한 달 더 보탠 달을 말한다.

내용 가웃달을 어학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웃(가욷)은 접미사로서 수량을 나타내는 되, 말, 자의

뒤에 붙어 그 단위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남는 분량을 이르는 말(두 말가웃, 석 자가웃)이 된다. 둘째, 가웃달은 '가(加)'와 '웃(上)'의 '달[月]'로서 음력으로 한 달이 더 위에 붙어 있는 달로 곧 남는 달이라는 뜻이다. 위의 첫째와 둘째를 통해서 보면 가웃달이란 여분의 달, 앞의 큰 달에 붙어 있는 남는 달, 한 달이 더 위에 붙어 있는 달의 속뜻을 지닌다.

참고문헌 |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우리민속학의 이해(김선풍 외, 월인, 2002).
필자 | 박상규(朴相圭)

공짜달

정의 공짜로 얻는 달이라는 의미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공달이라고도 한다.
내용 옛 풍속에는 윤달을 열두 달 외에 한 달이 더 있는 달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재앙이 따르지 않으면서 공짜로 얻은 달이라는 의미에서 공짜달이라 부른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그저달

정의 일년 열두 달 이 외에 더 있는 달이라는 의미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태음력에서 날짜가 계절과 1개월의 차이가 생길 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어느 한 달을 더 두는 것이다. 일년 열두 달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달이라 한다면, 윤달은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서 그저 있으나마나한 달이라는 차원에서 그저달이라 부른 것이 아닌가 한다. 혹은 일년 열두 달 이 외에 '그저 한 달이 더 있다' 혹은 '그저 한 달을 얻었다'는 의미에서도 '그저달'이라고 불렀을 법하다. 경남에서는 윤달은 가웃달, 그저달, 공짜달, 공달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남은달

정의 일년 열두 달 외에 남아 있는 달이라는 의미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일반적으로 일년 하면 열두 달을 생각하지만 태음력에서 날짜가 계절과 1개월의 차이가 생길 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어느 한 달을 더 두게 되는데, 그것이 일년 열두 달과는 무관한 가외로 더 있는 한 달이라는 뜻에서 남은달이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윤달은 남은달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매가 들어와도 다음달에 보자고 미루기도 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표인주(表仁柱)

덤달

정의 덤으로 더 있는 달이라는 뜻으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국어사전에서 덤은 명사로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제 값어치 외에 조금 더 얹어주거나 받는 물건을 뜻한다. 윤달은 덤으로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달에는 무슨 일을 하여도 특별한 탈이 없다고 믿었다. 아마도 이러한 연유는 원전 이 외의 가치에 대해서는 특별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없는달

정의 본래는 없었던 달이라는 의미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윤달은 원래 없는 달이기 때문에 귀신은 물론 꺼릴 것이 없는 때로 알려져 있다. 일년 열두 달에서 벗어난 달이기에 없어야 하는 달이 있다는 뜻이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윤달은 일상에서 벗어난 달 곧 비일상적인 달이기에 신성한 달이다. 신성한 기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 놓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松川洞의 家神信仰과 歲時風俗(金明子, 安東文化9, 安東文化硏究所, 1988).
필자 | 표인주(表仁柱)

여벌달

정의 여벌로 더 있는 달이라는 뜻으로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국어사전에서 여벌은 당장에 소용되는 것 외의 여분의 물건을 가리키며 여건(餘件), 부건(副件)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윤달은 가외로 더 있는 달이 되므로 여벌로 더 있는 달이라는 뜻의 여벌달이 되기도 한다. 곧 정상적(正常的)인 달에는 재액(災厄)이 따를 수 있지만, 여벌달은 여벌로 있는 달이기에 재액과는 무관(無關)하다고 믿어, 이달에는 집수리, 혼인, 이사 같은 행사를 마음 놓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 또는 여백의 미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우외달

정의 윤달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우외달의 '우외'는 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자어인 우요(右繞)라는 명사를 뜻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외라는 어휘가 지방의 한 방언(方言)으로서 이외(以外)라는 뜻을 지닌다고 볼 수도 있다. 곧 남는 달, 공달, 새로 생긴 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외달이란 첫째, 우요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도는 일을 뜻한다. 곧 우외달은 부처님에게 찾아가는 달 또는 부처님께 봉양하는 달이라는 뜻이 된다. 둘째, 방언으로 본다면 우외달은 이 외의 달인 공달, 새로 생긴 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외달에는 재액이 없고 공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못 다한 지성(至誠)을 다 할 수 있는 달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는 과거 우리 민족과 불교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學校出版部, 1964),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윤동짓달[閏冬至月]

정의 음력 11월에 윤달이 든 달을 이르는 말.

내용 윤동짓달이란 음력 11월에 윤달이 든 달을 가리킨다. 윤달은 없는 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윤달은 일년 열두 달 이 외에 더 있는 달을 말하는데, 태음력에서 날짜가 계절과 한 달의 차이가 생길 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 어느 한 달을 더 두는 것이다. 그 거듭되는 달은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 3월, 4월 또는 다른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11월에는 윤달이 잘 들지 않는다. 그래서 '윤동짓달 초하루'라는 말이 있다. 곧 윤동짓달은 없는 달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윤동짓달 초하룻날 한다"라고 하거나, 돈을 빌려 쓰고 "윤동짓날 초하룻날 갚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갚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말이 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學槪論(朴桂弘,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표인주(表仁柱)

윤사월(閏四月)

정의 음력 4월에 윤달이 들어 있는 것을 이르는 말. 윤달은 그 드는 달이 일정하지 않아 윤달이 음력 1월에 들면 윤일월, 윤달이 2월에 들면 윤이월, 윤달이 3월에 들면 윤삼월, 윤달이 4월에 들면 윤사월이라고 하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 윤달의 이칭으로 쓰인다.

내용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후집(後集)」 권2에 수록된 '이월이 다 되었으나 날씨가 춥다(二月向晩猶寒)' 시에 "올해는 윤사월이 들었으니 이달이 맹춘인 셈이로구나(今年四月閏 堪作孟春看)."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韓國民俗大觀4(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필자 | 표인주(表仁柱)





月內 월내

유달의 담십늘이는
액운을 쫓고
무병장수하며
극락왕생한다는
속신이 공통점이며
부녀자들이
윤달 든 해에
행렬을 지어
산성을 도는
보편화된
세시풍속이다. 冬

삼사순례(三寺巡禮)

정의 윤달[閏月]에 각기 다른 세 곳의 명찰(名刹)을 순례하여 액을 없애고 복을 비는 풍속. 역사적인 유래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근래에 들어 부쩍 늘어난 풍습이다.

내용 때와 상관없이 행해지던 사찰순례와 수의(壽衣)를 준비하고 예수재(預修齋)를 치르는 윤달의 풍습이 합쳐져 만들어진 불교 풍습의 하나이다. 윤달은 일년 열두 달 외에 한 달이 더 있는 달이므로, 사람들을 관장하는 신의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라서 부정을 탄다거나 액이 끼지 않는 기간으로 여겨, 이때를 틈타 평소에 꺼리던 여러 가지 행사를 치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주로 집안 수리나 이사를 하기도 하고 산소의 이장(移葬)이나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한다. 또는 윤달에 집안 어른의 수의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고 여겼고, 또 윤달이 든 해에 생전에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행사인 예수재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의 윤달조[閏月條]에는 윤달이 결혼하기 좋고 수의 만드는 데 좋다고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꺼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광주(廣州)의 봉은사(奉恩寺)에서는 윤달을 만나면 장안의 여인네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불전에 돈을 놓는데,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면 극락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할머니들이 다투어 와서 모인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여러 절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예수재를 치르듯이 꺼리는 일을 부담 없이 행하는 윤달에 성지순례, 그것도 세 곳의 절을 한꺼번에 순례하는 삼사순례가 더 영험이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이 윤달 삼사순례를 성행하게 만들었다.

삼사순례는 윤달에 주로 하지만 다른 때에 하기도 한다. 순례 대상으로는 기도 영험이 이름난 명찰을 주로 선정하는데, 선호하는 절로는 삼보사찰(三寶寺刹)인 통도사(通度寺), 해인사(海印寺), 송광사(松廣寺)를 비롯하여 3대 관음기도처인 낙산사(洛山寺), 보리암(菩提庵), 보문사(普門寺) 그리고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는 정암사(淨巖寺) 같은 5대 보궁(寶宮)이 손꼽힌다. 이 밖에 이름난 수행 도량이나 조용한 산사도 자주 찾는다.

인접국가 사례 일본에는 삼사순례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비슷한 풍습으로 삼산참예(三山參詣)가 있다. 중세시대에 구마노(熊野)산에 미타와 천수관음과 약사의 세 부처가 영험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다투어 참배하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어 이를 삼산참예라고 부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삼사순례는 왜 가는가(불교신문, 1998.6.16.).

필자 | 정병삼(鄭炳三)

예수재(預修齋)

정의 사후(死後)를 위해 살아 있을 때 재를 올려 공덕을 쌓는 불교의례. 삼사순례(三寺巡禮), 가사불사(袈裟佛事)와 함께 윤달[閏月]에 행하는 대표적인 불교민속의 하나이다.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예수칠재(預修七齋)라고도 하며, 사후에 행할 일을 미리 한다는 의미에서 역수(逆修)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유래 중국의 당대(唐代)에는 칠칠재(49재) 같은 천도재(薦度齋)가 민간의 불교의례로 정착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의 편찬과 함께 산 자들이 자신의 재를 미리 지내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도교의 영향으로 명부세계를 다스리는 열 명의 왕[十王]이 인간의 선악을 심판한다는 시왕사상의 성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곧 사후의 심판자를 모시고 미리[預] 공덕을 쌓아 자신의 업보를 씻음으로써[修]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로 널리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시왕신앙이 성행하고 『예수시왕생칠경』이 전래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예수재(預修齋)도 함께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윤달 세시풍속의 영향을 받아 사찰에서도 윤달이면 업장소멸(業障消滅)과 선업(善業)을 쌓는 행사로 이어져오고 있다.

내용 죽은 망자를 위해 산 자들이 행하는 의례를 천도재라고 하는데, 예수재는 자신의 내세를 위해 생전에 미리 올리는 천도재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지은 업을 심판받아 내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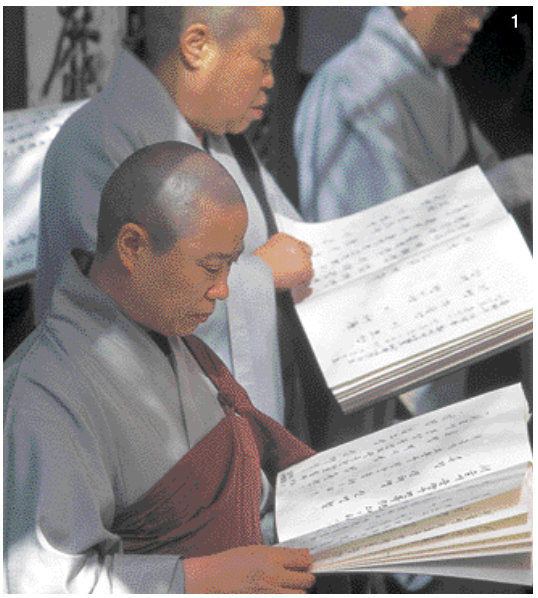
결정된다고 보는 사상이 있어, 사후의 삶은 곧 전생의 업보를 갚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예수재는 사후에 갚아야 할 전생의 빚과 과보를 살아 있는 동안에 미리 갚기 위한 의례인 셈이다. 예수재는 신앙 구성 요소가 밀교(密敎)적이고 의례의 모티브가 민속적 배경을 많이 지니고 있는 의례이다. 사찰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하고 범패(梵唄)와 의식무(儀式舞)가 따르는 가운데 많은 재자(齋者)들이 의례 주체로 동참하게 되어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띠게 된다. 사찰에 따라 하루 만에 지내거나 3·7일 곧 21일간 지내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49일간 중음계(中陰界)에 머문다고 보아 7일마다 일곱 번에 걸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윤달이 든 전달에 시작하여[入齋], 49일째인 마지막 회향일(回向日)이 윤달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 진행한다.

예수재에서 모시는 신적 존재는 다신 구조를 이루고 있어 신위 체계에 따른 설단(設壇)의 양식 또한 중층적이다. 크게 상단·중단·하단의 3단으로 구분하여 상단은 증명단(證明壇)의 구실을 하고, 중단이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며, 하단은 부속단(附屬壇)에 해당한다. 상단에는 다시 비로자나불[法身佛], 노사나불[報身佛], 석가모니불[化身佛]을 모신 삼신불단(三神佛壇)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지장보살(地藏菩薩)을 비롯한 여러 보살과 육대천조(六大天曹)와 도명존자(道明尊者), 무독귀왕(無毒鬼王)을, 서쪽에는 대범천왕(大梵天王), 제석천왕(帝釋天王), 사방천왕(四方天王)같은 위목(位目)을 둔다. 중단은 다시 상중하로 나누어 주 의례 대상인 시왕을 중상단에 두고 하판관(下判官)에서부터 위계에 따라 각기 중중단과 중하단을 마련하며, 하단에는 조관단(曹官壇), 사자단(使者壇), 마구단(馬廐壇)을 두게 된다.

의례 내용의 특징은 누구나 살아 있는 동안에 빚을 안게 되는데, 이는 경전을 보지 못한 빚과 금전적인 빚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례에 동참한 재자들은 각 단의 신적 존재들을 차례로 청해 경배와 공양의례를 올릴 뿐만 아니라, 경전을 봉독하고 지전(紙錢)을 헌납하는 과정을 치르게 된다. 특히 『예수천왕통의(預修天王通儀)』「십이생상속(十二生相續)」에 따르면 육십갑자(六十甲子)에 따라 개인이 읽어야 할 책의 권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생(甲子生)의 경우 5만 3천관의 흠전(欠錢)과 함께 17권의 간경(看經)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흠전과 독경을 약속한 채 태어나게 되어 금생에 약속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믿음을 환수생신앙(還壽生信仰)이라 하며, 고사(庫司)에 미리 돈을 납입해두면 내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기고신앙(寄庫信仰)이라 한다.

지전을 납입하여 빚을 갚고 나면 함합소(緘合疏)라는 소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은 불사르고 나머지는 재자가 간직하게 된다. 이 종이는 영수증과 같은 징표의 구실을 하여 재자가

〈예수재〉
1 경전 봉독
2 지전 헌납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보문사
최호식





죽은 뒤 관속에 넣어 명부에 가지고 가게 되며, 그곳에서 불태워진 조각과 대조한 후 맞으면 그 공덕을 인정받아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재에서는 지전이 의례의 핵심을 이루는 매개물이 되고 있으며 의례에서는 이를 '금은전'이라 칭한다. 따라서 본재(本齋)가 시작되기 전에 법당에서 조전의식(造錢儀式)을 행하는데, 이는 한지로 지전을 만들고 이를 다시 금은전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곧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발 위에 지전을 놓고 진언(眞言)을 외우면서 물을 흩뿌리는 일련의 의식을 행함으로써 종이돈은 금은전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렇듯 신통력을 통해 신앙의 대상으로 변환시키는 과정만을 일컬어 점안의식(點眼儀式)이라고도 한다. 근래에는 인쇄용 돈으로 지전을 대치하고 있으며, 양을 줄이기 위해 명부금고(冥府金庫) 발행권인 일만관(一萬貫)짜리 지폐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의의 예수재는 민간이 의례 주체로 참여하는 불교의례의 전형을 이루는 것으로, 경전 빚은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금전 빚은 이를 통해 재보시(齋布施)를 유도하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종교에 의지하여 내세의 복락을 기구하는 민간의 심성과 깊이 결합된 전통의례로서 기복불교(祈福佛敎)의 전형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미리[預] 닦는다[修]'라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재는 본래 불자들이 소홀했던 자기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발원하는 의례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전에서 "예수(預修)하고자 하거든 방생부터 먼저 하라."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극락왕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보시행으로 공덕을 쌓는 의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망자를 위해 유족들이 행하는 천도재가 타력에 의한 것임에 비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는 자력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의례라 하겠다.

참고문헌 | 預修十王生七經, 預修天王通儀, 地藏菩薩本願經, 佛敎辭典(耘虛龍夏, 동국역경원, 1961), 釋門儀範(安震湖, 法輪社, 1964), 佛敎儀式(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문상련, 운주사, 2001), 불교예수재 의식(한정섭 편저, 불교정신문화연구원, 2004).

필자 | 구미래(具美來)

답성놀이(踏城-)

정의 윤달이 드는 해를 윤년이라 하는데 윤년의 윤달에 부녀자들이 성곽 위에 올라가 산성(山城)의 능선을 따라 밟으며 열을 지어 도는 풍속. 성돌기, 성밟기라고도 한다.

내용 윤달의 답성(踏城)놀이는 액운을 쫓고 무병장수하며 극락왕생한다는 속신이 공통점이며, 부녀자들이 윤달 든 해에 행렬을 지어 산성을 도는 보편화된 세시풍속이다. 윤달에서도 엿셋날이 저승문이 열리는 날이라 하여 초엿세날, 열엿셋날, 스무엿셋날을 답성일로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678년에 현감 이항(李恒)은 고창 모양성(牟陽城)을 개축할 때에도 윤3월을 택하였으며, 순조 3년(1803) 고창읍에 읍치풍수의 석조물을 조성할 때에도 윤3월을 택하였다. 이러한 답성놀이는 개성 천마산성(天魔山城), 전북 고창의 모양성(모양산성 혹은 고창읍성), 남원의 교룡산성(蛟龍山城: 전북 기념물 제9호)을 비롯하여 전남 영광 지역에서도 전해오는 풍속이다.

답성놀이가 대표적으로 행해지는 곳으로 전북 고창 지역의 모양성이 있다. 고창 모양성의 답성놀이 풍속은 숙종 4년(1678) 고창 현감 이항이 정유재란 이후 폐성된 모양성을 대대적으로 개축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개축에는 여덟 현의 혈기왕성한 남성들을 동원하였는데, 윤3월에 모양성 개축을 완공하면서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돌을 머리에 이고 모양성을 돌면 무병장수하고 극락왕생한다는 소문을 퍼트려 모양성 밟기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양성 답성놀이는 축성설화와 관련이 있다. 모양성에 오뉘힘내기형 성 쌓기 설화가 전해오는데, 다음은 고창 모양성과 아산 서산고성(西山古城: 전북 문화재 자료 제177호)의 성 쌓기 설화이다.

"옛날 백제 때 남자와 여자가 두 패로 나뉘어 성 쌓기 내기를 했다. 평지와 산으로 된 모양성은 여자들이 쌓고 아산면 봉덕리 섬틀봉의 서산고성은 남자들이 쌓기로 하였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힘이 세니까 여자들이 자기들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여유를 부리며 날마다 여흥을 즐기느라 성 쌓는 것을 게을리 했고, 반면 힘이 약한 여인들은 꾀를 내어 섬틀봉이 마주 보이는 북쪽 문은 쌓지 않고 똑같이 마주


1


2

1~2 답성놀이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국립민속박물관

보이는 북쪽에서 장구 치며 노는 것처럼 꾸미고 상대 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은 부지런히 쌓아갔다. 북쪽을 빼놓고는 거의 완성을 해가는 데 상대편 남자 쪽에서 한밤중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와서 성이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고 부리나케 되돌아가 자기편에게 여자 쪽 성이 북쪽만 남겨두고 거의 완성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 그제야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 쌓을 돌들을 부랴부랴 실어 나르는데 여자 쪽에서 성을 완성하여 만세를 부르자 한탄을 하며 성 쌓기를 중단하고, 그때 버리고 간 성돌이 쌓여서 고인돌의 무더기가 생겼다."라는 전설이 전한다.

모양성은 고창읍의 동남쪽에 있으며 서산고성은 고창읍에서 서남쪽으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섬틀봉에 있다. 서산고성은 전설처럼 남자들이 성 쌓기를 게을리하여 패한 관계로 실제 성터 흔적만 남아 있다. 성터는 섬틀봉의 테두리 산성 형식인데, 석성이 보이지 않고 산성의 틀만 보인다 하여 섬틀봉이라는 지명이 붙여졌다. 지금도 고창읍에서 무장 방향으로 가다보면 섬틀봉의 성터 흔적을 볼 수 있다. 또한 성 쌓기를 중단하고 버린 돌이 고인돌 무더기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섬틀봉 아래에는 고인돌이 군집을 이루고 있다.

고창 모양성 답성놀이는 윤달에 북망산천의 저승문이 열린다는 속설로 전국 각지에서 소복단장을 한 부녀자들이 성밟기를 하려고 찾아든다. 부녀자들의 소복단장은 생전에 극락왕생을 체험하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모양성의 북문[拱北門]은 저승길에 열리는 극락문이라 할 수 있으며, 그곳으로 들어가면 극락세계가 펼쳐지는 곳이다. 북문으로 들어가 높은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북문으로 돌아오는 방식의 모양성을 현실속의 극락세계로 설정했다고 보고,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생전에 극락세계를 한 번 다녀오고 싶어 이곳의 답성놀이를 즐겼다고 본다. 손 없는 윤달에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모양성을 밟아야 저승길에 극락왕생한다는 속신이 답성풍속을 만들어냈으며, 태양력으로 4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윤달 특히, 윤3월에 답성을 하면 더욱 효험이 있다는 속설이 전해온다.

모양성 답성놀이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답교놀이와 유사하다. 답교놀이는 다리밟기를 하면서 소원성취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인데, 모양성 답성놀이도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소원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답성의 순서는 북문으로 들어선 후 손바닥 크기의 성돌을 머리에 이고 동쪽 성곽 위를 걷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문의 등양루에 오르면 문루의 창문을 세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소원하는 치성을 올린다. 모양성에는 여섯 곳의 치성(雉城)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면 부녀자들은 저승으로 가는 길에도 반드시 노자가 따르는 법으로 알고 손수 가꾼 오곡을 백지에 한줌 씩 싸가지고 와서 조금씩 펴놓고 "저승길 노수요" 하고 합장하며 삼배(三拜)를 올린 뒤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의 소망을 기원한다. 모양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왕생한다는 속신에 따라 머리에 돌을 이고 세 바퀴를 도는 부녀자들의 풍속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조선 후기 고창 지역에는 사회 혼란과 함께 미륵신앙과 지장신앙이 성행하였는데 탑돌이하는 불교 민속과 윤달 속신의 전통이 고창 지역의 나이든 부녀자들 사이에 윤달이 든 해에 모양성에 찾아가 극락왕생을 서원(誓願)하고 무병장수를 비는 관습을 생기게 하였다. 이런 배경 위에서 이곳의 답성놀이가 1678년 윤3월과 1803년 윤3월에 모양성을 개축하면서 크게 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고창 지역의 부녀자들은 윤달이 든 해에는 모양성을 찾아가 현실 사회에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답성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정월 초 다리밟기를 하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탑돌이를 하면서 극락왕생을 서원하는 세시풍속은 고창 모양성의 산성 형태와 성곽설화가 조합되면서 모양성 답성놀이로 계승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의 歲時風俗II(국립민속박물관, 1998),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송화섭(宋華燮)

성밟기(城-)

☞ 답성놀이(踏城-): 겨울편

윤달 든 회양목인가

정의 회양목의 자라는 속도가 더딘 것에 빗대어 일이 진행되는 정도가 더딤을 의미하는 속담. 키 작은 사람을 놀리는 말로 쓰기도 한다.

내용 "윤달에 만난 회양목" 또는 "윤달 만난 황양목"이라고도 하는데, 회양목이 윤달이 되면 그 키가 한 치씩 준다는 전설에서 나온 말이며, 황양목(黃楊木)이란 회양목의 옛 이름이다.

회양목은 정원의 가장자리나 통로의 양옆에 동그랗게 깎아놓은, 손톱 크기만한 도톰한 잎사귀가 사철 달려 있는 키 작은 정원수이다. 회양목은 자람이 극히 더디어 1년에 많이 자라야 3센티미터쯤 자라고, 줄기의 지름이 12센티미터로 자라려면 80년이나 걸리고, 지름이 25센티미터이면 600~700년생은 된다. 이렇게 회양목이 1년 자라야 겨우 3센티미터 정도(한 치)인데, 윤달 한 달이 추가되어도 키가 자라기는 커녕 오히려 한 치씩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키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하는 일이 시간이 추가되어도 진전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매우 더디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래에 비해 유난히 작은 사람을 놀리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미디어, 2003).
필자 | 김낙효(金洛孝)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

정의 윤달에는 어떤 일을 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의 속담. 윤달은 덤으로 있는 '공달'이어서 부정이나 탈이 없다고 생각하여, 궂은일을 모두 윤달에 하는 것을 부각시켜 하는 말이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윤달조[閏月條]를 보면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 만드는 데 좋다. …… 광주(廣州) 봉은사에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여인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 윤달이 다 가도록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처럼 윤달에는 불공을 드리고, 성돌기를 하며 극락세계 가기를 기원했다. 또한 평소에 변소 수리, 집 수리, 이사, 수의 만들기, 묘 손질 같은 일을 함부로 안 하는데, 윤달에는 일진도 안 보고 아무 때나 한다. 윤달에 아무 탈이 없다 하여, 면례(緬禮;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지냄)를 하거나 묘를 수리한다. 그리고 윤달에 수의를 만드는데, 특히 윤6월에 수의를 장만하면 부모가 오래 산다는 속설도 전한다. 전북 진안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짓고 널을 짜서 그 속에 넣어두기도 하며, 미리 준비해놓은 집에서는 윤달에 꺼내어 손본 후 다시 들여놓는다. 곧 이 속담은 평소에는 부정이나 동티가 두려워 꺼리던 일을 윤달에 거침없이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한국세시풍속 I (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낙효(金洛孝)

윤동짓달 스무하룻날 주겠다

정의 빚을 말로만 갚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못 갚겠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달[月]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음력의 일년은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양력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음력 날짜는 태양의 움직임과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게 되어 계절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태양태음력에서는 19년에 7번 윤달을 넣어 일년을 13개월로 한다. 그런데 동짓달에 윤달이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세기 동안의 윤달을 살펴보면, 윤달이 모두 37번 있었는데 동짓달에는 윤달이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동짓달에 윤달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윤동짓달에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줄 돈을 갚지 않거나 못 갚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유사속담 "윤동짓달 초하룻날 갚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날짜만 다르게 말한 것으로 같은 뜻이다. "윤동짓달 초하룻날 만나자"라는 말도 있는데, 윤동짓달은 없는 달과 같으므로 만나자는 말이 헛말임을 뜻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正本萬歲曆(金宇齋 編, 明文堂, 2004).
필자 | 최운식(崔雲植)

윤섣달은 앉은 방석도 안 돌려놓는다

정의 윤섣달에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윤섣달에는 이사나 혼인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습속에서 나온 말로, 윤섣달에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섣달에 윤달이 드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말에 제약을 받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물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 "육섣달에는 앉은 방석도 아니 돌아놓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이것은 일년 중 제일 더운 음력 6월과 추운 섣달에는 이사나 여행 또는 혼인 같은 행사를 하지 않음이 좋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이기문, 民衆書館, 1974),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 · 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최운식(崔雲植)

윤이월 제사냐

정의 자주 돌아오지 아니하는 윤2월 제사처럼 자꾸 빼먹거나 거르는 것을 핀잔하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음력으로 윤달은 3년에 한 번 또는 5년에 두 번 든다. 윤달이 드는 달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진다. 그러므로 윤2월은 자주 돌아오지 않고 어쩌다가 돌아온다. 이렇게 어쩌다 돌아오는 윤2월의 제사처럼 어떤 일을 자꾸 빼먹고 거르는 것을 꼬집을 때 이 말을 쓴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최운식(崔雲植)

흉년에 윤달 든다

정의 흉년에 윤달까지 들어 그만큼 더 어렵다는 의미의 속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좋지 못한 일이 겹친다는 말이다.

내용 평소에도 춘궁기(春窮期)에는 살기가 몹시 어려워 "보릿고개 때에는 딸네집에도 가지 마라"고 한다. 보릿고개에는 누구나 식량 때문에 곤란을 받으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보릿고개 때는 방문을 삼가라는 의미로서 흉년에는 더욱 그렇다.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나 "보릿고개에 죽는다"는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흉년에 보릿고개라면 반가운 친정어머니의 방문도 곤란했던 때이므로 누구든 그해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윤달까지 들어 보릿고개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어려움이 그만큼 더 지속된다는 뜻으로 불행이 겹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미디어, 2003).
필자 | 김낙효(金洛孝)





生業 생업

윤달은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었다고 할 만큼
탈이 따르지 않는 달이다.
사람들은 탈이 없는
윤달을 맞이하여
평소 때 꺼리던
일을 하게 된다.

머농짓기

정의 윤달에 만들면 좋다고 하여 저승옷을 가리키는 수의(壽衣)인 머농을 짓는 것. 머농은 '먼[장(欌)] 옷'을 뜻하는 것으로 먼 곳으로 가는 사람의 옷, 죽음을 앞둔 사람의 옷, 저승옷, 죽음옷을 가리키는 수의를 의미한다. 원래는 저승옷을 넣어두는 가구인 장(欌)을 뜻하여, 저승옷장이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놓은 수의장을 의미한다. 경상북도 안동(安東)에서는 윤달에 수의를 만들어놓았는데 이를 머농이라고 하였다.

내용 윤달은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고 할 만큼 탈이 따르지 않는 달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탈이 없는 윤달을 맞이하여 평소 때 꺼리던 일을 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는 가장 어렵고 탈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집수리, 이사, 결혼, 산소 이장, 수의만드는 일을 윤달에 하였다.

어학적으로 살펴보면 머농이란 첫째는 먼과 농의 합성어(合成語)이고, 둘째는 먼은 형용사 멀다의 관형사 어형이며, 셋째는 농은 한자어로 농(籠)으로서 옷 따위를 넣어 두는 상자 모양의 자그마한 가구, 개판과 마대, 서랍이 없고 흔히 두세 개를 포개어 놓고 쓰는 장롱을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평소 수의는 우리의 생활과는 멀리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수의를 넣어놓은 장롱을 먼 곳의 농이라는 뜻으로 머농이라고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수의나라

참고문헌 | 李朝語辭典(劉昌惇, 延世大學校出版部, 1964), 동아새국어사전(이기문, 두산동아, 1989).

필자 | 박상규(朴相圭)

수의만들기(壽衣-)

정의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에 입히는 옷인 수의(壽衣)를 만드는 일.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윤달조[閏月條]에 "윤달에는 통속적으로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만드는데 좋다."라고 하여 윤달에 주로 수의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수의는 시신에 입히는 옷과 관련된 부속품을 말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수의라는 용어보다 습의(襲衣)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염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습의(殮襲衣)가 요즈음의 상례에서는 염의(殮衣)를 사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둔 습의만을 사용하고 있다.

수의는 시신을 입관(入棺)하기까지 세 단계 과정, 즉 습(襲)과 소렴(小殮)과 대렴(大殮) 가운데 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옷과 부속품으로 시신을 가림으로써 보호하고 견실하게 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 외에 애처로운 시신에게 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사용되었다.

수의는 문헌이나 유물에 의하면 크게 두의[頭衣, 首冠], 상복[上服, 表衣], 상의(上衣), 하의(下衣), 족의(足衣)로 구성하며, 그 외 염습구로 충이(充耳; 시신의 귀에 꽂는 한 쌍의 솜뭉치), 멱목(幎目; 얼굴을 덮는 사각형 가리개의 일종), 악수(握手; 시신의 손의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손싸개), 오낭(五囊; 머리카락과 좌우의 손톱 발톱을 넣는 다섯 개의 주머니), 소렴금, 대렴금, 베개, 염포(殮布; 염습할 때 시신을 묶는 베), 천금(天衾; 입관 후에 시신 위에 덮는 이불), 지요(입관할 때 시신 밑에 펴는 요)가 있다.

19세기 말엽의 『광례람(廣禮覽)』에는 세속의

제도를 수용하여 남자 수의에 망건, 복건, 심의, 대대, 조대, 단삼, 저고리, 이의, 중치막, 단고, 고, 요대, 경대, 말, 이, 행등(行縢)을 제시하였으며, 여자 수의로는 여모(女帽)와 원삼, 대대, 단삼, 저고리, 견마기[絹莫只], 단고, 고를 제시하였고 공용으로는 충이, 멱모, 악수를 제시하였다.

개화기 이후 김숙당(金淑堂)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에는 종전의 습과 대소렴의 상례 과정이 습 과정 하나로 통합되면서 소렴, 대렴에서 사용되었던 물품들이 일부 추가되어 남자 수의로 복건, 과두, 망건, 댕기, 학창의, 대, 저고리 두 벌, 중치막, 겹옷, 고의, 바지, 허리띠, 대님, 버선, 신을 제시하였고, 여자 수의로는 두수, 댕기, 원삼, 띠, 속적삼, 분홍저고리, 회장저고리, 당의, 바지, 단속곳, 단상, 홍치마, 남치마, 버선, 신을 제시하였다. 남여 공용품으로는 면모, 악수, 복과, 현훈, 영, 현금, 지요, 베개, 대소렴금, 오낭을 제시하였다.

수의를 만들 때 최근에는 삼베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의제작에 주로 삼베가 이용되는 것은 삼베의 특수 성분 때문이기도 하다. 여름철 삼베보자기로 밥을 덮었을 때 쉬지 않게 하는 항바이오 작용이 사체가 유탈되면서 벌레나 잡균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삼베는 산성분에 강하므로 시신이 유탈되는 과정에서 뼈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명주는 시신이 썩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기록도 있으나 삼베수의와 명주수의의 비율이 절반을 이룬다고 한다. 서울, 경기, 광주는 삼베로 만든 수의가 주(主)를 이루고 경상도에서는 명주로 만든 수의의 수요가 많다.

삼베는 직조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손으로 꼬아서 만든 실로 손으로 직조한 삼베가 있고, 손으로 만든 실과 기계로 만든 실을 합하여 손으로 직조한 것도 있다. 또 기계로 만든 실과 손으로 만든 실을 기계로 직조한 것도 있다. 값은 손으로 꼬아 만든 실로 손으로 직조한 것이 가장 비싸다. 삼베의 종류에 따라 가격의 격차가 심한 편이다.

수의의 색채는 주로 삼베 그대로의 소색이 사용되고 있고 백색이나 부분적으로 검정도 사용되고 있으며 혼인 때 입었던 옷을 수의로 사용할 때는 화려한 혼인 예복의 색채도 수의의 색채가 될 수 있다.


1


2

1 수의 옷감
2 수의 제작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수의나라

참고문헌 | 廣禮覽, 四禮便覽, 喪禮備要, 朝鮮裁縫全書(金淑堂, 活文社, 1925), 우리나라 옷(石宙善, 光文出版社, 1966), 朝鮮前期 出土服飾 硏究(朴聖實,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조선시대 수의와 현행 수의의 착의법에 관한 연구(남민이 · 한명숙, 복식문화연구8-6, 복식문화학회, 2000), 韓國의 壽衣文化(한국출토복식연구회 엮음, 도서출판 신유, 2002).

필자 | 박성실(朴聖實)

ㄱ

가갸글 112
가갸날 111, 112
가락지 306, 307
가락지감추기 306
가락지찾기놀이 **306**, 307
가락토리 324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328
가로대 315, 325
가롯대 324
가리우찌(加利宇智) 278
가마니짜기 19
가망거리 81
가망청배 65, 225, 226
가묘(家廟) 24, 85, 168, 211, 235
가부리 338
가사불사(袈裟佛事) 358
가사협(賈思勰) 100, 301
가산오광대 149
가수(嫁樹) 265
가신제(家神祭) 83
가오리잡이 **337**
가웃달 **353**, 354
가월(葭月) **170**, 174
가을고사 32, 42, 71
가을 날씨와 사내 마음은 모른다 327
가을 날씨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327
가을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 327
가을 날씨 좋은 것과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327
가을떡 74
가을보리 18, 19
가을시루 74
가자미 20, 232, 302, 339, 340, 341
가자미식해(-食醢) **301**, 302, 341
가자미잡이 **339**
가재미 215, 339, 341
가지[茄] 98
가창오리 14, 17
가택신(家宅神) 32, 34, 71, 353
가평(嘉平) **236**, 240, 242, 248
가평절(嘉平節) 236
가포육영(家圃六詠) 98, 217
각색편 9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346
간쟁이 338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 303
갈홍(葛洪) 38
감나무 265, 266
감나무에 오줌붓기 265
감나무에 좁쌀밥붙이기 265
감등(減等) 296
감저(甘藷) 302
감저병(甘藷餠) 302
감제 302
감제(柑製) 180, 213
감제떡[甘藷-] **302**
감제침떡 302
감주계식혜(甘酒系食醯) 306
강령탈춤 149
강릉관노가면극 149
강릉단오제 226
강원감영제(江原監營祭) **120**
강정[乾飣] 295
강희맹(姜希孟) 243
개동(開冬) **35**, 36, 38
개똥갈이 329
개빙제(開氷祭) 293
개사냥 314, 315
개역 264
개운포(開雲浦) 159, 281
개재미 339
개천예술제(開天藝術祭) 34, **121**, 122, 128, 155, 156
개천절(開天節) 34, **110**, 111, 162

갯 겨울 가뭄에 김 고장으로 딸 시집보낸다 326
거문도(巨文島) 268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 110
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 110
건시대제(乾始大祭) 202
건시제(乾始祭) 202
건자(鞬子) 316, 317, 319, 321
걸립 30, 64, 65, 224, 225, 226, 276, 277
걸립거리 81
겉말림 104, 105
게혜사(揭傒斯) 171
겨우살이 18, 166
겨울 가죽옷이다[冬日麕裘] 327
겨울 날씨와 늙은이의 근력 좋은 것은 모른다 327
겨울 날씨와 양반은 한갓 고달이 있다 327
겨울 날씨와 여자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 327
겨울 날씨 좋은 건 못 믿는다 327
겨울 따슨 해 보리 굼벵이 자른다 327
겨울바람이 봄바람보고 춥다고 한다 328
겨울밤이 길다 해도 내 새끼끈만은 못하다 328
겨울 베옷도 안 입은 것보다 낫다 328
겨울 보리밭은 밟을수록 좋다 328
겨울 부채요 여름 화로다 330
겨울 새벽에 개똥 줍는다 329
겨울 소 값은 떨어지고 봄 소 값은 오른다 329
겨울 소 팔자다 329
겨울에 베옷이다 330
겨울의 털옷, 여름의 갈포옷 332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 안다 330
겨울이 돼서야 솜옷을 장만한다 330
겨울이 돼야 송백(松柏)의 절개를 알게 된다 330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331
겨울천둥 296
겨울철새 14, 16, 17
겨울철 안개에는 해동비가 내린다 331
겨울철은 따뜻해야 눈이 온다 332
겨울 털옷이요 여름 갈포옷이다 327
겨울 화롯불은 어머니보다 낫다 335
격구(擊毬) 319, 320, 321
격구[打毬, 馬毬] 320
격몽요결(擊蒙要訣) 75, 78, 79, 249
격환(擊丸) 319
견마기[絹莫只] 367
결빙복(結氷卜) 192
결제불공 45
경국대전(經國大典) 221
경단(瓊團) 22, 89, 199
경단병 89
경도잡지(京都雜志) 42, 43, 105, 247, 295
경로의 달 117
경로헌장(敬老憲章) 117
경신수세 254, 257
경신수야(庚申守夜) 254, **265**, 26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146
경찰(警察) 113, 114
경찰의 날(警察-) 34, **113**, 114
경칩(驚蟄) 287, 289
계(戒) 209
계곡집(谿谷集) 215, 259
계동(季冬) 23, 212, 232, **236**, 237, 239, 240, 242, 243
계동대나례(季冬大儺禮) 261, 262, 263
계산기정(薊山紀程) 195
계절풍 95
계춘(季春) 261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36
고나(古儺) 261, 262
고놈죽은날 47, 48
고니 14, 16
고동 324
고동무치 338
고드름 170, 192, 297
고드름점 24, **297**
고려사(高麗史) 86, 93, 202, 210, 211, 262
279, 292, 293, 297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209, 210
고마[高麗] 322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175, 237
고봉집(高峯集) 173
고사(告祀) 14, 21, 30, 32, 42, 43, 44, 45, 52, 58 71, 90, 182, 185, 256, 258, 267
고사떡해먹기 44
고사성어고(古事成語考) 171
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 305
고사천자(故事千字) 100
고상안(高尙顔) 191, 249
고생 끝에 낙이 있다 287, 289
고성농요 141
고성사당제(高城祠堂祭) **292**
고성오광대 141, 149, 161
고월(皐月) 166, **171**, 174
고을나(高乙那) 202
고창모양성제(高敞牟陽城祭) **123**, 124, 125
고창읍성(高敞邑城) 123, 125
고창읍성답성놀이 123
고추 20, 94, 100, 170, 217, 266, 269, 337
고춧불 266
곤괘(坤卦) 35, 38, 172, 241
곤봉과 방울을 엇바꾸어 받기 273
곤월(坤月) 30, **35**
골동면(骨董麵) 170, **214**
골동반(骨董飯) 214, **273**
골동십삼설(骨董十三說) 273
골매기신 80
골매기할매할배 81
골무떡 **303**
공검지(恭儉池) 191
공공씨(共工氏) 168, 181, 185, 192, 194, 199
공놀리기 274, 275
공달 353, 354, 355, 362
공어(鮫魚) 338
공업기념탑 157
공영달(孔穎達) 175
공죽(空竹) 274, 275
공짜달 **354**
과세(過歲) 235, 264, 265
과일나무시집보내기 265
과일나무에 시루물주기 **265**
관동별곡(關東別曲) 140
관란재일기(觀瀾齋日記) 260
관상감(觀象監) 23, 166, 179, 186, 187, 233, 262, 292
관음찬(觀音讚) 279
관처용(觀處容) 279, 280
광례람(廣禮覽) 366
광복예술제 141
광복절(光復節) 110, 222
광어(廣魚) 339, 341
광재물보(廣才物譜) 174
광제환(廣濟丸) 246, 249
광주제일고등학교 22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224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224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기념비(光州學生獨立運動震源記念碑) 224
광주학생독립운동진원지나주역사(光州學生獨立運動震源地羅州驛舍) 224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 223
광주학생운동기념역사관 224
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 224
괴머리바탕 324
교룡산성(蛟龍山城) 360
교맥유(蕎麥乳) 303
교병(膠餠) 196
교아성(膠牙餳) 295
교정의 날(矯正-) **114**, 115
구귀축역(驅鬼逐疫) 261, 262
구나의식(驅儺儀式) 262
구년세관(舊年歲官) 251
구동지(舊冬至) 182
구세배(舊歲拜) 24, 235, 239, 264
구역의식(驅疫儀式) 261, 262, 263

9월 입동 오나락이 좋고 10월 입동 늦나락이 좋다 53
구일제(九日製) 213
구황작물 302, 304
국가기념일 118, 220, 221, 222, 223, 224, 346
국경일(國慶日) 21, 34, 110, 111, 112, 113
국군의 날(國軍-) 34, 112, **115**, 116
국군의날에관한규정 115
국나(國儺) 261
국립경찰창설일 114
국민체육진흥법 119
국제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 116
국제사 253
국제연합(UN) 116
국제연합일(國際聯合日) 34, **116**
국제연합창설일 116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87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202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75, 86, 87, 140, 188, 249, 262
국차사 264
군경평의(群經平議) 171, 238
군나(軍儺) 262
군례(軍禮) 84, 261
군수놀이 308, 309
군웅거리 65, 81
군웅신 43
군학회등(群學會謄) 194, 195
굴뚱 324
굴레 299, 300, 301
굴림만두 305
굵은 베옷도 없는 것보다 낫다 328
궁기(窮紀) **236**, 237, 240
궁동(窮冬) **236**, 237, 240
궁랍(窮臘) 233, **256**, 258, 260
궁예(弓裔) 209
궁임(窮稔) 236, **237**, 240, 242, 246
궁정나(宮廷儺) 262
궁하면 통한다 288
궁호(窮冱) **237**, 240
권농의 날 220
권농일 220
권모(拳摸) 303
궐희(闕戱) **307**
궤세(饋歲) 295
귀성(歸省) **261**
귀신날 266
귀신단지날 266
귀신달구기 **266**
귀신달기날 266
귀신달림 266
귀신닭날 266
귀페코ᄉᆞ 58
귀페코시 58
귀페코사 58
귀표 58
귀표고사[耳標告祀] **58**
귀표왓 58
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 286
규곤시의방(閨壼是議方) 303
규곤요람(閨壼要覽) 105, 215
규식지희(規式之戱) 274, 275
규합총서(閨閤叢書) 89, 100, 105, 194, 195
196, 216, 217, 302
그늘에 누운 여름 소 팔자다 330
그레고리력 112, 347
그믐세배 264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328
그저달 **354**
극월(極月) 241
극한(極寒) 175, 243
금넨(金ネン) 313
금단작신가면(錦緞作神假面) 292
금오신화(金鰲新話) 278
금은전 360
금패(禁牌) 343

금화(禁火) 221
금화도감(禁火都監) 221
금환(金丸) 274
급분(給分) 213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331
급하다고 콩마당에 간수 칠까 331
기고신앙(寄庫信仰) 359
기구(氣毬) 317, 319, 320, 321
기대승(奇大升) 173
기복불교(祈福佛敎) 360
기선저인망 341, 342
기설제(祇雪祭) **292**, 293
기한(祇寒) **171**, 175
기한제(祈寒祭) 293
기후(氣候) **12**, 13, 27, 39, 192, 193, 287, 288, 294, 304, 331
길쌈 20, 172
길쌈노동요 324
길조(吉兆) 87, 88, 189
김광규(金光圭) 258
김구(金九) 222
김대문 320
김만덕(金萬德) 161
김매순(金邁淳) 254
김부식(金富軾) 134
김수로왕 325
김숙당(金淑堂) 272, 367
김시민(金時敏) 122
김시습(金時習) 278
김육(金堉) 260
김장 18, 22, 33, 48, 52, 53, 55 87, **98**, 100, 101, 217, 247, 301, 332
김장생(金長生) 78, 79
김장은 겨울철의 반 양식 **332**
김장은 절반 양식 332
김장은 풍년이면 늦게 담그고 흉년이면 일찍 담가야 한다 332
김종직(金宗直) 84, 248, 250
김준근(金俊根) 274
김지하(金芝河) 258
김치 24, 30, 33, 87, 98, 100, 101 102 , 170, 216, 217, 233, 310, 332
김치무리 98, 100
김포군지(金浦郡誌) 48
까마귀 189, 190
까치 189, 232, 236, 272, 286
까치두루마기 **271**, 272
까치설 24, 233, 271
깍두기 101, 217
꼭지(두)마리 324
꽃등행렬 224, 225
꽃받기 65, 225
꽃이 펴야 열매도 연다 331
꿩만두 305
꿩사냥 314

ㄴ

나까시리전침 80
나레즈시 301, 306
나례(儺禮) 24, 146, 249, 253, 255, **261** 262, 263, 268, 270, 274, 279, 281, 292
나례신(儺禮神) 292
나례희(儺禮戱) 274
나막신쟁이의 날 **246**
나무못 313
나무치기 313
나복 98
나부영(羅浮穎) 91, 214
나신(儺神) 261, 262
나의식(儺儀式) 261, 262, 263
나제(儺祭) 261
나탈래(Natale) 346
나희(儺戱) 255, 261, 262, 263, 279

낙빈왕(駱賓王) 238
난가출궁(鑾駕出宮) 210
난란희(煖暖會) 94
난로회(煖爐會) 33, 91, 92, **94**
난모(暖帽) **299**, 301
난이(煖耳) 299
날씨점 31, 33, 53, 169, 256
날짐승점 168, **189**
남감(南甘) 30
남대지(南大池) 191
남바위 299, 300, 301
남방감저병(南方甘藷餠) 302
남사(南史) 98
남사당놀이 149
남은달 352, **354**
남이장군(南怡將軍) 58, 64, 65, 224, 225, 226
남이장군당굿 224, 225
남이장군대제(南怡將軍大祭) 224
남이장군사당제(南怡將軍祠堂祭) **58**, 64, **224**, 225, 226
남이장군신(南怡將軍神) 58
남저(南藷) 302
남지(南池) 169, 180, 191
남지(南至) **171**, 174, 175
남해안별신굿 141
납(臘) 23, 232, 237, 240, 242, 247, 248, 292
납설수(臘雪水) 232, 247, **250**
납약(臘藥) 24, 247, 249
납약진상(臘藥進上) **248**
납월(臘月) 23, 232, 236, **237**, 240, 241
242, 256, 257, 260, 292, 303
납육(臘肉) 249, **250**
납일(臘日) 23, 24, 86, 232, 233
246, 247, 248, 249, 250, 292
납제(臘劑) 249
납제(臘祭) 232, 236, 248, 292
납평(臘平) 232, **248**
납평전골(臘平-) 232, 248, **250**
납평제(臘平祭) 248
납향(臘享) 23, 232, 233, 246, **248**, 249, 250
납향엿 232, 248
납향엿먹기(臘享-) **250**
내방신(來訪神) 292
내의원(內醫院) 24, 52, 93, 166, 180
195, 232, 247, 249, 253, 255
내천왕거리 81
넨카라(ネンカラ) 313
넷키(ネシキ) 313
냉면(冷麵) 170, 214, **215**, 216, 217
냉해(冷害) 19, 52, 146
널뛰기[跳板戱] 140, 150, 162, **274**
넘어진 뒤에 지팡이 찾는다 331
넙치 20, 339, 341, 343
넙치잡이 **341**
노갹어(奴魬魚) 339
노동지(老冬至) 23, 167, 179, 181, **182**, 183, 184
노랑가오리 337, 338, 339
노루꼬리가 길면 얼마나 길까 333
노루꼬리가 짧아진 까닭 333
노루꼬리만 하다 333
노사나불[報身佛] 359
노수신(盧守愼) 36
노엘(Noël) 346
노인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 116
노인동지 182
노인의 날(老人-) 34, **116**, 117, 118, 346
녹두죽 167, 304
녹두편 90
논개(論介) 121, 122, 150, 151
논개제(論介祭) 150, 155
논어(論語) 243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178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53, 102, 104, 172, 254, 270
농구(弄毬) 274
농령(弄鈴) 274

농민데이 220
농민의 날 220
농번기(農繁期) 20, 58, 329, 330
농어업인의 날 220
농업인의 날(農業人-) 170, **220**
농옥(弄玉) 274
농우(農牛) 343
농주(弄珠) **274**, 275, 317, 319, 320, 321
농한기(農閑期) 18, 20, 58, 297, 313, 314, 315, 328, 329, 330
농환(弄丸) 274, 275
누더기 옷도 없는 것보다 낫다 328
누룩 64, 105, 107, 305
눈싸움놀이[雪戰] 24, **308**
눈썹세는날 253, **257**
눈 온 다음날 샛서방 빨래한다 332
눈 온 뒷날은 거지가 빨래를 한다 **332**
눈이면 다 제석(除夕)눈이냐 **282**
눈점[多雪占] 24, **297**, 298
느림기 64, 225
느티떡 90
늙은이 동지 182
늦겨울에 안개가 끼면 해동비가 온다 331
늦나락 53, 235, 255
늦동지 182

ㄷ

다리뺏기놀이 308
다리세기놀이 24, **308**, 310
다리셈놀이 308
다리헤기 308
단고(團餻) 89
단군(檀君) 21, 43, 44, 83, 110, 111, 162
단군기원(檀君紀元) 110
단군릉 111
단군사당(檀君祠堂) 111
단군신화(檀君神話) 110
단군제(檀君祭) 83, 162
단삼 367
단자 89, 167, 181, 195
달 213, 214, 293, 241, 324
달갈먹기 **267**
달점[月占] 46
답교놀이 36
답국(踏鞠) 317, 319, 321
답성놀이(踏城-) 123, 125, **360**, 361, 362
당국사보(唐國史補) 278
당굿 64, 65, 203, 224, 225, 226
당제 64, 80, 224, 225, 226
당참전(堂參錢) 166, 187
대[竹]못 313
대감거리 65
대거리 81
대궐(大闕)놀이 307
대나(大儺) 233, 261, 262, 268, 281
대대 367
대려(大呂) 38, 175, 236, **238**, 241
대렴금 366
대범천왕(大梵天王) 359
대불 234
대불놓기 24, 242, 281
대사(大祀) 134, 240, 249
대설(大雪) 12, 22, 24, 31, 46, 47, 55
166, 172, 175, **178**, 184, 289
대왕거리 81
대자재천왕제(大自在天王祭) **65**, 68
대전회통(大典會通) 202
대정(大政) 296
대종교 21, 110, 111
대청소 42, 239

대포쏘기 268
대한(大寒) 12, 14, 23, 24, 175, 178, 232 233, 242, 251, 286, 287, 288, **289**, 331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287, **289**
대한민국임시정부 110, 222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어도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다 288
대한예전(大韓禮典) 87
대한(大寒)이 닥쳐서야 털옷을 찾는다 331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242, 268
대향사(大享祀) 232
덤달 352, **354**
도깨비고사 267
도깨비모시기 **267**
도깨비불보기 267
도당굿 44
도랑탕 잔치 52
도래기 322
도령(跳鈴) 274
도로리 모임 303
도로면점(道路面占) 192
도명존자(道明尊者) 359
도박희(賭博戱) 278
도소주(屠蘇酒) 295
도신(禱神) **68**, 71
도신떡해먹기 44
도신제(禱神祭) 32, 71
도연명집(陶淵明集) 35
도월(涂月) 236, **238**, 241
도잠(陶潛) 35
도정기(搗精機) 337
도투마리 325
도하세시기속시(都下歲時紀俗詩) 166, 198
도환(跳丸) 274
도환척극(跳丸擲戟) 274
독단(獨斷) 240
독수리 14, 16, 189
돈제기 317, 322
돌띠 271
돌옷 271
돗거름 327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 94, 269
동광(東光) 215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23, 24, 33, 42, 43, 46, 52, 89, 91 92, 100, 105, 166, 172, 179, 180 181, 185, 187, 188, 190, 191, 211 214, 215, 217, 232, 233, 246, 253 255, 264, 268, 269, 273, 292, 295 296, 317, 321, 352, 358, 362, 366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62, 169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39, 98, 220, 243, 320, 355
동기창(董其昌) 273
동난(冬暖) **35**, 175
동동(動動) 172
동래야류 126, 149
동래읍성역사축제(東萊邑城歷史祝祭) **126**
동래충렬제 126
동맹(東盟) 20, 30, 45, 71, 74, 75, 110, 209
동문선(東文選) 172, 261
동문지보(同文之寶) 23, 166, 179, 187
동물(動物) 14, 16, 17, 30, 33, 42, 52, 184, 199, 340, 342
동백꽃 268
동백꽃목욕 **268**
동백나무 24, 268
동복(凍卜) 192
동빙고 294
동빙제(凍氷祭) 293
동아[冬瓜] 98
동악단(東岳壇) 120
동악선생집(東岳先生集) 260
동악신단(東岳神壇) 120
동악제(東岳祭) 120

동안거(冬安居) 45
동의보감(東醫寶鑑) 338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 100
동이족(東夷族) 101
동전고(東典考) 213
동제(洞祭) 31, 45, 80, 235
동줄 324
동지(冬至) 12, 14, 18, 19, 22, 23, 24, 48, 52, 75 104,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7, 198, 199, 213, 214, 232, 246, 248 249, 254, 258, 287, 288, 289, 292, 333, 347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 333
동지가 지나면 푸성귀도 새 마음 든다 **197**
동지고사(冬至告祀) 14, 181, **185**
동지 때 개딸기 **198**
동지부적(冬至符籍) 23, 180, **190**
동지불공(冬至佛供) 181, **186**
동지사(冬至使) 187
동지선달에는 닭서리다 **332**
동지선달 해는 노루꼬리만 하다 **333**
동지에 개딸기 찾는다 198
동지조하(冬至朝賀) 188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꼬리만큼씩 길어진다 **198**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소 누울 자리만큼 길어진다 198
동지차례(冬至茶禮) 185
동지책력(冬至冊曆) **186**, 187
동지첨치(冬至添齒) 179, **187**
동지팥죽 23, 168, 179, 181, 187 188, 190, 192, 193, **194**, 195, 198, 199
동지하례(冬至賀禮) 180, **188**
동지헌말(冬至獻襪) 166, 180, **188**
동짓날 18, 22, 23, 166, 167, 168 169, 170, 171, 173,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2, 193 194, 196, 198, 199, 211, 232
동짓달[冬至月] 12, 22, 24, 35, 38, 102, 104, 166 167, 168, 169, 170, **172**, 173, 175 179, 182, 183, 184, 192, 198, 204 211, 212, 213, 214, 238, 255, 363
동짓달스무날달보기 **213**
동짓달에 멍석딸기 찾는다 198
동치미 100, 170, **216**, 217, 253
동침(冬沈) 216
동침저(凍沈菹) 216
동티[動土] 251, 253, 362
동해안별신굿 44, 80, 81, 82
동해안세습무집단(東海岸世襲巫集團) 80, 81
동훤(冬暄) **35**
두공섬(杜公贍) 37
두루마기 233, 272
두루막이 272
두루미 14, 16, 310
두보(杜甫) 35, 36, 39, 171, 184, 239
두씨통전(杜氏通典) 85
두의(頭衣) 366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328
뒷전 64, 226
등(燈) 197
등맞이 276
등불놀이 276
등불싸움 276
등불써기놀이 **276**, 278
디딜방아 336
떡놀리기 80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328
똥 묻은 접시가 겨 묻은 접시를 흉본다 328
뚜럼놀이 **310**

ㄹ

레드데이(Red Day) 119

ㅁ

마구간고사(馬廐間告祀) 42, **43**
마구단(馬廐壇) 359
마늘[大蒜] 33, 53, 94, 98, 101
215, 217, 250 301, 302, 306
마당신 90
마보단(馬步壇) 202
마보제(馬步祭) 42, **202**
마부신(馬夫神) 43
마사제 42, 202
마의태자(麻衣太子) 105, 142
마일(馬日) 42
마조(馬祖) 202
마조제 42, 202
마한민속예술제(馬韓民俗藝術祭) 152
마혜수라(摩醯首羅) 65
막달[末月] 23, 232, **239**
만곡사시월[萬穀謝十月] 79
만덕제(萬德祭) 161
만동(晩冬) 236, 237, **239**
만둣국 253, 264
만두차례 253
만두차사 253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278
만선두리(滿綻頭里) 299, 300, 301
만세보령문화제 276
만진(萬塵) 중의 외 장수 332
말고사 42
말날[午日] 21, 30, **42**, 43, 44, 71
말똥가리 14
말뚝놀이 313
말뚝박기 313
말뚝치기 313
말명거리 65
말장(末醬) 102
말 태우고 버선 깁는다 331
망궐례(望闕禮) 188
망년과세(忘年過歲) 235, **263**, 264
망년주(忘年酒) 270
망제(望祭) 78
매 189
매구치기 292
매방재 311
매부리 311, 312, 314
매사냥[放鷹] 24, **311**, 312, 313, 314
매화나무 25
맹동(孟冬) 20, 30, **35**, 36, 38, 39, 84, 86, 87, 293
맹원로(孟元老) 269
맹인거리 81
머농짓기 **366**
머농옷 352
머니데이(Money Day) **346**
멍청이귓것 199
메물묵 303
메밀묵 267, **303**, 304
메밥제사 234
메산 **268**
메조 102, 302
메주 19, 22, 33, 102, 104, 105, 168
메주쑤기 **102**, 104, 166
메주틀 104
멧토끼 17
며조 102
며주 102
멱목(幎目) 366
면신설로(緬新設爐) 92
면암집(勉菴集) 187
면자기(麵榨機) 215
멸뱃기 235
명도적(命盜賊) 270
명삼살이 251
명씨(목화씨) 266
명(미영)잣는소리 323
명주청학동소금강(溟洲靑鶴洞小金剛) 142

모동(暮冬) 232, 236, 237, **239**, 240, 242, 243
모밀묵 303
모세(暮歲) 236, 237, **239**, 240, 242, 243
모양성(牟陽城) 123, 125, 360, 361, 362
모양성제 123, 125
모의조정(模擬朝廷) 놀이 307
모절(暮節) 236, 237, **239**, 240, 242, 243
모흥단향(毛興壇享) 202
모흥혈(毛興穴) 202
목넨(木ネン) 303
목우소(牧牛所) 93
목은고(牧隱藁) 217
목은집(牧隱集) 193, 194, 278
목초의 날 220
못따먹기 313
못박기 313
못치기 **313**, 314
묘사(墓祀) **68**, 70, 75, 78, 79
묘전제사(墓前祭祀) 68, 75, 79
묘제(墓祭) 12, 22, 32, 45, 68, **70**, 75, 78, 79
묘제의(墓祭儀) 78
무감 65
무당떡 90
무독귀왕(無毒鬼王) 359
무떡먹기 44
무배추수확 **98**
무비데이(Movie Day) 170, **224**
무뽑아보기 87
무뿌리 87, 100, 216
무뿌리로 날씨점치기 87
무뿌리로 점치기 87
무뿌리점 **87**
무시루떡 90
무역의 날(貿易-) 170, **220**, 221
무오말날[戊午-] **43**
무오일(戊午日) 21, 30, 42, 43, 44, 71
무왕(武王) 85, 152, 153
무천(舞天) 20, 45, 71, 110
무형문화재 58, 80, 105, 125, 153, 161, 208, 224, 225
묵물죽 **304**, 305
묵은거름주기 265
묵은설 253
묵은세배[舊歲拜] 24, 233, 235, 242, 253
254, 258, 263, **264**, 265, 270
문비(門裨) 190
문선(文選) 35
문소전제(文昭殿祭) 45, **70**, **189**, **250**
문신 90, 279
문신부적(門神符籍) **191**
문안집(文安集) 171
문익점(文益漸) 323
문주왕(文周王) 128
문헌집(文憲集) 237
문화예술진흥법 118
문화의 날(文化-) **118**
물개미 338
물레 323, 342
물레바탕 324
물레방아 336
물레살 324
물레줄 324
물레질노래 **323**
물레질소리 323
물레타령 323
물방아 336
미암일기(眉巖日記) 305
미타찬(彌陀讚) 279
미트라교(Mithraism) 179
민간나(民間儺) 262
밀단고(蜜團餻) 34, **89**
밀조(密祖) 102

ㅂ

바디 소리 325
바이나흐텐(Weihnachten) 346

박[瓠] 38
박물지(博物志) 301
박영효 113
박일원(朴一源) 299
박태보(朴泰輔) 36
박희(博戱) 278, 279
반고(班固) 38, 175, 238, 319
반공학생의 날 223
반유반(盤遊飯) 273
반절 112
반지(斑指) 258, 306
반지놀음 306
반찰떡 90
발원(發願) 185, 186, 360
밤새우기 253
방동(方冬) **36**
방둥코사 58
방상씨(方相氏) 261, 262, 263, 281, 292
방송의 날 118
방아노래 336
방아찧기 20, **336**
방애 322
방울받기 274
방응(放鷹) 311
방한구(防寒具) 95, 299, 300, 301
방한모 263, 299, 300, 301
배꼽은 작아도 동지팥죽은 잘 먹는다 **198**
배알(拜謁) 234, 235
배자 83
배추[菘] 18, 30, 33, 52, 53, 98, 100, 101, 170, 217, 333
배표의(拜表儀) 188
백거이(白居易) 260
백송골(白松鶻) 311
백일주 105, 107
백장력(白粧曆) 23, 166, 179, 186, 187
백제대제(百濟大祭) 128
백제문화제(百濟文化祭) 34, **128**, 129, 134
백타(白打) 317, 319
백택무(白澤舞) 263
백할미새 14, 17
백호통의(白虎通義) 38, 175, 238
뱀 33, 168, 190
뱃고사 234, 276, 277
뱃사공얼어죽은날 47, 48
버드내산신제 204
범이 불알을 동지에 얼구고 입춘에 녹인다 **198**
법사(法司) 343
법원주림(法苑珠林) 209
법정공휴일 112, 115, 116
법정기념일 116, 220, 223
병구나무 가지 266
벚나무 266
베개 168, 275, 366
베짜기 20, 323, 325
베짜기노래 323, **325**, 326
베틀가 325
베틀노래 325
벼 종자 235
벽사의례(辟邪儀禮) 261, 263
벽온단(辟瘟丹) 232, 253, 255
벽온단진상(辟瘟丹進上) **265**
벽온방(辟瘟方) 100
변시만두 89
변씨만두(卞氏饅頭) **89**
별건곤(別乾坤) 216, 273
별넙치 341
별록(別錄) 319
별상거리 65
별세(別歲) **268**, 269
별신굿 80, 81, 82
병동지(丙冬至) 167, **182**
병시(餠匙) 89
병오일(丙午日) 21, 30, 42, 44, 71, 182
보라매 311, 312
보리갈이 할 때 10월 입동 후에 갈고
9월 입동은 입동 전에 간다 53
보릿고개 363
보만두 253

보문사 120, 353, 358
보신각(普信閣) 256
보통동지 184
보한재집(保閑齋集) 239
보한집(補閑集) 188
보험의 날 118
복괘(復卦) 35, 38, 172, 173, 179, 184, 187
복만두 253
복상(福常) 93
복월(復月) 22, **172**, 173, 174
본사찬(本師讚) 279
본조하례(本朝賀禮) 188
본초강목(本草綱目) 117, 338
본향올림 80
볼끼 299, 300, 301
봉산탈춤 149
봉애 322
봉은사(奉恩寺) 352, 358, 362
봉정산제(封定山祭) 134
부군기(府君旗) 64
부군놀음과장 65
부군당 65, 225
부군대 64
부빔밥 273
부엉이 87, 88
부엉이울음점 **87**
부을나(夫乙那) 202
부인거리 81
부인필지(婦人必知) 105, 194, 214
부정거리 65, 81
부정청배 225
부지깽이 283
부추[韭] 98, 178, 293
북사(北史) 98, 174, 274, 278
북청사자놀음 149
분어(鱝魚) 338
불공의례 186
불난 것 보고 우물 판다 331
불밝히기 **268**, 269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209
불설재경(佛說齋經) 209
불총 254
불탄일(佛誕日) 209
비로자나불[法身佛] 359
비목어(比目魚) 339, 341
비빔국수 214
비빔면 214
비빔밥 273
비사어(婢屣魚) 339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287
비우자리 255
비환도검(飛丸跳劍) 274
빈궁혼궁도감의궤(殯宮魂宮都監儀軌) 272
빙고전(氷庫典) 293
빙등(氷燈) 255
빙월(氷月) 236, **240**
빼대기떡 302
빼빼로데이(-Day) **170**, 224
뺑돌이 322
뺑이 322

ㅅ

사(蜡) 248
사기(史記) 236, 238, 319
사기쵸[左義長] 282
사냥놀이 24, 311, **314**, 315
사당제(祠堂祭) 24, 224, 225, 242, 292
사도세자(思悼世子) 142, 143
사례제(謝禮祭) 65, 225, 226
사례집요(四禮輯要) 75

사례집의(四禮集儀) 78, 79
사례편람(四禮便覽) 75, 78
사마천(司馬遷) 39, 236, 238, 319
사미십계(沙彌十戒) 209
사민월령(四民月令) 172
사방천왕(四方天王) 359
사산제(私山祭) 75
사수잡이 312
사시제(四時祭) 75, 79, 86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243
사원나(寺院儺) 262
사월(蜡月) 236, **240**
사일(蜡日) 252
사자단(使者壇) 359
사조제(謝肇淛) 37
사직대제(社稷大祭) 232, 246, **250**
사친가(思親歌) 166
사투르날리아(Sāturnālia) 347
사학(四學) 167, 180, 213, 307
사한단(司寒壇) 293, 294
사한제(司寒祭) **293**, 294
사현부(思玄賦) 173
산가요록(山家要錄) 92
산당사고(山堂肆考) 242
산대잡희(山臺雜戲) 146, 279
산림경제(山林經濟) 100, 174
산메기 44
산받음 80
산서르매 315
산신거리 62
산신제(山神祭) 31, 68, 79, 120, 134, 140, 162 204, 208, 315, 325
산아지타령 323
산악백희(散樂百戲) 274, 275, 281
산진(山陳)이 311
산진매 311
산촌잡영(山村雜詠) 98
산타클로스(Santa Claus) 348
삼국사기(三國史記) 134, 209, 293, 311, 314, 325
삼국유사(三國遺事) 93, 110, 152, 272, 274, 279, 325
삼국지(三國志) 71
삼사순례(三寺巡禮) **358**
삼산건(三山巾) 299, 301
삼산참예(三山參詣) 358
삼성혈(三姓穴) 202, 203
삼성혈제(三姓穴祭) **202**, 203
삼시(三尸) 254, 269
삼시충(三尸蟲) 257, 269
삼신(三神) 21, 43, 71, 168
삼신단지 42, 71
삼을나(三乙那) 202, 203
3·1절(三一節) 110
삼일제(三日製) 213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 98
상공인의 날 221
상달[上月] 20, 21, 30, **36**, 43, 44, 45, 71, 74, 90, 110, 182
상달고사[上月告祀] 14, 21, 30, 32, **71**
상동(上冬) **36**, 38, 39, 45
상력(常曆) 187
상례비요(喪禮備要) 75, 78
상마일(上馬日) 30, 42, **43**, 71
상복(上服) 366
상산거리 65
상산제(上山祭) **74**, 83
상소잡기(緗素雜記) 321
상오일(上午日) 42, 43
상정일(上丁日) 202, 203
상촌집(象村集) 173
상추떡 90
상치[萵苣] 98
새매사냥 313
새알 수제비 든 동지팥죽이다 **199**
새알심 22, 167, 168, 180, 188, 194, 195
새알심점 168, **191**, 194

색동 272
색동저고리 272
생업(生業) **18**, 19, 71, 204, 327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358
생치만두(生雉饅頭) **305**
서견(徐堅) 37
서경(書經) 38, 174, 248
서경부(西京賦) 274
서경잡기(西京雜記) 38
서경재제사(西京齋祭使) 75
서경팔관회(西京八關會) 74, 75
서동요 152
서르매 315
서리가 내려야 국화의 절개를 안다 330
서무귀편(徐無鬼篇) 274
서용(敍用) 294
서운관지(書雲觀志) 187
서울굿 226
서웃달 **240**, 241
서유구(徐有榘) 215
서장보(徐長輔) 195
서재필 113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志餘) 183
석가모니불[化身佛] 359
석명(釋名) 100
석전제(釋奠祭) 202, 307
석통지(石筒池) 191
선명력(宣明曆) 179, 184
선목제 42, 202
선양(線陽) 172, 173
선유줄불놀이 149
선의식 111
선조묘제의(先祖墓祭儀) 78
선화공주(善花公主) 152, 153
섣달 14, 23, 24, 88, 238, 239, 240
241, 248, 254, 255, 257, 282
289, 292, 298, 303, 333, 363
섣달그믐 232, 241, **253**,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4, 265, 266, 267
270, 271, 273, 276, 279, 281, 282, 283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282**
섣달 그믐날 시루 얻으러 가다니 **282**
섣달 그믐날은 부지깽이도 꿈틀거린다 **283**
섣달 그믐날 흰떡 맞듯 **283**
섣달그믐이면 나갔던 빗자루도 집 찾아온다 255, **283**
섣달그믐이면 모지랑비도 제 집 찾아온다 283
섣달 눈은 보리풍년이 들고 봄눈은 보리흉년이 든다 282
섣달이 둘이라도 시원치 않다 333
섣달이 열아홉이라도 시원치 않다 **333**
설마(雪馬) 315
설매 315
설문해자(說文解字) 100
설빔 271
설악문화제(雪嶽文化祭) 34, **134**, 140
설악산신제 134
설원(說苑) 174
설응(雪鷹) 315
설전(雪戰) 308
설차사 264
설한(雪寒) **172**, 173, 175
성균관(成均館) 213, 307, 343
성돌기 360, 362
성돌이 352, 361
성밟기(城-) 123, 125, 361, **362**
성생기(省牲器) 86, 87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212
성장기(成長期) 14, 71
성조거리 81
성종실록(成宗實錄) 191, 242
성주 21, 32, 71, 74, 168, 180, 185, 193, 226, 255, 353
성주고사(城主告祀) 71, **75**, 212
성주굿 71
성주단지 71
성주덕(成周悳) 187

성주무가 71
성주받이굿 71
성주신 32, 45, 71
성주제 71
성탄일(聖誕日) 346
성탄절(聖誕節) 179, 236, **346**, 347, 348, 349
성한(盛寒) 172, 173
성현(成俔) 162, 274, 307
성호사설(星湖僿說) 166, 189
세경(歲竟) **257**
세경본풀이 88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172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 117
세계농민의 날 220
세계무형문화유산 125
세계문화유산 125, 142, 143
세궤(歲饋) 295
세루 322
세리 322
세만(歲晩) 258, 260
세말(歲末) 233, **257**, 258, 260, 261, 263, 268
세모(歲暮) 233, 250, 254, 256, **258**, 259, 260, 261
세밑(歲-) 256, **258**, 259, 260, 295
세사(歲祀) 68
세습무(世襲巫) 80
세시광기(歲時廣記) 240
세시잡기(歲時雜記) 94
세시풍속(歲時風俗) **20**, 45, 179, 211, 317
321, 322, 358, 360, 361, 362
세시풍요(歲時風謠) 42, 254, 259, 264, 268, 297
세의(歲儀) 270, **295**
세일사(歲一祀) 68, 75, 78, 79
세일제(歲一祭) 68, 70, 75, 79
세저(歲底) 258, 260
세제(歲除) 233, 253, **258**, 259
세존거리 81
세종(歲終) 258, **259**, 260
세종대왕 112, 113
세종실록(世宗實錄) 84, 86, 87, 112, 120, 162, 202, 262, 314
세종헌황제상유팔기(世宗憲皇帝上諭八旗) 36
세주(歲酒) 295
세진(歲盡) 233, 235, **259**, 260
세찬(歲饌) 24, 234, 235, 254, 258, 295, 303, 343
세초(歲抄) **295**, 296
세초(歲杪) **241**
세팍타크로(Sepaktakraw) 322
세포(歲砲) **268**, 269, 281
세흘(歲訖) **259**
소가망거리 81
소가야문화제(小伽倻文化祭) **141**
소곡주담그기 **105**
소곡주 105, 107
소국주(小麴酒) 105
소금강청학제(小金剛靑鶴祭) **142**
소나무 26, 27, 157, 208, 323, 330, 353
소대의식(燒臺儀式) 186
소대한에 객사한 사람은 제사도 지내지 말랬다 **286**
소대한에 얼어 죽지 않는 놈이 우수 경칩에 얼어 죽을까 287
소대한에 집 나간 사람은 기다리지도 말랬다 286
소대한 지나면 얼어 죽을 잡놈 없다 **287**
소동지 183
소동파(蘇東坡) 295
소렴금 366
소리개 189
소방의 날(消防-) 170, **221**
소비자권리의 날 346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 346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346
소비자보호의 날 346
소비자의 날(消費者-) 236, **346**
소사(小祀) 120, 134, 202, 293, 294
소설(小雪) 12, 21, 24, 30, 31, 35, 39
46, 47, 53, **55**, 172, 178, 289
소식해(素食醢) 305, 306

소양춘(小陽春) 30, 35, **37**
소재집(穌齋集) 36
소춘(小春) 21, 30, 35, **37**, 55
소통(蕭統) 35
소하치 312, 314
소학지희(笑謔之戱) 263, 275
소한(小寒) 12, 23, 24, 178, 184
232, 242, **286**, 287, 288, 289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 288
소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있어도
대한에 얼어 죽은 사람은 없다 **287**
소한이 대한의 집에 몸 녹이러 간다 288
소한이 대한 잡아먹는다 288
소한 추위는 꾸어다가라도 한다 232, **288**, 289
소합원(蘇合元) 246, 249
속대전(續大典) 213, 293
속일본기(續日本記) 278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171
손님거리 81
손님떡 74
손돌(孫乭) 21, 22, 30, 31, 46, 47, 48, 55
손돌날[孫乭日] 21, 22, 30, **46**, 47, 48
손돌맹이가 얼어죽은날 47
손돌목[孫乭項] 13, 22, 31, 46, 47, 48
손돌바람 22, 30, 46, 47, 55
손돌제(孫乭祭) **48**
손돌추위 30, 46, 47, 55
손돌풍(孫乭風) 22, 46, **48**
손사공얼어죽은날 47
손잡이(회젓) 324
솔개 168, 189, 193
솟대장이 죽방울 275
송구영신(送舊迎新) 12, 186, 242, 253, 254, 256, 270, 333
송남잡지(松南雜識) 91
송렴(宋濂) 237
송사(宋史) 85, 257
송상현(宋象賢) 126
송서(宋書) 172
송이놀이 65, 68
송파산대놀이 149
쇄미록(瑣尾錄) 305
쇄쇄록(瑣碎錄) 269
쇠구영신 43
쇠기러기 14, 17
쇠못 313
쇠오리 13, 17
수경신(守庚申) 269, 270
수교의 89
수륙재(水陸齋) 128
수문사설(謏聞事說) 91
수서(隋書) 98
수세(守歲) 233, 235, 239, 253, 254, 257, 258, **269**, 270
수세(首歲) **182**
수시력(授時曆) 179, 184
수신제(隧神祭) 75
수야(守夜) 254
수영야류 149
수운잡방(需雲雜方) 105, 305
수원화성문화제(水原華城文化祭) **142**
수의(壽衣) 352, 358, 362, 366, 367
수의만들기(壽衣-) **366**
수진(手陳)이 311
수출의 날 221
수할치 311, 312
수확기(收穫期) 14, 71
수환(垂丸) 274
숙종실록(肅宗實錄) 299
순국선열(殉國先烈) 170, 222, 223
순국선열공동기념일(殉國先烈共同記念日) 222
순국선열의 날(殉國先烈-) **222**
순국선열추념탑 223
순무[菁] 98, 100
순조실록(純祖實錄) 343
술 만드는 법 105

숭산의식(崇山意識) 134
쉐막이 58
습의(習儀) 210
습의(襲衣) 272, 366
시경(詩經) 100, 293
시도기(時到記) 78
시도록(時到錄) 78
시루떡 32, 34, 42, 43, 44, 52, 71, 74, **90**, 183, 208, 235, 265
시만곡대제 79
시사(時祀) 64, 65, 78, 79, 95
시사(時祀)떡 나누어 먹듯 한다 **95**
시왕 359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 42
10월(十月) 10, 21, **30**, 33, 38
44, 45, 64, 65, 71, 75, 79, 83, 86, 92, 93
113, 118, 128, 171, 191, 225, 238, 293, 299
시월 보름사리 물이
정월 보름사리 물보고 사돈하자 해도 마다한다 **95**
10월 시제 때 치는 꿩다 해도 한다 **95**
시월 초하룻날이 따뜻하면 서울놈 휘양 팔아버린다 **95**
시의전서(是議全書) 105, 195, 214, 217, 273, 302, 304
시제(時祭) 12, 21, 22, 30, 31, 32
68, 70, 71, **75**, 78, 79, 95, 213
시향(時享) 70, 75, 78, **79**, 87
식물(植物) 17, **24**, 25, 27
식해(食醢) 301, 305, 341
신고산타령 323
신곡신과(新穀新果) 30
신관(新官) 234
신구간(新舊間) 24, 232, 233, 234, **251**, 253, 289
신년세관(新年歲官) 251
신당서(新唐書) 262
신라문화제(新羅文化祭) 34, 128, **146**
신만곡대제(新萬穀大祭) **79**, 80
신맞이굿 80
신산(神山) 134
신선로(神仙爐) 33, **91**, 92, 93
신선로 92
신숙주(申叔舟) 239
신시(神市) 110
신양(新陽) 172, **173**
신어(新魚) 211, 213
신의주학생의거(新義州學生義擧) 223
신이경(神異經) 281
신주단지 2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65, 140, 142, 212
신흠(申欽) 173
실잣는소리 323
12월(十二月) 12, 14, 35, 36, 38
39, 171, 174, 213, **232**, 236, 238
239, 240, 241, 242, 280, 293, 296, 297
십이율(十二律) 38, 170, 175, 183, 238, 241
11월(十一月) 12, 14, 24, 36, 38, 39, 75
79, **166**, 171, 174, 184, 189, 210, 222
236, 238, 239, 241, 292, 294, 332, 342
쌍언청이가 외언청이 타령한다 328
썩은달 23, 232, **241**, 242
썰매타기 308, **315**
쑥새 14, 17

ㅇ

아그동지 183
아니 되는 놈의 일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288
아동지 183
아라리 153, 154
아세(亞歲) 22, 166, 168, 172, 179, **182**
183, 185, 186, 187, 190, 194, 197
아얌 299, 301
아언각비(雅言覺非) 299
아욱[葵] 98
아학편(兒學編) 272

악부잡록(樂府雜錄) 262
악수(握手) 366, 367
악학궤범(樂學軌範) 279, 280
안노생(安魯生) 19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安東國際-) 147, 148, 149, 150
안동민속문화제 149
안동민속제전 149
안동민속축제(安東民俗祝祭) 34, **149**, 150
안동식혜(安東食醯) **305**, 306
안신원(安神元) 246
안자춘추(晏子春秋) 240
안축(安軸) 140
안택(安宅) 32, 43, 71, **80**, 83
안택굿 42, 74
앉은뱅이술 105, 107
앉을깨 325
앙광이귀신내려온날 **259**
애기동지 167, 181, 183
애단자(艾單子) 34
애동지[兒冬至] 23, 167, 173, 181, 182, **183**, 184
애탕(艾湯) **92**
애플데이(Apple Day) **119**
액엄(額掩) 299, 301
야광귀(夜光鬼) 266, 269
약념[藥鹽] 98
약사경(藥師經) 209
약엽어(箬葉魚) 339
약태우기 253
양말데이(-Day) **349**
양복(陽復) 166, 172, **173**
양서(梁書) 98
양세현(梁世絢) 203
양월(良月) 30, 35, **37**, 45
양월(陽月) 30, 35, 37, **38**
양을나(良乙那) 202
양재처용(禳災處容) 280
양주방(釀酒方) 105
양주별산대놀이 149
양중이 80
어려서 고생하면 부귀다남한다 287
어룡지희(魚龍之戲) 263
어른동지 167, 182
어민의 날 220
어식해(魚食醢) 305, 306
어천절(御天節) 110
언덕에서 자빠진 돼지가 평지에서 자빠진 돼지를 나무란다 328
언문 112
엄나무 가지 266
엄월(嚴月) **242**
없는달 **354**
여도판희(女跳板戲) **278**
여모(女帽) 367
여벌달 352, **355**
여씨춘추(呂氏春秋) 36, 100, 166, 174, 236
여역(厲疫) 261
여제(厲祭) **80**, 248
여지도서(輿地圖書) 46, 48
여지승람(輿地勝覽) 191
역경(易經) 179, 184, 186, 187, 213
역수(逆修) 358
역어유해(譯語類解) 322
역주방문(曆酒方文) 105
연경세시기(燕京歲時記) 275, 281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191
연말(年末) 23, 181, 187, 233, 246, 256
257, **260**, 268, 279, 281, 292, 295, 343
연말대청소 253
연모(年暮) **260**
연산군(燕山君) 91, 113, 254, 279
연육 196
연자방아 336, 337
연종(年終) 259, **260**
연종방포(年終放砲) **265**, 268
연종제(年終祭) 233

연포탕(軟泡湯) **92**, 93
연화대 279
열구자(悅口子) 91
열구자탕(悅口子湯) 91, 92, **93**
열섬현상(Heat Island Effect) 113
열 소경에 한 막대 332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31, 187, 188, 246
247, 254, 268, 295, 303
염습구 366
염포 366
엽전제기 317, 321, 322
영남예술제 121
영녕전(永寧殿) 86
영등(靈登)날 95
영조실록(英祖實錄) 343
영화의 날 118, 157
예기(禮記) 35, 84, 100, 174, 175
211, 236, 248, 249, 261, 293
예기집설(禮記集說) 175
예명올림 80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236, 346, 347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 358
예수재(預修齋) 353, **358**, 359, 360
예수천왕통의(預修天王通儀) 359
예수칠재(預修七齋) 358
예조진작헌(詣祖眞酌獻) 210
예천청단놀음 149
오나락 53
오낭(五囊) 366, 367
오뉴월 두룽다리 330
오대제(五大祭) 249
오동지(五冬至) 169, 173, 192, 255
오동짓달 **173**
오렌지데이(Orange Day) **224**
오리알 267
오매기떡 263
오방귀무(五方鬼舞) 263
오방색(五方色) 272, 280, 303
오방신(五方神) 249
오방장두루마기(五方丈-) 271, **273**
오방지영물(五方之靈物) 303
오방처용(五方處容) 280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 279, 280
오이[瓜] 98, 100, 216, 217
오이소박이 100
오잡조(五雜俎) 37, 278, 279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299, 300
오줌 33, 265, 266, 267
옥새(玉璽) 187, 325
온돌지 184
옹심이점 168, 193, 194
와룡지 169, 191
와유록(臥遊錄) 140
와인데이(Wine Day) **119**
와추(窩雛)매 312
왕건(王建) 209
왕안석(王安石) 171
왕중원(王仲元) 249
외성조거리 81
외세존거리 81
요록(要錄) 89
요물고(料物庫) 100
요죽(燎竹) 281
용갈이 169, 180
용경(龍耕) **191**, 192
용문동부군당굿 224
용왕거리 81
용재총화(慵齋叢話) 262, 294, 307
우금해제(牛禁解除) **343**
우두병(牛豆餠) 196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196
우바이타사가경(優婆夷墮舍迦經) 209
우수(雨水) 287, 289
우외달 **355**

우유죽 93
우족교(牛足膠) 196
우천왕거리 81
운수가 사나우면 찬물을 먹다가도 이가 빠진다 289
울산공업축제 157, 158, 159
울산쇠부리놀이 159
울장 157
원단(元旦) 179, 183, 241
원도사(猿島祠) 44
원사(圓社) 319
원삼 367
원숙(袁淑) 182
원정(圓情) 319
원정동지(元正冬至) 182
원제(元帝) 236, 237, 240, 242, 243
원주 강원감영지 120
원주군읍지(原州郡邑誌) 120
원주치악제(原州雉岳祭) 120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143
원호문(元好問) 248
월동 준비 54, 55
월래거리 81
월력(月曆) 187, 239
월헌집(月軒集) 39
위서(魏書) 71, 239
위수(魏收) 35, 236
유가(遊街) 64, 65, 225
유가돌기(遊街-) 225
유감주술 88, 189
유네스코(UNESCO) 112, 142
유락(乳酪) 93
유만공(柳晩恭) 254, 297
유성룡(柳成龍) 212
유엔 데이(UN Day) 116
유우소(乳牛所) 93
유월(兪樾) 171, 238
유제(遺制) 268
유중림(柳重臨) 100
유천동산신제(柳川洞山神祭) **204**, 208
유향(劉向) 174
유향소(留鄕所) 85
유화(柳花) 75
육대천조(六大天曹) 359
육두(六頭)매 312
육선달에는 앉은 방석도 아니 돌아놓는다 363
육신주문선(六臣註文選) 173
60갑자 182
육조(育鳥) 311
윤달[閏月] 53, 123, **352**, 353, 354, 355 358, 359, 360, 361, 362, 363, 366
윤달 든 희양목인가 **362**
윤달 만난 황양목 362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안 난다 352, **362**
윤달에 만난 희양목 362
윤동짓달[閏冬至月] **355**, 363
윤동짓달 스무하룻날 주겠다 **363**
윤동짓달 초하룻날 갚겠다 363
윤동짓달 초하룻날 만나자 363
윤사월(閏四月) **355**
윤선달은 앉은 방석도 안 돌려놓는다 **363**
윤씨음식법(尹氏飮食法) 89
윤월(閏月) 12
윤이월 제사냐 **363**
윤치호 113
율리우스력 112, 347
율축제 347
윷 278, 279
윷놀이[柶戱] 126, 150, 162, 235, 254, 270, **278**, 279
윷점[柶占] 24, **270**
은율탈춤 149
을미개혁(乙未改革) 272
을사조약(乙巳條約) 222
음식디미방 105
음식방문(飮食方文) 302, 303
음식보(飮食譜) 105
응방(鷹坊) 311

응종(應鍾) 30, 35, **38**, 175, 238
응호(凝沍) 172, **173**
의암별제(義巖別祭) 150, 151
의암주논개대축제(義巖朱論介大祝祭) **150**, 151, 152
의제개혁(衣制改革) 272
이갈이예방 253
이거리저거리 308
이규보(李奎報) 39, 98, 217, 220, 243, 320
이달충(李達衷) 98
이덕진(李德珍) 305
이모작(二毛作) 328
이물지(異物志) 339
이사 24, 193, 195, 233, 251, 253, 352, 358, 363, 366
이사떡 90
이색(李穡) 194, 217, 279
이수광(李睟光) 212, 246
이수동(李壽童) 203
이순신(李舜臣) 122, 141
이순우(李純佑) 93
이승만(李承晩) 113, 222, 348
이시애(李施愛)의 난(亂) 225
이식(李埴) 261
이아(爾雅) 38, 171, 238, 260
이안눌(李安訥) 260
이양(李陽) 261
이엄(耳掩) 299, 301
이엉엮기 19
이우(李尤) 274
이이(李珥) 75, 142
이익(李瀷) 189
이장(履長) **183**
이장(移葬) 358, 366
이중환(李重煥) 140
이항(李恒) 123, 360
이황(李滉) 78, 297
익산서동문화제(益山薯童文化祭) 152
익산서동축제(益山薯童祝祭) **152**, 153
익재집(益齋集) 193
인일제(人日製) 213
인조실록(仁祖實錄) 212
일산동당제(별신굿)[日山洞堂祭(別神-)] **80**
일선양(一線陽) 172, 173
일성록(日省錄) 260
임경업장군(林慶業將軍) 58
임괘(臨卦) 241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92, 105, 215, 216
임월(臨月) 241
임진왜란(壬辰倭亂) 121, 122, 126, 151
197, 202, 212, 274, 275
임해지(臨海志) 339
입관(入棺) 366
입동(立冬) 12, 14, 18, 19, 20, 21, 22, 24
30, 31, 33, 35, **52**, 53, 54, 55
87, 98, 102, 178, 232, 287, 289
입동보기(立冬-) **53**
입동이 지나면 김장도 해야 한다 **53**
입동재의(入冬裁衣) 330
입동 전 가새보리 얼어 죽기 쉽다 54
입동 전 가새보리 춘분 되어야 알아본다 54
입동 전 가위보리다 54
입동 전 보리씨에 흙먼지만 날려주소 **54**
입동 전 송곳보리다 54
입동 전에 보리는 묻어라 54
입춘(立春) 24, 53, 186, 198, 199, 232
233, 251, 286, 287, 289, 293
잉어놀이 **316**

ㅈ

자(褯) 248
자산어보(玆山魚譜) 338, 339
자월(子月) 166, **174**, 179, 184, 243
자재천외도(自在天外道) 65
자채(鮓菜) 305

자포 279
자포(腦包) 300
작은설[亞歲] 22, 166, 168, 172
179, 183, **184**, 186, 187, 188, 190
194, 195, 198, 199, 213, 232, 233, 264
잔호(殘冱) 240
잠곡유고(潛谷遺稿) 260
잡지의 날 118
잣나무 26, 27
장고도(長古島) 276, 277
장국(醬麴) 102
장군기 65
장군신(將軍神) 65
장군출진 225, 226
장김치(醬-) 100, 101, 170, **217**
장 담그기 98
장등(長燈) 253, 254
장빙제(藏氷祭) 293, 394, **296**
장수거리 81
장승제 353
장아찌 53, 98, 100
장연(長淵) 192
장영실(蔣英實) 126
장유(張維) 215, 259
장자(莊子) 274
장저(醬菹) 217
장지(長至) 189
장지연(張志淵) 155
장짠지 217
장침채(醬沈菜) 217
장헌세자(莊獻世子) 142
장형(張衡) 173, 274
장화(張華) 301
재가승(在家僧)마을 83, 90
재기 317
재두루미 14
재물보(才物譜) 215, 317, 321
재수가 없으려면 쇠똥에 미끄러져서
말똥에 코 박고 넘어진다 289
재수 없는 놈은 고양이 꼬리를 밟아도
호랑이로 둔갑한다 288
재향군인의 날(在鄕軍人-) 34, **118**
잿장 271
저고리 264, 272, 367
저리사냥 24, 314, 315
저슬 뜻슨 헤 보리 굼벵이 쯔른다 327
저자망 341, 342
저장기(貯藏期) 14, 71
저축유공자 119
저축의 날(貯蓄-) **118**, 119
저포경(樗蒲經) 278
저포송(樗蒲頌) 279
저포시(樗蒲詩) 278
저포희(樗蒲戱) **278**, 279
전골 92, 94, 248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18, 153, 276
전남여자고등학교 224
전당시(全唐詩) 39
전문(箋文) 179, 188, 198
전복(戰服) 271
전순의(全循義) 92
전약(煎藥) 166, 180, **195**, 196, 306
전어지(佃漁志) 341
전주비빔밥 273
절계(節季) 239, **242**, 259
절구 104, 105, 247, 304, 336
절사(節祀) 70, 75, 78, 79
절제(節製) 213
절편[切餠] 303
점넙치 341
점안의식(點眼儀式) 360
점필재집(佔畢齋集) 248, 250
접어(鰈魚) 339
정관해(鄭觀海) 260

정도부(正都賦) 274
정동(正冬) **174**
정례(頂禮) 186
정미소(精米所) 337
정석견(鄭錫堅) 191
정선아리랑(旌善-) 153, 154
정선아리랑제(旌善-祭) **153**, 154
정성불 256
정수강(丁壽崗) 39
정약용(丁若鏞) 143
정월고사 71
정재집(定齋集) 36
정조(正朝) 188, 249, 279
정조실록(正祖實錄) 299, 300
정조하례(正朝賀禮) 188
정철(鄭澈) 140
정초한파(正初寒波) 286
정학유(丁學遊) 53
정현석(鄭縣奭) 150
정희량(鄭希良) 91
제기차기 24, 159, **316**, 317, 319, 320, 321, 322
제민요술(齊民要術) 98, 100, 101, 301, 305
제석(除夕) 23, 24, 52, 232, 233
234, 239, 242, 253, 255, 257
260, 261, 268, 282, 292, 295
제석거리 65, 81
제석신 90
제석천왕(帝釋天王) 359
제액초복 267
제야(除夜) 24, 233, 239, 253, 255, 256, 257, 260, **261**, 281
제월(除月) 236, 240, **242**, 243, 258
제일(除日) 233, 241, 253, 260, **261**, 333
제주예술제(濟州藝術祭) 159
제중단(濟衆丹) 246
제천의례(祭天儀禮) 20, 45, 71, 83, 249
제헌절(制憲節) 110
조계종(曹溪宗) 353
조관단(曹官壇) 359
조동(肇冬) 35, **38**
조바위 299, 301
조상(祖上) 71
조상거리 65, 81
조상단지 32, 42, 71
조생종(早生種) 53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89, 92, 104, 302, 303
조선상식(朝鮮常識) 275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30, 36, 90, 91, 272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 11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12, 213, 299
조선요리학(朝鮮料理學) 91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 272, 367
조수(潮水) 270
조수점(潮水占) **270**
조식(曹植) 183
조신(竈神) 234
조왕(竈王) 32, 42, 71, 168, 193, 233, 234, 251, 255, 353
조왕신 90, 189, 234, 235, 263, 270
조운종(趙雲從) 187
조자건집(曹子建集) 183
조장(朝杖) 117
조전의식(造錢儀式) 360
조제(竈祭) 234
조하의(朝賀儀) 188
족병(足餠) 196
족편(足片) 196, **306**
종동지 182
종름(宗懍) 295
종묘대제(宗廟大祭) 45, **82**, 86, 232, 246, **250**
종묘시향(宗廟時享) 75
종이폭죽 281
종자보관(種子保管) **337**
좌전수하(坐殿受賀) 210
주낙 338, 339, 340, 341
주논개(朱論介) 150, 152

주당물림 225, 226
주례(周禮) 42, 83, 85, 100, 202, 293
주방문(酒方文) 100
주사 손돌공 진혼제(舟師孫乭公鎭魂祭) 46, 48
주사위 278
주서(周書) 98
주시경(周時經) 112, 113
주역(周易) 35, 38, 172, 173, 184, 241
주의(周衣) 272
주자가례(朱子家禮) 70, 75, 78, 79
주찬(酒饌) 92
주처(周處) 295
죽방울 275, 317
죽으매옷 352
중광(重光) 110
중동(仲冬) 22, 166, 172, **174**, 202, 203, 208
중동기(仲冬紀) 166, 174
중동지(中冬至) 23, 167, 179, 181, **184**
중동팔관회(仲冬八關會) 74, 75, 186, 195, **208**, 209, 210, 211
중력(中曆) 187
중만생종(中晩生種) 53
중사(中祀) 134, 162
중소기업의 날 221
중아함경(中阿含經) 209
중요무형문화재 149, 161, 225, 279, 280
중이또놀이 80
중종실록(中宗實錄) 212, 279
중주집(中州集) 248
중추(仲秋) 140, 202, 261
중권의 날 118
증명단(證明壇) 359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34, 212, 262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92, 100, 104, 105, 216, 305
지게 319
지게발걷기 **319**
지봉유설(芝峯類說) 232, 246
지신밟기 276, 278, 292
지신제(地神祭) 71, 83
지월(至月) 22, 166, 170, 171, 172, **174**, 175
지일(至日) 166, **184**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358, 359
지전(紙錢) 359, 360
지청천(池靑天) 222
지포(紙砲) 268
지한(至寒) **175**
지호(至沍) **175**
지환(指環) 306
직부전시(直赴殿試) 213
직부회시(直赴會試) 213
진괘(震卦) 172
진산(鎭山) 134
진양잡영(晋陽雜詠) 155
진연의궤(進宴儀軌) 92, 196
진요문(陳耀文) 36
진자(侲子) 263, 279, 281
진전원(晋傳元) 273
진주남강유등축제 121, 122
진주냉면 215
진주대첩 122
진주민속소싸움대회(晉州民俗-大會) 122, **155**
진주비빔밥 273
진찬의궤(進饌儀軌) 92, 215
집수리 24, 233, 251, 289, 352, 355, 366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35, 36, 39
징비록(懲毖錄) 212
짬매기 20
쪼보 278
쪽기차기 317

ㅊ

차검피(遮臉皮) 300
차사(茶祀) 75, 78
차이석(車利錫) 222

찬요(纂要) 236, 237, 240, 242, 243
참새잡이 **250**
참식나무 25
참회(懺悔) 186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 315
창덕궁영건도감의궤(昌德宮營建都監儀軌) 315
창부거리 65
창월(暢月) 166, 172, 174, **175**
채옹(蔡邕) 232, 240, 246
채제공(蔡濟恭) 143
책력(册曆) 23, 186, 187, 188
처용(處容) 157, 158, 159, 279, 280, 281
처용가(處容歌) 280
처용무(處容舞) 159, 263, **279**, 280, 281
처용문화제(處容文化祭) **157**, 158, 159, 279, 281
처용비(處容碑) 281
처용설화(處容說話) 279
처용암(處容岩) 159, 281
척구(踢毬) 319, 321
척국(踢鞠) 317, 319, 321
천금(天衾) 366
천금채(千金菜) 98
천기대요(天機大要) 251
천기점법(天氣占法) 296
천도(遷都)놀이 307
천도재(薦度齋) 358, 360
천둥소리 33, 296
천마산성(天魔山城) 360
천신(薦新) 32, 167, 180, 211, 212
천신제(薦新祭) 14, 71, 249
천연기념물 14, 16, 17
천왕당(天王堂) 162
천자나(天子儺) 261
천자문(千字文) 275
천중기(天中記) 243
철가리 264
첫눈 31, 33, 39, 52, 55, 88, 169
첫눈먹기 **88**
청년동지 184
청단(靑壇) 255, 292
청둥오리 14
청려장(靑藜杖) 117
청사(淸祀) 236, 240, **242**
청심원(淸心元) 246, 249
청어(靑魚) 167, 180, 211, 212, 213, 340
청어천신(靑魚薦新) **211**, 212, 213
청장력(靑粧曆) 166, 179, 186, 187
청죽(靑竹) 24, 281
청패(靑牌) 44
청학동유산록(靑鶴洞遊山錄) 142
청황패놀이(靑黃牌-) **44**
체기 317
체육의 날(體育-) 34, **119**
초감제 80
초동(初冬) 20, 30, 35, 36, **38**
초동(杪冬) 236, 237, 240, 241, 241, **243**
초례(醮禮) 293
초설(初雪) **39**
초진(初陳)이 311, 312
초학기(初學記) 37, 182, 236, 237, 242
초한(初寒) 36, **39**
촛농[燭膿] 271
촛농점[燭膿占] 24, **271**
총각김치 101
총명지(聰明紙) 255, 295
최경회(崔慶會) 151
최남선(崔南善) 30, 36, 65, 90, 118, 272, 275
최세진(崔世珍) 278, 317
최승로(崔承老) 261
최영장군(崔瑩將軍) 58
최자(崔滋) 188
최충렬(崔忠烈) 75
최치원(崔致遠) 274
최해(崔瀣) 261
추관지(秋官志) 299, 300
추기대제(秋期大祭) 202

추매 312
추물공연 80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 288
추제(秋祭) 202
추파성(秋播性) 54
축구(蹴毬) 319
축국(蹴鞠) 316, **319**, 321
축국(蹴踘) 319
축귀(逐鬼) 181, 193, 262, 269, 280, 281
축귀의식(逐鬼儀式) 24
축귀의식무(逐鬼儀式舞) 279, 280
축목(祝穆) 36
축신 90, 263
축월(丑月) 174, 236, **243**
축융(蹙戎) 319
축융(蹙融) 319
축치구(蹴雉毬) 317, 321
춘궁기(春窮期) 287, 363
춘기대제(春期大祭) 202
춘분(春分) 54, 289, 293, 294
춘제(春祭) 202
춘추(春秋) 171
춘추좌전(春秋左傳) 37, 173, 248
춘파성(春播性) 54
춘향전 283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232, 288, 289
충선왕(忠宣王) 179, 184
충이(充耳) 366, 367
치계미(雉鷄米) 52
치악산제 120
치악제 120
친영례(親迎禮) 85
칠사(七祀) **296**
칠석제(七夕製) 213
칠성신 90
칡부엉이 14, 16
침장고(沈藏庫) 100
침저(沈菹) 100
침채장(沈菜醬) 217

ㅋ

쿠키데이(Cookie Day) 170, **224**
크리스마스(Christmas) 179, 236, 346, 348
크리스마스 이브(Christmas Eve) 346
큰기러기 14, 17
키점[箕占] **271**
타구(打毬) 319, 321
타락(駝酪) 93
타락색(駝酪色) 93
타락죽(駝酪粥) **93**
탄도(呑刀) 263
탐라문화제(耽羅文化祭) **159**, 161
탕구자(湯口子) 91
탕신설로(湯新設爐) 92
태고종(太古宗) 353
태백산 천제단(太白山天祭壇) 134, 162
태백제(太白祭) **162**
태백천왕당(太伯天王堂) 162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287
태양어(邰陽魚) 338
태양태음력 363
태음신(太陰神) 261
태조실록(太祖實錄) 211
태종실록(太宗實錄) 191
태촌집(泰村集) 191, 249
태평어람(太平御覽) 278
택당집(澤堂集) 261
택리지(擇里誌) 140
터주 21, 42, 71, 74, 168, 185, 193
터주단지 43, 71
터주시루 74

터주신 32, 90
털쓰개[毛幘] 299
테기 317
토라크 93
토산(土産) 크리스마스 348
토화(吐火) 263
통무김치 101
통배추김치 101
통영오광대 292
통일산악제 134
통전(通典) 262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297

표

파[葱] 98
파종기(播種期) 14, 71
팔계재(八戒齋) 209
팔관(八關) 209, 210
팔관도감(八關都監) 75
팔관보(八關寶) 211
팔관재(八關齋) 209
팔관재경(八關齋經) 209
팔관회(八關會) 30, 74, 75, 146, 166, 186, 209, 210, 211
팔사(八蜡) 248
팔자(八禧) 249
팥시루떡 21, 71, 90, 167, 181
팥죽 18, 22, 23, 42, 167, 168, 170 172, 180, 181, 182, 184, 185, 186 187, 188, 192, 193, 194, 195, 199, 353
팥죽뿌리기 **192**, 193
팥죽점 23, 168, **193**
팥죽제 193
팥죽제사 193
팽대익(彭大翼) 242
팽이 322, 323
팽이찍기 323
팽이치기 24, **322**, 323
편수(片水) 89
평락관부(平樂觀賦) 274
평양감사놀이 308, 309
평양냉면 215, 216
포가면(布假面) 292
포구(抛毬) 321
포구악(抛毬樂) 321
폭간(爆竿) 281
폭장(爆杖) 281
폭죽(爆竹) 24, 234, 239, 255, 256, 268, **281**, 282
풍댕이 301
풍뎅이 299, 301
풍동이 301
풍두무(豐頭舞) 279
풍등놀이(風燈-) **196**
풍등이 301
풍령(風領) 299
풍정(豊呈) 189
풍차(風遮) 299, 301
풍토기(風土記) 295, 339
피견(披肩) 299
피마자대 269
피마호(皮馬虎) 300
핑딩 322
핑이 322

ㅎ

하날때놀이 308, 309
하늘다람쥐 17
하선동력(夏扇冬曆) 23, 166, 179
하어(荷魚) 338

하원(下元) 30, **45**
하원달점[下元月占] **45**
하지(夏至) 184, 186
하회별신굿탈놀이 147, 149, 150, 292
학무(鶴舞) 279
학생독립운동기념일(學生獨立運動記念日) **223**, 224
학생의 날(學生-) 223, 224
학연화대처용무합설(鶴蓮花臺處容舞合設) 263
학질예방 253, 256
한경지략(漢京識略) 294
한글날 34, 110, **111**, 112
한글학회 112, 113
한 더위에 털 감투 330
한라문화제(漢拏文化祭) 159, 161
한비자(韓非子) 327
한산도대첩 122
한산소곡주[韓山素麴酒] 105, 107
한서(漢書) 171, 257, 319
한설(寒雪)날 개똥 줍는다 329
한시외전(韓詩外傳) 85
한위육조백삼가집(漢魏六朝百三家集) 236
한유(韓愈) 237
한청문감(漢淸文鑑) 322
한파(寒波) 13
한훤차록(寒暄箚錄) 175
함흥냉면 215
합덕지(合德池) 169, 180, 191
합제사 85
합제선조(合祭先祖) 85
항풍차(項風遮) 299
해가 노루꼬리만 밖에 남지 않았다 333
해걸이 266
해동역사(海東繹史) 98
해동죽지(海東竹枝) 43, 44, 187, 190, 194, 322
해동청(海東靑) 311
해빙점(解氷占) 192
해삼살이 251
해양경찰의 날 114
해월(亥月) 30, 35, **39**, 71
해지킴 253, 269
해초점(海草占) **298**
해태 333
해태 철에는 개도 백원짜리 물고 다닌다 **333**
해행총재(海行摠載) 36
행경놀이 308
행두(行頭) 317, 319, 321
향사례(鄕射禮) 84, 85
향산제(香山祭) **83**
향악잡영(鄕樂雜詠) 274
향약 52, 85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98
향음주례(鄕飮酒禮) **83**, 84, 85
향촌의례(鄕村儀禮) 83
허균(許筠) 212
허그데이(Hug Day) **349**
허백당집(虛白堂集) 162, 274
허황후 325
헌강왕(憲康王) 159, 279, 281
헌공(獻供) 186
헌종실록(憲宗實錄) 299
현명씨(玄冥氏) 293
현방(懸房) 343
현종실록(顯宗實錄) 189
현충일(顯忠日) 222
혈단(穴壇) 202, 203
혈제(穴祭) 202, 203
협제(祫祭) **85**, 86, 87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37, 181, 185
192, 194, 199, 209, 295
혜저어(鞋底魚) 339
호구거리 65
호남읍지(湖南邑誌) 151
호랑이장가가는날 179, **184**
호미씻이 329, 330

호인희(胡人戱) 263
호한(冱寒) 243
호항(護項) 299
혹한(酷寒) 14, 196, 240, **243**, 286
혼돈(餛飩) 89
혼둔 89
홍만선(洪萬選) 174
홍석모(洪錫謨) 100, 166, 190, 198, 253, 292
홍익인간(弘益人間) 110
홍탁 339
화교(華僑) 263
화랑세기(花郎世紀) 320
화성문화제(華城文化祭) 143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143
화성행궁(華城行宮) 142, 143
화약사주(和藥使主) 93
화전(火箭) 255, 268, 281
화제어(華臍魚) 341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278, 279
화호(火壺) 91
화홍문화제(華虹文化祭) 142
환수생신앙(還壽生信仰) 359
환웅(桓雄) 110
환인(桓因) 110
황감사제(黃柑賜第) 213
황감시(黃柑試) 213
황감제(黃柑製) 167, 180, **213**
황과담저법(黃瓜淡菹法) 100
황병산(黃柄山)사냥놀이 315
황새 16
황양목(黃楊木) 362
황장력(黃粧曆) 23, 166, 179, 186, 187
황제거리 81
황제풀이 65, 226
황종(黃鍾) 38, 166, 170, 174, **175**, 183
황패 44
회남자(淮南子) 39, 52, 174
회양목 362
회향(回向) 186
효덕천황(孝德天皇) 93
후동점(厚凍占) 192
후염제 48
후한서(後漢書) 257, 320, 339
훈몽자회(訓蒙字會) 89, 100, 278, 317
훈민정음(訓民正音) 111, 112, 113
훈요십조(訓要十條) 75, 146
훈조(燻造) 102
훠궈르(火鍋兒) 91
휘양[揮項] 95, 263
휘항(揮項) 299, 300, 301
흉년에 윤달 든다 **363**
흉조(凶兆) 87, 88, 189
흥타령 323
희구(戱毬) 319
흰꼬리수리 14, 16
흰떡[白餠] 283, 395, 303

집필자

강등학(姜騰鶴) 강릉대학교
강성복(姜成福) 공주대학교
강순제(姜淳弟) 가톨릭대학교
강재철(姜在哲) 단국대학교
강정식(姜晶植) 제주대학교
강정원(姜正遠) 서울대학교
강혜경(姜惠卿) 숙명여자대학교
고부자(高富子) 단국대학교
고원규(高元圭) 진주국제대학교
구미래(具美來) 성보문화재연구원
권두현(權斗鉉)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사무국
권삼문(權三文) 경북구미시청
권오경(權五慶)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경남(金京南) 중앙대학교
김경섭(金鏡燮) 건국대학교
김경용(金敬容) 서울대학교
김구산(金龜山) 국제불교문화원
김기창(金基昌) 백석대학교
김기형(金基珩) 고려대학교
김낙효(金洛孝) 백석대학교
김덕원(金德原) 명지대학교
김도현(金道賢) 삼척하장고등학교
김동배(金東培) 연세대학교
김명자(金明子) 안동대학교
김민환(金玟煥) 서울대학교
김상보(金尙寶) 대전보건대학
김선풍(金善豊) 전 중앙대학교
김성례(金成禮) 서강대학교
김승찬(金承璨) 전 부산대학교
김용덕(金容德) 한양대학교
김이숙(金利淑) 중앙대학교
김재호(金在浩) 안동대학교
김정석(金正錫) 고려대학교
김종대(金宗大) 중앙대학교
김종태(金鍾泰) 국립민속박물관
김진순(金鎭順) 코리아루트
김철웅(金澈雄) 고려대학교
김태수(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김한기(金漢基) 유도회 국역원
김효경(金孝慶) 한남대학교
나경수(羅景洙) 전남대학교
남기심(南基心) 전 연세대학교
류상범(柳尙範) 유도회 국역원
류종목(柳鍾穆) 동아대학교
박경신(朴敬伸) 울산대학교
박록담(朴碌潭) 한국전통주연구소
박상규(朴相圭) 경원대학교
박성석(朴性錫) 경상대학교
박성실(朴聖實) 단국대학교
박인경(朴仁璟)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종오(朴宗吾) 전남대학교
박종익(朴鍾翼) 충남대학교
박호석(朴虎錫) 농협대학
상기숙(尙基淑) 한서대학교
서영대(徐永大) 인하대학교
서해숙(徐海淑) 전남대학교
서혜경(徐惠卿) 전주대학교
선병윤(宣炳崙) 전북대학교
성병희(成炳禧) 전 안동대학교
송화섭(宋華燮) 전주대학교
신경숙(愼慶淑) 한성대학교
신하령(申河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심상교(沈相敎) 부산교육대학교
심승구(沈勝求) 한국체육대학교
안재철(安載澈) 단국대학교
안지원(安智源) 서울대학교
오세길(吳世吉) 동아대학교
유재복(柳在福) 남원대산초등학교

유정칠(劉正七) 경희대학교
유철인(庾喆仁) 제주대학교
윤덕인(尹德仁) 관동대학교
윤숙경(尹淑澗) 전 안동대학교
윤숙자(尹淑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이관호(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이승수(李承洙) 중앙대학교
이영수(李瑛洙) 인하대학교
이영옥(李永玉) 부산여자대학교
이옥희(李玉姬) 전남대학교
이유나(李泑娜) 국립민속박물관
이정재(李丁宰) 경희대학교
이종철(李鐘哲) 한국전통문화학교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이창희(李昌熙) 고려대학교
이해준(李海濬) 공주대학교
임규호(林奎晧) 서울대학교
장상교(張庠敎) 국립민속박물관
장정룡(張正龍) 강릉대학교
장창익(張昌翼) 부경대학교
전경욱(田耕旭) 고려대학교
정병삼(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정승모(鄭勝謨) 지역문화연구소
정영훈(鄭榮薰) 한국학중앙연구원
정현미(鄭賢美) 국립민속박물관
정형호(鄭亨鎬) 중앙대학교
정호기(鄭滸基) 전남대학교
조현설(趙顯卨) 서울대학교
조후종(趙厚鍾) 전 명지대학교
좌혜경(左惠景) 제주대학교
주영하(周永河) 한국학중앙연구원
지두환(池斗煥) 국민대학교
진성기(秦聖麒) 제주민속박물관
천진기(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천혜숙(千惠淑) 안동대학교
최덕원(崔德源) 전 순천대학교
최순권(崔順權) 국립민속박물관
최운식(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최원오(崔元午) 서울대학교
최인학(崔仁鶴) 전 인하대학교
최 호(崔 虎) 율곡교육원
최호석(崔皓晳) 고려대학교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한복려(韓福麗) 궁중음식연구원
함한희(咸翰姬) 전북대학교
홍성훈(洪性薰) 가락고등학교
홍태한(洪泰漢) 중앙대학교
황경숙(黃京淑) 부산대학교

편찬팀

기획 · 진행: 최명림
편 수 원: 김창호, 박선애, 윤수경, 이유나
감 수: 임동권, 장주근

한국세시풍속사전

겨울편

발 행 일	2006년 12월 18일
발 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전화 02-3704-3114)
	www.nfm.go.kr
기 획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한국세시풍속사전편찬팀
윤문 · 교열 · 교정	김형윤 편집회사
제 작	임학래
디 자 인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152-000098-01
Published	Dec 2006
Publishe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www.nfm.go.kr
Production	Design intro / www.gointro.com